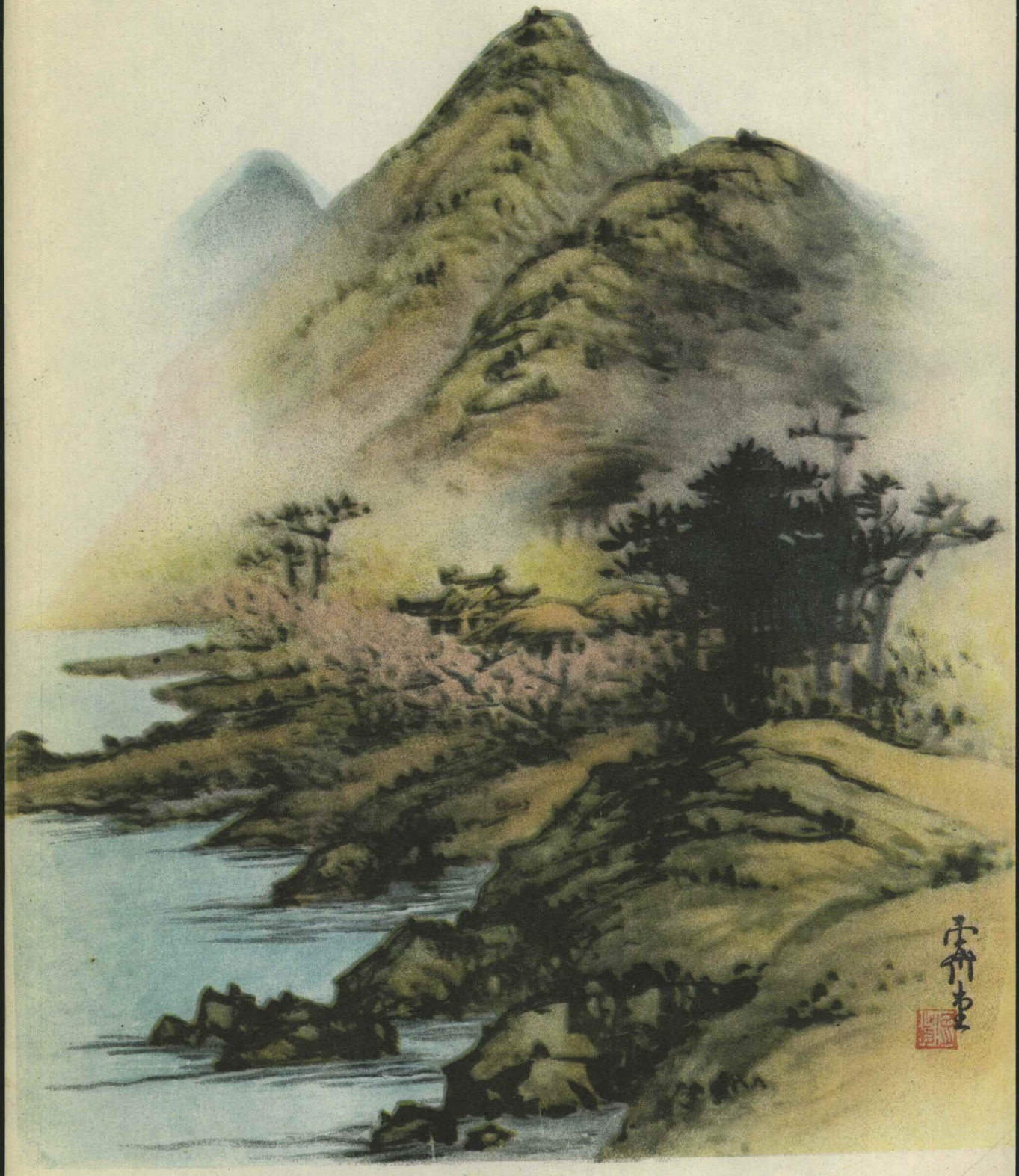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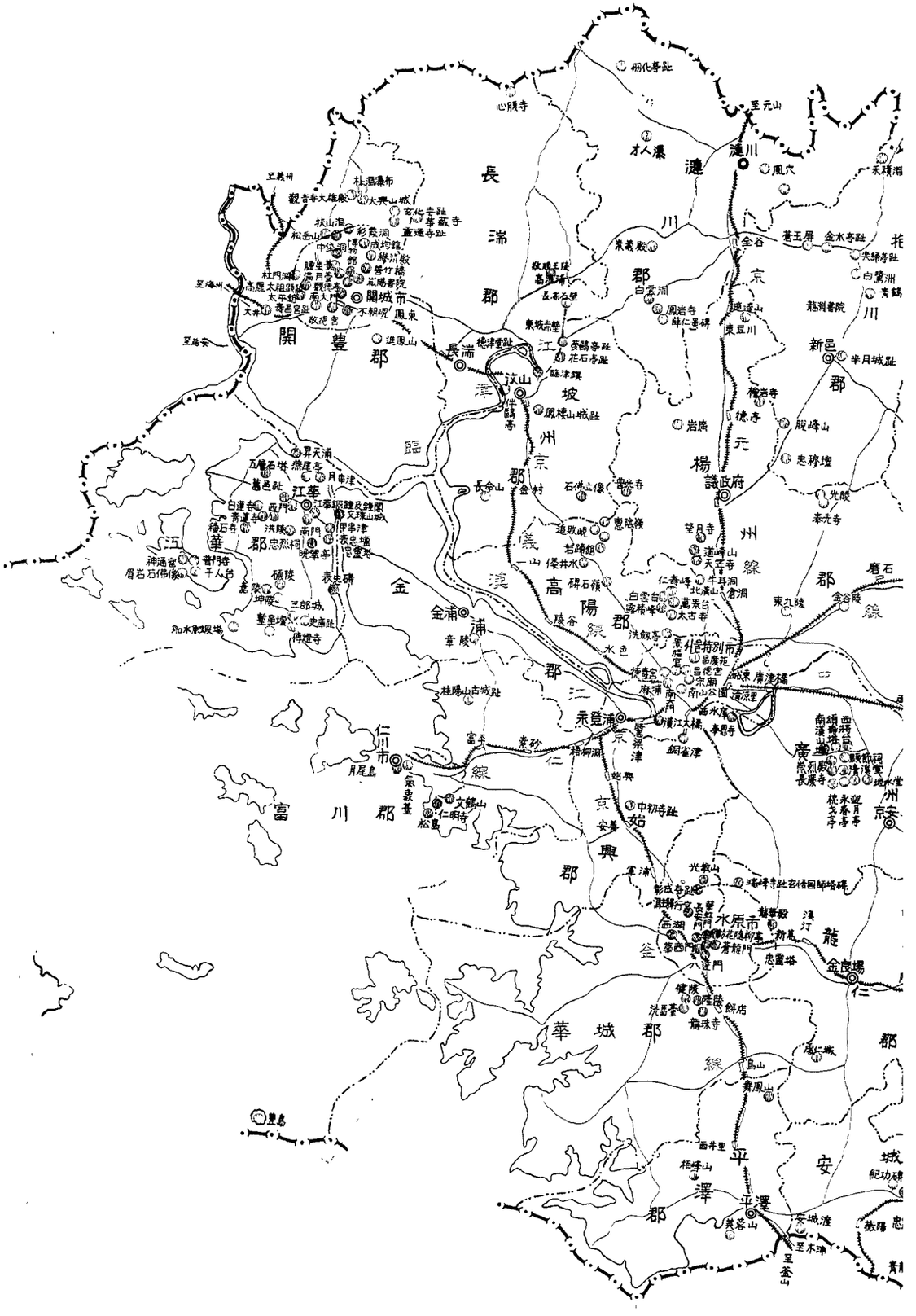
第三部

名勝・古蹟




長湍郡
開豐郡
江華郡
金浦郡
富川郡
仁川市
京畿道
忠清道
全羅道
慶尚道
江原道
黃海道
咸鏡道
平安道
開城市
漢城府
水原市
議政府
高陽郡
楊州
抱川
加平
楊平
驪州
利川
陰城
忠州
堤川
原州
寧越
平昌
旌善
江陵
三陟
蔚珍
平澤
安城
龍仁
華城郡
始興郡
安養
永登浦
金良場
廣州
光州
振威
水色
衿川
果川
南陽
城東
廣津橋
漢江
臨津
德津
長湍
汶山
坡州
金村
金谷
金浦
陵谷線
京義線
京仁線
京釜線
京元線
江華線
議政府
楊州
廣州
龍仁
安城
平澤
華城
始興
仁川
富川
金浦
江華
開城
長湍
臨津
漢江
高陽
水原
金良場
永登浦
廣津橋
城東
水色
衿川
果川
南陽
振威
利川
驪州
陰城
忠州
堤川
原州
寧越
平昌
旌善
江陵
三陟
蔚珍
加平
楊平
抱川
豐島
月尾島
松島
文鎖山
仁明寺
中初寺趾
始興
安養
光教山
彰成寺趾
龍珠寺
健陵
隆陵
洗馬臺
餅店
八達門
華西門
西湖
華虹門
蒼龍門
忠臺塔
新基
龍華寺
鳳凰山
島山
長城渡
至木浦
至釜山
英谷山
栖峰山
西井里
紀功碑
薇陽
青
至義州
至楊州
至高安
至元山
至平昌
至釜山
至木浦
心鏡寺
才人瀑
杜鵑瀑布
大興山城
觀音寺大雄殿
玄化寺趾
寶藏寺
直通寺趾
松岳山
朴淵
中宗胸
成均館
擎天樹
碧竹橋
紫陽書院
杜門洞
表忠壇
太平館
南大門
大井
齊禹宮趾
敬德宮
不朝峴
風東
退溪山
德津營趾
英陽亭趾
花石亭趾
臨津鎭
屈楔山城趾
昇天浦
五龍石塔
燃犀亭
月串津
慕華趾
江華
白連寺
西門
江華城鐘及鐘閣
文殊山城
伊串津
表忠壇
洪陵
南門
忠烈祠
曉望亭
神通寺
普門寺
千人岩
眉岩石佛像
穆陵
坤陵
三郎城
璽皇壇
史庫趾
傳燈寺
知水梁坂場
桂陽山古城趾
章陵
富平
素砂
楡柳洞
月尾島
文鎖山
仁明寺
松島
東義殿
敬陵
長陵
白雲洞
圓岩寺
薛仁貴碑
逍遙山
東豆川
龍洞書院
東城赤壁
石佛立像
望月寺
迎恩門
惠陵橋
若蹄館
優井水
碑石嶺
仁壽峰
牛耳洞
北漢山
倉洞
白雲台
萬景台
太古寺
天等寺
蓮峰山
陵谷
洗劍亭
東塔
昌德宮
宗廟
南山公園
麻浦
西水庫
漢江大橋
奉國寺
銅雀津
楡柳洞
始興
中初寺趾
光教山
彰成寺趾
龍珠寺
玄化寺趾石佛圓融塔碑
華西門
西湖
華虹門
蒼龍門
八達門
忠臺塔
新基
健陵
隆陵
洗馬臺
餅店
鳳凰山
島山
栖峰山
西井里
英谷山
長城渡
至木浦
至釜山
岩廣
德亭
脫峰山
忠穆壇
光陵
奉元寺
新邑
半月城趾
龍洞書院
白鷺洲
青鶴
東九陵
金谷驛
磨石
廣津橋
漢江
南漢山城
廣州客舍
永明寺
奉恩寺
地水堂
長慶寺
觀稼樓
清漢樓
南漢山城
西門
南門
北門
東門
水原華城
華虹門
西湖
蒼龍門
八達門
華西門
忠臺塔
新基
龍華寺
鳳凰山
島山
長城渡
至木浦
至釜山
英谷山
栖峰山
西井里
紀功碑
薇陽
青
豐島

第一編 名勝·古蹟

第一章 名勝古蹟篇

開城市

第一節 高麗略史

一、高麗의 建國

新羅가 二十九代 武烈王으로 부터 近二百年間 太平時代의 美夢에 醉해서 歷代王들의 國政怠慢에 따르는 奸臣輩出과 黨派相爭의 必然的 結果로서 國內에는 群盜의 烽起를 보고 國外에서는 新羅討伐을 노리는 外寇의 跳梁으로 國運이 기우러 亡國에 이르게 된 經路의 輪廓은 임의 常識的으로 알수있는 問題라고 생각된다。

勿論 이것은 新羅滅亡의 遠因이요 亡國之兆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던 中에 後百濟의 甄萱 泰封 弓裔의 叛亂에 뒤이어 僅僅 維持해 오던 社稷이 백없이 문어진 것이다。

그러나 弓裔의 泰封國도 三日天下의 王國이되고 王建의 鐵原 弓裔의 故宮 布政殿에서 王位에 올라 國號를 高麗國 建元을 天授라 했다。

때는 西紀九一八年 新羅五十四代 景明王二年 戊寅六月十五日이었다。

그러나 예로부터 王權이 바뀌면 遷都하는 것이 例로도 되어있고 또 그러지 않고는 옛勢力의 殘滓를 一掃하기가 힘들었든 모양이다。그리하여 王建도 卽位한지 半年에 國都를 松嶽으로 옮기었다。松嶽(松都 | 開城)은 王建과 緣故의 땅이니 그가 일즉이 弓裔밑에 있을 때 松都附近에서 城主노릇을 했다는 說도 있다。

儒學

王建은 武官出身이었으나 佛道에 對한 信仰이 깊었다。그러면서도 儒學에 關心을 갖어 文武의 政策을 併用해서 中庸의 治政을 했다。

地理的으로 보아 高麗의 建國事業은 至難한바 있었다。언제나 말성인 北의 中國大陸의 朝廷이 變할때마다 神經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고 또 兵火를 입지 않으면 안되었다。그러나 太祖王建의 遺志를 받아 歷代의 王들은 善政을 베풀었고 民心도 安定이 되어 三十四代 四五五年의 王業을 繼承했다。

高麗가 五百年間에 許多한 英主와 文武의 名臣을 내어 우리 民族文化에 끼친바 功績은 實로 크다 할 것이다。

이제 麗朝五百年間의 政治的 動向을 槪觀하면 太祖王建의 文武兼有의 施政方針에 不拘하고 新羅時代 부터 깊이 뿌리박힌 佛教의 政治關與의 弊는 一朝에 없어지지 않어 太祖外에도 第四代 光宗은(西紀九五〇—九七五)貞觀政要를 손에서 떼이지 않았으며 文治에 注力을 하였고(末에는 結局佛教에 기우렸지만)六代王 成宗(西紀九八二—九九七)도 國子監을 設置하여 縉紳의 子弟를 教育하고 九齋을 세워 後進의 薰陶에 主力을 傾注했었다。後에도 第十六代王 睿宗(西紀一一〇六—一一二二)은 僧侶들의 政治浸潤이 날로 甚해감을 憤慨해서 儒學奬勵에 겨를이 없었다。十八代 毅宗(西紀一一四七年—一一七〇年)도 그 遺志를 받아 排佛崇儒를 提唱 民心을 儒에로 이끌고저 努力을 했다。

그렇지마는 佛教의 勢力은 조고마한 틈만있어도 宮中에 밀려들어 僧

倡政治를 免치 못하다가 二十五代 忠烈王(一二七五－一三〇八)代에 이르러 비로소 均衡이 잡힌 感이 있다。儒敎를 佛敎勢力에 挑戰케 한 功勞者는 當代의 名儒 安裕니 朝鮮의 書院創始者 일뿐더러 宋學輸入의 功勞者다。實로 高麗의 儒敎는 이 安裕와 그의 弟子들에 依해서 普及된 것이다。師儒로서 알려진 新羅의 薛聰 孤雲 崔致遠 李朝의 名儒 退溪 李滉 尤庵 宋時烈 栗谷 李珥等과 한께 安裕의 이름은 燦然히 빛나고 있다。그리고 東洋에 그 이름이 떨친 儒學이오、名相이오、忠臣으로 일러진 圃隱 鄭夢周와 같은 偉人을 내인 것도 高麗朝다。

二、高麗와 佛敎

이렇듯 儒學으로 佛敎勢力에 對抗시키고저 했음에도 不拘하고 前述한 바와 같이 高麗의 佛敎는 建國以來의 輸入이 아니라、實로 三國時代부터 傳承된 것이었다。

特히 高麗로 하여금 佛敎國이 되게 한 데는 高麗가 新羅를 武力으로서 征服했다느니 보다도 新羅가 高麗의 新興勢力에 讓步되었다는 事實이 至大한 原因이 되어 있으니 卽 高麗는 新羅로부터 文化 政治 各部門에 걸치어 掠奪이 아니라 讓與를 받았고 심지어 新羅王은 文武高官의 大部分과 百姓들 까지를 데리고 三十里長蛇陣을 이루어 麗都 松嶽으로 向했다는 記錄까지 있는 것이다。高麗는 新羅로부터 國權과 百姓과 文化의 繼承을 받는 同時에 佛敎의 傳承도 받았던 것이다。

國家에 凶事가 있거나 惡性疾病이 流行할 때 佛神에 依據하면 모면을 한다는 所謂 裨補寺利說도 其實은 新羅에서부터 그대로 傳承된 것이다。

이러하여 上記의 諸王들이 佛에 歸依함은 보람도 없이 高麗는 佛敎로서 國治의 大本을 삼은 感이 있으며 朝鮮五千年史를 通해서 高麗佛敎는 그 가장 爛熟期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高麗滅亡의 原因도 實로 이 佛敎에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高麗佛敎가 우리의 文化를 世界에 宣揚케 한 偉大한 任務를 했다는 것은 不幸中 幸이라 하지않을 수 없으니 大藏經板의 雕刻은 實로 우리 文化를 最高로 志向시킨 重大한 모멘트가 될 것이다。高麗의 이 大藏經刊行은 第七代王 穆宗(西紀一二五一年)까지에 四回에 걸친 事業이었다。三回刊行은 十三代 宣宗(西紀一〇八四－一〇九四三年)이었는데 卷數四千에 達했고 四回째는 藏經刊都監을 두어 十六年이라는 時日이 消費되었다。

그러나 이 佛敎의 隆盛이 高麗滅亡의 根本原因이 되었다는 것은 指摘한 바와 같다。

卽 高麗末 三十一代 恭愍王은 柔懦姑息한 性格으로 一意 佛敎에 빠져 歷代의 妖僧 辛旽에게 國權은 一任한듯 싶이까지 했다。

辛旽은 그 天性이 陰謀的이며 淫蕩하기 짝이 없고 訶附하기에도 長技가 있는 爲人이었다。例를 들면 佛神에게 至誠을 다하면 無子鬼神을 制禦하며 受胎하고 得男한다는 妖說을 散布하여 王族을 비롯한 高官의 夫人들이 續續雲集하였다。

그리고 事實辛旽에게 다닌 婦人의 大部分이 受胎를 했고 또 得男도 했다。所謂 祈禱室이라는 暗室에는 他人은 絶對不可侵으로 이 祈禱室이 其實은 辛旽의 默行室이 였든 것이다。

그러나 逢辱을 當하고도 世上의 體面上 婦人들은 이를 隱蔽했기 때문에 第二第三의 犧牲者가 續續생겼든 것이다。辛旽에게 恭愍王은 師傅로 就遇했으며 淸閑居士의 號를 賜했고 眞平候에 封했었다。

國運이 기울면 忠臣이 나지않는다 하지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 수가 없는 法이다。恭愍王에게는 任忠輔같은 忠臣이 있었다。그러나 忠臣의 諫이 되려 謀叛으로 對했고 妖僧辛旽의 權勢는 날로 떨치어 王을 代身하여 百官의 陞黜을 行했고 忠烈高臣의 誅流를 마음대로 했다。그렇것만 王은 되려 그를 僉儀司事의 大官에 陞任시키는 同時에 驪峰宮을 封했다。王은 이 代價로서 辛旽으로부터 酒色의 歡樂을 받는 것이었다。

때마침 王后 魯國公主가 難産으로 失命했다。妃에 對한 王의 寵愛는 度를 지난 바있어 王의 悲嘆은 正常을 잃은 것이였다。王은 亡妃의 靈을 慰勞키 爲해서 法事로 七日에 한번式 佛祭를 지나는데 한번 法事에 數千金을 消費하기를 三年을 繼續했다고 하니 이로 因해서 國庫가 기우려졌다는 것은 無理가 아니다。

恭愍王으로 하여금 이렇게 酒色과 佛事에 專念케 한데는 辛旽의 謀策이있였으니 妾牟尼奴의 子息을 王子로 假裝하려든 것도 그 端的表現中의 하나다。그러고 不幸한일에는 恭愍王에게는 王子가 없어서 益妃를 美少年과 相姦케 하여 慣姙하자 이 秘密의 漏說을 두려워 하고 되려 少年이 선손을 써서 大醉中에 있는 恭愍王을 죽였다。

이것이 後世에 傳해지는 恭愍王의 最後다。아니 高麗王家의 最後다。그러나 우리들은 이 事實을 어느 程度로 믿어야 할 것인지 자못 疑心스럽다。그것은 恭愍王이 事實上 高麗의 末王이오 이 恭愍王의 暴政이 李太祖「李成桂로 하여금 王權을 탐해서가 아니라 救國濟民하기 爲해서의 謀叛」이였다는 理由를 合理化시키기 爲해서 어느 程度 忠實히 謀作된 것이 아닌가 하는 點이다。

勿論 麗朝는 國運이 기울었든 것도 事實이오、恭愍王이 辛旽을 過信한 것도、王后의 佛事에 過大한 國庫를 기우린 것도 事實일 것이다。그리고 紅頭賊의 戰亂과 倭寇海賊의 侵入等 麗朝는 바야흐로 風前燈火의 格이였음도 事實인 同時에 우리는 恭愍의 爲人이 그렇게 우매치 않였든 것과 杜門洞의 麗末忠臣인 七十二人의 科擧에 不參했다는 事實같은 것은 恭愍王에게 아직도 그만한 王權이 있였다는 것과、民心의 離反이 그다지 甚치않였든 것을 看取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고 또 한가지 여기에 恭愍王의 治世가 반듯이 惡政만이 아니였다는 것과 王의 爲人이 우매치 않였든 證據로 二十五代 忠烈王以後로 高麗朝는 元의 皇女를 王妃로 삼아서 元의 干涉의 甚하던 過去 七、八十年間의 惡習을 淸算코저 그 때까지 使用하던 元의 年號를 恭愍王이 廢止한 것과 元에게 蠶食되었던 國土를 着着 回收한 事實、崔瑩 李成桂等의 武將의 德이라고는 하지마는 紅頭賊과 倭賊을 擊退한것 等等은 恭愍王을 변명할 好資料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李朝뿐이 아니라 高麗朝에서도 弓裔에 代身한 王建의 行爲를 合理化시키느라고 弓裔의 行蹟을 과장한 感이있다、그것은 어쨌던 이러하여 恭愍王이 쓸어지고 幼主 禑王이 登位、다지 三日天下의(其實 李成桂가 세운 王)二代가 계속되다가 恭愍王의 死後 十四年에 李氏朝鮮이 誕生한 것이다。

三、高麗의 滅亡

麗朝의 最後와 李朝의 誕生經緯를 좀 더 알기 爲해서 善竹橋事件과 杜門洞事件을 알 必要가 있을 것이다。

善竹橋의 流血事件

麗末을 이야기 하자면 文臣에 鄭夢周 武臣에 李成桂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武將에 崔瑩이 있으나 이 名將은 이미 年老해서 事實上 麗末에는 李鄭의 文武兩臣이 龍虎相搏格으로 對時되어 있었든것이다。

먼저 鄭夢周는 어떤 사람인가。

圃隱 鄭夢周는 기우려가는 麗朝를 버티고서 三十年間을 王室에 이바지한사람이다。깊고 넓은 學識에 지극한 忠義 여기에 松竹 같은 節介만 가춘다면 稀代의 名臣임이 틀림 없다。善竹橋事件으로 그의 節介 松竹만 못지 않음이 立證되였다。

夢周는 文臣이다。그보다도 卓越한 學者였다。그의 性理學說은 元明은 勿論 日本에 까지 널리 알려져 日本海賊이 頻繁하게 兩國을 侵犯해서 數次 抗議를 했으나 日人들은 聽而不聞이였다。이에 朝廷에서는 鄭夢周를 九州에 抗議使로 特派한 일이 있었거니와(西紀一三六七 恭愍王代)그때 日本의 太宰府探題 今川了俊은 圃隱과의 會談瞬時에 壓倒되어 그 자리에서 謝罪하고 日人學者들이 雲集해서 講話를 請하고 있다。

(이는 日人들의 記錄에도 歷然히 남어있다)。

언제나 高麗에게는 말성꾼이던 元에서도 鄭夢周가 가서 解決짓지 못한 事件이 없었으니 元이 亡해서 北元이되고 元자리에 明이 섰을 때도 明에게서 보낸 使者를 麗朝에서 잡아죽이어 그 謝過次로 간 特使를 이번에는 明에서 잡아 投獄했다。中國이라면 自進해서 가던 使臣도 뽑히는 사람마다 賂物로 모면을 한판에 單身 自願해서 간것도 鄭夢周였다。

明에서는 夢周를 보자 더 再言을 못하고 解決을 지었다。

名相 鄭夢周의 名聲은 이렇듯 놀라운 바 있었다。

또 그에게는 德이 있었다。

武官으로서 이 鄭夢周의 名聲과 겨눌 사람에 崔瑩이 있었다。그러나 崔瑩은 그 때이미 七旬을 넘은 老將이어서 實權은 李成桂가 잡고 있고 崔는 元老格이었다。그러고 또 李成桂의 武勳도 崔瑩에게 지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듯 李成桂에게도 名將의 稱號로 불려지게 되었다。

또 事實에 있어서 그의 功績은 컸으니 女眞討伐로 雙城을 回收했으며 二十萬의 紅頭賊을 殆半이나 무찔러 武名을 날리었고 南海를 侵犯한 海賊團 倭賊을 擊退한 後로는 事實上 武官 李成桂는 文官 鄭夢周와 함께 기우러가는 高麗國을 버티는 두개의 主柱였든 것이다。이렇듯 名聲이 夢周와 겨누게 되자 成桂는 一躍 位로 보아 百官의 上位인 都總制使에 올랐고 이때부터 文官 重臣인 李穡 等에 對한 成桂의 威壓은 날로 甚해갔다、敢히 夢周에게 까지는 손을 못 내밀었으나 文官諸臣에 對한 加壓은 곧 夢周를 制禦함과 같았다。그러고 夢周도 機會만 있으면 李成桂의 野心을 분쇄해서 王宅을 盤石우에 놓자하였으나 그것은 成桂의 部下인 趙浚、南誾、鄭道傳 等에 依한 王室顚覆陰謀를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李成桂와 崔瑩과는 外交政策에 意見을달리 하고 磨擦이 甚했다。元이 北方으로 쫓기고 明이 天下를 잡으매 李成桂는 新興勢力인 明과 結託하자는 것이오、崔瑩은 北元(元)과 이미 舊交도 깊고 明의 態度가 오만하니 元과 더부러 明을 치자는 것이었다。그래서 禑王도 崔瑩의 뜻을 옳다고 하고 明이 쳐들어오기 前에 攻勢를 取하기로 했다。

그러나 崔瑩은 이미 七旬이 넘은지라 都城에 남어서 總參謀가 되고 左軍都統使 曺敏修와 右軍都統使 李成桂의 兩將麾下에 小壯武將들이 配置되었다。兩軍을 合해서 五萬 騎兵二萬 總勢 十萬이라 일컬었다。

當時의 中國政局은 明이 일어는 났으나 아직 整頓이 안됐고 北에는 北元이 危脅을 함으로 元과 高麗가 挾擊만 한다면 明을 降服시키기 쯤은 容易한 일이었다。崔瑩의 案은 그래서 高句麗時代의 國土인 滿洲一部를 回收하잔 것이었다。

이 崔의 計劃은 亦是 옳았다。그리고 그것은 또 可能한 絶好의 機會기도 했었다。이 計劃은 또 鄭夢周의 案이기도 했다。中國이 統一이 되었고 國礎가 잡힌 동안에는 到底히 失地를 回收할 機會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遠征軍이 떠났다。

이 遠征은 여러 가지 角度로 보아 意義깊은 擧事였다。朝鮮은 古來로 늘 受動的이었다。이 前例를 깨트리어 저쪽에서 出兵치 않을 때 遠征軍이 떠난 것이다。大槪 成功할 수 있는 機會였고 成功만 한다면 기우러가던 高麗의 不運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滿洲의 一部는 우리 國土로 돌아 올 것이 었다。

政府가 遠征軍을 보내자 國民들의 聲援도 宏壯한 것이었다。늘 가마니 앉었다가 때만 두들겨 맞던 百姓들은 이쪽에서 치러간다는 것만으로도 痛快해 했다。

「遠征軍萬歲!」

거리에는 遠征軍을 보내는 歡呼로 찼다。

그러나 이 歡呼가 찾기도 前에 大軍이 國都로 殺到해 오는 것이다。王室의 狼狽는 말할 것도 없었지만 國民들의 失望은 여간한것이 아니

었다。國民은 啞然했다。이렇게 쉽게 退하고 돌아 올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든 것이다。

그러나 ——

國民들은 눈을 疑心했다。國都로 殺到하는 大軍은 明軍이 아니라 國軍이었다。退殘兵? 그러나 그도 아니었다。敵을 向해서 쏜 화살이 이쪽에 心臟에도 내달은 것이다。遠征軍의 兩將은 大軍을 몰고 祖國의 王宮을 처들어 온 것이다。

그제야 國民들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그 泰山처럼 믿어온 名將 李成桂의 謀叛——李成桂는 鴨綠江岸 威化島까지 갔다가 曹敏修와 손을 잡고 宿願이던 王權顚覆을 꾀하고 逆襲을 한 것이다。

李成桂는 먼저 王宮에 들어와 崔瑩을 잡아 高陽으로 귀양을 보내고 禑王을 廢하고 九歲의 昌王을 세웠다。禑王은 殺害 되었다。

이날 부터 高麗의 政權은 完全히 李成桂의 手中에 있었다。그는 다시 昌王을 廢하고 恭讓王을 세웠다。反對黨은 거의 掃蕩되었으나 鄭夢周에 對한 百姓의 信望은 一朝에 滅할 道理가 없어 機會만 엿보고 있는 처지다。

不安과 焦燥의 몇해가 흘러 恭讓王 四年三月을 맞이했다。

李成桂는 明나라에 갔던 王子를 맞으러 海州에 갔다가 成桂의 아들 芳遠의 急報로 李成桂도 急據國都에 돌아왔다。돌아는 왔으나 아직도 夢周에 對한 百姓의 信望 앞에는 敢히 夢周를 處斷치 못하고 李一家의 家族會議를 열어 最後方針가 定해졌다。

鄭夢周에게 뜻밖에 成桂의 兄되는 元桂와 그 사위인 卞仲良이 찾어와서 家族會議의 決定을 密告해 주었으나 夢周에게 武力의 背景이 없었다。그는 그 때는 이미 모든 것은 覺悟하고 泰然히 落傷慰問次로 成桂의 집을 찾어가서 人事를 하고 돌아오던 途中、善行橋下에 芳遠이 伏兵시켰던 趙英植、高品、李敷等의 鐵鎚에 맞어 쓸어지고 말았다。

그 때 同行했던 錄事中의 一人인 全慶祚도 運命을 가치 했다。夢周가 錄事二人에게 먼저 돌아가기를 數次 勸한것으로 보아 그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覺悟했든 것이 分明하다。數次의 勸告에도 全慶祚는 듣지 않고 혼자 남아 同行을 했다가 夢周와 運命을 가치 한 것이다。

善竹橋에는 五百年後인 오늘날까지도 忠血의 痕跡이 남어있다。傳커니와 現在 通行하는 다리는 鄭圃隱의 末裔 鄭好仁이、

「忠臣의 피를 우리 庶人이 잊지 밟을수 있느냐」

하여 自費로 논 다리다。

四、高麗의 王都

新羅에 反感을 품고 일어난 弓裔의 泰封國을 쓸어트리고 일어선 麗太祖王建의 第一都邑地가 泰封國의 國都였던 鐵原 이였다함은 別項에서도 밝히었거니와 六個月後 일즉이 乃父王隆이 다스린 일도 있고、王建이 弓裔밑에서 勃禦塹城이라는 城의城主로도 있던 緣故의땅 松嶽에 定都한 後로는 事實上 松嶽 卽 松都가 高麗朝의 王都였든 것이다。그러나 高麗朝는 開國三百十五年 되던 해 蒙古의 侵略에 견디다 못해서 江華島로 遷都을 했다가 三十九年間(自 高宗二十年 壬辰六月 二十日 至 元宗十二年 庚午 五月二十七日 還都江華에서 施政을 했고 그 後二十五代 忠烈王(西紀一二七五-一三〇八)十七年 庚寅 十二月十八日 카란哈丹兵亂을 避해서 또 江華로 社稷을 옮겼든 일이 있어 江華는 事實上의 高麗朝의 別都이기도 했다。이제 이를 要約하면、

第一都 鐵原 自西紀九一八年六月 至九一九年一月 半年間

第二都 松都 自九一九年 至麗末

第三都 江華 自二十三代 高宗二十年(西紀一二三四)三十九年間 至二十四代 元宗十二年(西紀一二七一)

이렇게 되는 셈이다。鐵原은 이미 泰封國王都篇에서 說話한바 있고 高麗朝는 卽位만 했다 뿐이지 事實上 國都를 삼은 것도 아닌지라 三十九年間을 除한 四百三十餘年間의 國都인 松都로 붓을 옮기려한다。

이제 別項으로 들어가기 前에 附言해둘것은 麗朝에서는 王都以外에

도 西京(平壤 一名 柳京) 東京(慶州) 南京(漢陽)等의 別京이 있고 松都는 中央이라 하여 中京이라 일컬었다。

五、高麗史上의 慘劇 杜門洞事件

麗臣 李穡

어제 까지의 高麗王朝 重臣 李成桂는 벌서 一個의 臣이 아니었고 그는 朝鮮半島의 새로운 統治者였다。 그의 私邸는 이미 殿이 되었고 그의 이들은 成桂가 아니라 太祖였다。

일즉이 그는 李成桂時代——安邊에서 一萬의 敵이 울고 겨울이 깨지는 꿈을 꾼 일이 있다。 成桂는 이 꿈을 주인집 老婆에게 이야기 했더니 그런 名夢은 雲峰山中에 高名한 大師가 있으니、그에게 解夢을 해 받음이 좋겠다 하여 成桂는 雲峰山으로 大師를 찾어 갔다。 大師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더니、

「萬家의 닭소리、千家의 다듬이 소리、그것은 高位에 올라 天下에 뒤떠들 前兆로、꽃잎이 날렸으니 열매를 맺을 것이오 떨어지는 거울은 만듯이 큰 소리를 낼 것이니 이 또한 世上에 큰이름이 날 吉夢입니다。」

하고 相을 보더니 果然 公은 王의 相이라 한 일이 있어 一介 放浪武士이던 成桂는 이 吉夢에 커다란 希望을 붙였었고 明을 치러가던 길에 義州에서 占을 치니 占쟁이가 글자를 짚으라 한다。 成桂가 집은 글字는 問(字)였다。 占쟁이의 字解는

「門字에 口字니 口字를 바른便에 붙여도 君、왼便에 붙여도 君、당신은 今後 임군이 될것이다。」

했다。 安邊에서의 解夢과 義州에서의 字解、다 같이 自己가 王이 된다는 말은 成桂에게 一縷의 希望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못해서 그는 다시 一乞人에게 돈을 주어 亦是 그 老婆에게 占을 치우고 問字를 짚으라 일렀다。 그랬드니 그 老婆가

「口가 門 앞에 있어니 그대는 乞食할 八字로다。」

하여 成桂는 그제야 그 占卦를 믿었다 한다。

勿論 이것은 後世에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太祖가 安邊 解夢 자리에 釋王寺를 세웠고 그 後 雲峰山中의 大師가 無學이어서 太祖가 王位에 올른 後에도 다시 찾어 漢陽遷都를 相議한 點等 全혀 僞作의 傳說만도 아닌 것 같다。

어쨌든 李成桂는 臣下로서 王位에 올려 朝鮮半島의 新制覇者로 君臨했다。

歷代의 모든 新制覇者는 舊朝의 殘滓肅淸에 全力을 했으니 이 例外로 高麗太祖王建이 있을 뿐이다。 李太祖도 이에 着眼하며 麗朝를 그대로 繼承받아 國名도 高麗로 하고 國都도 松都에 그대로 두어 麗朝의 舊臣들도 그대로 襲用하려 하였으니 麗朝時代의 同僚도 親交가 두텁던 李穡에게 使者하여 過去를 淸算하고 新朝에 獻身키를 要請한 것도 그 表現의 하나였다。

李穡은 麗朝의 重臣이였고 그의 名聲은 麗末을 뒤흔들었다。 博學博識일 뿐더러 高潔한 人格은 人民의 崇慕를 一身에 모으고 있었다。 더욱이 名臣鄭夢周가 太祖의 鐵鎚를 맞어 쓸어진 以後의 麗代重臣으로는 李穡이 그 頭目이었다。

李穡도 사람이다 聖賢도 從俗하랬다고 그 또한 王朝가 바뀐 以上 孤節을 지키어 生命을 危殆롭게는 하지 않으리라——이것이 太祖의 心腹之人이오 麗朝顚覆 陰謀에 重大한 役을 맡아온 鄭道傳의 생각이였다。 그러나 太祖는 李穡의 爲人을 알아는지라。 그가 그리 쉽게 變節을 할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고 鄭道傳의 말따나 王의 부르심에 應치 않지는 못하리라。

하로는 李穡에게 特使가 떠어졌다。 使者의 報告는 卽時 參內하라는 것이었다。

李參內

李穡이 부름에 應할지 않을지 太祖의 마음은 焦燥했다。 太祖는 十中

八九는 拒絶하리라 했다。 그러나 參內한다는 回信이었다。

宮內에는 갑각이 和氣가 돌았다。 臣下없는 宮中에 臣下——麗代에서 가장 重臣인 李穡이 新朝에 뛰어 들 것이다。

「李穡만 붙잡으면 그 남어지는 問題가 아니다。」

太祖는 王位에 登極한 때 보다도 흥분했다。

이윽고 李穡이 宮中에 들어왔다。 王은 몸소 玉座에서 나리어 그를 맞이했다。

豫想 못한바는 아니었으나 李穡이 無禮함에는 太祖와 側近者들을 놀라게했다。 穡은 王이 나려 맞음에 고개를 끄덕할 뿐 臣禮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太祖는 그를 責하지 않고 다시 玉座에 돌아갔다。 이를 본 李穡은

「公이 玉座에 앉은다면 이 사람은 물러가오。 公의 招請은 同官으로서였고 李穡도 그에 應했을 따름이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太祖의 顔色은 금시로 變했다。 그러나 太祖는 感情을 抑制하고 再三 政治에 參與키를 勸했으나、 李穡은 차디찬 一瞥을 太祖에게 던지고 그대로 나가버리었다。

宮中에는 갑작이 物議가 등등했다。 그 中에서도 鄭道傳、 趙浚 等의 新臣들은 李穡의 목을 베어 示範을 보이어야 한다고 主張을 했다。 太祖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칼도 번쩍 들어보았으나 李穡 一人의 목은 벨 수 있으나 李穡에 따른 民生의 목을 다 베일 수는 없었다。 太祖는 생각다 못해서 吉再에게 特使를 보내었다。

吉再는 李穡級은 못되나 重臣의 한사람이다。 吉再는 그 當時 松都에 있지 않았다。 太祖가 昌王을 廢하고 恭讓王을 세울 때 이미 李成桂의 胸中을 드려다 본 吉再는 시골로 나려가 隱居하고 있었다。

吉再는 參內치도 않었다。 거기서 鄭道傳一派의 强硬論이 擡頭되어 吉再를 잡아 올렸으나 그는 끝내 玉關을 넘지않고 一片紙에 시골노 가겠노라는 文意만을 傳했을 뿐이다。

太祖는 新朝의 「戶曹典書」인 趙胤을 불러 善後策을 講究키로 하였다。 趙胤은 趙浚의 아우였다。

太祖는 趙胤에게 善後策을 相議했다。 胤은 아모 말도 않고 섰다가、

「그이에는 오직 한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고 對答했다。

「그 무슨 道理일고?」

「그것은 사람의 한번 잘못은 뉘우치면 그만이니 公이 過去의 成桂로 돌아가 社稷에 가서 死罪를 기다리는 것이오。」

太祖는 意外였다、 功名錄에는 分明히 趙胤의 이름이있고 胤은 新朝의 功臣 趙浚의 實弟인 까닭이다。 그러나 이는 太祖의 誤解였으니 兄인 浚이 功名錄에 任意로 아우 胤의 이름을 記入한 것이다。

「公은 나를 잘못안듯히고 亡國의 不肖 죽지는 못할지언정 逆徒에 加擔할 수는 없소。 趙胤은 오늘부터 趙犬으로 改名하고 號를 「從犬」으로 改變하니 今後에는 從犬이라 불러 주기 바라오。」하고

趙胤도 물러갔다。

이리하여 李穡은 다시 시골로 나려가서 四年後 別世했고 趙胤은 淸溪山頂에서 古都를 나려다 보며 痛哭을 했다。 이 峰을 望京峰이라 부르는 것도 胤에게서 由來된 것이다。

新王 太祖의 가슴에도 찬 바람만이 설레였다。 太祖의 人望은 餘地없이 유린되었다。 거리에는 때아닌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높았으니 그것은 李太祖를 逆徒로 묻歌詞였다。

다음에 太祖의 불리움을 받은 것은 元天錫이다。 儒學으로 名臣으로 멀친 사람이다。 그러나 元天錫도 李太祖를 愚弄했을 뿐이오 刑曹判書의 位를 가지고 金自粹를 찾았으나 그는 飮毒自殺을 하여 이를 避했다。 金震陽、 李崇仁、 尹忠輔、 李集、 徐甄、 이름이 있던 사람은 하나빠

지않고 불러였으나 그들은 士園에서의 新朝不參同盟의 誓約을 한결같이 지키었다. 太祖는 臣下없는 王이 되었고 百姓없는 統治者가 되었다. 國王 스스로가 臣이 되고 스스로가 民이었다. 太祖는 麗太祖 王建을 回想해본다。一千年의 王業이 바뀌것만 오히려 臣이 많고 民이 붙지 않았든가。

太祖는 울었다。아니 부끄러웠다。王의 거동에 市民은 撤市를하고 개미새끼 하나 求景할 수가 없다。

太祖는 痛切히 憤했다。憤하나 풀일은 없었다。깊은 愁心과 鬱憤속에 쌓여 寢食을 잃고 있던 太祖는 몸소 山中에 숨어 있는 趙胤(犬)을 다시 찾어 飜意를 請했다。이것이 王의 最後의 希望이었다。

그러나 趙胤은 끝끝내 듣지 않어 太祖는 그의 忠節을 아끼어 山堂을 지어 주었더니 그 山堂이 싫여서 다시 어디로인지 踪跡을 감추고 말았다。希望은 完全히 끊기었다。

慶德宮의 科擧

新朝에서 科擧令이 나렸다。太祖와 鄭道傳의 最後의 案이었다。勿論 新人을 選拔하기도 하려니와 舊臣들을 끌어내잔 것이다。그러기 爲해서

一、前朝의 任官者로 新朝에 任官치 않으면 過去의 功名은 一切無效로 함。

二、舊臣은 今般一回에 限하야 應試를 特許함。

이런 布告을 나린 것은 過去의 功罪를 一切 白紙로 돌리자 함이었다。그래서 단 몇사람이라도 舊朝의 重臣을 끌어넣기만 하면 新朝의 體面도 維持되고 次次 民心이 완화되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文科試日인 第一日 太祖의 눈에는 四五人의 시골 선비가 있을뿐 멀리 고개(不朝峴)를 넘어 文臣 七十二人이 王都를 등지고 살어지는 것이 보인다。

第二日인 武科試日。이날 亦是 村뜨기가 몇 應試할 뿐 어제와 같이 一行四十八名의 麗朝時代의 武官이 反對方向으로 王都를 등지고 살아진다。

王은 그자리에 털석 주저 앉고 말았다。

「이것이 王이냐! 이런것이 王이든 것이냐……」

臣下없고 百姓없는 王은 嘆息하였다。

「그 누가 李成桂의 臣下되어 줄 사람이 없는가——。」

鄭道傳、其他謀叛의 新臣들이 太祖에게 「上」의 禮를 갖우면

「臣下도 百姓도 없는 王이 어디 있는가!」

하고 소리를 높였다。

絕大의 歡喜와 希望과 몸부림을 치고 싶도록 幸福스러워야 할 新王과 王族、그리고 宮中에는 暴風 前夜와 같은 不吉한 沈默과 喪輿나 간집 처럼 괴괴하였다。新王을 마지한 王都 서울에는 歌舞는 커녕 거리에 사람의 그림자 조차 볼수없다。견디다 못한 新王은 密探使를 거리에 내보내어 百姓들의 新朝廷에 對한 輿論을 들어보았다。이런 報告가 들어왔다。

「李成桂를 逆徒로 몰자!」

「新朝에는 稅金을 받치지말자!」

太祖의 눈앞에는 弓裔의 幻影이 획 스치고 지나간다。

第二世의 弓裔!

太祖는 드디어 決心을 했다。

「成桂 열번 죽어도 二世의 弓裔는 않된다!」

寬大한 水葬 여러날을 두고 宮中에서는 아므런 發表도 없었다。그것은 不吉할만큼 오랜 沈默이었다。曰、朝廷아 한번 바뀌면 舊宮家一族은 滅族지키는 것이 常例다。그러나 太祖께서는 慈悲心으로 國政이 安定될 동안 王族과 王氏姓을 가진 者를 附近 섬에 流配시키기로 한다이는 舊王族들로 해서 國政基礎가 늦어지기 때문이다。安定이 되면 一般平民으로서 歸還케 한다。

그러니 流配船을 타도록 王姓은 全部 集結하라는 것이다。

事實、王族들은 滅族을 覺悟하고 있었다。그래서 지금까지의 王姓을 他姓으로 變하고 脫走한 사람도 많았다。그러든 次에 이 特赦令이 나려어 王氏一族은 저윽히 安堵를 했다。그래 指示대로 한곳에 몰이어 流配船 數十隻에 分乘하고 陸地를 떠났다。

이 流配船이 水葬船이였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王氏一族ㅣ뿐이 아니라 王氏姓을 가진사람은 滅族이 되였다。各섬에는 미리 官吏가 守備하고 있다가 헤엄처나 오는 者는 全部 잡아 죽였다。王氏族으로 남은 오직 한사람은 恭讓王의 아우 禑였으니 太祖의 第七王子와 禑의 딸이 結婚을 한 緣由다。

李朝、正史에는 王氏一族은 約束대로 江華、巨濟 兩島에 分配되였으나「謀叛」事件이 있어 水葬을 했다고 한다。

이 史上의 大水葬事件 앞에 高麗國民들은 벌벌 떨었다。그 結果、新朝에 忠誠을 다하리라 한 것이 正反對였다。新朝에 對한 態度는 漸漸 冷淡해 갈 뿐 거리에는、「이놈」寬大하게 水葬을 지내 줄까 부다!」

官吏만 지나가면 公公然하게 떠들어댔다。

杜門洞麗臣들의 最後

臣도 百姓도없는 新王 李太祖는 하로 마음 便한날이 없었다。그는 憂鬱했다。그러나 그는 오직 杜門洞에、隱遁한 麗朝의 文武 百二十名의 舊臣들에게 希望을 붙이고 있었다。朝廷이 바뀌니 쑥스럽고 友交之間에 君臣의 禮儀도 거북할 것이오 世人의 體面도 있어 이렇게 숨어있지만 그것이 가시면 돌아와 請하리라 했었다。

그러든 어떤날 高麗時代에 明에 갔던 使臣 金濤가 歸國했다는 말을 듣고 곧 使者를 보냈더니 一張의 片紙을 가지고 왔다。그것은 金濤가 歸國途中에서 李成桂의 王位奪取를 듣고「十二月二十二日을 祭日로 하고 朝服을 屍體로 알라」는 自家에 보낸 遺書였다。

太祖의 눈앞은 도 한번 어두었다。

太祖는 마음의 寂寞을 견딜 수 없었다。그래서 다시 使者를 杜門洞으로 보내어 入朝키를 勸했다。그러기를 세번 드디어 太祖는 最後의 手段을 取했다。文臣七十二名이 隱遁한 萬壽山 西杜門洞과 武臣四十二人이 隱遁한 寶鳳山 東杜門洞 周圍에 長斫을 城처럼 둘러싸었다。兩洞에는 出口를 한개式 만들고 기름을 쳐 불을 질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太祖는 얼골에 흙칠만 했다。出口는 나오도록 한 것이었건만 文武百二十人은 正坐한대로 그대로 타 죽었다。단 한사람도 正座한 姿勢를 허트리지 않은 것이 나종에야 發見되였든 것이다。

王位는 뺐었으나 王은 그대로 王 한사람 뿐이였다。

第二節 松都 古蹟 槪觀

松都는 麗朝가 江華로 遷都한 四十年間을 除外한 年間의 高麗王國의 首都이였던만큼 全市에 그 遺址가 散在해 있다。古蹟으로 現在 남아있는 것은 南大門을 爲始한 善竹橋等 몇개에 不過한만큼 지금 그 遺址를 發見하는 것도 難事에 屬할 程度다。이제 松都古蹟을 찾기 前에 이에 對한 槪念을 얻을 必要가 있기로 松都古蹟 硏究의 權威이신 故 高裕燮氏의「松都古蹟巡禮」를 引用하여 參考에 供해둔다。高氏는 特히 松都古蹟에 關한 硏究가 깊어「그의 遺著松都古蹟」은 지금은 稀貴한 文獻이 되어 있다。

前略——驛前 西北에 도톰한 丘陵의 이름은 그 뒤에 보이는 蜈蚣山(지네山)의 落脈으로 夜味山이라고 한다。기가 막힐만치 앞에 막혀있는 이 山 밑에 近代式住宅群、골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솟아 있는 官舍群——이 자리를 누가 古蹟地라 하랴마는 나는 여기가 古蹟地라고 規定하고 있다。

저 속에는 高麗 宗祖의 影幀을 奉安했던 奉恩寺가 있지 않았을까저 앞에는 成均館의 前身인 國子監이 있었으려니 하고 有心히 들여다。

보면서 길을 東便으로 꺾을제 老槐、野櫻이 욱어진 鐵道公園 西丘에 獨立한 碑閣이 보인다。江南에 사람을 보내어 經籍 數百卷을 모아오고 國學을 擴張하고 儒敎를 樹立한 安珦의 閭基碑라 함은 國子監이 附近에 있었던 關係려니 생각하면 이곳에 閭基碑가 있음도 뜻없는 일은 아닐 것 같다。이곳을 조금지나가면 稅務署가 있다。이골로 저 깊숙이 들어간 곳 佛恩寺가 있었으리라、麗朝 四代王인 藥師의 現身을 보고서 大刹로 만들었다는 곳이다。

忠烈王이 末年에 經營하다가 말았다는 德慈宮址도 이 附近이 될 것이다。德慈宮은 元來가 張舜龍의 私邸다。이른바 張家墻이라 하여 墻壁에 特墨한 莊嚴을 修飾하여 築造했던 張舜龍의 私弟가 이 附近이오 그 前으로 溯及하면 姜邯贊이 殞命될제 將星이 落地했다는 傳說이 남아 있는 落星洞도 이 附近을 이름이다。이곳을 下馬園이라 함은 落星을 본 宋使가 姜邯贊의 殞命을 깨닫고 敬弔하는 뜻으로 下馬하였는데서 起因한다고 한다。

麗朝의 李穡、韓修慕等名臣도 모다 이곳에 살았다고 하며 落星洞을 一名 良醞洞이라 한다하니 이 附近에 良醞署가 있던 곳이 아닐까?

이와 같이 곧기 열마아니 하여 人蔘專賣局에 이르게 되니 이곳이 곧 太平館、麗朝의 政東省廳이다。太平館은 李朝때 華使의 使館이다。政東省廳은 麗朝末葉의 行政廳이다。

그도 이만 저만한 政廳이 아니오、中葉以後의 元朝와 麗朝가 舅甥關係를 맺게 된 以來에 高麗의 國政을 料理하던 政廳이다。傲慢한 達魯花赤(다루카치)가 高麗의 君臣을 威壓하고 있던 곳이다。이 南편으로는 革朝後 李太祖가 敬德宮(楸宮)에서 設科選試할제 高麗遺士가 會集하여 不參키를 決議하였다던 士園이 鐵路저편으로 보인다。

이 征東省廳은 麗朝 前葉에는 무엇이였을가。高麗圖經에 보이는 肅宗의 諸妹가 居處하였다던 長慶宮址나 아니였을까? 萬一 그렇다면 長慶宮西편으로 女眞狄人의 舍館인 靈隱館도 역시 이 附近에 있었을 법하고 南편으로 普雲寺가 있었다。하니 어디쯤될까——太平館 東嶺으로 李太祖가 造築하였다는 內城 石壁이 그윽히 바라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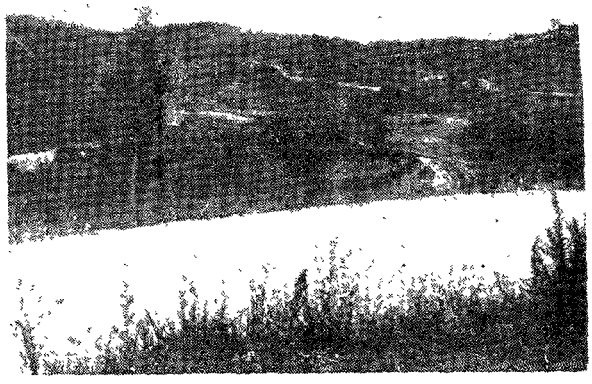
큰길 東편으로 뻗었다。보아 하니 左右가 시시하기 짝이 없다。오히려 원편으로 引導된 길목에는 陶磁가 陳列된 古物商도 보이고 社會館 圖書館 建物이 보이기도 하고 이 길을 잡고 들어스니 民家官屬廳舍 校甍이 넓어져 있다。西北 조그만 길로 들어가니 裁判所 西嶺에 古臺舊礎가 남어 있어 이곳을 奉常寺址라 한다고 한다。李朝때 齊陵 厚陵 社稷 松岳山、五冠山、成均館、八書院、城隍 厲壇 等 諸處의 享物을 辨備하던 곳이라 하나 麗朝에는 무엇이였을가、恭愍王이 西南崗에 올라 星象圖를 보았다던 奉先寺는 이 附近에 있지 않었던가、이곳에서 北쪽으로 올라가면 國民學校가 보인다。이곳을 新築할제 礎砌古瓦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도 西편 高臺에 舊礎가 보이니 地勢도 좋지만 過去에 무슨 遺蹟이 아니였던가。듣건대 開城博物館에 옮겨진 石彌勒도 이곳에 있었다 하고 高麗圖經에 彌勒寺라는 것이 이 附近에 있었다는데 어듸쯤 되였을까、이 附近의 東편쪽을 「모락재」(沙峴)라 한다하니 忠烈王때 유명하던 沙坡別宮도 이 附近에 있었으련마는——더듬더듬 거러나와 府廳前을 다지 當到하니 이곳 一帶가 管理營址였다 한다。조금지나 道立病院에는 지금도 古樓 一基가 남어 留守行廳을 想像케 한다。(이門樓는 지금 善竹橋畔으로 옮겨져 있다)。所謂 開城의 豪華地帶는 이곳에서 東쪽으로 겨우 부비져 나가고 있는 街道우에 展開되고 있다。이 街道우에 郵便局이 보이고 廢校舍가 보이니 이 一帶를 松都人은 壽昌宮址라고 일러온다。

壽昌宮이라면 李太祖가 登極하고 太宗이 登極하던 곳으로 이름이 있을뿐 아니라 麗朝에 있어서 別宮中 第一位에 處하고 있던 重要한 곳이었다。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中葉以後의 壽寧宮도 있었으며 壽寧宮은 旻天寺로 變하였다。이곳을 지나 얼마나오면 左側으로 禮賓 골이라는 곳이 있으니 이곳에 禮賓寺가 있었을법하고 이곳에서 또 얼마쯤 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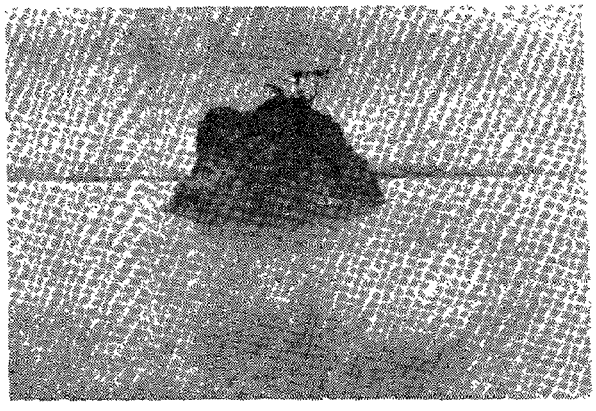
京畿道內 傳說地의 이모저모



坡州 坡平尹氏 龍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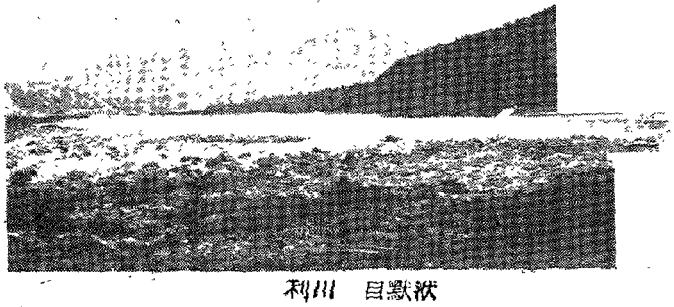
楊州 忘憂里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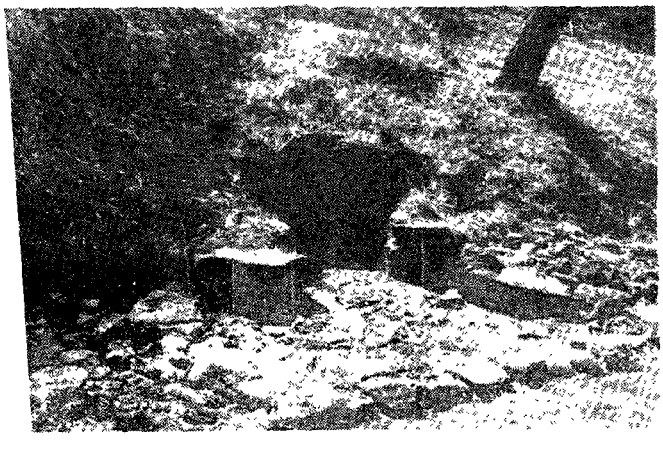
金浦 廣州바위섬



安城 薇陽 古池



利川 目默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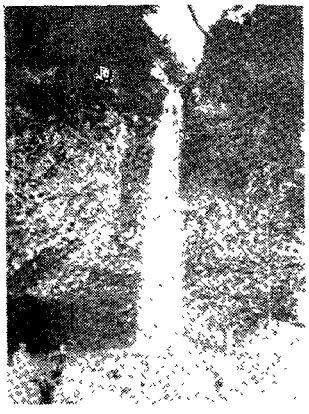


廣州 孝子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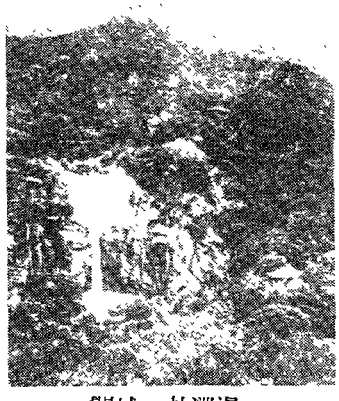


開城 孫우물

京畿道名勝一覽　其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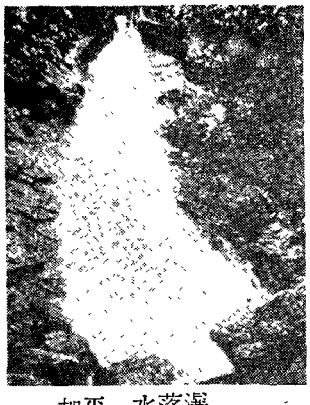
漣川　才人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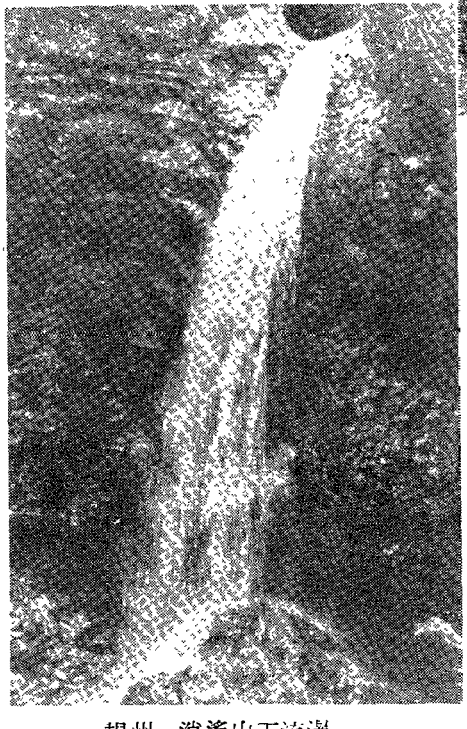
開城　朴淵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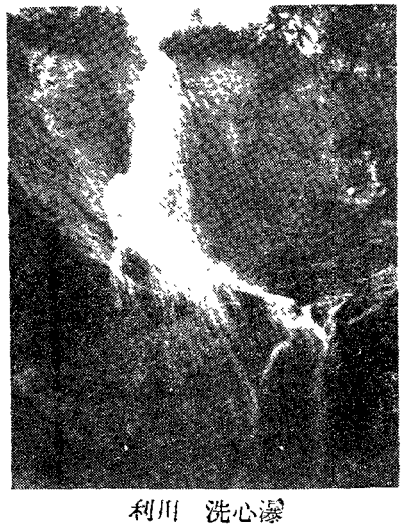
楊州　逍遙山元曉瀑



加平　水落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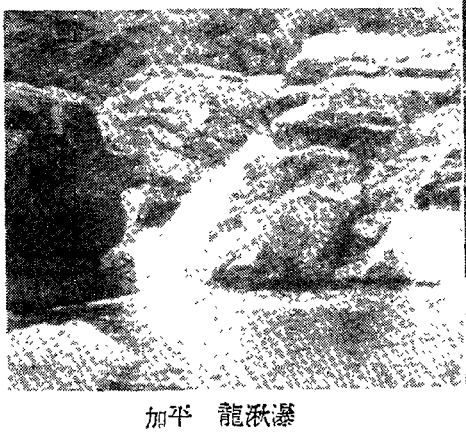
楊州·逍遙山玉流瀑



利川　洗心瀑



楊州　光陵瀑



加平　龍湫瀑



加平　舞雩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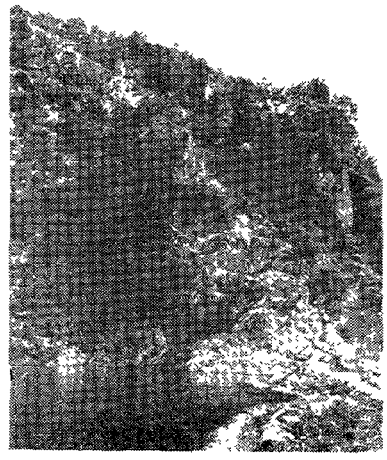


高陽　津寬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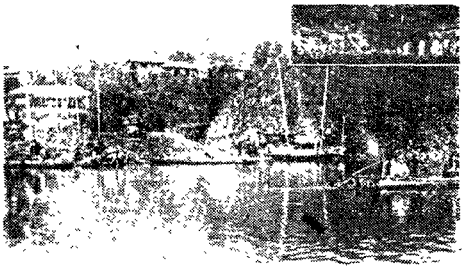
京畿道名勝一覽　其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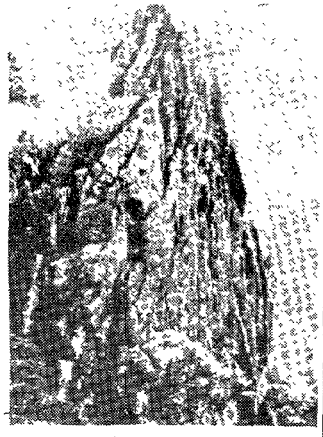
驪州　馬岩



抱川　青鶴洞



長湍　高浪浦石壁



開豊　天摩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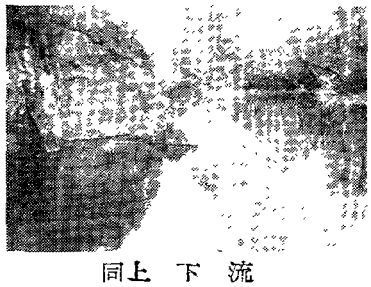
楊州　光陵川溪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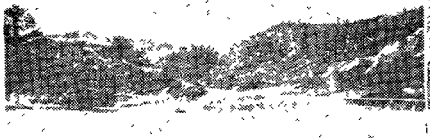
開城　彩霞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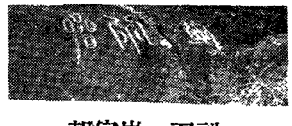
加平　朝宗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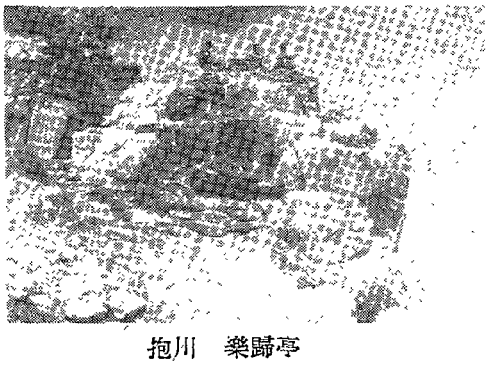
同上　下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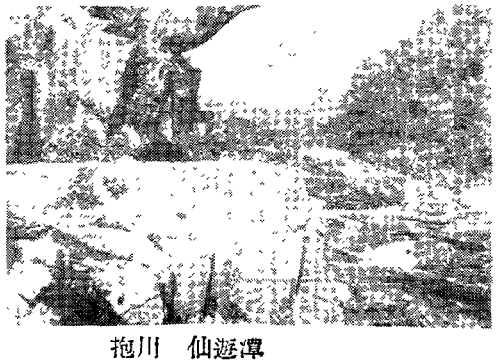
蓮川　羽化亭址



朝宗岩　石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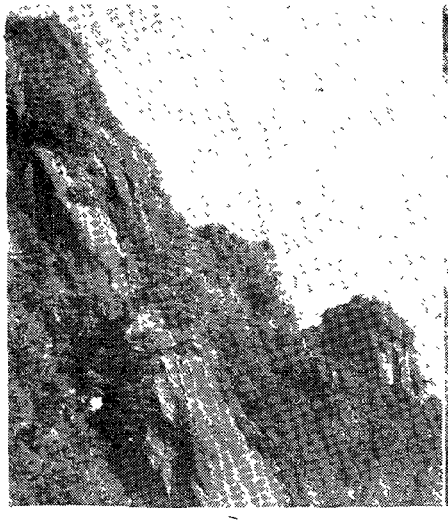


抱川　樂歸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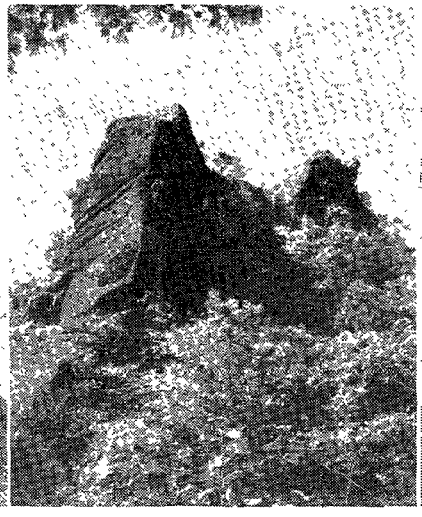


抱川　仙遊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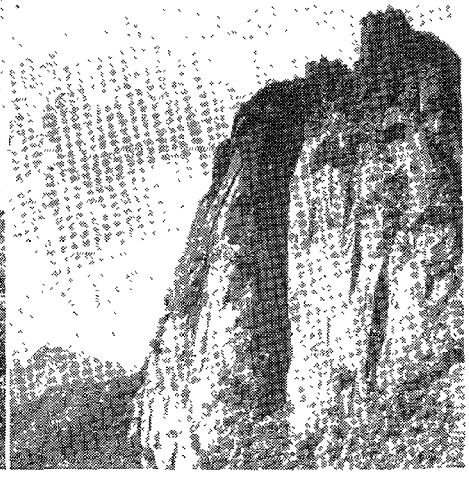
京畿道名勝一覽　其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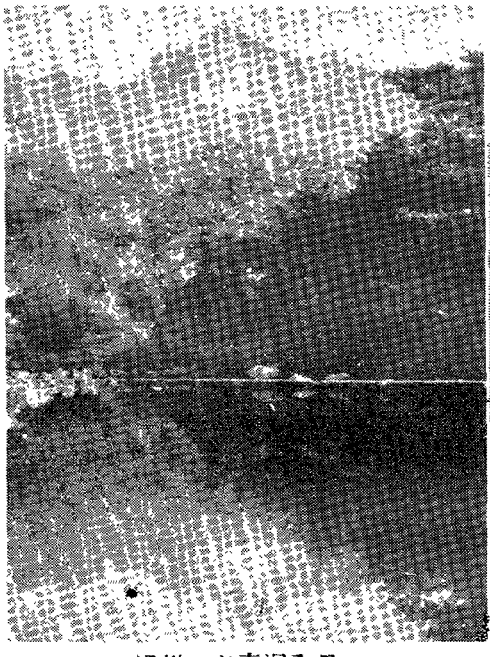
道峰山一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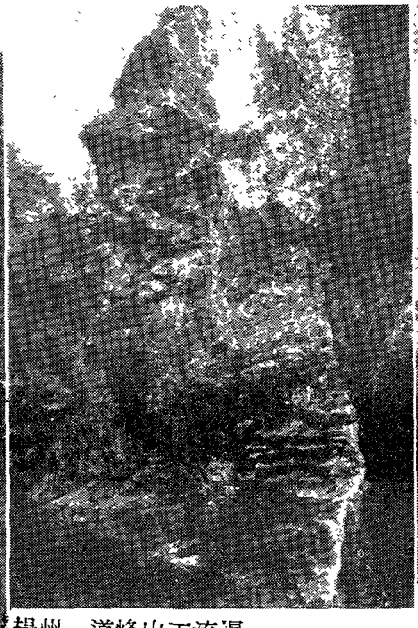
道峰山奇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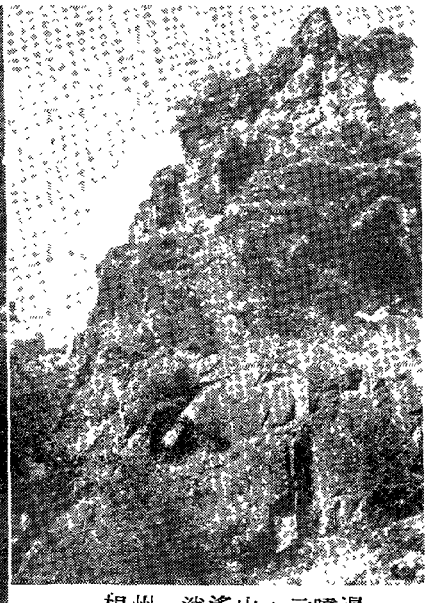
楊州　道峰山　萬丈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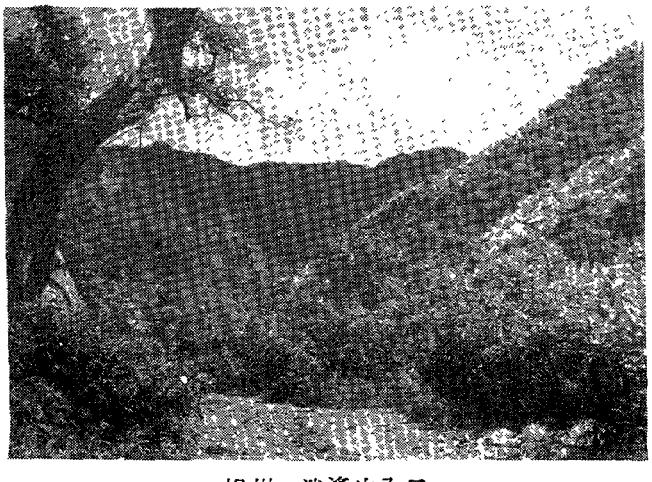
楊州　必東瀑全景



楊州　道峰山玉流瀑



楊州　逍遙山　元曉瀑



楊州　逍遙山入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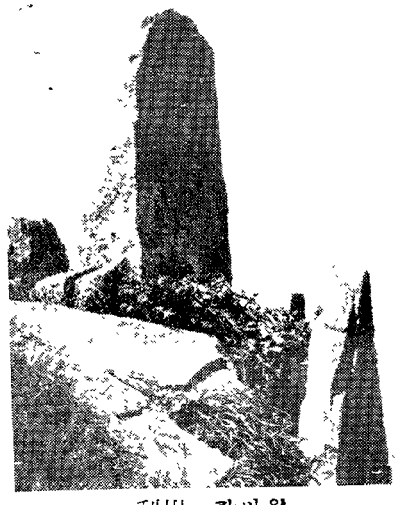


楊州　道峰山　必東瀑

京畿道名勝一覽 其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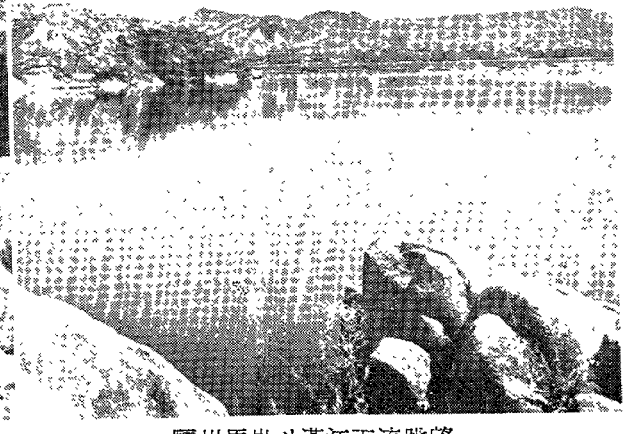
楊州 檜岩寺奇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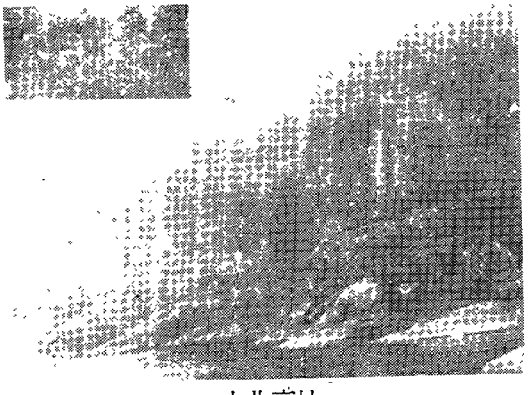
利川 칼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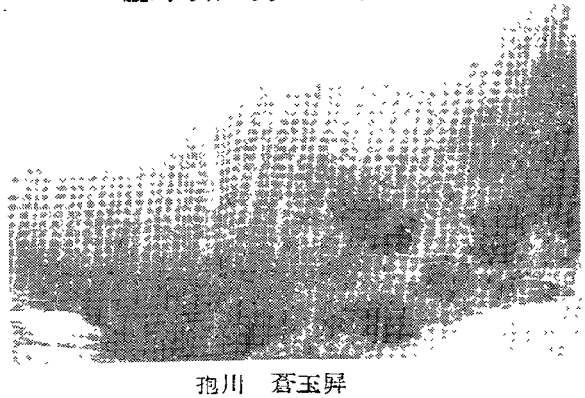
楊州 逍遙山 玉流瀑



驪州馬岩서漢江下流眺望



抱川 水北亭址



抱川 眉玉屛



仁川 松島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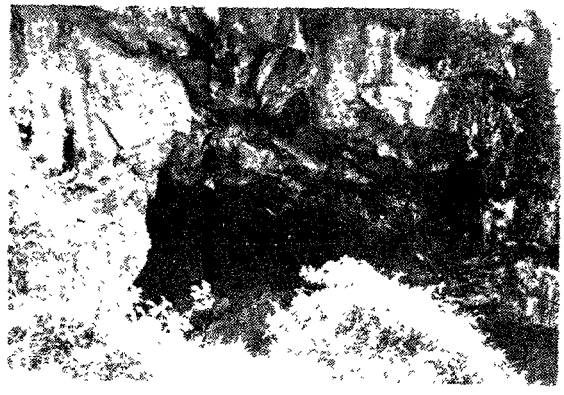


仁川港의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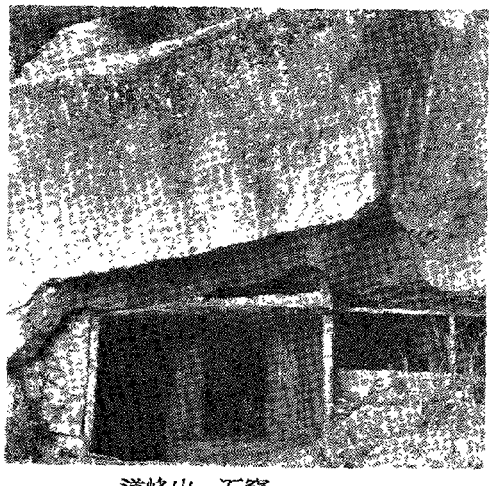
京畿道名勝一覽　其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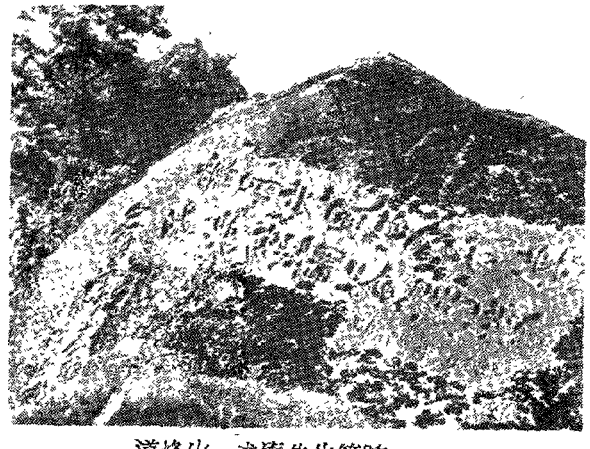
逍遙山　藥水窟



長湖院　금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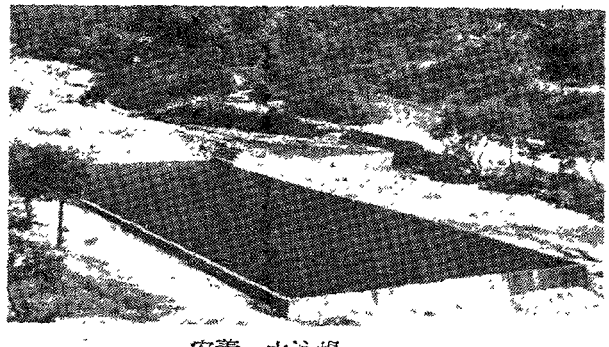
道峰山　石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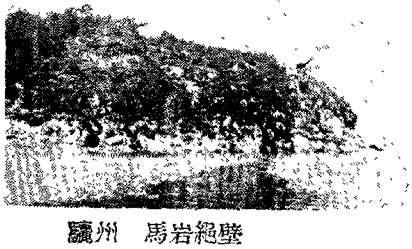
道峰山　尤庵先生筆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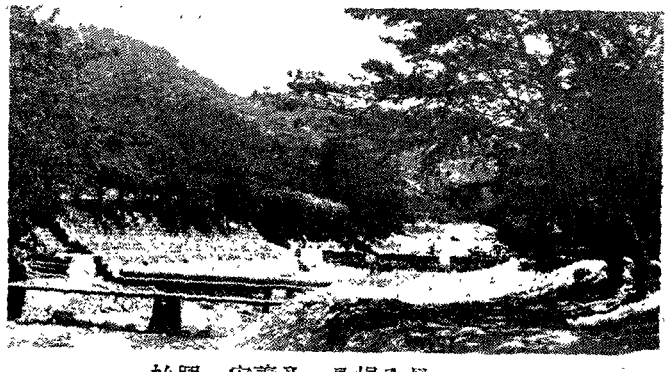
富川　德積漁港



安養　水泳場



驪州　馬岩絕壁



始興　安養平一平場全景

면 南大門이 보인다。

高麗末年에 紅賊이 猖獗할 때 外城이 너무 廣漠하다 하여 그 收拾의 問題가 한참 있었으니 이 內城의 出現도 그와 關聯된 것이었다 할 때、恭讓王 三年에 지작하여 李太祖 二年에 落成된 內城이 南門은 現存한 朝鮮 木造建物로서 가장 高古優秀한 遺構의 하나이라 한다。

市街 雜閙中에 孤獨히 서 있으면서 歷史의 悲劇을 속삭이고 있다。門樓에 올라 위선 朝鮮의 名鍾의 하나라는 演福鍾을 보고 멀리 西南편으로 演福寺址를 指呼해 본다。

攪了黃梅七百像　銀葉燒香朝有花
堪來無語對龕燈　石鐺留滴夜生氷
閑書滿架風開帙　莫貪黃獨輕泥詔
高塔摩空月例層　一紙銀鉤懶尙勝

——李奎報詩——

그전 같으면 五層塔婆가 이곳까지도 보였으련마는 지금은 工場의 煙突이 靑田속에 黑煙만 吐하고 있다。

西南 市街中에는 日影臺가 있었다。하나 臺石은 南門外側에 옮겨져 있고 東北子男山 蠶頭岩下의 天堂골은 元來 明初의 風雲兒 回回世子 文偕가 謫居던 곳이라 하나 文化住宅과 貧民斗屋이 參差히 드러 있다。

南大門을 내려서서 北街大道를 올라가자、高麗 때에는 左右에 長廊이 있어 十間마다 帷幕을 치고 佛像을 모시고 白米醬의 큰독과 구기잔이 있어 往來人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마시게 하였다 한다。

지금은 茶店하나 없는 無味한 市街로 되였다。好壽敦高女(明德高女)附近에는 契丹使臣의 使館이었던 迎恩館 仁恩館이 있었지 않았던가 仁恩館은 仙賓館이라고도 하였다 한다。이우로 高麗橋 附近에는 恭讓王 때의 懈溫樓가 있었기로、이내를 「해울내」라 한다。

高麗橋의 東北편으로 刑獄이 있었다 한다。

高麗橋의 西北地는 유명한 興國寺址이니 契丹(거란) 大兵을 쳐물리친 姜邯贊이 國家의 安泰를 祈願코저 하여 建立한 姜邯贊造塔이라는 石塔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博物館으로 옮겼다 하며 이곳 狹路右側에 넓은 터가 있으니 이곳은 元末에 蜀漢서 稱覇하던 明玉珍의 子明昇의 謫居地로 또한 유명하다。

斷崖狹路를 발아보고 올라가면 松岳高峰이 멀리 보이고 林檎果園이 눈 앞에 展開되나니 이곳 개덕을 陰芝峴이라 한다고 한다。所謂 麗太祖가 弓裔麾下에 있을제 造築하였다는 勃禦塹城의 南壁이 아닐까 하며 麗朝에 들어서서의 宮城 城壁이었다 한다。右편 崖下에 果樹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나 磨崖詩 一首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五百年終飛鳥過　當時文物極繁華
御溝流咽前朝水　喬木栖回落日鴉
山鬼成螢迎法駕　宮娥爲蝶舞殘花
遺民耕盡粧臺上　更得金鈿賣酒家
螭階虹門亂石堆　碧松玉氣冷如灰
春畦古國花千樹　鵑哭空山月一臺
種穡田荒流水急　採椎歌近夕陽回
而今城內昇平節　猶有南樓畫角哀

丙午暮春　白雲閑士尹敦作　進士韓宗樂書

右側에 헐어져가는 古蹟에 새로운 民屋의 經營을 보고 右側으로 果園의 紅玉을 보면서 秋光에 曝晒되는 蓼香을 滿喫하며 滿月臺로 들어간다。

四阿重樓의 三門을 이루었던 昇平門은 간곳도 없어지고 左右의 同樂亭도 찾을 길 없이 禁川인 廣明川의 滿月橋를 넘어서면 毬庭은 좁지만 神鳳門址가 완연히 남아있다。

昇平門의 兩편에는 同德二門이 있었다하지만 神鳳門을 들어서면 東으로 世子宮으로 通하던 春德門이 있었고 西으로 王居로 通하던 太初

門이있었고 正北으로 第三門인 闔闔門址가 頹弛된채 石步段우에남아있다。

闔闔門의 偏門으로 承天二門이 있었다지만 이역 果園으로 말미아마 痕跡조차 없어지고 正面에 五丈高石梯가 앞을 막고 있으니 이는 麗朝特有의 形式이다。會慶殿 三門이 石礎만 남기였고 이 우에 올라서면 正北에 會慶殿址가 남아 있고 左右로 行閣址가 남아있다。

荒凉한 秋草속에 아직도 整然히 보이는 配置의 嚴은 비록 規模가 적다 하나 「皇居壯」을 생각케 하고、左右 果園에 묻혀진 東宮址、乾德殿址의 隱蔽는 現代人의 너무나 齷齪한 破壞를 恨케 한다。西편 三角地臺는 書畵珍寶를 藏置하던 臨川閣址라 하니 그 平面의 奇를 우선 玩味하고 西北으로 멀리 宮壁土墻의 痕跡을 건너 뛰어 長石架構의 簡單한 瞻星臺를 遠觀하고 西南丘地에 仁宗四年 李資謙 拓俊京亂에 殉義하였다는 洪灌의 碑閣을 보고 도리켜 會慶殿 뒤의 長和殿 元德殿 長慶殿址를 보고 後陵에 올라 다시 구버보니 宮址가 一眸에 든다。賞春亭、八角殿이 이우에 있었으리라 오르고 또 오르면서 이렇다 할 古礎群을 볼 수 없는채 宮壁土城의 頂上에 이르게 된다。峻特한 松嶽은 쳐다보이고 발밑에 다시 廣敞한 平地 閑淸한 村落 多少가 눈앞에 展開된다。외인편으로 가장 整然한 石臺우에 墻壁이 남아있는 곳은 昭格殿址리라 골을 하나끼고 右편으로 들어가면 龜山寺址가 있다 하니 그곳 山谷도 幽雅하여 살아봄직 하거니와 文宗이 龜臺에 置酒하고 太子、諸王、宰樞들로 더부러 張宴한 事實이 오늘까지도 傳하여 있으니 當時 風流盛事가 대단하였던 것을 짐작 할만하다。

이 동을 넘어 昭格殿 앞길을 타고 가라는 것은 順路가 아닐듯싶으니 滿月臺를 다시 나려와서 神鳳門側의 石燈 石佛等을 잠간 보자。모다 破石에 지나지 않으나 手法이 新羅의 古態를 그저 가지고 있고 溫雅한 品이 決코 汎看할 것이 아니다。滿月臺는 宮殿인데 宮殿안에 웬 佛像佛燈이 남아있을까——必是 어디서 옮겨온 것이겠군 하겠지만 高麗의 內帝釋院의 遺物이나 혹지 아니였든가 하여 마지아니 하였다。

滿月橋를 다시 넘어 川邊의 新道를 끼고 東向하여 얼마오니 北川 西川이 合水치는 곳에 조그만 丘陵이 있다。

馬墳(말무덤)이라고 한다지만 따질 必要도 없고 이 속에 法王寺 印經寺等이 있었으리라 推測되나 찾을 사이도 없으니 東편으로 나아가자 尙書省은 어디일까 八關司가 昇平門옆에 있었다니 지금은 길옆에 있었을 법하나 알 수 없고 門下省 樞密院이 尙書省의 西位 東位에 있었다 하니 지금 果樹園內에 있지 않았을까。翰林院、禮賓省、御史臺、모다 乾德殿을 中心하여 西南周圍에 있었다 하며 昇平門外 御史臺 西편에 右春宮이 있어 王의 姉妹와 宮女들이 모다 그 머리라。尙乘局、軍器監 大盈倉、右倉等이 모다 이 안에 있었던 모양이나、하나도 指摘키어렵고 人蔘乾場의 地勢가 明敞함을 그윽히 아까워 하며 廣化橋에 이르니 이곳이 유명한 宮城의 東門址라、松高實業場 南 果園으로부터 尙書戶部 그로부터 東으로 나아가며 奉先庫 工部 老功 大樂局 良醞局 等이 櫛比히 느러 있고 南路 南星病院아래부터 兵部 길하나 넘어서 刑部 교 다음을 史部 그 東南으로 鑄鐵監 等을 想定하다가 松高、南麓에 周王廟를 건너보고 勞軍橋서 東편으로 將作監、그 東편으로 廣眞寺——北편으로 慈恩寺等을 더듬다가 멀리 松岳中腹의 安和寺를 바라본다。泉石의 美 建物의 華 宋帝의 宸翰 太師 蔡京의 額書 等이 宋朝에 까지 이름이 날리던 名刹이였고 睿宗의 詩律一篇과 太子의 親書가 石刻되어 있다던 곳으로 유명하지만 지금도 磨崖討書가 남아있을는지 一千年社稷을 一朝에 讓渡하고 萬乘寶位를 떠나 一介 戚臣으로 貶落되어 荷荷한 生涯를 누리고 있던 新羅敬順王 金溥의 살던 政丞院도 이 勞軍橋 北편이라니 어디쯤 될까。深壑을 옆에 끼고 斷崖를 넘어서니 東大門橋라는 것이 公設運動場 편에 보인다。內東大門이라면 東大門을 이른것 일것인데 그렇다면 刑務所 저편에 있어야할 것인데 어찌하여 이곳에 指標 되였던고、刑務所옆에는 貞芝橋라는 것이 있으니

서로 바뀐 모양이고 이 附近一帶가 곧政丞院이라고도 하며 또 高麗朝의 重臣이 많이 살던곳이라고도 한다。 말을 듣고 보니 景光이 明暢하여 그럴듯이 보이기도 한다。

內東大門址 東에서 南으로 내다보니 子男山 東麓 川邊에 垂楊이 멋 떠러진 곳에 石橋와 碑閣이 있으니 묻지 않아도 저곳이 鄭圃隱의 殉節한 곳이다。 泣碑도 있고 韓石峰書의 善竹橋碑도 있고 成汝完의 遺墟碑도 있지마는 유명한 選地書齋의 遺址는 찾을길 없고 妙覺寺의 遺物인 陀羅尼幢이 善竹橋에 끼어있지만 그것도 고만두자 저곳이 子男山路로 올라가면 禹玄寶의 遺墟碑 宋松禮의 遺墟碑 射亭인 虎亭 李齊賢의 遺墟碑 鄭夢周의 遺墟碑와 崧陽書院 等을 보며 博物館에 올라 高麗文化의 表徵인 藝術品을 마음대로 구경하고 長安을 구버볼제 高麗靑年會館이 무서운 禁盜巡자리라는말을 듣고 龍首山 높은 峰의 獨高松嶺下에 외따로운 斗屋에서 松林寺를 그려보고 嶺을 넘어 저쪽으로 九層高塔이 있어유명하던 眞觀寺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龍首山 末峰인 舞峴 東편으로 陽陵을 넘는 고개턱에 내어 쫓겼다던 유명한 崇敎寺址가 있으리라——初期이 國子監도 저곳에 있었다하며 古南門으로 나가는 저근 길가에는 高麗末年에 革朝의 悲運을 보고 孫登河演等 兩人이 巖石에 머리를 조아殉節하였다는 登樂巖이있다고 조그만 碑閣이 멀리 보이는것은 李朝 太宗妃인 元敬王后의 誕降舊地의 碑라하며 石造洋屋의 높은 學校뒤로 鬱蒼한 林園이 보이는 곳은 李太祖의 舊墟인 敬德宮이라 하고 不朝峴 碑閣이 그 앞에 있다 하나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길을 取하지 말고 善竹橋서 南行하면 三角山의 那氣를 누르기 위하며 石犬을 制置하였던 坐犬橋를 볼 것이요 그 길로 東向하여 나가보면 梨峴宮터나 太常寺址나 彌陀房은 찾을 수 없지만 穆淸殿을 구경하고 東大門址에서 太宗臺(扈輦臺)를 발아보고 穆淸殿 後嶺으로 神巖寺址도 찾을 수 있지만 坐犬橋를 넘지말고 西편大路로 꺾이면 東南으로 妙蓮寺 忠惠王의 新宮 步仙亭等 유명한 寺館樓亭이 林羅하던 金峴을 바라보고 契丹王이 보낸 駱駝 五十匹을 麗太祖가 橋下에 버려굶겨 죽였다던 駱駝橋를 볼 수 있고 아조 길을 꺾어들어 妙覺寺址(묘각골)인 元町普通學校를 지나 崧陽書院 入口에 못미쳐서 太廟洞(대모골)을 기웃하고 泥峴(진고개)에 이르기 까지에 都平議使司(合坐洞=합죽골)와 恭愍王의 花園과를 그려보고 佛福藏을 그려볼 수 있으나 지금은 아무런 古蹟도 남어있지 아니하니 궂하여 이 길을 取할 것도 없으리라。

그러면 지금 內東大門址에서 北路를 잡아 볼까、 얼마 가지 아니하면 北편에 果樹園이 보 늘어 있으니 恭愍王의 四大考妣를 追封하고 立祠하였다는 積慶園이 혹시나 이 附近이 아니었을까 鄭道傳이 撰한 積慶園中興碑가 있었다 하지만 찾을길도 없고 蓼圃를 지나 北편으로 補國골이 또 있으니 이곳이 輔國寺가 있던 輔國洞天이라。 數三民家에 舊礎가 아직도 남아있어 舊態를 聯想할 수 있다。 輔國寺는 원편 麗正宮 東西로 東西 輔國寺가 있었다하니 이곳은 묻지 않아도 東輔國寺일 것이요、 輔國寺側에 靑雲寺가 있었다 하지만 어느편에 있었을까 지금와선 알 수 없다。 林立한 善政碑 孝節碑 等을 눈결에 지나치면 길옆에 異常한 獨岩이 있으니 이것을 馬岩(말바위)이라고 한다고 한다。 馬岩이하면 저 恭愍王이 魯國公主를 잃고 哀極한 나머지에 王輪寺에 거창한 影殿을 經營하였으나 規模가 좁다하여 中途에 廢止하고 이곳에 影殿을 새로히 經營하였다는 유명한 곳인데 그 所謂 馬岩影殿이 어디쯤 있었을까 東南편으로 山모롱이에 깨쳐진 岩壁下에 礎石이 남어있어 그곳을 順天寺가 있던 곳이라 하며 順天臺라 한다지만 當치 않은 寺址가 여며 할까 한다。 그 寺址의 東路로 곧장가면 所謂 崇峴門(숭재) 址로 올라 大廟址를 구버보게 되나 다 고만두고 香橋를 넘어서 成均館을 參觀하자 成均館은 원래 文宗때 大明宮으로 宋使가 올때마다 順天館이라 改稱하여 賓館으로 使用키로 하던 곳으로 宗文殿이 이 안에 있어나 종에 崇文館의 出現도 이곳에 보게 되고 恭愍王때에 이르러 비로소 成均館으로 改稱를 보게 된 것이다。

大明宮으로서 建築의 壯嚴은 徐兢의 高麗圖經에 자세하니 그로 밀고 鴨脚樹 老槐木이 蒼鬱한 그늘에서 잠지 逍遙타가 後山에 잠겨있는 別莊地帶에서 順天寺、迎仙館을 想定하고 所謂 遊覽道路로 걸어나와 彩霞洞天에서 石槽石槊이 어즈러히 흐터져 있는 山頂의 寺址에서 風光을 玩味하고 다시나와 竹仙臺로와 五冠書院址에서 王輪寺의 盛觀을 그려보고 扶山洞入口에서 유명한 崔沖의 九齋學址를 두루 구경하고 西折하면 龜山寺址요 東折하면 泉石이 淸雅한 紫霞洞이 있으니 이곳에 잠간 들러 奇岩妙石과 閑流淸潭에서 紫霞洞曲을 읊어 봄도 無意치 않으리라。(紫霞洞曲詩는 下記紫霞洞條에서 說明키로 하고 本節에서는 省略한다。)

蒼空밑에 峻峭히 그려있는 松岳山 落脈의 聚松丹楓에서 閑情을 그리고 白蓮臺 後山에 古砌를 구경하고 그 뒤의 順陵 北小門을 보려다가 다지 나와 扶山洞의 龜山寺 昭格殿址를 지나、雙瀑洞을 들르니 그곳 廣明寺址는 麗太祖의 祖業之地로 太祖登極 五年에 捨家爲寺하였다던 곳이나 지금은 民家로 채워졌다。

이곳에서 西北細流를 끼고 올라가면 作帝建의 龍女와 西海로 돌아갈 제 놓치고 간 신짝을 묻었다는 溫畦陵이있고 그로부터 西南편에 寺址가 있으니 千秋太后와 共託하여 不軌를 圖謀하던 金致陽이 建立하였다는 十王寺는 이곳이 아니였을가。그보다도 文宗이 西北城의 修築狀을 巡察하다가 置酒遊樂하였다던 日月寺나 或이 아닐까 都察院이 있어 都察峴(되차리)이라 한다는 고개를 넘어서면 유명한 福寧寺가 있었을 것이고 雙瀑洞을 나와 左側으로 滿月臺西嶺의 瞻星臺를 보고 右側으로 訥里門(느리문)을 넘은 골짝이 있으니 이곳에도 여러 古蹟이 想定될 것이나 東北편으로 乾德殿一帶와 臨川閣高臺를 바라보며 三省洞橋에 다다르면 一日 行樂은 이로써 足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怪癖된 羈旅病者 行樂病者가 있다면 例의 藁馳橋(야다리)를 넘어서서 忠烈忠宣의 願刹이였던 妙蓮寺址를 더듬어보고 郭預의 雨中賞蓮으로 유명하던 龍華寺池(용화무지)이니 普通은 이곳을 宗敎寺址로 알고 있으나 筆者는 그것을 굳다고 본다(이에 對하여는 이곳에 論할 場所가 못됨으로 張說치 아니한다)를 찾아보고 堯泉洞에서 崇化寺址를 찾아보고 外城의 東南門인 長覇門(保定門)밖에 開國寺의 古貌(이곳은 李朝에 들어 司圃署가 되였다)와 洪圓寺이 寺址(?)를 그려보고 멀리 靑郊를 지나 吹笛橋를 넘어서서 天壽院을 잠깐 구경하고 高頭山을 넘어서서 鳳東驛을 南으로 멀어져 進鳳山의 東麓을 돌아 德物山의 崔瑩祠을 구경하고 西으로 멀어져 興王寺를 들려본다。

興王寺는 文宗이 平生의 一代一次의 國力을 다하여 經營한 巨刹로 前後十二年間에 二千八百餘間을 造成하였고 壁畵裝飾에는 崔思訓을 宋朝에 特派하여 相國寺의 壁畵를 移摹케 하였고 入銀 四百二十七斤 入金四十四斤의 金銀塔을 造成하여 施納하였고 宋帝로부터 받은 夾紵佛像大藏經 等의 刊行도 이 곳에서 成就되었던 것이니 古礎舊階는 비록 頹壞되였다 할지언정 어찌 一次의 要訪이 없으랴—이곳서 細谷(가는골)으로 돌면 楓川里 近處에 寺址가 있으니 혹지 이 곳은 松川寺址나 아니였을는지—西으로 더 가서 扶蘇山을 발아보고 골속으로 들어가면 齊陵과 衍慶寺를 구경할 수 있고 다시 나와 進鳳面의 西境으로 古南門을 넘어온다。

그러나 이 길을 取하지 않고 開城驛에서 夜味山을 右편으로 끼고 西向하여 午正門을 나설 수 있다。午正門은 王城의 西門인 宣義門址이니 高麗門中 가장 壯麗던 곳이라 한다。

이곳에서 北편으로 社稷壇이 있었다 하고 (社稷壇址는 現在 城內 館前里에서 볼 수 있다)。조금 나가 北大路와 西大路가 分岐되는 分岐地點에는 宋使送迎의 迎賓館이 있었다 한다。

이곳서 西向한 聯路로 들어가며 天臺宗 本山인 有名한 國淸寺址를 알피고 山넘어 돌아가면 七十二賢의 杜門洞을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迎賓館址에서 北大路를 取하여 올라가면 萬壽山 길을 끼고 麗太祖의

顯陵을 비롯하여 多數한 高麗陵을 보고 西으로 넘어 鶴嶺里 海安洞에서 成宗의 考 戴宗의 泰陵과 毅宗의 眞을 泰安하였다가 武臣의 反對로 撤去하고 重房願堂으로 고쳤다던 物議의 海安寺址를 찾아 보고 西南으로 떠러져 有名한 正陵을 구경할 수 있다。

魯國公主를 여인 恭愍王이 影幀에서 悲泣對食하고 肉膳不進을 三年이나 하여 造陵에는 設色辨物까지 王이 親히 當하다 지피하고 王이 百年後 同穴키를 바라고 生前에 國幣를 기우려 后陵을 修裝하는 同時에 壽陵을 經營한 것이다。

造泡寺인 雲岩寺는 處處에 礎礎만 散亂하나 陵石의 壯 經營의 最 形式의 整은 朝鮮陵墓制度史上 한 規範을 이룬것으로 유명하니 이곳을 보고 西南으로 떨어지면 土城이 있어 土城驛이라는 곳에서 歸京할 수 있다。

그러나 松京古蹟의 探勝에 있어 等閑視할수 없는 것은 朴淵路이다。 대개 朴淵瀑布의 구경만을 目的하는 사람이 많으니 나는 이 法을 버리고 古蹟보기를 爲主하여 길을 案內하잔다。

그러자면 위선 前에 말한 成均館의 東北으로 鳩城峴(비들기 정재)을 넘어야 한다 鳩城峴을 넘어서면 嶺南面事務所와 그 附近의 古礎가 散在하여 있으니 이 곳은 무슨 遺蹟일까?

이 附近엔 東龜陵이 있다하여 이 곳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川邊果園에 長大한 幢竿石柱가 特立하여 있으나 이곳이 歸法寺址인듯 하다。 高麗初期의 國刹이었을 뿐더러 崔沖이 夏課를 베풀던곳으로 유명하다。

遺墟가 廣大함이 더 놀랄만하며 이곳서 花谷을 가는 동안에 倒壞된 石塔이 川邊에 남어 있으니 大理石의 巨碑로 韓石峰이 平生精力을 다하여 썼다느니만치 매우 精勁한 作品이다。

龍興寺 川邊을 끼고 西北으로 올라가면 摠持宗의 本山이었던 摠持寺가 지금도 庵子形態로 남어있으니 이곳을 들를 사이가 없다면 花谷 川邊을 끼고 올라가다가 西北으로 向하여 靈通寺址를 볼만하다。

興地勝覽에

在五冠山下 洞府深邃 山勢周遭 流水漫廻 樹木蒼鬱 其西樓牓概 爲松都第一 寺有金富軾選僧統義天塔銘 又有高麗文宗眞 及洪自藩像——

이라 있으니 이것은 寺觀이 있었을적 이야기이나 지금 廢墟의 勝概와 塔과 義天碑 幢竿支柱等에 數三 村落을 겼들여 볼 수 있다。 碑는 朝鮮金石에 多少常識만 있다면 누구나 알것임으로 이곳에 呶呶치 않겠고 靈通寺는 원히 麗太祖의 外曾祖의 舊居로 太祖가 化家爲國하매 捨家爲하여 崇福寺(後改興聖寺)라 일컫다던 곳으로 여러가지 傳說이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서 天磨山城을 곧 들어갈 수 있으나 洞口를 다지 나오면 東편으로 極樂峰이 소사보이니 그 東嶺에는 法鍾大師 普照慧光塔碑가 있어 유명한 五龍寺址가 있고 그곳까지 갈새가 없다하면 嶺하나 더 넘어서 玄化寺址를 求景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玄化寺는 顯宗이 그 考妣를 追福키 위하여 建立한 寺刹이니 이곳에 玄化寺碑가 있어 金石界에 유명한 것이요 石槽 石佛、幢竿支柱 石橋石礎 其他 寺觀의 壯嚴을 엿볼만 한 것이 많으며 다시 嶺하나 넘으면 新羅末 高麗初 古刹인 福(復)興寺址에 雙塔 古礎 石槽 浮屠 其他 多數한 遺物을 볼 수 있다。 그곳 川邊을 끼고 올라가면 圓通寺가 지금도 남어 있어 이곳에도 볼만한 蓮花臺石 浮屠等이 남어 있을뿐 아니라 이곳은 朴淵의 北路라하여 이곳에 高麗顯宗의 考妣인 安宗과 獻貞王后의 兩陵이 있고 金身寺址도 있으며 이곳에 獻貞王后 七星峰南便에는 七星庵이 있으니 眺望도 좋지만 岩壁에 王字一罅가 있어 李太祖가 潛龍時에 祈禱處이였다고 傳한다。 七星峰의 主峰인 因達峰은 常傳에 一托鉢이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나려올 수가 없어 안달안달 죽었다 하며 安達峰이라 한다 하지마는 이는 語音에서 訛傳된 荒誕한 附會요 因達이란 것은 梵語로 帝釋이란 뜻이니 이 峰을 因達峰이라 한것은 帝釋峰이란 것으로 解釋할 것이다。

南門을 넘어서서 山城으로 들어서며 風致의 좋은 것은 다시 말할것 없거니와 大興寺 觀音寺 開聖庵 雲興庵 等은 現在 形態를 多少남기고 있는 寺觀이어니와 其他 古寺址 山倉址 廟壇 等은 好古學者로 하여금 흠체로 하여 이 곳을 兩三日間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特히 觀音寺는 法堂을 重修했지만 古塔도 좋고 岩窟內 觀音塑佛은 高麗佛이라 하여 一般에 藉藉하다。

登高望遠도 자미있고 赴流灌足도 爽快하겠지만 古蹟도 찾아보라 興地勝覽의 要領있는 大興洞天의 記를 읽으며 올라도 좋다。

大興洞 在天摩 聖居兩山之間 自朴淵而上 山漸高水益淸 岩石甚奇峻至觀音窟前 水深成池 錦鱗游泳 有右出水心 曰龜潭 又上數里 有石光潔長可數步 流泉汩汩 細布其上 滑緩無聲 下射沙堤 逗爲深淑 澄澄澈底 四面皆石 或如案榻 或如墻屋 其下皆萬歲矮松 又上數里 有泉出自東崖 曰普賢洞 又上數步曰馬潭 又上數里 曰大興寺 今只有古址 寺之上 有圓通詩人 禪岩 寂照庵等 又有海印 聚雲 法林 泰安 雲谷等古基 泰安乃高麗太祖胎室也 大抵洞中樹木蒼鬱 日光不到地 夏則綠陰滿徑 木蓮花開 淸香擁鼻 秋則赤楓黃葉 倒映水底 眞佳境也。

以上 高氏의 古蹟記로서 松都 古蹟에 關한 槪念을 얻을 수 있을 것임으로 以下個別的으로 그 由緖를 찾아보기로 한다。

다만 여기에 附記코저 하는 바는 可及的 現存한 古蹟에 置重을 했고 그 根據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古蹟은 他郡과의 配率關係도 있고해서 여기에서는 除外키로 했다는 點이다。그러고 松都도 現在 不幸히 敵中에 있어 그 現況을 詳述치 못함을 附言해 둔다。

一、敬德宮

敬德宮은 南大門에서 半粁地點、鐵道沿線 南側에 位置한다。이 敬德宮은 李太祖 李成桂의 潛邸로 元名은 楸洞宮이다。

李氏朝鮮과 이 楸宮 卽 敬德宮과의 關係는 實로 깊은 바 있으니 麗朝五百年의 王朝를 쓸어드릴 무서운 꿈도 이 邸內에서 꾸어졌고 李朝初代의 科擧選試도 이 宮에서 行해졌었다。高麗朝의 主梁인 鄭圃隱에 對한 謀殺、禑王의 廢黜、麗末의 名將으로 大小戰을 莫論하고 一生을 두고 단 한번도 敗한일이 없는 崔瑩將軍을 高陽으로 流配시키고 마침내는 死刑에 處한 그 무서운 李太祖의 行悖도 實로 이 敬德宮을 中心하여 謀意되고 實踐되고 收拾되었던 것이다。

敬德宮을 이야기 하자면 李太祖 李成桂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고 李太祖를 이야기 하자면 麗末의 名將 崔瑩을 또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으니 李朝 五百年이 있은 것도 實은 崔瑩의 德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崔瑩의 지나친 李成桂에 對한 信賴가 李朝王國 建設의 契機가 되어 주었고 우리 民族으로 본다면 李太祖의 威化島反攻으로 因하여 一場의 꿈이 되어버린 崔瑩이 遼東遠征의 失敗는 우리의 史上의 一大痛恨事가 아닐 수 없다。萬一 그때 李太祖(右軍都統使)가 崔瑩과 合心하여 遼陽을 쳤더라면 明의 遼東兵이 거의 北元征伐에 動員되어 遼陽防禦力은 實로 微々했던지라 오늘의 우리 領土는 一大變革을 이르켰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는 崔瑩이 一生을 通한 無慮 百餘戰에서 또한번도 敗한일이 없다는 貫錄과 또한 部下格이던 李太祖 一派로 부터 斬刑을 받아 落命할 때만 해도、泰然自若했다는 點이 罪名을 씌우기 爲한 僞證에、

「萬一 내게 貪心이 있었다면 내무덤에 풀이 날 것이오、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으리라——」

이러한 遺言을 했다는 點、(亦是 풀이 나지 않아서 崔瑩將軍墓를 一說 紅墳이라 일컫는다) 그의 信念이 얼마나 强했던가를 알 수 있다。

그는 이 遼東遠征에서도 반듯이 이기어 우리民族에 貢獻했으리라는 것이 大部分 專門家들의 意見이다。

어쨌든 楸洞宮은 李朝王國의 建國經論을 議論하던 歷史的인 建物로 李太祖는 勿論 二代、定宗、三代 太宗의 三代王이 全部 이 建物과 關

係에 깊은 바 있으니 太祖는 漢陽遷都까지의 三年은 定宗 또한 卽位後에도 二年間을 이 楸洞宮에서 보냈었다。三代 太宗도 이建物을 大改修하면서 敬德宮이라 改稱하여 王居로 삼았던 것이다。

楸洞宮 當時의 建物은 規模로나 建築으로나 相當히 廣大했었으나 壬辰倭亂의 兵火로 大部分이 燒失되어 荒廢한채 放任되었든 것을 第十七代 肅宗이 在位 八年에 一部 修築을 하고 圍墻을 쌓아 松檜로서 風致를 圖謀하여 겨우 오늘의 面目을 維持하고 있다。그러나 겨우 그 遺蹟을 記念하는데 不過한 옛 規模에 比하면 天壤의 差가 있다 할 것이다。

改修後 肅宗은 十九年에 親히 宮을 周覽하고 御製詩書를 나리어 碑閣을 세웠다。肅宗親筆은「敬德宮丕啓靈之碑」로 되어 있다。英祖의 敬德宮頌詩가 있기에 記錄해 둔다。

敬德宮　　李朝 英祖

何幸命辰膺寶閼　昔年此地龍飛宮
奚但小子愴心功　至德深仁永不窮

二、壽昌宮址

壽昌宮 또한 敬德宮 못지않어 李氏朝鮮과 因緣이 깊은 建物이니 李太祖와 定宗大宗의 三代王이 나리 이 宮에서 王位에 올라 儀를 가춘 歷史的인 遺蹟이다。

壽昌宮址에 位置는 道立病院을 지나서 一古館이 보이는 郵遞局 附近一帶로 알려지고 있다。이 古館이 留守行廳이던 建物이다。

壽昌宮의 建造年代는 아직까지 밝혀져있지 않고 未詳이지만 高麗顯宗 以前의 建物인것 만은 顯宗二年의 史記에 이 壽昌宮이 나타나 있으므로서 알 수가 있다。

卽 高麗開國 九十四年 顯宗二年 우리에게 侵略해 온 契丹의 禍를 避하여 顯宗은 南朝鮮으로 蒙塵하였었다。

이 契丹의 第二次 侵寇로 하여 開京의 많은 建物과 國寶가 燒失되었으니 契丹의 侵寇口實은 顯宗의 承位케 한 康兆에 關하여 罪를 묻겠다는 것이 契丹 聖王의 主張이었다。卽 契丹의 聖王은 顯宗元年 十一月에 四十萬大軍을 親히 이끌고 自軍을「義軍天兵」이라 일컬으며 鴨綠江을 건너 興化鎭을 包圍하고、

「契丹의 天兵이 쳐나려온 것은 康兆를 膺懲함에 있을 뿐이니 康兆만 잡아 보내면 곧 回軍할 것이오、그렇지 아니하면 開京을 치리라——」

이런 勸降文을 보내 왔으므로 俗稱 第二回 契丹亂을 康兆亂이라고까지 口傳되어 오는 所以도 이에 있다。그러나 이는 侵寇의 口實이오 康兆는 契丹한테 아모런 問責을 받을 根據도 없다。康兆가 穆宗을 謀弑하고 顯宗을 세운 것은 事實이나 這間에는 그럴 수 밖에 없는 事端이 있었으니 穆宗의 母后 皇甫太后는 金致陽과 邪戀에 눈이 어두어 相思男女의 謀議로 穆宗을 廢하고 金致陽으로 하여금 政權을 잡게 하는 陰謀를 하고 있었든 것이다。

이를 눈치 챈 穆宗은 마침 病中이기도 하려니와 心弱해져서 金致陽에게 물리기 前에 王位를 親戚인 大良院君에게 讓與키로 決心은 하고(이 大良院君이 곧 八代의 顯宗이다)。마침 三角山中에서 修道中인 大良院君에게 密使를 보내고 身邊이 不安하여 西北都巡檢使로 있는 康兆에게 빨리 올라와서 宮을 지키게 하라 했던 것이다。

穆宗의 命을 받고 急據上京하는 康兆한테 謀使를 보내어、

「그것은 王命이 아니고 王太后와 金致陽이 王位를 뺏고저 당신을 軍隊로 부터 떼고저 함이니 곧 本道로 돌아가라。」

는 謀略을 썼으나 康兆는 그대로 올라와서 精兵 五千으로 宮을 包圍하고 穆宗을 廢位시키는 한편 顯宗으로서 承位케 했었다。

어쨋든 이 康兆 口實의 契丹亂이 開京의 古蹟뿐 아니라 全國에 걸치어 史上의 一大劫運을 이루었으니 首都 開京에 入城(顯宗二年一月一日)한 契丹軍은 不過 十日間에 그 殘虐한 掠奪의 度는 形言할 수가 없

고 太廟、宮闕、首都에 集結되었던 모든 文化財、史籍、文獻等 거의 全部가 燒失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兵火에서 겨우 一部나마 남은 것이 壽昌宮 이었으니 顯宗은 淸州에서 還都하였으나 들 宮이 없어 그해(一一年)二月부터 五年 正月 新宮이 이룩되기까지 이 壽昌宮을 王居로 삼았다。이러하여 壽昌宮은 高麗朝의 別宮中 가장 重要한 地位를 占하였거니와 二十二代 康宗王이 昇遐한 것도 이 壽昌宮이었고、蒙古兵 亂으로 混亂이 極烈했을 때 二十三代 高宗(二十年)이 太祖의 神御를 奉安한것도 壽昌宮이었고、二十六代 忠宣王이 卽位한 것도 이 壽昌宮이었다。麗末의 幼王 昌王의 大妃 李氏도 이 壽昌宮에 살았었다。

李太祖、定宗、太宗의 三王이 여기에서 承位했음은 上記한 바와 같거니와 이렇듯 史上에 이름있는 壽昌宮도 지금은 그 遺址 조차도 짐작을 할 수 없을 뿐이다。

壽昌宮址는 史的으로도 이렇듯 이름이 높거니와 勝景地로서도 어느 勝地에 遜色이 없다。宮址에 오르면 眼下에 開京이 펼쳐지고 松岳與松의 靈山의 眺望이로 形言키 어렵거니와 李朝 二代인 定宗도 이 壽昌宮에 올라서

「前朝(麗朝)太祖의 智로써 이곳에 都邑하였음이 어찌 偶然한 일이랴。」

이렇게 感激했다는 記錄도 남아 있다。

三、觀德亭

觀德亭은 子男山의 中腹、巨岩重巒한 위에 서 있는 古亭을 이름이니 建造年代는 確認되어 있지 않다。麗朝의 忠臣 圃隱鄭夢周의 邸宅도 子男山에 있었다。建物도 十坪程度요 建築도 別다른 興味를 이르켜 주는 것은 못되나마 古來로 武人들의 射場이었드니만큼 이 一帶는 實로 勝景이다。巨岩老樹가 幽邃의 境을 이루고 있거니와 眼下에 都京市街가 俯瞰되고 北에는 麗朝의 宮殿址인 滿月臺西로는 全山이 송로 덮인 蜈蚣山、南에 南岫山과 敬德宮址를 바라보고 東으로는 太宗臺가 李太祖의 私邸이었던 穆淸殿을 眺望할 수 있어 松京의 觀望臺의 느낌이 있다。

鄭圃隱의 崧陽書院도이 附近이니 崧陽書院자리가 바로 그의 邸址다。이 一帶는 高麗朝의 名公巨卿들의 住宅地였든만큼 遺墟에는 碑石이 散在해 있어 往年의 繁榮을 推想케 한다。

射亭은 이 밖에도 敬德宮 뒤에 友求亭、子男山 東南麓에 白虎亭 等이 아직도 남아있다。

四、善竹橋

觀德亭이 있는 子男山 東麓에 一石橋가 있으니 이것이 史上에 有名한 善竹橋다。橋東에 碑閣이 있어 「一代忠義萬古綱常」이라 刻銘되어 있다。이 곧 麗朝의 忠臣 圃隱 鄭夢周가 太祖의 子인 芳遠(後의 太宗)에게 槌殺되어 殉死한 石橋다。

這間의 史實은 普遍化되어 다아는 事實이거니와 이를 要約하면 麗末의 政情은 事明派인 李成桂와 背明派인 崔瑩派의 兩勢力이 서로 堅持되어 伯仲을 겨누고 있다가 遼東遠征을 契機로 이것이 表面化되었다。遼東遠征이 發議된 經緯도 長愓하여 이를 略하거니와 一言으로 하면 恭愍王이 一宦者의 손에 弑逆되자 이를 事元派를 牽制코저 明에서 內政干涉이 甚하게 되자 事元派인 崔瑩이 征明論을 主張케 된 것이다。

이 崔瑩의 征明論에 李成桂는 처음 부터 異議를 갖고 있었으니、그가 反對하는 理由로서

「以小逆大 一不可、夏月發兵 二不可、舉國遠征倭乘其虛 三不可、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 四不可」

이 네가지다。이 遼東遠征에 對한 李太祖의 反對가 愛國至誠에서 온 反對인지 또는 崔瑩에 對한 感情的所致였는지는 알 길이 없거니와 李太祖로 하여금 威化島에서 回軍케 한 直接的인 動機를 만들어 준 것은 事實이었을 것이다。이때의 李成桂의 心中을 말하는 사람에 따라 解釋

이 子子할지나 發兵을 끝내 反對한 것도 아니고 秋期로 延期하자는 主張을 한點으로 보아 이때까지는 謀叛할 意思가 없었든 것도 같다。

어쨋든 王의 命을 崔瑩이 八道都統使 李成桂가 右軍、曺敏修를 左軍의 都統使로 하여 發兵케 되자、李、曺兩統使는 손을 잡고 回軍하여 子男山에 崔統使軍과 一大接戰이 벌어졌었고 이에 勝利한 李成桂는 禑王이 恭愍王의 後嗣가 아니라 하여 寧妃와 함께 江華島로 逐放、後에 이를 廢殺했고 神宗의 七世孫인 定昌君諗가 推戴되어 王位에 오르니 崔瑩一派의 勢力은 完全히 除去된 셈이다。

처음에는 어쨋든지 알 길이 없으나 李成桂는 威化島에서 回軍할 때는 이미 謀叛의 뜻이 서 있었든 것으로 볼수밖에 없고 이에 雷同한 것이 趙浚、鄭道傳、南誾 等의 心腹이었다。이들間에 李成桂를 王으로 推戴하자는 密議가行해짐을 눈치챈 圃隱은 마침 海州에 出獵中 落傷으로 집(穆淸殿)에 돌아왔음을 듣고 問病이라기 보다 探情次 李成桂를 찾아갔던 것이다。

當時 鄭圃隱은 子男山 지금의 崧陽書院 자리에 살고 있어 穆淸殿인 李太祖의 私邸로 가자면 善竹橋를 건느게 된다。鄭圃隱의 心中을 잘 알고 있는 李氏派에서는 圃隱이 通過한 後에 이 善竹橋밑에 隱匿、問病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鐵槌로서 斥殺한 것이다。

이 擧事에는 主動이 芳遠이었고 下手者는 趙英珪外 三人이었다한다。

善竹橋의 第二石이 圃隱이 鐵槌를 마진자리라 하여 이돌에는 지금도 血痕이 남아있어 비가 오면 더욱 鮮明해 진다고 傳해짐은 圃隱公의 忠義를 追仰 하자는데서 일 것이다。

善竹橋의 元名은 選地橋로 이 附近에 選地書齋가 있던데서 이름되었을 것이다。善竹의 이름의 由來를 「圃隱實記」에서 보면 公이 殉節하던 날 밤 사이에 橋傍에 대(竹)가 낮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 高麗古都記에는

案善竹橋舊名選地橋 聲近而譌爲 善竹橋善竹之見於麗史牧隱集 幷高麗末年 而俗傳產竹 俗傳久說 自歸謬妄不足辨 其血跡之說 亦是後起—云云」

한 것으로 보면 善竹橋의 橋名은 公의 殉節以前부터인 모양이다。

오늘의 善竹橋石欄은 李朝 二十二代 正祖四年 當時의 留守요 鄭氏後孫인 鄭好仁이 忠節의 피를 밟을 수는 없다 라고 別橋를 架할 때 따로 이 마련한 것이다。善竹橋의 三字碑는 名筆로 有名한 石峰 韓濩(李朝十二代 中宗 三十八年生、宣祖乙巳에 卒)의 書요、錄事碑는 純祖 二十四年 詩、書、畫의 三絕로 有名한 紫霞 申緯의 書다。

碑閣안의 碑를 泣碑라 하니

그것은 날이궂던지、비가오려면 碑身에 濕汗이흘러서 이름한 것이다。

善竹橋 橋材속에 끼어 있는 梵文陀羅尼石幢의 一部는 이 附近에 있던 妙覺寺의 遺物로 推測된다 하며 橋西에 있는 大碑閣의 褒忠碑는 英祖(十六年 庚申)의 御製御筆이오 表忠碑는 高宗의 御製御筆이다。

善竹橋　李朝　尹墊

東橋水爲我公淸　血碧千年死若生

聖祖當時開創業　且將成就一人名

五、崧陽書院

子男山의 東南麓 傾斜地에 古雅한 建物의 一集成이 있다。路上에서 올려다 보면 三階段으로 되어 우람스럽기 까지 하다。

이 곧 忠孝節義로 學問、文章에 經世智略을 兼備한 高麗朝를 通한 一世의 宗匠인 圃隱 鄭夢周 先生의 德을 뫼신 崧陽書院이다。

圃隱은 號요 字는 達可、幼名은 夢蘭·夢龍、高麗 十七代 仁宗朝의 儒臣 鄭襲明의 後裔로 二十七代 忠肅王 六年(西紀 一三三七年)十二月 戊子에 出生 十九歲에 父喪、喪期를 마친 恭愍王 六年(西紀 一三五七)二十一歲에 監試에 合格한 것을 出發로 十二年에 郎將兼閤門祗候、十四年에 曲農寺丞、十六年에 禮曹正郎 兼 成均博士、二十年에 中議大夫、中正

二十三年에 慶尙道按廉使禑王王元年(西紀一三七五年)에 成均大司成——이렇게 昇進하여 國相에 이르렀으며 約三十年間 立朝한 동안 그가 세운 功은 國內外에 떨치었었다。

圃隱은 卓越한 政治家였을 뿐 아니라 또 性理學說을 國內에 輸入한 功勞者다。恭愍王 十六年에 그는 成均博士로서 當時의 碩儒 牧隱、李穡、金九容、李崇仁 等과 講說을 할 때 李穡으로 하여금 「達可——理를 論하며 橫說竪說이 理에 當치 않음이 없다」라고 驚嘆케 하여 그를 東方性理學의 祖로서 推仰케 했던 것이다。이때의 講學、訓導로서 그의 學說은 吉再를 기치어 金叔滋、金宗直、金宏弼、靜菴、趙光祖 等에 繼承되었고 그의 浩瀚、飄逸한 文章과 豪放峻潔한 詩文은 當代의 碩儒로 하여금 「續道緖於濂洛之源、引諸生於詩書之囿 尤以善說詩 見稱當世」의 絶讚을 받은 程度다。

이렇듯 高名한 大學者이면서도 그의 政治的力量에는 實로 麗朝歷代의 賢相이 따르지 못했으니 이의 一二를 든다면 麗末의 기우는 國權을 바로 잡기 爲하여 私田革罷로서 民生安堵에 이바지 한바 컸고、昌王이 廢黜되고 恭讓王이 位에 오르자 威勢에 呵附하는 무리들의 陰謀妬視의 弊를 一掃키 爲하여 誣告律의 法을 宣布하므로서 이를 막았었고、恭讓王 二年에 判都評議使司가 되어 國相으로서 庶政을 맡자 地方官吏의 質的向上을 꾀하여 大幅的 人事移動을 斷行하고 監司와 首領級을 보내어 黜陟을 嚴히 하여서 百姓들의 絶讚을 받았었다。當時는 都評議使司(議政府的存在)는 國政만을 負擔하고 金穀出納은 六房錄事에 一任하고 있었던 關係로 가진 挾雜과 橫出이 많아 國營財의 捻出에 莫大한 支障이 되고 있음을 알자 이의 專橫을 防止키 爲하여 「經歷都事」라는 中間機關을 設置、이를 막았었고 「義倉」을 세워 窮民을 救하는 救濟事業을 勵行했으며 「水站을 두어 漕運을 開發했고 編修官을 두어 史乘編纂을 꾀했고 體刑法을 改正하여 新律을 宣布시키었으며 綱紀을 바로잡아 賢良登庸으로 政治를 革新하는 等 治績은 實로 刮目할만한 했다。

이렇듯 內政에 功을 세우는 한편 그는 또 軍事的으로도 多大한 功獻을 했으니 隨時로 從事官、助軍元帥로서 出陣、女眞、倭寇의 三善三介胡拔都의 大擊破와 雲峰大捷은 實로 그의 參劃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外에도 外交로서 國家에 貢獻한 實績 또한 위의 功만 못지 않다。卽 恭愍王 二十一年에는 오랫동안 膠着狀態에 빠졌던 明과의 國交修正의 王命을 받고 入明、留學生派遣、三年一聘의 禮法協定의 功을 세웠고 李仁任 等이 親元思想을 鼓吹하여 다시 明과 알륵이 생기어 明은 使臣을 杖流、監禁 等 行悖를 부리는지라 아무도 明帝誕辰使로 가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圃隱은 「君父의 命이어니 어찌 水火가 있으랴」하고 當日로 出發、五年間이나 歸納된 歲貢의 免除、歲貢額의 大幅的인 減額等 豫想外에 成果를 거두고 돌아 왔던 것이다。

公이 이러한 外交的 成果를 걷운 것은 그의 外交的 手腕이 놀라워서는 아니다。그의 博學과 漢學의 本據인 中國에서도 놀란만한 公의 文章과 陶冶된 그의 人格에 醉했던 것이다。그 前에도 明使로 간 일이 있었지만 그 때 破船으로 九死에 一生을 얻은 事實과 九十日間의 路程은 晝夜兼行하여 六十日로 短縮시키는 等 公의 至誠에 明皇은 깊이 感動했던 모양이다。

公은 또 倭에도 갔었으니 禑王元年 高麗에서는 倭寇의 海賊으로 해서 이른바 「蕭然一空」케 되어있어 이를 打開고저 使臣 羅興儒를 九州에 派遣했던바 倭는 도리어 麗朝를 疑心하고 羅民을 監禁하는 暴擧로 나왔던 것이다。이로 因하여 兩國間의 感情은 尖銳化하고 倭寇의 情은 날로 甚해가고 있어 朝廷에서 圃隱을 起用、九州에 特派 했더니 九州探題 今川了俊도 公의 爲人과 그의 博學、能文、能詩에 感嘆하여 海賊行爲를 嚴禁케 할 것을 快諾했었다。이 外에도 公이 倭에서 얻은 外交的 成果

는 큰바 있다。卽、그때까지 倭에 被擄中에 있던 數百名의 高麗人을 찾게 된 것이오 그 後에도 數次 公의 書翰이면 卽時로 釋放하는 信義로 나왔던 것이다。이로서 政治家로서와 學者로서의 一面을 보아 왔거니와 그러면 그의 사람됨은 어떠 했던가。

公이 天稟이 豪進剛直하여 節義의 앞에는 斧鉞도 辭치 않는 氣槪임은 그의 一生을 通하여 그 어느 事件에서도 엿볼 수 있다。그가 登第하여 첫 官路에 나아갔을 때 紅賊을 擊破하여 서울을 收復한 大功이 있는 金得培를 奸臣 金鏞이 壇殺하자 勇敢히 그 屍體를 장사지낸 일 이라든가、崔瑩이 李成桂한테 쓸려진 後 단한명의 軍卒도 갖지 못한 文臣이었지만 李成桂를 敵으로서 對陣 한點이라 던가、李成桂의 勢力이 麗朝를 삼키게 됨을 보고 그의 友僧이

「江南萬里野花發、何處春風無好山」

이런 글을 주며 山野에 돌아가 隱遁하기를 勸했을 때、「나라를 亡케 한 내 山野엔들 어이 가리」하고 드디어 害를 입은 點等 그의 爲人의 一面을 엿볼 수 있다。또 그는 厠上에서 詩想를 많이 얻었다 한다。그러면 곧 紙筆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쓰더니 恭愍王이 廢黜된 後로는 一切 그런 일이 없어 夫人이 怪彙하여 물으니까、

「내 나라 잃엇으니 어찌 詩想이 일겠소。」

이렇게 對答하며 落淚했다는 逸話도 傳해지고 있다。國運이 이미 기울어 李氏 一派을 牽制할 能力이없고 最後의 機會까지 울키어 다시는 可望이 없음을 깨닫자 滿三日間 一切의 寢食을 全廢했다고도 傳해진다。

公이 殉國하던날 이야기는 善竹橋頂에서 槪述한바 있거니와 여기에 이를 좀 더 敷衍하면 恭讓王四年三月 世子(奭)가 明에서 돌라 오게되어 李成桂는 世子出迎次 나갔다가 사냥中 落馬로 負傷을 입었다는 消息을 듣고 鄭夢周는 李氏打倒運動을 積極推進키로 決心하고 李氏의 羽翼格인 鄭道傳、趙浚、南誾、趙璞等을 處理해야 하였으므로 臺諫으로 하여금 이를 彈劾케하여 流配시키고저 李氏가 돌라오면 最後로 擧事할 計劃이 있었다。

그러다 이러한 눈치을 李成桂의 第五子인 芳遠이 채고서 父親에게 夢周謀殺을 進言했던바、太祖가 될만한 李成桂 였든지라 亦是 그만 人物을 犧牲시키는데는 躊躇했던 모양이다。이러한 父親의 態度를 보자 芳遠은「王將侯相寧有種乎」하는 廣興倉使 鄭摠의 말에 뒷일은 自身이 責任을 질 覺悟를 하고 趙英珪 等에게 시키어 機會를 보던中 마침 圃隱이 李氏問病次 단여 오는 것을 보고 趙英珪는 善竹橋 附近에 潛伏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圃隱의 사람됨이 얼마나 활달한가가 엿보이니 그는 空氣가 異常함을 豫感하고 禍는 自身만이 입으리라 하여 隨行했던 門生 權遇와 隨行錄事를 보고 子지 따르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그래서 權遇는 떨어지고 隨行錄事는 참아 떠날 수가 없어 難을 함께 當한 것이다。

그가 얼마나 偉大했던가는 그를 謀殺한 芳遠이 三代 太宗이 되어 位에 오르면서 大匡輔國崇錄大夫 領議政府事修文殿 大提學兼藝文春秋館事益府院君의 職에 封하고 文忠의 諡을 追贈했으며 子孫들을 重用했던 것만으로도 想像키에 足하다。

古時調에 傳해지고 있는 太宗의 時調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萬壽山 드렁칡이 얽어진들 긔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여져서 百年까지 하리라。」

이런 것이 있고 圃隱作의

「이몸이 죽고죽어 一百번 고쳐 죽어
白骨이 塵土되고 넋이야 있던없던
님向한 一片丹心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이 有名한 時調는 太宗이 芳遠時代에 圃隱의 마음을 떠 보리라고 酒宴을 베풀고 請해 놓고 그 자리에서 卽興으로 前首를 지었던바、그 卽席에서 圃隱이 自己의 決意를 應酬했던 詩로 傳해지고 있다。

現在의 崧陽書院은 李朝 十四代 宣祖六年 留守 南應雲이 書院을 세우고 文忠堂이라고 稱한 것을 同八年에 扁額의 下賜를 받아 崧陽으로 改稱케 된 것이며 圃隱 先生의 畵像과 位牌、生前에 愛用하였다고 傳해지는 竹杖 等이 保存되어 있다。

六、成均館

成均館은 善竹橋 北便 約 一粁 地點에 있다。五百年間의 王都였고 李朝에 들어와서도 漢陽 다음 가는 大都로서의 面目을 維持했더니만큼 다른 都市의 成均館에 比할바 아니다。이 成均館의 起源은 멀리 高麗朝 第六代 成宗十一年에 現成均館 자리에 國子監을 創建했고 第二十三代 宣宗八年에 宋이 國子監을 본떠서 七十二賢의 像을 壁畵하므로서 始初를 본 것이다。이 國子監 바로 위에 高麗朝 開城 三十三年 即 光宗 二年 麗太祖의 願堂으로서 創建된 國刹로 太祖의 眞影을 奉安했던 奉恩寺가 있었고 開城誌에는 成均館의 位置를 「在馬岩之北」이라 했으니 여기의 馬岩이란 恭愍王이 魯國公主를 爲하여 傾國의 大土木을 이르킨 馬岩影殿의 馬岩이다。元來 이 影殿은 麗太祖 即位 二年에 國內에 創建한 十大刹中 國刹의 一이던 王輪寺 東南에 이룩했었는데 그 工事가 얼마나 苦役이었든 것은 史記에도 남아 있다。

그러나 起工 二年에 即 同王十七年에 影殿의 規模가 적다하고 僧 三千이 어찌 들겠느냐 하여 이 馬岩西로 다시 移轉經營케 하였으니 影殿 工事의 命을 받은 元朝의 梓人(土木工事長格) 元世(그는 그때 濟州島에 와서 있었다)가 그 工事의 無理함과 大元帝國도 土木事業으로 쓸어지거늘 一小國 高麗로서는 無謀한 工事라 하여 이의 中止를 王께 諫言하고 宰輔들에게 勸했던 것만으로도 可히 짐작할 수가 있다。

却說하고 成均館의 創始는 前述한 바와 같이 成宗때니 即 成宗二年 博士 任老成이 宋으로 부터 文宣王朝圖 一舖와 祭器圖 一卷、七十二賢贊記 一卷을 갖여 옴을 機會로 國子監을 創設(十一年)하였고 高麗史에 「自國初肇文宣王廟于 國子監」、高麗圖經의 「舊在南會賓門內」로서 不朝峴과 古南門 中間에 位置했던 것도 잠작이 된다。그後 宣祖六年에 「今移在禮賢坊」이라고 되어 있고 보니 俗稱 「국추골」이라는 國子洞이었든 모양이다。

이 國子監이 成均館으로 變遷한 過程을 보면 第十三代 宣宗八年에는 大門에 國子監의 扁을 붙이고 正殿을 宣聖殿、七十二賢像을 壁畵로서 代하고 十五代 肅宗六年에는 左右廊에 六十一字 二十一賢을 새로 그리게 했으며 十六代 睿宗九年에는 國學을 세웠으며 十四年에 養賢庫를 두고 二十四代 元宗二年에 東西學堂、忠烈王 三十年에 大成殿을 重創하였었다。이 東西學이 國學으로 轉換된 것은 恭愍王 十六年이다。이 때 恭愍王은 規模도 키우고 敎官으로서 當代의 名碩儒이던 李穡、鄭夢周等을 敎官으로 明倫堂에서 講學케 하던바 李朝 十四代 宣祖代의 壬辰倭亂으로 兵火를 입어 廟宇가 거의 燒失되고 東、西兩齋만이 겨우 남았었다。이를 再建하기는 同二十八年이오 三十五年에는 大成殿을 再建、第二十二代 正祖五年에 明倫堂도 重建되었든 것이다。

六●二五前까지에도 五聖十哲의 位牌와 七十子 및 歷代諸賢을 뫼시었으나 現在는 어찌 되어 있는지 알길이 없다。

成均館은 이렇듯 由緖깊은 建物이기도 하고 또 古蹟으로도 意義가 깊거니와 境內에는 十餘株의 老槐와 三株의 大銀杏木이 翠雲처럼 茂盛하여 古雅한 情緖를 도아주고 봄에는 松岳、子男等에서 모여드는 꽤로리와 여름의 매암이 소리는 俗世를 잊게 한다。世苦에 지달린 마음도 境內에 들면 淨化되는듯 싶은 느낌이든다。

七、滿月臺

滿月臺는 高麗朝 三十四代 四百七十五年間의 王宮址로 松嶽山 南麓 四十八米의 高臺를 이루고 있어 文字 그대로의 松山이오 岩山인 松嶽을 등지고 앞으로는 朱雀峴 넘어로 進鳳山 嶺이 바라보고 松京이 한눈에 드는 勝地다 俗稱 四神이 깃든다고 聖地視 되거니와 高麗朝가 王宮을 營爲하며 石階四路를 만들든 것도 이 四神說에 依據함이 였든지 모른

다。新羅의 慶州、李朝의 서울、史上 各朝의 王宮址中 가장 勝地를 擇한 것은 亦是 高麗朝였다 할 수 있다。高臺에 宮殿자리를 잡은 것도 麗朝王宮의 特色이라 할 것이다。

麗朝가 일어난지는 距今 千四十餘年前이니 그 規模의 큼과 壯함에 새삼스러이 놀라진다。通路의 石段을 올라가면 廣濶한 宮址에 襍比한 巨礎가 全殿玉樓에 翠檐紅欄이 그 壯嚴을極했을 往年이 豪華를 足히 想像케한다。成殿當時에는 會慶殿、長和殿、元德殿、萬齡殿、長齡殿、延英殿 等 宮殿에 廻廊閣閣으로 俄然 一大 王國을 이루었다는 記錄은「高麗圖經」을 爲始한 많은 史記에 點綴되어 있다。

이때의 宮殿 規模가 얼마나 컸던가는「高麗圖經」에 나타나 있는 會慶殿條만 보더라도 可히 짐작할 수 있으니

「規模甚壯 基址高五丈餘、東西兩階、丹漆欄檻、稀以桐花文彩 雄麗冠諸殿——云云」

이 一節이 會慶殿의 面貌를 傳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壯嚴해서만 宮殿이 아니며 雅美해서만 자랑이 아니다。이 一句로서 當時의 壯嚴과 優美를 兼한 諸殿의 모습이 눈에 아련해진다。또한 이 大規模의 宮殿뒤에는 後苑이 마련되어 있었으니 李氏朝鮮의 秘苑도 이에서 準했을지도 모른다。이 長陵宮苑에도 많은 閣이 있었 다 하거니와 그中 가장 雅美를 極한것이 八角殿、八仙殿、賞春亭等의 建物이었다。特히 八仙殿은 當代의 美術的 全力量을 最高度로 發揮하여 이룩된 靈殿이라고 한다。

이 宮殿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軟弱、文弱에 빠졌던 新羅를 統一하고 氣勢沖天의 覇氣로서 一路建國에 挺身하던 麗人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이렇듯 壯嚴하던 新興 高麗國이 象徵이던 滿月宮은 第八代 顯宗이 卽位 하던 바로 그해 契丹은 大擧 高麗에 侵入(壽昌宮項參照)하므로서 宮闕은 勿論民家의 殆半이 燒失되었다。契丹軍의 野蠻的인 掠奪、蠻行은 度를 極하여 참아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을 程度였다。

그러나 우리는 新興 高麗의 氣槪를 또 한번 볼 수 있었으니 難後二十年에 新造된 宮殿은 往年에 比하여 規模로나 優雅로나 一步前進했던 것이다。이것이 다지 三十一代 恭愍王朝에 侵入한 紅巾賊의 侵寇로 完全히 燒失되므로서 五百年間의 宮殿은 廢墟로 化하고 말았던 것이다。

滿月臺는 望月로도 일컬어지니 여기에서 달맞이는 格別하다。달은 봄보다도 가을이 좋으니 찬밤 寒月을 바라보며 往年의 王朝와 宮苑에 놀던 宮女들의 心懷와 李太祖의 叛族로 소리도 없이 허므러져 가던 麗末의 悲史를 읊조리면서 宮址를 逍遙해 봄도 좋으리라。

李朝 安琛詩를 적어 둔다。

滿月臺　　李朝 安琛

五百年前迹已塵　崧山蒼翠幾回新
苔封輦路樵成逕　兩酒球庭草自春
後殿笙歌今寂寞　東池舟楫久沈淪
悠悠往事馮誰問　臺下唯餘月一輪

八、城　廓

松都에는 勅禦塹城、外城、內城의 三城이 있고 市北十粁地點에 大興山城이 있다。

勅禦塹城은 麗太祖가 아직 王建時代인 若冠 二十에 발들고 있던 弓裔의 命을 받아 築造한 城이니 西紀八九七年 卽 高麗開國 二十一年前이다。이에 王建은 아질 弓裔를 섬기고 있을때다。弓裔는 그해 松都에 都邑을 하고저 王建으로 하여금 築城케 했다가 八年後에 鐵原으로 遷都한 것이다。이 勅禦塹城(一名 菩提塹城)은 松都의 諸城中 가장 最古의 屬하나 現在는 遺跡도 없다。滿月臺 後岡이 될것이라 한다。

滿月臺 西쪽에 보이는 土壘는 宮城이었으니 勅禦塹城은 그 外廓을 둘았었다。高麗史 地理志에는 皇城 二千六百間에 廣化、通陽、朱雀、南

薰、安詳、歸仁、迎秋、宣義、長平、通德、幹化、金耀、泰和、上東、和平、朝宗、宣仁、靑陽、玄武、北小의 二十門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皇城의 東大門인 廣化門과 西門인 西華門 자리만이 알려져 있다。이 西華門址 옆에 이 碑閣이 있으니、바로 西華之變의 犧牲者 洪灌、吳卓 두 사람을 爲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西華之變」이란 저 有名한 李資謙亂이니 十六代 睿宗때 부터 麗朝의 隆盛期는 이미 下界의 徵候로 보여왔지만 十七代 成宗代의 이 李資謙 拓俊京의 亂을 契機로 十八代 毅宗과 明宗初에 결치어서 鄭仲夫、李義方을 中心한 武臣들의 反亂이 있었고 西京中心의 趙匡、妙淸亂(仁宗)、趙位寵亂(明宗代)等의 큰 地方亂이 繼續되어 二十三代 高宗末에까지 內亂이 그칠 줄을 몰랐으니 麗朝의 衰退는 이에서 出發했다 해도 過言은 아니다。

參考로 李資謙을 要約하면 北에서 일어난 金國은 날로 그 傲慢함이 度를 더 하여 高麗에 對한 有形無形의 壓迫을 加해오기 시작한 무렵에 麗朝에서는 睿宗이 돌아가고 外戚 李資謙의 策動으로 十四歲의 仁宗이 擁立되자 仁宗의 外祖父인 李資謙은 心腹 拓俊京과 손을 잡고 政權을 左右하게 되었다。資謙의 家系는 오래전 부터 王室과 姻戚關係를 맺어왔으니 그는 中書令 李子淵의 曾孫이오 子淵의 三女는 文宗의 妃가되고(그의 長女는 順宗、宣宗、肅宗의 生母다) 資謙의 妹弟는 順宗妃로 그의 次女는 睿宗妃로 封케 되어 仁宗을 낳았으니 王室을 혼들만도 했다。그는 自己勢力을 扶植하기에 힘써 良心派는 逐出하고 自己에게 阿附하는 人物로만 王室을 包圍하자「十八子爲王」이라는 風說까지 돌았었다。十八字로「李」氏를 意味한다。

일이 이쯤 되자 仁宗의 側近臣인 安甫麟 等이 上將軍 崔卓、洪灌、吳卓等과함께 資謙肅淸을 꾀했으나 도리어 資謙에게 退하여 安甫麟等 十餘名이 죽고 王을 그의 私第로 移御케 해서 毒殺하려다가 王妃의 奇智로 失敗를 했었다。

이에 資謙과 그의 腹心 拓俊京과의 사이에 軋轢이 생긴 것을 눈치챈 王이 侍臣을 시키어 拓의 離意를 종용하자 拓도 李資謙에 叛旗를 들어 李는 流配되고 數月만에 죽어서 이 內亂은 끝을 告했던 것이다。이 西華門 城址南丘에 있는 碑는 洪灌等이 王을 救出하려다가 被殺된 場所다。資謙이 얼마나 王室을 左右했던가는 그의 二女가 睿宗妃인데 三女와四女를 다 仁宗에게 주어 姊妹가 한 仁宗을 섬기게까지 만들 었든 것이다。仁宗四年이 었었다。

廣化門에 關해서는「高麗圖經」에 詳記된바 있기로 이를 轉載해 둔다。

卽

「廣化門 王府之偏門也、其方面東 而形制胳如宣義 獨無甕城 藻飾之工過之、亦開三門 南偏門牓制令四字 北門牓周易乾卦丞辭五字 仍有春帖子云 雪痕尙在三雲陛 月脚初升五鳳樓 百辟稱腸千萬壽 袞龍衣上瑞光浮」

이를 다시 中京之誌에 찾아 보면

「廣化門 原誌云 正殿南門 曰廣化 圖經云 王府內城 環列十三門 廣化正東 通長衢 據今所傳 廣化遺址 在兵部橋西 而向東則 其爲內城之東門無疑 原誌以爲 殿之南門似誤」

이로 보면 廣化門은 內城東門이었든 모양이다。

外城은 第六代 成宗代부터 자조 侵寇해 온 契丹에 對한 禦暴防民策으로서 姜邯贊이 顯宗께 建議하여 李可道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築城케 했으니 八代 顯宗元年에 起工 二十年이 걸리어 同二十一年에 畢했던 大工事다。이 築城에 所要된 年來는 上記한 대로 二十年이오 延人夫의 動員이 三十四萬四千四百名、城周가 二萬九千七百步、羅閣이 一萬三千間 高가 二十七尺에 두께가 十二尺이라 傳해지고 高麗圖經에는

「長城圍六十里、小形纔繞 雜以砂礫、隨其地形而築之 外無壕塹 不施女牆 列延屋如廊廡、狀頗類棲 雖施兵仗以備不虞 而因山之勢 非盡堅高至其低處則不能受敵、萬一有警 信知其不足守也」라 했고 또、

「其城皆無夾柱 獲以餓篇 上爲小廊 隨山形高下而築之 自下而望嵯山之

脊 城垣繚繞蛇蜿若蛇神蜿蜒址之形——云云」

그러나 이 城도 지금은 겨우 城址만을 알아볼 수 있을 程度요、訥里門(눌이문)에서 松岳山을 끼고 成均館、西北으로 멀어지는 곳에는 石築이 남아 있으나 이는 大部分이 麗末에 쌓은 石城의 一部다。現存한 專賣局자리에서 松岳으로 올라가는 石城址는 李太祖 登極二年에 쌓은 것이오 南大門도 그때의 建築이다。

外城은 通稱 羅城이라 하여 顯宗은 이 外城을 쌓고서 비로서 民安을 얻었다 하여 樂土를 노래한 金剛曲의 노래도 이 外城 卽 羅城築城後에 民間에 불리어진 노래라니 外城은 그의 任務를 다 했다 할 것이다。

大興山城을 高麗의 舊都인 市北 十杆餘에 있으니 元來는 北寇의 來侵때의 避難城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李朝十九代 肅宗이 大幅的 改修를 했다。

城周를 記錄에서 찾아 보면 五千九百九十九步로 東、西、南、北에 各一門이 있고 小東。小西에 各小門이 있었다 한다。

이 大興山城은 史的으로도 記憶하기에 足하거니와 이 周邊의 勝景은 實로 壯觀이다。奇岩重疊의 溪谷이 있는가하면 天摩聖居의 天險之地를 그대로 活用하여 萬景、淸凉、因達의 諸秀峰은 그대로 奇岩石柱에 翠松을 심은 듯 그 妙함에도 驚嘆하거니와 壯嚴美 또한 사람은 眩惑케 한다。

이 美景 巨光에 철없는 사람들이 探勝記念으로 刻名한 것이 美를 많이 傳케 하고 있다。이 一帶에는 天摩山 朴淵得布 等의 勝地가 있으나 別項에 나오겠기로 이에서는 略해 둔다。

九、興王寺址

興王寺는 佛宇로서 보다도 우리——아니 世界文化에 크게 寄與한 바 있는 八萬大藏經의 刊行事業이 劃策된 절이라는 點에서 더 크게 評價된다。址는 開豊郡 進鳳面 興旺里에 있으니 高麗 第十一代 文宗 二十一年의 落成이다。高麗 開國 百五十年으로 前後 十二年間의 大工事였다。國家가 一佛宇를 짓는데 十二年이란 時日을 要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佛殿이 얼마나 大規模였든가는 짐작이 되거니와 創建當時의 願堂은 實로 二千八百間이었다。高麗는 佛敎를 한宗敎로서 보다도 國家的信敎로 삼았을 뿐 아니라 國家의 隆盛을 裨補하는 願堂으로서 構想했었지만 너무 國庫가 기울어서 儒臣들은 猛烈한 反對를 했음에도 不拘하고 文宗은 이를 施行했던 모양이다。

이 興王寺의 落成을 보자 落成祝宴으로 五晝夜의 燃燈大會를 열어 安西都護、開城、廣州、水州、楊州等 諸郡에 勅令하여 闕庭으로 부터 寺門에 이르기 까지에 彩棚을 櫛比하게 連結시키고 路邊에는 燈山、火樹를 만들어 光明이 白晝를 凌駕할만큼 輝煌燦爛했고 王은 親히 百官을 거느리어 曠古未有의 一大盛況을 이루었다 한다。二十三年에 王이 南峰에 올라 上己詩를 制頌、二十四年에 三層大殿의 慈民殿의 新創、城壁을 쌓고 三十二年에는 金塔을 이룩케 했으니 裏銀이 實로 四百二十七斤 表金이 百四十四斤 이었으며 이를 外護키 爲한 石塔이 다시 만들었졌다。

그러나 前述한대로 興王寺가 史上에 燦然함은 그 規模보다도 八萬大藏經의 發詳地임에 있으니 八萬大藏經이 人類文化에 寄與한바는 여기에 再論할 必要조차도 없다。卽 文宗의 子 義天은 興王寺에 都監을 두고 그 自身 興王寺의 第一代 住持가 되어 發願도 하고 刊行에도 拍車를 加했던 것이다。宣宗의 二子인 繹澄嚴도 이 절에 住持케 했던 것이라든가 王者의 行香燃燈、飯僧信宿이 그칠 새 없었고 法具器皿까지도 가진 華飾은 다 했었다。遼使로 왔던 王黼이 興王寺의 小鍾을 貪내어 얻어 갔다가 遼帝한테 問罪을 받았다는 逸話도 傳해지고 있다。

이 보다도 興王寺에 關한 逸話로 史乘에 까까 오른 저 有名한 「興王寺金塔顯亂」이란 것이있으니 二十五代 忠烈王이 卽位二年에 齊國公主와 함께 興王寺에 幸하였을때 公主가 前記한 黃金塔을 貪내어 闕內로 가져왔던바 公主의 侍婢들이 裝飾品은 모두 떼어 갔고 塔은 公主가 私有

하려고 했었다 이를 본 王과 僧侶들이 懇請을 했으나 公主는 들어주지 않고 오던 中 忠烈王이 갑자기 得病하자 賢相들이 公主에게 다시 進言, 겨우 塔의 返還을 받았고 이를 듣고 王도 大喜하여 일어났다고 한다。

史實에 나타난 또 하나의 事件은 金鏞이 이르킨 興王寺之變이다。때는 三十一代 恭愍王 十二年 二月 王은 大學侵寇한 紅巾賊을 避하여 福州、淸州로 蒙塵했다가 二月에 還都 興王寺에 留輦中 王의 信任을 받던 金鏞이 이런 混亂에 生하여 叛黨五十餘名으로 興王寺를 包圍하고 侍衛를 盡殺하자、妃 魯國公主는 몸소 賊刃을 막으므로서 王을 護衛했고 宦者 安都亦은 王과 顔貌가 비슷함을 利用하여 王을 代身하여 殉死하는 等 一大不詳事가 突發했던 것이다。

이렇듯 興王寺는 高麗王室과 깊은 因緣이 있는 國刹이었으나 지금은 그자취만이 남아있을뿐 興王寺 碑石도 찾을 길없다。蒙古兵火는 滿月臺殿을 살랐을 뿐이었다。實로 高麗國圖를 살라 버린 셈이니 이때 부터 麗朝는 老衰의 길만 걸어오다가、禑王、昌王、恭讓、三代의 王名만을 남기었지 李成桂의 威化島 回軍으로 부터 十年未滿에 新朝 李氏朝鮮이 王朝에 代身하게 된 것이다。

一〇、廣明寺址와 溫鞋陵

滿月臺址에 올라 西北巖上에 一陸墓가 있으니 이것이 溫鞋陵이오 滿月洞八九番地에서 九一番地가 高麗建國과 密接한 史話를 傳해주는 廣明寺址로 지금도 그 礎石과 石階가 남아있다。이 麗朝의 開國傳說은 史話로도 曖昧가 있거니와 開豊郡一帶에 散在해 있는 西面의 錢浦、豊流洞 開城縣址의 한우물(大井)、南昌、昌陵里의 永安城址와 昌陵、嶺南面、靈通洞에 있는 靈通寺의 前身인 興聖寺와 滿月臺 王宮址안에 있던 奉元殿等의 一聯의 古蹟說明이 될 것이기 麗史에서 傳說을 轉記하기로 한다。

옛날 聖骨將軍이라고 自稱하는 「虎景」이란 사람이 白頭山으로 부터 扶蘇(松岳山)에 이르러 아내를 맞아 致富成家를 했으나 오직 血肉이 없어 슬프게 지나던中、하루는 洞民九名과 함께 平那郡으로 나냥을 갔다가 날이 저므러서 一岩穴에 들게 되었었다。

그러나 밤中에 大虎가 나타나서 굴속을 드여다 보고 소리를 치므로 十名은 자기가 쓴 冠을 범에게 던지어 범이 집은 冠의 임자가 호랑이의 밥이 되기로 作定하고 하나하나 내어 던지니 大虎는 다른 것은 다 집지 않고 虎景의 冠을 집는지라 虎景이 挑戰하여 나가니 大虎는 失色을 해서 도망을 치고 石窟은 와르르 문허져서 洞民九名이 壓死의 慘變을 입고 말았다。

虎景이 이 事實을 平那郡에 나려와서 傳하자 郡民들은 九名을 禮葬하고서 山神에 祭를 지냈던 바 山神이 나타나서 말하되 내 이 平那山의 女山神인바 虎景을 大王으로 뫼시고 夫婦가 되고 싶다고 虎景을 끌고 山中으로 살아져 버린 뒤로 郡民들은 虎景을 大王으로 일르고 平那山도 聖居山이라 이름을 고치니、이 바로 大興山城條에 나오는 天摩聖居의 聖居다。

그러나 虎景은 舊妻를 못내 잊어하여 밤이면 가끔 다니더니 一男을 얻었다。이가곧 康兆이다。康忠은 具氏라는 女子를 얻어 五冠山 摩訶岬 卽現靈通洞에 살아오던 中 하루는 新羅人 八元이란 風水學者가 扶蘇山北다리골(月老洞)에 가보니 扶蘇郡은 岩石이들어나 보이니 이를 옮기면 三韓을 統一한다 하기로 康忠은 山南으로 郡을 옮기어 松岳이라 命하고 松岳山에 나무를 심어 累千金으로 致富하고 二子를 얻으니 一子가 伊帝廷이오 次子가 寶育이다。歷史에 松岳이 나타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次子寶育은 智異山에 들어 修學을 하다가 前任地인 平那山 摩訶岬에 돌아와서 살았는데 하루는 꿈에 鵠嶺月老洞에 오르니 大水가 南韓을 휩쓸고 山川이 銀海로 變하는지라 이 꿈을 兄伊帝建에게 이야기 하자 兄은 自己 딸로서 사위를 삼았다。寶育은 두 딸을 얻었는바 次女 辰義는 美貌에 聰明하여 貴염을 받더니 하루는 아버지 寶育과 꼭 같은 꿈

을 구었든바 그때 마침 唐의 肅宗皇帝가 登極 前遊覽次 高麗에 왔다가 浿江西浦에 이르니 마침 退潮後라서 從者가 돈으로 개를 메꾸어 唐皇帝가 上陸을 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돈개(錢浦)로 傳해지는 곳이다。唐帝는 鵠嶺에 올라보고 여기는 三眞仙이 살곳이라 했다하니 滿月宮의 三仙宮名도 여기에서 由來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唐帝가 공교로 이 寶育의 집에 머물게 되어 次女인 辰義와 緣을 맺고가며 生男하거든 한활을 주라 하고 弓矢를 남기고 가니 이것이 百發百中의 神弓이라던 것이다。辰義는 달이 차서 得男을 하니 이가 곧 作帝建이다。

作帝建은 十六歲에 生父를 찾아 海路로 길을 떠났다。그 배는 濃霧로 三日間이나 움즉이지를 못하게 되자 占을 치니 船中에 高麗人이 있기 때문이라는 卦가 나와서 作帝建을 殺害하려 하므로 海中에 뛰어드니 海中에 一巨岩이 있다。거기 앉아 쉬이는데 一老翁이 나타나서 自己는 西海 龍王인바 每日 저물때면 老狐가 나타나서 日月星辰을 雲霧間에 羅列시키고 吹螺擊鼓하면 頭痛이 甚해지니 활로 쏘아 달라고 한다。果然 老翁의 말한 時間이 되니 雲霧속에서 一佛像이 나타나는지라 眞佛인가 하여 躊躇하는데 老翁의 再促이 甚하기로 쏘니 果是 老狐가 떨어진다。作帝廷은 老翁의 長女를 얻어 結婚을 하고 錫杖과 七寶와 도야지를 얻어 故鄕에 돌아오니 오늘의 昌陵이 있는 앞 海岸이다。作帝建이 龍女를 데리고 왔다 하여 白州 正朝로 있던 劉相晞等이 開州等 四郡民과 江華、喬洞、河陰 三縣人을 모아서 永安城을 쌓고、宮室을 經營케 하는 土城의 圍四千尺이오 高麗 昌陵(太祖之考 世祖龍建)이 있는 곳이다。이 城은 土石混築으로 西北 禮成江岸은 內城을 이루고 數壇의 高臺狀을 이루어 壘의 高三十尺이며 陵은 北쪽 숲속에 있다。龍女가 처음 자리잡은 곳이 오늘의 開城 한우물(大井洞)이라 한다。그러나 一年이 지나도록 도야지가 울에 들지를 않아서 네맘데로 하라 하니 松岳山南麓에 가서 쓸어지므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한다。龍女는 新居에 堀井하고 그 우물을 通해서 가끔 西海 親庭에를 다니었는데 絕對로 自己가 우물에 들어간 뒤에는 보아서는 안된다 했다。그러나 그렇게 禁하는 것이 되려 굼금해서 하로는 지키어 본 것이 龍女의 노염을 사서 「夫婦의 道는 믿음 이어늘 아내에게 믿음이 없는 당신과는 살 수가 없소。」

이렇게 말하자 五色구름 사이로 두 딸과 함께 살아져 버리었다。

溫鞋陵은 이 龍女가 벗어놓고간 신발을 묻었다는데서 생긴 陵名이니、이 作帝建이 바로 高麗太祖의 祖父라는 것이다。이 作帝建과 龍女(卽懿宗 景康大王과 元昌王后) 사이에 四子가 있었으니 長子가 龍建으로 바로 世祖다。

이를 正史에 依해서 보면 그는 松岳郡 沙粲으로 있다가 新羅에 叛旗를 든 弓裔를 보고 「萬一 三韓을 統一하여 王이되고저 하거든 松岳에 城을 쌓고 내 長子로 하여금 城主를 삼으라」는 豫言을 했다고 한다。그래서 結局 弓裔는 이 豫言에 좇았었다。

한편 龍建은 夢中에 松岳에서 永安城을 가는 途中 一女人을 만나서 相婚한 꿈을 구고 事實 또 그 途上에서 한 女人을 만난지라 辱常치 않다하여 相婚、一子를 얻으니 이 아들이 바로 麗太祖 王建이오 어머니를 꿈에서 얻은 夫人이라 하여 夢夫人으로 불리어져 온다。

建國傳說이 기는 하나 古蹟과 깊은 關聯이 있는 傳說이기 記錄해 두는 바이다。

一一、毅宗 所營의 宮殿抄

麗朝 第十八代 毅宗이라고 하면 麗朝는 勿論 李朝를 通한 一千餘年의 歷代王中 가장 土木事業을 많이 이르킨 王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 때 까지의 高麗는 蒙古의 四十年에 걸친 大禍를 입어 全身 萬瘡의 悲運에 빠졌던 끝인데다가 毅宗은 戰亂이 一旦 停止되자 唐의 玄宗이 夜遊하던 그림을 내어걸고서 그 흉내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다。麗史에서 蕩遊로 이름난 王은 忠烈王이지만 毅宗의 蕩遊風은 忠烈王에 比할 바아니

다。忠烈王代는 이미 國運이기울었고、內部로도 썩어가는 一方이 어서 目衊自棄的 이었지만 毅宗은 아주도 昇勢中에 있는 國運이 였고 정말 놀기 爲해 서는 王이었다。忠烈王의 奢侈를 좋아하되 金匣磁器나 工藝等 이었지만 毅宗은 가진 稅制를 만들어서 民間에 있는 珍奇物까지도 別貢이라 하여 寶殿內로 모아들였지만 一言으로 해서 民心의 反感으로 弑逆을 當할정도의 豪遊를 했다면 想像카에 足할 것이다。그러나 여기에서는 毅宗이 遊樂宴飮과 王의 威信을 세우기 爲한 土木事業만을 추리어 보기로 한다。

個中에서도 큰 것만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1、穆淸殿、史記에는「大內 東北隅」로 되어 있으나 그 正確한 位置는 아직 발견져 있지 않다。여러 學者들의 綜合된 意見이 滿月臺 東北이리라 한다。穆淸殿안에는 또따로이 沖虛閣이라는 金碧이 鮮明한 一閣이 있어 宰相들에게 曲宴을 베풀던 곳이다 醉中 豪遊하다가 發病을 하는데 對한 豫備로서 良藥을 具備시킨 善救寶라는 建物을 세웠을 程度라면 可히 그 豪遊風이 짐작된다。殿內에는 怪岩奇石으로 築山도 하고 妖花名花로서 단장하고 또 特히 정자를 세웠다 한다。特히 養性亭은 豪華와 燦爛을 極한 妙亭으로 알려져 있다。

2、慶明宮、慶明宮은 滿月大闕東方三十步許에 있었다는 記錄이 남아있다。이는 元來 宮이 아니오 鄭某의 私邸를 빼앗아서 別宮으로 꾸민 것이다。大小의 廊廡만이 無慮 二百餘間이라 했으니 그 規模도 짐작되거니와 이 建物에 金銀이 범적이고 樓閣이 崢嶸하여 俄然 宮闕을 想起케 했다고 한다。이 別宮도 主로 豪遊場으로 씨어지던 곳이다。

3、重興殿、白州、兎山 半月岡에다 어떤 豫言者의 말을 믿고 이룩한 雜宮으로 이 또한 豪遊場이였다。

4、仁智齋、原名이 龍智齋였던 것을 어떤 術者의 말을 듣고 改名하고 同時에 規模와 制度도 고치고 一層 豪華를 極했다는 記錄밖에 傳해지고 있지 않다。

5、館北別宮、興國寺 南 迎恩館 北에 있었다고 하니 前好壽敦女校位置에 該當할 것이다。이 別宮자리에는 元來 많은 民家가 있었든 것을 갑작이 撤去시키고 마련한것이다。當代 別宮中 가장 貴히 여기였든 모양으로 王 自身 移御幸宿한 일도 많았다。

6、衆美亭、衆美亭은 第十代 顯宗의 손에 이루어진 저 有名한 玄化寺境內에 있었다。顯宗이 이절을 이르킨 動機는 그의 生母인 獻貞王后는 景宗妃로서 景宗이 돌아간 後安宗과 不義의 關係를 맺은 女人이지만 私生兒인 顯宗으로서는 安宗과 獻貞王后는 亦是 生父、生母 인지라 泗州(慶南 泗川)에 있던 安宗의 乾陵을 金身山下에 있던 生母의 陵에 合葬을 시킨 것이다。事實 顯宗으로서는 그럴만도 한 것이 成宗은 叔父인 安宗과 景宗妃 사이의 相姦이 發覺되자 成宗은 三寸叔(太祖의 子) 安宗을 泗川으로 流配시키고 獻貞后는 愛人이 떠나는 것을 본 瞬間流產을 하고 그 자리서 목숨을 걷었든 것이다。이遺產兒가 큰 것이 顯宗이고 보니 아모리 不義의 어머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 玄化寺院에 있어 正史에도 으른 衆美亭、淸寧齋는 毅宗의 豪遊의 產物이니 毅宗二十年의 建造다。

이 構造의 一端을 史記에서 찾아보면

「齋南에는 丁字閣을 세워서 衆美亭이라 稱하고 亭南에 호르는 여울물을 막아 못을 만들고 언덕 위에는 곳곳에 茅亭을 세워 鳥禽을 길러 마치 一大江湖의 景을 본 받았도다。물 위에는 葉舟를 띄우고 小童으로 하여금 棹歌漁唱을 부르게 하여 遊樂을 도웠니云云」

이 一節로만도 足히 그때의 豪華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王의 豪華裏面에는 民苦가 많았으니 모두가 오늘의 賦役이다。한 勞役은 點心이 늘 없어 同僚들이 한술式 모아 주던바 이를 본 그의 妻가 하루는 많은 밥을 지어 지금까지의 厚情을 갈으라 했다。아므리 男便이 생각해 보아도 수상한지라、

「집에 쌀이 있을理 萬無인데?」

하고 或貞節을 팔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둘 中이라고 疑心을 하는 지라、아내는 변명대신 머리의 수건을 벗겨 보이며 울자 男便도 울고 勞役들도 같이 따라서 울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哀話 위에 淸遊의 그칠 사이가 없었으니 毅宗二十年 四月에는 夜五鼓까지 宴樂이 그칠줄 모르고 十一月에는 며칠을 두고 奏樂狂舞가 그치지 않았다 한다。뒤에 毅宗은 廢弑되어 있거니와 民心의 가는 곳에 眞理가 있음은 古今이라 하여 다를 리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壽昌宮 萬壽亭을 爲始하여 長湍 延興殿의 靈德亭、壽御堂、王笋亭等 亭子만도 數十에 達했다。安昌宮은 侍中王沖의 私邸를、連昌宮은 樞密別使 金巨公의 私邸、저 有名한 壽德宮은 王弟 翼陽侯 皓의 私宅을 빼앗은 것이다。王弟의 私宅까지를 빼앗어 別宮을 만든 程度니 民間의 被害는 더 말할 것도 없으리라。

一二、紫霞洞

松都名勝이라면 扶山溪谷과 彩霞、紫霞의 兩洞을 빼 수 없다。이 扶山溪谷의 題石과 幽景은 路邊의 阿亭斗屋의 雅趣를 즐기면서 九齋學址에서 東折、北昌南陌에 破瓦가 散在해 있는 幽谷이 있으니 이 一帶가 千古의 神秘境인 名勝地 紫霞洞天이다。이 一帶는 麗朝의 宰相과 王族들이 즐기어 別莊을 가진자리로 그 風趣가 一幅의 그림이다。

한개의 奇岩과 怪石이、그대로 美의 象徵이오 幽谷마다가 別世界를 이루었다。松林 사이로 奇岩이 보이고 奇松사이로 溪谷의 淸流가 斜陽을 받아 번적인다。나무가 욱어졌으니 山鳥 모여들 밖에 없고 山鳥奇聲에 물소리 까지 즐거우니 詩人墨客이 그칠 理가 없다。거기에다 이 一帶에는 古蹟이 散在해 있어 文字 그대로 名勝古蹟地다。安心寺址를 지나면 一間斗屋이 오뚝이 서 있고 西쪽으로 올라가만 怪岩間을 흘러 떨어지는 淸流가 小景을 이루어 名勝의 雅趣를 한층 더 해 준다。東으로는 天一泉、飛霞洞口等 가진 題名石이 눈에 뜨이고 야존한 藥石臼泉이 千枝松、紅杜鵑 사이에 잠겨 있는 勝地가 저 有名한 中和堂址다。中和堂이란 高麗列傳에 나오는 蔡洪哲이 中和堂으로 高麗朝 契會中 가장 有名한 契會다。蔡洪哲은 忠烈王代人으로 이 紫霞洞天의 幽邃한 골에 들어 棄官閑居하기 無慮十四年間、中菴居士라 自號한 사람이니 그의 「紫霞洞曲」은 紫霞의 勝景과 함께 기리 傳해지고 있다。

紫霞洞曲은 後人들에게 膾炙되었으니 그노래는 아래와 같다。

家在松山紫霞洞、雲煙相接中和堂、喜聞今日耆英會　來獻一盃延壽漿
一盃可獲千年算、願君一盃復一盃、世上春秋都不管、池塘生春草園柳
倚鳴禽　三韓元老、開宴中和堂　白髮戴花手　把金觴相勸酒、雖道風流勝神仙　亦何傷月留　琴奏大平年、願公酩酊莫辭醉、人生無處以尊前、斷送百年無過酒、盃行到手莫留殘、殷勤爲公歌一曲、是何曲調萬年歡、此生無復見羲皇、願君努力日日飮、太平身勢惟醉鄕、紫霞洞中和堂、曾絃聲裡 滿座佳賓　皆是三韓國老　白髮戴花　手把金觴相勸酒　蓬萊仙人　却是未風流——

이 中和堂址에서 北小門址를 向하여 올라가는 溪流 또한 仙境이니 여기에 高麗 惠宗 順陵이 있다。惠宗은 高麗의 第二祖니 「輿地勝覽」에 傳하는바에 依하면 一名 皺王陵이라고 한다。皺王陵에 關한 傳說은 要約하면 父王 太祖가 弓裔摩下에 水軍將軍으로 羅州에 出鎭했을 때 木浦에서 吳氏와의 사이에서 얻은 이로서 顴全面에 皮紋이 있어 攝王이라 世人이 불렀다고 한다。

李齊賢의 松京八景詩가 있거니와 그 中의 紫霞洞尋僧은 이곳의 勝景을 잘 그려 주고 있다。

石泉激、風生腋　松霧霏、翠滴中
未開山僧勤挽袖　野花啼鳥解留人　又
傍石過淸淺　穿林山翠微　逢人何更問僧扉
午梵出煙霏　草露霑茫屨　松花點葛衣　一髮絲禦榻坐亡機　山鳥謾催歸

다음 一句는 張昌復의 紫霞洞頌詩이다。

白水吾心事　青山雲主人
年年紫霞洞　來訪杜鵑春

松花金紛落　春澗玉聲寒
盤石客來坐　仙人舊有壇

이는 高麗朝 河偉量의 紫霞洞詩니 以上의 몇篇으로서 紫霞洞의 勝景은 充分히 表現되었으리라 믿는다。

一三、雙瀑洞

松岳名山의 南麓을 占有한 滿月臺에서 溪流를 따라 올라가면 雙瀑洞이 있으니 松京名勝의 白眉다。이 勝地에는 高麗 十五寺中의 一인 日月寺가 있던 자리로 岩石의 美、溪流의 美、樹海의 美、北望의 美가 重疊이 되어 俄然 美의 幽谷을 이루고 있다。여기에 또 元昌王后 溫鞋陵이 있으니 古蹟地로서도 잊을 수 없는 由緖깊은 곳이다。

千古의 鬱林과 奇岩사이를 흘러나리던 溪流는 雙瀑洞에 이르러 一大岩溪를 이루고 있으니 淸流는 一巨岩이 깔린 자리에 와서 分流되어 雙瀑을 이루고 있다。泉石、아니 泉岩이 秀麗하고 또 우락스러운 松岳의 山形과 함께 幽邃感은 더욱 깊게 해 준다。

一四、南大門

開城市의 中央에 位置한 南大門은 舊半月城의 南門으로 現存한 우리나라 木造建築으로서 最古、最優에 屬하는 珍貴한 遺物이다。

이 南大門은 李太祖 登極 二年에 完成되었으나 其實 麗朝의 末王인 恭讓王 末年에 起工한 것이다。이로 보면 서울의 南大門보다 二年 먼저 完成된 세움이다。元來 이 南門이 되게 된 動機는 三十一代 恭愍王 八年 부터 十年 二次에 걸치어 紅頭賊(一名 紅巾賊)의 來侵으로 從來의 外城이 너무 넓기 때문에 防禦力이 强化된다 하여 內城을 쌓게 된 것이다이 第一次 來侵軍의 四萬은 破竹之勢로 鴨綠江을 건너서 西京(平壤)에 까지 突入한 것을 我方의 李芳實軍이 이를 擊退 겨우 三百名이 살아서 달아났었지만 第二次에는 結氷期를 利用하여 十萬大軍으로 몰려왔었다。이 二次來侵軍도 鄭世雲 摩下의 安龍、金得培、李芳實과 李成桂가 擊退하기로 했으나 이 二次의 經驗에서 外城의 廣凡으로 防禦에 支障이 있음을 痛感했던 것이다。

이 內城은 元來 大門이 四、中門이 八、小門이 十三 있었다고 麗史에 남아 있다。그러나 「中京誌」에도 七門밖에 記錄되어 있지 않으니 卽 震方에 東大門、巽方에 水口門、坤方에 戰勝門、离方에 南大門、申方에 五正門、坎方에 北城門、艮方에 炭峴門이 그것이다。

建造年代로 보아 南大門은 距今 五百六十二年前의 建立이다。그 規模의 壯함으로나 彫刻의 優雅함으로나 李朝를 通한 建築의 白眉다。春風秋雨 五百六十餘年을 두고 數많은 內患外憂의 戰亂을 겪으면서도 이 겨레가 國土를 지켜온 歷史로 보아온 南大門이 지금 敵들의 賣國政治의 鐵蹄밑에 밟혔으니 感懷없지 않으리라。

門에는 樓가 있어 壯함을 倍하고 있다。門의 部屬은 石築으로 虹門이 있고 그 門 위에 樓가 이룩되었으니 形態는 서울 南大門과 같다。樓上은 東西 七十餘尺에 南北이 三十餘尺이다。

이樓上에 一巨鍾이 있으니 이 巨鍾은 저 有名한 演福寺에 있던 名鍾이다。演福寺는 南門樓에서 望見되는 位置에 있었을 것이다。李朝 十九代肅宗의 南大門頌 一首를 보고 演福寺로 옮긴다。

南門樓　李朝 肅宗

緩步登臨百尺樓　我心非是喜觀遊
今辰闌闠咨詢地　更願鞏恩普八洲

一五、演福寺의 名鍾

演福寺의 原名은 「廣通 普濟寺」고 略稱 普濟寺요、俗稱은 唐寺(큰절)이라 불러온 大刹로、位置는 寒泉洞 於口였었다。이 普濟寺 卽 後日의 演福寺가 얼마나 規模가 컸던가는、麗朝 第十七代 仁宗初에 來國했던 宋使 徐兢의 著인 「高麗圖經」의 普濟寺條를 보아서도 짐작할수가 있다。이에 曰

「……廣通 普濟寺는 王府 南泰安門內 直北 百餘步에 있어 寺額을 官道南向에 걸었다。中門에 榜을 神通之門이라 하였고 正殿에 極히 雄壯하여 王居보다도 過한바 있고 榜은 羅漢寶殿이라 하였고 그 안에 金仙(佛)、文殊、普賢의 三像을 두었으며 옆에 羅漢五百軀를 느리어 그 儀相이 高古하고 또 그 像을 兩廡에 그렸다。殿西에는 浮屠(塔)을 이루어五層인데 高가 二百尺은 넘고 뒤는 法堂、곁은 僧居를 이루었는데 百名은 可히 드릴만하고 서로 맞대어 巨鍾이 있는데 소리가 抑져서 들리지않는다……云云」

그러나 이렇듯 雄大한 大刹이것만 그 建造年代가 아모데도 밝혀있지 않다。언제 부터 있던절인지 史記에 처음으로 나타난것이 高麗 第十代 靖宗 三年이다。卽 靖宗이 同年에 本寺에 幸如했다는 것이다。山淸 智谷寺、僧慧月碑에 依하면 前二代 顯宗代의 建拗인 것으로도 推測된다는 것이 史家의 말이다。

그러나 이 普濟寺는 그 開基年代를 모르는데 그치지 않고 普濟寺가 언제부터 演福寺로 改稱되었는지도 全혀 記錄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이렇다 할 史記도 남기지 않고 밀도 끝도 없이 三百餘年이나 뒤인 二十七代 忠肅王元年에 演福寺로 나타나 있을 뿐이오 恭讓王二年에 民家 三十餘戶를 헐어 垣墻를 넓히고 三池九井을 파게 했으며 縱橫 六楹(四方五間式)에 累至五層의 塔을 세우는 等 李太祖 二年에가 落成式을 했다는 記錄만을 남기고 있다。

이 落成式이 얼마나 宏壯했던가는 「金碧이 炫耀하여 暉映半空」이라고 한 記錄으로서도 짐작 할 수가 있다。그때 經營된 演福寺는 爲屋이 最鉅하여 千餘楹에 이르렀다 하나 지금은 그 礎名 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有名하던 大刹 演福寺가 탄 것은 麗朝 古代 明宗十八年이다。

現在 南大門樓에 옮겨져 있는 巨鍾은 元來 이 演福寺에 있던 鍾이니 우리 나라 五大名鍾中의 一이다。이 五大名鍾이라 함은 平昌 上院寺鍾、廣州 奉德寺鍾、天安 聖居寺鍾、砥平上院寺鍾과 이 演福寺鍾이다。

이 鍾의 鑄造年代는 高麗 二十九代 忠穆王 二年으로 元來 演福寺에 있던 鍾을 改鑄한 것이다。

그런데 麗朝에서 이 鍾을 改鑄케 한데는 元에 對한 謝恩이 動機였으니 新羅 法興王代에 創拗된 金剛山 長安寺가 頹廢하기 甚하것만 重修費가 없어서 宏下라는 僧이 元의 京都로 義捐金募集次 갔던바 皇后 奇氏가 마침 皇子를 誕生한 때라 皇帝와 太子의 長壽를 빌기 爲하여 元의 至正 三、四、五 三年間에 每年 一年錠의 內帑楮幣를 보내어 長安寺 重修가 完了되었던 것이니 이것이 高麗開國 四百二十九年 卽 忠穆王二年이었다。

이때 元帝가 보낸 姜金剛、辛裔 두 사람이 長安寺에서 鑄鍾을 마치고 돌아가랴 할제 忠穆王이 金剛山은 우리의 山이건데 元皇帝의 힘을입었으니 報答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해 六月까지에 演福寺의 鍾을 改鑄케 한 것이다。事實 그때까지 演福寺에 있던 鍾은 仁宗代부터 「抑而不揚」이었든 것이다。

이러한 史實은 鍾銘記에도 나타나 있다。

該鍾은 高가 十尺七寸、直徑이 六尺餘로 龍頭가 約二尺이나。우리나라의 다른 鍾과 다른 點은 旗揷이없고 兩龍이 서로 頭相을 등지고 있으며 鍾銘의 梵字는 考古學的으로 많은 價値를 갖고 있다。

水原市

第一節 水原의 由來

水原市는 本道 三大都市의 一로 그 地形의 아담하기와 風致의 아름답기 街里의 깨끗하기 五百年間 高麗 王都이었던 開城과 比肩한다。首都 서울에서 南으로 不過 七十里의 第一都라서 文化、敎育、産業、其他 모든 部分이 大서울을 縮少한 感이 있는 아담하고 美麗한 都市다。總戶數二萬餘에 人口 十二萬을 擁하고 있고 敎育機關으로서 男女 中高等學校는 勿論 우리 나라의 唯一한 國立農大가 있어 敎育의 都인 感이있다。

水原市는 또한 美의 都市다。 八達山을 爲始하여 山紫 이에 이를데 없고 京畿의 大湖 西湖의 絶景이며 市街의 心臟部를 貫流하는 光敎川의 淸流 한줄기 만으로 華都 水原은 水明의 都市다。

이렇듯 山紫水明의 學問의 都市는 美의 都市 없이 그치지 않고 水原은 또한 古蹟의 都市요 名勝의 都市다。美의 精華를 極했다 하여 世界的으로 考古學的 價値를 갖는다는 華虹門과 訪花隨柳亭을 爲始하여 李朝中葉 建築美術의 師表라는 八達、華西의 諸城門과 李朝城壁의 標本이라는 山城과 莊獻世子의 隆陵을 爲始하여 正祖大王의 健陵、駐蹕行宮、千年의 古刹인 大本山 龍珠寺等 許多한 古蹟과 名勝이 市 周圍에 散在해 있어 水原은 王都 五百年의 松都에 빠질것이 없는 都市다。

水原은、一名 樹城、水城、華城 이라고도 불리어 졌고 李朝時代에는 留守府를 두었고、庚戌年 國恥直前 까지에는 道觀察府를 두어 治都했었다。그러다가 倭政期間인 四二四七年 四月 行政變更으로 南北兩面을 併合 水原面이 되었다가、四二六四年 四月一日 水原邑으로 昇格、七年前인 四二八〇年 八月 十五日을 期하여 倭色 町名을 우리의 洞으로 變更、四二八五年 八·一五에 市로 昇格、民選市長을 選擧케 하여 그 初代市長에 現 金漢福氏가 絶對 多數票로 當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이다。

그러면 이 水原이 王都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古蹟이 많으며 서울 首都의 縮少版으로서의 文化都市가 되었는가?

이는 오로지 李朝中興의 英主 正祖大王의 遷都計劃에 依한것이었다。水原은 新羅時代에는 水城郡、 高麗朝에서는 都護府를 두어 겨우 그 面目을 維持해 오던 中 李朝中葉에 이르러 正祖大王은 首都 서울을 華城 卽 오늘의 水原으로 옮길 計劃을 했던 것이다。華城築城을 爲始한 八達、華虹等의 城門이 생긴것도 이 遷都計劃에 依한것이다。

이렇듯 正祖大王이 水原 遷都를 計劃하게 된것은 오로지 父王인 莊祖에 對한 孝心 때문이었으니、正祖의 父親(後에 追尊) 莊獻世子는 二十二代 英祖의 世子로 南親北疎를 主張하여 父王의 怒를 사서 悲慘하게도 怨死했던 것이다。

英祖가 昇遐하고 正祖가 位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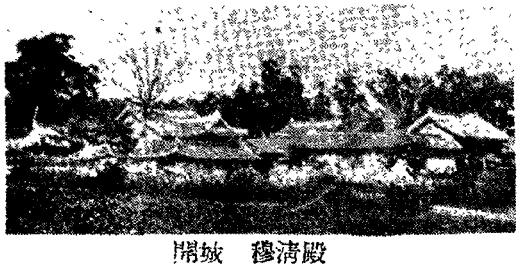
正祖는 病的이라고 할만큼 孝心에 두터운 분이었다。그의 孝誠은 거의 常識을 벗어 난 程度에서 正祖는 在位、二十三年間 國政 治民、보다도 오직 父王 莊祖를 爲하여 슬퍼하고 울고 하는것으로 날을 보냈다고 까지 酷評을 받은 程度로 事實 華山陵에 마음이 가서 있었든 것이다。

이 水原의 遷都計劃도 國家를 爲한것도 아니오。民을 爲한것도 아니었다。오직 父王 莊祖가 묻힌 華山陵 가까이 가서 있겠다는 一念뿐이었으니 遲遲臺가 생긴것도 그때문이오。「모처럼 陵參奉을 하나 얻어 했더니 거동이 한달에 스물 아홉번」이라는 말이 생긴것도 正祖때이다。正祖는 王位에 오르면서 한말이 拜峰山 에서 父王 莊獻世子를 옮기겠다는 것이었고 맨 처음 事實이 水原 華山으로 父王을 移葬한 것이었다。그러고 第二事業을 생각 한것이 水原遷都 였던 것 이다。

京畿道內 國寶古蹟樓亭一覽 其一



開城 滿月臺址



開城 穆淸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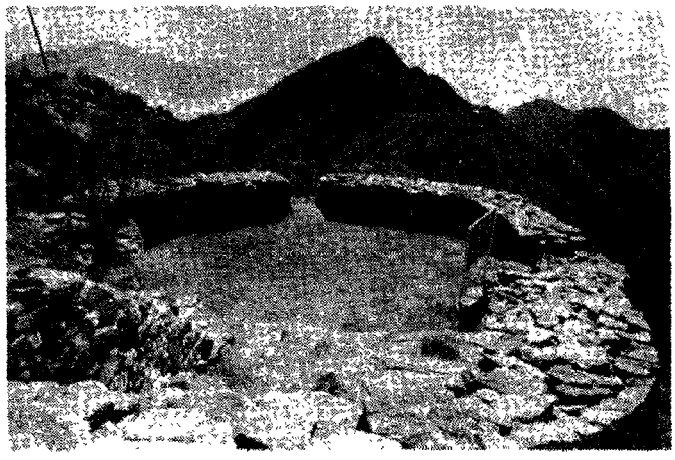
開城 敬德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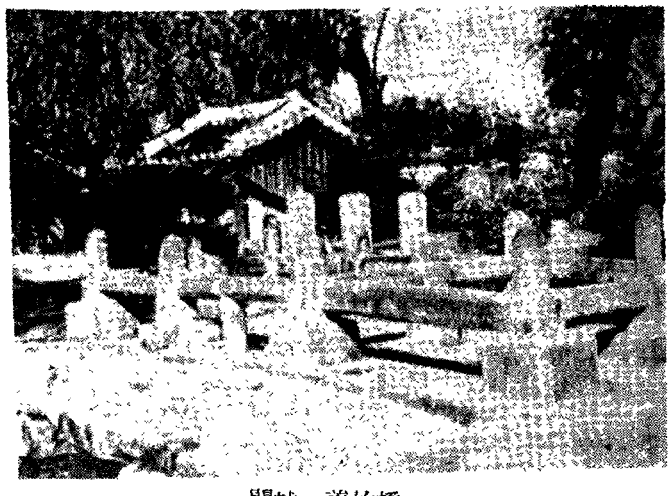
高陽 碧蹄館



서울 元圓丘壇과 皇穹宇



江華 塹星壇



開城 善竹橋



楊州 議政府 大闕遺址

京畿道內 國寶古蹟樓亭一覽 其二



江華 燕尾亭



水原 華虹門과 訪花隨柳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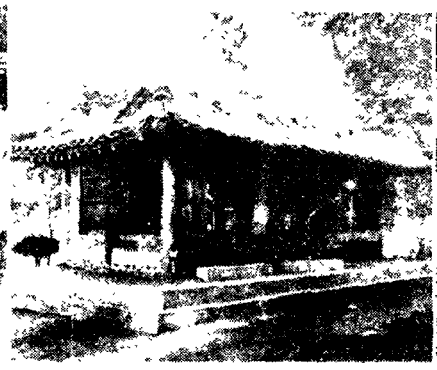
驪州 映月樓



楊平 鳳凰亭



彰義門外 元洗劍亭



坡州 元花石亭



坡州 伴鷗亭



開城 觀德亭



安城公園과 忠靈塔

京畿道內 國寶古蹟樓亭一覽　其三



江華　哲宗潛邸　龍興宮址



華城　遲遲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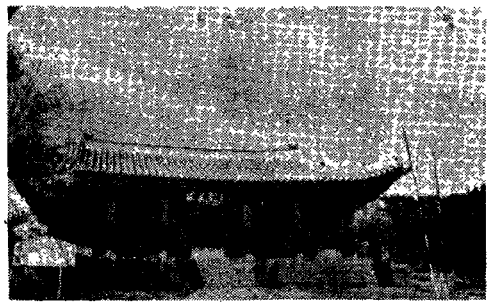
廣州　南漢山城　西將臺



華城　洗馬臺



廣州　南漢山城　枕戈亭



廣州　南漢山城　演武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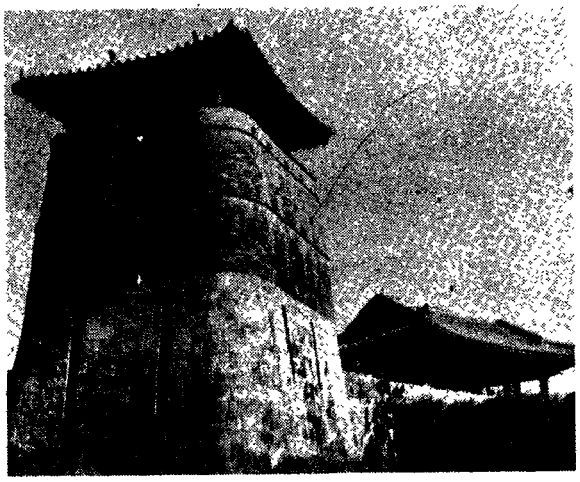


廣州　南漢山城　地水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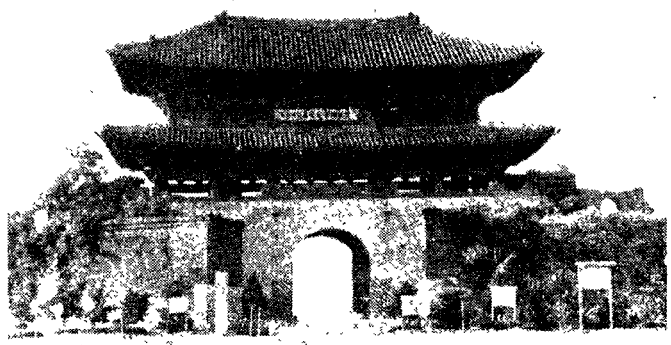


水原　鍊武臺

京畿道內 國寶古蹟樓亭一覽 其四



水原 空心墩



水原 八達門



江華 南門



水原 華寧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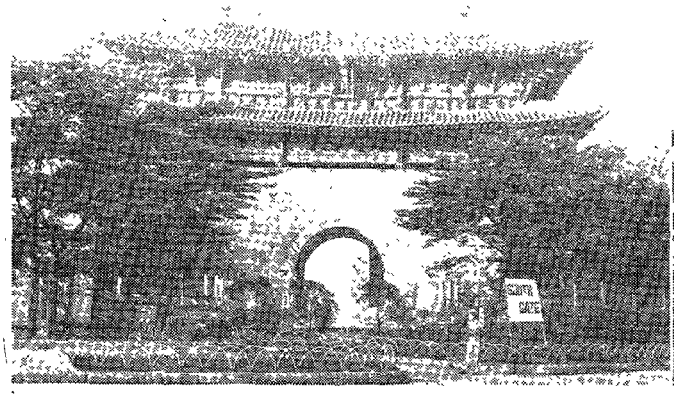


開城 成均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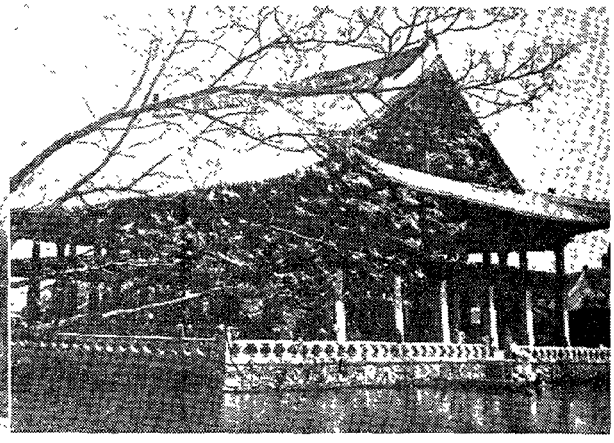


開城 博物館

新舊宮闕建物對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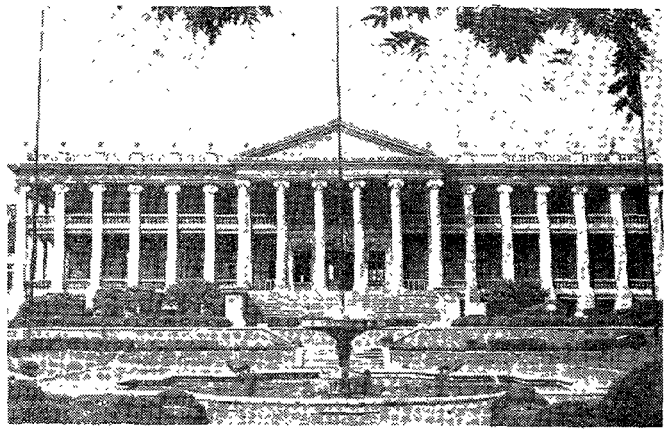
서울 南大門



景福宮 慶會樓



서울 文廟大成殿



德壽宮 石造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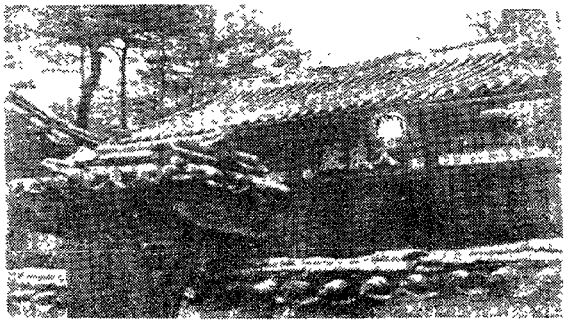


德壽宮 中和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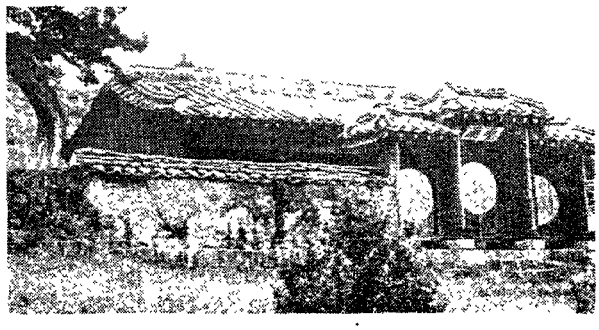


景福宮 勤政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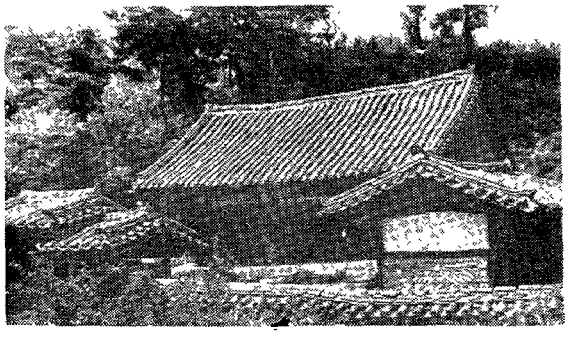
京畿道 文廟·書院 其一



始興 果川文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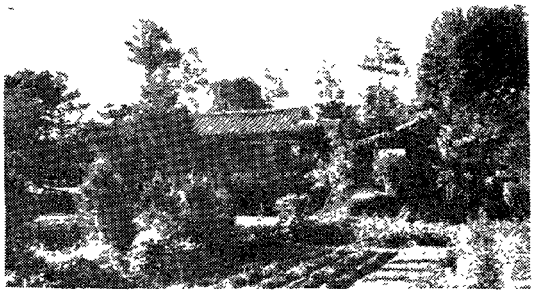
華城 闕里祠(聖廟)



安城 竹山文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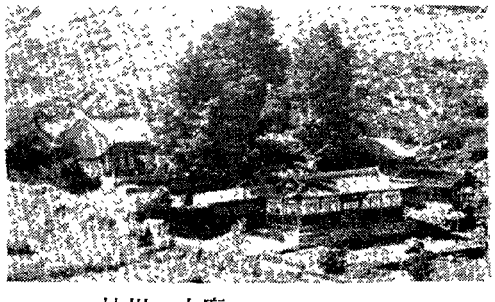
華城 南陽文廟



驪州 文廟



水原 文廟



坡州 文廟



龍仁 陽智文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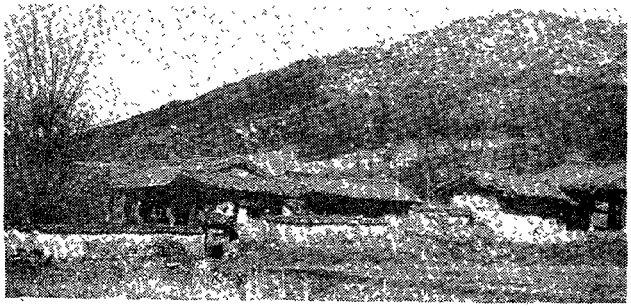
京畿道內 文廟·書院一覽 其二



金浦 文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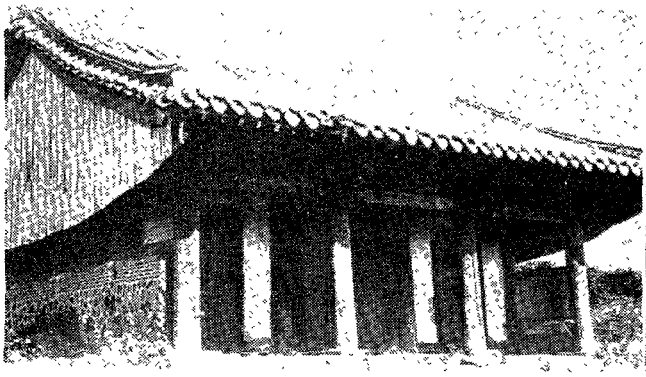
楊平 砥平文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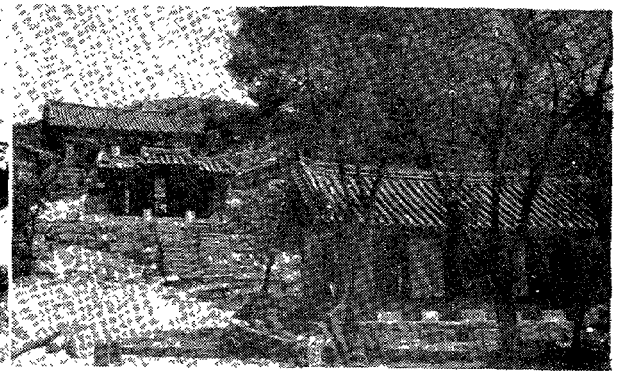
楊州 文廟



楊平 楊根文廟



龍仁 駒城文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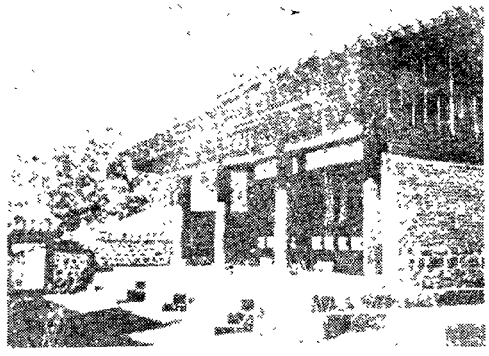


利川 文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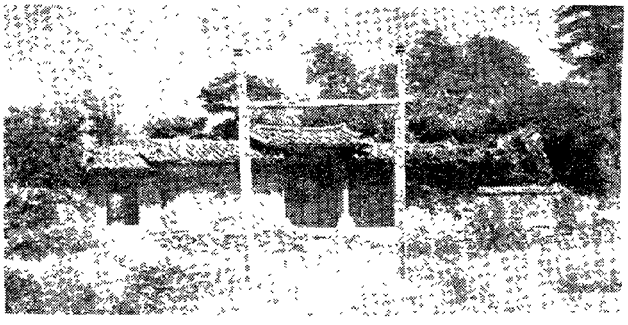
京畿道內 文廟·書院一覽 其三



廣州 崇烈殿 (百濟溫祚王)



漣川 崇義殿 (高麗歷代王)



高陽 幸州書院 (權慄將軍)



開城 崧陽書院 (鄭圃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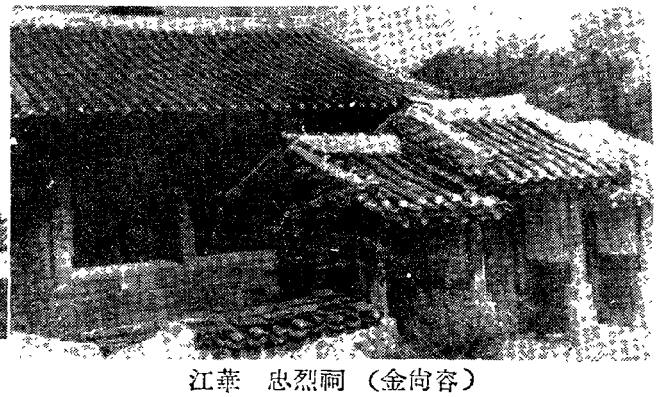
抱川 龍淵書院 (李龍洲)



廣州 顯節祠 (三學士 洪翼漢 一升 集 吳達齊)



驪州 江漢祠 (宋尤菴)



江華 忠烈祠 (金尙容)

이 水原遷都는 文·武 百官의 熾烈한 反對로 及其於 이루지 못하고 還都 準備를 爲하여 이룩한 築城과 가진 建物이 오늘 古蹟의 都 水原을 이루게 된것이다。

本篇의 目的은 水原의 名勝과 古蹟이나 水原처럼 名勝과 古蹟이 兼해진 곳은 없다。華都는 都市 그 自體가 勝景의 地形을 이루고 있다。古蹟이 散在 해 있는 名勝地가 곧 古蹟이오 古蹟이 바로 名勝의 勝景地다。이는 悠久한 時日을 두고 建設되었다기 보다도 遷都를 爲한 計劃 밑에서 이루어진 都市 이기 때문일것이다。一例를 들면 水原의 名勝으로 最高點을 占有하는 西湖와 湖畔絶景이나 八達山頂의 眺望等도 이 遷都計劃의 一部인 것이다。

이제 名勝 古蹟을 찾기로 하자。

第二節 名勝 槪觀

一、水 原 城

水原의 古蹟을 말 하기 爲해서는 水原城을 먼저 들지 않을수 없다。왜냐면 水原의 모든 古蹟이 正祖大王의 水原 遷都와 깊은 關聯을 갖고 있듯이 水原의 모든 古蹟과 名勝이 이 城으로 부터 始作이 되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引用 했듯이 水原은 正祖의 水原 遷都計劃으로 距今 百六十年前 一朝에생긴 水原城의 築城도 때를 같이 한다。

正祖大王이 位에 오르면서 楊州에 묻치였던 父王 莊祖를 水原 華山으로 移葬하고 每年 春秋로 奉陵하다가 그것이 안타 까워서 차라리 水原으로 遷都를 決心하고 그 豫備工作으로 水原 築城에 着手 한것은 正祖 在位 十八年 甲寅이였다。築城은 三年의 時日을 要하여 完成되기는 同二十年 丙辰年 이였다。

城廓의 周圍는 約五粁强 (十里 十二町 十三間)이오 城高는 二丈餘、全城이 石築이다。築城과 함께 東西南北에 四樓門을 建立했든것을 보면 正祖大王의 水原 遷都의 決意를 알수 있다。城의 規模며 樓門까지도 서울의 漢陽城 그대로를 본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水原城은 規模는 漢陽城에 떨어진다 해도 그 築城의 堅實한 點과 서울의 漢陽城과 高麗王朝의 松都城이 모두가 中國의 城과 樓門을 본뜬데 比하여 水原의 築城만은 朝鮮의 獨自性을 餘地없이 살린것이다。中大陸의 建城이 大槪는 그 大陸性的 性格 때문에 雄과 壯만이 置重해서 精巧한 맛이 없지만 이 水原城樓門은 그러한 觀念에서 完全히 脫皮하여 構造의 誠實 보다도 外部的인 美裝에 많은 關心을 보이어 多少間 纖細華麗의 欠은 있을지 몰라도 그 技의 精巧 함이라든가 色의 調和라든가 李朝 建築의 劃期的인 成果를 걷우었든 것이다。서울의 南大門이나 東大門을 보고 水原의 八達門을 보면 이 中國式의 雄壯性과 李朝 建築의 線의 美의 差異를 容易하게 發見할수 있다。

城廓은 都心地帶에서는 城壁이 除去 되었으나 八達山에 오르면 아직도 堅固하다。最近 無心한 사람들이 城石을 빼어가서 崩壞된 部分이 많다。이는 얼던 方法으로 든지 保存하도록 措置 되어야 할것이다。

二、八 達 山

八達門은 곧 水原城의 南大門이다。築城인 同年 卽 距今 一五九年前 甲寅 正祖十八年의 建立이다。

門 앞에 서면 먼저 그 雄壯함에 놀란다。그러나 이 雄壯美는 三尺落水를 飛下三千尺으로 誇張하는 中大陸의 雄壯美가 아니다。속이 차고 째이고 빈틈이 없고 纖細의 精과 巧와 雅와 美를 遺憾없이 發揮 하고서도 오히려 雄과 壯을 잃지 않은 雄壯美다。더욱이 二層樓의 彫刻과 色彩는 雅美를 다 했다 할수 있다。

이러한 優美와 壯嚴을 갖춘것은 이 建築이 얼마나 藝術的인 意圖와 科學的인 設計로서 이루어 졌든 가를 생각케 한다。이를 立證 해 주는 좋은 材料가 있으니 이 樓門이 設計圖다。 거기에는 厚薄別로 板子의

枚數와 鐵釘、木釘의 個數蓋瓦의 암、숫 枚數、色彩의 몇斤 몇分 까지도 實로 正確하게 記入이 되어 있는것이다。그뿐이 아니다。樓門 石築에 있어서도 尺數와 個數貌樣等 一一이 記入이 되어 있으니 오늘날의 設計로서도 이만큼 緻密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八達의 門名이 생긴것은 이 門이 八達山麓에 있기 때문 일것이다。지금은 禿山이 되어 버렸지만 解放前 까지만 해도 山土가 보이지 않을만큼 八達山에는 松林이 덮였었다。

樓上에 오르면 華都가 一目瞭然하게 보인다。果然 樹都는 水都요 또 華都다。

南門附近은 市의 中心으로 交通이 頻繁한곳이다。從來에는 門을、通하여 人、馬、車가 다니던것을 初代民選의 金漢福市長이 南門으로 로타리를 만들었다。

이 南門에 關하여 最近 調査次 갔던 길에 逸話 하나를 들었기 餘談이나 적어 둘까 한다。

數日前 까지도(아니 現在도)南門 앞을 지나는 婦女子들이 合掌을 하고 致誠을 올린다는 것이다。처음에는 男女 없이 좋여 든 일 까지 있었다고 한다。樓上에 白晝에 佛身이 나타났다는 것 이다。그래서 筆者는 가서 보고 깜짝 놀랐다。確實히 틀림 없는 佛上身이 五六座나 나타나있는 것이다。

나중에 仔細히 보니 樓門 二層을 막은 板子가 떨어져서 後側에 하늘이 보인다。그 板子 구멍의 모양이 멀리서 보면 꼭 生佛이었다。

이 南門의 逸話 또 하나를 傳하기로 한다。

南門은 最近까지도 一段 通行門이 었다。옛날과 달라서 닫을 必要없이 언제나 활짝 열어 두는데 解放되던 해 强風이 불어서 이 두터운 門이 自動的으로 닫치어 世上이 變한다는 流言이 돌았다고 한다。그해 解放이 되어 지금은 이상히 여기고 있던中、지날 八六年 에도 이門이 또 바람에 닫치어 무슨 變이 있다고 했더니 休戰이 되었다는 것이다。

烏飛梨落 格의 이이야기지만 逸話로서 적어 두었을 뿐 이다。

八達門樓의 規模를 적어보면 橫이 七十六尺이오 縱이 二百八十八尺이다。

이번 共匪叛亂으로 門樓의 一部分이 破壞되었으나 金市長의 主動으로 修理를 加하였으므로 겨우 옛 모습을 갖우게 되였다。

樓上에는 鐵鐘이 달려 있다。非常時에만 치게 되어 있다 한다。鑄造年代도 鐘에는 記錄이 없으나 築城 當時의 것으로 밀어 좋을것이다。樓上에 오르는 層階段의 構想도 近代 高層建物 그대로다。이 樓閣 二層에 기둥을 세우기 爲해서 使用되고 있는 柱石의 妙하고 큼에 누구나 놀랄것이다。

이 柱礎 하나만으로도 이 樓門의 性格이 짐작 되는듯 싶다。樓上에 使用된 柱礎한개에 直徑이 實로 三尺이 넘는것이다。

三、長安門

長安門은 水原城의 北門으로 構想된 城門이다。一名 北門 이라고 불리어 짐도 이 때문이다。構造로나 規模로나 八達門과 같고 建造年代도 勿論 같다。

市 北에 우뚝 솟아、서울에서 市에 들어 오는 사람하게 깊은 感銘을 주더니 六、二五의 赤鬼들의 南侵時 거의 破壞되고 말았다。지금은 樓門은 없어 지고 石城門의 은저리만이 남아 있다。

이것을 機會로 여기여도 近代都市로서 道路整備를 하여「로오타리」를 만들어 남은 城門을 中央에 두고 通行케 되어 있다。

이 門을 볼때 마다 우리는 또한번 共匪를 憎惡하게 된다。

長安門은 겹門으로 되었고 築城에는 下段만이 石築이오 위는 全部가 蓋瓦를 구어 蓋瓦煉瓦다。그 굳고 단단함이 돌에 못지 않다。

門만의 高는 一八呎 幅이 一三呎으로 門만은 아직 깟닥이 없다。樓門이 없는채라도 修理를 했으면 遺物로서 남울수 있을것이다。

正祖大王의 長安門 頌詩가 있어 紹介한다。

長安門　　李朝 正朝

霜露桑卿歲幾翻　寸心無處答隆恩
經營屹屹雉墉壯　拱護重重象設尊
萬戶橫臨湖右路　三軍氣湧鎭南門
人和此地緣何力　聖德猶傳昔幸溫

四、蒼龍門

蒼龍門은 水原城의 東門이다。이 城門도 겹門으로 되어 있다。이번 共匪叛亂으로 前門의 二層 樓門은 자취 조차도 없이 되고 後門은 一部破壞된채로 남아 있다。前後門을 連結한 築城이 特異하다。그대로 半圓形으로 築城한것이 아니라 S字形을 쫓아 쌓은것은 敵 防禦를 爲한 地利를 考慮 한것인 모양이다。

이 東門의 規模와 構造는 八達門과 大體로 같다。建造年代가 八達門 建造翌年 正祖 十九年일 뿐이다。

門樓의 規模은 橫이 三十七尺六寸、縱이 十七尺 七寸餘로 八達門 보다 若干 적은 세음이다。城臺石에 築造 功勞者名의 名單이 石刻되어 있다。曰、前營將 金箕昇、府使 金爀、牌將 李弼載、石手 金明漢外 十九名 云云——。

이 東門에서는、翠綠이 蒼然했으나 지금은 없다。그러나 밖으로는 萬頃의 蒼田이 끝이 없고 蒼田이 끝난데는 重疊한 泰山이 遠景으로 眺望되고 앞으로는 八達山下의 市街가 나려다 보이는 要所다。

五、華西門

市의 西에 位置한다。規模 其他는 水原市의 各 樓門과 同一하다。이 華西門의 特色은 亦是 樓門 西北에 솟아있는 空心墩이다。二層으로 된 望樓로 지금의 哨戒의 任務를 하던 곳 이리라。全 建築이 蓋瓦煉瓦를 쌓아서 下層은 待機所、二層은 勤務所로 씨어진 모양이다。高가 三十一尺、百五十七年前 華西門은 東門과 함께 八達門 보다 一年 늦어 建立되었던 것이다。近者 頹落된것을 修理丹靑을 加하여 舊態를 回復하고 原谷 金基昇이 書한 大字懸額이 巍然히 걸려 있다。

이 空心墩 樓上에 오르면 訪花隨柳亭 一帶의 勝景이 眺望되고 서울로 通한 新作路의 老松街道가 翠雲처럼 바라다 보인다。

六、華寧殿

西門에서 八達山麓을 끼고 오른쪽으로 굽어 들며 市內는 約七、八分 徒步 距離에 華寧殿이 있다。

華寧殿은 李朝 第二十三代 純祖 辛酉年의 建立으로 正祖의 眞影을 奉安하고 이름하여 華寧殿 이라고 했다。이는 純祖가 正祖의 遺德을 길이 받들기 爲해서 着眼한것이다。建立以後 國恥가 오기前 까지에는 提調、衛將以下의 官吏를 두어 每年 祭祀를 받들다가 國恥日直前에 眞影을 李王職으로 옮긴後로 지금은 비어 있다。

이 正殿 앞에 걸린 扁額의「雲漢閣」三字는 純宗皇帝의 親筆이다。正殿 北쪽에 風化堂이 있다。

到處에서 言及한바 있거니와 正祖大王의 孝心은 거의 變態的일 程度여서 自身도 孝誠이 至極하였거니와 孝子에 對해서는 格別한 關心을 갖고 있었다。그래서 每年 一回式은 華山陵、行幸의 廻路에는 村老들을 롱아 놓고 詩會도 하고 酒宴을 베풀어 一日享樂을 지키었다。

이風化堂이 敬老會를 하던 자리다。

華寧殿 이라면 殿 그自體 보다도 正殿 앞 庭園의 芍藥이 더 有名 했을만큼 滿庭에 芍藥이 깔려었다。겨우 道路만을 내어 놓아 사람이 거닐면 芍藥 꽃밭 위를 걸어 다니는듯 싶었다。그 많은 그 아름답던 芍藥도 解放後의 濕亂期에 全滅되고 지금은 또 한폭도 없다。正殿 建造當時에 記念으로 심었던 솔이 百五十年은 넘었으니 老松의 松籟 秋風에 簫簫 하련만、이 솔 조차 지금은 없다。

七、華虹門과 訪花隨柳亭

市의 心臟部를 맑은 내가 흘르고 있다。八達山頂에서 나려다 보면

街道인지 내물인지 區別 조차 하기 어렵도록 市 中央의 街路와 並行을 하고 있다。

이것이 光敎川이다。

이 光敎川을 北上하면 市街地가 거의 그칠 地點에 一樓閣이 있고 樓下에 水門 七個가 있어 그대로 그림 같다。 이와 같은 樓下 水門은 平北 寧邊에도 있지만 그 構造의 雄壯 함으로나 水門이 많기로나 寧邊 水門에 比할바 아니다。 光敎川邊 兩岸에는 垂柳가 街路樹처럼 櫛比하여 細柳를 微風에 나부끼기도 하고 가지 끌을 물우에 담그기도 한다。

七個의 水門에서는 白布 같은 일곱 가닥의 물줄기가 水煙을 풍기며 흘러 나리는 樣은 可謂 壯觀이다。 元來는 光敎川을 건느기 爲한 石橋면 足했을것을 거기에 七個水門을 내고 그위에 또 樓閣을 세울만한 마음의 餘裕와 幅을 가졌던 그當時 사람들이 부럽다。

「雲淡風輕近午天 訪花隋柳過前川」 宋의 賢人 程明道의 詩에 이런것이있다。 이 程明道의 詩에서 이름을 따서 亭名을 삼은것이 이 訪花隨柳亭이다。 最近 修理丹靑으로 面貌를 一新하고 原谷 金基昇書의 亭名 懸額이 異彩를 띄고 있다。

이 亭子는 華虹門 바로뒤 若干 高臺에 있어 華虹門에서 바로 올려다 보여 물으면 對答할수 있는 相距다。 訪花隨柳란 이름도 아름답거니와 實物인 訪花隨柳亭의 風情은 이 이름 보다도 더 아름답다。 楊柳 사이로 들리는 피리 소리、 七個의 水門을 흘러 떨어지는 물소리 쳐다 보면 空中樓閣 그대로의 訪花隨柳亭이 半空에 솟아 있다。

華虹門과 隨柳亭은 詩情과 雅趣를 서로 주고 받는다。 여기에도 龍池가 있으니 그야말로 錦上에 添花格이다。

龍池는 訪花隨柳亭의 礎石 밑이 바로 龍池다 元來 光敎川에 흘러 나린 물이 이龍池에 注入되어 千九百餘坪의 大池였든것이 乙丑年 大雨에 埋沒이 되어 오늘은 조고만 연못이 되어 버렸다。 그래도 池中에 築島가 있고 峰우리는 老松이 섰고 訪花隨柳亭의 아리따운 姿態가 잠길만한 水量은 된다。 그래도 幾百坪은 될것이다。 龍池의 池名은 元來 龍池의 溢水는、 石刻頭口로서 光敎川에 吐해지게 되어 있었든지라 생긴 이름이다。

이 石刻龍頭는 지금도 池畔에 남아 있다。

華虹이며 訪花隨柳亭 龍池等의 이름은 正祖大王의 뜻을 받든것이라 傳하거니와 正祖大王은 學問도 깊거니와 그런 風雅를 가지신 어른이었다 한다。 즐기어 葛川明月主人翁、 弘齋、 等의 雅號를 지이 쓰셨고 藏書에도 「萬機之暇」라는 印을 즐기어 찍었다고 傳해지고 있다。 事實 淸明한날 멀리 光敎川邊에서 華虹門쪽을 올려다 보면 七個의 水門은 그대로 七虹처럼 보일때가 있다。

그러나 訪花隨柳亭이 世上에 널리 알려진것은 이 一帶의 勝景도 勝景이지만 建築 그 自體가 가진바 藝術的 價値에 起因한다。 華虹門樓와 訪花隋柳亭도 正祖 十八年 正祖大王의 水原遷都로 建立된 建物이거니와 그 當時 建造된 建物中 이 訪花隨柳亭은 白眉라고 한다。 그때 까지의 建築은 全部가 平面的이 었는데 이 建物은 多分히 立體美를 살린것이 特徵이며 彫刻의 精巧와 纖細는 刺繡를 聯想시킨다。 이만한 建物에 이토록이나 纖細할수 있을까 놀랄 程度다。

어쨌든 訪花隨柳亭이 가지는바 建築學的、 그러고 藝術的、 價値는 非單水原市에서 뿐 않이라 全國的으로 보아 또한 白眉的 存在라는것은 全 專門家들의 定評이다。

그러나 이 두 古蹟도 時急한 補修를 要한다。 補修와 同時에 一般民衆에게 啓蒙工作도 併行해야 함을 痛感한다。 無智한 사람들은 보다도 敎育을 받고 있는 中、 高等學生들의 作亂이 第一 甚하다는 各 古蹟保存人의 말에 우리는 憂愁를 禁할길이 없다。

八、鍊武臺

東門인 蒼龍門 北쪽 언덕에 있어 一名 東將臺라고도 불리어진다。 正祖大王과 將兵이 鍊武臺 까지 構想한 것을 보면 그 水原遷都에 對한

熱意를 推測할 수 있다。이 建物은 築城當時에 세워졌다。

東將臺　　李朝　正祖

畫樓粉壁意氣誇　此中常見五雲遮
高樓直聳爭秋色　萬象俱明泛月華
景物偏從今夜好　山川元有四時佳
庭松不妨遲遲長　長繫淸輪相國家

東將臺는 上中下 三層 築臺로 되어 있다。그 下臺는 兵卒들이 訓練을 받는 자리요 中臺는 將校가 數千兵卒을 指揮하던 位置요 上臺가 金冑鐵甲의 守城將軍이 三軍을 叱咤하던 자리다。이 鍊武臺의 앞 廣場은 一時 公衆 運動場이었으나 解放直前 太平洋戰爭이 熾烈하자 一切의 運動競技도 日當局이 禁止하였으므로 自然 풀밭이 되고 말았다。

九、西將臺

西將臺는 一名 華城將臺라고도 불리어진다。四方 十里의 風景이 一眸下에 眺望되는 八達山頂에 있다。解放前만 해도 全山이 아름드리 老松이 덮였었으나 오늘은 文字 그대로의 禿山이 되고 말았다。

西將臺도 築城當時의 建物 이었으나 現在는 垈만이 남아 있을 뿐 이다。元來는 臺石 四層에 樓閣을 세웠었다고 한다。樓閣도 없고 奇松老木도 없어졌지만 이 西將臺址에서의 眉望은 實로 가슴이 툭 트인다。

眼下에 水原全市가 펼쳐진다。六、二五 共匪叛亂으로 焦土化했던 水原市도 不過 二年에 原狀 復舊가 되었다。皆擧가 洋瓦나 洋鐵지붕속에 華虹門과 訪花隨柳亭、華西、八達等의 樓閣、樓門이 散在해 있어 新舊의 對照가 더욱 鮮明해진다。여기서의 訪花隨柳亭 一帶의 展望도 좋거니와 正祖 大王이 遷都의 豫備工作으로 人民을 集結시키느라고 자랑삼아 百穀이 욱어진 大有坪 平野、그 넘어로 正祖大王의 華山行陵에 그늘이 되어지라고 심은 솔이 이미 百五六十樹齡이나 된 老松叢林은 그대로 一幅의 東洋畵다。고개를 돌리면 一大湖面이 松林사이로 번득인다。陽光에 面鏡처럼 反射를 한다。西湖의 絶景이다。

正祖大王은 西將臺에 올라 風光을 즐기고 「華城將臺」의 親筆을 나렸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그 樓臺의 遺址만이 쓸쓸이 남아있을 뿐이다。

一〇、烽　燧

蒼龍門에서 南쪽野山에 있다。벽돌로 쌓아 올린 圓筒形으로 各個의 周 十九尺이나 된다。이것이 烽火의 役을 하던 烽燧이다、勿論 原始的인 通信機關이다。釜山에서 서울 南山 烽火燧을 걷치어 宮中에 까지 알리는데 一晝夜면 充分 했다고 하니 原始的이라고 만 웃어 버릴수 없다。勿論 烽火로 만 急을 알리는 것인지라 烽火만 보아서는 意思를 通할수 없는것이 遺憾이지만 烽火로 알릴만한 事件이면 依例히 國家의 存亡에 關한 事件인지라 몇가지의 暗號로서 通했다고 한다。

卽 烽火의 數와 煙氣等으로 最少 限 四五種의 意思表示를 할수 있었다하니 最近 우리나라의 電報보다、正確하고 迅速한 셈이다。

이 水原에서 烽火를 올리면 이 烽火를 龍仁郡 石城山 陸烽에서 받아 서울 南山 烽燧로 보내어 바로 宮中에 連絡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烽燧에는 언제든지 走卒卽 오늘의 連絡兵이 駐屯해 있었다。

저금은 遺墟만이 겨우 烽燧임을 說明해 줄 뿐 다—破壞되고 없다。

一一、西湖와 杭眉亭

水原 이라면 곧 西湖를 聯想할만큼 有名한 西湖다。京釜線 車를 타본 사람 치고 水原은 몰라도 西湖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이 西湖는、麗岐山麓、國立農大뒤에 있다。

西湖의 築造는 水原城廓과 各 樓門과 그 年代를 같이 한다。이 西湖도 正祖大王의 水原遷都準備의 一役으로서 이루졌던 것이다。正祖는

登極後 十八年間 오직 한가지 念願은 어떻게 하면 父王 莊祖를 옆에 뫼실수 있을까 하는 것 이었다。正祖는 좀 더 가까운 곳에 陵을 뫼실 것을——하는 後悔도 해 보았고 陵을 다시 서울 附近에 옮길 空想도 해 보았었다。그러나、한번 屍體를 옮긴것도 惶悚한데 두번까지 고이 잠드신 靈魂을 번거롭게 해 드림은 不孝 이에 더 할수 없다。이런 苦悶끝에 決定지은 水原遷都 였든 것이다。

이 遷都 計劃은 實로 計劃的이 였다。築城을 爲始하여 一國의 首都로서의 面目을 가추기 爲한 一切의 施設을 劃策했다。遷都에 對한 一般 百姓의 感情은 그리 좋은 것도 아니다。正祖는 遷都를 하자면 먼저 宮만이 옮아 갈것이 아니라 百姓이 딸아야 한다 했다。百姓이 딸자면 그들의 生計가 서야 한다。여기에 着眼한것은 貯水池였다。

貯水池를 많이 만들어 營農大計를 세워 주자던 것이다。그 當時의 生業이란 農業 뿐 이었다。

이 西湖도 그래서 생긴 것이다。

文獻에는 四大 貯水池를 築造했다고 되어 있다。東西南北에 各一個式만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것은 西湖와 北湖 두개 뿐 이다。北湖는 市에서 서울쪽으로 五六粁 地點、新作路附近에 있는 貯水池다。

이렇듯 百年大計를 세운 遷都가 一部 重臣들의 反對도 있었지만、正祖의 急逝로 中斷이 되었으나 이 貯水池가 二百年間 우리 農民에게 끼친 惠澤은 實로 컷든 것이다。

西湖는 水原의 營農을 爲해서도 絶對不可缺의 存在 이거니와 名勝古蹟으로서도 없어서는 안될 存在다。湖畔의 긴 堤防을 거니는 맛 이란 이로말로 表現할수가 없다。築湖 當時에 심은 稚松들은 이미 百六十餘의 樹齡을 거듭한채 堤防 左右에 櫛比하다。盤松이 있는가 하면 奇松이 있다。老松에 老鶯이 가버린 靑春을 읊조리고 있는가 하면 湖面에서 稚鯉가 젊음을 자랑한다。作亂지듯 湖面에 가지를 느리운 老松이 있는가 하면을 숫제 뿌리만 堤防에 붙이고 全身 傾倒한 老樹도 있다。이 無秩序하게 굽고 펴고 한 가지들이 되려 自然 스러운 調和가 되어 그대로 한幅의 그림이다。

麗妓山 이란 누가 지은 이름일까? 水原의 地名과 城名 모두가 아름답거니와 麗妓라는 山名도 이 西湖絶景에 잘 調和가 된다。湖水속에 잠긴 麗妓山의 姿態·그것은 그대로 美妓의 모습 그대로다·解放以後의 混亂과 六·二五 共匪亂에도 이 麗妓山의 密林만은 保存된것이 그지없이 기쁘다。

湖畔에 서서 全山鬱林에 덮인 熱知山의 眺望도 즐겁다。

老松의 가지에 얼굴을 스치며 堤防을 라고 올라가면 濤濤 瀑聲에 귀울림을 이르킨다。二丈이나 되는 斷崖를 떨어지는 水門이다。水門의 白色架橋를 건느면 湖畔에 雅淡한 小亭이 있으니 이것이 西湖와 함께 有名한 杭眉亭이다。大陸의 美鄕으로 알려진 蘇州、杭州의 杭州 西湖의 이름을 땄고 杭眉의 亭名도 蘇東坡의 「西湖를 杭州의 眉이니라」는 句에서 딴것이다。

杭眉亭에 앉으면 水門 瀑身에 눈이 부시다。漢詩에서는 三四尺이면 三千尺으로 表現을 하니 水落二丈餘면 巨瀑이라 해도 妄言은 아니리라。

이 杭眉亭은 北門廢寺址에 있던것을 純祖代에 移築한것이다。西湖의 鮒魚는 예로 부터 藥用으로 重用되고 있다。西湖鯉魚는 나라에 進上을 했고 鮒魚는 主로 後宮 貴人들의 藥用으로 씨어졌다고 한다。湖畔 釣魚의 一日行樂도 西湖의 一景이다。

그러나 最近 藥을 使用 하는 사람이 있어 稚魚의 繁殖率이 低下된다고 함은 遺憾이다。金卵을 낳는 母鷄의 배를 갈랐다는 옛 이야기의 主人公이 再生하여 이땅에 태어 났다는 말 인가?

仁川市

第一節 仁川의 沿革

仁川은 高句麗의 買召忽 新羅景德王時에 邵城이라 改稱、다시 高麗 顯宗때에 慶源府라하였다가 其後 仁州라하드니 麗末에 再次 慶源府、 李太祖元年 다시 仁州로 復改、第三代 太宗時에 비로소 仁川이라 稱케 되였다。 倭政때 郡縣併合으로 仁川府로 행던것을 解放獨立과 더부러 仁川市라 부르게되였다。

、太宗以來 仁川이라 부르던곳은 其區域이 甚히 넓어 北은 富川、南은 始興 東은 서울과 接하고 西便一帶는 江華을 隔海對臨하여 附近島嶼를 包含하고있다。

太初郡治의 邑은 現文鶴山麓 官廳里附近으로 現在 仁川港은 檀紀四二一六年高宗二十年癸未에 濟物浦條約을 締結하고 비로소 國際開港場이된바 當時는 一漁村에 不過하든곳이 一躍今日의 國際港都를 이루었으니 이는 오로지 開港에 그發展的 素因이 있었던 것이다。

第二節 概況

仁川은 本道西部에 突出한 小半島에 位置하여 서울과의 距離는 不過八十里 地點에 이루워진 新興都市로서 또한 우리나라에서 釜山에 다음가는 第二의 國際關門港都이다。

市에는 政治、經濟、產業、文化、教育、軍事、交通等의 各機關이 具備되였으며 道內首位의 都市이다。

市의 面積은 一八三、九一九平方粁 人口는 五〇萬戶 二五六、〇〇〇餘名에 達하며 海港은 築港工事를 完成하여 國際大少船舶이 雲集하여 海陸物產의 集散은 勿論 年年貿易이 增加되는 同時에 앞날에 發展은 期待하여 남음이있다。

第三節 名勝古蹟

本仁川은 海岸 港口都市로서 干滿의 差가 太甚하여 普通三十餘尺 海面에 點綴되는 風光 또한 明媚한中 特히 樹陰에 싸인 市街에 新築洋屋이 間間히 海面에 反映되는 海上에서의 眺望 또한 絶佳한 風景이다。

海灣에는 月尾島、苅藥島가 內港을 싸고있서 天惠的 防波堤를 이르고 있고 永宗、八尾、龍游、舞衣、紫月、靈興、大阜諸島가 外郭을 이루워 멀이 雲霧中에 浮沈하고 있어 觀光仁川에서 除할수 없는 名勝이다。

其中 重要한데만 列擧하면 다음과같다。

一、月尾島

仁川海上에 가로 노인 周圍一里餘의 섬으로서 陸地와 連接하는 築堤道路가 築港時에 完成되어 陸地와의 交通이 至便하였으나 六、二五事變으로 UN軍이 駐屯하여 現在는 一般市民의 往來가 杜絶되였으니 事變前까지도 海水浴場、海潮湯、푸-루、旅館、食堂、遊戲場、別莊(龍宮莊)等이 完備되여 있었든것이 大部分 破壞되었으며 繁榮當時에는 海中浮樓에서 魚釣賞月等 實로 京仁一帶에 特有한 一大別天地 였었다。

또한 月尾島는 島全體가 公園化되였었으니 봄에는 到處에 진달래、躑躅等 百花가 爛熳하고 여름에는 森林이 茂盛하여 天然的 植物園을 形成하여 獐鹿이 自由로 活步하였으며、가을에는 全島가 丹楓에 물드러 海面에 빛이는 風光等은 四時 遊覽探勝의 珍客을 끌어 不絶한 狀態이였었다。지금은 戰禍로 頹落하였으니 어서 完全平和가 되여 옛모습을 다시 찾을 날을 손곱아 기다리는 바이다。

二、西公園

市街西部丘陵을 이름인데 全港都風景을 一眸에 거둘수있고 樹木이 鬱蒼하여 四時花影이 不絶로 風致絶佳한 곳이다。

三、東公園

市街中央 海岸面의 丘陵으로서 仁川全港을 一眸에 넣고 遠近山川이 來伏으로 山紫水明、眺望絶佳한 곳이다。

四、松 島 (梧峴驛에서 一里半)

海岸에 突出한 奇岩怪石으로이룬 小山으로 老松鬱蒼하여 靑波를 덮어 白砂靑松의 景勝地이다。

滿潮엔 魚釣、干潮엔 拾蛤으로 京鄕에서 來遊客이 恒時不絶한다。

또한 이곳은 凌虛臺址가 있는 곳으로 凌虛臺는 新羅時代 中國唐과의 使臣과 貿易使가 往來하던 곳이라한다。

五、氣 象 臺

本臺은 仁川中學校 後山山頂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國立氣象臺로서 翌設은 露日戰爭當時 臨時觀測所로 設置한게 始初로 其後朝鮮氣象臺로 改稱、다시 解放獨立과 더부러 國立氣象臺로 新發足을 보아 名實共히 航海、水產、戰略上 國民活動에 重大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臺附近의 眺望 또한 廣濶瀟然하여 仁川名勝에서 빼수없는 곳이다。

六、船 渠

仁川潮汐干滿의 差가 極甚함은 世界的으로 有名한바 最高三十三尺、普通平均二十八尺、外國貿易船은 물이 外港에 定泊하는 것을 開港築造한 後부터는 汽船의 出入이 頻繁할분外라 國際航海의 見地로도 그 必要가 切實하여 日韓合併卽前에 起工하여 檀紀四二六五年壬申에 竣功한 것이 바로 이 二重閘門式 船渠다。擊船壁高 三十九尺、長二百五十間、幅百二十間、船渠內는 最低水深二十七尺으로 四千五百噸級 船舶六隻以上 同時에 擊留할수 있다。

閘門은 所謂 二重閘門으로 電力으로 開閉가 自由로운 裝置로서 第一閘門에 배가드러오면 水位를 第二閘門과 같이 올려서 鎖門하고 內門을 열어서 배를 드려보낸다。出港할 時는 逆用함으로써 二十四時間 干滿의 大差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出入이 自由로 恒時殷盛을 다하고 있다。

高陽郡

第一節 古蹟 寺刹

一、幸州山城 戰勝峯

前後 七年間에 걸친 壬辰 倭亂의 全 戰鬪를 通하여 三大捷의 一로 헤아려지는 權慄將軍의 戰勝碑는 幸州山城 德陽山頂에 있다。本郡 知道面 幸州內里에 該當한다。陵谷驛에서 三粁地點인 漢江岸으로 本郡의 知道面과 金浦郡 西面의 中間에 位置하는 突出部가 바로 德陽山이다。

權慄將軍이 德陽山中의 幸州山城에 陣을 친것은 우리의 請兵으로 來援次 明의 四萬大軍을 이끈 明將 李如松이 坡州惠陰嶺碧蹄館 싸움에서 慘敗를 보기 直前이다。이때의 國內政情은 黨爭으로 因한 腐敗相이 아직도 傷處 그대로 남아 이國難中에서도 한쪽으로는 勢力다툼이 그치지 않았고 國民全體가 唯一한 希望으로 믿어온 申砬將軍이 鳥嶺을 막지않고 忠州彈琴臺에서 背水陣을 쳤다가 敗한後라 그야말로 國權이 風前燈火格 이었다。

名將 權慄의 幸州出現은 敵將 小西行長、石田三成、黑田長政等에게 活氣를 주었으니 그들은 明의 大軍을 碧蹄館에서 무찔러 南下路를 막았을뿐 아니라 鳥山 禿山城에 雄據하여 倭軍 三萬을 괴롭힌 宿怨이기도 했었으니 그때 이미 서울에 入城했든 倭軍 三萬은 權慄이 自己네의 退路를 끊고 軍糧運搬을 阻害할 憂慮가 있기때문에 이를 城外에 끌어내어 一擊에 殲滅시키려고 서울에서 二萬大軍을 이끌고 禿山城城外를 包圍하고 挑戰했으나 權將軍은 城內에 軍糧을 들여쌓고 搖地不動 하면서 夜間을 利用하여 敵陣을 奇襲하여 敵將 宿舍를 불살르기 數次에 敵은 疲勞한 남아지 서울로 되 올라가고 말았다。

이때부터 權慄의 이름은 海上에서 連戰連勝을 한 우리의 歷史的 名將

李舜臣과 함께 잠자리를 어지롭게 하는 미운 이름이었으니 幸州의 城이 아모리 견고하다 하기로니 六千未滿의 孤軍으로 三萬大軍을 어찌하랴 싶어 實로 意氣沖天한 勇氣였다。

權慄은 權慄대로 李如松이 開城에 들면 倭軍을 挾擊하려든 計策이었든것인데 陽川을 지나서 漢江을 건느니 그때는 이미 碧蹄館 싸움의 戰氣가 익어갈때다、그가 이 幸州를 擇한것은 두가지 意味에서다。其一은 幸州山城은 그리 높은城은 아니지만 東南으로는 漢江의 激流가 구비치는 絶壁이요 西北이 터어 坡州、汶山、碧蹄館까지도 내어다 볼수있는 地點 인지라、五分之一의 寡軍으로 三萬大敵과 싸움에는 全員玉碎의 覺悟가 必要했던것이다。背水陣을 침으로서 有事之秋에는 最後의 一人까지도 싸워 죽을 생각 이었었다。

權慄은 智略에 밝고 膽力도 있고 하여 可히 名將가음이나 輕率한 短處가 있었든 모양이다。이點은 여러點에 나타나 보이 거니와 이作戰에서도 그의 副官인 趙儆이 城에 들면서 城柵 쌓기를 主張했것만 權慄은 「明의 大軍이 있는데 우리 助戰만하면 그만이지 城柵까지야 쌀必要는없다。」

이렇게 反對를 했었다。그때 마침 權慄이 三日間 城을 비우고 楊州에 간틈에 副官 趙儆은 上官의 命을 어기면서 까지 城柵을 싸았었다。後에서야 이城柵이 아니 었다면 到底히 戰勝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權慄도 是認하고 크게 副官을 稱讚 했다고 한다。

그러나 權慄의 計劃은 緻密한바 있었으니 幸州로 오기前에 이미 兵使 宣居怡로 하여금 衿川(現 始興)에서 倡義使 金千鎰은 江華、忠淸監司 許頊과 忠淸水使 丁傑은 通津에서 幸州를 應援케 한것이다。

이때 實로 슬픈 報告가 들어왔다。碧蹄館에서 明軍이 大敗했다는것이다。이 悲報에는 權慄將軍은

「그래?」

하고 또 한마디를 할뿐 卽時로 城守備에 着手했다니 果然 將軍가음이다。

한편 碧蹄館에 大勝한 敵들은 一旦 서울 弘濟院까지 몰려 갔었다。그中 떨어진 一部가 幸州山城에 湖南軍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一擊하여 功을 세우고저 城에 接近했다가 大部分이 死傷을 입고 이 事實을 弘濟院에報告하자 勝利한 敵將들은 幸州를 치기로 決心하고 出發하려다가 明朝에 치고와서 弘濟院에서 點心을 먹기로 했던것을 보면 얼마나 幸州城을 업수이 보았던지를 알수 있다。

果然 翌朝에 敵은 紅白兩軍으로 나뉘어 狩獵이나 가는 氣分으로 三萬이 大擧하여 幸州山城을 包圍하고 가진 方法으로 挑戰해 왔으나 權將軍은 親히 士兵들의 물을 떠다주고 주먹밥도 날라주면서 督戰、敵을 괴롭히었다。

敵은 城을 칠 道理가 없음을 알고 城外에 樓臺를 만들어 그위에서 城을 나려 치려했다。그러나 이 數間이나 되는 樓臺도 다 만들기 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一時에 地字砲로서 이를 飛散시키니 樓上의 敵兵은 티끌처럼 날라 버린다。幸州城을 치고 돌아가서 點心을 먹자던 敵의 꿈은 깨어지고 이미 午正이 지난지라 敵은 다시 焦燥하여 最後攻擊을 加해 왔었다。

그러나 城은 굳었고 戰意沖天하여 敵은 半나절에 一萬餘의 戰死를 내고 負傷者는 이로 數를 헤아리지 못한채 退却하고 말았다。

이戰勝이 敵의 再起를 막은 세음이다。

翌日 새벽 權慄은、오늘쯤 敵이 다시 大擧 復讐戰을 하러 올것이니 달리 布陣함이 可하다 하고 幸州城을 버리고 坡州로 退却했던 것이다。이 權將軍의 推算은 的中했으니 그날 마침 敵들은 殘餘兵力에 援軍까지를 얻어 來侵했으나 헛된 費用과 苦生만 하고 돌아갔으니 悲憤은 한層 더 했을것이다。

壬辰倭亂을 通하여 權將軍은 梨峴과 幸州에 大勝捷을 얻었으니 三大捷中 二大捷의 榮光을 單身 占有한 세음이다。

幸州는 이렇듯 史蹟으로도 有名하거니와 城에 오르면 東南으로 漢江 碧流가 나려다 보이고 멀리 서울과 永登浦一帶가 眺望된다。江華의 碧波도 맑은날에는 眺望이 되는 勝景地다。

오늘날 우리네 家庭婦人들은 「행주치마」를 부엌에 들때 둘러거니와 이 幸州치마도 이 權將軍이 防戰準備로서 婦女들을 動員하여 돌을 날르게 할때 치마를 버리지 않기爲해서 걸치마를 둘르게 되었든것에서 由來한것이다。無心히 보아 넘기면 그만 이겠지만 이 치마에도 우리民族의 魂이 서려 있는것이다。언제나 歷史를 造作하여 自家를 擁하려는 島國人 根性을 버리지 못하는 日人들은 自己네의 名將이라던 小西、石田、黑田의 三將과 毛利元康、小早川隆景軍까지 이作戰에 援軍했음을 自認하고 그數三萬을 넘었다는것과 死者만 一萬이 넘었다고 記錄하고 있다。

이 戰勝의 功을 慰기爲하여 세워진 德陽山峰의 戰勝峰碑는 그 高가 七尺一寸、두께가 六寸、幅이 二尺七寸의 大捷碑로 碑文이 大部分 風化된것이 遺憾이다。峰名도 이때부터 戰勝峰으로 불리어졌고 約百年前 憲宗(?)朝에 將軍의 遺功을 길이 받들고저 峰下 漢江岸에 紀功祠를 세워 春秋로 享祀했으나 지금은 많이 傷해서 最近 修築을 推進하여 거의 舊貌를 가추게 되였다。

二、碧蹄館

壬辰亂의 援兵次 十二月에 鴨綠江을 넘어 온 李如松의 明軍이 敵의 手中에 든 平壤을 奪還하고 다시 南下하다가 碧蹄館에서 倭軍과 接한것은 癸巳年 正月 二十六日이다。不過 두달동안에 三千里疆土를 휩쓸어 서울、開城、平壤까지 깊이 처들어 갔던 倭軍은 平壤에서 明軍에게 敗하고 서울까지 後退한것은 正月二十一日이다。

戰勢가 不利해지자 敵將間에는 서울로 부터 退却하자는 論이 大勢를 기우렸으나 唯獨 小早川隆景만이 明軍과의 一大接戰을 主張하여 들지 않았다。小早川은 玄海灘을 건널제는 敵地에서 죽기爲해서 였다고 總大將格인 宇喜多秀家가 退却을 爲한 全員集結命令에 不應하고 西大門밖에서 自己部下를 督勵하여 戰鬪準備를 가추기만 했다。

小早川의 爲人을 보면 나이 이미 六十을 넘은 老將으로 戰績이 많은만큼 老獪無雙 하였다。이者는 倭兵에게 우리나라 農夫옷을 입히어 密偵을 삼아 明軍의 動態를 蒐集하는 한便 倭兵을 十名 或은 二十名式 隊伍케하여 敗殘兵처럼 假裝시키어 坡州附近에 侵透시켰었다。이 奸計에 李如松이 속고 말았으니 李如松도 先鋒將 査大受한테 우리나라 農夫의 옷을 입히어 倭軍 兵力을 內査케 했던바 맨 敗殘兵만 눈에 뜨이는 지라 이 程度라면 서울까지 밀고 들어갈 생각이었다。

小早川이 이런 奸計를 꾸민것은 碧蹄館 鬱林속에 大軍을 伏兵시키기 爲해서 였던것인데 査大受는 깜박속고서 前衛一千兵만 거느리고 大軍은 뒤를 띨게 했던 것이다。

李如松이 碧蹄館 附近에 이르러 偵察을 시키니 碧蹄館에는 不過二百兵만이 守備하고 있는지라 安心하고서 惠陰嶺을 넘어 오다가 敵의 伏兵 二萬한테 奇襲을 當하여 大敗를 하고 退却을 했던것이다。이 惠陰嶺에서의 戰鬪에서 明軍은 十餘名의 將兵을 잃었을뿐 이였는데 李如松 自身의 生命이 위태했던것에 士氣를 잃고 退却하므로서 뒤따라 오던 大軍도 自然失機케 했던것이다。

李如松은 傲慢하기만 했지 實은 拙劣한 人間이였든것은 史記 到處에 남아 있다。

日人들은 이 碧蹄館의 戰捷을 크게 評價하지만 實은 李如松의 卑怯한 退却에 起因했던것에 不過하다。이 碧蹄館 싸움에 比한다면 權慄將軍의 幸州山城 戰捷은 名實共히 歷史的인 大戰捷이라 할것이다。

碧蹄館의 建物은 이 碧蹄館 싸움이 있기 百餘年前인 李朝十代 成宗七年 八月에 起工 同十年十一月에 竣工된 建物이다。이建物은 元來 우리나라에 오는 中國使節의 宿舍로 使用하기 爲한것으로 倭政初에 五十餘間을 헐이하여 二棟으로 만들었든것인데 六·二五動亂으로 거의 破壞되고 正門만이 겨우 남아 있을뿐이다。世稱「碧蹄館 싸움」이라고 하지마

는 戰地는 여기서 北으로 가는 礪石峴이 中心地였다。

이 碧蹄館에서 約二粁地點에 惠陰嶺이라는 고개가 있다。 高陽과 坡州와의 郡界에 該當하는 位置다。 이 고개는 李如松이 數萬騎의 大軍을 이끌고 올라 멀리 北漢山을 바라다 보면서 서울奪還의 戰略을 構想했다는 由緖깊은 고개다。 그러나 不幸의 前兆이기나 한것처럼 고개를 내려 오는데 말이 다리를 傷하여 말을 바꾸어탔다 하여 이것이 敗因의 前兆였다고 傳해지고 있다。

三萬大軍中에 戰死者 幾十을 내고서 怯이나서 退却한 李如松의 꼴도 이었지만 退路에도 이 惠陰嶺을 넘었는데 三萬大軍이고 보니 미처 따질수가 없어서 一部가 다른고개길로 退却했다는데서 注民들은 明軍의 卑怯을 비웃느라고 退敗峴이라고 불러 나려오는 고개가 있다。 이고개가 碧蹄와 楊州의 白石面 靈場里와의 境界에 있는 德坡嶺이다。

三、北漢山

北漢山은 通稱 三角山으로 全山이 花崗岩으로 構成되어 있다。 서울市內 어디서 쳐다 보와도 보이는 首峰이 白雲臺다。 奇岩과 劍岩、怪와 奇를 極한 岩塊의 重疊, 심심치 않을 程度의 奇松은 岩間에 세워가며 築疊된것이 三角의 特長이다。

首峰 白雲臺에 오르면 百里半徑의 風光이 眼下에 展望되고 山腹에 白雲이 떠를 떠는가 하면 探勝客의 머리위에 감돈다。 蒼空 저 地平線에 碧海가 잇닿아 있고 바다같은 平野에 올망졸망한 野山, 白布를 彷彿케 하는 大小의 江과 細流가, 陽光을 받아 地上에 무지개를 펴노흔듯 하다。

더욱이 最高峰인 白雲峰은 人間이 想像할수 있는 最大의 두個의 巨岩으로 形成된 感이 있다。 岩間의 深溝는 眩氣를 이르키게하는 幾百尺의 絶崖다。 天地가 開闢을 한대도 눈한번 깜짝하지 않을 巨岩의 壯嚴한 모습을 哲學이라 한다면 몽게 몽게 피어오르는 白雲은 그대로 浪漫이다。 老松가지사이로 엿보이는 丹楓과 진달래를 北漢의 感傷이라고나 할까? 誇張이 아니라 峰上에 올랐을때의 爽快絶美의 感情은 登仙에 비길수 있다。 한번 올르면 紅塵을 쓰고 茶房의 憂鬱을 돈주고 산 지금까지의 生活이 비웃어진다。

이렇듯 仙景、아니 絶景인 北漢山에는 다만 勝景만이 있는것이 아니다。 千四百餘年前 新羅第二十四代 眞興王이 몸소 北漢을 찾은 巡狩碑가 있는가 하면 紀元前 우리 祖上의 손으로 쌓아진 城郭이 있고、高麗興佛時代에 數十佛宇의 集成으로 俄然 一大伽藍佛山을 이루었던 痕跡이 아직 山僧이 뚜드리는 木魚 소리에 잠겨져 있다。 由緖깊은 寺址만도 佛宇를 보느니만 못지 않은 情緖를 빚어주고 아직도 礎石이 散在한 李朝의 別宮址에 서서 五百年의 李氏王朝史를 읊조려 봄도 意味 없지는 않다。

高麗 吳洵, 李朝 肅宗의 北漢頌을 읊조리며 洗劍亭을 始發로 北漢鎭山에 널려 있는 名勝古蹟을 찾아 보리라。

北漢山城　　李朝 肅宗

臨筵定計出深恩　更喜吾民興守之
昔日溫都是地建　今辰行殿此山治
美哉可比秦睛險　高矣殊同蜀道危
屹屹崇墉新環壯　海東第一果誰爲

三角山　　高麗 吳洵

鋒室三衆碧芙蓉　縹緲煙霞幾萬里
却憶當年倚樓處　日沈蕭寺數聲鍾

四、藏義寺址

孝子洞에서 彰義門고개를 내려가노라면 盤岩淸流의 洗劍亭이 있고 이 部落 左便쪽 老松丘麓이 肅宗代의 蕩春臺城이 였던자리다。 洗劍亭은 仁祖反正때 光海君 追出을 謀議한 자리라는 말도 있고 仁祖反正을 完遂한 同志들이 이 자리에 와서 칼에 묻은 더러운 피를 씻었다 해서 洗劍의 이름이 생기었다고도 傳해지고 있다。 그러나 또 一說에는 李朝

第十九代 肅宗이 在位 四十一年에 北漢山城 守備를 强化키 爲하여 漢北門을 建立하고 이 一帶에 櫻桃와 사과와 복숭아 꽃의 花雲이 淸流에 비침으로 築城 建門에 從事한 사람들의 勞苦를 씻쳐주기 爲하여 一亭을 지었다는 說도 있다。仁祖反正의 謀事는 弘濟院에서 했다는것이 事實이고 보니 成事後에 洗劍을 할수도 있으나 亭子建立은 後說이 事實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어쨋든 이 洗劍亭 附近의 風景은 山紫水明할뿐 아니라 白岩이 물과 함께 흐르는 느낌이 있어 勝景이다。이 洗劍亭 左便의 丘麓이 蕩春城址요 그 옆 地上 十二尺에 大幢竿支柱가 선 자리가 藏義寺址다。

藏義寺의 開基는 距今 千二百九十餘年前 新羅 第二十九代 太宗武烈王이 統一偉業에 殉國한 將兵들의 冥福을 빌기爲해서 創建한 佛宇였다。武烈王이 여기에 자리를 잡은 理由는 이 附近一帶는 新羅와 百濟가 가장 熾烈한 激戰을 交한 地帶이므로 여기에서 戰死한 將兵들의 靈이 깃든 자리라 해서 擇했던것이다。開基 當時의 藏義寺는 蕩春城址 一帶의 廣大한 地域에 佛宇도 數十棟의 大伽藍 이었다고 한다。그後 廢寺가 되어 나려오던中 李朝 十九代 肅宗 四十一年에 臺城을 쌓고 北漢守護의 任을 다하게 했던 것이다。

創建當時의 藏義寺 規模가 얼마나 컸든가는 오늘날 蕩春城址로 불리워지는 이 一帶만 둘러보아도 想像키에 足하다。

藏義寺境內에 섰던 한雙의 石支柱도 當時의 壯嚴을 말해주고 있다。이 支柱는 地上高가 十二尺餘에 二尺五寸、一尺五寸의 方石柱로 올려다보이는 幽谷의 樹海와 좋은 對照를 보여주고 있다。

史話에 많이 나오는 新羅의 罷郞 長春郞이 戰死한것이 이附近이다。

五、漢 北 門

漢北門은 別稱 弘知門 이라고도 한다。이城門은 肅宗이 그의 四十一年蕩春城을 築城하면서 建立한 城門이다。建門當初에는 五個의 水門이 있어 山에서 나려오는 溪流를 通케 하고 城門에 樓를 올려 樓額에도 肅宗의 親筆로된 賜額이 걸렸든 것이다。

이城門과 城樓는 檀紀四二四七年 까지는 多少 헐었으면서도 當時의 面貌를 갖추고 있었든 것인데 그해 八月의 큰 長霖으로 激流에 휩쓸려 破毁되고 말았다。

現在는 그舊址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樓門이 섰던 位置는 道路가 되어 버렸다 史記에 나오는 西城이란 이 漢北門一帶를 일러 말함이다。

六、玉 泉 庵

漢北門址에서 溪谷을 따라 얼마 나려가면 一大自然岩에 陽刻을한丈餘의 座佛像이 있으니 世稱 白佛座像이다 여기가 玉泉庵으로 藏義寺 創基時의 一屬庵이 었다 하니 藏義寺의 寺境이 얼마나 넓었든가는 推測하기에 足하다。

이 石佛의 彫造도 新羅 武烈王이 藏義寺를 開基할때 이루어진것으로 推測되는 것은 同石佛의 樣式이 新羅時代 佛像의 典型的인 特徵을 充分히 나타내고 있는것이라 한다。巨大한 自然岩이 주는 壯嚴性에 座佛의 高가 一丈을 넘는 지라 一種의 威壓을 느끼게한다。

白佛의 稱이 있음은 高宗의 幼少時부터 이 座佛이 粉을 발르기 始作했다는데서 由來 한것 처럼 傳해지고 있으나 이것은 누가 造作한 말일것이다。

七、僧 伽 寺

玉泉庵에서 新羅 眞興王의 巡狩碑가 있는 碑峰을 바라보고 올라가면 碑峰의 東쪽 뚝 떨어진 位置에 新羅時代의 名刹 僧伽寺가 자리잡고 있다。僧伽寺境에만 들어도 背後의 우람스러운 岩峰이며 그많은 厄을 칠었으면서도 아직 老樹鬱林의 그윽한 맛을 維持한 幽谷에、淸冽한 溪流는 名山北漢에 든 感이 있다。

이 僧伽寺는 新羅時代의 古刹로 秀臺師가 唐 西域의 僧伽大師의 聖跡을 追仰하기 爲해서 이룩했다고 傳해지고 있다。秀臺師는 北漢山 一

帶를 歷巡하다가 此地에 開基키로 하고 石窟속에 僧伽大師의 像을 彫刻했다고 하며 高麗朝의 第十三代 宣宗과 十五代 肅宗이 僧伽寺에 行幸했다는 史記가 高麗史에도 남아 있는點으로 보아 그當時부터도 名刹로서 헤아렸던 모양이다。

名刹 僧伽寺가 寺寶로서 자랑하는 石佛은 寺後側 조그만 石窟안에 安置되어있다。石窟안 에는 이 名物의 石佛을 爲한 조그만 堂을 이룩해서 그 堂內에 외신품이 얼마나 이 石佛을 所重히 여기었든가를 짐작케한다。石灰色의 座像으로 사람 實物이 앉으니만 하다。

僧伽寺에는 이 石佛과함께 자랑으로 삼는 巨佛像이 있으니 佛宇의 西쪽에 방에 불쑥 솟은듯싶은 巨岩이 있다。이 巨岩에 陽刻으로 된 佛像이 있으니 이만한 巨像彫刻이 이렇도록이나 精巧할수가 없다。이 佛像도한 新羅佛敎의 傳說을 充分히 살린것이라 한다。佛宇 北便 壇下로 나려서면 石鍾과 石鍾碑가 있으니 이또한 同寺 開基時의 遺作이다。

절뒤에 一古碑跌石이 있다。碑身이 없어 判定키는 困難하나。一說에는 高麗朝 十六代 睿宗代에 本寺를 大修築했다는 記錄이 남아있는 點으로 보아 或 그 重修記碑가 아닌가도 하고 또 一說에는 開基當時의 세워진것이 아닌가 하는 說도 있으나 어느것이나 確然치는 않다。跌石으로는 相當한 巨作으로 花崗岩에 三段으로 蓮辨을 繡놓듯했다。高는 一尺五寸에 最下段의 幅長은 實로 五尺八寸이나 된다。

八、新羅 眞興王 巡狩碑

僧伽寺에서 까아맣게 치어다 보이는 岩峰이 바로 新羅 眞興王의 巡狩碑가 서있는 世稱 碑峰이다。山이라기 보다도 巨岩을 築成한듯 싶은 石塊로 된 岩峰이다。

眞興王 이라면 新羅統一期에 들기 시작 했을무렵에 태어난 英王으로 안으로는 佛敎 其他 文化隆盛에 가진 努力을 傾注하고 밖으로는 國土를 擴張하여 武烈王으로 하여금 統一의 偉業을 達成할수 있는 地盤을 닦아 주었다 해도 過言이 아닐 英主였다。저 有名한 慶州의 皇龍寺를 세운것도 眞興王이요。高句麗의 領地이던 竹嶺以北의 高峴(現地未詳)以南으로 十郡의 地域을 新羅가 編入시킨것이 西紀五五一年이니 眞興王代다。이 地域이 오늘의 漢江上流 方面이니 眞興王은 領土擴張에만 그치지 않고 이 地域에 强力한 軍團을 組織配置하되 그 軍營을 必要에 따라서 隨時로 移動할수 있는 요새말로 機動性 있는 防禦陣을 친 點은 軍事學上 으로도 높이 評價될 것이다。

卽 眞興王은 漢江上流 方面의 十郡을 編入시키는 同時에 北漢山(現서울附近)、漢山(廣州)南州(利川)에 隨時로 遷動하여 高句麗로 하여금 軍團大軍이 어디 있고 언제 어디로 移動하는지 조차 모르게 만들 였었다。

이 碑峰上의 巡狩碑가 선 動機도이 防禦線 强化가 目的이였으니 이때 眞興王이 巡歷한 巡狩碑로서 現在 發見된것만도 四個所나 된다。이 四個의 碑 所在地를 들어보면

一、昌寧碑(現 慶南 昌寧邑內)
二、北漢山碑(現 北漢山 碑峰上)
三、黃草嶺碑(現 咸興 黃草嶺上)
四、利原碑(現 咸南 利原 摩雲嶺上)

이 碑의 所在地만 보더라도 그地域의 넓음을 알수가 있다。이 碑所在의 位置는 곧 眞興王이 洛東江岸 一帶와 漢江流域의 全部를 손에 넣은 證이니 이 地域의 産業이 新羅統一의 契機를 만든 重要한 要素였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眞興王이 漢江流域의 十郡과 洛東江岸의 六郡을 攻略하여 新羅의 新領土로 만든것이 紀元 五五一年이고 보니 眞興王 在位十二年이 되는 셈이다。그러고 보면 이 巡狩碑의 建立은 眞興王 二十九年 頃이니 新領土巡察後 十七年이나 後에 세워진것이다。

碑는 堅緻한 花崗岩으로서 跌上高는 五尺一寸、幅 二尺六寸、두께가 五尺五寸、上端一部가 六、七五後에 떨어졌다。

碑文은 全 十二行이오 一行에 二十一字 乃至 二十二字에 한字의 經이 一寸、書體는 階字이나 千四百年間 雨露에 씻기고 風化되어 文字判讀이 不可能한것이 遺憾이다。咸興碑文은 判讀이 可能했것만 無識한 共産軍이 架楷에다 갖다쓰지 않았으면 多幸이겠다。

碑石 左側面에는 겨우 알아볼수 있는글자가 있으니

「此新羅眞興太王巡狩之碑丙子七月 金正喜、金敬淵來讀」

「乙未 八月二十日 李濟鉉 龍仁人」

「丁丑 六月八日 金正喜 趙寅永 同來 審定殘字六十八字」

이 三行으로 보아 純祖代에 判讀된 記錄이다。 金正喜는 書의 大家 秋史이니 秋史는 第二十二代 純祖人이었다。秋史는 趙寅永을 帶同하고 와서 判字하여 二百五十餘字中에서 겨우 六十八字만은 알아내었든 모양이다。秋史는 그後에도 다시 二字를 判護했다는 記錄이있다 하니 都合 七十字를 判讀한 세음이다。

의 秋史가 判讀한 七十字도 材料가 없어 記載치못함이 遺憾이다。

어쨌든 이 巡狩碑는 아마 우리나라의 碑石中最古에 屬하지 않는가 한다。

九、文殊庵

北漢 寺刹中 가장 勝景地로 알려진 文殊寺는 北漢山城 南門外에 位置한다。佛寺의 規模는 비록 크지 않다 해도 麗朝 開基의 由緖도 깊거니와 寺庭에저의 眼下眺望은 奇觀이다。周邊의 連峰도 아름답거니와 눈을 멀리 던지면 神秘境을 바라다 보는듯 싶고 아모리 盛夏라도 不知中에 옷섭을 여미게 된다。

庵內의 羅漢殿에는 五百羅漢의 像이 安置되어있어 可觀이오 羅漢殿뒤 石窟에서 솟아나는 甘泉의 맛은 또한 格別하다。斗汗을 흘리고 올라서도 이 甘露水 한표주박 으로 땀이 쓰윽 걷치고 疲勞가 一時에 풀리는 느낌이다。窟內에는 數十名이 들어 갈수 있는 넓이다。

高麗僧의 頌寺詩가 傳해지고 있다。 其詩에曰

一寶何寥廓 皓月掛簷楹
萬綠俱寂寥 凉風動林壑
路窄石罅通 誰從天上人
泉透雲根落 淸坐學眞樂

一〇、北漢山城

漢城을 國都로 삼은것은 李太祖가 正統이 지만 其實 李太祖가 처음은아니다。百濟의 始祖溫祚王이 卽位十三年에 國都를 慰禮城에 定했다 하니 慰禮城은 稷山說과 南漢山城의 二說이 있어 後者에 기울고 있음이 事實이다。百濟는 南漢에 國都를 定하고 第四代 蓋婁王代에 北漢山에 築城을 했다는 記錄이 史記에 남아있고 그 後八代를 지나니 第十二代 近肖古王은 漢城附近에 遷都한 事實도 있다。이遷都는 二十代 蓋婁王代까지 었으니 百五年間 事實上 王都였으며 高句麗時代에 이르러서는 第二十五代 平原王이 一時 漢城—卽 지금의 서울 一帶에 定都했었으며 高麗朝 肅宗도 木覓山(舊南山)에 宮殿을 지어 南京이라 일른일이 있다。

城壁은 近代에 이르기까 이 國防에 唯一한 保壘로서의 防堤 였드니 만큼 國都와 함께 城史는 發達이 된다。 그리하여 定都에는 먼저 內外城廓의 設計가 焦點이 된다。李太祖의 漢城遷都는 無學의 勸이라 하지만 無學도 이 北漢이 없었다면 漢陽遷都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이만큼 北漢과 漢城과는 뗄수없는 唇齒의 關係다。

北漢山中에 現存하는 城址는 보아도 首都防禦에 北漢이 얼마나 重要視되었든 가를 알수 있으니 築城치 않아도 外侵이 不如意할 峻岩의 連峰을타고 城址가 남아 있다。平均城高 實로 二十尺에 達하는 곳도 있다。이 城壁은 延延 二十里에 뻐치었으니 實로 壯觀이다。

지금 남아 있는 山城의 大部分은 李朝 第十九代 肅宗 三十七年에 完成된것이지만 北漢山城의 由來는 멀리 百濟時代初로 올라간다。卽 百

濟四代인 蓋婁王代에 北漢山에 山城을 築造했다는 史記가 있고 百濟의 黃金時代에는 重興寺一帶를 包含한 山城에 靈積峰을 中心한 築城을 했던 것이며 距今 千四百八十餘年前에는 高句麗 二十代, 長壽王이 百濟를 攻略하여 漢城一帶를 北漢州로 삼아 防禦壁을 쌓았던 것이다。

그後 新羅의 眞興王은 同盟國인 百濟를 背信하고 竹嶺以北 漢江沿岸 一帶의 十郡을 略奪編入한 事實과 眞興王이 北漢山頂에까지 올라서 立碑한 事實로나 北漢에는 數次에 걸친 築城과 修城이 行해졌을것이 想像된다。 다만 中古時代의 山城은 그規模가 肅宗代보다 적었을 뿐이다。

現存한 北漢山城이 쌓아지게 된 直接動機는 壬辰과 丙子의 兩難으로 江華와 南漢 또한 國權을 維持하기에 足한 要塞이 못된다는 結論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大陸과의 接觸뿐이어서 陸上軍은 江華 不可侵이라 했던 것인데 丁丑 胡亂으로 이꿈이 깨어지고 南漢 또한 믿는바 못되는지라 결핏하면 國都를 버리고 避하는것 보다는 그 精力으로 國都防禦를 强化함만 못지 않다는 見解요 肅宗이 莫大한 國庫와 民役을 動員하여 오늘의 山城을 完成 시키었든 것이다。

築城 當時에 大西、大東、大南、大成等 十四의 城門과 東、南、北의 三將臺와 守備의 三軍門을 設하여 國家有事之秋에는 他方으로 政府를 옮길것이 아니라 城內에서 抗戰키로 하고 軍糧火藥의 蓄積은 勿論 城門內에 宮殿을 지어 行宮을 삼는等 萬端의 準備를 했던 것이다。 規模로나 施設로나 南漢에 比할바 아니었다。 城內에서 大南門 밑으로 나려가면 一盆谷이 있고 이 盆谷에 礎石이 櫛比한 자리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有名한 北漢離宮址다。

이 離宮에는 北漢山文庫 까지 있어 李朝列聖들의 寶璽、金銀玉帶、儀軌其他의 國寶的文獻을 秘藏하여 戰火에서 保存시킨것을 倭政이 되어지며 一切를 破壞해 버리었다。

一一、重興寺址

重興寺는 山中最大의 寺刹이오 또 名刹이었으니 八道의 僧軍을 總指揮監督下에 둔 八道都總攝이 配置되었던 大刹이였을뿐 이니라 王宮用의 一切의 製藥、採藥을 맡아보던 名刹이기도 하다。 麗朝의 高僧으로 朝鮮臨濟禪宗의 始祖라고 일컬어지는 普愚大師도 이 重興寺에서 修道를 했다고 한다。

普愚는 高麗朝의 弘法、圓融、樂眞、智光、元景等의 高僧과 함께 麗代 佛敎振興의 功勞者로 普愚의 名聲이 어떠 했던가는 그가 일찌기 高麗太祖의 願寺로 이룩된 松都의 奉恩寺에서 談經說禪의 儀를 배풀제 恭愍王과 魯國公主、大妃등이 觀幸하여 頂禮를 다 했다하며、銀鉢、繡袈裟로서 幣帛을 삼으니 그부피가 積如丘山 이였다고 한다。 普愚의 談經儀때에는 三百餘僧에게도 白布二匹에 袈裟一領式을 下賜했다 하여 그 盛儀의 程度와 普愚의 名聲을 可히 짐작할 수 있다。

이 有名한 重興寺는 城內의 平坦路가 끝난 露積峰이 南麓에서 갈라지고 交叉點에 位置한다。 오른편으로는 白雲臺로 오르는 길이오、左便으로는 淸凉淸溪의 溪流를 따라 重興洞으로 나려가는 길 이다。 우러러 보면 露積白雲이 우람스럽고 나려 굽어 보면 幽谷은 樹海가 덮였다。 고개를 들면 連峰萬嶽의 怪岩奇石의 積疊 眞紅의 꽃이 필때나 淡赤의 丹楓節의 觀望은 그야말로 티끝에 더럽혀진 心身을 씻어준다。

이 名刹도 高宗末年에 火災로 烏有化되어 지금은 礎石만이 散在해 있지만 往年에는 重興寺의 都總攝의 기침소리에도 仁旺山 호랑이가 숨을 크게 못 쉬었다는 이야기가 傳해질만큼 도저한 存在였다。

一二、太古寺

重興寺의 東南에 一臺가 있으니 이 것이 太古臺다。 高麗名僧 普愚가 즐긴 자리라하여 太古臺의 名이 생겼거니와 이 太古寺名도 이에서 由來한것이다。 普愚는 重興寺에 들었다가 이 太古寺로 옮기어 相當한 期間 滯留했던 모양이다。

太古寺는 元來 重興寺의 屬庵으로 佛宇의 規模는 別로 크지 않다。大

殿外에 二棟으로된 小庵이나 庵뒤에 圓澄國師 卽 普愚大師의 塔碑가 있어 有名다다。

이 塔碑는 花崗石製로 塔碑의 高 七尺五寸、幅이 三尺五寸、두께가 八寸이나 된다。普愚師의 塔碑라는 點으로도 이 碑가 높이 評價되지만 錦上添花로 撰文이 高麗朝 一代의 碩儒인 李穡이오 碑裏側에 刻字된 人名이 皆擧麗朝의 重臣들인 點에서 더욱 珍寶에 値한다。

이 塔碑는 高麗朝末 三十二代 禑王十一年의 建立이니 이 刻名中「判三司 李成桂」로 씨어진것은 바로 李太祖다。禑王十一年이면 禑王으로서는 末年이니 李太祖가 征明軍을 回軍시키어 崔瑩、鄭夢周等 王政派를 芟除하고 禑王까지도 江華、驪興으로 配流하다가 弑하기 卽前이니 사람의 離合이란 實로 無常한것이라 싶어진다。

이 碑가있는 위쪽으로 石鍾과 石塔이 있어 寺寶의 一로 일컫어 진다。

一三、露積峯

露峰 白雲을 바라다 보며 올라 가느라면 蒼空에 뚫듯싶은 一岩峰이 視野에 든다。一奇岩이 그대로 石峰을 이루어 닮게 개인 하늘의 아름다움과 比할때 實로 奇異한 感을 준다。이것을 岩山으로 보니가 아름답다 壯嚴하다 하지 萬一 普通 玩賞物이나 生活必需品의 形態가 이렇게 생겼다면 大驚失色할 形態다。그러나 이 峰上에 白雲이 浮動할때는 峰相은 實로 絶景이다。

露積이란 峰名은 傳說에서 따 졌다 한다。往年 어느戰爭때 이山中에 軍糧이 많이 쌓였다는 所聞을 敵이 듣고 쳐올라 온것을 본 守備軍이 빈 가마니를 峰上에 露積하여 岩峰 全體가 軍糧인것 처럼 보이므로서 敵을 退却시켰다는 이야기다。年代는 分明치 않아 알수 없으나 烏山의 洗馬臺에서 權慄將軍이 白米로서 말을 씻어주어 飮料水 枯渴이 아님을 敵에게 보였다는 傳說과 恰似하다。萬一 이傳說에 根據가 있다면 蒙古來侵時가 아닐까도 한다。蒙古의 第一次 高麗侵寇때에 投降했던 高麗人 洪福源과「싸르타이」가 第二次로 來侵했을때 安北原、西京을 거치어 直接 開京을 侵犯치 않고 漢陽城을 쳤다는 史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싸르타이」는 이 漢陽山城을 치고서 龍仁 處仁城에 接近 戰鬪를 한事實이 있기도 하다。

이런한 傳說은 어찌 되었든 露積峰의 奇觀은 볼수록 壯하고 嚴하다。

一四、萬景臺

萬景臺는 文字 그대로 萬景을 一時에 즐길수 있는 자리다。臺에 오르면 天下가 全部 내것이나 된것같은 호뭇함을 느끼게 한다。五百年 古都 漢陽이 眼下에 있고 千五百年의 由緖깊은 古城이 내것이오 幽谷叢林、百穀이 욱어진 平野와 漢江帶水 모두가 내것이 된양 싶다。

李太祖를 爲하여 都邑을 잡고저 探訪旅行을 하던 無學이 이 臺에올라 보고서는 여기가 果然國都 로다 決定을 지은자리도 이 萬景臺라 傳해지고 있다。

萬景은 一名 國望峰의 稱이 있으니 이 臺에 오르면 漢陽의 全貌가 觀望 되는데서 지어진 이름 일것이다。

一五、白雲臺

北漢山의 最高峰으로 海拔 八百四十米다。全峰이 一個의 巨岩으로 形成 되어있어 그 岩脚은 無慮 數千尺이다。峰下에서 치어다보는 白雲峰의 壯嚴相은 어디에 비길곳이 없다。削岩이라기 보다도 차라리 岩壁이다。그 峻嶮함을 登攀路에「決斷岩」이라는 岩名이 있을 程度다。生과 死를 決斷치 않고서는 올라서는 않된다는 이 決斷岩이 반듯이 誇張은 아니니 누구나 이 地點에 이르러서는 一旦 躊躇해 보는것이다。頂上에 오르기 까지에는 땀 한방울 나리지 않는다。너무도 緊張이 되는 때문일 것이다。頂上에 오르면 또 四方이 활짝 터인지라 盛夏에도 시원한 바람이 나지만 땀까지도 싹 씻어준다。

頂上의 岩盤도 壯하니 平濶한 大岩盤을 이루어 數十名이 平座를 할

수있다。굽어보면 數千尺의 斷崖들 을던져도, 한참을 떨어진다、여기에 뛸 바위가 있어 膽力이 적은 사람은 넘지를 못할 程度다。巨岩에 사이가 벌어져서 幾百尺의 岩穴을 이룬것이다。

둘러보면 北東으로 連峰相通한 山骨陵々의 道峰山의 秀峰들이 둡니를이루며 蒼空에 그려졌고 山麓에는 樹海가 뒤덮였다。鬱林사이로 보이는 民家附近이 山紫水明의 牛耳洞 幽谷이오 南으로는 漢江碧流가 陽光을 받아 白布 처럼 희다。江上白帆을 쫓다가 눈을 들면 南漢의 峰線이 부드럽고 木覓山下의 서울 南街가 그림같다。南山 넘어의 秀峰이 小金剛의 稱이 있는 妙嶽 冠岳山이다。

臺에서는 멀리 洋洋大海가 한幅의 그림을 聯想시킨다。

李太祖는 오래전부터 胸中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王夢이 이루어져 北漢이 그의 後苑이 되어준것이다 이 白雲寺도 지금은 그 遺址만이 남아있다。이밑 石窟에서 湧出하는 甘露水를 「葛水」 또는 「白雲水」 라하여 예로부터 名藥水로 일러온다。

白雲臺 東에 屹立한 一岩峰이 仁壽峰이다。全山一岩으로 恰似 砲彈을 세워논 것 같은 形의 奇峰이다。이 仁壽峰에는 負兒岳의 別名이 있으니 紀元前 百濟의 溫祚王이 兄인 沸流와함께 漢山에 올라 都邑地를 物色했다고 하지만 그漢山이 바로 負兒岳의 別名이 있는 仁壽峰이다。

一六、興國寺

興國寺는 寺傳에 依하건대 新羅 元曉大師의 創建으로 처음에는 興瑞寺였던 모양이다。佛宇는 그렇게 큰 規模는 못된다。藥師殿에 彌陀殿、七星閣等으로 創建以來 全혀 修築한 記錄이 없고 肅宗 十二年 第一次로 修築을 했다하며 이어 正祖十年에 重修를 했다。

지금의 興國寺의 寺名이 생긴것은 李朝 英祖以後다。卽 二十一代 英祖는 이 興瑞寺에 行幸하고 回路에 寺名을 瑞字代身 國字로 고치어 준것이다。

興國寺는 寺史도 짚거니와 寺境이 幽邃하여 寺史보다도 많이 알려졌다。漢美山의 鬱蒼한 松林속에 묻치듯 있는 寺座前方에는 德水川의 淸流가 빛나고 北漢秀峰을 北 呎尺間에 바라볼수있는 位置다。어느 寺刹치고 山紫水明치 않은 寺境이 없다 하지만 興國寺境에 들면 鬱蒼한 松林의 翠綠과 古色이 蒼然한 佛宇의 褪色한 色彩와의 調和가 印象的이오、어디까지나 神秘境인 寺境이 女性的인 線과 情緖가 北漢巍岳의 굳고 무뚝한 線의 對遮에서 이루어진 調和處가 유독 사람의 마음을 끈다。

該寺는 本郡 神道面 紙柱里 漢美山腹으로 津寬內里 女妓部落을 거치어 徒步로 約十五分에 이를수 있을 것이다。

一七、津寬寺

津寬寺는 神道面 津寬外里로 舊把撥里에서 들어간다。지금은 찢이 寺境까지 들어갈수있는 新作路가 생겼다。

이 津寬寺는 예로부터 서울을 中心한 近郊 四大刹中의 一이다、이 四大刹이란 東에 佛巖寺 西에 津寬寺、南에 三幕寺 北에 深源寺다。寺史도 오라거니와 新羅 眞興王의 北漢山巡狩碑가 있는 碑峰 밑에 자리잡고 寺境에서도 지금도 碑峰의 靈嶽이 우러러 보인다。境內에는 지금도 老松이 욱어져서 그윽한 感을 주거니와 北漢幽谷에서 흘러나리는 溪流의 淸淵함이라든지 秀麗한 巖巒、淸廉한 溪石은 古色이 蒼然한 佛宇와 좋은 對照를 이루어 俄然 仙境의 感이 없지 않더니 不幸하게도 六·二五動亂때 共匪가 雄居하여 砲擊되어 버리고 지금은 廢墟化하고 말았다。

寺蹟記에 依하면 津寬寺는 高麗 第八代 顯宗이 卽位前 大良院君時代에 千秋太后와 金致陽이 共謀하고 自己를 謀殺하려 할때 숨겨준 功勞로 津寬寺를 지어주었다는 것이다。

事實의 與否는 알길이 없으되 這間의 事實은 이러하다。

卽 高麗는 太祖 王建이 建國後 一子가 二代 惠宗、二子가 三代 定宗 三子가 四代 光宗—이렇게 順調로이 王位를 이어 나려오다가 第七代

穆宗(五代 景宗의子)王에 이르러 王位를 둘러싸고 事態가 複雜하게 되고 말았었다。高麗에는 新羅以來의 遺風인 血族結婚이 남아 있어 穆宗의 父王인 景宗과 千秋王后、獻貞王后 姉妹와는 四寸男妹間 이면서 두 女子를 다 아내로 삼아 千秋王后 몸에서 穆宗이 났던것이다。

그런데 太祖와 五子인 郁은 景宗의 下世後、寡居하고 있는 穆宗의 異母后는 郁한테는 姪女인 獻貞王后와 好한바 되어 一子를 얻으니 이가 곧 大良院君 卽 後日의 顯宗이다。그런中에 또 穆宗의 先母后인 千秋王后는 穆宗이 年少함을 口實로 攝政을 말고 外戚인 金致陽으로 하여금 政事를 議論하여 黨勢를 扶植하던中、千秋王后 亦是 金致陽과의 사이에 不義의 一子를 얻어 이 私事로 하여금 王位를 繼承케하고 大良院君卽 後日의 顯宗을 殺害할 謀議를 하고 있었든 것이다。

그러나 이事實을 謀議한者가 密告를 하므로서 밝혀졌다。마침 穆宗은 病中에 있었든지라 堂叔이 되는 大良院君을 불러 王位를 繼承케하고 西京 都巡檢使 康兆한테 急報하여 顯宗을 保護케 하였다。康兆는 急報를 듣고 軍士 五千을 이끌고 上京하던 途中、穆宗이 昇遐했다는 所聞을 듣고 신바람이 났으나 穆宗이 아직 在命中임을 알자 위선 別將으로 하여금 大良院君을 保護케 하고 自身은 穆宗에게 달려가서 退位을 逼請한後 大良院君으로 王位에 오르게 했던 것이다。

이 津寬寺史에 나오는 大良院君이 바로 이 顯宗이오 大良院君이 隱身하고 있던 神穴寺란 現在 遺址만이 남아있는 北漢山城 大西門과 現 津寬寺間에 있던 절이다。大良院君이 이 神穴寺에 隱身修學中 千秋太后와 金致陽이 보낸 刺客으로 부터 僧侶가 숨겨주어 救命했던지라 그 恩德을 못잊어 津寬寺를 지어 주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模糊한것은 大良院君을 救出해준 僧侶가 津寬大師요 津寬寺名도 거기에 由來되었다 하나 그僧侶는 津寬大師자 아닐것이「北漢誌」에 依하면 新羅初期의 元曉、津寬 兩師가 津寬寺를 세웠다는 記錄이 남아있고 事實上 津寬大師는 元曉大師와 同代高僧이니 僧侶의 이름이 誤傳 되었을 것이다。

李朝에 들어와서 李太祖는 登位三年에 本寺에 水陸社를 設置하고 同年 九月二十日 太祖自身이 行幸하여 建國事業에 犧牲된 衆魂의 慰靈祭를 執行한 記錄이 남아있다。그後世祖十年에 火災로 燒失된것을 五年後인 成宗元年에 再建、英祖十年과 哲宗九年、高宗十六年、同二十一年四次에 걸치어 重修維持 해 왔던 것이 이번 六·二五에 또 烏有化되고 만것이다。

頌詩 一篇을 添한다。

津寬寺頌　李朝 鄭以吾

青青松栢擁池臺　地僻天深洞府閒
溪似玉園流曲由　山如雲勇勢崔嵬
汰榴元魏猶供笑　惑佛蕭梁不滿哀
無是無非心自正　執爲緣覺執如來

一八、巨樹名木

本郡內에는 保存木으로 指定된 櫸樹가 二十餘株나 된다。그中 由緒깊은것을 추리면 다음과같다。

一、櫸　木

1、蠶島里 一一〇番地에 胸圍 二十八尺、樹高 五十五尺、樹齡 三七〇年으로 一大奇觀이다。

2、神道面 津寬外里 七八番地에 胸圍 十五尺、樹高 三〇尺、樹齡 四六〇八年、同里 五二番地에 胸圍 十三尺、樹高 四十八尺、樹齡 四一八年으로 約百五十年前에 堤防木으로 約十株를 심었든中 그中의 한 株를 비자 全部 죽고 凶年까지 들어서 神木으로 祭祀해 왔다고 한다。現在는 그런 風俗이 없어졌다。前者는 結實이 없으므로 男木、後者는 結實을 하므로 女木이라고 한다。

3、神道面 紙杻里에 있는 亭子木은 胸圍 十二尺、樹高 三十尺、樹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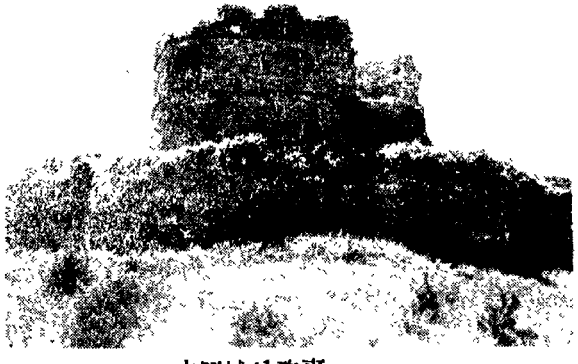
京畿道內 城郭一覽 其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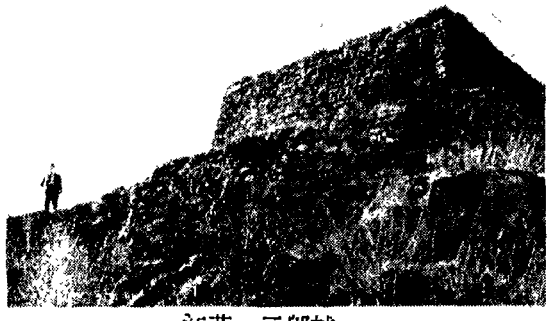
金浦 文殊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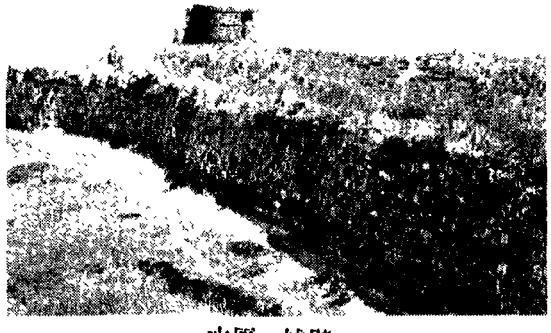
廣州 南漢山城



水原城外砲臺



江華 三郎城



水原 城壁



江華 廣城鎭城門



江華 草芝鎭砲臺



江華 三郎城西門



江華 廣城鎭砲臺

京畿道內 城廓一覽 其二



華城 洗馬臺城址



利川 武安城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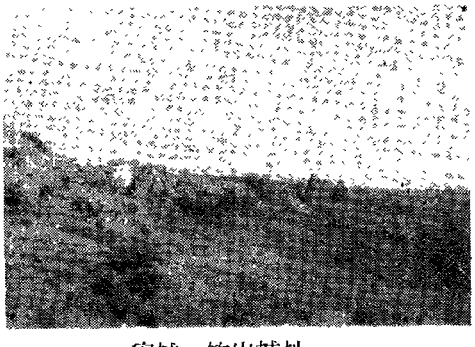
驪州 婆娑城址



華城 禿山城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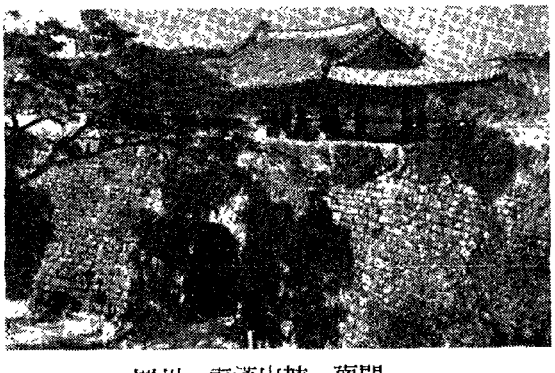
抱川 半月山城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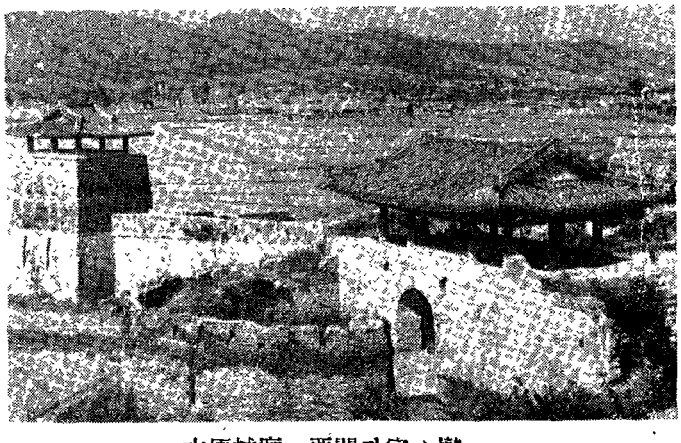
安城 竹山城址



金浦 文殊山城址



廣州 南漢山城 南門



水原城廓 西門과 空心墩

三百年으로 한번은 이 나무를 木商한테 파는날로 洞里에 惡疫이 들어 도로 물렷더니 病도 退却했다는 傳說도 있다。

4、元堂面 星沙里에는 胸圍 二十五尺、樹高 三十尺、樹齡 三百十八年으로 丙子胡亂에 淸兵이 이 나무밑에 有陣했다기도 하고 太宗이 本陣을 삼았다기도 한다。

5、碧蹄面 高陽里에 二株가 있다。其一은 胸圍 十七尺、樹高 四十二尺、樹齡 七百十八年이오 其二는 胸圍 十六尺에 樹高 三十六尺이오 樹齡이 七百年에 達한다。每月 一、十五 兩日에 洞里의 安寧을 爲한 祭祀를 지내는 風俗이 있었다 한다。

6、蠶島 華陽里에도 三株의 亭子木이있다。다 李王家所有로 其一은 胸高圍 十七尺에 樹高 三十六尺、樹齡 二百六十八年、其二는 胸圍는 十一尺에 樹高 四十八尺、樹齡은 같다。其三은 胸圍 十六尺、樹高 四十八尺 樹齡 四百十八年이다。

二、白　松

白松은 우리나라 全國에도 몇株밖에 없는 珍木으로 唐松、白骨松、白葉松等의 別稱이있다。學名은 **uinus. Bungean. Zuccariui** 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北中에 있을뿐이다。原産地인 北京附近에도 거의 絶種되어가고 있다고한다。이 白松은 年輪을 거듭할수록에 樹皮가 벗어지며 粉칠을 한듯이 白色으로 變해 가는 珍木이다。

本郡에 있는 白松은 松浦面 德耳里에 있다。서울特別市를 除外하고는 本道內에는 利川郡 栢沙面 新垈里에 一株가 있을뿐이다。本郡것은 胸高圍 十尺、樹高가 三十六尺에 樹齡은 約三百年으로 推算되고 있다

이밖에는 全國을 合해도 白松은 몇株되지 않는다。現在까지 發見된 白松은 慶南 密陽에 四株와 忠北報恩郡 邑內面 漁岩灘里에 一株、忠南 禮山郡 禮山面 龍宮里에 一株、北韓 平壤에 一株가 있을뿐인 珍木이다。

三、槐　木

本郡內에는 巨槐 七株가있다。그中 特히 神木視되는것은 다음 三株다。

所在	胸圍	樹高	樹齡
中面注葉里	二〇尺	六〇尺	五一八年
蠶島面蠶島里	十四尺	七八尺	三六八年
蠶島面同 里	十六尺	五六尺	三〇〇年

四、柏　槇

神道面 德隱里에 있어 胸圍 七尺、樹高 二十尺、樹齡 五百年이다。

五、菩提樹

神道面 津寬外里 卽 北漢山碑峰下의 名刹이던 津寬寺壇에 있어 胸高圍 四尺、樹高 三十六尺、樹齡 六五年으로 松庵大師가 六十年前에 심은 나무다。이 菩提樹는 우리나라에는 珍木이어서 古蹟이 아니면 볼수없거니와 이 津寬寺 菩提樹는 每年 釋迦의 涅槃日이면 一旦 시들었다가 다시 元氣를 恢復한다고 住持는 說明한다。菩提樹는 淨地가 아니면 發育을 못한다고도 傳해지고 있다。

廣州郡

第一節　緖　言

廣州郡의 名勝古蹟은 그 大部分이 丙子胡亂과 密接한 關係를 갖이고 있다。國寶로 指定된 淸太宗功德碑를 爲始하여 南漢山城一帶에 散在한 모든 古蹟은 이 丙子胡亂의 遺物이라 해도 過言이 아닌 程度다。더욱이 南漢山城은 仁祖大王이 四十五日間 이나 籠城을 한곳이므로 우리나라 歷史上에 一大恥辱史가 到處에 點綴되어 있다。古蹟을 外觀으로만 보아 넘긴다는 것은 無意味할 뿐만 아니라 興味도 없겠기 이 史上의 悲劇의 槪要를 적어 봄도 徒勞는 아닐 것이다。

第二節 胡亂略記

一、丙子胡亂의 遠因과 近因

世稱 丙子胡亂 이라 하면 丙子年 十二月에 來侵한 戰亂을 말 함이나 其實 丙子年의 胡亂은 仁祖五年 丁卯(西紀 一六二七年) 正月에 來侵했던 胡亂의 延長인 것이다。이 第一次 來侵의 主因은 우리의 朝廷이 自己네 後金國(淸 과의 國交를 拒否하고 明과 親交를 한다는데 있었다。그러나 그때의 우리나라로서는 그럴만한 理由가 있은것이 後金은 胡族이라 하여 蔑視도 해 왔지만 그보다도 壬辰倭亂의 大國難을 當했을때 明나라에서는 百萬大軍으로서 援兵을 해 주었고 또 事實 明軍이 아니었드라면 朝鮮이 어찌 되었을지도 몰랐던 것이다。아모리 後金이 新興氣勢를 올린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信義上 明을 排斥하고 胡國에 忠誠 할수는 없었든 것이다。信義 때문도 있었지마는 胡族을 未開人視했던것도 事實이오、아모리 新興氣勢라고 하지만는 그 軍事力을 過少評價했던것도 事實이라 할수 있다。

어쨌든 淸太祖는 明을 滅하여 大陸을 統一할 野心이 있는데 朝鮮이 明과 野合을 하는 것은 統一事業에 障害도 되거니와 첫째 一小國으로서의 禮儀도 아니라 하여 丁卯年 正月에 三萬大軍을 이끌고 鴨綠江을 건너서 來侵 했던것이다。義州는 無血開城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義州府尹 李莞은 敵의 來侵도 모르고 美妓와 더부러 大醉하고 있다가 敵의 入城을 알았을 程度다。

이 第一次來侵의 動機가 單純했던 것은 敵軍이 我朝廷에 提示한 罪目을 들어도 알수 있으니 네가지中、後金王이 薨했을때 吊意를 表하지도 않은 것이 가장 큰 罪狀이오、其他의 三罪狀이란 自己네와는 敵인 明을 도웁는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朝鮮에서는 義州府使의 狀啓를 받고 이에 對戰을 命令했으나 감작이 兵力의 召集도 不可能하여 當時에 兵曹判書였던 張晩을 都元帥로 삼아 黃海道 平山까지 出陣을 했었으나 平安監司 尹暄과 黃海道兵使 丁好恕는 一戰도 없이 開城 하였으므로 張晩도 不得已 開城까지 後退를 하여 江華에서 媾和條約을 맺었든 것이다。

아제 이 媾和條約의 全文을 보건대 兩國間의 友好關係를 堅持하자는 것 뿐 이었고 媾和를 提請한 我國側에서 提示한 條件이 도리어 主導權을 가지고 있었든 것으로 보아 丙子胡亂은 外交로서도 免할수 있지 않았던가 하는 感도 없지는 않은 것이다。卽、敗戰國이나 진배 없는 우리側에서

가、後金軍은 平山에서 一步도 南下치 말것

나、和約한 翌日부터 淸全軍은 撤兵을 斷行할 것

다、撤兵後에 다시 鴨綠江을 넘어오지 말것

라、兩國은 서로 兄弟의 나라로 불를것

마、朝鮮은 後金國과 和親하지만 그것이 明國을 背反하는 것은 아니다

이 條件을 後金 卽 後의 淸太祖는 다 들었던 것이다。

江華和約은 맺었으나 我朝野는 亦是 滿洲族을 胡하여 蔑視했고 國內에서는 排金熱이 高潮되던中、仁祖十四年 丙子二月(西紀 一六三六)에 後金의 國號를 淸으로 고치고 後金王 弘他時는 皇帝로서 君臨하면서 年號도 崇德이라 定하였다。그 儀式에 招請이 왔었지만 朝鮮에서는 默殺을 하고 單 한사람도 參席치를 않았었다。이 感情이 沖天하던 次에 마침 그해 三月에 昇遐한 仁祖王妃 仁烈王后 韓氏靈前에 吊喪次 來朝했던 龍骨大、馬保大等이 歸路에 邊將들에게 나렸던 排淸하라는 論文을 入手하고 돌아가서 淸太祖는 大怒、그해 十二月에 再侵을 한것이다。이것이 丙子胡亂이다。

二、淸軍의 侵略經緯

仁祖大王의 排金諭文을 證據로 淸太宗 弘他時는 一擧에 朝鮮國을 打倒할 計劃을 세우고 滿、漢、蒙의 三聯合 十三萬의 精銳를 거느리고

一路遠征의 길을 떠났던 것이다。 時期는 嚴冬인 十二月로 擇한 것은 鴨綠江의 冷氷을 利用하려 함 이었다。 淸太宗은 親히 最高指揮官이 되어 第一 先發隊를 龍骨大、馬保大에게 맡기고 自身은 中軍을 이끌었었고 後軍 指揮官에는 豫親王을 董督케 하였다。 淸軍이 鴨綠江을 건는것은 十二月 九日 이다。 當時의 義州府尹은 林慶業이 였고 西道의 守備의 總責任者는 都元帥 金自點이 였다。 淸軍이 鴨綠江을 건는지 三日만인 十二月 十二日 把撥의 방을소리도 구슬으게 林慶業의 狀啓가 宮中에 到達했고 뒤 이어 都元帥 金自點도 이를 確認케 되니 朝廷은 박짝 뒤집히였다。 元來 防禦에 自信이 있는 것도 아니라 自信은 없으면서도 大義名分을 세우느라고 排淸論을 두드리며 大臣들은 束手無策 이었다。 그해 十一月을 前後하여 南漢山城에 若干의 食糧을 準備시키기는 했으나 이것은 十三萬 大軍을 맞아 싸우기에는 그야말로 鳥足之血 이였다。

오직 걷는것은 江華島 하나 뿐이다。 急하면 江華島로 遷都를 한다는 것이오、 朝臣들이 이렇게 江華島를 過大評價하는 所以는 蒙古軍의 高麗侵略時에 江華島로 遷都를 하자 大陸에서는 猛虎지만 바다를 본일이 없어서 그대로 돌아갔던 事實이 있는데서다。 오직 그뿐이였다。 江華島라고 特別한 防備策이 서 있던것도 아니다。

다급하게 되면 爲先 江華島로 옮기기로 하고、 遷都準備 먼저하고 있었다。 金慶徵을 都檢察使로 삼고 副提學 李敏求를 副檢察使로 삼아 江都를 지키게 하고、 前・領議政이든 尹昉、 金尙容等이 宗廟와 社稷의 神主를 모시고 嬪宮、 元孫과 鳳林、 麟坪 兩大君等이 老兵을 끌고 江華로 先發하였다。 서울의 守備策으로 沈器遠을 留都大將에 任케하였다。 그러나 十二月 九日에 鴨江을 건넜다는 淸軍의 先發隊인 豫親王軍은 十八日에 벌서 京畿道 땅에까지 몰려 들어 오고야 말았다。 長湍府使 黃稷은 捕虜가 되어 胡服을 얻어입고서 敵軍의 앞잡이가 되어 先頭에 서지 않을 수 없게 쯤 되고 보니 그 무슨 큰 防禦自信이나 있는듯이 氣高萬丈이던 重臣들은 쥐구멍을 못 찾고 家族 避難할 생각에만 沒頭하고 있는 形便이다。

일이 이쯤 되면 더 지체할수도 없었다。 仁祖께서도 서울을 放棄할 決心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重臣들이 먼저 自己의 家族 避難에만 선손을 쓴지라 말한匹、 求할길이 없고 護衛할 武藝別監도 없다。 이렇게 갈팡질팡 蒙塵의 길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急報가 왔다。 淸將 馬保大軍이 벌서 弘濟院에 到達하고 그 部下部隊는 西南으로 南下 陽川江을 遮斷했다는 것이다。 陽川江을 막은 것은 敵이 벌서 江華遷都를 짐작하고 그 길을 막으려는 것이다。 崇禮門까지 나갔던 王輦은 南大門樓上에 오르게 되니 城內에서는 痛哭소리가 저녁 하늘을 흔들었고 仁祖 및 世子의 얼골빛도 蒼白을 極했었다。

일이 이에 이르자 崔鳴吉이 또 앞에 나와、 江華를 단념하고 南漢山城으로 옮길것을 간 하였다。 崔鳴吉은 지금까지도 淸의 來侵을 걱정하여 無謀한 排金論을 삼가도록 主張한 사람中의 하나였다。 崔鳴吉은 목숨도 내어 놓고 敵陣에 가서 江華條約의 背信을 叱責하여 時間을 끌것이니 그동안에 南漢山城으로 車輦를 뫼시게 하라는 것 이었다。 仁祖도 崔의 말을 듣지 않을 道理가 없었다。 車輦은 萬民의 哭聲을 뚫고 水口門으로 向하고 있었다。 그 豪言壯談으로 自重論의 提唱者인 崔鳴吉을 斬刑에 處해야 한다고 氣焰을 吐하던 重臣 高官들은 저 한몸의 危急에만 沒頭하여 王世子의 말 고삐를 잡은者 조차 없어 世子는 몸소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뒤를 父王 仁祖가 슬프게 따랐었다。 王의 一行이 구리개에 이르자 哭聲이 더욱 騷然했고 城中의 士女들은 울며 불며 車駕의 뒤를 쫓았다。 이 슬픈 行列은 그날 亥時에나 겨우 南漢山城에 到達했으니 大駕를 따른자 文武官 二百餘에 奴僕이 三百、 軍兵이 萬三千이였다。 그러나 當時 城中에 貯藏된 軍糧米는 白米、 雜穀을 合한것이 萬六千石、 銀이 七百兩、 간장 二百石、 소곰이 九十石、 火藥은 萬八千斤에 不過했고 보니 萬三千名의 一個月 食糧에도 오히려 不足한 數字였다。

仁祖는 南漢에 이르자 곧 明國에 援兵使를 보내는 한편 各道 監司한테 論文을 發하여 勤王兵을 急募、山城으로 보내라 하였으나、各道에서 急募된 勤王兵도 淸의 包圍網을 뚫지는 못 했다。

仁祖가 山城에 到着한 이튿날 排金論者의 頭目이던 李聖求가 山城이 危殆하니 亦是 江華로 密行하도록 進言하여 王은 그말이 옳다 하고 떠나려 했으나 눈비에 언 山길은 말이 가지를 못 한다。하는 수 없어 徒步로 떠났으나 寸步를 옮길 길이 없어 다시 山城으로 돌아 오고야 말았다。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當時의 焦燥가 어느 程度 였든가가 짐작이 된다。

十二月 十六日 이라면 先鋒이 鴨江을 건는지 不過、一週日이다。이달부터 敵將 馬의 大部隊는 이미 山城을 包圍하기 始作하였고、王의 大駕를 닮아는 왔지만 城中에 들이지 않아서 못 든 避難民들은 或은 敵陣에 들고 또 或은 徵發되어 아이들은 그대로 餓死、凍死로 最後를 마추었다。乾草가 없어 馬匹도 서로 끄리를 물고 뜯었고 兵卒들도 愛馬의 고기로서 延命을 하지않으면 안 되었다。

한便、敵陣을 찾아간 崔鳴吉로 부터 온 報告는 敵의 要求條件이

가、王子를 質子로 보낼것

나、大臣數人을 人質로 보낼것

다、和親反對論者를 보낼것

等의 三條件이었다。그러면 仁祖는 이는 敵將에게 속은 것이라 하여 一笑에 붙이고 本格的인 防禦態勢로서 中央의 總指揮權을 가지고 있던 金瑬를 山城內의 總責任者로 定하고、都監大將 申景禛은 東城望月台、摠戒使 具宏을 南將台、御營提調 李曙와 御營大將 元斗杓는 北門、守禦使 李時白은 西將台——이렇게 配置는 하였으나 城中의 我軍은 萬三千에 不過하니 十對一에 寡軍이었다。지금말로서 調達官인 館餉使 羅萬軍은 이 萬三千名의 食糧調達도 不如意하다고 손을 들었었다。

이러한 困境에서 오직 믿는것은 江華島였다。機會를 보아 무슨 方法으로든지 王과 世子만이라도 江華로 옮길 硏究를 하고 있는데 江華島陷落의 非報가 날라 들은 것이다。

江華島의 最高 指揮官은 金瑬의 아들 金廣徵으로 江華는 天險之地라는 點과 自己 父親이 金瑬인데 自請하여 入島 卽日로 그야말로 술로서 못을 만들고 每日 晝夜로 美妓들의 무릎만 비고 있다가 敵軍의 殺到로 손을 들어 버린것이다。이 悲報에 城의 內外를 莫論하고 哭聲이 冲天했었다。그러나 땅을 치고 울었을 뿐 이었지 다른 方途는 없었다。그때에 江華陷落의 祥報가 또 들어 왔다。軍士婦女 千餘名은 水中孤魂이 되고 社稷도 宗廟도 敵의 手中에 들어 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慘瞻한 凶報는 城中의 士氣를 完全히 挫折시키고 말았다。哭聲은 冲天하고 愁雲은 天地를 덮었었다。主戰論者는 한사람도 없고 오직 王의 얼굴 빛만 엿 볼 뿐이다。

虛勢도 끝났고 天祐神助의 僥倖을 바라던 마음도 없어졌다。主戰論者이던 金尙憲도 士氣가 죽고 말았다。여기에 鳳林大君의 親筆狀啓가 날라 들었다。嬪宮內官이 모다 捕虜가 되었다는 슬픈 報告다。降服이냐 玉碎냐中의 一을 擇하지 않으면 안될 最後段階에 이르고 말았다。그날밤 仁祖는 御前會議를 召集하고 和戰에 對한 最後判決을 짓기로한 것이다。勿論 입만의 主戰論者는 있었지만 方法은 없었다。王은 血淚를 먹음고 最後 斷案을 나리었다。

「下城하리라——」

이리하여 翌 丁丑 正月 三十日 이른 아침 三田渡의 恥辱 그대로의 盟約이 成立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丙子胡亂의 槪略이다。

三、淸太宗功德碑

國寶 一六四號로 指定되어 있는 이 功德碑는 其實 우리 民族에게는 悲憤을 禁치 못하는 恥辱碑다。이 功德碑가 선 자리가 바로 저 丙子胡亂때 南漢山城의 籠城 四十五日後에 淸太宗앞에 屈辱的 盟約을 한자리

다。

그날 卽 仁祖 十五年 丁丑 正月 三十日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險한 길을 五百餘名의 降軍이 列을 짓고 나려 왔었다。仁祖大王은 紅衣를 벗고 藍衣軍服을 입었었다。(降者는 罪人이므로)

王의 一行이 三田渡에 이르렀을 때는 三公五卿만이 王의 뒤를 따랐었다。이 碑가 된 位置에 淸軍은 受降臺를 築造하여 놓고 壇上 높직이 淸太宗이 버티고 앉아 仁祖大王의 一行을 나려다 보고 있었든 것이다。太宗은 勝者로서의 威嚴을 보이느라고 軍樂에 儀兵 까지 세우고 大皇帝로서의 尊嚴을 誇張하기에 바뻤다。太宗은 敵將 龍骨大로 하여금 仁祖大王을 인도케하여 徒步로서 東便門 밖에까지 나아가서 三拜叩頭의 屈辱的인 禮를 가추게 한 자리도 이 자리다。여기에서 酒宴을 베풀고 仁祖는 敵의 許可를 얻어서 壇下에 꿇였던 嬪宮과 大君들을 만났고 또 許可를 얻어서 겨우 그날 밤에 宣仁門을 通해서 還宮을 했던것이다。이 屈辱的 媾和條約을 淸太宗은 鴻恩이 無邊한 寬大한 自己의 功德의 所致라 하여 二年後인 十七年에 이의 建立을 王朝에 命令했던 것이다。距今 三百十五年前 이다。

碑는 純 代理石造로 高가 三尺六寸에 幅이 八尺五寸、橫幅이 十一尺四寸이나 되는 巨大한 龜趺 위에 大理石造로 高三十五尺、幅이 四尺八寸 橫幅이 一尺三寸의 巨碑다。碑身은 精密한 硏磨를 다 하여 美術品으로서도 높이 評價된다。

碑 前面에는 滿洲文과 蒙古文으로 淸太宗의「無邊廣大한 鴻恩」을 禮讚케 했고 裏面에는 漢文으로 亦是 太宗頌文을 刻케 한 것이다。오랑캐와 싸우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 사모치는바 實로 큰바 있다。

四、媾和條約全文

이제 이 碑石이 선 王降臺자리가 얼마나 우라한테 悲憤의 눈물을 먹음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아로삭이기 爲해서도 이날 이자리에서 彼我間에 주고 받은 降書의 全文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가、朝鮮은 大淸에 對하여 君臣之禮를 다할것

나、朝鮮은 明나라의 年號를 버리고 明과의 往來를 斷絶、明에서 받은 誥石과 冊印을 明에 返還할것

다、朝鮮王室은 世子 又는 第二子를、大臣은 아들、(없으면 딸) 또는 아우를 質子로 보낼것

라、聖節、正朔、冬至、慶弔과 使節을 보낼것

마、淸이 明을 攻擊할 時는 遲滯치 말고 援兵出戰케 할것

바、朝、淸 兩國 內外 諸臣은 婚姻을 할것

사、明에서의 政治犯의 入國을 不許할것

아、新、舊를 莫論하고 城의 增修築은 不許함

자、歲幣額은 따로이 定한다。

여기에 歲幣額을 적어 보면 實로 얼마나 苛酷했든가가 짐작된다。

一、黃　金	一百兩
二、白　銀	一千兩
三、水銀角弓	二百副
四、好大紙	一千卷
五、好小紙	一千五百卷
六、豹　皮	一百張
七、水獺皮	四百張
八、鹿　皮	一百張
九、靑黍皮	三百張
一〇、茶	一千包
一一、胡　椒	十斤
一二、蘇　木	二百斤
一三、好腰刀	二十六把
一四、順　刀	二十把
一五、五爪龍紋簾席	四張

一六、雜彩花紋席 四〇張
一七、白苧布 二百匹
一八、各色綿紬 二千匹
一九、各色細木綿 一萬匹
二〇、各色細麻布 四百匹
二一、麻布 一千四百匹
二二、白米 一萬包

이 苛酷한 歲幣에 그치지 않고 胡軍은 斥和의 三臣인 洪翼漢、尹集、吳達濟의 三學士는 胡國에 끌려가서、最後까지 淸帝를 胡王이라 불러 死刑을 받았고 瀋陽까지 押送되어 갔던 王世子、世子嬪、鳳林大君의 夫妻等은 「質館」이란 抑留所에서 八年間이나 苦生을 하다가 돌아 왔었다。

이 史上의 大悲劇이 演出된 자리가 바로 이 碑石이 서 있는 受降臺 자리다。

第三節 名勝

一、廣州風納里土城

廣州郡 九川面 風納里에 規模가 큰 土城址가 있어 古蹟 第二七號로 規定되어 있다。

이 土城은 南漢山中 二聖山에서 北方으로 뻗은 丘陵과 漢江 사이에 位置하고 있다。南北間이 約十三町 東西가 大略 七十의 楕月形으로 그 規模에 있어서 構造에 있어서나 相當히 大規模이며 또 堅實 했던것으로 推測된다。

이 地點에 이러한 土城이 있다면 이는 距今 千九百六十餘年前의 百濟의 始祖 溫祚王이 建國次에 築造한것이 아닌가 推想 할바에 없고、또 各 文獻에도 都城 河南 慰禮城으로 記錄이 되어 있다。一說에는 百濟 二十一代 蓋鹵王의 蒸土城이라는 說도 있으나 이 地方에서의 各種 出土品 其他로서 考證된바에 依하면 亦是 前說을 더 信用해도 좋을것이라 한다。이附近에서 白銅鏡、靑銅弩機、金環等이 出土되었고 百濟時代의 古墳墓도 多數 發見 되었다。

二、南漢山城

南漢山城은 서울 東南方 約六十里地點에 位置하여 있는 海拔 四百六十米의 高原地帶다。그 地形이 自然的으로 四面이 外部로부터의 攻擊을 防禦하기에 利한 要塞地다。大槪의 高原地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져서 낮이 짧으므로 晝短夜短의 弊가 있지만、이 山城地帶만은 晝長夜短의 獨特한 地形을 이루고 있다。南漢山을 日長山이라고 古來로 부터 일러 오는것도 이 地形에 由來 한것이다。新羅는 百濟를 併合한 後에 이 南漢山에 築城하고 日長山의 이름을 晝長山이라고 改稱했다는것도 文獻에 남아 있으니 日長은 곧 晝長이기 때문이였다。

이 南漢이란 이름의 始初는 距今 千二百八十餘年前、新羅 三十代 文武王代로 漢江 南方에 位置했다 해서 南漢이라 일컫고 이 地帶를 南漢州 또는 漢山州라 불러 온 記錄이 있다。그後에 高麗 太祖는 南漢州를 廣州로 改稱했다。廣州라는 地名이 생긴것은 이것이 始初로 高麗 太祖 二十三年 이였으나 距今 千十餘年 前이다。

南漢에 關與된 三國史記에 依據한 沿革을 槪해 보면、지금으로부터 約二千餘年前 新羅、高句麗、百濟의 三國이 鼎立 되었을 當時、高句麗의 東明聖王 高朱蒙의 三子인 溫祚가 東明王의 後嗣인 自己의 異腹兄 琉璃王 類利로부터 慰禮城(現 忠南 稷山附近)을 割愛받아서 國號를 百濟라 自立하여 王이 되었고 그의 同腹兄인 沸流는 現 南漢一帶를 領有하였다。그러나 沸流는 百濟建國 十三年만에 卒하고 人民이 左往右往 그 갈바를 모르다가 百濟에 歸化하기를 自願하여 百濟는 비로소 廣大한 地域을 갖게 되었으므로 慰禮城으로 부터 都邑을 南漢으로 옮기고 築城으로 外患을 막고 南漢山에 柵도 세웠었다。高句麗 琉璃王 十三年이오 新羅 太祖 五十二年에 該當한다。

또 一說에는 이런 傳說 비슷한 史話가 文獻에 傳해지고 있다。

「溫祚王 十三年에 王都의 늙은 말이 化하여 男子가 되고 다섯마리의 猛虎가 宮中에 뛰어 들더니 王母가 薨하는지라 이에 王이 臣下에게 일르기를 王國의 東에 樂浪이 있고 北에 靺鞨이 있어 邊方을 侵犯、國內가 平安한날이 없을뿐더러、近日에는 妖怪가 자조 보여 國母가 急死하니 不安함을 禁할길이 없다。 後日에 반듯이 患이 있을것이니 國都를 옮기리라 하고 漢水南方을 巡視하다가 山城에 이르러 그 地形의 要塞다움과 땅이 기름짐을 發見하고 그해 七月에 立柵、慰禮城의 地戶를 옮기어 九月에 城闕을 세우게 하다。」

이 記錄中의 老馬의 男子로 云云만 一笑에 붙인다면 다른 史實은 前者와도 合致됨을 알수가 있다。

이 史記와 文獻으로 보아 南漢一帶는 新羅의 文武王이 畫長山으로 불르기 보다도 六百 七十餘年前에 이미 國都가 되었고 보니 第十三代 近肖古王이 北漢으로 遷都하기 까지 三百七十餘年間 南漢 廣州 一帶는 百濟의 都邑地였던 것이다。그後 新羅 文武王이 在位 十三年에 南漢에 築城을 했고 李朝에 와서는 光海君때에 淸의 侵犯을 막기爲하여 또 築城을 한 記錄이있다。그러다가 仁祖 四年에는 城의 大改築을 斷行하여 國內 山城中에서 第一의 面貌를 가추게 된것이다。

仁祖大王은 山城의 大改築과 同時에 邑을 城內로 옮기게 하고 行宮과 郡衙를 두어 廣州府라 改稱하는 한편 守禦使、留守、府尹等으로서 이를 다스리게 했으며 後에는 城의 增築과 改修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北方 防禦에 着眼、十年後인 十四年에 저 史上의 一大悲劇인 丙子胡亂을 이 城中에서 치렀든 것이다。

이 丙子胡亂의 南漢築城記를 읽고 南漢을 찾으면 千秋의 遺恨이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사모친다。

過去의 王都이었던 南漢이 오늘날 一寒村으로 轉落되네는 過去에는 要塞地였지만 現代에와서는 交通의 不利일뿐 要塞의 利가 價値를 잃은 때문이다。山城에 있던 郡廳이 廣州面 京安里로 옮겨진것은 距今 三十七年前(檀紀 四二五〇年) 府、郡 大廢合時였다。當時에도 九百餘戶의 民家가 있었으나 오늘은 百戶에 不過하고、公共機關으로도 面事務所와 國民學校、警察支署만이 남아 있더니 警察支署도 光池院으로 移轉、一層의 寂寞을 느끼게 한다。

三、城 史

南漢城史가 史記에 남은것은 亦是 新羅 文武王의 築城보다도 六百七十餘年前인 百濟 慰禮城(漢北、또는 忠南 稷山과 오늘의 廣州가 併稱되어 있으나 稷山說이 가장 有力視되어 있다)에서 漢山의 南쪽인 오늘의 南漢山城 一帶를 中心으로 한 廣州古邑에 都邑을 定하고 土城을 쌓은것이 그 始初일것이다。그後 第十三代 近肖古王이 北漢으로 遷都하기 까지 三百七十年間 南漢廣州는 百濟의 都邑이었었고、新羅代에 이르러 第三十代 文武王 十二年에 다시 築城을 한 史實이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남아 있는 山城은 李朝에 들어와서 光海君이 淸의 侵犯을 警戒키爲해서 쌓기 始作한것이오 이것을 仁祖大王이 大改築과 同時에 增築한것이다。仁祖는 恒時 後金 卽 淸國이 南下할 것을 憂慮하여 不安케 하다가 卽位 四年에 一部 反對를 무릅쓰고 이의 改築을 斷行했던것이다。그後 十年만인 十四年 十二月에 淸의 太宗이 南下하여 侵攻했을때 이 山城은 仁祖에게 있어서 唯一한 避難處가 되였든것으로 미루어 仁祖에게는 그만한 先見之明이 있었든 모양이다。

仁祖가 改、增築城의 工事를 이르킨것은、卽位 一年이었다。平定은 되었지마는 仁祖는 李适反亂에 對한 不安이 아직도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李适은 十五代 光海君을 몰아내고 仁祖를 入宮시키는데 가장 큰 功을 세운 사람이다。그것이 어찌 잘못되어 約束時間도 지키지 않은 金瑬가 一等功臣이 되고 一等功臣이 되었어야할 李适은 二等功臣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寧邊府史로 몰려 나게 되자 仁祖와 그 重臣들에게

反感을 품고 不純分子를 肅淸한다는 名目으로 反亂을 이르키어 電擊的으로 一路 서울에 까지 올라왔었다。李适은 多幸히 鞍山싸움에 敗하여 平定이 되기는 했으나 李适亂의 副將 이었던 韓明璉(戰死)의 아들 韓潤이가 淸國으로 亡命을 해서 淸朝에 仁祖를 誣告했다는 風聞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그러고 이것은 또 事實이기도 했던 것이다。

當時 이 築城의 總責任을 맡은 것은 守禦使 李曙(後에 總戎使、完豊府院君)였다。李曙는 命을 받자 各道의 名僧을 募集하여 二年만인 仁祖四年 十二月에 巨役을 마치었다。四方에 城門이 있고 그中間에 十六個의 暗門이 있었다。

이를 十九代 肅宗이 卽位二年에 峰岩外城을 다시 쌓게 했고 同十九年에는 또 漢峰(東門外) 外城을 쌓았었다。

二十一代 英祖도 漢峰城과 峰岩城에 改築工事를 이르키어 이를 完了했고 同二十年에는 城全部에 걸친 一大改修工事에 着手、二年만에 이를 끝마치었다。이 工事에 있어 從來의 煉瓦를 土瓦로 바꾼것도 特記할만한 事實이라 할것이다。南將臺는 英祖二十年에 設置된것이오、二十二代 正祖二年에는 다시 煉瓦를 使用하여 城全部를 修築하고서 東門을 左翼門、西門은 右翼門、南門은 至和門、北門은 全勝門이라고 改稱하였다。

城의 全長은 六千二百九十七步、約十八里요 外廓은 二十里、城高는 約二十四尺이다。

이제 南漢城築城當時의 防禦設備를 보면、東과 西에는 要所를 擇하여 甕城을 築造했고 敵이 侵犯할 危險이 있는 要所만을 골라서 四個處에 將臺를 建立했다。그러고 다시 虛한 要所 百二十四處를 擇하여 百二十五個處의 軍舖를 設置했던 것이다。

이로 보아도 築城當時에 山城防禦에 얼마나 細心한 注意를 했던가를 엿볼수 있다。

이렇게 築城이 畢하자 朝廷에서는 僧兵을 駐屯시키어 常時 守城에 必要한 一切의 訓練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이 僧兵駐屯을 爲하여 따로이 國淸、天極、開運、東壇、東林、望月、漢興、玉井、長慶의 九寺를 創建하여 佛敎도 振興시키고 僧兵도 걸르는 一石二鳥의 案을 내어 城을 守護케 했던 것이다。그러나 이 九寺中 現在 嚴存한것은 長慶寺가 있을 뿐이오 東、西、南、北의 四將臺도 三將臺는 廢墟化하고 오직 西將臺만이 山城高臺에 남아 있다。

이 西將臺는 따로이 章을 만들어 說明도 하겠지마는 距今 三百十八年前 仁祖 丙子胡亂때 籠城을 한 悲劇의 建物 이었다。

四、西將臺

西將臺는 南漢山城內 最高峰인 日長山頂에 선 瓦葺 二層으로 四十餘坪이나 되는 一大樓閣이다。格別한 精華美는 없으나마 山上樓로서의 壯함을 자랑할 수 있는 古色이 蒼然한 建物이다。

이 樓閣은 海拔 四五三米의 高峰위에 聳立되어 있어、한번 樓에 오르면 멀리는 仁川의 落照를 望見할수 있고 近眼으로는 永登浦一帶의 山野와 密林 그대로의 工場煙筒도 壯觀이며 楊州、楊平、龍仁、高陽의 隣郡 一帶의 風光을 한눈으로 들길수 있다。굽어 보면 精密地圖 그대로의 田畓과 교개를 들면 樹木이 蒼然한 山 그림자가 漢江 속에 잠겨 있다。來舟、歸帆의 風光도 詩情을 부프르게 하거니와、바라 보노라면 배沙工 노래가 절로 입밖에 흘러 나온다。

이 絶勝地야 말로 우리나라 史上 가장 부끄러운 恥辱史인 丙子胡亂의 悲劇이 빚어진 곳 이다。

그해 (仁祖 十四年) 十二月 九日 瀋陽 (現 奉天)을 떠나서 鴨綠江을 건너서 南下하자 믿었던 西道都元帥 金自點은 벌서 平壤에 敵軍이 入城을 했다는 狀啓를 띄우고 있고、淸의 十三萬 大軍은 鴨江을 건는지 一週日만에 이미 南漢山城을 疊疊이 包圍하고 있었다。싸우느냐 降服하느냐 和戰兩論으로 重臣들은 反目만 일삼고 밤이면 횃불을 돌구어

敵들은 氣勢를 올리며 軍樂을 울리어 士氣를 꺾으려 든다。敵은 山城만을 내어 놓고 全國을 손에 넣었으니 軍糧補給이 怯이 없것만 全軍의 一個月分 軍糧밖에 없는 城中에서 實로 暗膽했다。城內 總戎使 具宏과 御營大將 元斗杓가 最後의 案으로서 決死隊를 組織、出城하여 遭遇戰도 해 보았으나 若干의 成果를 얻었을뿐 兵力、軍糧、軍備 一切가 十對一에도 오히려 不足했다。

王은 焦燥했다。切痛할 노릇 이었다。

各道에 띄운 救出의 最後命令도 아모런 소용이 없었다。愛國至誠이 없는것도 아니었다。原州營將 權正吉도 勤王兵을 거느리고 山城을 바라 보는 黔丹山에서 敗했었고、忠淸監司 鄭世規 또한 包圍敵軍을 뚫지 못한채 戰死를 했었다。新婚 三日만에 兵을 거느리고 救援의 길을 떠났던 憂國青年 南陽府使 尹棨도 敵의 亂刀에 찔리어 쓸어지고 가장 期待했던 慶尙左右兵使의 許完、閔梯의 四萬軍兵도 廣州雙嶺에서 大敗하여 戰死하는 形便이었다。믿었던 救援兵도 이제는 絶望이었고、請兵한 明나리에서도 평구어 먹은 消息인데 날로 치워는 더하고 軍糧은 떨어져서 兵士들은 愛馬의 屠肉을 날로 먹는 悲慘한 狀態였다。

西將臺가 바로 仁祖大王이 피비린내 나는 試練을 四十五日間 겪던 곳이다。我軍의 초최한 꼴과 敵軍의 沖天하는 士氣를 樓에 앉자 나려보는 仁祖王의 心懷를 생각할때 지금도 이 樓에 앉으면 自己도 모르게 催淚케 된다。臺上의 無忘樓는 英祖때 留守 李箕鎭이 命을 받아 築造한 建物이다。英祖가 이 無忘樓를 세우게 된 動機는 仁祖大王의 次代인 孝宗大王이 恒時 北伐을 꾀하다가 身病으로 急逝하자、이를 痛嘆하기도 했지마는 先祖가 切齒腐心한 淸에의 復讐心에서 이 由緖깊은 자리에 樓를 세워 勿亡의 敎訓도 삼고 後世에 이 怨恨을 풀고저 한데 있었든 것이다。孝宗大王은 또 그럴만한 緣由도 있으니 그가 丙子胡亂에 人質로서 瀋陽 敵國의 抑留所에 끌려가서 苦役을 꺾은 王世子 이었던 것이다。

孝宗은 어떻게 든지 자기 손으로 北伐을 하여 淸朝한테 復讐를 하려했던 것이나 不幸히도 腫氣로 急逝、驪州 寧陵에 묻치었다。그 後代의 英祖、正祖는 이 先王의 遺恨을 마음에 아로삭여 驪州陵所의 回路에는 반듯이 山城에 들러서 이 無忘樓에 駐泊하고 恥辱史를 다시 한번 마음에 아로삭였든 것이다。

山城에는 이 西將臺外에도 東、南、北의 三將臺가 있었다는 記錄이 남아 있으나 現存한것은 西將臺 뿐이오 남어지 三將臺는 그 遺墟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爾後 歷代의 마음있는 王은 이 樓에 올라 往年의 悲憤을 읍조리었다 하지만 그中에서도 特히 肅宗大王의 詩一絶은 斷腸의 슬픔을 풍겨 주고 있다。

登臺感懷

回駕直登西將臺　君臣說往日昏來
忽然慷慨不能抑　惟有善承善繼哉

五、淸凉堂

西將臺 바로 밑에 조고만 堂宇한 채가 있다。이것이 李晦의 靈을 받들기 爲해서 세워진 淸凉堂 이다。

李晦는 仁祖二年에 山城의 築城을 맡아 본 責任者中의 한사람이다。築城總責任은 御營提調의 職에 있던 李曙로 仁祖大王이 丙子胡亂때 四十五日間 城內 西將臺에 駐蹕했을 때 北門을 지킨 사람이다。

築城의 總監督은 李曙가 맡고 東南築城에는 李晦、西北築城에는 僧兵으로 하여 이를 專擔케 했던바 李晦의 名聲을 시기한 사람이 東城의 山城 工事가 推進되지 않고 虛弱한 理由는 李晦가 國庫를 酒色에 蕩盡하고 築城에는 誠意가 없다고 朝廷에 讒言하여 李晦는 지금말로 卽決處分으로 絞首刑을 받아 이슬로 살아진 사람이다。그러나 이는 純全히 誣告요 李晦는 自己의 愛妻와 愛妾까지 三南地方에 보내어 築城의 費用을 鳩聚케 하였을 만큼 가진 誠意를 다 한 사람 이었다。

그러나 李晦는 絞首臺에 올라서도 단 한마디 辯明도 하지 않고 오직 「事必歸正이니 내가 죽는 瞬間에는 매 한마리가 날라오리라。매가 오지 않으면 내 罪 죽어 마땅하지만 매가 옴은 내 罪 없느니라。」 이런 遺言을 했다는 것이다。

。 。

사람들은 이말을 無心히 듣고 介意치도 않았더니 李晦가 막 絶命하려는 瞬間 果然 蒼空에서 宏壯히 큰 매 한마리가 날라와서 絞首刑場 옆 큰 바위 위에 와서 앉아 絶命하는 李晦를 슬프게 凝視하고 있든 것이다。이에서 비로소 李晦의 罪狀을 再檢討 하자는 輿論이 생기어 再調해 본 結果 全혀 誣告이었음이 判見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李晦의 忠誠과 無辜히 犧牲된 그의 淸簾을 慰撫하기爲하여 堂을 지어 그의 靈을 받들고 四時로 祭祀를 지내기로 했다。

이 堂이 바로 淸凉堂이오 매가 李晦의 운명을 보러 와서 앉았던 바위를 鷹岩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지고 있다。매가 앉았던 자리에 발자욱이 두텃이 있은것을 日人들이 없앤다는 말이 傳해지고 있다。

이 堂宇안에는 築城當時의 功勞者인 名僧의 肖像과 그當時의 武器、衣服等의 遺物이 지금도 保存되어 있다。

한편 사랑하는 男便으로 하여금 至上의 大任을 完遂케 하기 爲하여 背囊을 지고 三南一帶를 돌아서 가진 財物을 얻어 一路 山城으로 돌아오던 李晦의 愛妻와 愛妾이 이 悲報를 들은것은 舞童島 앞 이였었다。그야말로 靑天에 霹靂이었다。땅을 치고 울어도 소용이 없었다。하늘을 원망해도 죽은 男便은 살아 오지 않은다。

두 女子는 決心을 하고 손에 손을 잡고 江에 몸을 던지어 最後를 마추었다。

淸凉堂은 이 李晦의 築城功을 致賀키 爲하여 建立되었거니와 古來로부터 舊正初二日을 祭日로 定하고 山城一帶의 婦女子들은 淸凉堂에 所願成就의 致誠을 올리는 風習이 傳해지고 있다。이는 勿論 李晦의 功을 讚揚하는 意味도 있겠지만、男便을 따라서 投江한 妻妾을 同姓으로서 思慕한데서 起因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遺風은 最近까지 繼續이 되어 왔었다。特히 名節에는 守護人으로서 巫女가 主動이 되어 近邑 一帶의 婦女子들이 가진 飮食을 만들어 가지고 雲集하여 年中行事 처럼 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六·二五의 共匪南侵때와 一·四後退의 두번 災難으로 堂內에 保管했던 築城當時의 功勞者들의 肖像이 大部分 없어졌다。

六、崇烈殿

崇烈殿은 西門內 日長山 西北中腹에 位置하고 있다。仁祖 十六年의 建築으로 百濟始祖 溫祚王의 招魂閣으로 構想된것이라 한다。百濟라면 日本에 一切의 文化를 發給하던 源泉인지라 倭政時에는 日人 考古學者들이 많이 몽여 들었었다。

崇烈殿 이란 宣額은 李朝 正祖王 十九年에 王이 親히 나린것으로 本來는 百濟始祖 溫祚王만의 招魂閣이든것인데 하로는 正祖의 꿈에 溫祚王이 나타나서、

「王의 人品과 聖業을 치하 하면서 내 너무 쓸쓸하니 貴臣中에 名望있는 臣下를 하나 가치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이꿈에서 깨인 王은 때를 느추지 않고 山城築造의 功勞者인 李曙를 이에 從祠케 하여 當時에는 留守로 하여금 春秋로 享祠케 했고 近者에는 道知事의 代行으로 郡守가 執祭케 되어 있다。

七、李 曙

그러면 이 李曙는 어떠한 사람인가。여기에 그의 一生의 略傳을 文獻에서 뽑아 參考에 供하기로 한다。

李曙의 字는 寅三이오 號는 月峰으로 孝寧大君의 十世孫이오 濟州牧使 慶祿의 子이다。萬歷 庚申生으로 癸卯武科에 登及、宣傳官을 拜했고 藍浦縣을 監하다가 誣告로서 官을 罷하고 楊州에 家居하다가 後에

다시 나아가서 長連縣監이 되어 捕盜의 功으로 折衝에 陞하고 最後로 谷山에 守했다。

郡의 戎器를 檢査한바 하나도 쓸것이 없음을 嘆하고 이의 一新을 企圖하고 令을 나리어 가로되 萬若 나를 爲하여 山에 役하기 二日이면 一歲의 征을 免하리라。民이 모두 樂趨하여 大木을 伐하여 江에 띄워 黃鳳의 사이에 販賣하여 많이 價布를 得하여 民賦에 充하고 匠手에 償하고 弓矢를 備하기에 數萬으로써 하고 粟米를 儲하기에 千斛으로 한지라——。

이어 曙는 嘉善에 陞하고 珍島郡守를 拜하여 撫民하기에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官이 끝나서 돌아왔다。

때에 마침 明에 遼薄의 役이 있어 兵은 我에 徵하며 朝廷의 物議難色이 있던지라 曙——奮然히 가로되

「義何忍此」리까

하고 再次 陳疏하였으나 朝應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다 일르기를 義士라 하더라。또한 어찌 그렇게 文에 能한가 하더라。

戊午에 賊臣等이 母后를 廢코저 謀議하여 百官을 卒하고 庭請케 하니라。曙——其母에 自하여 그 議論에 參치 아니 하였더니、於是에 그를 重典에 置하기를 請하매 曙——屛跡하여 命을 竣하였더라。

旣已오、外艱에 丁하고 轉하여 泰安의 海曲에 入하였더라。

以後 부터는 撥亂의 計가 있었는데 뒤에 外叙되어 長溫府使를 拜하고 京畿 防禦使를 兼하다。申景禛으로 부터 仁祖 龍潛時의 德을 듣고 마침내 意를 推戴에 擇하여 곧、一府軍을 率하고 癸亥 三月 金瑬、李貴等과 함께 反正하여 大業에 就함에 그 勞力이 甚히 많았더라。戶曹判書에 超拜하고 靖社의 勳을 一等에 策하여 完豊君에 封하고 京畿 觀察使를 拜하였고 李适의 亂에는 副元帥를 兼하여 松都에 馳到 乘險固守하니 賊이 犯치 않고 過하다。言者 있어 그의 싸우지 않았음을 罪코저 하였으나 仁祖 이를 願하여 白衣間住 하였더라。

그해 冬에 進階하여 府院君이 되고 總戎使를 兼하여 屯田을 廣設、軍糧에 備하고 南漢에 築城하여 京師의 蔽를 삼기를 請하매 仁祖 命하여 其役을 兼케 하다。

歲 겨우 一周하여 工이 訖을 告하였는데 曙——이에 盡瘁積勞하여 五十以前에 鬚髮이 盡白 하더라。

兵曹判書를 拜하매 力病出化하여 政을 하매 公으로써 하다가 未久에 疊을 病하여 辭退하였으며 丙子之變에 仁祖 南漢에 幸하매 曙 御營의 兵으로서 北門에 軍하고 頻繁히 出兵接戰케 하여 登陣警守하되 無病한 者와 다름없이 하여 사람이 모두 이를 憂慮하였으며 曙 病床에 踞하여 忽然히 倒하매 擔하여 寓舍에 돌아가 五六日에 病이 危篤하자 그 사위 蔡裕浚에게 일러 가로되

「내 死無餘恨이나 다만 참아 눈을 감지 못 함은 舍稽의 恥이다。」하였더라。丁丑 一月三日에 卒하니 年 五十八歲이었다。

仁祖——震悼하사 還都後 廟를 南漢에 造하여 溫祚王에 配享하고 後에 仁祖의 廟에 配享하여 忠定이라 諡하다。曙——母에 事하되 至孝요 所賜의 品物은 親舊에게 分與하였으며 算數에 밝고 讀書를 즐기어 時或 近體詩를 지어 寓懷하되 人에게 示하지 아니하며 章疏의 作도 辭意가 凱切하더라、——云云——。

八、顯節祠

東門內 北麓에 位置한다。丙子胡亂에 淸의 太宗이 十三萬의 大軍을 이끌고 我國에 來侵하자 朝廷에서는 和、戰兩派로 갈리어 猛烈한 論爭이 展開 되었었다。

그러나 大勢는 이미 기울어서 籠城을 하기도 月餘가 되어 軍糧도 떨어지고 士氣도 죽고、忠淸監司 鄭世規를 爲始하여 南原府使 尹棨、慶尙左右兵使、全羅兵使 金俊龍、江原監司 趙廷虎、平安監司 洪命耆、兵使 柳琳等 救援軍은 一擊에 全滅을 當하여、朝廷의 運命은 風前 燃火의 最後瞬間 이었다。

이 孤立無援의 悲慘한 狀態에서 重臣間에는 亦是 和、戰 兩派로 나뉘어 있었다。和戰派에는 崔鳴吉等이 陣을 치고 있었고 抗戰派의 猛將은 掌令 洪翼漢等 이었다。主戰派와 和戰派는 屢說에 그치지 않고 칼로 목을 베어야 한다고 까지 熾烈 했었다。

그러나 大勢는 이미 기울었다。戰爭에는 完全히 졌던 것이다。이 主·和 兩派는 降服文書를 가지고도 죽일 놈 살릴 놈 했으니 一例를 들면 淸太宗의 降服勸告文에 回答할 文案을 草한 것은 崔鳴吉 이었는바 그는 「朝鮮國王 上書 于 大淸皇帝 至於出城之命 實出於天覆之下 然 念重圍未解、帝怒方盛、在此亦死 是以瞻望龍旆 分死自決 皇帝方以天地生物爲心 卽小邦豈不當獲預於 全活之中哉」라 하였으니 大意를 따면 「조선나라 왕 아모개는 大淸 皇帝 께 上書를 하옵나니、山城에서 나오라는 命令은 實로 寬大한 處分으로 생각하옵니다。그러나 貴國事이 山城을 疊疊이 둘러 쌓았고 또한 陛下의 노여움이 매우 높으신 이때 여기 있어도 죽고 나아가도 죽을지라、다만 龍旆를 바라 보고 죽기로 작정하온바、陛下께서 天地生物로서 마음을 잡수신다면 저의가 어찌 그 뜻을 反對할 理가 있아오리까」라 하였으니 怒하는 것도 無理가 아니다。

이글을 본 禮曹判書 金尙憲은 글을 벅벅 찢어 버리고 야단을 했다。金尙憲은 金瑬와 崔鳴吉等은 可斬이라고 까지 王께 進言을 했던 사람이오 그는 江華守備를 하다가 時不利兮라 깨달자 樓에 올라 火藥庫에 불을 질러서 自殺한 金尙容의 實弟인만큼 和戰派 崔에게는 더욱 猛烈한 攻勢였다。

어쨋든 戰爭은 我의 降服으로 끝 났었다。그 講和條約에 抗戰派를 全部 淸朝로 보낸다는 條項이 있어 淸太宗은 이에 對한 督促이 甚했었다。

그래서 하는수 없이 抗戰派 十一名中 洪翼漢、尹集、吳達濟의 三人만을 人質로 보내기로 했던것이다。이 三人은 淸太宗이 親書를 가지고 使臣을 죽이고 淸太宗의 親書를 분살라 버어야 한다는 것을 王께 進言하고 끝끝내 初志를 主張한 사람이다。

이 세 사람이 三學士다。洪翼漢은 字가 伯升으로 號는 花圃로 南陽이며、乙卯에 生員、掌令이 되었다가 淸國에 人質되었고、尹集은 南原人으로 二十二歲에 生員、二十六歲에 文科登科하여 說書校理를 歷任했던 사람이다。

洪翼漢이 瀋陽에 抑送되자 別館에 있게 하고 잔치를 베푸는가 하면 朝夕으로 厚待가 극진했으며 조금도 害하려 하지 않았으나 洪은 一切의 飮食까지도 拒否하고 頑絕이 反抗하였었다。淸太宗이 親히 불러 그 事由를 물었는바、洪翼漢은 筆答으로 淸賊한테 불들려 온 大明 朝鮮國이 罪臣 洪翼漢은 斥和의 뜻을 말 하노니 大槪 四海의 안이 모다 兄弟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天下에 두 아버지는 있을수 없다。우리나라는 本是 禮儀를 崇尙하여 왔고 諫官은 옳은일을 進言하므로서 그 職責으로 알고 있었는데、昨年 胡王의 書面이 왔을때 나는 그 職責을 말아 가지고 있었드니만큼、너의 나라가 盟約을 어기고 皇帝라 稱하여 왔으니 萬一 이렇게 違約을 하면 兄弟를 無視하는 일이오、皇帝라 稱한다면 이는 天下에 두 天子가 될 것이다。너의 나라는 우리나라와 새로 交隣을 맺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第一 먼저 違反하였고 우리 나라에 莫大한 恩惠를 베풀어 준 明나라와의 誼를 無視하고 먼저 盟約을 違反하는 너의 나라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理에 當치 않은 일이니 이를 上께 아뢰어 우리나라가 잘못을 犯치 않기 爲한 것이니 어찌 이의 옳음을 알아 듣지 못하는가?」

이 洪의 말에 淸王이 大怒하는 것은 當然한 일 이었다。太宗은 불같이 怒하여 洪을 監禁하고 洪이 다리고 간 下人들과도 一切 接觸을 禁한 後에 荊場에 끌어내어 凄慘한 方法으로 死刑을 執行했던 것이다。

尹集、吳達濟 두 사람도 龍骨大의 가진 甘言利說을 보기 좋게 一蹴하고 堂堂히 荊場에 나아가 西門에 있는 綾昌臺의 이슬로 사라졌든 것이다。

이 洪、尹、吳 세 사람은 三學士로 불르게 되었고、十九代 肅宗은 이들 三學士의 忠節을 一般 國民에게 아르키기 爲하여 祠宇를 세우고 忠靈을 慰勞하였다。

이 顯節祠가 바로 이 三學士의 忠節을 慰勞한 堂宇인 것이다。

肅宗의 顯節詞頌은 句句節節 마음에 사모친다。

嗟哉三學士 凜凜節如何 知是皇朝在 力排魄虜私
拜辭忠愈欵 臨死節尤磨 舊宇圖新煥 追思感實多

九、演武館

南漢山城 中央國民學校 東便山麓에 一古建物이 있으니 이것이 演武館이다。建造年代는 確實지 않으나 李朝 第十九代 肅宗王代에 從前에는 演武堂이라고 불려온 이름을 練兵館으로 改稱하는 한便、守禦使 金在好로 하여금 이를 大改修케 하여 「練兵館」의 扁額도 直接 賜하였다。

正祖王때에는 이를 「守禦營」이라고 改稱했으나 通稱 練兵館 또는 演武館이라 불르고 있다。往時에는 이 建物을 中心으로 武藝의 技를 닦고 여기에서 人材를 뽑아서 中央으로 보낸다고 한다。

建物 前面에 두株의 큰 느티나무가 있어 古雅의 風情을 돋구어 주고 있다。이 늙은 느티나무 밑에서 武人들이 訓練의 餘白을 즐기는 風景을 想像하면 그윽한 맛이 더욱 새롭다。지금은 老人들이 자리를 깔고 將棋를 두고 있어 往年의 風情을 聯想케 해 주고 있다。

一〇、枕戈亭

現面事務所(舊行宮址) 西쪽 언덕위에 있는 조고만 建物이다。到處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山林一帶는 百濟始祖 溫祚王때 부터의 古都地다。

現在도 往年의 史實을 立證해 주는 가지 가지의 文獻과 出土가 있거니와 이 枕戈亭址가 溫祚王의 王宮址라는 것이 有力視 되고 있다。

이 地點에서 一小建物을 最初에 發見한 사람은 仁祖 二年 仁祖大王의 特命을 받아서 南城山에 築城을 한 李曙라 한다。李曙는 王의 命을 받고 築城에 着手했던바 이 地點 叢林속에 一古屋이 묻혀 있음을 發見한바 建造年代는 未詳이라도 柱礎가 堅固히고 房突이 不夷하였으며 中間한 房의 溫突은 그 높이가 數尺에나 達하였다고 한다。그래서 試驗 불을 때어 본즉 웃목 부터 더워서 次次 아래가 더워 왔다 하며 住民들현테 물어 본즉 溫祚王의 王宮址라는 것 이었다는 것이다。

勿論 이렇다 할 考證이 없으니까 斷定하기는 어려우나 이 溫祚王宮址라는 데는 別 錯誤는 없다는 것이다。勿論 現在의 建物은 그後의 것이요、李曙가 發見한 當時의 建物은 그 形體조차도 없다。그러나 近方에 散在한 돌이며 그 地盤가 一般 民家가 아니었든것만은 門外漢으로도 確言할수 있을 것이다。

그 古閑 右便에 軍器庫를 세웠더니 「中國詔使程副總兵龍漁戎武庫」라 하고 蘭數叢을 壁上에 그리었다 한다。

枕戈亭이란 이름은 英祖 辛未年에 留守 李箕鎭의 扁名改稱으로 된 것이 오늘까지 傳해지고 있는 것이다。

一一、地水堂

山城 東門을 들어서서 溪谷을 따라 올라오면 盆地 그대로의 古都地가 展開된다。이 初入에 滿水의 二蓮塘이 있고、地水堂이라 名曰 一亭子가 있다。周圍로는 잔디가 덮이었고 現代式 벤취에 木蓮、水菊、海棠을 爲始한 珍花木과 蘭、菊等의 가지 가지의 草花가 滿發해 있어 探勝客의 小憩에는 다시 없는 適所다。

이 蓮塘은 顯宗 壬子年에 府尹 李世華의 建造로 元來는 地水三塘이던 것이 一塘은 埋沒되고 두개만이 남았다。周圍로는 垂楊이 늘어져 가지 끝이 물을 스치고 塘水面에 紅、白의 蓮꽃이 點綴되어 있어 風光 비길데가 없다。더욱이 山林一帶는 高原地帶인 만큼 山中有湖의 느낌이 더욱 새롭다。詩의 情이 아지못하게 부프러 오르리라。

道古蹟保存委員會에서 이의 大修築을 斷行하여 今秋부터는 大規模的

으로 鯉魚를 기르겠다 하니 躍魚 소리 들으며 낚시를 담그는 情趣도 좋을 것이다。南鶴鳴의 地水塘記도 우리를 부럽게 하거니와 地下에 계신 南公 修築을 끝마치고 現代式 遊覽地가 꾸미어진 오늘의 地水塘을 본다면 또한 부러워 하지 않을까?

一二、頌 壽 塔

우리 三千萬同胞의 領導者시며、世界 反共陣營의 指導者이신 大統領 李承晩博士의 八旬高齡이심에도 氣力이 康健하심을 頌祝하는 뜻에서 前 京畿道知事 李益興氏 創案으로 道內 全 公務員의 淨財를 모아 建立한바 西將臺西側 城壁안 高地에다 높이 八米、直徑 一·五米의 八角型 花崗岩製 石塔으로 靑銅鳳凰을 冠한 韓國現代藝術의 最高 極致로서 山城高臺에 屹然히 서서 遠近山川을 俯瞰하는 偉容은 이 民族을 領導하는 姿態와도 恰似하다。

碑身設計는 藝術會員 尹孝重作이며 碑文은 月灘 朴鍾和撰이고 一中 金忠顯이 書하였다。

一三、永春亭과 迎月亭

檀紀四二八八年 南漢山城의 古蹟을 修築할제 前任道知事 李益興氏가 李大統領閣下의 八旬을 頌祝하는 意味로서 永春亭(八角亭)을 南門外 高臺에다 新築하고 古色 蒼然하게 丹靑을 加하여 오고가는 探勝客에게 休息瞻望케 하였으니 眼下의 景槪가 天下에 絕勝이다。또한 西將臺 오르는 中腹에다 雅淡한 小亭을 세워 遊覽하는 內外人士에게 養志得意케 하되 題하여 迎月亭이라 하였다。永春亭은 農泉 李丙熙가、迎月亭은 原谷 金基昇이 各各 書額하였다。

一四、松 岩 亭

南漢山城을 歷訪하자면 廣津鐵橋를 지나 時餘에 光池院에 이른다。여기서 부터 山城 東門까지의 二里未滿의 溪谷山路를 가는 맛은 實로 幽趣津津하다。海印寺까지의 幽谷을 若干 縮少한 느낌이다。兩便의 靑山이 있고 골은 溪谷에 玉水가 或은 줄을 또 或은 滔滔하게 흐른다。이 溪谷이 다한때 突然 古色蒼然의 山城樓門이 나타난다。이것이 東門이다。

이 東門 若干 못미친 左側 山頂에 突出한 一大巨岩이 있다。岩上에는 恰似 洋傘을 펼친 것같은 形의 一老松이 섰고 그 老松 밑이 盤石이 되어 있다。廣이 五·六坪은 實確히 되어 바위 自體가 宴席이 되어 준다。眼下 數十丈의 溪谷을 굽어도 보고 크고 적은 물소리에 이름 모를 山새소리가 伴奏도 해 준다。백꾹이 소리는 山城 어디에 가나 시끄러울 만큼 많이 들거니와 이 一帶가 더욱 尤甚하다。

勿論 亭子가 있는것은 아니로되 亭字가 붙어서 조금도 어색지 않다。이 松岩亭에 口傳하는 哀話가 있으니 約百年前의 어느 雲淡風輕에 百花繚亂한 날 一黨의 靑年들이 美妓와 同伴 酒盃를 나누며 백꾹이 소리를 들다가 美妓 한名이 溪谷의 너무나 아름다움에 醉한채 失足을 하여 數十丈의 絕壁밑으로 떨어진채 他界해 버렸다는 것이다。

爾來 月明의 夜半이면 妙齡의 美女가 岩山에서 亂舞를 하여 哀切한 歌謠에 興겨울다가는 畢竟 斷腸의 哭聲으로 變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岩上에 洋傘처럼 펼쳐져 있는 奇松에는 當時 官府에서 그 寄함을 禮讚키 爲하여 玉冠子를 붙여주어 正三品의 待遇를 했다고 傳해 온다。

一五、溫 水 谷

南門안에 溫泉이 있었다는 말이 口傳되어 오고 있다。溫水谷이란 이름도 그 溫泉에서 由來했다는 것이다。溫水골이라는 洞名이 예로부터 傳해 오는 것으로 보아 全혀 根據가 없다고도 할수 없으니 溫陽과 東萊溫泉도 꼭같은 理由와 動機로서 그 地方 住民들이 高官들이 몰려 와서 이 巖應에 지친 까닭에 埋沒한 事實이 文獻에도 남아 있는 것이다。多幸히 이 山城에 溫泉이 發掘된다면 그야말로 錦上添花일 것이다。

一六、奉 恩 寺

① 寺 史

三十一本山寺에 드는 本寺는 本郡 彰州面 三成里에 있다。蘇島江을

전너서 約 五里程度의 路程으로 修道山麓을 거의 占有하고 있다。

本寺는 멀리 新羅 三十八代 元聖王 十年(西紀 七九六) 距今 一千百六十年前에 綠會國師의 創建으로 되어 있다。 이 修道山은 古來로 名山으로 알려 나려 오고 있지만 新羅時代 綠會國師가 자조 찾든 靈地라고도 傳해지고 있다。 修道山은 忠北 俗離山의 支脈으로 淸溪山과 華岳山의 山峰은 마치 소가 누은것 같다 하여 臥牛의 別名도 있다。 山麓一帶에는 松栢이 鬱蒼하고 前面에는 漢江上流를 끼고 山、水에 古寺까지를 兼有하고 있다。

本寺는 新羅時代로 부터 王師、國師의 代代往錫한 名刹 加藍이다。 더욱이 李朝에 들어와서는 鷄林八域을 總管한 首禪大刹로서 그 이름은 中國에까지 알려져 있다。

이 奉恩寺의 寺名의 由來를 살펴 보면 新羅 三十八代 元聖王이 先王인 三十七代 宣德王의 父恩에 奉答키 爲하여 創寺와 함께 望恩樓를 立하고 綠會國師로 하여금 이에 머물게 하여 父王의 恩을 代身 받들게 했다는데서 奉恩寺라는 寺名도 지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現在의 奉恩寺 자리가 新羅 元聖王 時代의 奉恩寺 자리인지는 아직 確認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山勢로 보아 大槪 같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說이 有力하다。

現 奉恩寺는 距今 三百九十年前 李朝 十四代 明宗 十七年에 現在의 地點으로 移轉한 것으로 寺史蹟에 記錄되어 있고、當時에는 普雨禪師가 住持와 判禪宗事를 兼任하고 있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寺境 一帶는 李朝 仁祖 十四年 淸의 十三萬 大軍이 南漢山城을 包圍했던 丙子胡亂의 戰地였든 만큼 淸兵의 放火에 依해서 그때의 建物은 大部分 燒失되었고 그後 肅宗 十八年(三百六十一年前) 十宗大禪師가 改築한 것이다。

距今 二百五十年前의 建築으로 先年 一大災로 燒失 된것을 解放直前에 또다시 改築했다。 境內에는 樹齡三百餘年이나 되는 느티나무를 爲始하여 老松이 鬱蒼하여 神秘境에 든 感을 주었으나 近者에는 많은 盜伐로 因하여 옛날의 모습이 많이 變貌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幽境의 勝地다。

② 寺 寶

寺內에는 數 많은 寺寶가 있다。 大雄殿을 비롯하여 冥府殿、三聖殿、柏殿等은 山麓에 一大伽藍을 이루고 있고 佛像만도 木像과 石像 畵像等이 具備되어 있다。 寺門인 天王門도 可觀이어니와 門內에는 東、西、南、北의 四天王의 像이 安置되어 있었으나 六·二五戰亂으로 破損되고 現在는 없다。

塔으로는 羅晴湖禪師 舍利塔이 있어 寺寶로 들고 銅鐵製 梵鐘도 있다。

寺寶인 同時에 國寶로 불리우는 것은 李朝 二十五代 哲宗七年 丙辰에 南湖永奇大師가 刻造한 佛經刻板이다。 板殿內에는 八十一冊의 華嚴經板、維摩經板、千手經板、寒山詩板等의 純木刻板 이 保管되어 있다。

그러나 本寺의 寺寶中 가장 異彩를 띠우는것은 文定王后의 下賜品인 玉梅板과 四溟大師 呈賜品인 琉璃盞、四溟大師의 願佛鳥銅香爐等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寺寶도 去年 六·二五에 共匪들이 가지고 갔거나 江中에 던졌으리라 推測될 뿐이다。

이렇듯 由緖도 깊거니와 本寺境 一帶는 全山이 鬱林으로 덮이었고 境內에는 老松 奇木이 있어 봄이면 꽃피고 소리가 요란할 程度다。 修道山 뒤가 바로 漢江이어서 自然 勝景을 이루고 있다。

一七、陵 墓

本郡에는 靖陵(李朝 十一代 中宗大王)、宣陵(李朝 九代 成宗 및 貞顯王后)、獻陵(李朝 四代 太宗大王)、仁陵(李朝 二十三代 純祖大王)等의 陵墓가 있다。

陵墓로서는 別 特色이 없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一致한 意見이다。 年代가 다르니만큼 建物과 石物等의 彫刻等에 그時代 特有한 特長이 있어 參考資料로는 貴重한바 있다。

숲에는 새가 있고 물에는 고기가 있듯이 陵墓에는 樹木이 있다。그래로 樹木이 아니라 白晝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만큼 鬱蒼하다。陵墓의 考古學的 價値도 價値려니와 山鳥 우는 鬱林 속길을 거니는 맛도좋다。

이 여러 陵中에서도 가장 世上에 넓게 알려진것이 李朝 第三代 太宗 大王의 獻陵이다。

이 獻陵에는 秘話가 있으니 第三代 太宗末年 旱魃이 尤甚하여 農作物은 姑捨하고 飮料水가 枯渴되어 民心이 凶凶했었다。

이 旱魃을 太宗은 自己의 不德의 所致로 돌리고 宮中에 長斫을 쌓아놓고 그 위에 王이 올라 앉어서 臣들을 시키어 불을 질르라고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王을 長斫우에 올려 놓고 불을 질를수는 없었다。그래서 王命에 拒逆하자 王은 大怒하여 百姓이 죽는데 朕이 혼차 살아 무엇하겠느냐고 期於히 불을 질르게 하자 소낙비가 나리기 始作하더니 每年이 날(五月十日)이면 多少라도 降雨가 있다는 傳說이 예로부터 傳해 나려오고 있다。大母山下 獻陵이 一般國民한테 有名해 진것도 이 傳說 때문이라 한다。

一八、望京臺

本郡 大旺面 金土里와 始興郡 新東面 新院里의 接境에 높이 구름을 뚫고 선 山이 望京臺가 있는 淸溪山이다。

解放前 까지는 全山이 叢林에 묻혀 있듯싶이 했으나 解放과 六·二五에 大部分 山林은 伐木이되어 昔日의 面貌는 찾아 볼 길은 없으나마 아직도 깊은 골에는 樹木이 鬱蒼하다。골이 깊으니 물소리 到處에 나고、鬱林이 있으니 山鳥 물에 들어 登山探客이 不絕한다。

望京臺는 始興郡篇에서 記述한바와같이 (該項參照) 李太祖가 麗朝를 背反하고 李氏朝鮮을 建國하자 麗朝에 忠誠을 하기爲하여 杜門不出한 杜門洞 七十二人中의 一人인 趙胤이 太祖를 避하여 隱身한 곳이다。山上에 一石臺가 있으니 이 石臺址가 바로 趙胤이 幕을 치고 松都를 바라보며 슬퍼하던 자리라 한다。望京의 이름도 여기에서 由來한 것이다。趙胤은 朝廷을 亡친者에게 이름이 있으랴하고 胤을 狷으로 고치어 개로서 自處한 사람이다。

一九、七士山

七士山은 本郡 廣州面 松亭里에 所在한다。現在 郡廳이 있는 京安里에서 北方으로 約 一粁地點이다。

七士의 山名이 由來되기는 麗朝가 亡하자 亡國臣이 다시 어찌 李朝에 受爵하겠느냐고 벼슬을 않기爲해서 松都를 脫出한 杜門洞 七十二人中의 七人이 이 山中에 숨어 草根木皮로 延命을 해가며 望京、戀主했다는데서다。이 七人의 이름은 傳해지고 있지 않으나 이들 七學士의 節介를 讚揚하여 後世에 七士山이라 이름 짓고 그 美德을 後孫들에게 본뜨게 한것이다。비록 高山은 아니나 골이 깊고 숲이 稠密하다。

二〇、僧科坪

僧科坪은 僧侶들이 科擧를 본 平野라는데서 由來된 아름이다。三十一本山中의 一인 奉恩寺(該項參照)에서 約 半粁相距에 平野가 있다。따로이 무슨 施設이 있는것도 아닌 아조 凡常한 밭 그대로의 들이다。지금은 田穀이 욱어져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저 由緖 깊은 僧科坪인지 그 地點도 地域도 알수 없는 普通 밭이 되어 버렸으나 三百四十五年前 李朝第十一代 中宗의 繼妃 文定王后 尹氏 때에 虛應、普雨의 兩大師가 奉恩寺에 留하면서 禪科試驗을 行하고 있었다。이 禪科試制度는 高麗朝에서 行하던 佛敎의 科擧制度로 李朝에 와서는 廢止되었던 것이다。그것을 復活시킨것은 前記한 文定王后였다。이 科試의 發表가 있자 全國에서 이에 應試 하려온 僧侶가 無慮 千으로 헤아리게 되어 寺內에서 施行하려는 計劃을 變更하여 넓은 들로 引導했던 것이다。이 僧科坪이 바로 그때 千餘 僧들이 科擧에 應試한 試驗場이다。

地名도 勿論 이에서 由來 한것이다。

二一、狎鷗亭址

距今 四百餘年前 第八代 成宗朝 韓明澮의 建立으로 된 亭子였다。彦

州面 狎鷗亭里란 이름도 이 亭子名에서 由來한것이다。

大槪의 名勝이 山과 물을 끼듯 狎鷗亭은 漢江下流에 臨江 小亭이었다。山水는 浩渺하고 風帆이 오고 가는 風景을 바라 볼수 있는 勝地에 沙鳥 또한 奇聲을 發하여 서울의 騷音과 좋은 對照를 이루어 준다。

이 亭子를 朴泳孝가 所有하고 있었으나 甲申政變에 逆徒로 몰리자 政府에서 헐어 버리고 지금은 亭址만이 남아 있다。

昔日에는 中國의 使臣이 오면 반듯이 이 名勝地에서 하로를 淸遊케되어 있었을만큼 勝景의 地다。

二二、春宮里 五層石塔

廣州郡 西部面 春宮里 一帶에는 附近 一帶가 百濟의 古都地 였음을 立證해 주는 數많은 瓦片과 礎石이 發見되고 있다。官廳里니 氷庫니 하는 洞名도 由來가 있음직 하거니와 가끔 田畓 地下 四、五尺 밑에서 柱礎石이 發見되는 點이라든가 그 礎石이 一般 民家用의 적은것이 아니고 角形의 大礎石인것으로 보아서도 百濟의 古都와 關聯지어 생각할 수가 있다。

이 西部面에 있는 二聖山頂(標高 二〇三米)에도 三米前後의 石築城壁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古瓦片이 어디나 散在해 있다。 이 古瓦片의 大部分은 新羅、高麗 兩朝의 것이지만 二聖山麓에 그 무슨 寺址일게 分明한 大礎石과 함께 高二十五尺 初層 塔身만도 五尺四寸의 五層石塔과 總高 十尺可量의 三層 石塔이 남아 있는 點等으로 보아 이 地點이 寺址이었던 것만은 事實이다。現在까지에 發見된 遺物은 全部가 高麗時代의 것이나 여러가지 古記와 文獻으로 보아 이 地帶가 百濟의 古都인 것만은 더 疑心할 餘地가 없고 보니 이를 確認할만한 遺品이 考古學者의 손으로 發掘야 되어야할 것이다。이 五層石塔과 三層石塔은 國寶 第二〇號와 二二號로 各各 指定되어 있다。

이 밖에도 西部面 船里와 舟村에서 乙丑年 大洪水로 表土 十數尺이 流失되었을 때는 文字 古瓦와 紋瓦片의 多數가 地下에서 튀어 나왔었다。 그러나 이것이 百濟時代의 遺品이라는 것이 考證 되었다는 說은 아직도 確認되어 있지 않다。

二三、精 忠 廟

精忠廟는 本郡 草月面 大雙嶺里에 있다。丙子胡亂때 이 地點에서 敗한 勇將 三人을 享祠하기 爲하여 建立된 것이다。

이 三將이란 宣世綱、李尙載、許完외 三人이니 仁祖大王은 丙子 十二月 來侵한 胡軍을 避하여 南漢山城으로 蒙塵을 했다는 것은 到處에서 記述하였거니와、和戰 兩論으로 城中에서 甲論乙駁 하다가 主戰派의 得勢로 仁祖大王은 全國 監司한테 勤王兵 募集을 命令 했었다。이 命을 받은 安東營將인 宣世綱은 勤王兵을 引率하고 大擧 大雙嶺에 까지 到達하여 가마소山에 布陣을 하고 昆池岩으로 부터 來侵하는 敵을 待機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布陣을 안 胡軍은 昆池岩을 돌아서 池月里로 부터 背襲해 왔던것이다。宣將은 미쳐 廻避할 時間的 餘裕를 갖지 못한채 力戰했으나 地理의 利가 없고 원체 衆寡不足의 兵力인지라 最後까지 싸우다가 捕虜되기를 恠네어 島坪川 가마소에 빠져서 溢死를 했던것이다。

이 三功臣의 善戰至忠을 讚揚하여 精忠廟를 建立하고 國家에서 年一回式 祭祀하더니 大院君의 國祭廢止로 中斷된 後로는 洞民들이 祭物을 가추어 祭祀해 나려왔다。이 祭는 지금도 行하여지고 있다。

二四、白蓮庵 藥水

本郡 都尺面 楸谷里에는 泰華山이라는 野山이 있다。이 山名에 白蓮庵이란 庵子가 있어 그 앞들 右便에 있는 奇岩에서 甘露水가 湧出하고 있다。

예로 부터 藥水는 婦女子들의 唯一한 遊園地여서 이 藥水를 마시러 오는 사람이 近邑은 勿論 멀리 忠北方面에서 까지 雲集했다고 한다。

이 藥水는 一分間의 湧出水量이 五升이나 되건만 胃腸病과 肺病에 特效가 있다고 傳해 온다。

이 藥水가 發見된것은 約百年前으로 醫學이 最高度로 發達된 오늘날도 서울市內에서는 勿論 近邑에서도 퍼여 들고 있다。藥水도 마시고 勝景도 즐기자는데서 일것이다。

二五、巨樹名木

廣州郡內에는 他郡—아니 全國에서 볼수 없는 巨樹名木이 實로 많다。이제 그中 크기로나 樹齡으로나 有名한것 만을 추린대도 五十餘樹나 된다。이는 이 地帶가 멀리는 百濟時代로 부터 新羅 高麗를 通히여 或은 王都였고 古都였고 또 要塞地요 勝景의 名勝地여서 愛林에 對한 傳統이 흘러 있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郡內에 있는 老樺만 들어도 巨樹가 三十七樹나 된다。

느티나무는 우리 나라의 古都나 오랜洞里에가면 大槪 오랜것이 一、二株式있는 것이 常例이지만 樂生面 板橋里에 있어 神木이라고 까지 일컬어 오고있는 二株의 느티나무는 胸高周圍가 二十四尺이나 되고 樹高四十八尺 樹齡이 最少限 六百餘年으로 推定된다。約八十五年前 興宣大院君이 景福宮을 營造할 當時 이 巨樹를 베이려던 한 사람이 卽席에 心藥痛症을 이르키어 卽死한 일이 있었다。勿論 急性으로 생긴 病死였겠지만 이것이 遇然하게도 伐木하려던 瞬間 이어서 烏飛梨落으로 神木이라는 말이 오늘까지 口傳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이 巨樹에 對한 信仰的인 觀念은 우리 民族에게는 古來로 부터 繼承되어 온 觀念이기도 하다。

實村面 悅美里에 있는 名樺는 胸高周圍 二十一尺 樹高가 實로 八十四尺이나 되고 樹齡은 七百餘年의 古木이다。突馬面 栗里에 있는 느티나무는 胸高周圍 十一尺 樹高 四十八尺、樹齡 三百餘年이다。

① 銀杏樹

銀杏나무의 巨樹는 郡內에 數十株가 있으나 그中 名木만을 들어도 十餘株는 들수 있다。

西部面 頃里의 亭子木은 胸高周圍 實로 三十餘尺이다。普通 사람의 발을 五尺을 잡는다면 여섯발(把)이나 되는 세음이다。이 銀杏나무는 樹齡이 八百餘年으로 最古木이다。

中垈面 二里의 神木이라는 銀杏나무는 胸高 周圍 十六尺、樹高 四十二尺、樹齡이 四百餘年이다。

彦州面 大峙里의 名木은 胸高 周圍 十六尺、樹高 百六十二尺이나 된다。六尺 長身으로 計算한대도 三〇倍가 된다。樹齡은 三百二十年으로 推算되고 있다。이 나무에는 傳說이 口傳되고 있으니 昔日에 一老婆가 딸의 집을 가다가 나무 밑에서 小憩하고 쉬었던 지팽이를 땅에 꽂은채 잊어 버리고 갔더니 거기에서 싹이 나서 그렇게 컸다는 것이다。大槪 길 가다가 生木을 꺾어서 지팽이를 삼는 것이 普通이니까 그럴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突馬面 廉水里의 名木은 胸高 周圍 十尺이오、樹高 十六尺、樹齡이 五百餘年이다。

이外에도 住民들이 神靈처럼 위하는 名木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樹種	分類	所在地	胸圍	樹高	樹齡
柏槇	名木	中垈面餘洞	八尺	三〇尺	三〇〇年
側柏	神木	〃 芳美里	十四尺	三六尺	二〇〇年
赤松	名木	中部面谷里	七尺	四二尺	一二〇年
櫟木	〃	大旺面始興里	九尺	六六尺	二〇〇年
〃	〃	中垈面芳美里	五尺	五四尺	二〇〇年
槐木	〃	大旺面金土里	十尺	六〇尺	二五〇年
〃	〃	樂生面板橋里	十二尺	六〇尺	四〇〇年

楊州郡

第一節 名山

一、道峯山

道峰山은 本郡 議政府邑 議政府里에 自動車로 約十五分 가면 登山口에 이른다。白頭山의 一支脈으로서、議政府、長興、芧海의 三面邑과 서울特別市 崇仁洞에 걸친 疊疊의 連峰을 總稱하여 道峰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그 山勢의 雄과 壯은 성난 猛虎를 聯想시킬만 하고 起伏과 屈曲은 實로 自由奔放하다。그러면서도 오직 險하고 사납기만 한것이 아니라 雄秀의 壯觀美와 靈脈의 精銳의 美가 渾然一致가 되어 이루어진 山이다。

特히 望月寺의 後山으로 되어 있는 道峰과 마주침에서 그 雄과 壯과 優와 美를 다투고 선 天竺寺의 後山峰인 萬丈峰은 이 道峰 連山中에서도 精髓라 할것이다。

이 連山의 最高峰은 海拔 七百十七米의 高山인데다가、突兀萬仞의 銳峰은 그 全部가 岩石峰이다。數千、數萬星霜을 風雨에 깎이고 씻기고 한 岩石들이니 그 形象은 奇와 怪를 極하여、登山客이 佇立한 것으로 알고 가보면 奇岩이오 獸猛인가 보면 妙石이다。龍이 昇天하는 形態의 바위가 있는가 하면 龜形岩도 있다。

峰에 오르면 白雲을 탄 느낌이다。眼下에 連峰이 굼실거리고 幽谷의 神秘도 이를데 없거니와 거칠것 하나 없이 탁 티인 四面의 眺望은 實로 可觀 可賞이다。

李氏朝鮮의 五百年 鴻業은 오로지 이 道峰山의 精氣 때문이 었다는 傳說도 있다。이 道峰의 連山脈이 江原道 鐵原에서부터 一起、一伏 道峰에 와서 머물른 感이 있음과 鐵原에서 道峰까지의 山脈을 타고 온 里數가 五百里라 하여 이「五百」과 李朝 五百年의「五百」과를 連結지어 만들어 낸 이야기다。

二、佛巖山

佛岩山은 本郡 芧海面과 別內面에 걸치어 있다。倉洞驛 東쪽으로 바라다 볼수 있는 位置다。西便은 漢江支流 豆驗川平野 건너 北漢江과 對峙하고 있는 峻險한 岩山이다。

最高峰의 標高는 五百七十米요 峰 그 自體가 한개의 峻險한 巨巖같은 感까지 준다。

佛岩의 第二峰은 一峰 南쪽에 四百二十米의 標高로 屹立하여 그 사이에 深谷은 出遂한 맛이 있다。岩山이면서도 精巧를 다한 形形色色의 物體形 岩石과 數十。數百丈의 絕壁 바우름에 그림 처럼 매어달린 奇松、怪木、三春의 躑躅、九秋의 丹楓은 全山을 한 花園으로 이루고 만다。深谷에서 들려오는 杜鵑의 애끓는 울음 소리를 나무래듯 啄木鳥의 나무 뚫는 소리가 恪別 印象的으로 들려온다。

頂上에 오르면 山城址가 남아 있다。山城址 치고는 초라하여 烽火臺址가 아니였든가 하는 說도 있으나、亦是 土城址가 아닌가 하는 說도 있어 確然치 않다。이의 築造年代와 規格等이 하로 바삐 밝혀져야 할 것이다。

第二峰 南麓에는 古情幽雅한 二基의 陵墓가 있으니 康陵과 泰陵이다。

三、逍遙山

本郡 伊淡面 上鳳里에 位置한다。京元線 東豆川驛에서 約 八馬丁、東豆川과 全谷間의 簡易驛에서 나리면 四馬丁 程度의 路程이다。

逍遙山은 抱川郡 海龍山의 支脈으로 山勢가 비록 雄大치 못하나。石巉崢嶸하여 各個의 岩石과 樹木이 그 奇와 怪를 다투고 幽谷에 閑雲이 떠도는 雅趣가 詩情을 돋군다 하여 예로부터 京畿金剛、小金剛의 稱이 있는 勝景의 名山이다。

逍遙山 이라면 躑躅과 丹楓과 杜鵑과 瀑布를 聯想할만큼 꽃의 山이오、丹楓의 山이다。奇岩 아닌 平凡한 돌 한개가 없을 程度로 到處에 萬物相이오、高山은 아니면서도 골이 깊어 神秘感을 준다。

杜鵑의 우짖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哀切한 感傷을 이르키게 한다。深谷에는 깊은 안개 아니면 白雲이 덮이어 陽光을 받아 溯水로 錯覺을 지킨다。

逍遙山境에 들면 벌서 俗塵을 떤 느낌이다。內金剛 斷髮嶺에 접어들면 아모리 凡人이라도 削髮을 하고 싶어진다 하거니와 逍遙山境이 바로 그 느낌이다。山麓을 지나 入山하기가 무섭게 一大瀑聲이 山뿌리를 혀들어 놓는다。探勝客은 接山隣間부터 一種의 그윽한 神秘와 恍惚의 無我境에로 이끌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다。

이 第一瀑이 淸凉瀑이다。數十尺의 斷崖에서 飛流直下하는 瀑身은 그야말로 千汚萬塵에 더러워 진 俗世에서의 一切의 雜念을 씻쳐준다。이 地帶를 下白雲臺라 稱하여 온다。

이 淸凉瀑 안으로 들어가면 元曉瀑의 偉觀이 展開된다。눈이 부신 瀑身은 白布를 斷崖에 드리우고 흔드는 感이 든다。

逍遙로 하여금 小金剛의 稱이 있게 하고 있는 觀音、伊筆、藥水의 諸峰은 皆擧가 奇岩怪石으로 이루어 진 石峰이다。봄이면 꽃이、가을이면 丹楓이 珊瑚 그대로의 岩山을 곱게 丹裝해 주어 一層의 雅美를 더 한다。여기를 中白雲臺라 불른다。

여기에 大岩窟이 있다。岩窟에서 흘러 나오는 藥水 한목음은 疲勞를 싹 씻어준다。羅漢、義湘의 兩臺는 山中勝景으로 치는 곳이다。여기에서 元曉臺에 오르는 길은 그야말로 削壁 百餘尺의 아슬아슬한 險路다。이 元曉臺一帶가 上白雲臺라 命名된 곳이다。

文獻에는 山中에 中臺庵、小雲庵、逍遙庵等의 寺院이 있었다고 傳해지나 現有한것은 白在庵 뿐이다。이 庵子는 中白雲臺에 있는 조고만 伽藍이지만 그 創建年代는 千三百餘年前이다。新羅의 名僧 元曉大師의 開山으로 自在庵의 이름도 大師의 命名이라고 傳해지고 있다。그後 高麗朝에 이르러 第四代 光宗二十五年(檀紀三三〇七年)에 覺圭大師가 王命을 받아 精舍를 新築했었다。이 建物은 高麗 第十八代 毅宗 七年에 火災로 燒失되어 버렸고 近世에 이르러 高宗九年에 改修했으나、光武二年、또 燒失되고 現 建物은 그 翌翌年인 檀紀四二四〇年에 建築이다。

許穆의 逍遙山記에는 李太祖의 行宮이 있었다는 記錄이 있으나 現在 發見되고 있지 않다。

最近으로는 高宗九年 改修했고 光武十二年 兵火로 燒失 二年後에 再建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四、水落山

道峰山과 對峙하여 佛岩山 北方에 砂岩으로만 形成된 一獨立峰이 있으니 이 峰山이 水落山이다。倉洞에서나 議政府에 登山할수 있다。砂岩山 이어서 樹木은 鬱蒼치 못하나 山中에、金流洞、隱仙洞、玉流洞의 三澤이 있어 逍遙의 丹楓과 躑躅、道峰의 幽谷 鬱林에 애이지 않은다。이 三瀑은 서울 住民들에게 좋은 浴場이 되어 봄으로부터 가을까지에 延 幾十萬의 探勝客을 冥 한다고 한다。

또 水落山은 逸話를 갖고 있다。

水落山에 諸峯은 거의 全部가 漢陽을 向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다。太祖大王은 이 山落을 漢陽 守護山이라고 까지 嘉賞했다 하며 事實 水落連峯의 線은 바로 漢陽都의 防禦線이 된다고도 한다。

水落山의 位置를 楊州郡 州內面 이다。

五、紺 岳 山

本郡 最北端 坡州의 積城面과 接境이 되어 있는 山이 紺岳이다。標高 實로 七五〇米나 되는 高山이다。山勢의 雄壯함과 岩石의 秀麗함으로서 歷代 文墨의 巨人들의 入山記錄이 散在한다。

이 紺岳山頂에 一碑가 섰으니 俗稱「비돌大王」이라고 한다。口傳되

어 오는 대로를 적으면 이 碑石은 現 坡州郡 積城面 訥木里 앞 大路邊에 있어 本碑石 앞을 通過하는 사람은 階級의 如何와 職의 如何를 莫論하고 「皆下馬」해야 하는 法인데 李朝 末葉의 一武官이 村村들의 挽留도 듣지 않고 乘馬한채 지나 가다가 말이 의쪽에 쓸어지며 人馬가 다함께 急死를 했다고 한다。이것을 본 村老들이 이 碑石을 紺岳山頂으로 옮기게 했다는 것이다。

此山頂 上峰에 薛將軍이 隱身하던 隱所라는 石窟이 있다。薛將軍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서 알길은 없으나 丙子胡亂때 사람이 나올까?

六、望唐山

本郡 南面 한 中央에 솟은 獨峰이 望唐山이다。山姿도 아름답거니와 奇峰으로 이루어 진 岩山이다。

이 山中에 古來로 名藥이라고 傳해 오는 藥水가 있다。이 藥水에 關해서 傳해지는 說話가 있다。

現在도 이 南面 湖水里에 많이 居住하고 있는 南陽 洪氏의 始祖인 「直長公」이 死亡하여 그 子孫이 無學大師(一說에는 舞鶴道師라 하는 無學이 옳을 것이다)한테 特히 請하여 墓所를 잡은바、山役을 始作하고 나니 出水가 甚하다。할수 없이 山役을 中止하고 無學大師에게 쫓아가서 그런 事情을 이야기 하니까、

「그것이 무에 그리 걱정 되오。」

하고 가졌던 지팽이 끝으로 바위를 두세번 쿡쿡 찍으니 바위에서 玉水가 湧出 했다고 한다。그러고 가서 보니 山役자리에는 물끼 한방울 없어졌드라는 것이다。

이 大師의 지팽이로 뚫른 물 구멍이 오늘의 藥水터라고 傳해지고 있어 서울은 勿論 廣州、水原、利川 等地에서까지 이 藥水를 찾아 온다。어름처럼 찬 冷泉 藥水다。

第二節 寺刹

一、望月寺

本郡 議政府邑 虎院里에 隷屬된다。京元線 議政府와 서울 사이의 長水院에서 約 七粁丁 相距에 位置 한다。

望月寺는、新羅 善德女王 八年 卽 距今 千三百九年前 海浩祖師가 女王의 命을 받아 創建하고 新羅 서울인 慶州 月城을 바라보며 新羅王室의 隆盛을 祈願케 하였다 한다。望月의 寺名도 望月城 이란데서 取해졌다고 도 傳한다。

그後 高麗文宗 三十年에 再建했고 李朝 肅宗十七年에 三建、正宗四年에 四建했다고 하나 아직 確實한 年代가 考證되어 있지 않다。

寺宇의 規模는 壯大치 않다 해도 道峰山中의 最大寺로 建築을 雅美하고 寺境內는 老松鬱林에 쌓이었고 千古를 자랑하는 이끼 덮인 岩窟도 있다。境內에 들면 老松 가지 사이로 道峰의 깎아진 岩壁이 치어다 보이고 눈을 나리깔면 佛岩山의 奇峰이 그림처럼 展望된다。

堂宇는 釋迦牟尼佛을 奉安한 本堂外에 禪堂이 있고 한層 나려가서 洛迦庵이 있다。本堂에는 使節次 왔던 中國의 袁世凱의 書인 望月寺의 扁額이 걸려 있다。

望月寺에는 望月十景의 稱이 있어 예로 부터 文人墨客의 발그림자가 그칠날이 없었지만 特히 大院君은 數次 望月을 찾아 그 奇想天外의 政略을 構想했다고 한다。이 十景中 西山落照와 東臺望月은 그야말로 珍景이다。

本寺에서는 高僧、名僧이 많이 나왔기로도 이름이 높다。高麗의 慧炬、靈沼의 兩國師도 望月寺出身이오、李朝의 天峰、映月、道庵의 三神師도 名刹 望月의 出身으로 알려져 있다。

어쨋든 望月寺는 하로의 淸遊、探勝의 適地다。望月寺驛에서 溪谷을 끼고 올라 가면 巨岩怪石 사이를 흐르는 淸溪、杜鵑과 山鳥 소리에 귀

가 시끄러울 程度다。幽邃한 鬱林에 들면 벌서 仙境에 든 느낌을 禁치 못한다。

望月頌 一節을 引用하면

望月頌　　李朝 徐居正

長風飽帆漢水急　山中歸來酒初熟
枯腸得酒亦易醉　雙耳鳴時興自足
移樽飛山夢山顚　偸眼東峰待新月
新月欲灑生雲端　水輪無角金波纈
須臾懸在天中央　九州四海皆淸光
擧杯問明月不應　顧兎笑我多情狂
古人愛月皆儒仙　騎鯨寥廓猶千年
赤壁何時舞玄鶴　伯仲豪氣天下先
一樽滾々江無窮　今人古人將無同
五夜深深月不落　四佳醉老頭半白

本寺의 堂宇는 木造瓦家 五棟(望月寺、靈山殿、七星閣、獨星閣、落迦岩)이오、佛像과 石佛이 合七座、銅鐘이 있다。

二、檜岩寺

檜岩寺는 本郡 檜岩面 檜岩里에 位置한다。京元線 德亭驛에서 十里餘의 路程으로 天寶山 溪谷에 一盆地에 서 있는 小庵子에 不過하나、指空、懶翁、無學 三師의 浮屠(塔)와 碑石이 殘存한것으로 미루어 보아 昔日에는 이자리에 一大巨刹이 있었든것이 確實視 되고 있다。그것은 檜岩寺 附近一帶 萬餘坪에 걸치어 許多한 瓦片과 巨大한 殘礎等이 散在해 있는 것으로도 證明이 되고 있다。

現存한 堂宇는 貧弱하기 그지 없는 一寒堂에 不過하나 이 절의 創建은 멀리 高麗 忠肅王 十五年 卽 距 六百餘年前 指空師의 開山인 것이다。그後 高麗 恭愍王 二十三年에 王師 懶翁이 再建했고、李朝 九代 成宗三年에 重修하는 한便 增築도 했던 것이다。

本寺는 佛敎가 全盛했던 高麗時代에는、全國 寺刹의 總本山으로 國家의 保護와 援助까지도 받고 있서 檜岩寺의 僧侶는 一時 三千으로 算했던 일도 있다。그래서 이 寺의 主僧은 自然 法王과 같은 地位를 占有하고 있어 山麓의 部落名도 檜岩里이지만 面名까지도 檜岩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얼마나 이寺刹의 存在가 이 地方의 生活을 左右했던것도 推測 되는 것이다。

事實 史錄에 依하면 檜岩里 附近에 住民이 移住한 것도 이 檜岩寺의 三千僧侶를 爲한 生必品 調達이 主目的이었다고 한다。이로 보아서도 該寺의 隆盛期의 面貌가 想像된다。같은 僧房에 같은 솥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서로 얼골을 몰라 보았다고 하며 僧의 죽 끓이는 가마가 어찌 큰 솥안에서 배를 타고야 죽을 저으러 다니었다고 하니 想像할수 있다。三千名의 僧侶가 들끓었다면 그 當時의 建物도 推想할 수가 있다。

이렇듯 雄壯하던 大刹이 沒落한 것은 李朝 第十三代 明宗代다。卽 明宗代 五年부터 二十年까지에 全佛敎徒에 頭角을 나타낸 僧은 普雨師였다。明宗의 信任도 두터웠거니와 第十一代 中宗의 繼妃后인 文定王后의 篤信이 普雨로 하여곰 그렇게 得勢를 하게 했던 것이다。普雨師의 기침소리면 山中虎도 지기를 못 했고 山鳥 또한 조심을 했으며 溪谷의 물 까지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하니 當時의 權威가 얼마나 했던가도 想像이 된다。

이 普雨師는、그해 四月八日 釋迦의 誕生日을 卜하여 檜岩寺內에서 全國佛徒의 無遮大會를 開催키로 하고 全國 寺刹에 이를 告示했었다。全國의 僧侶가 雲集하여 天寶山은 僧侶山이 된 感이 없지 않았다。이때 宮에 不幸히 생기었다。中宗의 繼妃요、明宗에게는 國母인 文定王后 尹氏가 돌아간 것이다。그러나 普雨는 佛陀의 誕辰日인만큼 妃의 喪에도 不拘하고 無遮大會를 斷行한 것이 말성이 되었다。全國의 僧林들은 「可斬」이라고 떠들어 때고 宮中에도 普雨師에 對한 非難聲이 우

퇴처럼 울리고 있었다。事實 普雨師가 오늘의 築臺를 엽은 것은 그의 修行에도 있었지마는 이 文定王后의 힘이 大分部이었든 點으로 보아 非難을 받을만도 했던 것이라。普雨師는 드디어 起訴되어 妖僧의 烙印을 받고 濟州島로 流配되었고 寺院은 沒落한 것이다。

그래도 겨우 命脈을 維持해 오고 있던 檜岩巨刹을 저 더러운 발이 國土를 짓밟던 壬辰倭亂때 敵의 兵火로 아깝게도 烏有化하고 現存의 小伽藍은 李朝 二十三代 純祖二十一年 約 百三十年前의 建造物이다。

이 創寺의 特色은 全國의僧侶들이 合力하여 集團的으로 建寺한點이다。

檜岩寺頌　　高麗朝 李穡

檜樹蒼蒼石勢頑　　葉間風雨半天寒
老僧出定忘聲色　　頭上光陰走似凡

三、普光寺

普光寺는 距今 千二十五年前 新羅末葉의 國師 道詵의 創建으로 一時는 隆盛했으나 壬辰倭兵의 兵火로 完全히 燒失된 것은 約 三百餘年前 雪眉、德仁 兩師가 主勤이 되어 再建을 했다。

規模는 적어도 莊重한 建築이다。옛날에는 本寺 後院으로 典雅한 觀楓樓가 있었으나 지금은 石橋만이 남아 있다。

山壁에 巍峯、守口의 二小庵이 비를기 장 처럼 매어 달렸다。庵庭에서의 眼下眺望은 明媚를 極하거니와 巍峯庵은 鶯鵡峰頂上에 있어 여기에서는 三角、冠岳、松岳의 三峰이 空中에서 그 雄을 다투는 樣을 한눈으로 바라볼수가 있다。눈을 번쩍 들면 西流한 漢江水가 黃海로 들어가는 것을 望見할수 있는 奇勝地다。

四、回龍寺

本郡 議政府邑 虎院洞에 있어 道峰이 東北端 地點이다。

現存한 三十間의 寺院은 七十年前 大院君이 重建하다가 壬午兵亂으로 中止 된체 放置 되었던 것을 明成皇后가 重修를 完成한 것이다。

現存한 寺院建物은 古雅한 맛이 적고 歷史的으로도 볼만한 것이 없는 寒寺이기는 하나 境內의 水石은 이를데 없이 아름답다。寺院 뒤에 石窟 두개가 있어 李太祖가 李氏朝鮮의 始祖로 登極하기前 名僧 無學과 함께 이 洞窟속에서 三年間 至誠을 들였다는 傳說이 있다。그後 李成桂는 義州 威化島에서 回軍하여 王朝를 쓸어트리고 無學을 이 山中에 찾았다는 傳說이 있다。그런 事實의 眞否는 判定키 어려우나 現寺境에 古刹이 있었든 것만은 믿을수 있다。

그러나 한번 寺境에 발을 들어서면 寺史의 깊고 얕고도 堂宇의 낡고 헐고도 도시 머리에 오지 않는다。寺境에 든 사람은 먼저 그 水石의 아름다움과 松籟에 가슴이 터이는듯 싶은 歡喜에 잠기고 만다。

五、奉先寺

本郡 榛接面 富平里에 있다。創建은 距今 四百八十餘年前 李朝 第九代인 睿宗 元年이다。奉先의 寺名도 睿宗의 命名으로 된것이오、先王 世祖大王의 遺業을 敬慕하고 그 德을 받들기 爲하여 貞憙王后 尹氏로 하여금 이를 推進 시키었다。

그後、距今 三百六十年前 第十四代 宣祖二十五年에 兵火를 입어 全燒했으니 이 兵火란 바로 壬辰倭亂이다。倭軍은 우리 나라를 占領 하는것도 目的의 하나였지만 우리의 固有한 文化을 抹殺 하는데 큰 動機가 있었든것 같다。이러한 그들의 政策은 到處에서 엿볼수 있었으니 釜山에 上陸하여 서울까지 侵犯하는 동안、中路에서 寺刹、古蹟、建物等、우리民族의 文化的 遺物이란 遺物은 發見하는대로 破壞、放火하여 烏有로 歸케 하였다。이 奉先寺만 해도 그때는 僧兵이 駐屯하지도 않았것만 일부러 放火케 한것이다。

이렇듯 兵火를 입어 灰燼化된 奉先寺는 그러나 그 翌年에는 거짓말처럼 새로 섰었다。朗慧大師가 그任을 맡아 完成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再建된 殿宇는 또 한번 融祝의 禍를 입지 않으면 안 되었

으니 그로부터 約 四十五年後인 李朝 十六代 仁祖 十四年 十二月 鴨綠江을 건너 十三萬 大軍을 이끌고 淸太宗 自身이 入寇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곧 丙子胡亂이다。

이 胡亂의 兵火로 山中의 大殿堂이던 奉先寺의 建物은 또다시 灰로 化하고 말았었다。

이렇듯 두번이나 灰燼化한 本寺는 그 翌年에 僧、戒敏에 손에 依하여 또 다시 三創 되었으니 이로만 보더라도 當時의 宮中에서 이 奉先寺를 얼마나 重大視했던가를 알수 있다。 李朝 十三代 明宗은 그 十七年에 敎宗本山에 이 奉先寺를 封하고 高宗은 우리나라 三十一本山으로 昇格을 시키었다。

悠久한 歷史를 가진 奉先寺는 그 境內만도 三千餘坪에 達한다。 三面의 眺望도 眺望이려니와 水石의 美는 비길데가 없고 建物만 해도 글자 그대로 大雄이오、莊重한 大雄殿을 비롯하여 三聖閣、御寶閣、放跡堂、香爐殿、判事室、淸風樓、食堂樓、廊舍、儼月齋、涅槃堂等의 古雅 莊重을 極한 大小의 十餘建物들이 鬱林속에 묻치어 俄然 雲岳山中에 一大宮闕이 선 感을 주고 있다。

盛夏의 綠陰도 좋거니와 全山이 紅化한 丹楓節의 風趣、또한 勝景에 値한다。 三冬의 雪景은 또 뉘가 마다 하랴。

있엤든 奉先寺는 名勝으로서 뿐이 아니다。 考古學的으로 한번 探訪할만한 名刹이다。그러나 아까웁게도 六·二五事變으로 本殿이 灰燼되어서 往時의 面貌를 보지못함은 遺憾이다。

六、水 鍾 寺

本寺는 瓦阜面 松村里에 있다。 大槪의 寺刹은 中腹에 있는것이 普通이나 水鍾寺는、雲吉山 絶頂에 位置하여 恰似、空中에 뜬 樓閣 그대로의 雅淡한 伽藍이다。 眼下에 漢江水 山麓을 끼고 돌아 山影이 물에 잠기고 二水簇子의 島影이 碧水에 뜬 風光은 明媚 二字로서는 오히려 遜色이 있다。

寺宇는 비록 三十坪內外의 小建物 四棟에 不過하나 勝景과 創寺由來로서 이름이 높이 알려져 있다。

李朝 第七代 世祖六年이니 오늘로 부터 四百九十年前이다。 世祖王은 自然探勝을 즐기었거니와 中國人으로 하여곰 願生高麗國 하여 金剛山을 한번 보고지고——라고 까지 일컫는 金剛山을 아니 볼수 있겠느냐고 文武官을 거느리고 金剛山의 探勝을 떠났었다。 그 歸路에 王은 日暮하여 二水頭(現 兩水)에 一泊하게 되어 깊이 잠이 들었는데 夜半난데없는 鐘聲이 들리어 잠을 깨었었다。 翌日 아침 起床하는길로 王은 住民들을 불러 昨夜의 鐘聲의 出處를 물었으나 鐘聲이 날만한 곳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뒤 雲吉山中에 古刹의 遺址一基가 남아 있을 뿐 이라는 것이다。 王은 卽時 이를 探査케로 했던바、뜻 밖에도 그 寺址의 岩穴에서 十八羅漢을 發見하고 王命으로서 여기에 創寺케 하고 寺名도 水鍾이라 命名했다。

그後 風雲霜雨 四百年을 지나는동안 水鍾寺는 創建當時의 面貌를 찾아 볼수 없게 쯤 되었다。 이를 二十六代 高宗이 大重修를 하여 오늘의 面을 維持하고 있다。

이런 寺名의 由來를 듣고 同寺에 一泊하면 정말 一種이 神秘를 느끼게 된다。 最近 同寺 佛塔中에서 金銅佛像이 八坐가나와 約四百年前의 造作으로 一種의 國寶的價値가 있다하여 考古學界에 話題를 던지고 있다。

七、興 國 寺

楊州郡廳에서 南쪽인 別內面 德松里 水落山麓에 興國寺가 있다。

이 興國寺는 新羅 第二十六代 眞平王 二十一年 庚申에 圓光法師의 開基로 創造初에는 水落寺였다。 距今 一千三百 五十五年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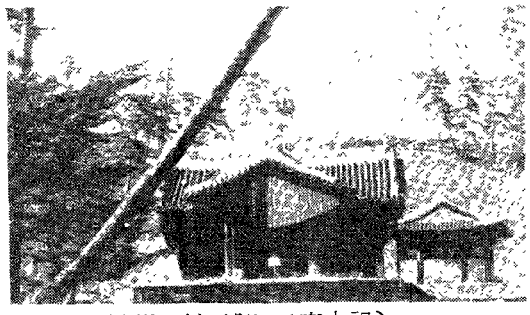
오늘의 寺名은 李朝 第十五代 宣祖 元年 戊辰이었으니 그해 宮中에서 德興大至願堂의 造築케 하고 扁額을 나리어 興國寺라 改稱한 것이다。 距今 三百八十七年前이다。

그後에는 哲宗七年、丙辰에 隱峰 信女 梁氏의 補助를 받아 六面閣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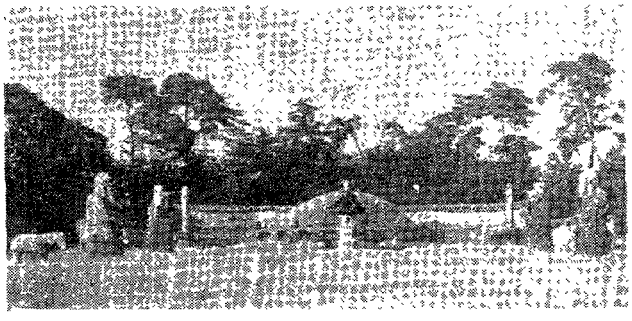
京畿道의代表的陵墓一覽 其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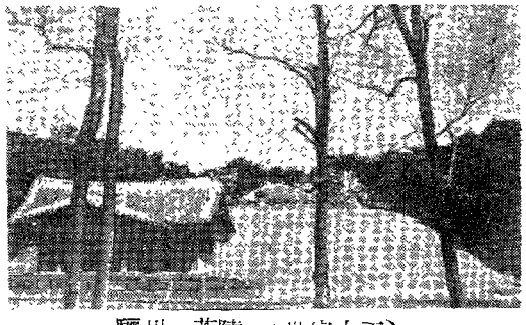
廣州 宣陵 (成宗大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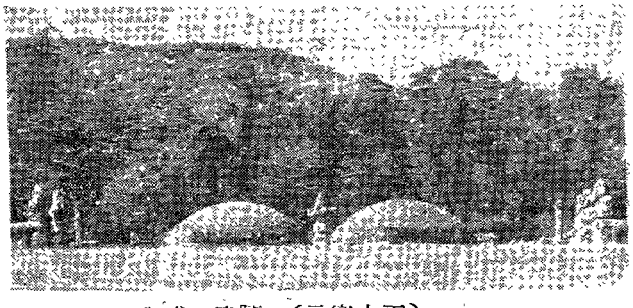
楊州 健元陵 (李太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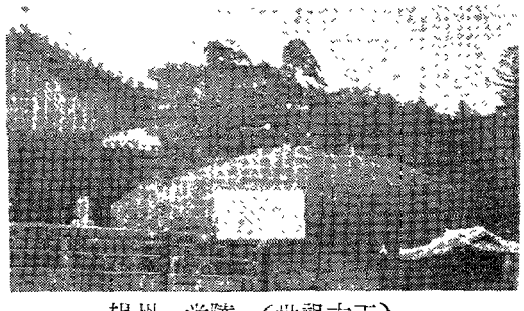
高陽 禧陵 (中宗大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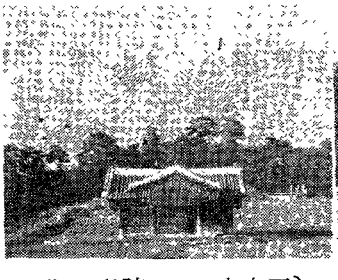
驪州 英陵 (世宗大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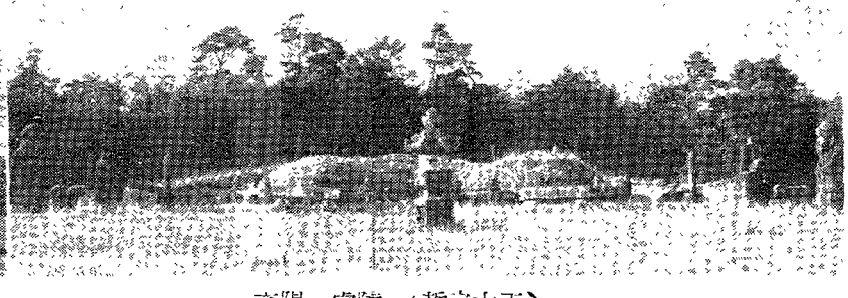
金浦 章陵 (元宗大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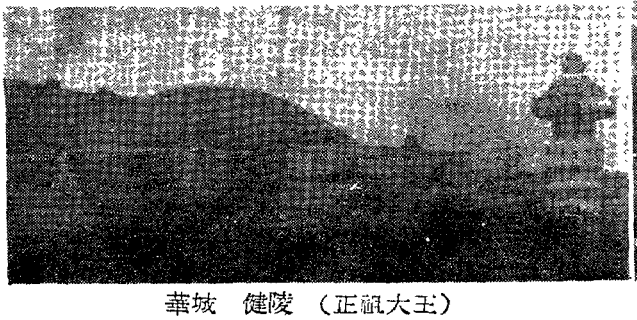
楊州 光陵 (世祖大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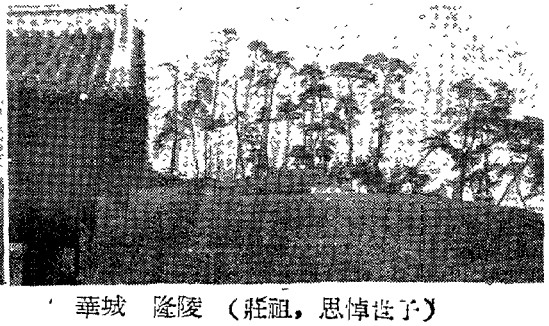
高陽 孝陵 (仁宗大王)



高陽 睿陵 (哲宗大王)



華城 健陵 (正祖大王)



華城 隆陵 (莊祖, 思悼世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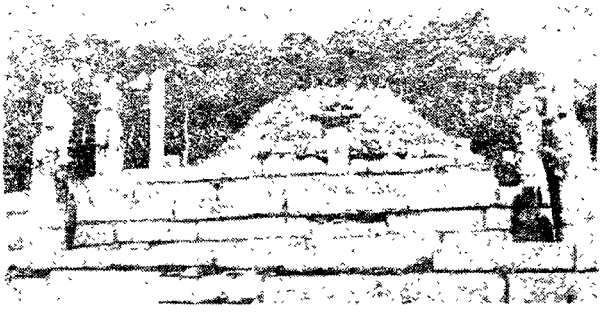
京畿道의代表的陵墓一覽 其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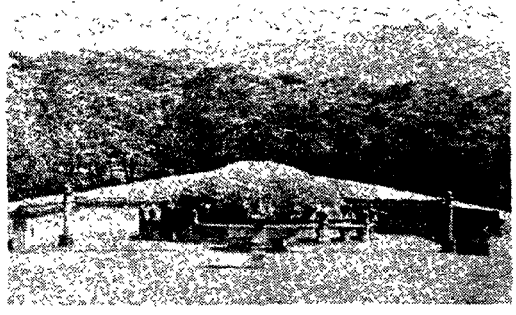
開豊 顯陵 (高麗太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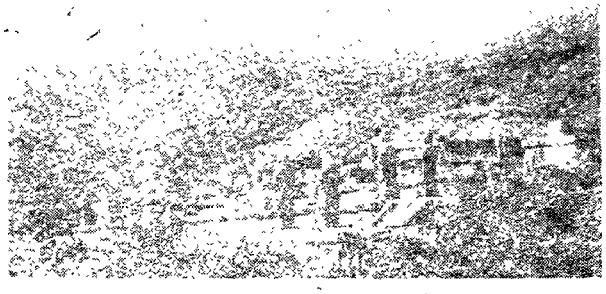
楊州 洪陵 (高宗皇帝, 明成皇后)



開豊 七陵群中 第三陵



楊州 裕陵 (純宗皇帝)



開豊 正陵, 玄陵 (恭愍王, 魯國公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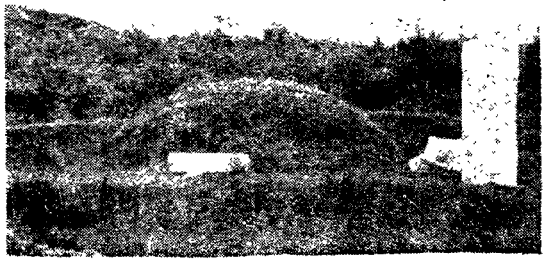
坡州 李栗谷先生墓



龍仁 鄭圃隱先生墓



驪州 李浣大將墓



利川 徐敬土墓



龍仁 閔忠正公墓

重修하고 純宗七年에 蘗庵、濟庵 兩化主가 十王殿(佛像)을 重修、同十七年 戊寅에도 佛殿 寮舍가 全燒 된것을 庸庵 長老의 盡力으로 壬午에 大雄殿도 重建했고 其他 寮舍 三十七間을 新築 오늘의 面貌를 維持하고 있다。

寺寶에는 左記의 珍品이 保存되고 있다。

經板

一、彌陀經簇子板 一部 安海藏殿
一、蓮宗寶鑑板 一部 〃
一、十六觀經板 一部 〃

屛風

一、御筆屛風 八疊 一座
一、十長生壽屛風 八疊 一座

以外에 鍾 一個가 있다。鐵造로 珍品이다。

寺史가 오라니 만큼 寺境內의 勝景 또한 그윽한 情緖를 돋구어 준다。水落山에는 三瀑이 있어 淸遊할만한 곳이다。이름하며 隱仙、金流、玉流의 三瀑이다。

八、其外寺刹

楊州郡에는 上記한 寺刹以外에도 石材、雙林、道林、奉永、第一普光、普門、妙寂等의 小寺가 있고、白峰庵을 爲始하여 石窟、松林、自在、見聖、燦釗、觀音、慈賢、淨坊、成道等의 大小庵子가 있다。

第三節 陵墓

本郡에는 實로 많은 陵墓가 있다。이는 本郡이 五百年間 李朝의 國都인 서울의 邊州 이었던 것이 그 가장 큰 理由겠지만 古來로 또 사람의 住宅地보다도 墓地에 더 奢侈를 해온 風水說로 하여 山水가 秀麗하고 風光이 明媚한 곳을 찾았기 때문 이기도 할것이다。寺刹이 많고 陵墓가 많다는 그 自體가 그 地帶의 勝景을 代辯해 준다。

實로 本郡에는 東九陵을 爲始하여 金谷、光陵等 十餘의 陵이 있다。規模에 있어 多少의 差는 있고 格도 若干의 變化는 있으나 大體로 同一하다。卽、寢殿、御墓、碑閣、齋室、齋箭門等 大同少異한 規模와 規格이다。

本郡에 散在한 이等의 陵墓는、光陵과 金谷陵을 除外한 東九陵은 全部가 九里面內에 있다。이等 陵墓는 仁倉、四老、葛梅、新內의 四個里에 걸치어 있어 하로에도 探拜할수가 있다。

이 陵地 一帶는 歷史的으로나 硏究의 好資이기도 하지마는 예로부터 陵 一帶는 勝景地로 그 一帶에는 一般 民間에 禁斷地였던 關係로 千古의 鬱林이 白晝에도 으히려 어두우리만큼 密生하여 神秘城을 이루고 있다。山의 明媚와 물의 淸雅도 그러려니와、妙와 奇를 다한 老松들의 風趣 또한 仙境의 印象을 준다。

이제 本郡內의 陵墓表를 들면 다음과 같다。光陵이 榛接面 富坪里요、金谷陵이 漢金面 金谷里에 있을뿐 東九陵은 全部가 九里面內에 散在해 있다。

陵名	位號
健元陵	太祖大王
顯陵	文宗大王 顯德王后
徽陵	莊烈王后
穆陵	宣祖大王 懿仁王后
崇陵	顯宗大王 明聖王后
惠陵	端懿王后
元陵	英祖大王 貞純王后

陵名	位號
綏陵	文祖皇帝 神貞皇后
景陵	憲宗大王 孝顯皇后 孝定皇后
光陵	世祖大王 貞熹王后
洪陵	高宗皇帝 明成皇后
金谷陵	
裕陵	純宗皇帝 純明皇后

一、光 陵

光陵은 李朝 第七代 世祖大王와 大王妃 貞熹王后 尹氏를 뫼신 陵이다。이 陵域에는 創陵當時부터 一切 禁伐法이 나리어 實로 幽邃無比의 美林과 溪谷의 溪流는 抒情的이오 神秘롭다。北에는 注葉山、南에는 雪峰、中央에 雪岳의 諸雄峯이 어깨를 다투고 있다。이 雄峯들은 山麓에서부터 絶頂까지에 한치 한分의 餘白도 없이 天然 鬱林이 덮이어 禽獸의 棲息地가 되어 주고 있다。

雪岩山中에는 三十一本山의 一인 奉先寺가 있다。

光陵의 造林은 國內的으로만이 않이라 世界的으로도 그 珍價가 알려지고 있다。

光陵山林은 李朝 第七代 世祖大王 在位時부터 一切 斧伐을 嚴禁하여 造林해 온 林野다。解放卽後의 그 混亂期에도 이 光陵林木만은 若干의 被害밖에 받지 않었다。現在 國有 保護林으로 되어 있는 二千三百餘町步에 舊王宮 所有林、學校林、寺刹林等이 있다。

政府에서는 이 一帶에 造林施設等에 着手、大規模의 林業試驗場을 計劃中에 있다고 傳聞된다。現在에도 이 一帶에만、樹種 四十餘科에 百三十九種이 있고 世界에서 唯一한 天然記念物인 「크낙새」와 靈鳥라는 佛法僧(三法鳥)의 棲息地이다。

이 크낙새와 三法鳥의 學究的 價値는 外國學者들이 이 새만을 보려 解放後에만도 數名이 단여간것으로 推測할수가 있다。

이 새가 世界學界에 처음 紹介된것은 距今 七十餘年前 英國人學者가 英國 動物雜誌에 紹介한때부터다。그後 六十四、五年前에도 露學者가 自己 나라에 紹介하여 全世界的으로 알려졌다。

이 珍鳥를 好奇心으로 잡는 사람들이 많음은 遺憾으로 더욱이 狩獵人들은 絶對 쏘지말도록 團束이 되어야 할것이다。

二、東 九 陵

ㄱ、健元陵

健元陵은 高麗王代로 부터 이나라의 政權을 이어 받은 李朝 始祖(李成桂) 太祖의 陵墓다。

李太祖는 李朝 開國前 五十七年 乙亥 十月十一日 咸鏡道 永興 黑石里私邸에서 誕生했고 高麗王朝에 鄭夢周、鄭道傳、崔瑩 等 重臣과 함께 重用되었다。麗末 北伐의 命을 받고 進軍하다가 義州에서 回軍 麗朝를 쓸어트리고 太祖元年 七月十六日 松京 壽昌宮에서 卽位했다。

太祖二年 癸酉 二月十五日 國號를 朝鮮이라 稱했고 三年 十一月 漢陽遷都、同 七年 戊寅 九月五日 定宗大王에게 傳位한後 主로 議政府 別殿에서 政治顧問格으로 餘生 十年을 보내었다。

太祖大王이 昇遐하기는 開國한지 十七年 戊子 五月二十四日 昌德宮 廣延樓下 別殿에서다。

이 健元陵 葬禮는 그해 九月九日이다。

ㄴ、顯 陵

李朝 第五代 文宗大王의 陵墓이다。

文宗은 開國二十三年 甲午 十月三日 漢陽 私邸에서 誕生하여 開國五十九年 世宗三十二年 壬午 二月二十二日 別宮에서 卽位。

開國 六十一年 壬申 五月十四日 景福宮 千秋殿에서 昇遐하였고 葬禮는 九月一日 이었다。

ㄷ、穆 陵

穆陵은 李朝 第十三代 宣祖大王을 뫼신 陵이다。

宣祖 大王은 開國 百六十一年 十一月十一日 誕生이오 卽位式은 開國百七十六年 丁卯 七月三日 이었다。式은 景福宮 勤政殿에서 擧行되었다。

宣祖大王은 在位年限도 四十年이나 되어 治績도 많았지만 亂도 많이 겪었다。

昇遐하기는 開國二百十七年 戊申 二月一日 皇華坊 離宮에서요 穆陵 葬儀는 六月十一日 이다。

ㄹ、徽 陵

李朝 第十四代 仁祖大王 莊烈王后의 陵墓로、 王后는 開國 二百四十七年 十二月三日 仁祖大王과 嘉禮 王妃로 冊封되었었다。

開國二百九十七年 戊辰 八月二十六日 昌慶宮 內班院에서 昇遐、同年十二月十六日 徽陵에 葬하다。

ㅁ、崇 陵

李朝 第十六代 顯宗大王의 陵墓다。顯宗大王은 開國 二百五十年 辛巳 六月四日 瀋陽館에서 誕生하여 二百六十八年 乙亥 五月九日 昌德宮 仁政殿에서 王位에 올랐다。

昇遐하기는 開國 二百八十三年 甲寅 八月十八日 昌德宮 齋殿 養心閣에서 효 崇陵 葬儀는 同 十二月十三日이다。

ㅂ、惠 陵

惠陵은 李朝 第十八代 景宗大王의 王妃 端懿王后 沈氏의 陵墓다。王妃는 開國 二百九十五年(肅宗十二年) 丙寅 五月二十一日 好賢坊 會賢洞 寓所에서 誕生、開國 三〇五年 肅宗 二十二 丙子 八月三十一日 景宗大王과 嘉禮。

開國 三二七年 戊戌 三月七日 昌德宮 長春軒에서 昇遐、同年 四月十九日 安葬 三二九年(肅宗四十六) 庚子 六月十五日 惠陵이라 進號했다。

ㅅ、元 陵

李朝 第十九代 英祖大王의 陵墓다。英祖大王의 誕生은 開國 三〇二年 癸未 九月十三日 昌德宮 寶慶堂에서다。

開國 三三三年 甲辰 八月三十日 昌德宮 仁政殿에서 卽位、開國 三八五年 丙申 三月五日 慶熙宮 集慶堂에서 昇遐、同 七月二十七日 安葬 元陵이라 稱하다。

ㅇ、綏 陵

綏陵은 追尊王인 文祖翼皇帝의 陵墓다。 李朝 第二十二代王父로 開國 四一八年(純祖九年) 己巳 八月九日 昌德宮 大造殿에서 誕生、同 四二一年(純祖十二年) 壬申 七月六日 王世子에 冊封되었다。 同、四三九年 庚寅 五月六日 昌德宮 熙政堂에서 昇遐했다。

翼宗大王으로 追尊된것은 開國 四四三年 憲宗 元年 乙未 五月十九日이었고、文祖翼皇帝로 再追尊된것은 光武 三年 乙亥 十二月七日이다。

開國 四六四年(哲宗六年) 乙卯 八月二十六日 楊州 龍馬峯下에 있던 「延慶墓」를 移葬하여 綏陵이라고 改稱했고 追尊王妃 神貞翼皇后 趙氏(第二十二代 王母)로 合葬했다。

ㅈ、景 陵

李朝 第二十二代 憲宗成皇帝의 陵墓다。 憲宗의 誕生은 開國 四二六年(純祖二十七年) 丁亥 七月十八日 昌慶宮 景春殿에서다。

卽位는 四四三年、純祖 三十四年 甲午 十一月十八日 慶熙宮 崇政門、開國 四五八年 六月六日 昌德宮 重熙堂에서 昇遐 同 十月二十八日 安葬、景陵이라 일컫다。

王妃 孝顯成皇后 金氏 繼妃 孝定成皇后 洪氏도 이에 合葬되어있다。

ㅊ、洪 陵

洪陵은 李朝末의 가진 風雲을 다 꺾은 高宗皇帝의 御陵이다。興宣大院君의 第二子로 開國 四百七十三年 甲子 十二歲에 哲宗의 뒤를 이어 光武 元年 十月十二日 卽位、檀紀 四二五一年 十二月十九日에 昇遐하기 까지에 閔妃와 大院君과의 軋轢과 新舊 思潮의 對立、國際情勢의 多樣 等、實로 數많은 亂을 겪었었다。

洪陵은 高宗께서 當身이 몸소 다니면서 探索해 낸 陵地다。 薨去後 四、五年間 創陵事業을 해 왔던 것이다。

殿閣、碑閣、齋室、石物等 陵規에 依한 一切가 具顯했으나 美術的 價値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으 專門家의 定評이다。

明成皇后로 附했다。

ㅋ、裕 陵

純宗의 陵墓니 純宗은 檀紀 四二〇七年 甲戌 二月八日 誕生으로 翌

年 乙亥에 王世子로 冊封 四二四〇年 丁未 七月十九日에 皇帝 卽位、四二五九年 三月十四日 昇遐한 悲劇의 王이었다。

陵墓 規格과 制度는 洪陵과 同一하다。

ㄹ、思 陵

思陵은 楊州 眞乾面 思陵里에 있다。 李朝 五百年을 通한 悲劇의 幼王 端宗의 妃 定順王后 豐山 宋氏陵墓다。

同妣는 世宗 二十二年에 誕生、端宗의 王妃로 冊封했으나、世祖大王이 端宗을 寧越로 追放하자 同妃도 民으로 降籍 中宗 十六年 六月四日 春秋 八十二로서 昇遐하였다。

이 端宗大王 妃는 어려서 端宗과 請婚하자 마자 端宗이 廢位되어 寧越로 流配되어 간뒤 홀로 남을 그리우다 餘生을 마추었다。 王妃의 心懷를 알아 줌인저 思陵에 심은 나무는 全部 寧越쪽으로 머리를 숙인다고 까지 傳해진다。

一 庶民으로 떨어져 버린 端宗王妃의 墓를 陵으로 삼고 思陵에 封한것은 肅宗大王이다。 肅宗은 在位 二十四年 端宗께 追復位하고 思陵에도 特命을 나렸던 것이다。

ㅁ、其他(光海墓)

宣祖大王의 二子로 誕生、世子 冊封이 親兄에게 繼承될듯싶자 兄을 謀殺하고 戊申 二月에 卽位、在位 十六年間 暴君으로 臨하였다。 仁祖反正으로 癸亥 三月十三日 廢位 되었다。

同墓는 個人墓와 類似하다。

第四節 史話

一、昭寧園

本郡 白石面 靈長里에 昭寧園이라는 墓가으니 이는 곧 英祖大王의 生母이신 崔氏의 陵墓다。 卽 肅宗과 崔氏사이에서 所産이 英祖大王이다。

이 昭寧園의 來歷을 알자면 먼저 肅宗과 그의 妃 仁顯王后와 繼妃이던 張氏、그러고 이 昭寧園의 主人公인 崔氏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肅宗 十四年——이라면 東、西 兩人의 黨爭이 最高潮에 이르렀을 무렵이다。 東人과 西人은 當者 뿐 아니라 全家族은 勿論 그집에 出入하는 占쟁이 巫女까지도 두패로 갈리어 심지어는 개 까지도 만나면 서로 싸우던 時節이다。

이 肅宗 十四年에 王이 눈이 어둘도록 寵愛해온 寵妃 嬉嬪 張氏가 王子를 解産 했던 것이다。 張氏는 傾世의 絶色이라고 까지 떠들던 美人이었다。 張氏의 一喜一悲는 그날 王의 政事에 그대로 나타났고 張氏의 한마디에 그날로 政丞이 불고 떨어졌고 高官大爵의 生命도 張氏의 한마디면 그날로 없어졌다。

이 張氏가 王子까지를 낳았으니 張氏의 氣勢 나는 새도 앉아서 떨어트릴 판이다。 張氏는 東人의 支持를 받고있는 女人이었다。 東人들은 이 張氏의 勢力을 無限大 하여 利用하고 있었다。

張氏는 王子를 낳고도 웃지를 않았다。 王이 몇번이나 勸해도 끝내 웃지를 않는다。 王이 그 理由를 물어도 그 對答까지도 않는다。 王은 미칠것 같았다。

王은 焦燥했다。 슬펐다。 미칠것만 같았다。

그러나 겨우 理由가 判明이 되었다。 張氏가 王子를 낳고도 웃지를 않는 까닭은 王子를 나면 무엇 하느냐는 것이다。 王妃인 仁顯王后가 嚴然히 살아 있는 以上 自己가 무엇이 냐는 것이다。

「王子를 爲해서 이옵니다。 王子의 將來、아니 王子님의 목숨을 위해서 입니다。 언제 어느손에 죽을지 모르는 저의 母子이옵나니 어찌 웃음이 나오겠나이까?」

무서운 이야기 였다。 무서운 소리였다。 肅宗大王은 三十이 되도록 아직 王子가 없었던터였다。 이제 겨우 王子를 얻었거늘、이 王子를 害치라는 者 누구냐?

그러나 그것은 張氏의 謀害였다。正妃 仁顯王后는 그럴 夫人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못 생각이니이。」

「저도 그르옵나이다。」

「그러면? 누가 그러든가? 누가 잘 아는가?」

「저 內人 雪香이 한테 물어 주옵소서。」

張氏는 이렇게 돌아 누어 느끼고 만다。

張氏와 內人 雪香、巫女、占卜者 이렇게 꾸며진 劇本 이었다。原作、脚色 實演 이 모두를 張氏와 雪香이가 마조 앉아서 合作 한것이니 雪香이의 입에서 만말이 나왔을리 없다。

王은 最後의 斷案을 나리었다。張氏의 生産兒를 王世子로 封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모두가 反對였다。領議政 金壽恒도 反對였고 吏曹判書 南龍翼과 時機尙早라 附言했다。王은 大怒했다。領議政 金壽恒의 목이 달아났다。死刑이었다。두번째 吏曹判書의 목이 또 떨어졌다。死刑이었다。王은 尤菴 宋時烈을 불러 들였다。宋尤菴은 元老였다。尤菴도 時機尙早라 했다。

宋尤菴에게 또 死藥이 나리었다。

吏判 朴世采、領相 南九萬은 流配였다。

張氏가 解産을 하자 張氏의 母가 轎子를 타고 外孫子와 相面을 하러 入宮하는것을 보고 宣仁門 앞에서 끌어 나리었다。持平 李益壽의 命令이었다。가마는 부수어졌다。張氏의 母는 一賤人、賤人이 轎子를 타고 入宮은 禁法이었든 것이다。

王은 大怒하여 持平 李益壽는 罷免하고 內需司에게 시키어 李를 慘殺했다。

여기는 그럴 理由가 있으니 卽 張氏가 낳은 王子는 肅宗의 씨가 아니라는것을 알기 때문 이었다。

이토록 王이 하고자 하는일에 어째서 高官大爵들이 反對를 했던가? 거기에는 前記와같은 理由로

王子는 肅宗의 씨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肅宗이 信任하는 사람에 東平君 杭이 있었다。先王 孝宗의 아우요、肅宗에게는 叔父다。

이 東平君은 王의 信이 두터워 宮中에 無常出入을 했다。그러는 동안 張氏와 通하고 만것이었다。모르는 사람은 肅宗뿐 宮中이 다 알고 世上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王은 그것을 모른다。

流配로 이 事實을 王께 諫했다가 死刑을 받은것이 吏判 朴世采와 領相 南九萬 이었다。

王의 決意는 굳었다。거기에 南人들이 機會를 본것이다。處刑當한 사람들은 모두가 西人 이었다。尤菴 宋時烈도 西人 이었다。

南人 李玄紀、南致董等이 擡頭해서 張氏를 東宮에 封하고 大妃 仁顯王后는 廢妃가 되어 庶人이 되어버렸다。宮을 나갈때도 庶人의 가마를 타야 했다。大妃가 耀金門을 나와서 安國洞 本家에까지 가는동안 儒生들은 伏地鳴咽을 했었다。領中樞府事 李尙眞이 諫하자「今後의 諫者는 逆律로서 處斷하리라。」

一蹴하고 張氏를 王妃에 冊立하고 張氏의 父 張炯을 玉山府院君、其母를 坡山府夫人이라 稱했다。

그렇듯 어느날 밤 王은 便服으로 蓮塘 가을 거닐고 있었다。달밤이었다。많은 사람을 죽였고 大妃도 내어쫓고 마음도 便치가 않았다。

그때다 沐浴 하는 소리가 들린다。그 소리를 따라 가니 一女人이 月光에 冷水浴을 하고 있다。肅宗은 마음이 달라졌다。王은 女人에게 接近하였다。女人이 들을理 없다。

「나는 삼갑 이노라。」

그말에 女人은 엎디어 對答 하였다。

「小婢는 閔宮 마마(仁顯大妃)의 侍女온바 마마께서 無罪 得罰 하지

너 宮밖에 계시온데 어찌 小婢 罪人으로서 삼감께 가까이 할수 있아오리까。」

「어재서 네가 罪人이라 하는고?」

「閔宮마마께서 그런 누명을 쓰셨음은 侍女 小婢의 말들지 못 함에서오니 어찌 罪人이 아니오리이까。」

이 말에 王은 깨우쳤다。侍女 崔氏는 다시 말을 이어

「상감마마 께옵서 謝氏南征記를 읽으셨나이까?」

王은 寢殿으로 돌아 왔다。事實「謝氏南征記」를 읽었었다。읽고서 疑訝하던 次였다。「謝氏南征記」는 文人 金春澤이가 달리 王께 말할수 없어 小說形式으로 張氏와 그의 周圍 謀略을 그린 것이였다。

王은 비로소 깨우쳤다。그리하여 張氏와 東平君、大妃 仁顯王后를 謀殺 하려던、內人 雪香 巫女 一派에게 全部 死藥을 내리었다。

仁顯王后는 다시 還宮을 했다。肅宗 二十年 이였다。

沐浴 하던 侍女 崔氏는 仁顯王后가 還宮하자 王과의 約束을 지키었다。이 崔氏가 英祖의 生母시다。

英祖大王은 位를 받고 곧 臣을 불러 生母 崔氏의 墓에 封陵하기를 相議한바 諸臣이 國典을 移記不行하여 조히 마음이 便치 않았다。그러다가 어느날 便服으로 거리에 나가니 木炭行者인 一村老를 만나서 어디사느냐 물으니 楊州郡 白石面 古靈陵 밑에 사노라는 對答이다。

王은 生母 崔氏 墓를 封陵 하기에 寤寐不忘이였다。陵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인다。

「임자 平生 所願이 무엇인고?」

「陵監이 平生 所願이지만 어듸 됩니까요。」

이 村老는 이튿날 당장 陵監이 되었다。自己 一代뿐이 아니다。代代孫孫 陵監의 特命이 나린것이다。

이 村老 陵監의 子孫은 지금도 白石面 一帶에 살고 있다。

昭寧園은 陵은 못 되고 말았지만、園으로서는 祖宗이오 代表的 이라고 한다。

風光이 좋다。勝景을 즐기며 史話를 씹는 맛이 좋지 않으랴。

二、「溫陵」哀話

本郡 長興面에 溫陵이 있다。李朝 第十二代 中宗大王의 元妃 端敬王后 愼氏의 陵墓다。

이 端敬王后는 中宗大王과는 內外분 금실이 좋으면서도 戀戀한 心思조차 通할길이 없이 親家인 長興面 日迎里 寺谷에서 슬픈 餘生을 보냈던 것이다。

李朝의 燕山君 이라면 三尺童子도 알만큼 惡政을 한 暴君이다。이 燕山君에 對한 一般의 反感이 沖天할때다。

諸臣들은 晋成君을 맞아 들이고 燕山君을 廢할 時機에 이르렀다고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成希顔、柳順汀、朴元宗 三人이 가장 熱心 이였다。三人은 이 世上에서 燕山君 같은 惡人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다。때 마침 甲子士禍에 卞季良、鄭汝昌、韓明澮 等 高名한 儒臣과 大儒들 四十九名이 落命을 했다。

이 燕山君 에게도 儒學들 한데 感情과 宿怨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의 生母인 尹氏(成宗妃)는 儒臣의 諫言으로 死藥을 받았으니 大義名分만을 찾으려 드는 文士들이 눈에 가시처럼 밉기도 했던 것이다。

어쨌든 燕山君은 暴君 이였다。이 暴君을 廢하고 晋成君을 奉王코저 前記 三人은 燕山君下의 領議政인 益昌府院君을 찾아갔다。府院君 愼守勤은 바로 晋成君의 岳丈이오 燕山君과는 妻男妹夫間이다。

領議政愼守勤은

「廢妹夫妾孀 吾不可唯爲之」

이런 對答이였다。三人은 時機를 놓칠까 두려워 하여 府院君인 愼守勤을 暗殺하고 晋成君을 세우고 이가 곧 中宗大王이다。

中宗이 登位는 했지마는 成希顔、柳順汀、朴元宗 三人은 中宗妃 愼

氏가 그 설다。自己 親父를 죽인 사람들인지라、반듯이 復讐를 할것이다。어떻게든지 愼妃를 廢位케 하라고 主張을 했다。中宗은 愼妃를 극진히 사랑했었다。그러나 燕妃는 했지만 實權은 아직 없었다。그래서 愼氏를 南山私邸(치마바위)에 寢所를 定케 하고 가끔 密會를 할 생각이었으나、三公臣은 期於히 愼氏를 親家인 楊州로 보내고야 말았다。

愼氏는 슬퍼했다。그러나 참았다。때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愼氏를 親家 近方에다 雙溪寺라는 절을 짓고 오직 國家隆盛과 聖壽萬歲를 祝願하면서 國王의 마음이 돌아 서기를 바랐던 것이와。愼氏도 지금은 王의 마음을 疑心하기 시작 한것이었으나 中宗大王은 도로혀 愼氏의 無心을 怨妄하고 있었다。三大臣의 謀略인줄 모르는 王은 愼氏가 女僧이 되어 行方을 감추어 찾을길이 없다고 報告를 올려 온것이었다。

三大臣의 脅迫은 여기에서 그치는것이 아니었다。密使를 기키어 雙溪寺에 放火를 했다。三大臣은 自己네의 生命이 漸漸 不安해진 때문이었다。

中宗大王도 愼氏를 한번 보아지자 했었다。굶에라도 좋았다。그러나 굶에 조차도 한번 보이지 않는 愼氏가 야속 했다。

愼氏가 나간後、愼氏의 愛馬가 말르기 始作했다。目不忍見 이었다。하는수 없이 내어다 버렸더니 愛馬가 愼氏를 찾아 온것이었다。꼭 한번 와 본 일이 있는 길을 病든 말은 용히도 찾아 왔었다。愼氏는 愛馬를 끌어안고 울었었다。

그날부터 妃는 愛馬를 걸르는 것으로 唯一한 樂을 삼았다。말도 病을 버리고 肥大하기 始作했다。이 쓸쓸한 生活이 그날도 그날도 繼續되었다。愼后도 인저는 죽을때가 왔었다。그의 몸은 이미 늙고 弱했었다。그러나 그토록 祝願을 했었것만 愼氏가 숨을 걷을때까지 그리운 님은 만나볼 수도 없었다。

「내가 죽거든 親庭 山에 묻어 주고、말이 죽거든 葬事를 지내주오」

愼氏는 숨을 걷우었다。恨 많은 餘生 이었다。愼氏가 숨을 걷은때는 愛馬도 싸늘해 있었다。愛馬도 愼氏의 무덤 가까이 묻어 주었다。

이 愼后의 無辜임이 伸寃된것은 英祖때 와서였다。二百二十年을 지나서였다。英祖大王은 特命을 나리어 愼后의 墓를 修築하고 陵號를 溫陵이라 이름하고 陵參奉、守僕、陵軍 都合 七十餘名과 陵畓 四百石으로서 守陵케 하고、陵參奉은 반듯이 愼氏門中에서 낼것을 親敎로서 下命、오늘에 이르고 있다。

三、「議政府」史話

議政府는 山紫呂 水明으로 서울 近郊에서 屈指의 勝景地다。栗 生産地로도 有名하니 王室에서 쓰는 栗은 議政府에서 進上 되었다。어디를 가나 栗木이 있고 또 어디를 가나 골짝이 있고 골짝 치고서 淸流 흐르지 않는곳이 없다。巨岩 怪石이 그대로 내가 되어 있어 다리를 쉬는 자리가 그대로 勝景地다。

이 議政府는 歷史的으로도 由緖가 깊으니 李太祖가 第三子 太宗을 몹시 미워 했었다。太宗은 異腹弟인 芳碩、芳蕃을 王位에 對한 不安으로 虐殺을 했던 것이다。이것을 본 李太祖는 「이렇듯 아비에게 不孝하고 兄弟間의 誼가 없는 人間과는 함께 있을수 없다 하여 咸興으로 가버리었다。

太宗은 數次 使者를 보내어 太祖를 뫼시려 했으나 太祖는 使者가 오는족족 잡아 죽이었다。「咸興差使」라는 말이 생긴것도 이때부터다。

太宗 二年 十二月 이다。太祖는 怒心이 若干 鎭定 되어 서울로 돌아오기로 하였다。太宗은 지은 罪도 있고 父王의 怒炎도 풀기 爲해서 지금의 議政府에 까지 나아가서 迎使와 함께 自身도 天幕속에서 迎接의 禮를 다 했었다。

그러니 太祖의 心中에는 편 생각이 있었다。太宗이 마침 나올것을 알고 활로 쏘아 죽이자는 생각 이었다。兄弟間에 殺生하는 王이 무슨 治民을 하랴 한것이다。어떻게든지 機會를 보아 太宗을 죽일 決心으로 還宮하는 길 이었다。

이 太祖의 心中을 占친것이 太宗의 竪臣 河崙 이었다。河崙은 太祖의 名射를 알고 있는터라 반듯히 무슨 不幸이 있을지 몰라 天幕 치는데 不必要한 기둥을 많이 세워서 太宗의 자리도 화살을 考慮했던 것 이다。

果然 太祖는 射程 距離에 이르자 太宗을 向하여 활을 쏘았었다。河崙의 機智가 太宗을 救했다。화살은 太宗 바로 面前의 기둥에 꼬치였든 것이다。太祖는 果然 名射手 였다。

太祖를 맞아 迎宴이 벌어졌다。반듯이 盞을 올려야 할것이나 河崙이 절싹게 獻壽盞을 代行하여 式을 進行 시켜 버리었다。太祖도 그제는 할 수 없었다。太祖는 盞을 받고서 소매에서 鐵朔을 꺼내어 놓고 「드디어 機會를 놓지었노라。太宗은 이에 生命을 맡겼어야 할것이었다!」

이렇게 嘆息을 하고 끝끝내 入城까지에는 不應하였다。太祖大王은、現 楊州郡 榛接面 內閣里의 大闕基에 豊鎬宮을 세우고 餘生을 보내기로 하자 太宗의 重臣들은 議政府까지 와서 政事를 閒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議政府의 이름이 생긴것이 이 때문이었다。

第五節 其他

一、岩窟

本郡 廣積面 佳納里 東方에 大은 道樂山 山腹에 大岩洞窟이 있다。밖에서 얼뜻 봄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으나 內部에는 百餘名을 收容할 만한 大홀이 되어 있는것이다。홀은 二室로 갈려져 있고 그 안에는 一巨岩이 있어 入口와 出口의 門이 따로이 생겨져 있다。洞窟內에는 돌로 선반도 만들어져 있어 古來로 이 洞窟은 戰亂이 벌어질때 마다 避難處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洞窟이니 만큼 아모리 炎天에도 洞窟內에는 寒氣가 돌고 아모리 三冬이라도 暖氣가 돌아서 避難에는 아조 適地라는 것이다。

六·二五의 共匪侵犯時에는 이 洞窟은 一時 住民들의 避難處가 되었다가 나종에는 共匪들의 避難處도 되었었다 한다。

二、巨樹名木

本郡內에는、銀杏의 巨樹가 十九株나 있다。그中 伊淡面 紙杏里에 있는 銀杏名木은 胸高 周圍가 二十五尺、樹高 一〇八尺이라 하며 樹齡은 八〇〇餘年 이라고 한다。高麗 王朝의 魚有恂將軍도 晩年을 이 나무밑에서 閑日月 生活을 했다고 傳해지고 있다。

櫟의 巨木은 都合 三十六株로 그中 最大의것이 和道面芝屯里에 있는바 神木으로 樹高 一二六尺、樹齡도 八〇〇年을 넘는다고 한다。

이等 수많은 巨木들은 어느것이나 一種의 神木視되어 採伐은 勿論 神木에 對한 侮辱도 一切 禁止되어 있다。

老人들은 더욱이 어린이에게 그런 敎育을 시키어 犯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外에도 現在國立 林業試驗場이 되여 있는 光陵엔 約四百餘年前에 世祖 奉陵以後로 樹木의 禁養을 꾀했을 뿐外라 珍木異樹가 茂盛하여 國內樹種苗林의 標本을 이루고 있음은 또한 本郡의 자랑이 않일 수 없다。近年에 世界各國、植物學者가 往々硏究次 來訪함을 보와 國際的으로도 稀貴한 存在라 自矜하는 바이다。

抱川郡

第一節 概況紹介

名勝古蹟을 紹介하기 前에 一言 前提 할것은 本郡은 八、一五解放으로 北便에 偏在했던 永中面外 四個面이 所謂 三八 以北으로 屬하게되여 傀儡治下에 들어갔었던바 檀紀四二八五年 UN軍의 北進으로 奪還收復하고 同四二八七年十一月 우리政府에 行政權을 移讓할 當時까지 軍政을 實施 하였다。

軍政實施當時는 三八以北 所繫五個面은 北抱川이라 하여 郡治을 行한바 軍政二年間의 治績이 燦然한바가 있다。 卽 北抱川엔 二〇萬將兵의 五軍團이 擔當하고 隣接郡인 西鐵原、金化、平康엔 六軍團이 當했었다。其間 事變으로 破壞되여 廢墟가 되였던 當地에다가 擔當五軍團에서는 一般行政機關은 勿論、敎育、司法、警察、醫療機關等、諸般施設을 一新完備하고 住宅、橋梁까지 復舊再建하여 舊態를 凌駕할 程度를 보게된 것은 오로지 當時 民間人郡守로 李起羽氏가 就任하여 猛活躍한 結果 五軍團將兵의 援助의 結晶이며 特히 美國軍援의 惠澤이 多大하였음을 靑史에 밝히는 同時에 이제 다시 한번 深甚한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이리하여 荒凉 그대로의 郡內情景이 一躍新興都市의 모습을 가추게되였으며 多數原住民의 復歸入住와 더부러 다시 名勝古蹟도 論議 尋訪케되였으니 古蹟이 비록 廢墟가되였다 할지라도 舊址에 발길을 印치므로서 만도 懷舊와 追憶의 情을 더듬게되며 隔世의 感과 世事의 平坦치않음을 새삼스러히 늦기는바이다。 以下 名勝古蹟을 列記코저한다。

第二節 古蹟 寺刹

一、忠穆壇址

本郡 蘇屹面 茂峰里에 있는 忠穆壇은 端宗哀史에 나오는 死六臣中의 一人인 兪應孚의 忠義를 仰慕하기 爲하여 營爲된것이다。

端宗은 李朝 第六代王으로 幼時에 王位에 올랐었다。 自古로 幼王이 登極하면 政權을 노리기에 虎視耽耽 하는것이 人間의 本能 이였지만 철도 안난 十二歲의 端宗의 文宗의 뒤를 이어 王位에 오르자 好機到來라고 龍床을 노린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叔父 首陽大君 이였다。

首陽大君은 조카인 端宗을 逐出키 爲한 謀事를 하여 期於히 王位를 뺏고 말았다。 端宗은 나이 어렸었지만 叔父의 黑心을 알고 自退도 해보았으나 臣下들이 만류하여 及其也는 虐殺까지 當 하고 말았다。 어린 조카를 몰아 내고 王位를 빼앗은것이 바로 世祖大王이다。

世祖는 端宗을 廢하고 王位에 오르면서 端宗을 지골로 보내었다。 將次 刺客을 보내어 殺害할 計劃이었다。

이것을 본 臣下 十二名은 極秘密裡에 端宗 復位의 謀議를 하였다。 成三問、朴彭年、李塏、兪應孚、柳誠源、河緯地等 十二臣 이였다。

그러나 世祖의 귀에 이말이 안 들어갈理가 없다。 成三問 兪應孚等 十二名은 叛逆罪로 잡히어 무서운 拷問을 받았었다。 이 무서운 刑罰에도 오히려 屈치 않고 世祖에게 反抗하여 그의 非를 糾彈하다가 死刑을 받은것이 死六臣이다。 十二臣中 六臣은 世祖에게 忠誠은 않했으나 謀議엔 加擔치 않고 다만 舊君臣大義을 不忘하여 退官落鄕 또는 詐狂放浪等으로 목숨을 保全하였을 뿐이고 남어지 六臣은 끝끝내 죽엄으로써 抗拒했던것이다。 이 生者가 生六臣、死者가 死六臣이다。 兪應孚는 成三問、河緯地、李塏、柳誠源、朴彭年、等과 함께 死六臣中의 一人이다

이 兪應孚가 本郡 蘇屹面 直洞里의 南쪽洞里 光陵出生인 것이다。

이 兪應孚의 忠節을 敬慕 하기 爲하여 後世에 이르러 地方 儒林들이 當地에 書院을 創立하고 訓育에 힘 썼으나 大院君의 全國書院의 廢止로 不得已 忠穆壇을 지어 鄕土出身의 忠臣의 遺德을 後世에 傳했던 것이다。

端宗도 十二歲 幼王으로 叔父 首陽大君의 손에 凄慘한 最後를 마추

었지만 이 死六臣의 拷問은 前代未聞의 것이었다。 成三問 外 五臣은 시뻘렇게 달군 쇠로 全身을 벌집 처럼 만들었어도 끝내 世祖한테 逆徒의 罪名을 씌웠었다。 그래서 六臣은 斬、裂、火刑等 가진 方法으로 慘殺을 當한것이다。 찢고 찢고 하여 죽도록 端宗한테 忠誠을 다 했것만、 그들의 屍體 조차도 家族한테 돌려 주지 않았다。 아니 死六臣은 그들 個人의 生命만 빼앗긴것이 아니다。 世祖는 後患을 두려워 하여 六臣의 子孫까지도 虐殺을 해서 滅種을 시키려 한것이다。

이等 死六臣의 屍身이 墓를 갖게 된것은 約百年後、梅月堂 金時習의 손에 依해서였다。 몸을 避하여 代를 이은 朴彭年의 七世孫 崇石이 驚梁津의 死六臣墓를 다시 修築하고 各墓앞에 오늘날의 있는 短碣을 세웠다。 그러나 柳誠源과 河緯地 兩人의 墓는 아직도 發見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世祖는 非人道的인 蠻行을 恣行하였지만 그 治績에 있어서는 놀랄만한 功을 이루어서 그罪名의 一部를 씻었였다。 그의 治績은 此項과 關聯이 없기로 略하거니와 現在 서울 塔洞公園內의 十三層 石塔도 이 世祖代의 作品이다。

二、半月城址

本郡、郡內面 舊邑里에는 靑城山이라는 標高 二百八十九米의 山姿幽麗의 一野山이 있다。 山頂에 오르면 舊邑의 上、下 城北里가 나려다 보이고 西南으로는 淸溪川이 眺望된다。 半月城은 이 靑城山에 있다。

城高 十餘尺의 石築으로 이루어진 古城으로 全長 千九百餘尺이오 山上에는 千餘軍을 收容할수 있게 되었다。 月夜에 老松위에 蜃氣樓처럼 떠 있는 古城을 우러러 보면 懷古의 情이 새로워진다。

이 石築城은 距今 千餘年前 新羅 王族인 弓裔가 新羅朝廷에 含怨하고 叛旗를 들어 鐵原에 都邑을 했을때 그의 部將의 築城이라고 傳해지고 있다。

文獻에 依하면 城中에는 三大井이 있었다고 하나 二井은 堙沒되고 現在는 一井의 遺址만이 겨우 남아 있다。 이 半月城에 關하여 「山前殘堞古靑城 晝閒常催暮景時 吹羅設聲山影裏 野雲收盡夕陽明」이라는 古詩 一篇이 있어 昔日의 이 石城의 面貌와 情緖를 엿볼수 있거니와 築造年代는 全혀 알길이 없다。

그러나 이 半月城이 高麗以前의 築城인것만은 이 附近에서 發掘된 出土品만으로도 考證이 된다 할것이다。 卽 李朝 第十五代王인 光海朝 戊午年에 當時의 判官 이었던 李聖求의 舊邸址를 修理하다가 鐵鼎과 銅匙 밑 器類가 發掘되었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 半月城이 新羅時代의 築造인것은 現在 靑城山麓 西南端에 遺棄된채로 있는 一基의 大石佛로도 立證이 된다。 이 石佛로서 그 彫刻으로나 形式으로나 新羅時代의 作品 인것이 分明 하다는것이 一致된 專門家들의 見解인 것이다。

抱川郡廳에서 靑城山麓까지에는 不過 三馬丁 未滿이다。

三、龍淵書院

本郡 新北面 新坪里 書院洞에 있는 書院이다。 距今 二百五十三年前 李朝 肅宗 十七年의 創設로 된 李漢陰과 趙龍淵 兩人을 永遠히 받들기 爲해서 만들어진 書院이다。

肅宗大王은 翌 十八年 二月十五日에 이 書院에 「龍淵書院」이라는 扁額까지도 나리고 있다。

이 龍淵書院의 이름의 由來는 이書院洞 南쪽에 臥龍潭 이라는 연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 形跡만은 남아 있으니 이 臥龍潭에서 取한 이름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書院은 本院이 一棟이오、 附屬 造物 五棟으로 이루어져 있고 附屬財産으로 畓이 一町步、田이 三十町步、垈 二町步、林野 一町步가 있어 이 收入으로 每年 春秋를 期하여 近方 儒林들이 祭祀를 지내어 왔다。 李漢陰은 約 三百六十五年前 宣祖 朝人으로 幼時에 本郡 西面 自作里 母親의 生家에서 컸다。 儒學의 巨星으로 領議政이 되었고 沒後에는 文

翼公의 諡號를 받은 사람이다。本貫은 廣州、諱는 德馨이다。

趙龍淵은 李朝 宣祖 十九年 漢京(서울)出生으로 仁祖、孝宗、顯宗의 三代에 걸치어 歷朝、輔國 崇祿大夫 判中樞府事까지 지낸 사람이다。八十四歲의 高齡으로 顯宗十年 二月五日逝去했고 肅宗二年 領議政을 받아 文簡의 諡號가 下賜되었다。

文簡公은 同二年 十月 顯宗朝에 配享되었고 十五年後에 本院에 모시었다。公의 墳墓는 本郡 新北面 萬世橋里에 있다。萬世橋里는 一名 鹿門山 德來洞으로도 불리어 진다。

公은 春川 文岩書院을 爲始하여 여러곳에 配享되어 있다。

(上記 李、趙 兩人은 人物篇을 參照하기 바람)

建物 五棟中 本殿만이 남고 六、二五 共匪兵火로 殘餘建物은 燒失되고 없어졌다。

四、文　廟

抱川郡廳에서 東方 約一、五粁、相距地點에 있다。뒤로 屛風처럼 山이 둘리고 산태기 처럼 안윽한 地形이다。멀리서 바라 보면 俄然 一大伽藍 처럼 보인다。

이 文廟에 享祠中인 名儒의 名單을 들면 아래의 十八賢이다。

弘雲侯　薛　總
文昌侯　孤儒　崔致遠
文成公　安　裕
文忠公　圃隱　鄭夢周
文純公　退溪　李　滉
文正公　靜菴　趙光祖
文成公　栗谷　李　珥
文敬公　東春　宋俊吉
文獻公　一蠹　鄭汝昌
文元公　沙溪　金長生
文元公　晦　齋　李彦迪
文烈公　重　峰　趙　憲
文簡公　牛　溪　成　渾
文敬公　寒暄堂　金宏弼
文敬公　愼獨齋　金　集
文正公　尤　菴　宋時烈
文正公　河　西　金麟厚
文純公　玄　石　朴世采

五、神道碑文

文貞　李公神道碑는 臺石의 幅이 六尺 高가 二尺에 碑身은 九尺이오 碑身의 厚가 一尺二寸의 巨碑다。

이제 碑文 全文을 옮기어 둔다。

領議政文貞李公神道碑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 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贈諡文貞公白江李公神道碑銘並序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兼領經筵事致仕宋時烈撰

成祿大夫靑平尉兼五衛都摠府管沈益顯書

資憲 大夫工曹判書兼同知春秋館事金萬重篆

崇禎乙酉 上曰世子卒子幼汝將賢且長是擇 羣臣皆曰如 敎領議政白江李公獨持不可旣子之母將罪死公又力爭 上積前事竄公于南又北移幽荒我 孝宗大王遂以次適升大位卽赦公還未數月復相公公受命於艱威之際 每以正心誠意之說入陳於前以爲誠小民祈天命地本四方駸々然有陽復之望而 公則卒矣然而皆曰主聖臣賢自三古罕有焉爾公諱敬輿字直夫我 世宗大王七代孫其別子密城君諱琛歷三世疎而其已致者曰僉正諱克綱公考牧使諱綏祿是其子牧使公有至行醇德士大夫至今稱之公生有異質十五皇朝董中 郎遇之竦然曰雖在上國亦當爲名人矣十七中 進士二十五及第以翰林不薦柄臣子薦張公維

自我公與張公皆中螫亦自引卦求外　自利川移監忠原時賦役煩急公規畫有道及民者多棄歸的遭外艱癸亥　仁祖大王卽位先是爾瞻莘雖嫉公亦以人地嘗處以淸要公輒謝去至是首以修撰　召每淸以王道爲心一時爲管商地說者愧詘焉時元惡旣誅公在諫職爲言黨與不必株治以示寬大地典以親老乞郡　不許特賜米一足多移吏曹郎　公淸裁素著倖門白塞翌年從亂南下爲體臣從事旣點文學侍講閎延未幾奉使西南還言西帥可遂狀朝廷　不聽後果敗歷應敎典翰爲司諫淸陰文正公論　朝紳投機嘗巧者忤旨免去又上喪私親欲用中宮禮公辨遏甚刀遂罷官俶爲寺正　詔使來爲延接都廳與修廢朝實錄復　賜暇湖堂號牌行　命察擧湖南聞有虜變自湖南追及於　行在拜執義陛承旨出爲忠淸監司黜勳貴之驕恣者凡有大利害力請於　朝必得乃已入爲大司成吏曹參議副提學時公卜居于扶餘累辭召命爲養爲淸州牧使吏畏民愛　不令而趨事每公餘乘興有出塵想還入爲副提學劄陳八條以進學刑內爲本　上嘉賜旣馬以親病南下祈免　不許　竟承旨　召入　朝議以淸書人宣常處　經幄復拜副提學　仁穆大妣薨殯殿停謁儀公劄正之自是仍爲著令　上又自治巫蠱獄々辭頗侵及　殯殿公謁誠調護　上感悟　聖孝遂終焉已歸省

朝廷就拜全羅監司兼以便其私公條上利病干事其治　一以抑豪右扶下戶爲務甲戌雷震正殿公時還爲玉堂長進戒甚切乙亥　仁烈王后上賓公自扶餘赴臨上疏論　上不服　期不主喪　世子進見　服中半吉皆非禮丙子虜釁已啓公進奮發之說又言　聖上旣據義斥彼義聲已著而反欲求哀乞憐寧以國斃何忍爲此是冬虜果大八公扈　駕入南漢翌年夏拜慶尙監司公見御留形勢可爲關防旣歸請築城以備緩急是後常在論思之職用鄭公曄右事兼長國子仍陞刑曹判書　爲親得驪州未赴大夫人歿喪除上收召愈不已虜人以事執李烓々　冥不死爲言公不樂仕進不書虜中年號其志常在　南朝虜遣使執公以歸公逌然曰死生命也累月入朝廷鍰公遂得還爲大司　憲時國俗漸染胡習公立制改紀尤以喪紀爲先進拜右議政時上久不豫入鈸人言試用其術用　其術公請淸心寡慾以立命明理守正以遠邪　上卽日命妖人勿復入已而受遣至虜中虜挾前兼使其副畢使而仍拘公後虜人開釋前後數公明得意公遂與淸陰公隨　世子東還而世子歿矣　希考初服歐機闖發飛語方生公以首相從容裁處終　以無事公未嘗私於虜人虜人固不悅嘗勒停任使臣公曰使敵人任　其禽從而不敢難何國之能爲遂遣辨使執吾虜怒曰誰歟主者遂並錮公　上召見流涕公雖去位必隨事納約　上益倚焉嘗以虜復有煩言避處(以上前面)

鄉里　上屢旨召還庚申八月八日捐館上覽遣疏慟甚遂恩持厚其十月禮葬文河月籠山下其戊午四月遷于抱川鑄金山南麓郡公先塋而　尹夫人墓在其上公資稟粹美力學知要常謂此心如光風霽月夜朝之氣益加見古讀書浸灌培壅　其根以是措辭斷事皆有本末嘗上言於　仁祖曰爲國必定規模立紀綱然必以人主一心爲主內自屋漏幽獨之地而戒懼謹獨愈密使人欲退天理昭著然後　二者有所本而定此立矣道地行莫先於家人反身而威如則家齊　國治之効若矣仁祖倦勤時事曰非公遂低佪前却丁丑　以後益以不死爲恥嘗賀正曰母忘在莒地心益篤尊周地義又曰懸瞻事業尙祝聖旨之彌堅士林傳誦然時事益　以偸情公又懇叩反復曰殿下如能正心修德敬天恤民則豈有今日地變　今者天終之義以爲薄細民彝物則任其壞滅無以存天下之大防豈不寒心盖公欲　上不懈氷火之志而作事則欲如管氏書曰改寓兵外無其形內實立治而又未嘗不本於人主心身矣

老考朝有魚水契上每稱大人先生酬酢如響嘗以　上執志太銳有經先召禍之憂　上又時有惡怒劄言之　上劄曰寡人斷切嗜欲夙夜焦勞非不之功利之爲末而誠以至痛在心有暮道遠之意故也　近來臺閣黨論相勝予心疾惡不免過中先生長者未可誘掖使無此習耶然公必欲　上知所先後故曰請以寬仁地政除苛刻地令勿以寸幹地臣先經術地士　又慮良丁曰緖則請行從母法患胥吏橫縮浸則請先肅堂奧盖

孝考汲汲平無炊惰而公則徐乎無煩速是將相友以相成　仁祖時公欲　上奮勵有爲而孝考朝公以不言易爲善易隨時以處宜又每　以朝論不感深有梁益之半地憂函以同協爲務然必以一心爲根本則前後數十年間　如脫於一模也苟如公榮持久不息則陽復不期而公歿三年孝考又棄臣民天何爲旣生　聖賢而卒阨其施也　嗚呼痛哉公先娶領議政尹承勳女婦德甚修以孝死旋閭後夫人任氏別坐景華之女生四男二女長敏章靑松府使次敏迪　官至大司憲次敏叙吏曹判

書次敏采官至持平女長適縣監李憿次適 朴世格側出男敏哲敏啓女適李後泌敏章娶都正李楚老女 生三男三女男長鼎命縣令次泰命女長適宋疇錫次適佐郎申啓華次適進士金鎭圭敏迪娶府尹 黃一皓女生四男二女男長師命監司次孚命次頤命修撰次益命女長適金道濟敏叙娶左議政 元斗杓女生二男三女男長觀命次健命女長適進士洪重箕 次適南鶴鳴次適金昌立李儁生二男一女男長謙著次升著女適金鎭玉朴世格生二男長泰升次泰謙敏哲娶郡守 宋永胤女生二男一女男長恒命次升命女幼敏啓娶 同知金曄女生三男三女男長咸命次儒命次濟命女長適洪夏績次幼夫人後公十八年而歿初葬於春川冠川里 戊午移葬衲于公墓公樂易無畛域又嘗有不流者存焉內行甚正本以孝悌推以及人故雖時論携 貳朝無完人里至於公無不樂道其善蓋不可勝書故只書其關於世道及時事之大者亦公之志時烈人獲公知奬母念公於 孝考許謨或相凹凸而痛在心之教獨於公明言之豈不以惟公得聞此言歟貞如聖門三千惟端木氏 得聞人之所不聞後世之欲知公者只求於此可也然人知 聖考之德其大如天亦因公也哉銘曰恭惟聖考九五充享 誰其在田大人先生時維上治蓋相利見 識公于異莫尙其 眷 昔公在北人謂牯犒 公歸美爾昔時氣貌 萬人手額如宋司馬鸞鳳不鶩鴟鴞護邏 聖考曰咨公我蓍蔡 予就判漁豈惟未艾 公曰我事難棘其欲 誠我小民國我邦國 協和在廷以飽我氣泯於無形內則盡死 蓄憾積怨持以有待 此蓋有本聖上之心 昔朱夫子 際宋陸沈其所進裁屋漏之微 我私能克 事無足爲 上曰兪哉我惟行成 予其嗇思公豈贅刑 以是相濟事將萬全 不知公者謂公無拳 敵忽甚我天不整遺 倘有典刑 書在史氏 後有作者 不甚就止 我銘公墓仍叙 聖考 比皐稷謨帝德是詔體哉 聖賢光耀今古。

六、興龍寺

本郡 最高最大의 名刹이다。二東面 都坪里 白雲洞에 있어 高麗太祖代 道詵國師의 創建이라고 하니 距今 千五十年前이다。

그後 數百年間 거의 廢寺 처럼 放任되어 無道僧들이 出入하여 겨우 寺名을 維持해 오던것을 李太祖의 李朝開國과 함께 太祖登極에 많은 힘이 되어 온 無學師가 發見하고 하에 大重修를 했다。距今 五百六十年前이다。

그後 太祖 十六年에 無影 大師가 三創을 했고 다시 十年後에도 淸岩大師가 修築을 했다。

建物로는 大雄殿外에 佛殿이 四棟、住持室、其他 小建物들이 있어 山腹에 一大伽藍村을 이루고 있다。

興龍寺境은 예로 부터 「雲中仙坐」의 地形이라 일컬어 오는곳인 만큼 絕景이다。建物은 그렇게 壯하지 않으나 千古의 鬱林 속에 묻히어 별리서 볼수록 伽藍 다웁다。

寺內에 如來佛의 法身을 塔中에 奉安했다고 傳하는 石塔一座가 있고 李朝 第五代 世祖大王의 親筆은 寺寶로서 貴重視된다。

七、華峯山

宣祖朝의 名相이오 名文家 白沙 李恒福의 書院으로 有名해진 華峰山은 本郡 加山面 坊築里에 있다。新邑里에서 東南方 蘇屹面 松隅에서는 徒步로 四十分에 이른다。

華峰山은 마치 平坦한 平野에 부채를 펴 씌운 形象의 山이다。큰 山은 아니나 예로 부터 靈山 이라고 傳해져 나려 온다。李朝 宣祖朝의 名相이오 文名이 높람던 白沙先生을 中心으로 全國의 名儒들이 詩書를 講讀하더니 大院君의 書院廢鎖로 山麓에는 建物의 臺石과 礎石址가 남아 있을 뿐이다。

아직도 그當時에 下馬碑는 路邊에 남아있어 行人의 발을 멈추게한다。

八、胎峯山

蘇屹面 松隅 國民學校 뒷山은 別稱、玉女峰 이라고 불리어 진다。高麗太祖의 王女의 胎를 태운 재를 이 玉女峰頂에 묻은後로 胎峰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傳해진다。

지금도 山頂에 胎灰를 담은 石壺의 一部가 들어나 보이고 있다。

九、彌勒佛

本郡 郡內面 舊邑里 山麓에 一大彌勒佛이 있다。考證될만한 文獻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地方 村老들에게 口傳되어 오는 說에 依하면 新羅時 馬忽郡 當時의 作品이라고 한다。

傳說처럼 傳해 오는 이야기는 이 彌勒佛 앞 玉溪川을 中心으로 어느 날 아침에 農夫들이 나와보니 南쪽에는 女彌勒、北쪽에는 男彌勒이 땅에서 솟아 있었다고 한다。그러나 그後 異常할만큼 이 附近 婦女子들의 破節行爲가 늘어가서 女佛을 索制하느라고 石冠을 씌웠다는 것이다。元來는 石冠이 없었고 石冠은 後에 洞民들이 씌웠다는 것이다。

이 彌勒石佛은 高 四米、胸圍도 四米나 된다。元來에는 堂宇도 있었으나 約 三十五六年前 當時 金融組合理事로 있던 光延丈成이란 者가 이 堂宇을 拂下하여 高價로 賣渡했다고 하니 남은 古蹟建物을 사는者도 사는者지만 팔아먹는者 있으니 金先達 大同江水 팔아 먹은 이야기도 있음직한 일이다。

이 彌勒佛에 致誠하면 得男한다하여 婦女子들이 많이 오지만 李朝末葉의 女丈夫 明成皇后 閔妃가 이 石佛에 佛供次 三年間이나 다니었다고도 傳해진다。

여기에 百日致誠하고 六十九歲에 一老人이 첫 아들을 얻었다고 지금도 致賀次 온다고 崔龍華村老가 말하고있다。

一〇、陵 墓

名 賢 墓

(一) 1所在地 內村面奄峴里安陽洞
2埋人의職名 領議政文貞公(白江)
3〃 姓名 李敬輿
4〃 本貫 全州
5〃 配位 貞敬夫人豊川任氏

(二) 1所在地 加山面金峴里廣村洞
2埋人의職名 一等功臣(白沙)
3〃 姓名 李恒福
4埋人의本貫 慶州
5〃 配位 貞敬夫人安東權氏와 錦城吳氏

(三) 1所在地 加山面加山里時雨洞
2埋人의職名 正祖朝時 政丞
3〃 姓名 鄭晩錫
4〃 本貫 東萊
5〃 配位 貞敬夫人晋州柳氏와 安山金氏

(四) 1所在地 新北面萬世橋里間岩洞
2埋人의職名 贈大匡輔國崇祿 大夫議政府領議政行輔國崇祿大夫判中樞府事 世子右賓客
3埋人의姓名 趙絅
4〃 本貫 漢陽
5〃 配位 貞敬夫人安東金氏

(五) 1所在地 新北面機池里
2埋人의職名 贈資憲大夫吏曹判書 世子賓客行司諫院正言司憲府掌令
3埋人의姓名 鄭球
4〃 本貫 東萊
5〃 配位 淑人全州李氏

(六) 1所在地 新北面吉日里
2埋人의職名 府院君文景公(獨谷)
3〃 姓名 成石磷
4〃 本貫 昌寧
5〃 配位 和肅宅主順興安氏

金 石

1、神道碑
가、所在地 內村面奄峴里安陽洞

나、碑主公　領議政文貞公 李敬輿(白江)
다、碑主公의 本貫　全州
라、碑 文　(別紙와 如함)
2、節婦碑
가、所在地　內村面內里碑石巨里
나、碑 文　成化十二年九月十四日
敎故行成均館司成 洪義達 妻 節婦 安東金氏旌石
烽 燧　所在地　加山面友琴里 磨峙洞
加山面拂頂山烽燧

第三節 永平八景

本郡은 臨津江과 永平川을 끼고 있어 到處에 絶景絶勝의 名勝地를 가지고 있다。山紫水明의 流溪가 있는가 하면 江水에 浮沈하는 奇岩怪石의 돌섬이 있고、面鏡 그대로의 湖水도 있어 文人墨客이 드던 발자취 아니간데가 없다。

이제 永平八景이라고 古來로 부터 일러 온 勝景을 들면 臨津江 上流의 禾積淵、仙遊潭、金水亭、白鷺洲、蒼玉屛、樂歸亭、靑鶴洞、臥龍岩等이다。

一、臥龍岩

本郡 一東面 水入里 山內地洞의 奇勝으로 二東面에 흘러 나리는 永平川과 水入川과의 合水津　下流에 있는 奇岩이다。奇岩이니 怪石이니 珍木等 奇字와 珍字가 든 名勝地는 大槪가 그 「奇」하고 「怪」한것이 誇張되는 例가 많지만 이 永平八景中의 一인 臥龍奇岩은 그 바위의 「奇」함 보다도 周圍의 風景 그自體가 絶勝이다。

大體이 附近一帶는 斷崖絶壁이 溪谷으로 構成이 되어 있는 勝景地다。奇松 怪木이 密生 하기만 해도 名勝의 이름이 붙거늘 奇와 妙를 極한 老松뿐 아니라 斷崖絶壁이 文으로서 절수 없고 거기 或은 瀑瀑히 흐르기도 하고 或은 濤濤히 물결도 치고 또 或은 용소슴 치는 淸流가 있고서야 名勝의 이름이 안 붙을수 없다。더욱이 이 臥龍岩 一帶에는 岩岩磈磊에 淸流가 부드치어 白泡가 일고 山內地洞에서 臥龍岩에 이를 一馬丁의 川邊에는 古來로 躑躅川이라고 일렀든 만큼 六月이면 山河가 함께 붉었다는 곳이다。斷崖絶壁에 활짝 핀 꽃이 그대로 水面에 잠기면 絶壁도 붉고 淸溪도 紅流가 되고 水中의 人、魚 또한 붉게 보였다고 한다。六月滿開때에는 지나가는 農夫도 紅裳의 處女로 보였다는 곳이다。

이 絶景 水中에 든 奇巖이 바로 臥龍奇巖이다。그形態 自體가 臥龍 그대로여서 上體는 水面위에 떠 있고 꼬리에 該當한 바위의 長이 五十米나된다고 한다。이 臥龍巖이 平時 水量에는 山半身이 水面에 떠있다고도 增水가 되고 아주 水中에 잠겨 버린다。그러나 次次 減水가 되기 始作하면 차츰 차츰 龍身이 나타나서 마지 昇天하는 龍을 바라다 보는 것 같다。물을 헤치고 昇天하려는 巨龍의 姿態를 보는 瞬間 지나가던 사람들도 옷깃을 가춘다는 것이다。

이 奇巖의 이름은 멀리 高麗時代의 文獻에도 나와 있다。이것으로 보아 臥龍의 名稱은 高麗時代보다도 더 먼 옛날이 아니였든가 한다。李朝初葉의 宰相 朴淳의 記錄이 到處에 남아 있고 著名한 文人과 墨客의 題詠間 자최도 가는곳 마다 發見이 된다。

永平八景中 其一로서 불러도 좋으리라。

二、禾積淵

本郡 永北面 自逸里 西端에 있다。濤濤長流의 臨津江 上流로서 一大巨光과 一大深淵으로 이루어진 絶景이다。一見 비집을 쌓아 올린것 같은 形相이어서 禾積이란 이름이 생겼을 것이다。그러나 禾積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大蛇가 머리를 들고 일어 나는것 같은 錯覺을 이르키게 하는 形相이다。花崗巖의 斷崖絶壁이 水面위로 솟은 部分만도 四十餘尺이오 水中 깊이 잠긴 巖柱도 百餘尺이다。深淵의 水深 百尺을 넘

고 江幅도 六十餘間에 水面도 四百坪이 넘는 大淵이다。물에 손을 담그면 손에 쪽빛이 들것처럼 파아란 물빛。

巖壁위의 翠松綠樹의 그림자도 물속에 잠기였고 江邊의 눈이 부신 白沙와 봄에는 꽃、가을에 丹楓빛이 藍色 물과 좋은 對照를 보여주어 그대로 그림이오 仙境이다。

이 禾積淵은 여로부터 祈雨祭터로 알려져 있다。어느날 一老農이 三年 가물에도 비 한방울 나리지 않는 하늘을 怨妄하면서 이 연못가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늙은 農夫는 「이 많은 물을 두고서 百穀을 말라 죽여야 한다는 말이냐! 하늘도 無心커니와 龍도 三年을 두고 낮잠만 자는가보다。」

이렇게 혼자 嘆息을 하고 있으려니 禾積淵의 물이 왈칵 두집히면서 龍의 머리가 쑥 나왔다。農夫는 氣絶을 하게 놀라는데 龍은 끄리를 치면서 하늘로 올라갔다。그리더니 그날밤부터 나리어 豊年이 들었다는것이다。

이때부터 가물이 들면 이 地方에서는 禾積淵에서 祈雨祭를 지내는 風習이 생겼다고 한다。

三、仙遊潭

本郡 二東面 都坪里 白雲洞안에 있다。이름 그대로의 神仙이 놀던 자리라 한다。白雲山麓을 끼고 돌며 구비치는 永平川 上流의 溪谷으로 水石明美의 仙境이다。물에 장긴 깍까진 岩壁이 그림자도 좋거니와 岩壁에 反射되는 水光도 이를데 없다。岩壁위에는 翠松、翠松의 그림자가 물속에 잠겼다 떴다 한다。岩壁 사이에 조심스럽게 된 붉은 躑躅은 怯에 질린 少女처럼 哀切해 보인다。

岩壁에는 「僊遊潭」이라는 三字가 彫刻되어 있다。壬辰倭亂때 援兵次 나왔던 楊蓬萊의 書라고 傳해진다。

四、金水亭

蒼水面 伍佳里에 約 三百五十年前에 牛頭亭이라는 小亭이 있었다。野史에 依하면 金某라는 사람이 이 地點을 지나다가 景致가 하도 좋아서 一小亭을 세우고 牛頭亭이라는 亭名을 붙이고 즐겼다는 것이다。

그後 그는 자기의 사위인 江原道 三陟郡守인 楊士彦 蓬萊 한테 이 亭子를 주었든바 蓬萊는 亭名을 고치어 金水亭이라 하고 扁額도 갈아 붙였다는 것이다。

亭前에는 創設時代에 紀念으로 심었다는 珍松이 남아 있다。三百七十年 가까운 樹齡으로 가지가 妙를 極하였다。亭下에는 淸流가 흐르고 있다。이 淸流속에 璞岩이라는 奇岩이 있다。璞岩、또는 璞岩이라고도 傳해지고 있으나 璞은 璞의 代字로 여기에 술을 부어 淸流에 띄우고 船遊를 했다는 것이다。

이 璞岩 下流에도 蓮花岩、洞天石門等의 奇勝地가 있어 探客이 不絶한다。

現存해 있는 亭子는 約七十四年前 純銀杏木으로만 뽑아서 新築한것이다。

建坪은 二坪 남직한 小亭이나 鬱蒼한 叢林속에 자리를 잡고 亭前에 흐르는 淸流에 낚시를 담그는 雅趣도 좋거니와 垈地 一帶가 一個의 連岩으로 되어 있어 이에 부드치는 물 소리도 그윽하다。

五、白鷺洲

永中面 居士里에 있다。蘗屹面과 西面에서 흘러 나린 물이 合水가 되어 北上하는 永平川이 小丘에 부드치어 北쪽으로 曲水가 된다。이 曲水머리에 一巨岩이 있으니 바위라기 보다도 조고만 岩山이다。全體가 한개의 바위로 形成되어 그 形狀이 마치 白鷺가 물속에서서 四方을 望見하는 모양이다。

白鷺岩의 名稱이 언제부터 인지는 알길이 없으나 約 四百年의 文獻에 이 天然의 岩石은 白鷺岩이라고 불러진것을 보면 이보다도 훨신 오래된 이름 인지도 모른다。白鷺岩의 이름을 따서 이 一帶의 勝景地를 總稱 白鷺洲라 부르고 있다。

清流의 兩岸은 白河가 없는 代身 怪岩怪石이 축대 처럼 쌓여있어 마치 運河의 느낌이다。 나루를 띄어 놓고 고기잡이도 좋거니와 襖를 지어 나려가려면 그 무슨 神秘地域으로나 通하는 水路처럼 浪漫的이다。

六、蒼 玉 屛

本郡 蒼水面 伍佳里에 있는 奇勝이다。 한말로 奇勝이니 名勝、絕勝해야 이 蒼玉屛이 壯嚴하고도 雅美한 風景의 實感이 난다。

蒼玉屛 이라는 글자가 말 하듯 巨岩怪石으로 선 屛風을 連想하면 된다。 屛風을 펴서 세운듯이 岩山은 半月形으로 둘러쳐져 있다。 이 蒼屛風의 幅은 數馬丁이오 높이가 四五十尺에서 百數十尺이라고 想像해보라。 깍은듯한 斷崖라 해도 屈曲이 있고 高低가 있고 岩穴이 있는가 하면 가진 形態의 動物相이 되어 突出한 바위도 있을것이다。 이 斷崖에 새빨간 水丹花도 될수 있고 落落長松이 가지를 늘어트리기도 하고 오목 조목한 틈새에 작솔이 드문 드문 꺼꾸로 매어 달렸느니라 想像도 할수 있지 않은가?

이 岩屛風은 우리가 想像하는 그대로다。 이 半月形으로 펼쳐진 岩屛風만으로 本郡 一帶의 全水量을 한데 몽아가지고 寶藏山과 一大衝突을 하는 첫 接戰面이 바로 이 屛風 속인 것이다。 아모리 물의 偉力이 크다 해도 이쪽은 종이 몇장을 부 해서 만든 屛風이 아니다。 數千 數萬年의 風雨에도 깎기지 않고 오히려 寶藏山을 지켜 온 岩屛風이다。 물은 부서지고 물 거품은 飛散한다。 이 壯觀을 어찌 一筆一言으로 表現하랴 實로 可觀이오 壯觀이다。

아니 그 實景은 凄慘한 느낌까지를 이르키게 하는 壯觀의 絕景이다。 이 岩山의 絕壁으로 해서 永中面城洞里와 全谷 사이의 交通이 完全히 遮斷 되어 있던것을 檀紀 四二六四年 이 岩壁을 깍까서 三等道路를 내고 턴넬을 뚫러 全谷에 直通토록 만들었다。 이 岩壁의 新作路를 걸어 갈때를 想像만 해도 伏中의 炎熱을 잊을수 있을것이다。

어쨌든 蒼玉屛은 永平八景中에도 一、二位를 다투는 絕景이다。

七、樂歸亭址

本郡 永中面 居士里에 있던 一小亭의 이름이다。 建造는 約 三百年前 領議政으로 登用된일까지 있는 重臣 黃氏가 官職을 떠나 故鄕에 돌아와서 自家 이웃에 一亭을 세우고 樂歸亭 이라고 命名 했다는것이다。

그後 黃氏는 어떤 階梯에 反臣의 嫌疑를 받아 國王으로 부터 死藥이 나려졌다。 黃氏는 당게 死藥을 받아 無罪임을 증명으로서 抗辯하였으나 住宅도 妻子도 나라에서 破毁했다고 한다。

지금은 이 亭址에 礎石만이 쓸쓸이 남아 있다。

이러한 史實도 어느 文獻에서 나온것은 아니다。 數百年 동안 黃氏의 無罪임을 원통히 여기는 사람들이 代代孫孫 口傳으로 傳해 온것이 오늘날 까지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나리고 있는것이다。

八、靑 鶴 洞

本郡 永中面 金珠里에 一東面으로 부터 흘러 나려온 물을 껴 안듯이 岩石屛風처럼 된 絕壁이 있다。 勿論 蒼玉屛 처럼 壯嚴하지도 못하고 水量도 적기는 하나 巨壁斷崖의 絕壁이 있고 그 밑에 淸流가 흐르니 또한 絕景이 아닐수 없다。

이 岩壁斷崖에는 「靑鶴洞」의 三字가 刻字 되어 있다。

이 靑鶴洞의 이름은 어떤 가난한 孝子가 父親의 屍身을 지고 埋葬을 하기 爲해서 자리를 잡고 한평이를 파니까 靑鶴 한마리가 슬으게 울며 蒼空에 圓을 짓고 울고 갔다는것이다。

그래서 그 孝子는 그자리에 산소 쓰기를 斷念하고 이 이야기를 한것이 口傳되어 오늘가지 나려오고 있다 한다。

眞否는 알길도 없으나 野史에도 記錄이 있으니 그렇다 믿어 둘 밖에는 없지 않은가?

第四節 其 他

一、虹 瀑

內村面 花峴里 懸燈山中에 俗稱 무지개 瀑布라는 面鏡臺가 있다。懸燈山의 深幽한 맛도 좋지만 이 全瀑長 七〇〇餘尺이나 되는 長瀑이다。旱魃이 甚하면 絶水 되는것이 欠이나 雨期에 들면 瀑身만도 二〇〇餘尺이나 되어 數百匹의 白布를 느리운것 같다。瀑의 幅도 二十餘尺의 巨瀑이 떨어지는 소리에 泰山中腹이 뒤 흔들리는듯 싶다。瀑上에서 瀑確에까지 二〇〇尺 高의 二〇尺幅인 削岩絶壁도 一大奇觀이다。

겨울에는 이 瀑身이 얼어서 常綠松林속에 白瀑이 눈에 부시다。

이 一帶의 名勝다운맛은 그야말로 百聞이 不如一見이다。

名勝에 絶勝이기도 하지마는 여기에는 史上 哀話이 한토막이 남아 있다。

距今 千四十餘年前 부슬비가 나리는 날 저녁 무렵 한 초라한 선비 하나 이 다리를 절절 끌며 이 山中으로 들어 오던것이다。全身은 피투성이다。머리가 깨어지고 무릎에서도 鮮血이 흘르고 있다。——이 落帽의 선비야 말로 三日 天下나마 鐵原에 泰封王國을 세웠던 國王 弓裔 바로 그사람 이었는 것이다。弓裔는 元來 新羅 四十七世 憲安王의 王子였다。그러나 弓裔가 王位을 둘러싼 陰謀의 重役을 한다는 誣告에 王은 王子를 殺害할 눈지 까지 보이였고 弓裔의 生母도 같은 運命 이어서 新羅를 背叛하고 나와서 泰封國을 鐵原에 세웠으나 天性인 殘虐性은 狂的으로 나타나서 民心이 王建에게로 쏠리자 弓裔의 諸臣은 王建을 받들어 王을 삼은것이다。弓裔는 農牛가 自己앞에서 大聲을 내었다하여 農牛의 主人을 잡아다 목을 베이는 等 가진 짓을 다 한 王이었으니 王建이 일어서자 달아날 길도 없었다。

王國이 쓸어짐을 알고 「宮中」을 뛰어 나온 弓裔는 一農軍한테 가래로 머리를 찍힌채 이 懸燈山 속으로 뛰어 든것이었다。

瀑布에 들어 쉬선 鮮血이나 씻자던 것이다。가진 權勢와 榮華를 누리던 泰封國王도 侍從하나도 없이 이렇게 悲慘하게 될줄을 몰랐다。

一說에는 弓裔王이 이 面鏡臺에 築城을 하고 半年間이나 王建軍에 對抗했다는 說도 있다。이 面鏡臺에 남아 있는 城址도 弓裔가 入山後에 王建軍을 막기 爲해서 新築한 城址라고도 傳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무슨 錯覺이기 쉬울것이다。

弓裔가 農軍의 모습을 맞고 山中으로 피를 흘리며 들어 갔다는 記錄도 있고 보니 이 面鏡臺 무지개 瀑에서 슬픈 最後를 마추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二、祝石嶺

抱川郡 蘇屹面 二東橋里 南端部에 있다。距今 五百年前 江原道에 吳某라는 孝子가 親患이 危重하여 呻吟하나 百藥이 無効라서 하루는 高名한 醫師에게 最後로 診察한 結果 石淸 以外에는 藥이 없는 것이라。때는 積雪이 滿乾坤한 嚴冬이라 石淸求得은 難之難이였다。그러나 孝子(吳某)는 親患을 고치려는 一片丹心으로 至今은 路邊이나 當時 山中石岩을 찾아(現在 楊州郡議政府邑 自逸里 北端部 楊州 抱川郡界)寢食을 잃고 祈禱하기 百日만에 蜂聲을 듣고 氣盡하였든 精神을 收拾하니 石淸이 있었다。이를 採集하여 歸家奉養하니 親患을 完治하였다。

其後 現 抱川과 楊州境界의 嶺을 「비는돌고개」라고 稱하였든것이 太祖大王께옵서 咸興으로 行次하시게 되어 此嶺에 到着하자자 陪從에게 이嶺 이름을 무르시기에 「비는돌고개」라고 아뢰였드니 王께옵서 由來를 聽取하시고 可讚하시며 「비는돌고개」를 文字化하여 祝石嶺으로 稱하라 하심이 始初로 現在까지 祝石嶺이라고 부른다。

三、龍翔洞

抱川郡 蘇屹面 二東橋里內에 있다。此地는 距今 五百餘年前 太祖大王이 咸興서 서울로 돌아오시는 途中 現 龍翔洞 에 자리잡고 一晝夜 쉬어 가신故로 暫定的이나마 龍翔이 있었다하여 此地名을 龍翔洞이라 부른다。

四、落岩洞

抱川郡新北面機池里에있다 自元山街道를 東쪽으로 約一粁쯤 들어가

면 山인양 巨大한 바위가 山小溪邊에 어젓中하게 서있으니 이것이 바로 落岩洞이란 洞名을 지어준 바위인 것이다。높이는 百丈 周圍는 三百餘尺이나 된다。이곳에 仁祖朝 丙子亂때 居人 鄭昌國이 妻와 더부러 遭難中이더니 昌國이 病으로 因하여 致死하자 그의妻 昌原兪氏는 切切히 哀痛하며 마지막 夫君에게 받칠수있는 精誠이라고, 襲斂을 손수하고 자기등에 업어다가 掩土조차 남의손을 빌지 않았다한다。

其後 홀로남은 兪氏夫人은 분묘앞에 幕을 짓고 그곳에 有하며 寢食을 잃고 晝夜로 夫君의 命福을 빌드니 너머나 哀切한 남어지 死境에 이르렀다한다。그렇것만 難은더욱 甚하여 漸漸그곳까지 賊兵이 이를之境이다。宗人들은 兪氏夫人에게 戰況을 말하고 같이 避兵하기를 勸하였다。그러나 兪氏夫人은 痛哭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같이 믿든 夫君이 갔고 屍體나마 이곳에 무쳤거늘 내어찌 이곳을 떠나 홀로 살기를 바라리오하고 굳이 그곳을 않떠날것을 表明했다。그해도 저물고 丁丑正月에 賊兵이 머지않어 그곳까지 쳐들어올것이라는 말을들은 兪氏夫人은 事勢如此하면 胡辱을 免치 못하리라 覺悟하고 胡賊이 이르기前에 깨끗이 죽어 그러운 夫君께로 가리라 定했다。이뜻을 婢僕들에게 兪氏夫人은 傳하고 너이들은 빨리 避兵하라 勸하니 婢僕等은 같이 떠나기를 勸타 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兪氏夫人은 그들이 안보일때에까지 餞送하고 돌아와 분묘에 엎드려 그事緣을 말하며 大聲痛哭하였다。오래간만에 소복으로 깨끗하게 단장하고 공손히 분묘앞에 나아가 절하기를 거듭하더니 천천히 느린 거름으로 분묘를 떠났다。正月의 열분 아침해가 유난히 그를 따르는데 모두가 避難나가고 빈동네는 한層더 고요하고 쓸쓸했다。이寂寞하고 음산한곳에 한仙女가 小溪邊巨岩위에서 下降을 했으니 바로그가 昌國의妻 昌原兪氏였다。石고인양 婢僕들의 간곳을 바라보며 움직임이 없드니 한식경후에 東方을向해 三拜하고 다시 분묘쪽으로 向하여 절하더니 고요히 바위밑으로 몸을 날렸다 한다。그때부터 그바위는 落岩이 되었고 洞名도 落岩洞이라 했다 한다。此外에도 또 成獨谷先生 石磷草堂遺墟가 있다。

孝宗壬辰에 命旌兪氏門이라。

五、問禮峴(무례고개)

抱川郡 北五里許에 在하며 抱川面新邑里境界를 定立한 大嶺이다。此는 高麗恭愍王時人 怡軒先生 成汝完이 李太祖를 避하여 新北面 古目里에 潛居하니 李太祖께서 若非成先生이면 我國元禮文을 難定이라 하시고 親히 此嶺에 幸行하사 成先生을 招出하며 禮를 問安하셨음으로 其後부터 此嶺을 問禮峴이라한다。

六、고임돌

本郡內에는 고임돌 三基가 있어 考古學者들의 關心을 끌고 있다。其一은 加山面 金峴里 支石洞에 있고 其二는 抱川面 自作里에 있으며 其三은 東面 水入里에 있다。

이 三基中 가장 큰것이 加山面 金峴里에 있는 고임돌로 그洞穴에는 無慮 十餘名이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을 程度다。

七、巨樹名木

樹種	所在地	胸周圍	樹高	樹齡	種類
赤松	永北面大回山里	一五尺	一〇八尺	二二五年	神木
朝鮮松	靑山面長灘里	一四尺	一〇八尺	二一五年	風致木

加平郡

第一節 名勝

一、朝宗岩

崇明排淸 思想의 紀念物인 朝宗岩이란 本郡 下面 大報里 朝宗川에 臨한 山麓의 岩岩을 이름함이다。明에 對한 恩德을 잊지 말자 함에서 由來된 一種의 慕華思想이다。楊州光陵 馮榮燮家에 傳해오고 있는 肉筆의 古文書인 「朝宗岩誌」가 이의 由來를 詳記해 주고 있다。

이에 依하면 李朝 十九代 肅宗王 十年 明의 滄海 處士 許格、當時의 加平郡守 忠潭 李齋杜、郡士 白海明等이 相議하여 舊情에 依하여 明이 쓸어진것을 痛嘆하여 明帝의 恩德을 永久히 追念할수 있는 그여면 施設을 갖기로 하고 大靈里의 朝宗川邊을 擇하여 山麓 一巨岩面에 「思無邪」란 三字를 刻했다。이 「思無邪」는 明의 處士 許格이 持來한 明의 末帝 毅宗의 親筆이었다。그리고 昭敬王의 筆인 「萬折必東、再造藩邦」(宣祖의 親筆) 및 宣文王의 賜文 「日暮道遠 至痛在心」을 尤菴 宋時烈의 書體에 依하여 刻字、郎善君의 手篆인 「朝宗岩」 三字를 刻하므로서 이의 名稱이 傳해 진것이다。

그後 明의 存在가 없어지자 拜明思想도 잠을 자고 있을때 第二十三代 純祖가 在位 四年에 이 岩上에 紀念碑을 세워 朝宗岩의 由來를 詳記했다。

이에앞서 明이 亡하자 明末의 義士九名이 丙子胡亂때 俘虜로 瀋陽에 가있든 仁祖王子(鳳林大君)와 交分이 두터워지자 後日 合心提 携할것을 굳게 盟誓하고 明의回天大業의 큰希望과 우리朝廷을 도와가지고 淸을처서 朝鮮으로하여금 丙子受難의 雪恥할 機會를 心中깊히 간직하고 우리나라와의 舊誼에 더욱 感泣하여 朝鮮十六代 仁祖二十三年 王子(後의 孝宗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亡命、餘生을 보냈든것이다。

그義士中의 一人인 王文祥의 五代孫德一과 그의從弟德九가 來朝하여 朝宗岩의 由來에感激、大統行廟를 세우고 明의 太祖高皇帝를 祭祀했다 다지 一壇을 쌓아 그위에 九義行祠를 建立 自己네의 五代祖 王文祥以下 八義士를 받들었든 것이다。

여기參考로 朝宗岩의 由來와 關聯되는 孝宗瀋陽潛留時에 읊은 關係君臣의詩와 明朝遺臣의 詩를紹介하면 다음과같다。

質留瀋陽時 孝宗御製

怨尤那忍及天人
自愧無謀到死濱
心懸鳳闕頻驚夢
齒切龍庭厭見春

又 作 〃

萬里殊方作此行
時危事變一身輕
滄海月明歸夢濶
玉河風冷旅魂驚

賜麟坪大君 〃

南國無端客
何因萬里遊
萍跡如蓬轉
鄉心似水流

志感 〃

我欲長驅十萬兵
秋風雄陳九連城
指揮蹴踏天驕子
歌無歸來白玉京

昭顯世子御製

身爲異域未歸人
家在長安漢水濱
流鶯喚起遼西夢
飛燕來傳塞北春

公至大同江一宿村家 潛符家主翁上母夫人 吳達濟

一昔年胥婦倚冠巾
漢嫉怨恨琵琶曲
燕客悲歌出塞聲
何時再上蓬萊殿
訴盡心中無限情

夢回長樂月
魂斷薊門秋
與君今更遠
搔首夕陽樓

次韻鳳林大君

月白庭心花露泣
風晴池面柳絲新
昔日樓臺歌舞地
不堪回首淚沾巾

尹集、贈南漢僧兪棨

雪滿孤城壯士悲
夜來風雪壓旌旗
都將心內不平事
說與吾儕武仲知

此日不堪悲賈泣
何時復覩漢儀新
回首嚴廊樞密地

亂中感懷　李敬輿

一望燕京百嘆嗟
兵塵漠漠暗山河
眼中不見胡兒盡
天下虛稱義士多

大報壇詩　肅宗御製

大報壇成肇祀親
時維蠶月屬和春
昔被隆恩銘在肺
今瞻神座涕巾沾

萬東廟詩　肅宗御製

莫須建廟更持疑
德海恩山忍忘之
朝宗大義伸無處
崇報微誠爲在玆

大報壇　明太祖神宗毅宗並祀御製詩　英祖　御製

屠維而後始祀親
悠忽光陰十九春
大報壇前三擧獻
朝宗門裏八音陳

又

皇恩如海編東方
大報設壇歲歲香
磬管鏗鏘萬玉帛
依然龍駕狩薄邦

又　親祀御製詩

玉輅東巡況見親
一山河極北淪諸夏
已恨漢儀俱變易
豈知周禮亦消磨
金陵佳氣無時歇
清廟生民訏再歌

衣冠濟濟班行造
磬管將將禮幣陳
追思豈但微誠寓
切願寧陵望志遵

況是重丁聖祚絕
永懷一倍忝離悲
豈特平生吾願遂
寧陵志事庶幾追

瞻彼皇輿氣塡衷
望此藻帷淚濕巾
聖祖寧考尊王意
正手小子銘心遵

依依檀木寄王春
數十麟經淹日月
三千蝶域葆冠巾

又　同

江漢朝宗萬里濤
皇恩浩蕩注麟毫
草木皆知今牒域
風雲猶帶舊龍袍

顯萬東廟　馮學祖

華陽春水萬東愁
日夜如斯咽故洲
樓下草花前夜雨
巖間机葉去年秋

朝宗岩志感　黃載謙

書石朝宗有美名
春秋一脈熱會明
千重山會風雲氣
萬折溪流日夜聲

同　王佐詵

遺民此地得眞休
石逕委迤樹影幽
雲寒十年瞻石刻
朝宗百里咽白流
數間楚屋經營地
一體君臣享禮留
大報萬東何歲事
皇明日月更悠々

牲醴吾東享肆陳
齊衣肅穆監明水
萬折餘誠志事遵

唐堯並立山河鞏
周稷重光日月高
昭回北苑瞻新園
百世吾東奉赤刀

師瞻雲閣心空坼
趁謁影堂涕自流
廟宇崢嶸千載下
不住慷慨更回頭

今古君臣留蹟地
營修亭榭秉彝誠
華陽茅屋何時事
欲序人情況舊氓

同

新元齋會地
精舍倚山鬼
洌彼東流水
洗斯北起崖
匪風窓裏號
忠節廟前開
一體君臣享
優優禮大哉

同 王俶說

水必朝宗萬折東
春秋大義與誰同
巖前始築享皇廟
日月更明長夜中

同 王墅說

楚臣祭昭後
復有此山莵
品節依周禮
簪纓脫世埃

同 義晋珪

地秘英靈有待今
惟君始述祖宗心
十二難分江漢派
萬重山拱泰華岑
宸翰留綸那忍痛
人情追慕久懷音
一間茅屋千秋感
桑海餘生淚滿衿

遺臣有感東來古詩 鄭先甲

三角山南漢水東
寂寥誰與此身同
君親永隔乾坤外
師友分離道路中
鄉夢有時容易覺
尺書無雁極難通
未成歸計關河阻
空望青齊意不窮

巖名因水得
廟制待人開
永受父師訓
敬誠敢忽哉

同 馮學祖

水流萬折海東天
正義堂堂白日懸
一體君臣乾淨地
也曾漢族淚如泉

流落腥塵萬事非
聖朝文物夢依俙
三十年來風異響
八千里外月同輝
江南願信平生恨
塞北蘇郎幾日歸
華音已變氈裘蔽
誰識山東舊布衣

同 鄭先甲

渡鴨綠江贈同來諸公 黃 玏

萬歲山烽血雨中
金陵佳氣一朝空
此生不死將何適
扶植三春蝶城東

그後 每年 明帝國의 創業紀念日인 正月四日에는 大統行廟의 祭를 받들고 翌日에는 九義士를 追慕하는 祭가 行하여졌으나 지금은 廢祠되고 그 遺地만이 남아 있다。

二、大 報 壇

이朝宗巖이 있는 一帶를 大報壇 또는 大嶌里라 일컫거니와 이는 서울의 大報壇에서 由來한 이름이니 第十九代 肅宗 三十年은 明이 滅亡한지 六十一年에 該當하므로 明의 遺德을 追慕키爲하여 昌德宮 秘苑內에 大報壇을 設置하고 明太祖와 神宗皇帝를 祭祀케 했던것이다。 이는 單純한 拜明思想 이기 보다도 壬辰倭亂에 援兵을 보내어 싸워준 友誼에 對한 報答이었으니 明軍은 民弊도 많았지만 功도 없었다 할수 없던 것이다。

그後 第二十一代 英祖는 在位 二十五年 이 大報壇에 明의 末帝 毅宗까지를 附祀키로 한것이다。 이 大報壇은 秘苑西北隅에 있었다。

仁祖 二十三年 王子를 隨行하여 亡命한 九義士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東昌 王美承、臨胸 馮三仕、抗州 黃 玏、瑯琊 鄭先甲、通州 楊吉福、濟南 王以文、大同 裴三生、青州 王文祥、大同 柳溪山、

朝宗巖 앞에는 朝宗川의 淸流가 흘르고 老松이 川流에 깃들어 勝景이다。 川邊을 끼고 올라가면 淸平川 本流에 이르거니와 이 沿川의 風景도 또한 步行의 괴로움도 잊게 해 줄뿐 않이라 往古를 回顧할때 뜻있는 人士는 누구나 世事의 無常함과 感舊之懷를 禁치 못할 것이다。

三、懸 燈 寺

寺境까지의 十里길은 幽邃閑寂의 一仙境이다。登山路가 아니라 그대로 登仙路의 感이며, 斷髮이라도 하고 싶은 心境으로 幽谷을 隨하야 가려면 갑작이 雷聲 그대로 물소리가 精神을 뒤 흔든다。고개를 돌면 먼저 눈에 뜨이는 것이 鬱林의 老松 그다음이 五十餘尺의 瀑身이다。瀑身 周邊으로는 그대로 巨巖이 갈려 一見白布를 깔젓 같다。瀑身이 그친곳에 玉水가 一大潭淵을 이루고 있어 瀑身이며 老松가지를 그대로 비치우고 있다。瀑上은 字形으로 굽어 幽谷을 타고 올라가서 標高 九百三十五米라는 雲岳中 頂上에 까지 뻗치어 있는상 싶다。

寺境의 아름다움은 이렇거니와 懸燈寺의 寺蹟이 또한 놀랍다。寺史는 멀리 千四百二十餘年前 新羅 第二十二代 法興王代로 올라간다。이때 印度에서 摩羅呵彌라는 僧이 傳敎次 新羅를 찾아와서 王은 그를 爲하여이 雲岳中에 創寺케 했던것이 오늘의 懸燈寺다。그後 數百年동안 廢寺되었든것을 高麗朝 二十一代 熙宗代에 普照國師가 石燈을 發見하고 여기에 再建 李朝二十三代 純祖 二十九年에 烏有化한것을 翌年에 다지 세워 오늘에 일으켰다는 것이다。

本寺는 奉先寺의 末寺로 本尊의 阿彌陀佛은 李朝 二十一代 英祖 三十五의 改鑄로 高 三尺六寸의 坐像이다。寺內에 珍貴한 屛風 一帖이 있으니 豊臣秀吉의 金屛風이다。豊臣秀吉이 壬辰亂前 우리와 國交를 틀러 交涉할때 使臣으로 하여금 우리 朝廷에 바친것이리라。그것이 어떻게 이 懸燈寺에 오게 되엇든지는 記錄이 없으나 倭亂때 敵의 遺物을 宮殿에 둘수가 없어 소개 시켰든것이 아닌가 싶다。

懸燈의 寺名由來는 熙宗때 普照國師가 廢墟化한 佛宇를 發見했을때 佛宇는 荒廢했지만 石燈의 불만은 依然 煌煌히 비쳐 있음에서 懸燈의 寺名을 얻다고 傳해진다。이 石燈을 發見했다는 普照國師란 曹溪九山을 一新하여 十五代 肅宗代 大覺國師의 이르킨 曹溪宗理을 뒤집은 知訥바로 그名僧이다。普照國師의 主張은 古來의 禪、敎兩家에서는 너무 一方에만 치우쳐서 禪家는 「不正文字 頓悟自性」이라는 旗職下에 修行을 힘쓰지않고 敎家派는 오로지 文字經에만 拘束되어 「見性悟道」를 소홀하게 한 弊가 있으니 이를 匡正함에는 兩者兼合하여 各己自性을 頓悟하는한편 華嚴敎理의 工夫次第를 漸修하여 無覺怯來의 集積한 無明習氣를 除去해야 한다는 것이 그 大意였다。이 普照國師의 宗志는 懶翁、普愚兩師와 自超(無學)에 依하여 李朝佛敎에 傳承되었음은 世人이 다 아는바다。

이러한 寺誌는 어찌 되엇든 樹海속에 묻친 懸燈寺의 幽景은 探勝客을 붙들어 마지 않는다。海拔 千米에 가까운 雲岳의 精氣가 멀친 峰下에 一大伽藍을 이루고 있어 그 建物의 壯과 山峰의 美、水石의 妙、어느것 하나 버릴것이 없다。寺境裏側의 千仞削壁도 絕景 이려니와 松籟속에서 지내는 山禽啼聲에 老僧의 念佛 소리는 無意識中에 自身頭髮의 有無를 다지게 한다。

四、寶納山

加平勝景의 白眉 寶納山은 加平邑 東方에 屹立한 峻峰이다。東으로는 北漢江의 碧流가 감돌고 西에는 加平川의 淸流가 구비 구비 감돌았다。斷崖絕巖이 秀峰을 이루어 그 峻陰이 또한 岩峰特有의 山岳美를 보여준다。奇岩絕岩으로 이루어진 屹峰에 가로세로 또 어떤것은 거꾸로선 奇松、岩間에 피는 躑躅도 奇觀이지만、全山에 數百으로서 헤아려지는 瀑流가 實로 絕景이다。海拔三三三米 밖에 되지 않는 山中에 大小의 瀑流가 無慮 數百이라고만 들어 이山景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想像할수 있을것이다。

山頭에 오르면 眼下北 漢江과 加平川의 淸流、細流가 白帶처럼 나려다 보이고 수많은 山峰의 起伏 넘어로 멀리 江原道의 連山峰이 雲霧를 헤치고 眺望된다。夏節이면 數百深流가 陽光에 번득이지만 冬節의 凍瀑 또한 奇觀이다。

寶納은 예로부터 本郡의 案山으로 指目되어 禁斧區域 이엇든만큼 千古의 老樹 奇岩과 그 年輪을 다투더니 最近 거듭하는 災禍를 입어 지

금은 옛 모습을 찾아 볼길이 없다。寶納의 山名에는 여러가지 傳統이 있다。曰、어떤 老僧이 金佛을 묻었다느니 어떤 富者가 民亂이 두려워 金銀塊를 山中에 묻어 두었다느니 等等。그러나 가장 믿어지는 傳說은 李朝 十二代 中宗朝의 人으로 書聖이라고 까지 일컫는 石峰 韓濩의 書를 當時의 郡守가 民亂이 일자 石隙에 넣어서 이 山中 어딘가 묻었다는 것이다。이 石峰書를 찾기 위하여 지금의 村老들도 다닌일이 있다고 傳聞되니 아마 이 傳說이 가장 實을 얻은것 일지 모른다。

五、雲 岳 山

雲岳山은 下面下板里에 있으니 面所로부터 約五粁餘다。加平의 最古刹이고 또 巨刹이기도 한 懸燈寺도 이 山腹에 있다。懸燈寺에 오르는 入口에 저 有名한 絶景 舞雩瀑布가 있으니 여기에서 懸燈寺境까지 約二時間의 路程이다。

舞雩瀑과라 名刹、懸燈은 別項을 잡아 紹介하겠기로 여기에서는 略하거니와、雲岳의 名聲도 이名瀑과 名刹 懸燈으로서 完成된 하나의 名勝圈을 形成하고 있다。雲岳의 主峰은 山名 그대로의 雲岳이라 구름을 뚫은 峰이오 구름속위에 浮遊하는 山이다。劍岩斷崖라기 보다、鑛物性이 아닌 한개의 生命體다。竹筍 처럼 쭈욱 쭈욱 뻗어올라간 石筍秀峰 저 峯峯을 어찌 感情도 感覺도 없는 鑛物이라 할수 있으랴。生命이 있는 脈薄이 있고 生의 意欲과 生에의 鬪爭力이 있는 生物體다。대패로 민듯한 劍壁에 斜陽이 비치면 一面의 石鏡이오 마디 마디 層을 지은 節岩 사이에 奇松이 어설피도 매어 달렸다。金剛을 본이는 金剛을 좋다 한 였지만 雲岳의 奇峯 또는 萬特相을 떼어서 옮겨온것 같은 錯覺을 빚어준다。

이 劍岩길에 서서 일른 金剛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몇이나 되랴。女人은 柔하고 軟해 美人이라지만 山은 險할수록에 좋다。雲岳은 이 險을 가졌다。그러나 雲岳의 險은 險에 그치는 險이 아니다。

봄에는 들이요 가을에는 山 이라지만 雲岳은 봄도 좋고 가을도 좋다 여름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아니 그보다도 雪景의 雲岳이 더 좋지 않을까?

六、水 落 瀑

水落瀑은 郡內面 隱監里 溪谷에 있으니 從前까지는 交通이 너무도 不便하여 別로 알려지지 않았다。鏡盤里의 洞名이 생긴 由來도 이 水落瀑 一帶는 그대로 盤石岩流들 이루어 實로 鏡盤의 感이 없지 않는데서 생긴 이름이다。

深身의 長 七丈을 넘어 七十餘尺이라。瀑上의 水源 岩盤은 三千餘尺이라도 하니 그 瀑勢의 壯함도 壯함거니와 瀑境의 偉觀 또한 想像키에 足하다。瀑下에 지어다 보면 恰似 天國으로 들린 岩穴같은 幽谷이 山頂에까지 잇닿았다。千谷이 自然幽谷이오 千古의 穴岩盤에 살았다 죽고 죽었다 살고 하기 몇千萬年의 奇松老樹가 또한 千古의 秘密을 속삭여준다。一見鬱林이 물을 吐하는 感도 준다。

深長 七十餘尺에 瀑身의 둘레 또한 우람차서 그 深勢 可히 짐작되거니와 물확에 서면 淸明日에도 呎尺을 分別할수 없을만큼 雲霧가 낀다。瀑附近에만 接近해도 山腹이 흔들리는 瀑威에 探勝客은 먼저 혀를 내민다。加平絶勝의 白眉 果然 壯하고 아름답다。

七、舞 雩 瀑

海拔標高 九三五米의 雲岳山을 加平金剛이 너무도 초라하여 郡民들이 「京畿金剛」으로 불르는 名山이다。山高 이만하니 어찌 鬱林이 없을수 있으며 溪谷 어찌 길지 않을수 있으랴。幽谷이 있고 또 깊으니 어찌 溪流 없을수 있고 斷崖絶壁이 散在하니 어찌 落瀑 또한 없다 하랴。萬仞劍壁에서 떨어지는 落瀑도 壯하지만 岩盤을 隱隱하여 흘르는 流瀑 또한 습습해서 좋다。

雲岳名山中에는 名刹 懸燈寺 있어 그 이瀑이 古來로 文獻에 散見되였거니와 이 燈懸寺 入口인 舞雩長瀑은 江流를 기우려 논듯 싶은 悠々長流의 巨瀑이다。三十度로 부터 四十度 사이의 傾斜 岩盤을 或은 巨

岩과 부드치고 或은 迂廻長流하여 瀑下에 一大深淵을 이루고 있으니 瀑과 湖를 兼有했다。山中有瀑은 尋常타 하지만 山中有湖란 用語가 빛어주는 神秘感에 우리는 더욱 眩惑된가。正히 湖面이니 內金剛의 明鏡湖를 聯想시켜준다。山中의 名刹 懸燈寺記에 「東方佛法寺刹之始也」라 傳해지고 있거니와 이 名瀑도 이 名燈이 없었든들 여기에 서지 않았을지 뉘가 알랴。

옛날 「願生高麗王 一見金剛山」이라는것이 中國人의 念願이었다。하거니와 一文人墨客이 朝鮮에 와서 金剛을 찾아가던 途中이 舞雲瀑과 懸燈寺를 보고는 「旣看金剛」이니 돌아갈밖에 없다고 回路했다는 이야기도 傳해지고 있다。

어찌 中國人뿐이니랴。우리도 舞雲瀑을 본담에는 遠路의 金剛을 찾을 氣力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八、龍湫瀑

郡內面 升安里照王洞 幽谷에 一瀑이 있으니 傳說의 龍湫瀑이다。邑에서 六粁의 行路다。

瀑長으로나 瀑身으로나 水落、舞雲에 比할바 못되나 물이 흐른다기보다 岩盤이 흘르는 感이다、그것도 奇岩과 怪石으로서 이루어진 岩盤이다。龍灘의 特色이 이 溪谷美에 있으니 位置가 幽邃한 深谷임에 있다。지금도 가끔 龍女가 나려와서 沐浴을 한다고 믿어지고 있을 程度니 그 神秘境임도 想像할수가 있다。

瀑下의 물확은 恰似 沐湯의 形狀이다。이런데서 생긴 傳說일지도 모르거니와 龍女가 나타난대도 아무도 그의 沐浴을 방해하지 않을 禁斷의 秘境 이기도 하다。

加平名勝이라면 漢江碧流의 船遊도 치고 寶納山과 對屹한 玉女峰의 翠松도 일컫고 北江落雁이라 하여 漢江沿岸의 白沙場도 손곱으며 兵書의 八陣圖를 본받았다는 八陣栗田、모두다 좋거니와 亦是 加平名勝의 白眉는 瀑布에 있다。

九、惶恐灘

北漢江의 碧流와 朝宗岩 앞을 흘러온 朝宗에의 淸流는 本郡 外西面 淸平里 卽 舊 淸平川部落의 東南 一粁未滿의 地點에서 合流가 된다。이 合流點은 世稱 惶恐灘 이라고 일컫는다。말 뜻 그대로 무섭기 짝이 없는 여울이다。

그 첫째는 흐름이 激流라 무섭고 河床이 全部 怪岩으로 깔렸으니 무섭고 岩塊가 여기저기 水面위로 뿔처럼 솟았으니 무서울 것이다。예로부터 이 고비에서 水葬을 지낸 沙工의 數는 이로 헤일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배사공 일이요、陸에서 求景하는 사람 한테는 더없는 美로 珍景—이다。河面의 奇岩이 있으니 奇觀이오 急流激浪이니 溺面같은 瀑流와 對照가 되어좋고 激流인데 또한 岩間을 요리 조리 避해 나려오는 冒險이 좋다。스릴이 많은 曲馬와 잔인한 拳鬪、鬪牛等을 좋아하는 人間의 一面일지도 모르지만 求景하는 사람 한테는 危險하면 危險할수록에 자미가 있고 痛快도 하고 손에 땀을쥐면서도 즐겁다。性急한 물결이 奇岩에 부드치어 晴天에도 雲雨가 덮이고 白日에 百馬가 뛰는듯 싶은 惶恐灘은 亦是 求景하는 사람한테는 絶景이 아닐수 없다。

九、巨樹名木

樹種	所在	胸高圍	樹高	樹齡
銀杏木	郡內面升安里	三三尺	七八尺	四二〇年
楸	上面栗谷里	一七〃	六六〃	三六五〃
槻	下面大報里	一七〃	四八〃	六〇〇〃
柏	北面大里	一七〃	六〇〃	七二〇〃
槇	〃	一〇〃	四八〃	二六五〃

特히 郡內面 升安里에 있는 銀杏木은 四百餘年의 神木으로 大雨時는 樹間에서 五音六律의 妙音이 나서 마치 奏樂처럼 들린다는 傳說이 있다。이만큼 附近 洞民들은 다 銀杏木을 神秘化하고 있어 災가 들거

나 惡疫이 돌거나하면 個人 또는 集團으로 여기에 祭를 지나는 風習이 있었다。集團祭는 오늘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個人祭는 지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楊平郡

第一節 名山 大刹

一、龍門山

奇岩磈磊의 妙를 다한 高峰峻嶺의 泰山으로 有名한 龍門山은 邑에서 約二〇粁地點에 있다。그 山城도 廣濶하니 本郡 龍門面과 玉泉面、雪岳의 三面에 亘하고 一部는 江原道境에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있다。

山中에서 가장 峻嶮한 白雲峰은 龍門山의 最高峰일뿐만 아니라 加平郡의 三高山다음가는 京畿道中의 最高峰으로 標高 千百 五十七米에 達한다。全山이 重疊한 岩塊요 一大高原을 形成하고 있어 골짝도 幽玄하고 老木이 鬱蒼하여 俄然 神秘境을 이루고 있다。最高峰에서의 眼下眺望은 壯觀을 極한다。높고 낮은 連山 저뒤로 아련하니 北漢山이 眺望되어 마치 波長의 起伏을 聯想시킨다。

山中에 靈泉이 있는가 하면 溪流가 있고 瀑布가 있다。特히 將軍藥水 一帶의 俗世를 떠난 風光은 絶勝地이오、藥水의 效果도 많다하여 봄에서 가을까지 人跡이 잇닿았고 絶壁斷崖에서 白布를 드리운듯싶은 中元瀑布의 壯嚴함은 비길데가 없다。地動하는듯 싶은 落瀑聲·閒閒이 저 저귀는 山새소리는 애련하기 까지 하다。瀑圍는 그대로 巨岩이 屹立되어 天然的인 岩屛風을 이루고 있거니와 面積이 넓은 一怪岩위에는 仙人들이 바둑을 두었다는 傳說과 함께 발자욱이 보인다。勿論 後世에 만들어진 傳說이겠지만 아무리 虛孟한 이야기라도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絶景이다。

龍門의 原名은 彌智山이였는 것을 李太祖가 登極하면서 畿內 第一峰이라는 뜻으로 龍門이라 命名했다기도 하고、世祖가 母后의 冥福을 빌기爲해서 當寺에 祈願을 했던바 高僧의 德과 智가 全山에 彌滿했다는 意味에서 彌智의 山名이 생겼다고도 傳해지고 있다。主峰인 最高峰에 釋迦峰、龍虎가 對峙한듯 싶게 左右에 屹立한 兩秀峰에 伽葉 阿鷄의 峰名이 생긴것도 이때부터다。世祖의 母后에게 對한 孝心이 龍門山은 勿論 龍門寺를 著名케 했다 할 수 있다。世祖의 孝誠은 寺境內에 있는 銀杏木에 堂上職牒을 下賜했을뿐 아니라 四天王님의 祭典까지 베풀었든 것이다。

二、龍門寺

龍門寺는 龍門山中의 巨刹이다。龍門山이 그렇게 後世에까지 이름이 傳해진것도 이 龍門寺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車路로부터 寺境까지의 探勝路는 그대로 仙境에의 길이다。倭政末期의 緊急伐採와 解放後의 濫伐、六·二五動亂으로 因한 林相被害에도 不拘하고 沿路에 屹立한 巨樹老木은 紅塵의 회오리속에서 살아온 都會人에게 神秘感을 이르켜 준다。

六·二五動亂에 巨刹 龍門寺는 많이 破壞되였으나 많은 修理를 加하여 지금도 人跡이 그치지 않음은 寺殿뒤에 幽玄한 深谷과 巨岩間을 흘르는 淸流、季節따른 가진 草花에 山鳥가 俄然 神秘境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리라。

龍門寺는 新羅 善德王三年、元曉大師의 開基에 依한다。그後 무려 十餘次에 걸친 重修로서 六·二五前까지 維持되어 왔었으니 그中 重要한 重修記錄만 더듬어 보드라도 創建後 約二百五十餘年만인 新羅 眞聖女王 六年에 通讀國師가 一大重修를 하여 面目을 一新했고 다시 五百年을 지난 高麗 恭愍王 十四年에는 懶翁禪師가 大幅的인 重修를 했다는 記錄이 傳해지고 있다。李朝에 들어와서는 主로 昭憲王后의 願寺로만 알려지게 된것을 世宗大王 二十九年丁卯秋에 首陽大君이 昭憲王后의 뜻에 依據하

여 重修를 했을 뿐아니라 二佛八菩薩像을 그때 이미 安置한데서 由來된다。首陽大君은 六代의 幼王 端宗을 廢位하고 登極한 世祖요、昭憲王后는 王의 母后인 것은 다 아는 事實이다。

古刹치고서 兵火를 입지않은 寺刹이 있을 랴마는 龍門寺는 壬辰、義兵、六·二五動亂을 거듭겪었 지만 世宗大王이 重修했을 當時의 佛宇는 俄然 大茄藍을 이루었었고 住長(今日의 住持)、監務、祖室、監院、別座、茶供、佛事、山監、三室、谷木等 三百餘僧侶에 寺財도 一〇萬石에 達했었다。그後 同寺는 乙未士禍에 禍를 입어 다시 옛날의 廢墟로 돌아 갔었으나 當時의 住長 李翠雲이 二十八間의 寺宇를 再建、釋迦如來、觀世音菩薩、七星、山神、觀音殿、獨星에 大雄殿과 大房、鍾閣等이 鼎比했었으나 六·二五의 共匪南侵으로 많이 破壞를 보았으나 現在는 寺財도 農地分配로 離散되고 比丘帶妻僧間의 紛爭으로 荒凉함을 不禁케하나 龍門山의 鬱林과 深谷에 寺境自體가 勝景地어서 一日淸遊의 適地다。

더욱이 이 寺廟에는 우리나라 最古의 銀杏樹가 있어 往年의 龍門巨刹을 追慕케 한다。

이 銀杏나무는 우리나라 最高·最大의 古木으로 新羅의 末王 敬順王의 世子 麻衣太子의 手植이라고 傳해지고 있다。新羅의 末王 敬順王이 千年社稷을 高麗國에 맡긴것이 西紀 九三五年 이었고보니 距今 一千餘年前이다。세상이 다알듯이 麻衣太子는 父王이 一戰할도 없이 千年社稷을 王建에게 넘겨주는데 不滿을 품고 抗拒하다가 皆骨山(金剛山)에 들어、明鏡臺에서 自殺했다고 傳해진다。金剛山을 찾던길에 太子가 龍門寺에 들렸든지도 모른다。

어쨋든 이 銀杏나무는 胸高周圍가 三十五尺에 樹高 百四十尺、東西枝가 七九六尺이오 南北枝가 七十九尺이라는 尺數만을 본대도 이 나무가 얼마나 큰가를 想像할 수 있을 것이다。地上 四尺位置에서 세갈래로 나뉘어 三木一體가 된 느낌이든다。麻衣太子가 龍門寺를 찾은것이 高麗建國十九年이라고 하니 樹齡이 滿一千年이 넘는 古木이다。

李朝七代 世祖가 이 銀杏木에 堂上職牒을 下賜하고 春秋二回의 世祖廳祭典때는 이 나무에도 式典을 베풀어 神靈木처럼 保護되어 왔다。東幹下部에 틈자리가 있거니와 이에도 傳說이 있다。一樵夫가 톱을 대자 鮮血이 흘르며 雷聲霹靂이 일면서 天動이 생기어 中止했다는 것이다。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나무를 神聖視한 程度가 이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銀杏木에는 또한가지 異說이 傳해지고 있으니 이는 麻衣太子의 手植이 아니라 新羅의 名僧 義湘大師가 龍門寺에 들렸다가 짚었든 지팡이를 잊고 간것이 後에 成木했다는 傳說이다。이와 꼭 같은 傳說은 驪州神勒寺境內의 銀杏木에도 傳해지고 있는 點으로 보아 後에 神木化하기 爲한 成說임에 틀림이 없을것이다。

어쨋든 이 古木이 千餘樹齡이라는 것만은 事實이다。

三、舍那寺

舍那寺는 龍門山中 二千餘年前의 築城이라고 傳해지고 있는 咸王城西北約四粁地點에 있는 古刹이다。葛山面 楊根里에서 玉泉面事務所를 거치어 龍門山가는 路邊의 斜川部落에 이르면 여기서부터가 探勝路다。

開基年代는 分明치 않으나 同寺의 寺寶로 일컫는 鐵佛像의 佛型이라든가 鑄造技術과 線、여러點으로 보아 三國時代의 作品에 틀림이 없다는것이 斯界專門家들의 考證이다。一說에는 高麗初期作 이라고도 하지만 大部分의 判斷은 新羅時代의 作品으로 歸一되고 있다。寺記에는 三國時代에 化主僧이라는 一法師가 절터를 찾아 龍門全山을 踏査하던中 오늘의 舍那寺院에 이르러 초그만 寺刹을 세우고 佛像을 製作코저 百日祈禱를 올리던中 하로아침 空中에서 天藏盧舍那佛이 나타나므로 寺名을 舍那寺라 命名했다한다。

幽邃한 龍門山의 一溪谷을 寺院으로 삼아 그 風致의 壯하고 아름다움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西北에 突出屹立한 連山의 銳峰이며 東南쪽으

호 蒼空을 뚫듯이 솟은 白雲峰에는 峰의 이름대로 白雲이 허리를 감고 있다。봄철의 白雲峰眺望도 좋거니와 盛夏에는 峰의 下半은 白雲이 가리어 마치 大洋碧波위에 뜬 孤帆처럼 보여주기도 한다。丹楓節에는 白雲奇峰도 곱게 물이 들어 沖天하는 火炎으로 보인다。躑躅과 진달내、季節에 敏感한 活葉樹의 無變한 變化가 가져다 주는 季節의 饗宴은 언제 보아도 厭症을 주지 않는다。

이토록 山이 幽邃하고 골이 깊어 幽玄하나 溪谷의 물 또한 맑지 않을 수 없다。山이 깊으니 水量도 많을밖에는 없다。아모리 千古의 岩石이라도 悠久한 歲月을 두고 滔滔한 急流가 씻고 씻었으니 물이끼가 끼어 볼 겨를도 없다。溪谷의 巨岩奇石은 樹海를 뚫고 빗기는 斜陽을 받아 눈이 부시게 히기만 하다。峻嶮한 連峰과 淺々한 溪流翠松이 풍겨주는 松籟에 山鳥聲 또한 奇하니 黃、赤、紅의 丹楓과 함께 金剛溪谷에 든 느낌이 는다。

堂宇로는 法堂、大房、僧房等 四十餘間의 크지않은 茄藍이기는 하나 圓證法師의 石鍾과 石鍾碑、三重石塔等의 寺寶가 境內에 散在해 있다。이 들의 寺寶는 거의 다 高麗時代의 遺物로서 美術的 價値에는 遜色이 있다 하지만 麗末美術의 特徵을 보이고 있어 興味를 끈다。

寺史를 들어보면 三國時代에 開基로 高麗恭愍王 十六年에 圓證法師의 손으로 佛宇 二百四十餘間이 重建되었다 하니 當時의 大茄藍을 想像하기에 足한바 있다。그러나 이들 大茄藍의 大部分은 倭의 우리 韓國軍隊 解散을 契機로 義擧한 義兵과 倭軍과의 接戰으로 灰燼해 버리고 말았다。現在한 建物中 大房과 僧舍는 龍城桂憲和尙의 再建이오 法堂은 申景法禪師의 新築으로 된것이다。

四、上 元 寺

上元寺도 龍門山中의 一孤庵이다。龍門面 延壽洞에서 北쪽으로 二粁地點이며 特히 森林이 욱어져서 幽邃한맛이 있다。寺史 두령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世祖께서 이 孤庵에 들렸다는 記錄이 輿地勝覽에 남아 있다。

寺寶로서 남아있는 石獅子一軀와 八角石塔燈의 作風이라든가 韓末에 南山으로 移管된 梵鍾으로 보아 上元寺도 三國時代의 開基인 것이 推測된다。이 石獅子와 八角石塔燈의 製作年代가 高麗中期라는 點과 梵鍾도 最少限 八百餘年前의 作이라는것이 專門家들의 考證이다。寺記에 依하면 이 梵鍾은 新羅의 末王敬順王의 命에依하여 鑄造된것이라 하며 約三割은 純金이라고 한다。그 樣式도 特異하여 羅末麗初 當時의 우리의 美術的特長과 中國의 美術傳統을 揮然히 配合、새로운 境地를 開拓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쨋든 이 梵鍾은 우리나라 四大鍾中에 드는 巨鍾으로 口徑이 二尺九寸五分에 두께가 二寸二分、下圍만도 九尺二寸四分、上部圍도 七尺三寸六分、龍頭를 除外한 鍾高만도 四尺四寸이오 重量은 實로 四百餘貫이다。그鍾聲의 神秘함도 이梵鍾의 特長의 하나로서 國寶的인 遺物이다。

寺境의 周邊一帶가 深奧한 森林地域으로 寺境에 한번 발을 들여노면 千古의 原始林에 든 느낌이다。숲이 있으니 山鳥가 놀여들고 골이 깊으니 물이또한 맑아서 松籟와 水山、새소리와 그윽한 交響樂을 이루어 준다。

五、鳳 凰 亭

絕岩重疊과 藥泉、巨瀑等으로도 有名하거니와 畿內 第二高山인 龍門山麓이 南漢江의 支流인 黑川에 뛰어 들듯이 突出한 絕岩上에 서 있는 鳳凰臺는 그 位置自體가 一大 絕景을 呈하고 있다。굽어 보면 碧波 子비치고 數十尺의 岩壁과 奇松에 妙亭이 碧水속에 잠겨 있다。對岸에서 바라보면 削岩絕壁과 鳳凰臺亭도 한꺼번에 엎어진듯 실은 錯覺을 이르켜준다。

臺의 一帶는 文字그대로의 松栢의 鬱林이 욱어져서 微風에도 松籟허들겁을떨고 그때마다 놀란 山鳥의 당황해 하는 소리 열듯 들으면 風鏡소리와도 비슷하다。

이 鳳凰亭은 距今 三百七十年前 이곳의 住民이였든 南原 梁應涵의 建

造로 된것이라 한다。梁氏는 元來 서울에서 官職에 있다가 還鄕하여 이 一帶의 勝景에 心醉한 남어지 財産의 殆半을 기우리어 이 亭子를 세웠다는 것이다。建亭當時의 亭名은 巍揮亭이든 것을 約九十年前 庚申에 그의 後孫인 性煥이 七歲時에 지은 「嘯嘯九成 鳳凰來儀」라는 詩에 依據해서 오늘의 鳳凰亭名이 생겼다고도 傳해지고 있다。亭子는 비록 十間未滿이나 鳳凰이 언제나 깃들였다고 傳해질만큼 勝景의 地요、斷崖絕岩이며 眼下의 碧流、가마귀가 날았다 해도 鳳으로 보이였음직한 名勝地다。

鳳凰臺에 鳳凰亭의 名稱이 있음은 亭子때문이겠지만 또한九成臺의 名稱이 傳해지는 것은 亦是 嘯嘯九成에서 나온 것이다。該亭一帶의 風光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亭內에 걸린 古今의 數많은 詩人墨客의 懸板으로도 立證이 되거니와 그中에서도 白沙 李恒福의 懸板은 이 亭子 自體보다도 珍貴한 遺物이다。

六、五老亭

葛山面 梧濱里 德岩部落 西南端 江岸에 屹立한 一絕崖가 있다。이 위에 一亭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五老亭이다。이 一帶는 約三百年前 安綱이라는 儒學이 逍風次 을랐다가 風光의 아름다움에 醉하여 同僚 四人을 誘致하여 淸遊했다고 한다。建亭의 發案은 安綱이라고 傳해지고 있다。絕岩斷崖에 碧流라는 두가지 條件만으로도 勝景의 要素는 가춘 셈이다。여기에 靑松鬱林이 있고 碧流를 끼고 흐르는 白沙에 江上에는 白帆이 떳는가 하면 千仞岩上에 古亭을 더했고보니 絕景아닐道理가 없다。

지금은 亭址에 礎石만이 남아 있으나 附近 江岸에 巨岩이 있어 「釣臺」「鑑湖臺」의 刻字가 남아 있다。술병을 옆에 놓고 낙시를 담그고 있던 五老를 想像할때 五老가 아니라 五仙의 느낌이었으리라。「鑑湖臺」에서서 정말 손을 물에 잠그면 속에 絕岩奇松이 만져 질것만 같다。刻字의 筆勢는 雄揮하여 活虎의 氣慨가 엿보인다。

七、鳳儀亭

鳳儀亭은 楊平面文坪里에 位置한다。淸邊部落에서 南漢江 沿道를 끼고 遡及하기 三粁地點이다。鳳儀亭은 距今 五百餘年前 領議政이었던 李某氏가 落鄕을 하여 여기에 居住했다는 記錄만이 傳해지고 있을뿐 確實한 年代도 姓名도 밝혀져 있지 않다。元來는 住宅地였고 立亭한 것은 그後라고 한다。口傳에 依하면 李氏가 여기서 移徙를 하여 廢墟가 되었던것만 鳳凰이 飛來하여 이 附近을 맴도는지라 後에 住民들이 吉祥之地라 하여 亭子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亭子의 遺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八、澤風堂

楊東面 雙鶴里에 있는 澤風堂은 德水 李氏 澤堂 李植이 餘生을 보내며 讀書를 한 由緖깊은 建物이다。六間에 不過한 建築이지만 澤堂 李植의 官職이 吏判大提學에 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이었고 文靖公이라는 諡號까지 받은 李朝 十二代 仁宗、十三代 明宗、十四代 宣祖의 三代에 걸친 名儒功臣이었드니만큼 附近 住民들의 敬仰의 的이 되고 있었다。

澤堂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位置에 德水 李氏의 墓所가 있다。名門家요 勢道家이었드니 만큼 墓所一帶에 風致林을 이루어 老樹가 욱어졌다。特히 이 墓所附近의 오리나무숲은 白鶴의 棲息處가 되어있다。안개낀 이른아침과 노을진 저녁 樹海위를 亂舞하는 白鶴의 모습도 奇觀이려니와 鶴의 奇聲도 別世界의 느낌을 준다。이 附近의 林相은 住民들의 保護林으로 거듭한 亂中에서도 그 面目을 過히 잃지 않고 있다。元來 澤風堂은 德水 李氏들이 이 先塋에 祭祠하기 爲하여 마련되었든 建物로 李植만이 下野後에 여기서 讀書로 餘生을 보낸 것이다。

九、咸王城址

龍門山中에 一古城址가 남아 있다。三韓時代의 古刹 舍那寺에서 約一粁地點으로 玉泉面龍川里에 位置한다。東에는 龍門의 最高峰인 白雲의 峻嶽과 金剛의 毘盧峰을 聯想시키는 香爐妙峰、北으로는 峨々險山이 둘러쳤다。南과 西쪽은 豁然 溪谷넘어로 漢江의 碧流가 白布처럼 眺望된

다。濃霧낀 幽谷에는 樹雲이 피어 오르는 山頂에서도 山골물 소리 들리는듯 靜寂이 흐른다。夏節에는 물이 떠는듯 싶은 綠陰, 가을철의 丹楓도 좋거니와 新綠과 진달내와의 色의 對照도 可賞이다。더욱이 綠陰을 헤치고 흘러나오는 애송이 폐꼬리의 울음소리는 산골 물 소리인가 錯覺을 이르킨다。물소리인가 하면 老鶯의 울음이오 폐꼬리인가 듣다 보면 졸졸대는 산골 물 소리다。

咸王城址는 考古學的으로도 價値있는 存在지만 이 山城址一帶의 勝景으로 더욱 探勝客을 誘惑한다。外城밑의 천야만야한 絕壁은 天然의 要塞이다。

이 王城의 築城年代는 距今 一千餘年前이라 한다。三國時代 咸이라는 어떤智者가 憾然히 나타나서 이 天險地를 보더니 築城을 하고 王이되어 住民들을 다스리기 始作했다는 것이다。이 咸氏는 中國使臣으로 갔던사람이라고도 하고 中國에서 왔다기도 한다 史記에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後에 創作 口傳된 것이 아닌가도 싶다。이 咸氏에 또 異說이 있으니 咸氏는 江陵에 王城을 쌓아 權勢가 놀랍던 咸天霖의 아우 咸某다 여기에 築城을 하고 稱王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兩咸氏說은 어느것이나 史實로서 確認된 것이 아니지마는 兩說이다 咸氏요 城名도 咸王城으로 傳來되는 點으로 咸姓人의 築城인 것만은 事實로 보아야 할것이다。內城의 周二粁에 達하고 外壁은 純全히 天然的인 岩壘絕壁을 利用한 石築이다。內外城의 幅과 高도 六尺에 達하는 堅城으로 二千年前의 築城으로서는 相當한 規模다。城內는 五六町步의 넓이다。

咸王城밑 絕影江岸에 一岩穴이 있으니 住民들은 이를 咸氏의 出産岩窟이라고 한다。이 傳說은 咸氏의 中國來說과 江陵 咸氏說을 拒否함으로서 咸氏의 始祖는 이 穴岩出生이라고 主張하고 있다。直徑 三〇糎에 깊이도 三十糎에 不過한 조고만 石窟로 耽羅國(濟州島)의 高夫良 三姓穴과 같은 由來의 傳說로 돌릴밖에는 없다。

傳說이야 어쨋든 이 石城의 築造는 咸姓의 人이었든 모양으로 古蹟과 名勝을 兼한 勝地로서 本郡 白眉의 勝景地다。

지금까지에 文獻에 남아있는 記錄은 全혀 發見되지않고 오직 그의 後孫이라는 咸氏家에 「築城爲王」「築城奠都」라는 句節이 겨우 傳來되고 있을 뿐이다。이 記錄도 實은 信憑할만한 것은 못된다는 것이 專門家의 說이다。어쨋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古城中에서도 가장 典形的인 石城이라는 것이다。

一〇、九寺谷 藥水

楊平邑에서 漢江碧流를 천너 約四粁에 江山面 松鶴里 松鶴部落에 이른다。이 部落앞에서 우러러 보면 一秀峰이 蒼空에 솟아 보인다。이름하기를 楊子山。

泰山은 아니나 險山이다。골이 깊기로는 本郡山中에 으뜸가거니와 山中到處에 佛刹이 있어 伽藍山이라고 까지 일컫던 山이다。楊子山이 얼마나 넓고 깊고 또 아름다운가는 일찌기 距今 六百年前까지는 白屛山과 楊子山間의 이 九寺谷안에만도 九基의 古刹이 있어 一大伽藍山國을 形成하고 있었다는 點으로서 足할 것이다。全山이 아니라 一山谷안에 이만한 佛宇가 섯다는 것은 例에 보지못하는 史實이다。樹海속에 묻힌 九基의 佛庵에서 朝夕으로 合唱되었을 讀經소리와 木鐸소리를 想像만해도 伽藍王國에 든듯싶은 感想이 든다。

그러나 이 九寺도 史記에만 남아있을뿐 으늘은 그 痕跡조차도 없다。確實한 記錄이 없어 알길은 없으나 麗朝를 쓸어트린 李太祖의 佛敎彈壓期에 없어진것이 아닌가 推測될 뿐이다。

이 楊子山麓에 一 巨盤岩이 있고 이 盤岩에 五·六坪도 실히되는 一洞穴이 있다。九寺谷藥水는 이 岩穴의 岩壁틈에서 湧出하는 名泉으로 滯病과 皮膚病에 特效가 있다고 하여 봄부터 첫겨울까지에 人跡이 그치지 않는다。藥水터 附近에는 靑苔낀 巨岩에 雜木이 욱어졌고 山머루와 다래가 蔓然히 덮이었다。비록 山麓이긴만 山葡萄와 취 넝쿨이 채일처럼

나무위를 덮어 深山에 든 느낌이 든다。

一一、巨樹名木

龍門寺 銀杏樹(龍門寺項參照)와 葛山面 白安里의 느티나무가 最高로 後者는 胸高周圍 三十尺 樹高 一八〇尺、樹齡 五〇〇餘年으로 推算되고 있다。

驪州郡

第一節 古蹟寺刹

一、婆娑城址

婆娑古城은 本驪州郡 大神面 川西里에 있다。梨浦에서 漢江을 따라 나려 가자 二粁餘의 對岸東便으로 標高 一三〇米에 不過한 一野山頂에 位置하고 있다。

이 古城은 距今 二千餘年前 百濟 婆娑王代의 築城으로 알려져 있다。城壁은 漢江을 나려다 보는 最高峰에서 山峰을 타고 左右로 갈리어 平地를 擁하면서 漢江에 臨하고 있다。北漢과 南漢의 城도이 城을 본뜬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見解다。그만큼 南、北山城의 規模와 制度가 이 婆娑城과 恰似하다는 것이다。여기에도 南門과 西門이 있었던 城門址가 아직도 남아 있고 大部分은 헐어졌지만 當時의 城壁이 그대로 남아 있는 部分도 있어 考古學者의 興味를 끌고 있다。規模는 적지만 그 城制로나 石築의 공교한 점等으로 百濟의 都城이었든것이 分明하다고 한다。

文獻에 依하면 壬辰倭亂 當時 卽 宣祖 二十五年 僧將인 義嚴이 이 城壁을 修築했다는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 現在 남아있는 城址는 그 當時의 것이 아닌가 하는點도 없지 않다。

그러나 城의 西北方에 있는 築城 女將軍의 肖像石刻은 李朝라기 보다 그前의 作이 아닌가 하는說이 有力하다。이 肖像은 三丈이 넘는 巨岩削壁에 陰刻으로 되어 一大 奇觀을 이루고 있다。그 美術的價値 稠密하면서도 線이 굵은 것이 特色이라고 한다。이 肖像의 主人公은 이 城의 築城當時에 總責任者였든 것으로보아 女僧이 아닌가하는 說도있다。

婆娑城山은 그 形이 圓錐를 聯想시킨다。다른 連山이 없이 孤立한 山이어서 山頂에 오르면 眼下에 四方 風景이 펼쳐진다。漢江上下流의 眺望도 詩的이거니와 멀리 龍門山의 雄姿를 바라보는 맛 또한 잊을 수 없다。

肅像場 削壁밑으로 二坪 남짓한 巨穴이 있고 그岩穴에서는 玉水가 湧出하고 있다。女將軍의 築城時에 飮料水로서 岩穴을 팠다는 이야기도 傳해온다。事實의 眞否는 어찌되었든 築城하는 僧兵들의 渴을 이물로 풀어 주었을것을 想像하며 한 표주박 마시면 더욱 물맛이 다른상싶다。

二、高達寺址

高達寺址는 本郡 北面 上橋里에 있다。邑에서 自動車로 約 三十里 가서 徒步로 十餘分이면 到達할수 있는 地點이다。

高達寺의 寺史는 實로 오라다。高麗 第 代 光宗朝의 創建임은 現存한 元宗大師 慧眞塔碑의 碑文에 依해서도 明白히 考證된다。創建 當時의 寺域은 實로 廣大했던 모양이다。北쪽 鯨來山과 西便 牛頭山에서 南下한 一丘陵에 現在의 上橋里 및 高達洞 附近에 까지 占有되었던 듯 싶다。高達洞도 往年에는 高達寺로 因하여 相當한 大洞이였을 것이 想像된다。現今은 三十餘戶에 不過한 部落으로 轉落해 버리었다。

高達寺는 寺史도 깊거니와 許多한 寺寶를 保有하고 있다。元宗大師 慧眞大師의 塔碑를 爲始하여 元宗大師 慧眞塔、浮屠等은 모두가 國寶로 指定된 珍貴한 遺物이다。이外에도 國寶로 指定된 石佛座가 있어 高達寺는 없어졌어도 우리 考古學研究에 있어 實로 珍貴한 存在다。

이제 이 寺址에 있는 國寶를 個別的으로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一) 慧眞塔碑의 龜趺과 螭首

이 塔碑는 國寶 第十三號로 指定된 그야말로 國寶的 珍物이다。全花崗石製로 螭首와 龜趺만이 지금 現場에 남아 있다。碑身은 考古學的 研究와 一般 國民에게 觀覽시키기 爲하여 國立博物館으로 移管되어있다。이 塔碑의 龜趺과 螭首 및 碑身을 좀 더 詳記하면 龜趺의 長은 一〇尺五寸 五分이오 幅이 九尺八寸 五分、螭首는 長이 七尺七寸五分、高가 三尺六寸五分이오 碑身은 長이 九尺三寸、幅이 五尺三寸、두께가 一尺一寸이다。

이 碑는 高麗 高宗 二十六年 乙亥의 建立으로 十二年間의 勞作으로 된 것이다。다만 遺憾인것은 檀紀 四二五八年 三月頃이 碑石이 쓸어지는 바람에 螭首의 一部가 破損된 것이다。그러나 原形을 몰라 볼 程度는 勿論 아니다。

(二) 元宗大師 慧眞塔

元宗大師 慧眞塔은 前記한 慧眞塔碑의 位置에 北쪽 三十間 相距에 있다。總身高가 約十三尺으로 花崗石製의 八角舍利塔이다。基壇은 下臺石、臺柱、八角臺、蓋石寶珠의 四層으로 構成되여 있고 그 彫刻의 優美함과 藝術的인 高尙味는 筆舌로 表現하기 어려울 程度다。第一基石을 方形의 伏蓮臺로 삼고 그 위에 第二基石을 올려 놓았다。中臺는 禽形으로 자라를 彫刻하여 仰蓮을 表示했고 塔身은 八角柱로 四面에 다 佛像을 浮刻했는데 그 浮彫의 技巧는 實로 括目의 價値가 있다。

塔身 위에는 蓋를 덮었고 蓋上에는 또 寶蓋를 올리어 그 構想의 自由奔放함과 纖細함에는 實로 驚嘆치 않을수 없다。

彫刻의 精巧함도 極을 다 했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一致한 定評이다。

製作年代는 高麗 惠宗王 二年 丁丑으로 國寶 第十四號로 指定되어 있다。

(三) 浮屠

慧眞塔의 西쪽 언덕 西便에 있는 無名塔이다。全身 大理石으로 形式은 慧眞塔과 비슷하다。高가 十三尺 基徑 四尺五寸으로 寶蓋가 있는 大理石 八角塔이다。

基壇에는 자라、그 위에 蓮瓣을 彫刻했고 塔身에는 佛像을 파서 蓋는 二重蓋다。蓋에는 無數한 寶珠를 다는等 圓熟을 期한 藝術家가 自由奔放하게 天才的 作風을 發揮한 印象이다。

이 浮屠도 蓋石 一部의 破損을 보아 寶珠의 大部分이 喪失되어 버렸다。

이 浮屠로 國寶 第十五號로 指定된 寶物이다。

(四) 石佛座

高達洞 西便 人家 左前便에 一大石佛座가 있다。

一見 平凡한 一個의 臺石이다 國寶 第十六號로 指定된 寶物이다。高麗中葉의 作으로 推測되고 있는 이 三層石佛座는 下臺石의 一邊만도 實로 七尺五寸에 達하는 巨物이다。總花崗石으로 上部와 下部 內邊에는 蓮瓣을 精刻했고 中央에 格狹間을 彫刻했다。基徑 七尺五寸에 基高 四尺八寸이다 된다。

그러나 아직도 이 石佛은 發見되고 있지 못한 것이 遺憾이다。이 基石 그 어느 附近에 埋沒되어 있을것을 想像할 수 있으나 尙今 發掘되지 못하고 있어 學者들의 關心事로 되어 있다。

三、神勒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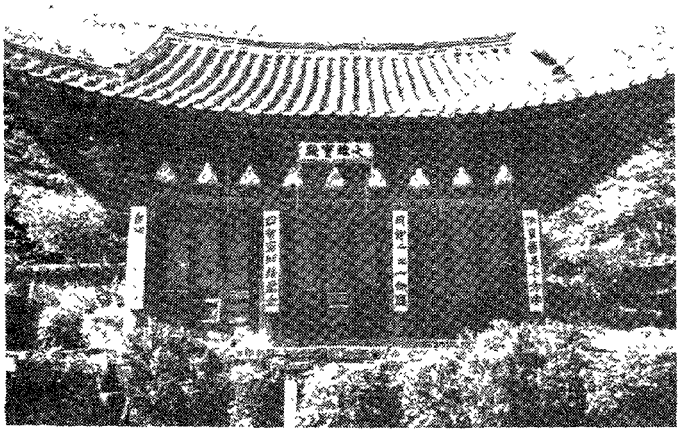
가、神勒寺의 勝景

神勒寺는 北內面 川松里 漢江 對岸의 鳳尾山中에 있다。邑에서 約二粁 漢江上流에 이르면 江岸 鬱蒼한 巨樹속에 一大伽藍村처럼 蓋瓦가 나무사이로 보인다。李朝 時代에는 一名 報恩寺라고도 불리었었고 저 有名한 五層甓塔이 있어 甓寺라고도 불리어 진다。老人과 婦女子들間에는 아직도 神勒寺보다는 「甓寺」이라야 通할 程度로 普及된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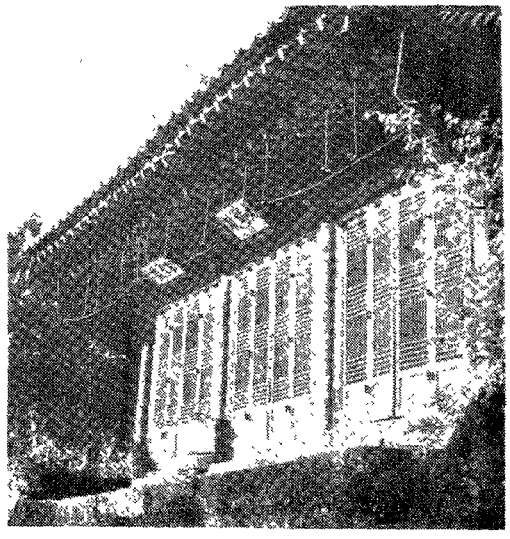
本寺는 高麗末의 高僧인 懶翁大師의 住錫한 곳으로 牧隱 李穡과 大僧들이 즐기어 찾던 곳이기도 하다。

神勒寺는 그 寺史로나 寺寶로나 京畿 屈指의 巨刹이오 또 名刹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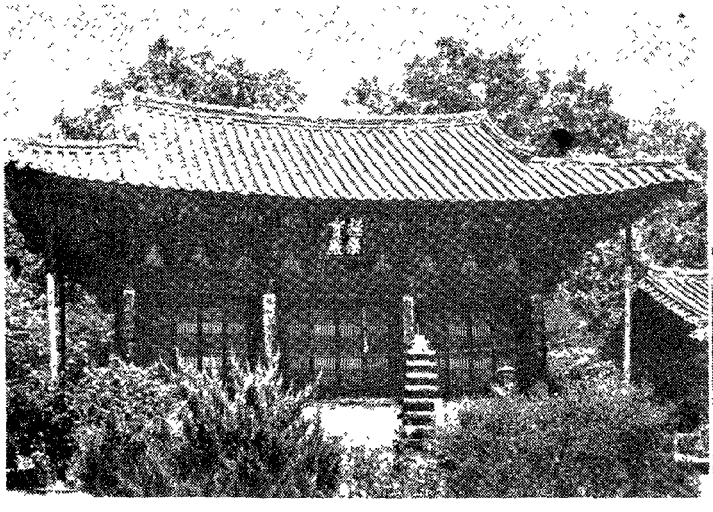
京畿道 代表的寺刹의一部 其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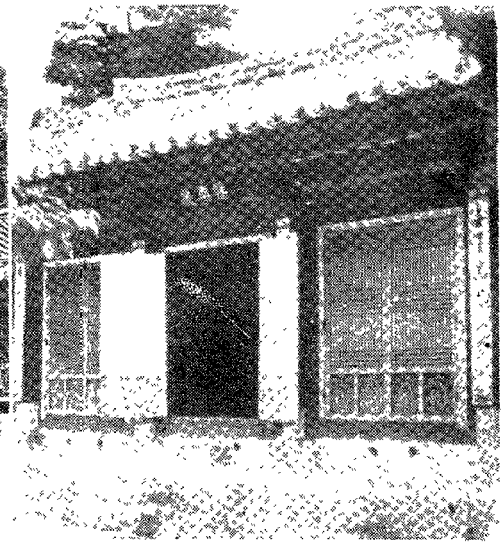
江華 傳燈寺 大雄寶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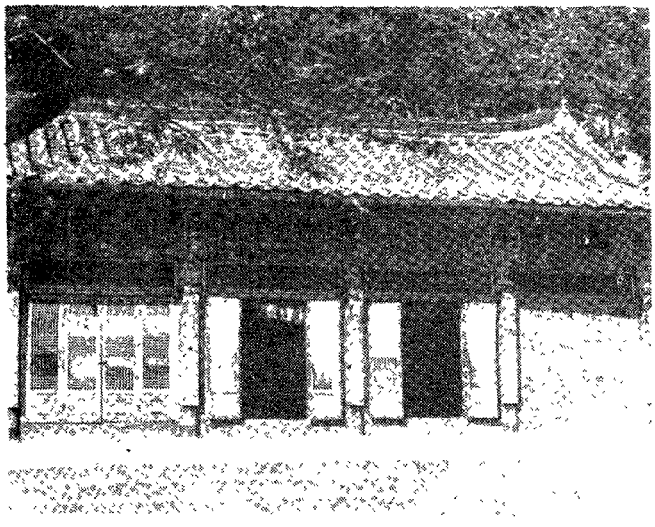
楊州 檜岩寺 大雄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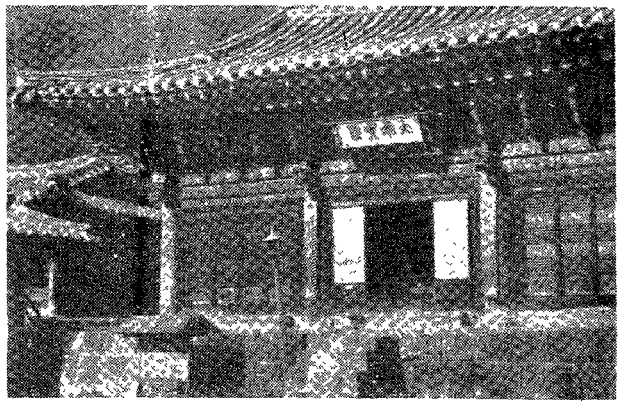
驪州 神勒寺 極樂寶殿



高陽 祥雲寺 極樂殿



仁川 仁明寺 極樂寶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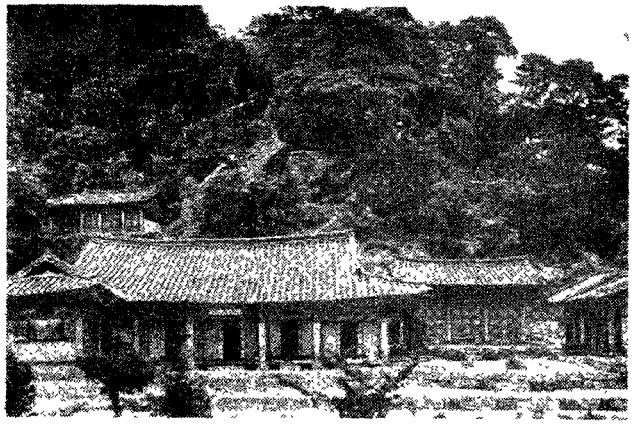


楊州 普光寺 大雄寶殿

京畿道 代表的寺刹의一部 其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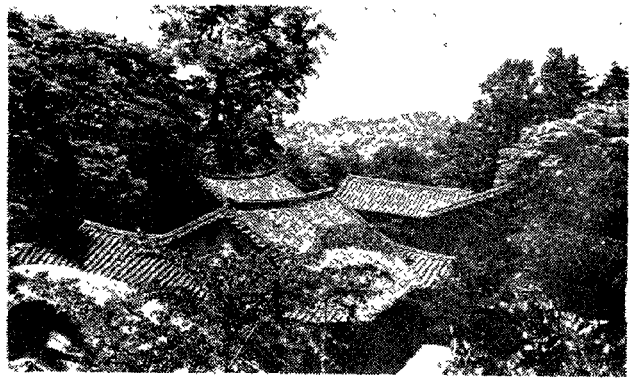
江華 淨水寺 法堂



楊州 望月寺 本殿



華城 龍珠寺 天碧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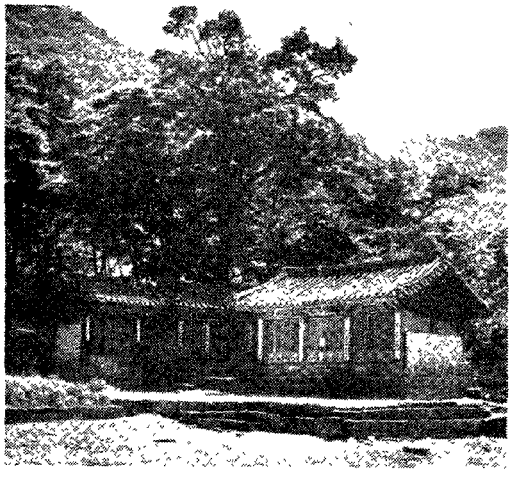
始興 冠岳山 三幕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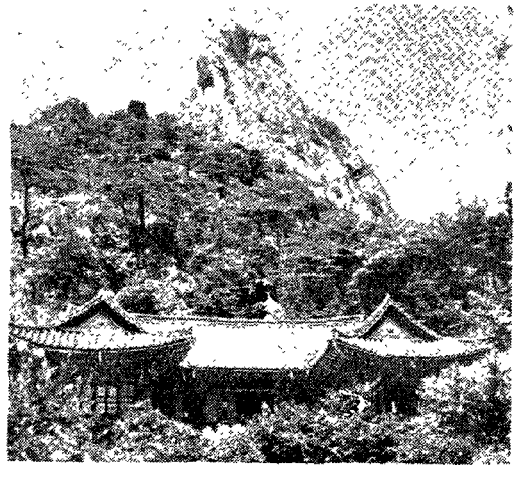


楊平 龍門寺 大雄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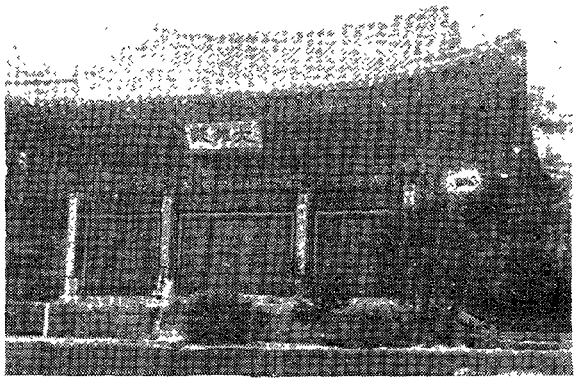


加平 懸燈寺 普光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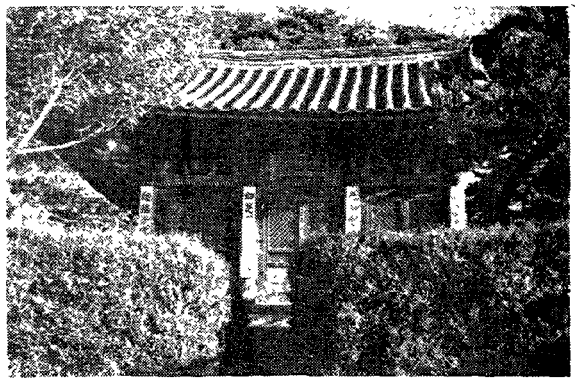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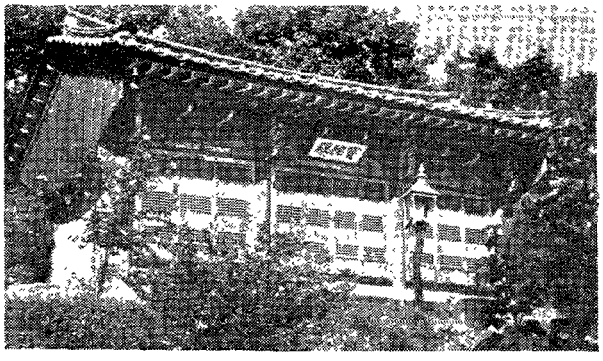
京畿道 代表的寺刹의一部 其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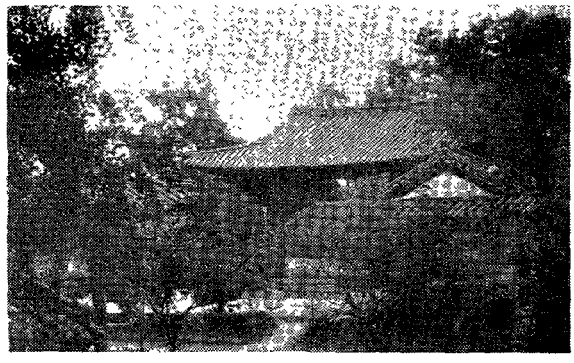
廣州 奉恩寺 大雄殿



江華 傳燈寺 藥師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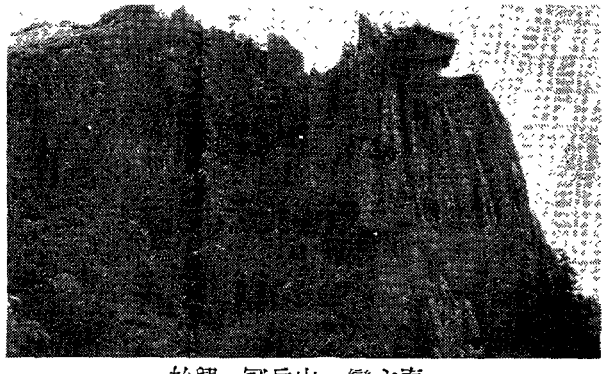
楊州 道峰山 寶陀殿



驪州 神勒寺全景



楊平 舍那寺 法堂



始興 冠岳山 懸主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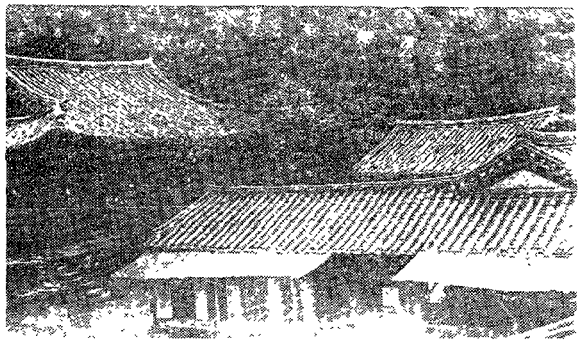


楊州 道峰山 丈方庵大雄殿



高陽 津寬寺 貞影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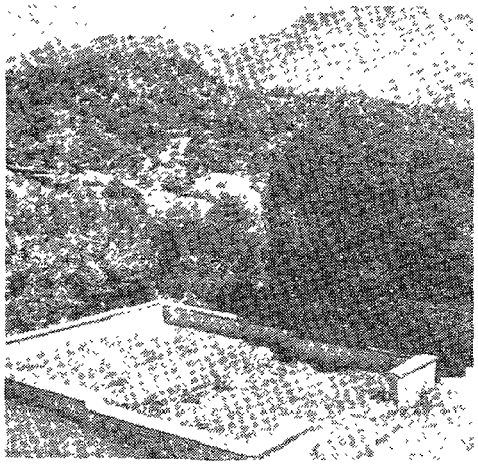
京畿道 代表的寺刹의一部 其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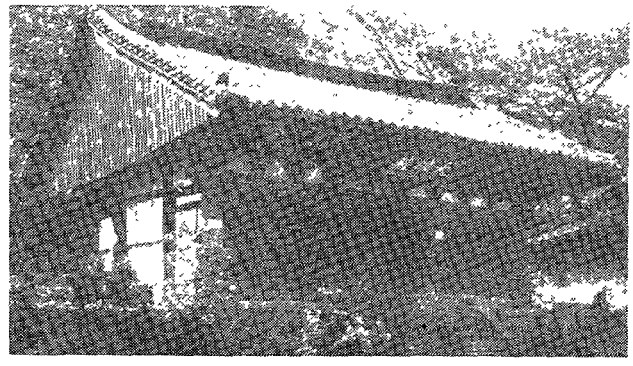
安城 青龍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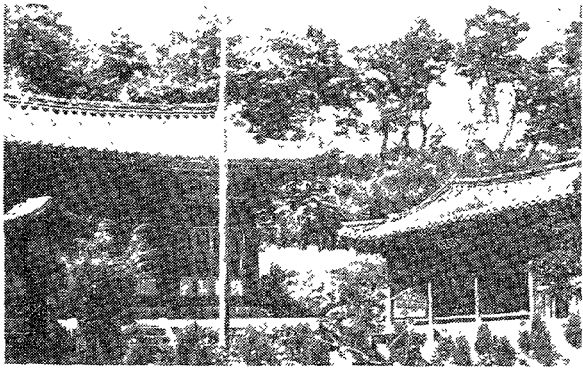
始興 冠岳山 虎壓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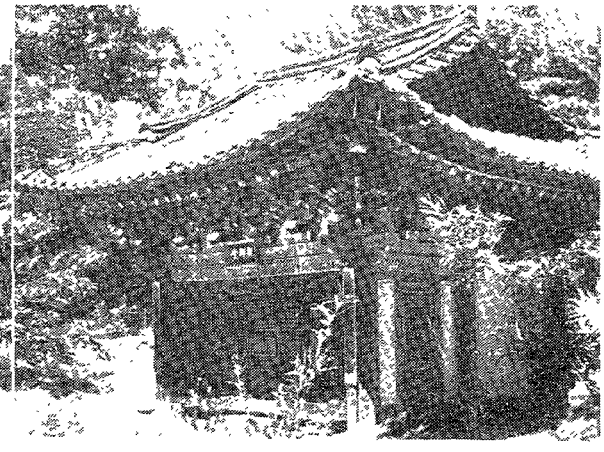
楊州 道峰山 寧國寺址



安城 七長寺 大雄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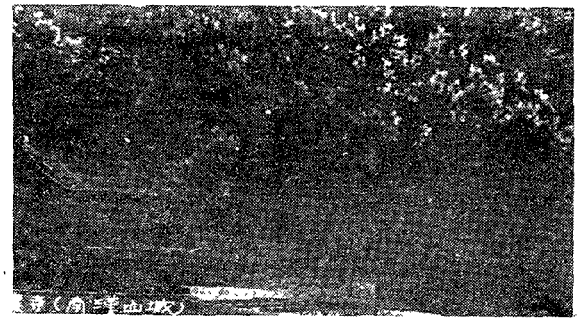
利川 映月庵



驪州 神勒寺 祖師堂



楊州 奉永寺



廣州 南漢山城 長慶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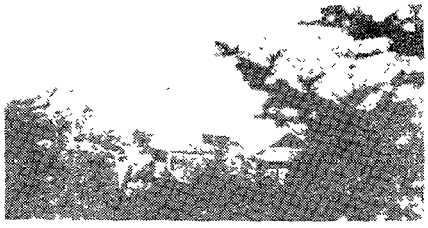
京畿道 代表的寺刹의一部 其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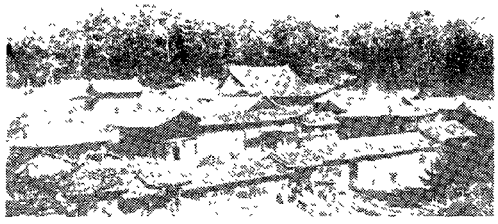
抱川 元興龍寺



楊州 水鍾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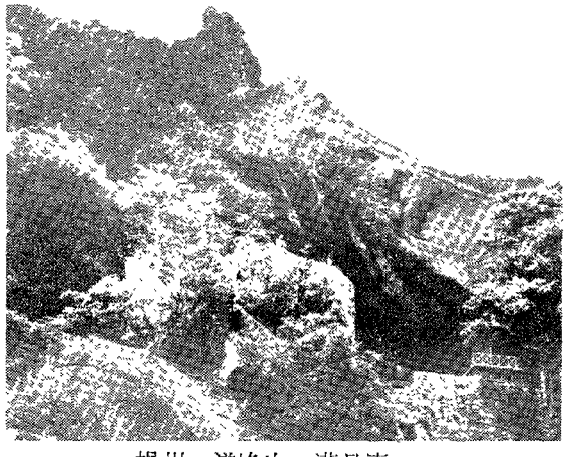
長湍 元華藏寺



楊州 元峯先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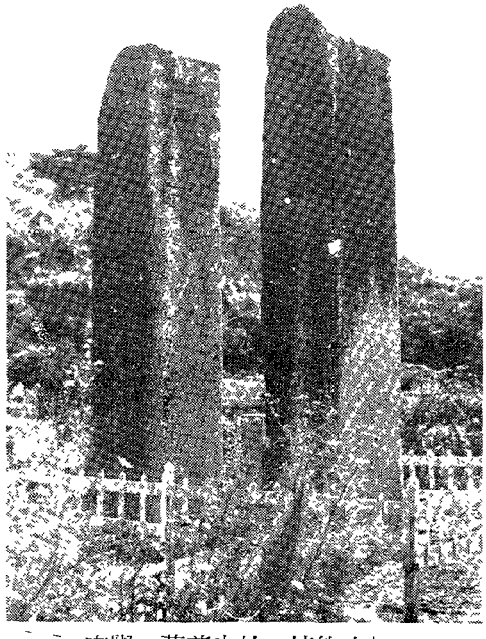
江華 彌勒佛



楊州 道峰山 滿月庵



始興 中初寺址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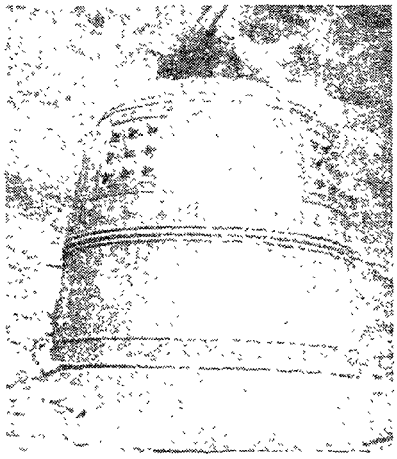


高陽 藏義寺址 幢竿支柱

佛鐘・彌勒・支石片片



坡州　廣灘面　彌勒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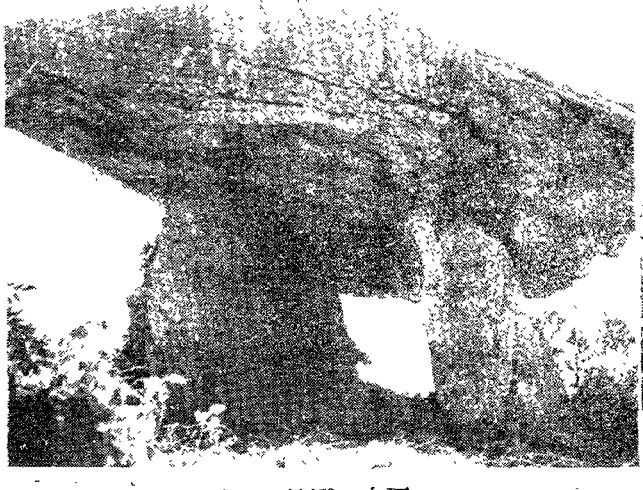
楊州　奉先寺　鐘



安城　彌勒佛



利川　大月彌勒



江華　河岾面　支石



利川　新屯面　支石

그 風景의 아름다움은 他寺에서 찾아 볼길이 없다。江 이쪽에서 건너다 보면 翠雲속에 散見되는 古色蒼然한 蓋瓦 용마루는 鳳尾山 全體가 一大 伽藍인 印象을 준다。百仞斷崖의 削岩絶壁위에는 老木亘樹 사이로 雅美를 極한 甕塔이 우뚝 섯고 削岩이 그친데는 길이 막킨 漢水가 白泡를 뿜기며 岩壁에 부드친다。鳳尾山中에 神勒寺가 있겟만 神勒寺속에 鳳尾山이든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것이 誇張이라면 鳳尾山은 오직 神勒寺만을 爲하여 생겨진 山이라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事實 鳳尾山의 거의 全部를 神勒寺가 占有하고 있는 것이다。

江을 건너 寺境에 들면 佛殿을 보려 온 探寺의 動機도 잊고 발이 저절로 東臺로 간다。削岩疊疊의 東臺에 오르면 弓形을 그으며 흘러 나린 漢水가 바로 발 밑에서 岩壁에 부서진다。 東臺 岩下에 선 自身의 그림자가 물속에 열른데는 것은 너 나 없이 凝視하는 것이 普通이다。 臺下에는 草席를 펀듯 싶은 巨岩、그위에 자리를 깔고 一盃酒 들고 싶은 衝動을 받는다。誇張이 아니라 可謂 仙境이다。神勒寺를 찾는다면 이 月夜의 東臺를 반듯이 한번 볼 必要가 있다。 神勒이야 말로 幽久한 歷史에 美의 精華를 다 한 寺寶에 또한 山光水色의 美까지 兼有한 名勝이오 名刹이라 할것이다。

나、寺 史

寺史를 들쳐 보면 高麗朝末의 高僧 懶翁의 住錫으로 李朝 第九代 成宗甲午에 一大 重修를 했다。

이제 寺境內에 있는 建物의 位置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寺境에 들어서면 漢流를 向하여 正前面에 雄健한 九龍樓가 있다。樓上에서의 寺內 展望도 좋거니와 漢江의 白沙場과 멀리 江岸高臺에 蜃氣樓처럼 선 淸心樓와 그 밑의 馬岩을 바라보는 맛도 좋다。

이 樓上 欄干에 기대어 寺內로 눈을 돌리면 눈에 뜨이는 古雅한 建物이 極樂殿이오 그 바로 앞에 多層大理石塔이 있고 左右로 觀音庵、僧房、住持室等의 大小建物이 極樂殿을 위어싸고 있다。極樂殿뒤로 돌면 左側으로 國寶로 指定된 祖師堂、그뒤로 寞府殿、中央에 石燈과 石鍾左右로 十王殿、七寶閣等이 있어 文字 그대로의 一大 伽藍을 形成하고 있다。

本寺에는 實로 寺寶가 많다。藝術的極致를 다 한 古雅優美의 極樂殿은 麗末과 李朝에 걸친 作表的인 建物이다 本寺는 距今 六〇〇年前의 創寺로 李朝에 들어와서 第九代 成宗代에 重修를 했다고는 하지마는 全建物의 丹靑의 珞璐한 色彩는 昨今의 建築과 같다。壯嚴하고도 精巧하기는 어려운 法이지만 이 極樂殿만은 壯과 雄에 精과 巧、燦爛하기 까지 하다。그러나 이 極樂殿은 創寺時의 建物이 아니다。壬辰倭亂에 兵火로 烏有化 했던것을 宣祖때 再建한것이다。

極樂殿 正門 뒤 門안에 千秋萬歲란 四字가 붙어 있다。懶翁의 親筆이라고 傳해진다。神奇한 것은 正面을 보면 千秋萬歲의 四字가 分明하되 左側에서 보로 보면 千字는 北斗七星이 되고 秋字는 三角山萬歲는 桂字로 보인다。

다、寺 寶

ㄱ、多層大理石塔

極樂殿 바로 앞에 多層石塔이 있다。全大理石製로 靑龍·黃龍이 會身한 精巧한 彫刻이 빈틈이 없다。이 兩龍彫刻도 各層 各面이 다 다르고 彫刻했다기 보다 細筆로 그린것 처럼 調密하다。이 塔은 李朝初의 作으로 麗朝와 李朝와의 같으면서도 特異한 特色을 가추고 있어 珍貴하게 역여진다。

ㄴ、祖師堂

祖師堂은 極樂殿 뒤에 있는 그다지 크지 않은 아담스러운 建物로 國寶第三〇〇號로 指定되어 있는 珍寶的인 建築이다。 이 祖師堂이 가진 建築美術的 價値는 絶頂에 達한다는것이 專門家의 說이다。정말 한개의 完成된 彫刻品이오 繪畵다。李太祖初의 建造나 彩色이 아직도 눈이 부신다。

그러나 이 祖師堂이 建築學上으로 이렇게까지 評價되는 理由는 대를 보를 全혀 使用치 않고 이만한 建築을 했다는 點이라 한다。 그렇것만 六百年을 바라보도록 建造初 그대로의 面貌를 維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祖師堂內에 保存되어 있는 無學、懶翁、指空 三師의 肖像畵는 珍寶에 屬한다。 建築도 建築이려니와 이 肖像畵는 李朝를 通하여 繪畵的으로 代表的인 것이라 한다。

ㄷ、石鍾 및 石燈

祖師堂에서 鳳尾山 쪽으로 올라가면 저 有名한 石鍾이 있고 그 앞으로는 石燈、오른편에 石鍾記碑가 있다。 모두가 麗末의 高僧인 懶翁을 紀念하기 爲해서 製作된 것으로 石鍾은 國寶 第三五七號、石鍾記碑는 國寶第三五八號로 各各 指定되어 있는 寶物이다。

이 石燈에는 每年 正月十四日과 五月十四日에 불이 켜진다고 한다。 正月 十四日은 普濟尊者 懶翁의 誕生日이오 五月十四日은 忌日이기 때문이다。

다만 遺憾은 碑文을 全部 判讀키 어렵게 되어 있는 點과 石鍾 其他 寺內의 各寶物에 修學旅行을 온 學生들이 作亂을 하여 破壞도 되고 더럽혀진 點이다。

이런 不美한 行動은 文敎部를 通해서 徹底히 團束해야 國寶가 保存될 것이다。

ㄹ、大藏閣記碑

珍貴한 寺寶임에 그치지 않는 珍品이다。 第三五九號로서 國寶로 指定되어 있다。

이 記碑는 壬辰倭亂 當時 倭敵兵에 依하여 部分的으로 破損된 個所가 있어 碑文을 完全히 轉記할 수 없음이 遺憾이다。

參考로 判讀할 수 있는 全文을 記錄하면 다음과 같다。

高麗國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碑

三重大匡判三司韓山牧隱先生命崇仁在昔至大庚戌〇月初三日吾祖井邑

府君病死先君稼亭文孝公年十三喪苑工無憾至正庚寅十月二十日祖母病歿先君喪事審禮問請浮屠轉經于卿之僧金先君每嘆吾今而後何怙何恃座元南山聰公曰公今苟欲以吾法寶考妣冥福哉成一部藏敎平吾法盡在是矣先卽白金仙尙家而立願焉明年辛卯春正月朔先君不幸歿於衰經之中予自燕奔喪仍請聰公轉經語及先君之願予方讀禮未暇及也旣免喪徵倖世科名載仕師惟不克供職之是懼又未暇及也聰公屢以書來日令先君之願其可違乎則未嘗不對書白傷而已洪武辛亥九月二十六日先金氏又病歿憂制甫終吾疾作莫能興甲寅秋九月二十三日玄陵奄棄群臣予竊伏念先君爲玄陵潛邸〇舊臣積有年紀予又首擢

玄陵〇科聚陞宰府吾父子蒙(中略)恩至渥曾未有絲毫之報而(中略)劍忍遺可勝痛哉歲己未聰公適白山來日吾年七〇(中略)而不死得與公相見豈偶然哉吾前所報令先君之願公能記不予益自傷焉曰上資福於(中略)不在斯〇不在斯歟時予病新起奉(中略)敎銘懶翁塔未允也因自計吾刀則不足矣可賴以辨此者惟賴翁徒(中略)書古之有號無及琇峰二浮屠者卒其徒縱臾始白庚辛二月募緣覺昌於順興覺洪於寧海道惠於淸州海州於忠州覺雲於平壤梵雄於鳳州志寶於牙州化楮爲紙釋幻造墨至辛酉四月〇出經緯論九月〇〇十月覺珠題目自覺〇造複十一月性空造函朝暮凶時斗以飯諸化士終始不怠者旺蠱里(中略)正月於華嚴靈通寺轉(中略)月舟載至于神勒寺懶翁示〇之地也花山君權公僖爲考(中略)旣施金盈題目復興諸檀施財同庵順公堇俱遂於南寺之南起閣二層覺修丹雘旣皐疲而(中略) 又轉今癸亥正月又轉約歲二次爲恒規中置花山毗盧遮羅一驅唐城君公義龍爲考妣(中略)之王氏與姜夫人所造文殊〇〇以起四象贍禮之敬焉嗚呼三十餘年之久而先君之願始成(中略)極地壽君福國利生濟物於無窮也哉(中略)者謀立石垂示將來子其代予筆崇仁不敢辭乃言曰佛氏(中略)一塵超出萬物賢知者固已(中略)又有所謂福田利益者於是忠臣孝子報君親之(中略)予不得不歸焉其書之盛(中略) 旣作之牧隱先生又述之卒能成此法寶奉福(中略)至親斯乃忠臣孝子之無疑之矣仁敢不樂(中略)力以相助者其名

氏具列碑之陰云洪(中略)翊大夫版各判書(中略)奉翊大夫與校寺追賢館提學權(下略)

(上記碑文中○은誤字消滅이오中略云은該部分이不明한것이다。)

ㅁ、五層甓塔

神勒寺라면 몰라도 甓절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만큼 神勒寺는 이 甓塔으로 有名하다。

이렇듯 有名한 五層甓塔은 削岩 數丈의 絶壁으로 이루어진 漢江 曲水 머리인 東臺 臺上에 聾立해 있다。驪州邑에서 神勒寺를 찾아 오는 사람은 나루배를 기다리는 동안 벌써 이 甓塔부터를 眺望케 된다。

이 甓塔은 新羅藝術의 精髓를 다 한 美의 極致라고까지 評價된다。全塔을 甓으로 쌓아 올린것도 特色이려니와 그 數萬으로 헤아릴 甓의 個個에 彫刻이 一見 다 同一한것 같으나 其實 그 個個가 全部 달름을 發見할 수 있다。이 精誠과 技巧와 手苦만 생각해도 머리가 自然 숙어진다。

이 甓塔 앞에서의 上下眺望은 實로 絶景이다。水量도 적지는 않지만 넓은 江幅에는 白沙場이 물과 함께 흘러 달밤에는 白沙가 江물처럼 錯覺이 된다。上流로는 탁 티인 넓은 벌、 아래로는 馬岩絶勝에 迎月樓의 眺望을 지나서 驪州邑뒤를 흘르는 江水를 따라가면 凡人의 머리에도 詩興이 절로 돋는다。

東臺에는 牧隱先生이 修學했다는 書室址가 있다。 甓塔바로 밑넓은 岩上에 기둥 세웠던 石穴이 五六 있다。 이 자리가 牧隱先生이 神勒의 木鐸 소리도 듣고、 江水에 비치는 달빛을 즐기시면서 修學하던 자리라 한다。

神勒寺의 創建者인 懶翁이 中國에서 짚고 온 지팽이를 꽂은것이 자랐다는 銀杏木은 塔바로 아래에 있다。

李穡、崔淑精 兩人의 寺頌을 轉記해 둔다。

神勒寺　高麗　李穡

遠穡長江外　疎松翠石傍
松提聞福地　普濟敝眞堂
縣命頻腰笏　山僧獨面穡
何當尋野艇　長嘯倚蒼茫

同　李朝　崔淑精

隔岸有僧舍　金碧石村端
諸天知下界　世尊安仲間
俗客少來往　高僧長自閑
晨昏祝香火　聖壽齊南山
門前甓浮屠　歲遠苺苔班

四、興旺寺

興旺寺는 本郡 北內面 中岩里에 있다。創建年代는 未詳이나 佛宇로서 大雄殿과 山神堂이 있고 佛像으로는 觀世音菩薩이 安置되어 있다。境內에 樹木이 鬱蒼하여 景致도 좋다。

五、其他佛庵

이밖에도 金沙面內에 三庵子가 있으니 外坪里에 妙蓮庵、長興里에 藥泉庵、梨浦里에 聖禪庵이다。어느것이나 小庵에 不過하나 勝景에 藥水가 있어 探勝客이 그칠줄을 모른다。

六、淸心樓址

驪州 絶景의 一이던 淸心樓는 邑內 國民學校 後庭 漢江에 臨하고 있다。八·一五 解放前까지 古色이 蒼然한 古樓에 觀賞木이 많았으나 八·一五 解放 卽後에 아깝게도 燒失이 되어 지금 舊址를 보게 되고 말았다。

이 淸心樓는 멀리 新羅時代에는 現 學校자리에 巨刹이 있었다고 傳해지고 있다。

樓 欄干에 기대어 江을 나려다 보면 自己 얼골이 江물에 비치는듯 싶다。湖水처럼 潺潺한 江水、이 一帶가 宮中에 進上하던 鯉魚의 所産地

다。江水의 上流를 쳐다보면 神勒寺의 東臺가 舞臺의 遠景처럼 보이고 눈을 들면 驪州八景의 一인 鶴洞暮煙과 八大長森이오 下流로 눈을 돌리면 寫眞에서 보는 瑞西 그 어느 江邊을 聯想시키는 風光이 展開되어, 李牧隱、鄭圃隱等의 大儒文客들로 하여금 驚嘆을 마지않게 하던 곳이다。그래서 淸心樓에는 牧隱、圃隱外 四十餘文客의 詩板이 걸려 있었으나 八·一五解放後 乞人들의 失火로 燒失되고 지금은 樓址만이 쓸쓸이 남아 있다。

이 淸心樓에서의 眺望에 八景이 있으니 一曰 二陵、李朝의 英主요 한글創製主인 世宗大王의 英陵과 孝宗大王의 寧陵의 二陵周邊의 鬱林을 禮讚한 二陵春樹요、二曰、神勒寺의 殷々한 鍾소리를 듣는다 하여 神勒鍾聲、三曰、神勒寺 東臺에서의 望月、四에 麗興閔氏가 出生했다는 傳說이있는 馬岩附近의 漁火、五가 마주편 鶴洞의 暮煙、六이 貝鏡長林、七에 半島落雁이오、八에 驪灘에서의 歸帆頌이다。

所景三景이니 八景이니 하는것은 어느 地方에 가든 大槪 있는 法이다。그리고 景은 마주기 爲하여 억지로 꾸민 八景도 없지 않은 法이나 이 淸心樓의 八景만은 어느것이나 絶景이오 또 實感이 난다。

樓는 비록 燒失되었으나 八景의 勝景은 依舊하다。

이 淸心樓의 建物에 關한 特色의 하나는 다른 建築에서 보지 못한 데를 보다。이 淸心樓에 쓰여졌던 瓦(葛)이었다는 것이다。칡이 아모리 굵기로니 대를보 가음이 되랴고 하는것이 常識이나 이것은 여러 사람의 考證이라고 하니 놀랍다。이런 珍貴한 建物이 保管의 不注意로 燒失되었음은 恨이 아닐 수 없다。

七、江 漢 祠

江漢祠는 驪州邑 下里 漢江岸에 있다。李朝 宣祖代의 名僧으로알려진 尤菴 宋時烈을 享祀한 書院이다。丙子胡亂에 宣祖가 淸에 降服을 하자 痛哭을 하며 出城하여 鄕里에 隱居한 愛國者이기도 하다。次代 孝宗大王이 隱居中에 있는 尤菴을 불러 國政을 맡기었다。

이렇듯 大儒요 政治家요 또 愛國者면서도 오직 黨爭의 中心人物이었든 것만은 玉에 티라 할 수 있다。顯宗代에는 左議政의 要職에까지 昇進하였으나 甲寅 尹鐫과의 禮論爭端을 이르키어 肅宗代에는 濟州島에 流配되었고 井邑에서 死藥을 받았다。때에 八十三歲의 高齡이었다。

肅宗이 尤菴에게 死藥을 나린 直接的인 動機는 肅宗王의 寵妃嬉嬪張氏의 몸에서 난 아들(後에 景宗)을 王이 王子로서 冊封하려는데 反對한 것이 主原因으로 되어 있으나 其實 根本을 캐면 南人對 西人의 黨爭에 犧牲이 된것이다。

이 江漢祠가 創建된 動機는 正祖王이 英、寧兩陵에 展省次 來駕하였다가 儒臣 金亮行을 命招하여 郡內에 時急히 施設할 事業의 有無를 下問、宋尤菴의 祠院建立을 建議하였든바 十年後인 乙卯에 이의 建立을 보았던 것이다。

처음 書院이 建立되였을時는 大老祠라 命名되었었으나 後에 大院君이 政權을 잡으면서 黨爭의 禍根은 儒人들의 書院이 溫床이라 하여 全國의 書院은 廢止시키는 同時에 大老祠도 江漢祠라 改稱케 한것이다。

이 尤菴은 먼저 말한대로 歷代의 大儒면서 死藥을 받기 까지에 이른 所謂 禮訟이란 孝宗薨去 當時 孝宗大王의 父王 仁祖의 繼妃 慈懿大妃가 아직 生存해 있었든바 宋尤菴은 이 大妃의 喪期는 一年으로 足하다。主張한데 對한 南人 尹鐫等은 三年服論喪으로 對立하여 두고 두고 論爭을 한것이 그대로 黨爭化하고 만것이다。

宋尤菴의 享祠書院이 驪州에 서게 된 理由는 尤菴이 野人時代를 數次 驪州에서 보낸 때문이다。

宋尤菴은 歷代에 大儒요 政治家요 또 愛國者였지만 崇明의 度가 너무 지나친것이 欠이었다。우리나라가 明의 身勢를 진것은 事實이오 또 그만한 信義를 지켜야 할것은 宜當한 일이라 하겠으나 尤菴의 明에 對한 感謝는 度를 지나서 崇拜였고 明을 神國化하고 明帝를 偶像化한感이 不無하다。自己만이 아니라 이 拜明 崇明을 學問처럼 後世에 傳授하려 들

었고 强要까지 했다。當時의 建物이나 碑閣等에 明의 終王이 의고 年號인 崇禎 몇年몇月이라고 記錄된것이 많거니와 이도 宋尤菴의 功罪의 表現이라 할수 있다。그는 이 民族이 낳은 有名한 碩儒지만 이 尊明主義의 鼓吹를 一生의 業으로 삼아 慕華樓와 大報壇을 남기었을뿐 아니라 事大思想을 民族의 血管속에 注入시켰든 것이다。

이 江漢祠의 建造 年號에도 明의 崇禎年號를 써서 보는이로하여금 상이찡그러지게 한다。

八、倉里 三層石塔

本郡 州內面 倉里에 花崗石製의 三層石塔이 있다。아직까지 이 石塔에 關한 文獻이 發見된 것이 없어 그 製作年代도 알려져 있지 못하나 國寶第一六一號로 指定되어 있는 珍物이다。

그러나 大槪 高麗時代에 이 附近에는 寺刹이 있었다 하는 點으로 推測하여 麗朝의 作이 아닌가 하는 說이 有力하다。石塔은 二基壇上에 세워져 있었으나 不幸히도 露盤以上의 部分은 缺失되어 있다。이 附近 地下 어디에 埋沒되어 있으리라 推測되고 있으나 오늘날 까지도 아직 發見되고 있지 못하다。

九、下里 三層石塔

州內面 下里에도 三層石塔이 있다。本石塔은 全花崗石製로 一盛의 基壇위에 서 있고 高는 約十一尺 八寸이다。

本石塔의 製作年代도 아직 確認되어 있지 못하다。그 構造로나 보아 亦是 麗代의 作品이 아닌가 한다。이 石塔도 國寶第一六二號로 指定되어 있다。

이 地點에 이러한 石塔이 서 있는 것은 亦是 이 附近이 麗代의 寺刹址가 아닌가 推測되고 있다。그러나 이에 關한 口傳은 있어도 文獻은 發見되고 있지 않다。

一〇、陵　村

驪州邑에서 南쪽으로 約十里쯤 가면 陵峴이라는 洞里가 있다。陵峴은 一名 陵村이라고도 하여 李朝末 一女性으로서 許多한 歷史的 事件을 이르킨 女傑 閔妃 成皇后의 出生地다。그러니만큼 이 陵村에 가면 격금도 幼少女時代의 閔妃에 關한 許多한 逸話가 口傳되고 있다。村老中에는 直接 目睹한 사람도 있으니 만큼 根據없는 이야기는 아니다。그 一例를 들면 閔妃가 偏髮少女로서 코를 흘리며 자채논에 새를 보던 자리가 바로 陵村 뒤라는 것이며 一貧農집 딸로서의 生活逸話가 많다。

世上이 다 아다싶이 李朝末은 所謂 雲峴派라는 大院君派와 閔黨인 閔妃와의 政權爭奪戰으로서 끝 막은 세음이다。大院君의 구ㅣ데다가 成功 閔妃가 婢服을 입고 宮中을 脫出하여 처음 찾어 간곳도 驪州의 閔氏族이였다。그러나 아무리 親戚이지만 閔妃를 隱匿행다가는 큰 禍를 입을 것이라 州內面 閔氏는 발기를 拒絶할수 없어 長湖院으로 避身을 했던 것이다。

또 이런 逸話도 있다。같은 閔氏라 하여 밀고 찾아 간 州內面 親戚에게 拒絶을 當하고 長湖院으로 가던 途中이였다。一洞里 앞을 지날때 酒幕집 女子가 가마門을 열고 보아하니 貴하신 댁네네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세상이 하도 지끄러워서 서울을 떠나노라。」

하는 閔妃의 對答에 그 酒幕집 女子와 洞里 婦女몇이서

「그 閔妃년 때문에 大家댁 귀하신 댁네가 고생을 하십니다 그려。그 閔妃가 얼른 죽어야지。」

大院君의 勢力은 또 한번 뒤집히었다。閔妃는 入宮하는 길로 그 洞里의 女子들을 잡아다 慘殺을 했다는 것이다。

勿論 文獻에 남은 이야기는 아니나 過去일이라 口傳만도 史實에 가까울 것이다。

이 陵村에는 高宗皇帝의 親筆로 된 明成皇后誕降洞里碑라는 碑가 있거니와 驪州邑은 閔妃를 爲始하여 大院君과 마조 서서 血鬪를 한 歷史的 人物 金炳冀、五千年 歷史를 通하여 唯一한 逆賊의 罪名을 쓴 李完

用等 여러가지 意味에서의 李朝末의 巨物級人材를 낳은 고을이라 할것이다。

一一、迎月樓와 馬巖

邑에서 神勒寺로 가기 爲하여 東北으로 나가자면 邑外 左側高臺에 古風의 一樓가 보인다。이것이 迎月樓다。이 樓는 元 郡廳의 樓門이었는것을 距今 二十八年前 乙丑年에 當時의 申鉉泰 郡守가 毁棄될 運命에있는 同樓를 現在의 山頂으로 移築한 것이다。

樓에 오르면 樹雲에 묻친 名刹 神勒寺의 大伽藍이 지쪽 漢江岸에 바다가 보이고 鶴洞暮煙이니 八大長林、馬巖漁火、二陵春樹等 驪州 八景이 全部 視野에 든다。

이 樓下의 江岸에는 巨岩이 削壁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奇와 怪를 極한 巨岩들이 疊重하고 있다。

이 絶壁이 끝난데서 水面으로 若干 떨어진 자리에 一大 巨岩이 있어 물결이 칠때마다 浮沈한다。이 巨岩이 閔妃의 祖上인 驪興閔氏의 始祖가 誕生했다는 馬巖이다。平時에는 水中에 잠기어 보이지 않으나 이 馬岩에는 一大 岩穴이 있다。이 岩穴에서 閔氏의 始祖가 이 岩穴에서 났다기도 傳해지고 옛날 이 岩穴에서 黃馬(驪馬)가 昇天하는것을 본 사람이 있어 이것이 口傳되어 同郡名을 黃驪라 稱했다는 것이다。이 黃驪의 郡名은 後에 驪興이라 했고 그것이 다시 지금의 驪州로 變한 것인데 이 驪字는 黃馬昇天說에서 由來했다는 것이다。

馬岩의 名도 勿論 이 傳說에서 由來한 것일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이 迎月樓와 馬巖은 驪州의 代表的 絶勝이다。削壁絶壁의 馬岩에 배를 매어 놓고 하로의 淸遊도 좋거니와 밤낚시질도 名味다。馬江漁火는 驪州 八岩中에서도 勝景이다。

멀리 江邊에서 쳐다보면 天下 名勝이라는 平壤 牡丹峰의 乙密臺를 聯想지키는 絶勝이다。數十丈 高臺의 樓上에서의 迎月도 詩的이거니와 멀리 江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古刹神勒에서의 鍾聲은 사람을 醉하게 한다。

이 馬巖은 遊覽客의 淸遊에도 없지 못할 存在려니와 驪州邑을 爲해서도 絶對不可缺의 靈岩이기도 하다。이 馬巖에는 「칼바위」(劍岩)가 달려있어 驪州邑으로 흘린 江水가 이 칼바위로 해서 水路를 밖으로 돌리어 驪州邑을 保護하고 있는 것이다。이 「칼바위」를 禮讚한 牧隱先生의 名句가 있다。

捍水功高馬岩石　浮天勢大龍門山
馬岩　李朝　李奎報
碧馬雄奇出水涯　縣名從此得黃驪
詩人好古煩微詰　來往漁翁豈自知

一二、端宗의 御水

非單 李朝에 限하지 않고 端宗哀話는 有史以來의 一大悲劇에 屬할 것이다。端宗이 十二歲에 登極하자 端宗의 先王 文宗大王의 아우요 端宗에게 叔父되는 首陽大君의 陰謀로 어린 端宗은 王位를 빼앗기고 寧越配所로 쫓기어 드디어 凄慘한 一生을 마추었든 것이나。 端宗뿐 아니라 成三問을 爲始한 死六臣이 났고 그 三代까지가 滅族離散을 했던 것이다。

이 端宗의 叔父 首陽大君이 바로 世祖大王이다。

世祖大王도 治績은 많은 王이었지만 端宗도 뛰어난 英才였든 것은 그의 言行에서도 알 수가 있다。

그 端宗이 叔父한테 王位를 빼앗기고 거기에다 逆徒의 罪名까지 쓰고서 寧越配所로 죽엄의 길을 찾아가던 途中、이 驪州 大神面 上九里에서 一泊을 했던 것이다。

비록 나이 어렸지마는 英才이던 端宗이 自己의 龍座를 빼앗은 叔父한테 되려 逆徒의 罪名을 쓰고 주검의 길을 찾아가던 그의 心懷 果然 어떠했으랴 생각할때 한줄기 눈물을 禁할수가 없다。

이 上九里 山麓에 있는 一坪未滿의 우물이 그날밤 端宗이 마시었다는

御水井이다。端宗에게는 山谷에 솟는 藥水가 아니라 死水였고 보니 우물을 보아도 無心할 수가 없다。

距今 四百九十五年前 이야기나 이 우물 앞에 서면 端宗幼王의 열골이 井水에 비치는듯 싶다。

一三、李適의 더우물

驪州驛 뒤로 조곰만 언덕 비슷이 丘陵이 있다。이 附近에 또한 우물이 있다 이를 더우물이라 불러온다。

이 우물은 仁祖大王한테 叛旗를 들고 起兵한 李适의 집안에 있든 우물이다。

李适은 元來 仁祖大王 한테 忠誠을 다 하던 爲人이였다。光海君을 몰아내고 仁祖를 뫼시는데 가장 많은 功을 세웠것만 宮內에서 그를 猜忌하는 사람들이 謀害로 一等功臣이 못되고 金遠한테 자리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寧邊府使란 반갑지 않은 자리로 쫓겨간것을 분히 여기어 宮中의 不純分子 肅淸을 내어걸고 一路 서울까지 쳐 들어 왔다가 鞍山싸움에서 敗했던 것이다。이 李适은 여러代 驪州에서 살아온 터다。驪州邑은 그 地形이 行舟形이라 하여 옛날에도 掘井이 禁止되어 왔다고 傳해져 있으나 오늘처럼 文明한 時代에도 아직 邑民의 大部分이 漢江水를 飮水로 저다 먹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一般 民家에서는 費用關係로 掘井이 不如意했던 모양이다。現在도 驪州邑內에는 飮料井은 官公署를 合해서 全邑內에 九井밖에 없다고 하니 可히 알수 있다。驪州邑에서는 最少限 六十尺은 파야만 食水가 난다고 하니 그런 말이 傳해짐즉도 하다。

어쨌든 李适의 집안에 이만한 우물이 있었든 것으로 미루어 보아 相當한 大家였던 모양이다。

지금 邑郊外에 上水道를 工事中이니 舟形說도 없어질 것이다。

一四、彌勒佛

本郡에는 金沙面 道谷里와 宮里 二個所에 各 彌勒佛 이 一座式 있다。

道谷里에 있는 彌勒石佛은 山麓露天에 그대로 放置되어 있다。두 彌勒佛의 手法이 恰似한 것을 보아 製作年代도 거의 同時代가 아닌가 하는 說의 有力하다。

다만 다른것은 道谷里의 것은 戴冠이 없고 宮里의 것에는 冠이 있을 뿐이다。臺에는 아모런 刻字가 없어 由來도 年代도 알길이 全혀 없다。오직 推測할수 있는것은 이 附近에 巨刹이 있었든가 하는것 뿐이다。그러나 그것도 文獻으로나 遺品으로 確認된것은 아니다。附近에서 瓦片、什器等이 發掘된것도 없다는 것이다。

第二節 陵墓

本郡에는 李朝의 英王 世宗大王의 英陵과 第十七代 孝宗大王의 寧陵을 爲始하여 貞翼公 李浣將軍、成宗大王의 淑徽翁主、仁顯王后 閔氏의 父인 驪陽府院君、嘉順宮의 父인 朴準源의 墓가 있다。

一、英陵・寧陵

世宗大王의 英陵과 孝宗大王의 寧陵은 淸心樓 八景에는 二陵春樹요、驪州八景에는 二陵啼鵑으로 나와 있는 陵西面 旺垈里의 鬱蒼한 松林속에 있다。春樹에 啼鵑—이 두 表現으로서 二陵地帶의 그윽한 風景을 足히 想像할수 있다。이 二陵을 一名 新、舊陵으로도 부른다。英陵을 舊陵、寧陵을 新陵이라 함은 年代順에서 붙은 이름이다。農民들은 陵名보다도 新、舊陵으로 불러야 할 程度로 普遍化하고 있다。

世宗大王의 陵은 本是 楊州에 있던 것이다。그것을 第十一代 中宗이 在位 二十三年에 楊州에서 現陵地로 移葬한 것이다。이 地帶가 風水學說로 보아 훌륭하다 하여 移葬을 한것이지만 이 英陵 移葬을 했기 때문에 李朝 王國이 百年을 더 延長되었다는 說이 있다。이를 英陵이 加百年이라고 한다。

風水說로 보아 果然 그런 名堂地인지 아닌지는 모르거니와 삼태기 처럼된 地形이 그지없이 안윽하다。陵境에는 解放後의 그 濫伐을 겪고서도 아직 松林이 鬱蒼하여 境內에 발을 들어 노면 神秘境에 든듯 싶다。

樹雲이 疊々한데 杜鵑새 소리 또한 은근하다。봄에는 躑躅이 名物이요 境內 곳곳에 谷水가 흐른다。안우하고 老松이 鬱林을 이루었고 老鶯에 뻐국이에 杜鵑、소쪽이 울고 곳곳에 물이 있으니 勝景이고 名堂일 밖에는 없다。

이 英陵 자리에 傳說이 있다。

元來 이 陵자리에는 어떤 大家집 산소가 있었다 한다。그 大家집 산소자리를 잡아 준 地官이 여기에 宅의 뫼를 쓰되 墳墓도 만들지말고 絕對로 碑閣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警告를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大家집에서는 兩班이요 大家의 산소에 어찌 墳을 좋으지 않으며 碑閣이 없을수 있느냐고 地官의 말을 듣지 않고 成墳、立碑했다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英陵을 移葬할때 그자리에서 墳墓와 碑閣을 보고 나라에서는 墳墓도 옮기게 하고 碑閣도 없앴다는 것이다。李朝王朝가 이 英陵자리로 해서 「加百年」했다고 할 程度니 地官의 말을 들었든들 그 大家집이 國王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村老들은 애석해 한다。

孝宗大王의 寧陵은 第十八代 顯宗十四年에 造營되었으니 距今 二百八十餘年前이다。

陵制는 二陵이 거의 비슷하나 護石、石欄、石床、望柱石、長燈石、石羊、石虎、文武石人、石馬、丁字閣、碑閣、水剌房、紅門等에 李朝初期와 中期의 特色이 있어 좋은 研究材料가 되고 있다。

英陵의 世宗大王과 寧陵의 孝宗大王 두분은 第四代와 第十七代의 十三代의 差요 年數로 二百四十年의 相距가 있으나 여러가지 意味로 英王이었다 할수 있다。世宗大王은 四千餘年 民族의 文字를 갖지 못하고 大陸의 漢字에만 依存해 온 우리한테 한글을 創造해 주신 民族文化의 創造者이시고 孝宗은 先王 仁祖大王이 丙子胡亂으로 淸에 가진 侮辱을 받았던 國恥를 雪辱코저 자나 깨나 勞心焦思한 분이다。在位年限이 不過十年이어서 孝宗은 이렇다 할 治績도 남기지 못했고 淸에 雪辱도 못했지만 그의 北伐理念은 實로 切實한바 있었다。或은 南漢山城에 들어 先王 仁祖大王의 四十五日籠城을 追慕하며 北伐을 構想도 했고 或은 寢殿에 重臣을 불러 北伐計劃을 密議도 했었다 하니 孝宗大王이 좀더 在世하여 北伐을 完遂했다면 우리 民族의 活路는 大陸에로 無制限 打開되었을지도 모른다。

으늘 우리도 北伐을 完遂해야 할 瞬間에 있다。六·二五共匪의 侵略에 對한 雪辱으로 兩斷된 國土도 統一해야 하겠거니와 淸의 後身 中共오랑캐를 北伐하지 않으면 안되는 點、孝宗의 心情과 어찌 무엇이 다르다 하랴。

二、慕賢祠

慕賢祠는 金沙面 梨浦里에 있다。約 三百年前 沂川書院이 建立되었든바 壬辰倭亂때 倭兵의 放火로 燒失되어 遺址만이 남아 있던것을 檀紀四二七〇年 五月에 지금은 故人이된 金榮鎭氏가 私財를 기우리어 再造하고 左記 名賢을 奉安했다。

지금도 春秋로 享祀하여 民衆으로 하여곰 名賢들의 遺德을 追慕케 하고 있다。享祀되는 名賢은 아래와 같다。

文敬公 慕齋 金先生
文元公 晦齋 李先生
文忠公 梧里 李先生
贈領議政 耻齋 洪先生
文肅公 守夢 鄭先生
文淸公 澤堂 李先生
忠烈公 瀨齋 洪先生
文簡公 沂川 洪先生

三、名賢墓

一、貞翼公 李浣墓

貞翼公 李浣將軍의 墓는 驪州邑 上里 西側 山麓에 있다。公은 李朝宣祖大王 壬寅年 出生으로 仁祖大王 甲子에 光海君을 몰아낸 論功에 不滿

을 품은 李适이 反亂을 이르키자 嚴父 鷄林君을 따라 反亂鎭壓에 獻身하였고 丙子胡亂때에도 樹功、孝宗大王은 北伐을 爲한 訓練大將에 公을 任命하여 猛訓練을 實踐中 不幸히 孝宗大王의 昇遐로 不如意했다。顯宗代에 右議政의 要職에 있었다。甲寅에 卒하다。

ㄴ、閔老峰鼎重墓

邑內 下巨里에 있다。閔老峰公은 淸顯에 歷歙官職하 右議政에 이르렀었다。

ㄷ、淑徽翁主墓

邑、梅龍里에 있다。淑徽翁主는 成宗大王의 女로 豊原尉 任崇載에게 降嫁하였다。

ㄹ、驪陽 府院君墓

邑、陵峴里에 있다。仁顯王后 閔氏의 父親墓다。

ㅁ、朴準源墓

邑外 稼業里에 있다。朴準源은 嘉順宮의 父親으로 純祖大王의 御製碑文이 있고 碑閣도 建立되어 있어 重寶로 여기어진다。

四、金、李의 住宅

本郡에는 이렇듯 많은 陸墓와 祠가 있거이와 李浣大將의 住宅址도 있고 李朝末 大院君의 好敵手이던 金炳冀의 住宅과 三十六年間 祖國을 倭에 팔아 넘긴 逆賊 李完用의 住家도 있다。

金炳冀의 住宅은 現 敎育區廳으로 使用하고있는 建物로後園이 그대게로 漢江이다。大廳에서의 眺望은 淸心樓址에서의 眺望을 彷彿케 한다。멀리 二陵의 春樹와 燕灘의 歸帆。半島의 落雁、婆娑의 望雨、八大長林의 勝景을 앉아서 즐길수 있는 勝景地이기도 하다。

金公은 또한 驪州邑民에게는 功이 있는 사람이니 때마침 驪州에 大火가있어 千餘戶가 燒失되었을때 救護事業을 하여 民心을 收拾하였다。그의 頌碑가 邑倉里에 서있다。碑文에 曰

(前略) 金公泳根及子判敦寧炳冀在京聞之急命人下來視之盡傾藏穀數百石及錢貨招濱死之人使寧居不至失所判使此州危急將死之人一日得安實爲百年之澤而戶視家戶不可或忽者固人之情也或恐後來有未詳而使恩仁至惠或至浸微則大非斯令仰望故雖非二公之所慾而輒伐石刻之驪江千百年不忘故實在此—云云

李完用의 住家

五千年間 가진 外寇를 물리치고 지켜온 三千里 疆土와 二千萬의 피를 倭王이 주는 金一封과 倭王이 준「侯爵」이라는「벼슬」과 맞 바꾸어 萬代 逆賊의 醜名을 듣는 李完用의 住家도 邑內에 있다。現 天主敎堂 자리로 李가 살던 建物은 그 一部만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가 倭와의 所謂 保護條約으로 外交權、警察權、司法權을 잃고 畢竟에는 軍隊까지 解散을 하게 되자 權力을 그처럼 貪하던 朴齋純도 總理의 자리를 헌신짝 처럼 버리었을때 李完用은 그 朴이 버린 總理자리를 얼시구나 맡았던 것이다。保護條約을 締結시킨것은 이 者들의 賣國謀議였으니 千載一遇의 好機라고 생각한것은 無理가 아니다。

이제 倭의 新聞記者가 當時의 人心을 記錄한 것을 轉載하여 倭人들도 얼마나 李完用을 侮辱했던가를 엿보기로 한다。

(前略) 韓國 最終의 內閣은 組織되었다。그 首班은 虎視耽々 자리를 노리던 李完用이 登用되어 李完用의 宿願은 이루어졌던 것이다。(中略) 李完用의 黑心을 잘 利用한것은 伊藤博文이었다。(中略) 李完用이 앉인 總理大臣의 椅子로 二千萬의 辱說이 集中되었다。모든 侮蔑、辱說、怨恨、呪咀가 總理의 頭上에 暴注하였고 道路、門前、堂宇、樓軒、岩石、亭子、便所、城門、글자를 쓸수 있는 자리에는 그저 李完用에 對한 辱說로 찼었다。怨恨과 呪咀에 찬 이 辱說에도 李完用은 견딜만한 冷血動物이었고 總理의 자리로서 滿足할수 있는 冷鐵漢이었다。排日者 뿐 아니었다。親日派에서도 李完用의 卑屈에는 상을 찡그렸었다。李完用은 그래도 좋았다。그래도 기뻤었다。(下略)

第三節 巨樹名木

本郡에는 名將、名賢 大儒의 往來가 頻繁했던 만큼 巨樹名木도 많다。그中 有名한 것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一、富谷里 銀杏木

占東面 富谷里 山一九에 서 있는 銀杏木은 胸高 周圍가 十一尺에 樹高 六〇尺、樹齡은 實로 一五〇〇年이 넘는다는 것이 專門家의 鑑定이다。이 銀杏木은 神木으로 불리어지고 있다。高麗時代부터 驪州邑內 官衙構內에 있었다하니 新羅時代의 植木이었는것이 確實하다。

檀紀 四二五七年頃 一時 怙死狀態에 빠지자 住民들이 祭祀했고 나무를 꺾은 사람이 急死하고 惡疾이 돌아서 洞祭를 지낸後 退疫되었다고한다。勿論 迷信이지마는 科學的으로도 根據가 없지는 않은것이 그런 怙木에게는 腐敗한 자리에서 惡臭가 나온것은 事實이오、이 惡臭속에 惡疫菌이 있다는것은 科學者도 證明을 하고 있다。그 惡菌이 나무를 베이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고 急性 敗熱을 이르키고 그菌이 傳播되어 惡疫이 流行하게 되었을 것이다。

二、德山里 銀杏木

北內面 德山里 山二八五에 서 있는 銀杏木은 胸高 周圍 二十五尺 樹高 四三尺、樹齡 三二〇年으로 推算되고 있다。約 三二〇餘年前 現 閔詰鎭의 九代祖가 本郡 加南面 新海里에서 移民 十數戶를 引率하고 現德山里로 移住하면서 그 紀念으로 심었다고 傳해지고 있다。

三、神勒寺 銀杏木

名刹이오 巨刹인 神勒寺門에 銀杏木 二株가 서 있다。胸高 周圍 八尺、樹高 五〇餘尺、樹齡은 六〇〇年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 銀杏木은 懶翁이 神勒寺堂를 보러 왔다가 中國에서 접고 왔던 지팽이를 꽂은채 간데서 發芽하여 成長했다고 傳해지고 있는 나무다。그것이 壬辰倭亂의 兵火로 燒失되고 그中 一枝가 남아 있어서 二百年前 偶然히 도 그 怙木뿌리에서 다시 發芽하여 세개가 커가는것을 銀杏木은 雙이라야 한다고 그中 한개를 짤라 버리고 남어지 두개가 지금까지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 外에도 巨樹名木이 많기로 一覽表를 붙인다。

四、其外 名木

種類	所在地	樹高	樹齡
느티나무	驪州邑丹峴里	三〇尺	四五〇年
〃	〃	三五尺	四〇〇年
〃	又晩里	四〇尺	五〇〇年
〃	占東面德坪里	五〇尺	四〇〇年
〃	寬閑里	六〇尺	三〇〇年
〃	興川面歸白里	五〇尺	三〇〇年
〃	金沙面道谷里	五〇尺	四五〇年
〃	梨浦里	五〇尺	四〇〇年
〃	〃	五〇尺	四〇〇年
〃	道谷里	四七尺	三五〇年
〃	外坪里	四五尺	五〇〇年
〃	下昌里	五七尺	三八〇年
〃	梨浦里	四五尺	三〇〇年
〃	下昌里	四五尺	三五〇年
〃	介軍面九尾里	三二尺	四〇〇年
〃	佛谷里	四五尺	未詳
〃	大神面茂村里	二〇尺	二〇〇年
〃	康川面梨湖里	五〇尺	四八〇年
〃	〃 看梅里	四〇尺	四五〇年
銀杏木	占東面德坪里	八〇尺	四〇〇年
〃	加南面新梅里	六〇尺	三〇〇年

銀杏木	加南面大新里	一七尺	二〇〇年	
〃	介軍面仰德里	六〇尺	一五〇年	
〃	大神面茂村里	六〇尺	二五〇年	
〃	北內面川松里	五〇尺	五〇〇年	
〃	康川面看梅里	六〇尺	五一〇年	
〃	興川面莘根里	五〇尺	六八〇年	
梧桐木	〃 內糸里	白鷺棲息	約一〇〇〇首	
山 櫻	金沙面松峴里	三六尺	一二〇年	

利川郡

第一節 名山古蹟

一、雪峯山 城址

雪峰山은 利川面 官庫里에 있다。 邑에서 西쪽으로 八里 地點이다。

雪峰은 一名 舞鶴山이라고 하나 그 山名의 由來을 傳해주는 이야기가 없다。 雪峰의 最高峰은 標高 三百九十一米이나 嶮山이라기 보다도 雅淡한 山이다。

山中에는 山城址가 두곳에 있다。 三國時代의 築城이라고 口傳해 올 뿐 이를 考證할만한 文獻을 아직 發見되지 못하고 있어 考古學者들도 焦燥을 느끼고 考證品 發掘에 努力中이라고 하니 가까운 將來에 이것도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 山城址에 허더져 있는 遺品으로 보아 三國時代 以前의 築城이 아닌가 하는 說이 有力하니 新羅와 高麗代에 修築한 것이 傳해지고 있다。 壬辰倭亂 때도 이의 補築을 하여 倭의 中軍을 막았다는 記錄이 있다。

山城遺蹟으로도 雪峰은 本郡의 名山이거니와 上峰에서의 眺望도 實로 勝景이다。 視線을 멀리 던지면 限界에 넓은 平野가 展開되고 멀리 驪州方面이 구름속의 蜃氣樓처럼 眺望된다。 골이 많고 깊기로도 有名하여 골을 흐르는 물소리는 全山 어디를 가나 즐겁게 해 준다。 白雪에 덮인 雪峰도 可賞커니와 春花에 綠陰、特히 가을의 丹楓은 곱기 그지없다。 山腹에는 新羅時代 創造인 映月庵이 있다。 庵境內에는 自然石에 彫刻한 石佛이며 石塔의 苔石이 寺史의 깊음을 말해준다。

이 庵內의 石佛은 新羅 山岳法師의 遺品으로 海水觀音菩薩像이라 일컬어 진다。 高도 一丈五尺이나 되지만 手法이 精巧함도 다른 石佛에 비길바 아니라 한다。

山中에 散在한 奇岩과 怪石이 異彩려니와 골마다 松林이 욱어져서 泰山이 아니면서도 壯嚴한 느낌을 준다。

二、圓寂山

利川 北쪽에 聳立하고 있어 廣州와 驪州、利川 三郡의 境界를 이루고 있는 山이 圓寂(積)山이다。

圓寂山의 最高峰은 本郡內에서 가장 높은 峰이오 그 主峰인 天德峯中麓에는 高三十餘米이나 되는 長瀑이 있다。 이것이 利川의 名物 懷水瀑이다。 짙은 深蔭과 白布를 드리운 듯 싶은 瀑身의 色이 對照를 이루어 遠景으로는 奇觀이려니와、가까이 갈스록 물확 周邊의 奇岩에、巨岩、奇松에 怪木이며 濤濤의 瀑音、可謂 仙境이요 秘境이다。

이 懷水 水瀑에는 水桶을 通하여 台上으로 물을 떨어트리어 더욱 壯觀이었다고 傳하나 지금은 臺만이 남아 있다。

古文獻에는 山中에 四十九寺가 있었다고 하나 現在는 靈源庵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靈源庵도 古文獻에 나와 있는 四十九寺의 一寺는 아닌상 싶은 것이 李朝 純祖代 建立이라는 記錄이 있기 때문이다。

勿論 寺境은 文獻에 보는 四十九寺中의 一이리라 推測될 뿐이다。

이 山中에는 高麗 恭愍王이 暫時 避難했다는 避難處가 있고、當時 恭

愍王과 함께 이 圓寂山으로 避難했던 宮女들은 國運의 기움을 슬퍼한 남어지 水中孤魂이 되었다고 한다。이제 이에 關한 文獻을 抄하면、

「前略——恭愍王爲敵兵所敗來築城闕於山上未久敵至宮妓自墜於潭曰女妓峰曰恭愍峰……云云」

이 恭愍王의 避難處 였다는 恭愍峰은 山中의 最高峰이오 當時의 築城址도 지금 남아 있다。여기의 潭이란 懸水瀑을 이름일 것이다。

恭愍王이 圓寂山에 올라 築城하고 對敵(紅賊일것임)한 考證은 休宮橋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休宮橋란 栢沙面 玄方里에 있다。圓寂山에서 흘러나린 물이 成川이 되어 이 내를 건느기 爲해서 架設한 다리라。恭愍王이 一行을 데리고 圓寂山에 오르다가 다리가 몹지 아파서 이 橋上에서 얼마가 쉬었다가 아레 山에 올랐다는 것이다。그래서 休宮橋라는 橋谷도 생겼다는 것이다。

現在도 이 다리를 部落 사람들은 「휴궁다리」라 불르고 있다。

三、磨玉山

本郡 暮加面에 있어 一名 利川山이라고 까지 불리어 질만큼 利川에서는 名山으로 치는 山이다。橋高 四四四米로서 本郡의 山이 거의다 禿山이오 山谷에나 겨우 鬱林을 이루고 있것만 이 磨玉山은 全山이 叢林에 덮이어 一大 美觀을 呈하고 있다。

山上에 一佛岩이 있으니 壁上에 佛像을 彫刻한 三佛岩이 있다。

이 磨玉山中에는 新羅時代부터 寺刹이 많었었다고 한다。그러나 매해 놈대가 너무 盛해서 漸次 廢寺가 되었다고 口傳되어 있지만 그 眞否도 모르겠고 遺址는 別로 없다。

磨玉山麓은 有史以來로 단 한번도 雹災를 입은 일이 없다고 하며 旱災가 甚할 때는 最後로 祈雨祭를 지내는 곳이다。本郡에서는 古來로 甚한 旱魃에는 第一次로 雪峰에 祈雨하고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二次로 夫鉢面의 孝養山에 祈雨하다가 最終으로 本 磨玉山에 祈雨한 風習이 傳來되고 있다。이로 보아도 本郡에서 磨玉山을 얼마나 아끼는 가도 알 수 있다。

四、雪松山

雪城山은 本郡 淸渓面 善邑里에 있다。長湖院에서 約 十粁地點이다。

雪城山에 關한 古傳에 依하면 距今千餘年前 新羅時代의 一武將(姓名이 傳해져 있지 않음) 智勇智略 하여 朝廷에 重用되어 왔다고 한다。그러나 이 武將이 어찌하다 得罪하여 上으로 부터 死藥이 나리었다。(一說에는 그 武將이 得罪한 것이 아니라 謀害를 當했다고도 傳한다)。

그러나 그는 원래 智略이 뛰어 나고 忠義가 두터운 功臣인지라 다른 臣下들이 그의 減刑을 王께 建議하여 겨우 그렇다면 五日間에 長湖院 雪星山에 築城을 한다면 特赦해도 좋다는 분부가 나렸었다。武將은 아모리 智略이 뛰어나기로니 五日間 築城이란 語不成說이었다。그러나 그는 築城에 着手했다。

이를 본 洞民과 同僚가 그의 築城에 協力하여 期限인 第五日間째 되는 날 까지에 實로 놀랄만한 築城을 完了했다는 것이다。

이날 밤 王은 築城現場에 간 꿈을 꾸었었다。一便 築城을 하는 동안에도 城위에 積雪이 甚해서 武將은 눈을 쓸지 않으면 돌을 올려 올 수가 없어 築城코다 도 눈 쓸기에 더 時間을 잡아 먹고 있는 것이다。날로 酷寒이었다。武將이 손을 불어가며 城을 쌓고 있는 것을 보자、王은 딱하게 생각하고、

「눈을 쓸 것이 없어 그대로 쌓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깨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城名도 雪城이 되었고 雪星이던 山名은 雪城山이 되었다고 한다。

雪城山麓에는 지금도 城址가 點在하고 있고 城內中央에 一寺가 있으니 이것이 雪城寺다。이 雪城寺는 後에 築城한 武將의 靈을 받들기 爲해서 建立되었다 하며 一時 거의 頹廢했다가 百、二三十年前 부터 復舊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五、羊角山

羊角山은 利川邑 西北方 二十里許에 位置하고 있다。 廠長面 冠里 西北쪽이 된다。羊角以前의 山名은 陽嶽이든 것이 山形이 羊의 角과 같다는데서 羊角山으로 變名이 된 것이라 한다。

山頂에 오르면 멀리 利川、龍仁、廣州가 眼下에 깔리우고 羊角 自體도 奇와 妙를 다 한 山이지마는 山頂에서의 眺望이 더 痛快하다。 海拔 三百八十三米니 千餘尺高臺에서의 眺望이다。

멀리서 보기에는 山頂이 뾰족하여 그대로 角을 聯想시키나 山頂에 오르면 比較的 넓은 廣場이 있다。 그 山腰에 周圍 二米可量의 넓은 바위가 있으니 이것이 騎馬岩이다。

이 騎馬岩은 李朝 二十二代 英祖朝의 李思晟이라는 武將이 있어 이 羊角山中에 들어 武藝를 닦았다고 하며 이 바위가 騎馬練習을 하던 바위라는 것이다。

(이 李將軍이 李适이라는 說도 있으나 李适은 仁祖代人이니 錯誤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李适이 驪州에서 살았고 보니 或 李适일른지도 모른다。口傳이라 年代가 分明치 않아 確認할 수가 없다。)

어쨋든 李將軍은 立志 成功하여 平壤監司 까지 歷任케 되도록 朝廷에 重用이 되었었다。

그러나 그때 마침 李將軍을 猜忌하는 사람이 宮中에 있어 王이 變心함을 알고는 兵을 몽아 李寅佐라는 사람을 頭目으로 淸州에서 起兵하였다。 그러나 官軍의 逆襲이 너무도 强하여 利川의 鎭山인 雪峰山에 까지 몰리고 말았다。 李氏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壯時에 騎馬練習을 하던 羊角山이 마조 쳐다 보이는지라 心禍를 이기지 못하여 활을 들어 羊角山頂에 쏘고서 말을 몰아서 自己도 山頂으로 달리었다。 그는 화살과 말과를 比較해서 말이 화살 보다 먼저 羊角山頂에 오른다면 아직 時不利가 아니니 再起할 것을 占친 것이었다。

그러나 말이 羊角山頂 옛날 壯時에 騎馬練習을 하던 바위에 이르러도 화살은 오지 않는지라 화살이 빗 나갔거나 벌서 어디가서 떨어졌거나 둘 中의 하나라고 생각하니 기가 막킨다。 그래서 李將軍은 大怒하여 「화살이 오도록 너는 어찌 그리도 늦었느냐……」 하고 愛馬의 목을 짤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의 목을 짤르고 나니 그때서야 아까 쏜 화살이 말 다리 날라와서 꽂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고야, 「나의 運은 이미 다 했음을 알겠노라。」 하고 虛々長嘆을 하며 自刎했다고 한다。

이 羊角山麓의 冠里部落에서는 每年 羊角山을 名山이라 하여 山祭를 지낸다。 老人들의 말을 들으면 冠里는 羊角山의 守護로 有史以來로 電災를 받아온 적이 없다는 것이다。勿論 山祭 때문이 아니다。地形의 關係겠지만 어쨌든 그런 信念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이다。

六、百足山

百足山은 本郡 長湖院邑 西南쪽에 있다。 標高가 四〇二米나 되는 高山이나 어느 山脈과도 連結이 되지 않은 獨山이다。 그래서 마치 墳墓처럼 동구마니 이루어져 있어 四方 어디로나 올라갈 수가 있다。 六·二五前 까지도 樹木이 욱어졌었으나、지금은 옛날 面貌는 찾아볼 길이 없다。

그러나 이 南山麓을 끼고 흘른 淸溪川은 이 百足의 風貌를 恍惚케 해주고 있다。 이 淸溪를 利用한 李朝 仁祖代의 領議政이든 金自點의 貯水池는 湖水로서도 百足山의 德을 보거니와 百足이 이 貯水池 없이는 墳墓처럼 無色했을지도 모른다。(自點洑 參照)

이 百足山에 오르면 金自點의 父親墓라고 傳해지는 墳墓가 있다。 一見 墓라기 보다는 봉긋한 둔덕처럼 되어 버렸지만 金自點의 父親墓라는것은 確實하다고 하며 아모리 强風이 불어도 이 地點만은 平穩하다고 洞老들이 이야기 해 준다。

이 墓 밑에 一岩이 있어 「굴바위」라고 불리어진다。 李朝世宗大王 때

野人征伐과 國境開拓에 一大功을 세웠다는 南怡將軍이 이 굴바위에서 나왔다는 傳說이 있다。 그리고 굴바위 마른편에 一寺址가 있으나 지금은 痕跡뿐이다。 이 절에 關한 傳說로 南怡將軍의 傳說項에서 詳記하기로 한다。

七、林烏山

栗面、月浦里에 있어 郡民들이 名山으로 불르고 있다。 大體로 本郡에는 各地에 風水說이 盛行하거니와 이 山中에는 林烏琢尸形의 墓地가 있다는 傳說이 있어 그 자리를 찾고저 入山探索한 사람의 數交가 實로 몇百으로 헤일 程度가 아니라 한다。 李朝 五百年을 通算한다면 幾萬으로 헤일 수 있으리라는 것이 洞老들의 이야기요、 最近에도 執杖芒鞋의 格으로 入山하는 사람은 모두가 그 目的이 墓자리를 찾기 爲해서라 한다。

이 山은 名山이오 靈山이라 하여 古來로 獵客은 들지 못하게 되어 있다。 現在도 狩獵하는 사람을 보면 洞禍를 받는다고 失色을 한다。

八、映月庵

利川邑 西北쪽에 높이 솟아 있는 山이 雪峰山이다。 雪峰山은 利川의 名山으로서 山谷을 흐르는 맑은 물과 松林 奇岩 怪石 사이에 달리는 雪峰이 자랑하는 四時의 自然景이다。

그 中麓에 자리잡고 있는 映月庵은 지금으로부터 一千三百餘年前(檀紀九〇〇年(代西紀七世頃))에 新羅의 名僧으로서 華嚴宗의 開祖인 義湘祖師의 創建이라 한다(映月庵重建記……中麓有寺 映月庵 新羅 義湘祖師 創建北岳古刹也……)義湘은 일찍이 哲에 들어가 求法하고 돌아와서 榮州에 浮石寺를 열었으며 利川地方에는 十六寺를 創建하였다。 하나 지금은 겨우 二個寺(映月庵 隱仙庵)만이 重建된 채로 傳해질 뿐이다。

映月庵은 그 中 하나로서 四十餘年前 丁未에 日兵의 亂으로 말미암아 灰燼된 後(映月庵 重建記……距今 四十年前 丁未 日兵之 亂爲賊所焚 灰燼全寺……)地方有志 安斗欽 朴炳夏 兩氏에 依하여 重建되었다가 八年前 丙戌에 또다시 重建되어 現在에 이르렀다。(映月庵重建記……丙戌之春 住持霽然而起 多賴施主之慈惠 又捐不此二之私財 重建寺宇 又建住宅山亭於其傍……)

傍境內에는 石塔의 斷層을 收集하여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八角蓮花臺와 八角塔의 斷層이 있다。 八角蓮花臺에는 各面에 蓮花의 模樣이 陽刻되어 있으며 八角塔에는 各面에 如來坐像을 陽刻한 것으로서 古代藝術의 一面을 뵈여 주고 있다。

이 映月庵附近一帶는 春秋 또는 夏節에 많은 探勝客을 맞이하는 곳으로서 果然 利川八景의 一의 名勝地로 有名하다。 이제 參考로 注巖의 嚴琦永의 映月庵詩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風詠樓西雪岳陰　招招同伴訪東林
翡翠烟籠方草色　臙脂雨滴落花心
古寺扁楣明月映　上人採藥白雲深
偸閒剩得消塵慮　不覺衣巾夜氣侵

九、隱仙庵

利川邑에서 東쪽으로 보이는 妙한 山이 孝養山이다。 山밑에 있는 部落 馬岩里에서 山으로 올라가면 中麓에 藥師庵이라는 조고만한 절이 있다。 藥師庵뒤에는 藥水가 있으니 이 藥水는 岩間에서 솟아 떨어지는 물로서 그 淸冷味는 卷間에 有名하다。 이 藥師庵에서 다시 山고개를 넘어가면 隱仙庵에 到達한다。

隱仙庵은 映月庵과 같이 新羅統一期의 名僧이요 華嚴宗의 開祖인 義湘祖師가 創建한 寺刹로서 四十餘年前 丁未 日兵의 亂時에 兵火로 灰燼되었다가 그 後 文仁植氏에 依하여 重建되어 現在에 이르렀다。 今次 事變으로 말미암아 佛像과 佛畫等 貴重한 材料가 많이 流失되었다 한다。

一〇、徐處士墓

隱仙庵에서 二百米가량 東南쪽으로 向하여 내려가면 徐處士墓가 있고 表石이 섰으니 前面에는 「新羅阿干徐公神逸之墓」라 銘刻되고 後面

에는 「完山崔秉心撰行蹟碑銘이 있다。이제 徐處士의 逸話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徐神逸은 新羅阿干으로서 新羅末年에 그 아우 神通과 함께 孝養山 隱仙庵下에 避居하며 後學을 敎導하는 同時에 耕桑에 힘쓰니 地方人들이 徐處士라 稱하였다(行蹟碑銘 公諱神逸 新羅 宣德王 九年 唐元和十二年 丁酉生 羅末 官至 阿干……遯居 利川孝養山 自號居士 世稱處士……)。

어느날 奴僕을 거느리고 東畝에 발갈지음 화살이 꽂친 큰 사슴 한마리가 驚劫히 隱身할 곳을 찾는지라 處士가 지고나갔던 섶(藁席)으로 덮어 주었드니 未久에 獵者가 와서 사슴의 行方을 묻거늘 處士가 말하기를

「衆人이 喧耕하는 곳에 사슴이 어찌 오겠오。」

하니 獵者가 멀리 가버렸다。獵者가 멀리 간 後에 사슴을 놓아 보냈더니 그날 밤중에 한 老翁이 나타나서 致謝하기를

「오늘 내 아들이 公의 保護를 받아서 命이 살았으니 公의 陰德이 天佑를 엄어 後孫으로 하여금 隆昌케 되리라。」

하더니(行蹟碑銘……夢一神人來謝曰 鹿吾子也 賴君不死 當令 公之子孫 世爲宰輔……)其後 果然 八十에 아들 弼이나서 高麗 太祖朝에 顯官에 이르렀고 孫 熙는 高麗 成宗朝에 出仕하여 契丹人寇時에 契丹將(副馬)蕭遜寧과의 談判으로 國難을 救하여 麗史를 빛낸 人物이 되고 侄穆은 高麗太祖가 南征할 때에 高麗軍을 引導하여 福河川(利川東大川)을 無事히 건너서 勝捷하였으므로 都名을 利川(利涉大川의 뜻)으로 改稱케 하였으며 處士와 및 그 子孫들은 國內 모든 徐氏의 宗祖가 되었다 한다。

一一、六 槐 亭

利川邑에서 梨浦行 自動車로 六粁쯤 나가서 下車하여 鳳寂山 主峰을 向하여 걸어가면 道理岾(栢沙面 道立里)라는 部落에 到達한다。道理岾에 들어가면 六槐亭이 있고 그 밑에 못(池)과 槐木이서 있다。지금 부터 四百三十餘年前 中宗 때에 己卯士禍가 있었으니 이 士禍 때에 南塘嚴用順氏는 鳳寂山 主峰인 天德峰下 道理岾에 落鄕하여 이룩한 亭子가 바로 이 六槐亭이다。그 앞에 못(池)를 파고 蓮을 심고 槐木六本을 심었기 때문에 亭子 이름을 六槐亭이라고 지었다 한다。南塘은 金慕齊 姜葵亭 任漁隱 吳溪山 咸斗文들과 함께 六人이 서로 親切히 交遊하였으므로 世上 사람들이 槐亭六賢이라 하였다。六槐亭은 그 後 二百餘年後에 重修되었고 槐木 三本을 補植 하였으며 그 後 一百二十餘年後에 또다시 重修되어 現在에 이르렀다。

一二、自 點 洑

利川邑에서 自動車로 七十里가량 南쪽으로 向하면 長湖院邑에 이른다。長湖院邑은 利川郡 南端에 있는 地方都市로서 京畿와 忠北과의 境界이며 그 西쪽에 웃뚝 솟은 山은 有名한 百足山으로서 두내의 맑은 물이 바로 이 山 南쪽 기슭에서 合水되어 東쪽으로 감돌아서 東北으로 向하여 長湖院 市街 南쪽을 싸고 도는 듯 흘르고 있다。

百足山 南쪽 기슭으로 흐르는 깊은 물을 막아서 둘려올려 쌓은 洑가 있으니 이 洑가 바로 自點洑이다。이 自點洑는 李朝 仁祖 때에 金自點이 쌓았다는 洑로서 그 옛날 洑안에는 물이 깊어서 十餘길이 넘었다。하여 百足山에는 樹木이 鬱蒼하여 이 山水의 美는 서로 調和되어 아름다운 風景을 이루어서 봄철에는 船遊客과 登山客이 많았다 한다。

李朝 仁祖 때에 金自點은 自己의 親山을 長湖院 百足山上에 자리 잡았다 하는데(後에 역적으로 몰리어 破壞된 山자리가 지금 남아 있다) 그는 더욱 이 明堂에 자리를 裨補하기 위하여 山밑으로 흐르는 내를 막아서 水量을 豊富하게 하는 同時에 長湖院 平野의 많은 驛屯土와 水田의 灌漑를 위하여 洑를 막았다 하니 이것이 지금의 自點洑이다。

自點洑는 처음 막을 때에 原形을 짐작 하기는 極히 困難한 일이다。그것은 上流에서 내려오는 모래(沙)때문에 처음 쌓은 洑가 차츰 무쳐가는 關係로 後世에 作人들이 每年물을 쌓아 올려서 洑의 높이를 높였으며 또 내의 흐르는 位置가 西쪽으로 延長하여 現在에 이른 때문이라 하겠다。이제 洑에가서 實際로 그 現狀을 觀察하면 그 原形의 位置라고

짐작 할만한 洑의 길이는 約一八〇米 높이는 約十五米 底幅이 約一〇米 上幅이 約六米로 推測된다。現在洑의 全長은 約五〇〇米 幅은 넓은 곳이 約六米 좁은곳이 約二米가량 된다。

一三、魚中軍의 生家

自點洑에서 西쪽으로 向하여 二粁쯤 걸어가면 叢谷里(栗谷)라는 部落에 갈 수 있고 여기서 다시 二粁쯤 山谷좁은 길을 걸어 여러개의 고개를 넘어가면 八聖山 뒤 기슭에 이른다。여기서 또다시 溪谷을 흐르는 맑은 물줄기를 끼고 거슬려 올려가서 八聖山을 넘어가면 山밑에 三十餘戶의 民家가 있는 靜寂한 部落에 이르니 이곳이 곧 魚在淵中軍의 生家가 있는 部落(利川郡栗面城里 前陰竹縣所屬)이다。뒤에 八聖山이 높이 솟아 있고 溪谷에는 맑은 물이 흘러 내린다。앞으로 平野가 트여 있으며 옛날의 三南大路라 하던 道路가 가로놓여 있다。

五十餘年前 까지는 二百餘戶의 人家가 있고 市場(돌안장)이 定期的으로 섰다 하나 지금은 三十餘戶 밖에 안되는 쓸쓸한 農村(魚氏村)이 되고 말았다。

魚在淵中軍은 辛未洋擾(檀紀四二〇四 西紀一八七一) 때에 江華에서 壯烈한 戰死를 한분으로서 그 誕生한 家屋이 現在 이 마을에 있으며 그의 親孫 魚宗愚氏(七十七歲翁)와 曾孫 魚允淇氏(現栗面議會議員)가 生存해 있다。그들은 魚中軍의 戰死當時에 事情과 出征前 會寧府使及長湍府使當時의 治蹟等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또 雙忠集과 吊客錄을 뵈여 주었다。그 舍宅에는 다음과 같은 忠臣旌門과 秋史體의 懸板이 걸려 있다。吊客錄을 보면 大院君을 爲始한 宗親과 六曹五衛의 文武百官에 이르기 까지 數百名의 이름이 적혀있고 雙忠集에는 魚中軍 兄弟의 行狀과 文集이 收錄되어 있다。

旌門懸板「忠臣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三軍府訓練院事 行嘉善大夫行龍驤護軍兼 五衛都摠府副摠管贈謚忠壯公 魚在淵之門 上之八年辛未八月日命旌」

一四、靈源庵

靈源庵은 利川郡栢沙面松末里에 位置하는 圓寂山 中腹에 있다。創建은 新羅 二十七代 善德女王代 創建이다。現 建物은 李朝 二十四代 純祖 때의 永安府院君 金祖純의 建立으로 된 것이 確實한듯 하다。金祖純의 女가 바로 純祖王妃였다。

古文獻에도 있듯이 圓寂山中에는 古來로 四十九寺가 있었다 한다。그 遺址조차 알 수 없음을 遺憾히 여기어 金祖純이 純祖께 아뢰어 創建을 하고 王室로 부터 彩繡一臺와 屛風一幅、其他 什器까지 下賜했다고 한다。

이러한 關係로 本郡에는 安東 金氏의 墳墓가 散在해 있다。金祖純의 子인 金左根은 純祖、憲宗兩代의 領議政이었고 그의 子 金炳冀은 戶曹判書로서 驪州 大火때에 救民消火를 했다 하여 그 功德碑가 驪州邑內에 서기도 했다。

一五、金盤形

圓寂山麓에 金盤形이라는 地點이 있다고 예로부터 傳해 나려오고 있다。이 金盤形에 터를 잡아 집을 짓고 살면 代代孫孫이 富貴와 榮華를 누리고 三十六代 將相이 라고 三十六姓이 살수 있다는 風水傳說이 있다。古來로 祖上의 墓를 잘 쓰면 富貴와 榮華를 누린다는 말은 있어도 家垈에 이렇게까지 依存한 傳說은 드물다。이 地垈는 甲座、亥座라고 한다。

이 圓寂山中의 甲座、亥座의 家垈를 찾아 李朝中葉부터 京畿는 勿論 忠淸道와 慶尙、全羅에서 까지 오늘날 鷄龍山 新都를 찾아 가듯 家産을 팔아지고 몰여든 사람이 數百戶였다고 한다、圓寂山麓에 蓋瓦의 破片이 散在해 있는 點으로 보아도 그때 이곳으로 移住해 온 사람들이 大部分이 富裕層 이였을것이 立證된다。

그것도 漠然하게 金盤形地를 찾는 것이 아니다。예로부터 이 金盤形地를 찾는 秘訣이 口傳되어 오고 있으니 그秘訣을 引用하여 보면 이렇다。

圓寂簇立　風邊察去來
鸚鵡森羅　澤裡觀背向

一六、石佛像

本郡 淸溪面 松石里에 六米餘나 되는 大石佛像이 있다、長湖院에서 約十里相距의 松谷에서 西南쪽으로 二馬丁 程度의 地點이다。

어디나 있는 風習이지만 이 地方에서도 이石佛한테 致誠을 하면 子寶하고 榮華를 누린다 하여 婦女子들이 敬虔하며 至誠을 드린다。近方은 勿論 遠邑에서도 일부러 와서는 近方에서 宿泊을 하고 祈願을 하는 風習이 現在로 남아 있다。

이 石佛像의 彫成年代는 아모런 記錄이 없어 確認할수가 없으나 大槪 三國時代의 作品으로 推測되어지고 있다。이는 이近方에서 發掘되는 蓋瓦片이라든가 其他 什器片等으로 보아 이 附近에 寺刹이 있였든것도 事實이거니와 文獻에도 麗末까지에는 이 一帶가 精舍梵刹의 一大伽藍村이였다는것이 나타나 있는것으로 보아 이 石佛像은 적어도 李朝以前에 作인것이 確實視된다。

이 石佛像에 關하여 傳說이 口傳되어 오고 있다、지금으로 부터 約 百年前 새로 赴任하는 陰竹縣監(陰竹縣은 現淸溪面의 一部에 該當함)은 拜命前부터 得病하여 呻吟中이면서도 命을 어길수 없어 着任하였더니 病勢가 漸漸 甚해 갈뿐만 아니라 縣內에 惡疾이 盛行하여 縣治가 말이 아니였다。그러든 어느날새벽꿈에 一大石佛이 머리 맡에 나타나서

「自身의 괴로움을 알진대 남의 괴로움도 알아야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叱責함을 받고 깨어 卽時로 縣民을 動員 솥어져 가는 石佛을 바로잡고 石冠을 마련하고 堂을지어 祭祀했던바 自身의 病도 完快했고 縣內의 惡疾도 退陣해서 民安治績이 뛰어 났다는 것이다。約三十年前에 堂宇는 改修를 했다。

第二節　史話・傳說

一、南怡將軍의 誕生傳說

本郡 長湖院 邑 西南쪽에 동그마니 孤立한 山이 있다。그 밑으로 淸溪碧流가 흐르고 一大湖가 있어 絕勝의 名勝으로 되어 있거니와 이것이 有名한 自點洑요 이 山이 百足山이다。

이 山中에 옛날에 一巨刹이 創造되었였다。年代는 記錄이 없어 모르겠으나 南怡將軍의 出生傳說과 關聯되는 것을 보면 李鮮初의 創造일지도 모른다。年代는 分明치 않으나 附近에서 發掘되는 瓦片으로 밀어 보아 寺址인 것만은 確實하다 할 것이다。

이 절이 선지 얼마 안되어 每日 중 한사람式이 行方不明이 되더라는 것이다。三十餘名의 僧侶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相當한 巨刹이였든 모양이기도 하다。僧들은 戰戰兢兢 했다。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다。한번 나가면 屍體도 찾을수 없이 되어 버리어 반듯이 범의 작난이라 한달동안에 三十名이 간데 온데없이 되고 말았다。이제 남은것은 한사람 뿐이였다。

그러나 그는 달아 나기를 싫어 했다。佛徒를 범이 잡아 갈 理는 萬無한 일이고 보니 만듯이 부처님이 極樂으로 데려고 가리라 한 것이다。모두들 그렇게 믿고 있었다。그렇기 때문에 죽는줄 알면서도 절을지키고 있었든 것이다。

그 마즈막 僧은 그날 俗世로 나려갔다。長湖院에 兄弟 처럼 지나는 親舊가 있어 마즈막으로 作別을 하러 간 것이다。

그親舊는 반가이 맞아 주면서도 슬퍼했다。마즈막으로 作別을 하고 일어서자 그 親舊가

「마즈막 請이니 이것을 갖고 가서 입게나。날 생각하고 냄새가 나드라도 벗어버리지는 말아야 하네。」

하며 옷 한벌을 준다。검은데다 한 빛갈이였고 이상한 냄새도 났지만 親

舊가 마즈막 주는 膳物이었다。僧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입고 있었다。

며칠 後였다。親舊는 절에 올라가서 親舊를 찾아 보았으나 豫測한대로 親舊는 없었다。결안도 텅 비었다。親舊는 슬퍼했다。亦是 極樂으로 갔거니 했다。

집으로 나려오는 길에 遇然히 큰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았다。바로 그 구멍 앞에 큰 지네 한마리가 죽어 자빠져 있어 仔細히 보려니까 自己가 僧友에게 주었던 옷자락 한가락이 그 지네 목에 걸려져 있지 않은가? 果然 想像한대로였다。그 옷에는 대전이 발려져 있었든 것이다。

그 때였다。그 親舊는 異常한 것을 目睹했던 것이다。百足山 허리에 瑞氣가 돌더니 무지개 처럼 五色진 구름이 全山腹을 휘휘 감고 돈다。그러니 그 瑞氣는 거기서 얼마 되지 않는 개미실(忠北 陰城郡 甘谷面 嶺山里)로 뻗치어 살아지는 것을 본것이었다。그럴지 十個月後에 개미실에서 장사가 났다는 所聞이 파다 하니 퍼졌든 것이다。

이 幼兒가 後日의 南怡將軍이다。南怡將軍은 개미실에서 十里가량 되는 松林(陰城郡 笙極面、林谷里)이란 洞里로 每日 글을 배우러 다니었다 하며 원래 산양을 좋아하여 每日 生雉한마리 式을 잡아다가 선생님을 공경했다고 한다。

이 傳說에 나오는 절터도 지금 그대로 있고 거기서 約 一〇〇米 쯤 떨어진 곳에 「굴 바위」라는 지네가 죽던 바위도 있다。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

이것은 南怡將軍의 氣概를 엿볼 수 있는 그의 左右銘이었다。

二、孝養山에 關한 傳說

孝養山은 本郡 夫銘面 馬岩里 東南에 있는 標高 一八七米의 비록 크지는 않으나마 삽키고 싶게 아담한 山이다。不過 二〇〇米 未滿의 野山이면서도 九十九谷의 깊은 溪谷을 이루고 있다는 이 한가지만으로도 이 山의 아름다움을 想像할 수 있으리라。

山谷 치고 물없는 골짝이 없을 것이고 보니 이미 九十九의 玉流는 保障된 셈이다。이 물은 또 어대로 無心히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山內에서만 百餘石의 産米를 한다는 것이다。山形이 아름답고 九十九谷에 樹木이 욱어지고 거기에다 겹山이다。이 山을 안위 하듯이 東南麓에는 山村、北麓에 茂村、西麓에 馬岩洞 西南에 福河村、東南에 梅谷等 五村이 위어 싸고 있다。

山에 오르면 利川의 穀倉 億萬平野가 展開되고 長湖院으로 달린 一等道路가 모시를 펀듯 싶다。全國街路樹의 茂盛하기로 손꼽는 京忠街道다。高麗始祖 王建이 統一을 爲해서 南征할 때 利涉大川이 利川地名을 낳게 했다는 由緖깊은 福河川이 마치 街路樹 없는 新作路처럼 히게 빛나고 利川邑의 全景이 그대로 一幅이 그림처럼 眺望된다。山脈을 찾으면 雪峰遠足에서 갈린 中山脈이 孝養山에 와서 머물러 졌다。예로부터 孝養山神은 女神이라 일컬어 오는 것만 보드라도 이 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孝養山에는 滋味나는 傳說이 많다。그 中 一、二만을 추리어 여기에 紹介해 두려 한다。

三、天子와 孝養山

中國의 天子라고만 傳해진다。어느時代의 어떤 天子인지는 알길도 없거니와 이를 꼭 알아야만 할 必要도 없으리라 한 天子가 洗手를 하려고 물 앞에 서니 洗手물 속에 아름다운 山影이 비치더라는 것이다。天子는 곧 侍從을 불러 이 洗手대야 속에 비친 山名을 알아 들이라 命令을 했다。侍從은 곧 사람을 풀어 물속의 山을 찾게 하였다。

그러나 大隊을 全部 찾아야 그렇게 아름답게 생긴 山이 없는 것이다。모든 臣下가 불리었다。學者란 學者는 全部가 下問을 받았다。그러나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天子는 大怒했다。性急한 天子는 自己性味를 못 이기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그런 어느날이었다。한 臣下가 들어왔다。아모리 생각해 보아도 大國땅에는 그런 山이 없으니 어쩌면 東方國 朝鮮땅에 있는 山이 아닌가

한다는 것이다。願生高麗國하여 一見 金剛山이라는 것이 中國 文人들의 所願이였다。金剛山이 아니냐는 것이다。天子는 다시 令을 나리어 金剛山寫帖을 꿍아 드리게 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야속의 山은 없다。

「이렇게 아름다울진댄 必是 朝鮮의 山이 아닌가 하옵나이다。」

이것이 結論이였다。

使者가 朝鮮으로 派遣되었다。萬一 朝鮮의 山이 分明하거든 朝鮮王에게 命하여 그 山을 宮闕 앞으로 옮기게 하라는 것이다。

使者가 入國하여 八道江山을 두지다가 廣州 昆池岩에 이르러 山形을 말하니 孝養山이라는 것이다。그래서 利川으로 와서 한 老人을 불들고 孝養山을 물으니 老人은 이렇게 對答을 한다。

「孝養山 말씀이오니까?」

「그렇소。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孝養山을 가려면 二千(利川)邑을 지나서 億億 다리를 건느시오。거기서 또 億萬들을 지나서 九萬里 장등을 넘으면 孝養山이 보이오리다——。」

이 老人의 對答에 使者는 연입이 담으러 지지가 않았다。邑을 二千을 지나고 億億의 다리를 건느고 다시 億萬 平野(들)을 지나자면 代代孫孫 건너도 못 건느지 않느냐? 생각하고 덤퍽 주저앉아 버렸다。使者는 생각다 못하여 本國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기에 오늘날 孝養山이 그대로 남아 있지 잘못했더면 中國으로 떠갈번 했다는 이야기다。

使者는 二千邑을 邑二千을 지나야 한다고 들었고 億億다리란 利川邑의 조그만 다리 이름이오 億萬들이란 것도 利川邑前의 平野이름을 誤解했다는 것이다。九萬里 장등이란 利川邑 安興을 조곰 지난 一丘陵의 이름인 것이다。

勿論 누가 지어낸 이야기 일 것이나 滋味도 있거니와 유모어 해서 즐겁다。

이 傳說로 하여 孝養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알 것이다。

四、愚者 智者를 아는 孝養山

東麓 山村洞에는 古來로 趙氏門中이 많이 살고 있거니와 約 八十餘年前의 趙氏門中에서도 가장 어리석다는 趙某가 孝養山으로 나무를 갔었다。나무를 하다가 하도 낫이 안들어 숫돌을 나려놓고 물 뜰 그릇을 찾다가 보니 웬 헌 그릇하나가 있어 물을 담았더니 아모리 써도 출지를 않더라는 것이다 하도 이상해서 흙을 담아 보아도 쏟으면 또 가득 찬다。담배를 넣어 보아도 그렇고 돈을 넣어 보아도 쏟아도 쏟아도 자꾸만 나온다。

어질기만 했지 어리석은 趙某는 그것을 겁으로 가지고 갈 생각은 못하고 洞里의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 보이였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이 와 몰려들자 그 그릇은 간데가 없이 살아져 버렸다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쏟으면 다시 나오지 않더라고도 傳해져서 孝養山은 사람의 약고 어리석은것 까지도 아는 名山이라는 所聞이 近邑에 퍼져서 이 山中에 들면 누구나 웃깃을 가추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런 傳說이 있다。

亦是 東麓 山등성이 附近에는 예로부터 金이 가득 든 항아리가 묻혀 있다는 말이 口傳되어 오고 있다。드듸면 절렁 절렁 소리가 나는 밀이 그 항아리가 묻힌 곳이라는 것이다。그래서 이 金항아리를 찾아내겠다는 사람들이 不絕히 入山을 했으나 아직도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最近에도 어떤 慾心 많은 사람이 相當한 깊이를 파다가 그만 두었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모양이다。

이 東麓 기슭에 南怡將軍이 살던 私邸址가 있다。飮料水로 쓰던 石井도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痕跡도 남아 있지 않다。

이 우물 자리를 南怡井이라고 한다。

五、傳岩洞•石橋洞의 由來

本郡 最南端 栗面에 八聖山이 있다。그 山下에 傳岩洞과 石橋洞이라

는 農村이 있다。지금은 洞口 앞에 이른바 門前沃畓의 平野가 있어 栗面의 穀倉이라고 할만한 農村이 되어 있지만 지금으로 부터 約 三百年前에는 交通이 不便한 山間僻地였다。이 傅岩洞과 石橋에 傳해 나려오는 秘話가 있다。

六、傅 岩

이 傅岩은 傅岩洞 後峯에 聳立한 巨岩이다。그 形象이 마치 前抱後容의 한 老人이 兒孩를 더리고 글을 알으키는 貌樣이라 하여 珍奇하게 여기었더니 어느날 一布衣의 寒士가 이 岩上에 나타나서 三間草家를 세우고 讀書一昧로 柴門不出을 하는지라 世人이 모두 神仙으로 對하였다。

그는 一切 俗世와의 交涉을 끊고 오직 藥水를 마시며 讀書만으로 날을 보내나 찾아 오는 사람은 반가이 맞아 道를 닦게하고 事理를 아르키고 文字를 일깨워 주었다。그는 殷太師傅悅行狀을 朝夕으로 敬讀했고 像을 걸어놓고 崇拜하는지라 世人들은 그를 傅岩先生이라고 일컬어 眞心으로 모다 敬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傅岩先生도 病을 얻어 世上을 떠나니 岩上의 草屋도 自然 쓸어지고 傅岩만이 동그마니 남아있어 昔日의 傅岩先生 在世時를 追憶하는 마음이 새로웠다。現在의 이 栗面 一帶에는 皮氏姓이 全無하지만 三百年前에는 皮氏가 得勢하여 皮氏村이라고 까지 傳해 왔다고 한다。

이 皮氏門中에 名石工이 있어 하로는 傅岩을 깨어서 큰 돌집을 짓고 世上에 한번 자랑하리라는 생각으로 傅岩에 鉦을 대고 메질을 하기 始作하였다 한다。

며칠을 걸리어 겨우 위선 子멍을 하나 뚫었는바、意外에도 그 子멍에서 異常한 소리가 나더니 白鳩一雙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날라 나와 蒼空에 날르고 岩穴에서는 鮮血이 湧出하여 皮氏는 大驚失色하고 그 자리에 昏倒해 버린 채 絕命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이러한 事件이 있은 後로는 皮氏門中에 가진 災禍가 不絕하고 敗家하는 집이 날로 늘어 全滅이 되고 現在도 皮氏는 이 傅岩洞에만 들어 오면 반듯이 敗家를 한다고 한다。

傅岩先生의 姓名은 傳해지고 있지 않다。

七、石 橋

利川과 長湖院間을 疾走하는 新作路가 생기어 前에는 本 栗面의 龍山洞、石橋、陰城의 官村으로 通한 길이 嶺南에서 서울로 通하는 大路였다。그러나 길이 좁고 險한데다가 내가 있어서 雨季면 通路가 말이 아니어 交通이 杜絕되는 일이 많았었다。이것을 본 亦是 皮氏門中의 某氏가 傅岩을 뚜들을 날라다 다리 하나를 놓아서 世人의 稱頌이 藉藉했다。이 石橋는 長이 十五米나 되는 大橋로서 後에 그 架橋者 皮氏의 功德을 오래 傳키 爲하여 洞民들이 碑를 세워 事記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 그 刻字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이 되어 버렸다。

石橋洞의 洞名도 이 石橋에서 由來된 것이라 한다。

八、기침里와 넋고개

本郡 邑에서 北方二粁 地點에 沙音里라는 村이 있다。이 洞里의 元名은 기침里였고、넉고개란 이 기침里에서 서울로 向해 가려면 約三十粁地點의 廣州郡과의 境界가 되어 있는 고개 이름이다。

여기에 滋味있는 傳說이 口傳되어 오고 있다。

때는 倭敵이 우리의 疆土를 짓밟던 壬辰倭亂때다。倭의 豊臣秀吉의 命을 받은 陸上軍 小西行長의 二萬軍은 釜山에서 一路北上하여 忠州 彈琴臺에 申砬將軍과 對峙케 되었었다。申砬將軍은 그 때 官民이 다 함께 믿는 唯一한 將軍이었으나 그의 彈琴臺에서의 背水陣도 無慘히 敗하고 말았었다。背水陣戰法이란 前面은 敵의 進路요 뒤에는 나갈 길이 마키어 없는 陣法이니 作戰最初에 이미 最後의 一人까지도 싸워 죽겠다는 決心을 하고 나선 戰法이다。아 申砬將軍의 뜻은 壯했지마는 募兵이 거의 新兵이었고 數도 寡不足이어 結局 敗하고 만것이었다。申砬은 敗함을 알자 副將 金汝岉과 함께 彈琴臺 깊은 물에 몸을 던지어 自殺을 했던 것이다。宣祖二十五年 四月二十八日이었다。

颱風一過、이 孤軍으로 苦戰、不幸히도 殉國한 申砬의 靈駕가 招魂소리도 哀切하게 利川을 지나 北上하던 때의 일이라 한다。葬地는 廣州昆池岩이었다。

靈柩가 利川을 떠났다。喪主는 哭울 하다 말고 가끔 靈柩에 매어달리어 「아버지」를 불러댔다。그러면 그럴 때 마다 반듯이 靈柩에서는 이아들의 불름에 對答하여 「오냐」「오냐」하더라는 것이다。그러더니 어느地點에 이르러서는 靈柩속에서 기침 소리가 나지 않는가。喪主도 喪輿軍도 모다 놀랐다。分明 기침 소리가 난 것이다。

喪主는 또 한번 불러 보았다。

「아버지!」

「오냐 헴!」

分明 기침 소따다。

이 地點이 바로 지금의 沙音里 卽 俗稱 「기침里」라는 곳이다。이 기침里의 洞名이 생긴것도 그때 부터고 오늘까지도 기침里로 불리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기침里에서 昆池岩으로 가자면 廣州와 利川의 境界가 되어 있는 고개가 있다。이 고개를 「넘고개」라고 불으거니와 이의 由來도 申砬將軍의 靈柩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기침里에서 小憩後 다시 喪輿는 出發을 해서 北上하는 中이었다。喪主의 哭과 함께 아버지를 찾는 소리에 靈柩는 매번 「오냐」「오냐」對答을 한다。그러든 靈柩는 넘고개에 이르러서는 갑작이 아모리 불러도 對答이 없어진 것이다。

喪主는 靈柩를 쉬게 하고 매어달려 아버지를 불러 대였다。

그러나 亦是 아모런 對答도 없는 것이다。여기서 비로소 넘이 끊어진 것을 알고 喪主는 最後의 哭을 했다는 것이다。

이 넘고개의 이름도 이에서 由來했다 하여 그 때 생긴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傳해지고 있다。

九、福河川

福河川이란 利川邑에서 長湖院으로 가는 邑外의 내 이름이다。利川의 原名은 南川、南賈、永昌 等으로 불리어 지던 것이 利川으로 된 由來는 傳說이라기보다도 史記에 나타나 있다。高麗太祖王建이 建國의 餘勢로서 民亂을 平定코저 南征의 길을 떠났을 때 일이다。

王建은 親히 大軍을 이끌고 利川까지 왔으나 이 福河川에 이르자 水量도 많거니와 水路를 몰라서 唐慌해 하고 있을 때 마침 一人이 나타나서 물길을 案內해 주었다고 한다。이 사람을 利川 徐氏의 先祖인 徐神逸로 물의 深淺을 가리어 自身이 앞을 서서 건너 준 功이 커서 王建은 때를 놓지지 않고 亂을 平定했다고 한다。이 功을 높이 사서 史記에도 記錄이 되었고 福河川은 福많은 내의 다른말이라는 뜻이고 利川이라함은 「利涉大川」이다 하여 利川의 地名이 생긴 것이다。

이 徐氏의 後孫은 現存도 夫鉢面 馬岩里에 居住하고 있고 利川 徐氏門中도 널리 利川郡內에 散在해 있다。

一〇、猪鳴山 傳說

本郡 麻長面 木里 西쪽에 位置하고 있다。山의 標高 二三四米로 山中에 仙鶴庵이 있고 庵境內에 巨岩틈을 베어 집고 湧出하고 물은 예로부터 藥水라 하여 登山보다도 이 藥水를 찾아 오는 사람이 많다。山紫水麗의 壯하지는 못하나마 妙한 山이다。봄에 杜鵑과 가을의 丹楓은 어느 山에나 있는것이지만 唯獨 猪鳴의 丹楓이 異彩로 알려져 있다。

이 猪鳴山에 傳해오는 이야기가 있으니 時代도 밝혀지지 않은 口傳의 說話다。三角山이 생긴 卽後라 하니 太古時代 이야기 같기도 하고 서울에 山을 만들 必要가 생겨서라고 傳해지는 것을 보면 李太祖가 松都에서 漢陽城으로 遷都를 한 李朝初의 說話 같기도 하다。

어쨌든 馬姑할미는 白頭、雪嶽、金剛等의 泰山을 찾아 巡禮하다가 內金剛 長安寺 뒤 面鏡臺 附近에서 一山峰을 보니 어찌도 마음에 드는지 이 山을 떼어서 漢陽에다 옮길 決心을 했다는 것이다。그래서 千辛萬苦 그 山峰을 등에 지고 春川을 지나서 利川까지 와서 一酒幕에 다리

를 쉬이려니 예나 지금이나 求景군이 雲集하여 그 事由를 묻더라는 것이다。

馬姑할미는 그 山을 떼어오는 動機를 이야기하고

「漢陽 뒤가 너무 허전하니 갖다 막으려는 것이다。」

하였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中에서 또한 사람이

「漢陽에는 벌서 三角山이라는 險山이 생겼으니 그 山은 우리 利川에 두고 가시오。漢陽은 四方이 막히고 겨우 南쪽이 조금 터였을 뿐인데 이 山으로 南쪽을 막으면 漢江水路를 利用할 길이 없지 않소。?」

이 말을 들은 馬姑할미는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보고 정말 三角山이 생겼으면 利川에다 두고 가도 좋다 하고 急據 漢陽으로 갔다 오더니 果然三角山이 생겼고 南쪽까지 막는다면 漢江水路가 不便하니 都邑을 定하더라도 交通이 不便하겠더라고 하며 猪鳴山을 現場에다 두고 갔다는 것이다。

이 猪鳴山中에 藥水도 馬姑할미가 內金剛에서 들고 오는 途中飮料로 한 것이라 하며 現場에서 一農夫가 그물을 먹고 十年來의 滯症이 단번에 떨어졌다 하여 그 때 부터 遠邑에서도 이 藥水를 찾아왔다고 한다。

第三節 巨樹名木

本郡에는 巨樹名木이 많다。巨樹名木은 大槪、그 地方에 古蹟이 많으면 自然數交도 많은 것이지만 利川에는 古蹟다운 古蹟이 없으면서 巨樹名木이 많은 것은 이 地方의 米穀生産地로 有名 했더니 만큼 比較的 生活이 富有했던 關係가 아닌가도 한다。그 例로서 利川에는 비록 草屋일망정 窓戶가 大槪완자 窓으로 되어 있고 비록 農家일지라도 그 生活樣式이 都市生活과 恰似한 點이 많은것 等을 들수가 있을 것이다。事實僻村의 農家에 가 보아도 어듸나 깨끗한 感想을 받게 한다。

이제 郡內의 天然紀念物인 巨樹名木을 들면 다음과 같다。

一、槐木 (新屯面 龍眠里)

이 槐木은 距今 二五〇年前 慶州 奎氏인 金享默이라는 사람의 植木으로 이를 심은 動機는 麻長面 猪鳴山이 火山이라는 說이 있어서 그 火氣를 制禦할 目的이었다고 傳해지고 있다。

二、白松 (栢沙面新奎里)

新奎에 있는 白松은、胸高周圍 七尺、樹高、二十五尺、樹齡 約 一〇〇年으로 推算된다。이 白松은 本郡內에서 唯一한 珍木이다。傳하는바에 依하면 元 奎南道司 閔廷植이 自己祖父인 參判 閔達鎬의 墓地를 紀念하기 爲해서 植木한 것이라 한다。樹齡으로나 樹高로나 그렇게 오랜것도아니다。珍木에 드는 白松인데다가 그 貌樣이 마치 雨傘을 펀 것 같아 村老들의 避暑場으로 緊키니와 멀리서의 眺望도 좋다。

三、側栢 (新屯面 高天里)

胸高周圍、十四尺、樹高 六〇尺、樹齡 三一〇年의 古木이다。當時 이 地方의 富豪 李某가 私邸앞에 심은 것이라 傳해지고 있다。

四、銀杏木(栢沙面 松禾里)

胸高 二十尺、樹高 八〇尺、樹齡 二六〇年 以上으로 李朝 英祖代의 僧侶가 심었다고 傳해져 오고 있다。

五、銀杏木 (映月庵內)

邑雪峰山腹에 있는 映月庵 境內에 있다。胸高 三〇尺、樹高、六〇餘尺에 樹齡 五〇〇年으로 推算되는 名木으로 이 銀杏木이 映月庵의 勝景을 더욱 빛내고 있다。

六、萬年松 (栢沙面 道立里)

樹齡 四〇〇年으로 推算된다。그 樹形이 天然的인 盤龍形의 赤松으로 樹高 一〇〇尺에 가까운 巨木이다。世人이 萬年松이라 이름을 지어 불를만큼 有名한 나무다。

七、六槐亭槐木 (六槐亭內)

栢沙面 道立里 道立坡라는 洞里에 있는 六槐亭의 槐木은 樹齡이 約

三〇〇年으로 推算되고 있다。(六槐亭項 參照)

八、槐木 (麻長面 冠里)

冠里에 槐木 二株가 있다。樹齡은 約 五〇〇年으로 推算되고 있다。保存木으로 指定되어 있다。

九、홰나무(暮加面 山內里)

이 홰나무는 樹齡 約 一〇〇〇年으로 推算되어 오고 있다。樹高가 一二〇尺、保存木으로 指定되어 있다。

一〇、其 他

其他의 巨樹名木을 列擧하면

樹名	所在	樹高	樹齡	種別
槐木	暮加面陳加里	一二〇尺	五〇〇年	保存木
엄나무	〃 院頭里	一二〇尺	八〇〇年	〃
銀杏木	〃 所古里	一五〇尺	七〇〇年	〃
槐木	〃 薪葛里	一二〇尺	四〇〇年	〃
〃	〃 豆美里	一二〇尺	五〇〇年	〃
〃	雪星面長陵里	八〇尺	二〇〇年	〃
銀杏木	〃 白石里	八〇尺	一五〇年	〃
〃	栗面高塘里	一〇〇尺	約一〇〇〇年	風致木
桑木	麻長面冠里	四五尺	九〇年	保存木
針桐	新屯面南山里	五〇尺	三〇〇年	〃

安城郡

第一節 名勝 概觀

一、瑞雲山의 古蹟

瑞雲山은 忠淸道와 京畿道의 境界를 이룬 險山으로 그 風致로나 軍事的 要塞으로나 예로부터 일컫는 泰山이다。全山에 鬱林이 茂盛하고 줄기찬 山등성은 깊은 골을 이루어 天惠의 勝景이 到處에 마련되었을 뿐더러 三南 大路 背景으로 한 山峰은 홉사 羊腸을 形成、山嶽美의 極致를 다하고 있다。瑞雲은 이렇듯 勝景地로서만에 長이 있지 않고 全山에 古戰蹟、古刹이 散在하여 本郡 名勝古蹟의 鳥瞰을 이루고 있으니 우리 民族 有史以來의 國難 이었던 壬辰倭亂때 敵의 大軍을 大破하여 「生歸者 不過數十」이라는 大捷記錄을 남긴 洪秀男、李德男 兩將軍의 戰捷碑를 爲始하여 上記 兩將軍의 築城인 山城址、距今 六百年前의 創建인 靑龍寺를 비롯한 隱寂、內院、瑞雲等 大小庵의 寺域은 天然的인 淸遊地가 되어 있다。

이 瑞雲山中의 名勝古蹟을 巡禮키로 하자。

(1) 洪、李將軍碑

本郡 古蹟의 白眉요、자랑인 洪、李將軍의 碑、墓를 찾기前에 먼저 두분의 行跡을 더듬어 봄도 無意味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史記를 들쳐 보면 洪將軍의 諱는 季男、幼時로 부터 그 剛直한 性格이며 至孝至忠의 念이 두텁고 些少한 일에도 義에 則하여 弱者를 돕고 義俠心이 强했다고 한다。大概의 名將、偉人의 幼時는 이렇게 表現되는 것이 常例지만、大概 산사람의 偉大性이란 매양 幼時부터의 陶薰이 長하여 成年에 發注되는 것도 事實일 것이다。

洪將軍은 이러한 人品에 또 勇과 猛을 兼했었고 智略이 出衆하여 나비將軍이라고 일컫던 분이다。洪將軍의 壯時는 바로 우리 史上 最大의 國難인 倭의 壬辰亂으로 國土가 蹂躙되던 年代니 宣祖 二十五年、卽西紀 一五九二年 壬辰 四月 十三日 倭寇의 第一陣의 敵將 小西行長이 一萬八千七百의 精兵을 거느리고 釜山에 上陸하자 二陣의 加藤淸正、三陣의 黑田長政等 總 九陣에 海兵을 合한 三十萬大軍으로 一路北上했던 것이다。釜山이 敵手에 들자、東萊、尙州、忠州도 문허졌고 湖南의 名將이던 光州府使 權慄軍이 깨어지는가 하면 防禦의 唯一한 希望이던 申

砬將軍도 忠州 彈琴臺의 背水陣에서 敗戰、敵의 大軍은 忠淸道를 거치어 京畿로 殺到할 때다。 三千里 疆土는 기름가마 속처럼 들끓었고 朝廷에서는 光海、臨海、順和의 三王子를 平安、江原、咸鏡에 急派、勤王兵 募集에 當케하는 한편 王宮을 비우게 되었고 各地에서는 義兵이 일어나서 이 國難을 막을리라고 烽起할 때다。 三王子의 勤王兵募集은 失敗를 했지만 國難克服에 蹶起한 慶南 宜寧의 郭再祐將軍은 孤軍奮鬪하여 慶尙右道를 倭의 蹂躪으로 부터 막은 功을 세웠었다。 이 郭將軍이 世稱 紅衣將軍이니 紅衣만 보아도 敵은 와들 와들 떨었다는 記錄을 倭의 史記에도 남긴 勇將이다。 이밖에도 咸鏡道의 鄭文孚將軍은 反逆徒 鞠景仁을 무찔르고 敵의 手中에 빠졌던 咸鏡道 一帶를 收復시킨 勇將이다。 이러한 難局에도 鞠景仁 같은 逆徒가 났다는 것은 這間의 黨爭으로 國政이 어지러웠던 탓이 겠지만、鞠은 勤王兵 募集次 派遣되었던 光海、順和 兩王子가 敵에 몰리어 會寧에 이르자 王子의 一行을 結縛해서 倭將 加藤淸正에게 넘겨 주었든者다。 勿論 兩王子는 會寧에 들어가면서 卑僕을 시키어 住民의 寶物 掠奪을 일삼은 것이 禍根이 되었으니 王子도 王子지만 鞠또 鞠이다。忠淸道에서 擧兵、自進義兵 大將이 된 趙憲이 七千大軍으로서 最後의 一人까지 奮戰、散花한 史實은 아직도 우리 腦裏에 깊은 感銘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다。

至孝、至忠、오직 義에 살고 義에 죽기를 信條로 삼아온 洪秀男、李德男 兩人이 이 國難앞에서 抽手傍觀할 理는 萬無했던 것이다。洪、李兩氏는 生과 死를 같이하기로 盟誓하고 兵을 이르키어 물 밀듯밀어 오는 敵의 三萬大軍에 防波堤를 쌓었든 것이다。

當時의 防禦戰이 얼마나 熾烈했고 또 얼마나 大規模였든가는 이 瑞雲山頂의 山城址만으로도 可히 推測할수 있으니 洪秀男將軍이 起兵布陣한 것을 本郡과 鎭川郡과의 境界를 이루고 있는 鬣屯嶺 이었는데 本郡 瑞雲面 東南 二粁地點에 位置하는 瑞雲山頂의 山城은 그 圍가 實로 二千餘尺에 達한다。洪、李兩將軍은 民兵과 志願으로만 編成된 純全한 義兵이 었지만 그數爻가 三千에 達했던 것으로 보아 兩將軍의 人德이 짐작되거니와 臨急하여 築造하기 始作한城이 土城이 아니오 石築인 點이라든가 直立斷崖의 絕壁 그대로의 險地에 쌓아 졌다는 點等、往年의 殉國至誠이 엿보인다。洪將軍이 左城 李將軍이 右城을 各各 分擔築成하여 左城山、右城山의 이름이 생기었거니와、左右 兩翼에 布陣 敵을 挾擊한 戰略도 이 地利를 잘 活用했다 할 수 있다。

여기서의 決戰에서 敵의 生歸者는 「不過數十」이었다고 한다。

(2) 洪氏故壘碑記와 李氏墓碑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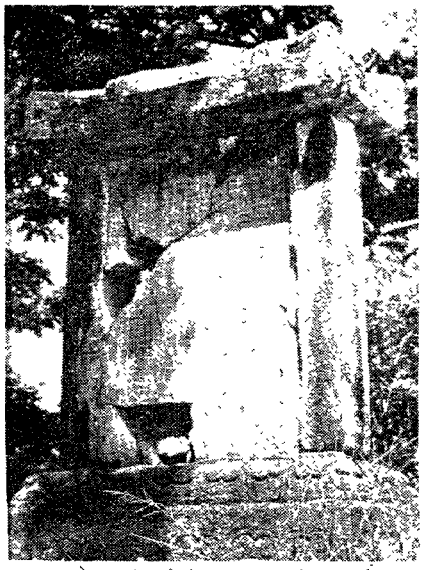
이렇듯 倭의 大軍을 맞아 三千의 寡兵으로 잘 北上을 阻止한 洪季男將軍의 墓所가 아직까지도 發見되지 못하고 있음은 遺憾이라 하지 않을수없으나 將軍의 故壘碑만은 本郡 薇陽面 九水里에 位置하고 있다。 邑에서 南으로 六粁地點이다。

이 救國義士의 墓所가 아직도 雜草속에 묻쳐 있어 往年의 赫々한 武運에 比하여 寂寥를 禁지못하게 한다。「一刀揮之에 屠敵首數十級」의 勇名을 날린 將軍의 大功을 우리는 언제나 이런 雜草속에 묻어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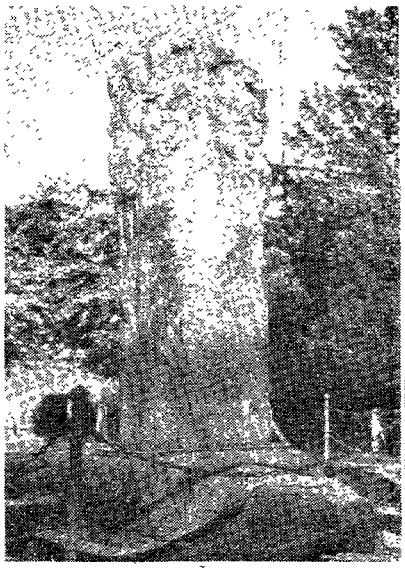
이제 將軍의 故壘記에서 그의 戰功의 一面을 찾아 보기로 한다。

「……朝鮮國洪將軍季男故壘碑、安城郡南十五里木村之傍有山突兀若累土而成者凡數級卽人相傳爲洪季男將軍陣處南陽人六世祖恕太宗佐命功臣康襄公父田自修自修之子震靂電雷而將軍其側出也禹曆壬辰倭冠大入自修在安城卒四子起義兵將軍已應募隷巡邊使李鎰麾下及鎰敗于尙州又往從申砬々又敗沒將軍欲執靮從王倍道至京則事駕而西狩矣自修方與賊相距於鎭川鬣頓嶺將軍退至挾擊破乃之賊退始建大將旗鼓數日之內從者三千人遂築壘木村而據焉賊方彌亘於竹山陽智龍仁焉三大陣將軍往來衝擊殆無虛日賊勢大挫陽域以西內浦以南民昏安堵實將軍之力也將軍謂人曰吾曾以使臣福稗往日本備諸賊情比賊易易耳每戰輒身先士卒所向無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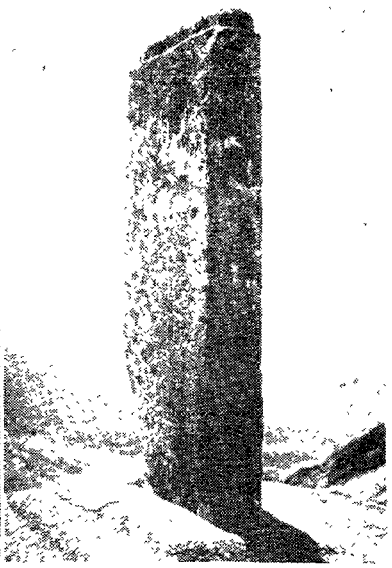
京畿道內 重要塔碑一覽 其一



神勒寺 大藏閣記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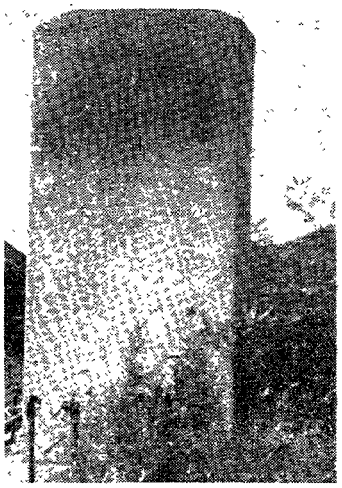
서울 圓覺寺址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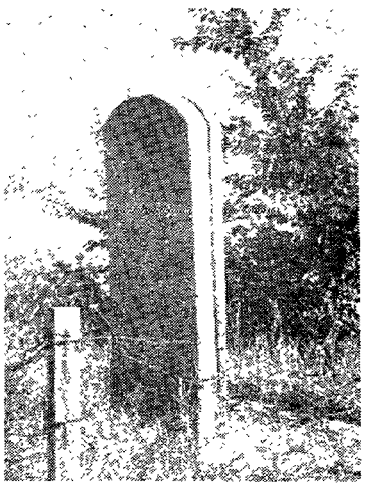
北漢山 新羅眞興王巡狩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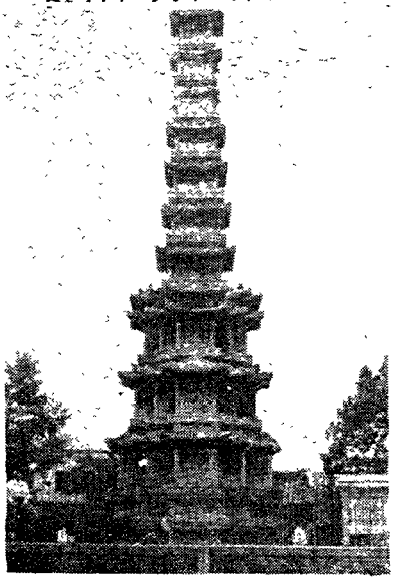
道峰山 天峰祖師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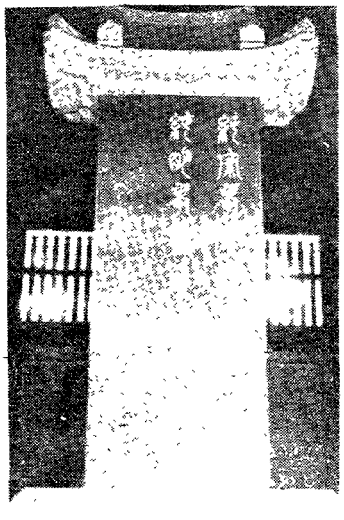
安城 大部巡撫使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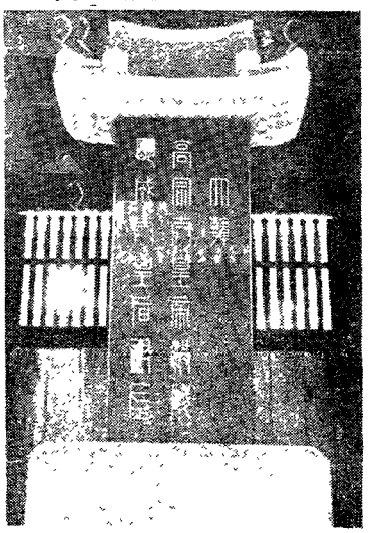
幸洲 權慄將軍戰勝碑



十二層舍利石塔 (빠고다公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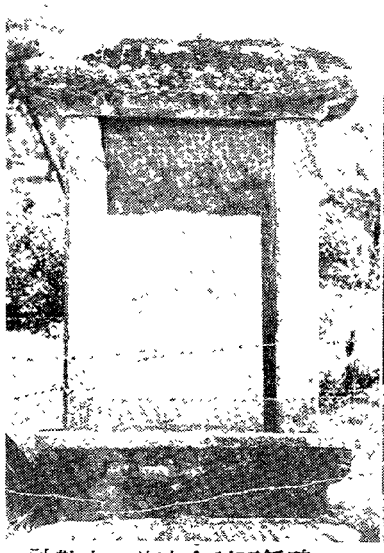


楊州 純宗皇帝 裕陵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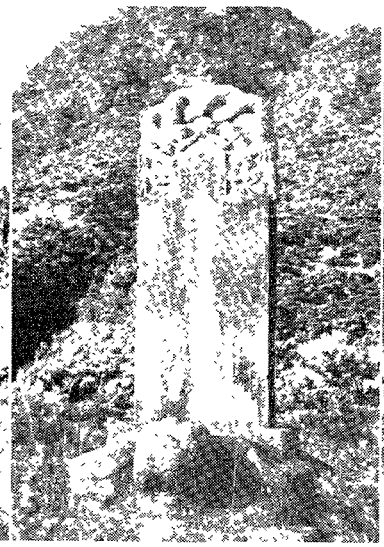


楊州 高宗皇帝 洪陵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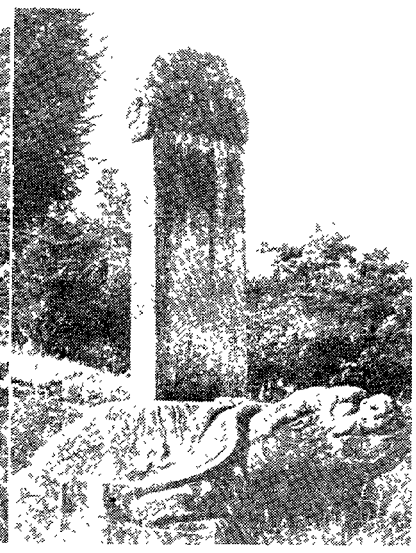
京畿道內 重要塔碑一覽 其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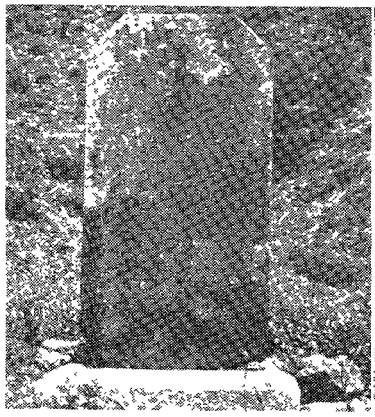
神勒寺 普濟舍利石鍾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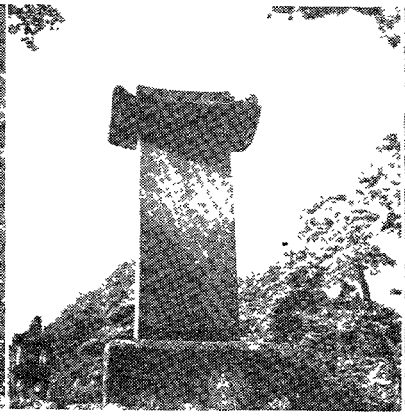
檜岩寺 懶翁 和尙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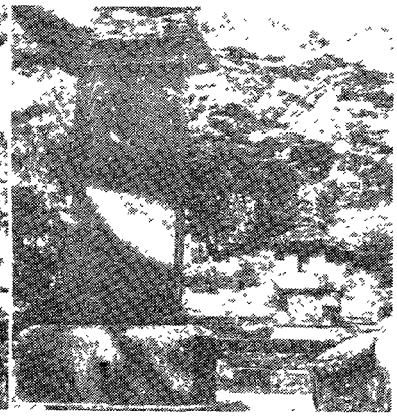
驪州 李浣大將 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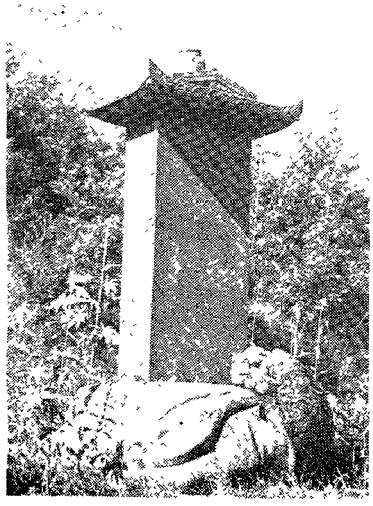
龍仁 玄悟國師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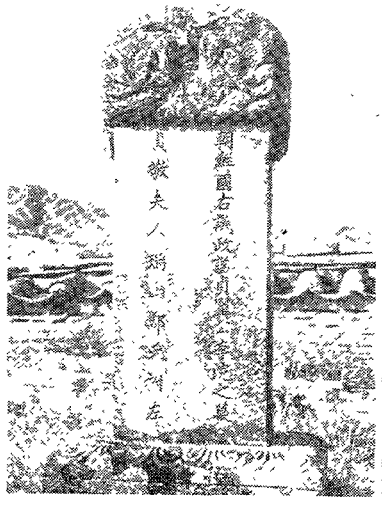
楊州 檜岩寺 無學道師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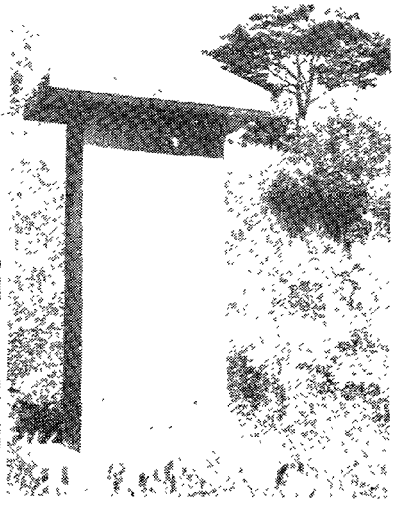
檜岩寺 指空和尙碑



驪州 閔妃 府院君碑



李浣大將 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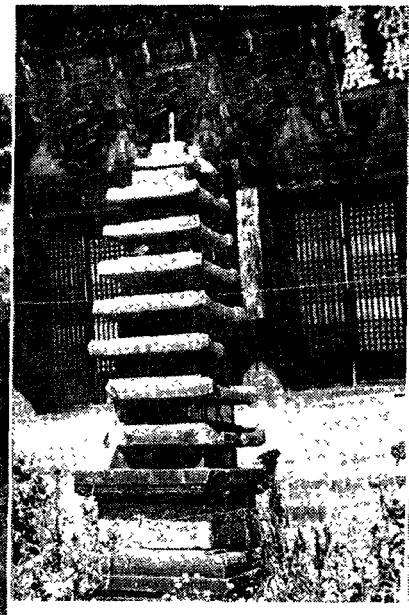


高陽 幸洲紀功祠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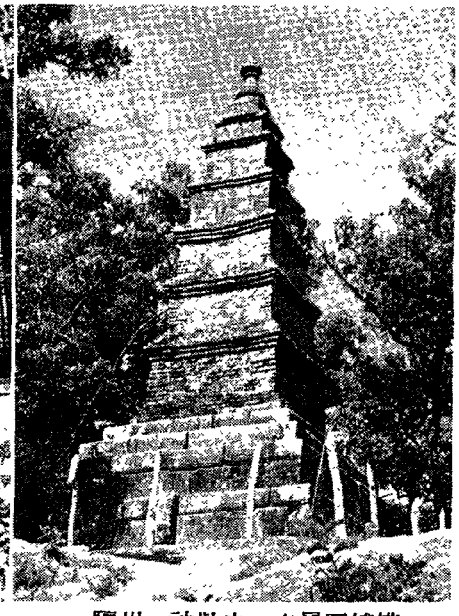
京畿道內 重要塔碑一覽 其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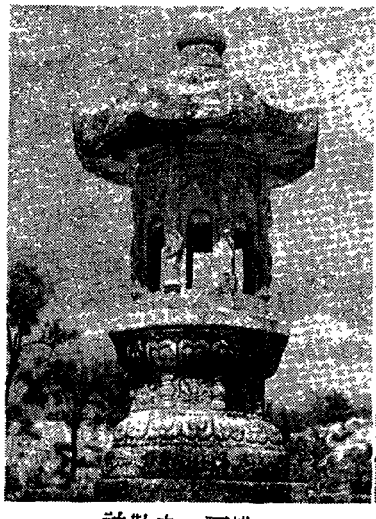
高陽 津寬寺多寶塔



神勒寺 九層石塔



驪州 神勒寺 多層瓦塼塔



神勒寺 石塔



驪州 高達寺址浮屠



高達寺 元宗大師慧眞塔



神勒寺 普濟尊者石鍾, 石燈



遺峰山 慧炬塔

京畿道內 重要塔碑一覽 其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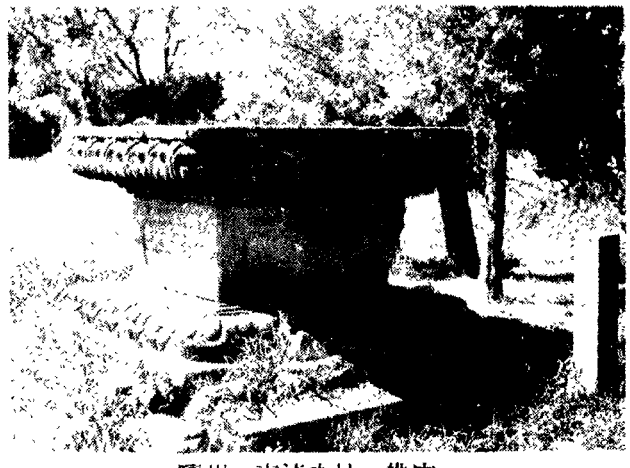
楊州 檜岩寺 懶翁和尙塔



楊州 檜岩寺 無學道師碑



楊州 檜岩寺 指空和尙塔



驪州 高達寺址 佛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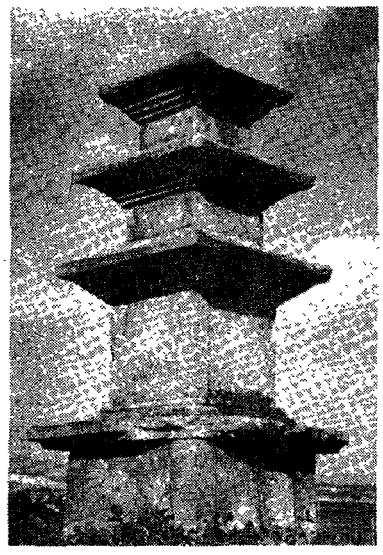


驪州 高達寺址 石龜



驪州 東大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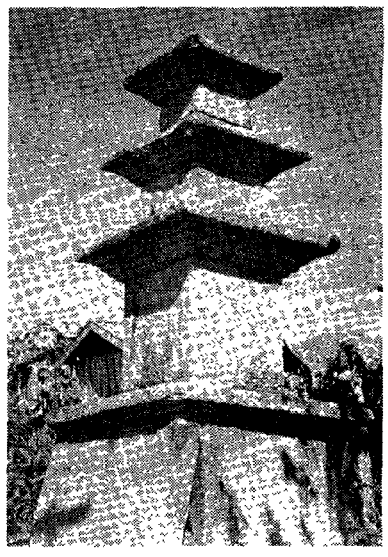
京畿道內 重要塔碑一覽 其五



利川 古寺址石塔



始興 姜邯贊將軍落星垈塔



驪州 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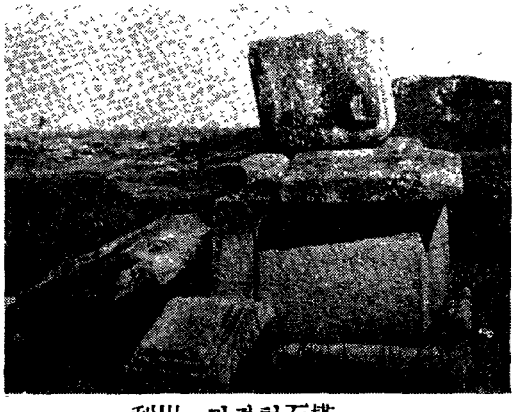
利川 映月庵 石塔



利川 寺址石塔



利川 養貞女校庭 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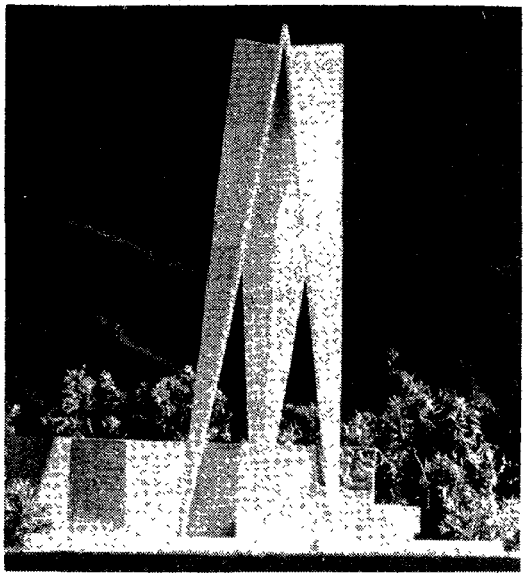


利川 마전터石塔



利川 映月庵八蓮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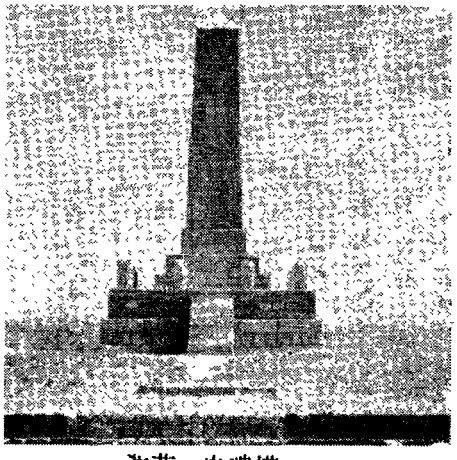
京畿道內 重要塔碑一覽 其六



水原 忠魂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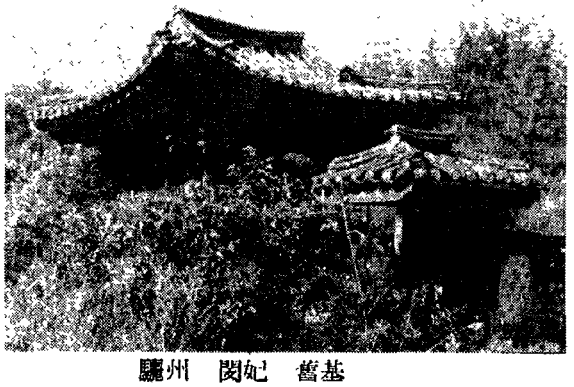
廣州 南漢山城 李大統領頌壽塔



江華 忠魂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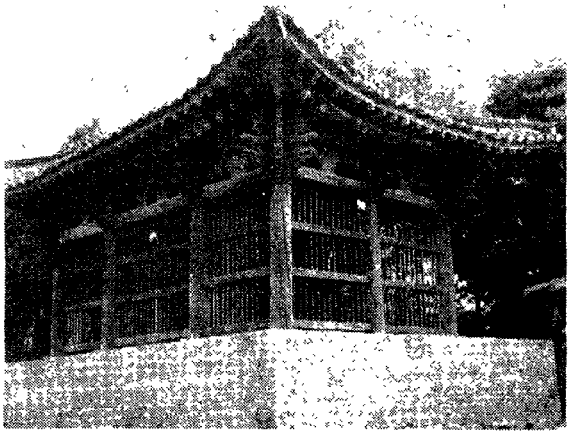
安城 忠靈塔



驪州 閔妃 舊基



華城 英國軍初戰記念碑



江華 鍾閣

管中丸手斬其賊裂創力戰良之相語必曰洪將軍洪將軍……云云以下略」

이제 洪季男將軍 故壘碑記에 나타나 있는 李鎰이란、 巡邊使(지금의 司令官)란 重責을 띄우고 聞慶까지 갔다가 接敵도 않고 尙州까지 退却、尙州 東方 二十里許의 長川에서 敵將 小西行長을 만나자 말머리를 돌려 北으로 逃亡하여 朴호、尙州判官 權井去等 諸將을 戰死케 했을 뿐아니라 忠州 申砬將軍의 陣에 들어서도 都巡邊使인 申砬과 副將 金汝岉、助防將 忠州牧使 李宗長等에 最後까지 싸우다가 散華했것만 李鎰만은 尙州에서처럼 말도 버리고 신발 조차도 못 찾아신고 逃亡을 한 爲人이다。洪、李 兩將軍이 장한것은 이러한 爲人의 魔下로 있으면서도 士氣가 꺼이지 않고 끝끝내 善戰 大勝捷을 했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

(3) 李將軍墓所

李德男將軍의 墓所는 本郡 薇陽面 九水里에 位置한다。 李將軍은 洪季男將軍과 內外從間으로 幼時로 부터 憂國至誠이 극진한 것이 남달리 눈에 띄였다 한다。千字中의「孝當竭力忠則盡命」이라는 句節을 배우다가 感激한 남어지「丈夫出當如是也」라고 하고 무릎을 쳤다는 逸話도 傳해지고 있다。

이러한 그의 氣慨와 憂國至誠이 國土가 倭敵의 醜한발에 蹂躪되는것을 참고 보고만 있을理 없다。그해 四月 十二日 倭敵의 第一陣이 釜山에 上陸했다는 悲報에 切齒腐心하고 있던次、東萊、尙州、聞慶、忠州等의 要塞이 砂城처럼 문허지는 것을 보고는 더 참을수 없어 內外從間인 洪季男將軍과 謀議하고 生死를 같이 할것을 盟誓、洪將軍은「영둔재」(巢屯嶺) 李將軍은 薇陽面 九水里의「木村재」에 各各 布陣 倭敵을 맞아 熾烈한 白兵戰끝에 敵을 粉碎했던 것이다。當時의 李、洪兩軍의 武器란 활과 急造된 칼 뿐이었지만 敵은 常敗將軍 李鎰로 하여금「倭兵은 神兵과 같사와 敢히 막을 경륜이 없사오니 臣은 오직 죽엄이 있을뿐」이라고 狀啓를 올리게 한 新武器 鳥銃을 갖고 있었다。이 鳥銃이 얼마나 可恐의 武器였는가는 慶尙左水使 朴泓의 狀啓속에도 나타나 있다。朴泓은 敗戰을 朝告하면서「一把枯木 向人則死」라 하여 말른 나무 작대기가 사람을 向하기만 하면 죽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想像하지도 못한 武器를 가진 敵의 大軍을 不過 三千의 烏合之卒로서 對抗、오히려 敵을 全滅시킨 功은 오직 그들의 憂國至誠에서 由來된것이였으리라。

이제 李將軍의 墓碣銘의 一節을 記錄하기로 한다。

(4) 李將軍 墓銘記

「……忠臣贈通政大夫兵曺參議行禦侮將軍訓練院正孝公墓碣銘並序……

上略上己酉狩無船可渡漢公臨江痛哭奮恨慷慨欲歸收義旅路龍仁逢招敵手格殺十餘乃與內舅洪自修募鄕人鑄農器爲兵方勇前抗敵自修子季男脫死於撻川之敗來會焉季男勇士也相與迓賊於獵屯嶺下至靑龍洞公騎馬先登季男繼之一場斷殺斬獲五十餘級縣之嶺上賊勢挫創軍聲大振折湖嚮合兵三千餘人等土城於木村以遏賊衝安陽以西民皆安堵公整○義卒東北至左贊嶺大破賊兵八月二十四日也賊以公首懸旗竿爲泄憤怨時季男官在隨城圍之馳八賊中得其父與公屍葬公於木村陣壘乾坐之原——云云」

(5) 瑞雲山城址

瑞雲山城은 本郡 瑞雲面 東南方 約二粁地點에 있는 瑞雲山頂에 있다。前記한 洪、李兩將軍이 倭敵防禦를 爲하여 築城한 石城으로 圍가 二千尺餘에 達한다。瑞雲山을 左右로 나누어 左城山、右城山이라고 하게 된것도 洪將軍이 左側山을 맡아 築城을 했고 右側을 李將軍이 擔當한데서 由來되였을 것이다。

二、靑龍寺

瑞雲山은 前記한 洪、李兩將軍의 山城으로도 이름이 높거니와、兩將軍이 布陣築城을 할만큼 峻嶮하여 解放後의 濫伐을 겪고 났어도 아직 靑山의 面貌를 잃지 않고 있다。그 울창한 鬱林은 樹海를 이루어 구름처럼 흔들린다。이 鬱林 깊숙이 묻혀 있는 大伽藍이 靑龍寺다。

青龍寺는 瑞雲面 靑龍里에 있으니 邑의 南端 十六粁地點에 該當한다。探勝路邊의 老松、松籟에 섞인 山鳥聲、봄은 봄대로 가을은 또 가을대로 變貌하는 瑞雲의 仙境을 즐기며 古刹을 찾아가는 興趣는 實로 登仙의 情緖다。더욱이 境內에 들면 紅塵萬丈이라는 語彙까지도 잊어지는 느낌이 든다。

本寺의 開基는 明本國師요 高麗 元宗 六年이다。檀紀 三五九八年、六百九十年前이다。그러나 創建當時의 이름은 大藏庵이었다는 것이 靑龍寺寺蹟碑陰記에 記錄되여있다 그 後約百年을 지나서 高麗 恭愍王 十三年에 懶翁王師가 大伽藍을 建造하고 靑龍寺로 命名을 했다。

巨刹은 아니나 大雄殿은 規模가 雄壯하다。大雄殿外에도 觀音殿、觀音靑香閣、冥府殿、大房等의 建物이 慨比하고 耕作地도 一萬餘坪에 林野가 二十八萬坪이나 된다。

寺內에 一巨鍾이 있으니 銅鑄 八〇〇餘斤의 大鍾이다。이鍾의 鑄造年代는 李朝 顯宗十五年이오 大化士密彦의 依하여 鑄造된 것이다。

三、隱寂·內院·瑞雲庵

靑龍寺의 屬庵으로 隱寂、內院의 兩庵이 있다。元來 靑龍寺 開基當初에는 이 兩庵外에도 隱神、靑蓮의 四庵이있다는 記錄이 靑龍寺重修事蹟碑銘에 남아 있으나 現存한것은 이 兩庵뿐으로 모두가 懶翁王師의 創建이다。驪州의 神勒寺도 이 懶翁王師의 開基로 傳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時代일것이다。

ㄱ、隱寂庵

隱寂庵은 靑龍寺에서 山腹을 타고 北으로 二粁쯤 떨어진 位置에 있다。글자 뜻 그대로의 隱寂을 늦기게하는 幽閑한 곳이다。

더욱히 隱寂庵은 소름이는 끼치는 絶崖를 끼고 있어 멀리서 보면 恰似비들기장 그대로의 絶景을 呈하고 있다。이庵子까지의 길은 그대로 層岩絶壁이어서 정말 一種의 苦行이다。

그러나 한번 올르면 이 짧은 苦行 몇 배의 爽快한 氣分도 즐길수 있다。庵庭에서 굽어보는 深谷鬱林이며 山峰의 굽고 부드러운 線、翠雲사이로 피빛 그대로의 躑躅 진달래의 色彩는 눈이 아플程度다。山이 깊으니 山새 소리 더욱 여물고 골이 깊으니 물이 또한 없을 수 없다。더욱이 이 庵子의 藥水는 예로부터 仙水라고까지 일컫는 名泉이다。까울지고 險한 山길의 疲勞를 이 名泉의 藥水 한 표주박이 가신듯 씻어 준다。

創建年代는 五九〇年前이다。

ㄴ、內院庵

內院庵도 靑龍寺에서 西北 三粁地點이다。當庵의 創建은 靑龍寺 開基의 翌年인 三六九八年으로 靑龍寺의 屬庵이다。靑龍寺로 부터 當庵에 이르기까지의 約三粁는 깎아진 絶壁을 타고 길이 만들어져서 路邊自體가 그대로 絶勝을 이루고 있다。奇岩이 있는가 하면 奇岩上에 妙松이 東洋畫의 一幅을 聯想시킨다。靑苔가 덮인 奇岩사이의 모다불갈은 躑躅은 探勝客의 눈의 疲勞를 풀어주기에 足하다。

비록 적은 庵子이기는 하지마는 當庵은 創建以後 四十八講師가 연달아서 繼承한것이 자랑이라 하며 龍虛、莊昊講伯을 마즈막으로 數百年來 選佛場으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庵子다。

ㄷ、瑞雲庵

瑞雲庵은 內院庵의 屬庵이다。元來 內院庵은 四十八講師가 있다가 繼承했드니만큼 찾아드는 學生들은 收容할길이 없어 內院庵講主 大淵萬雨가 創建한 것이다。當庵은 그리 오랜것이 아니니 距今 九十五年前의 建築이다。

靑龍屬庵으로 이밖에도 隱神、靑蓮의 兩庵이 있었다고 하나 現在은 그 遺址조차도 찾아볼길이 없다。

四、石南寺

世祖大王의 勅令敎旨、新羅 眞平王時代의 五層石塔과 佛像、巨鍾等의 國寶的인 寶物로 有名한 石南寺는 本郡 金光面 上中里에 있으니

邑東南 約 十粁地點이다。

探勝路는 사뭇 淸溪를 끼고 올라간다。靑龍山에서 흘이 岩려오는 溪流이다。 골이 있으면 물이 있고 물이 흐르는데 奇岩怪石이 널려있는것은 常識이지만 이 淸溪溪谷 또한 紅塵萬丈이 있는 都市街道에서만 살던 사람에게는 確實히 離俗仙道에 値한다。

本寺의 開基는 距今 一五五二年前인 新羅 眞平王 二十六年(百濟武王九年)、曇華法師에 依했고 그뒤 高麗 忠肅王때 王의 三子인 圓明法師가 荒廢해가는 當寺를 大修葉했던 것이나、壬辰倭亂의 兵火로 烏有化하고 말았었다。

現存하는 建物은 그後의 再建으로 建造年代는 確認되어 있지 않으나 大雄殿 蓋瓦에 雍正十三年 이라는 文字가 보이는 것으로 三七〇餘年前이 아닌가 推測된다。그後에도 前後 六次나 改、重修를 하여 오늘까지 保存되어 오고 있다。

寺境內의 그윽한 情緖라든가、蓋瓦와 庭石에 끼인 靑苔가 懷古의 情을 돋구어 주어 境內에 들면 누구나 無意識中에 손이 머리로 간다고 한다。斷俗入山하고 진다는 뜻이리라。

寺寶의 一은 世祖大王의 勅令敎旨다。當寺의 由緖를 살리기爲하여 世祖大王은 親히 勅令을 나리어 石南寺에 僧籍을 가진 僧侶에對한 一切의 賦役을 免除하여 禪道에 專念케 한것이다。

寺寶의 二는 石造 五層塔이니 大雄殿 앞들에 있다。이 石塔의 建造年代는 아직까지 確認되어 있지는 않으나 考古學者들의 推測에 依하면 一五〇〇餘年前의 作品임이 分明하다고 한다。本寺의 開基가 新羅 眞平王代이고 보니 曇華法師가 石南寺을 建造하면서 이 石塔도 세운것이 아닌가 한다。

寺寶의 三인 巨鍾은 비록 靑龍寺의 大鍾에 比하여 四分之一밖에 않되는 二〇〇斤內外의 鍾이지만、이鍾의 鑄造에는 黃金 四十斤을 合鑄케 했다는 記錄이 남아있다。이鍾의 鑄造年代는 李朝 宣祖十三年이다。

寺寶의 四로서 일컫는 大雄殿內의 佛像은 石南寺의 寺寶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實로 國寶的인 珍品이다。이 佛像은 木造鍍金이나 製作年代가 新羅 眞平王代라는 點에 더 價値가 있다고 한다。一五〇〇餘年前 鍍金이 아직도 褪色치 않은 點이라든가、그 美術的精巧와 藝術的技巧에 極致를 다 한點이 어느 모로 보나 新羅美術의 傳說이 흘러 있다。

이 大佛像의 製作年代에 關해서는 여러가지 說이 있었으나、佛像考古學硏究의 基學이 되어있는 다음의 三觀點으로보아 이 大佛像은 亦是 新羅時代 作品이라는것이 確認된다고 한다。

이제 參考로 佛像年을考證에 關한 基準觀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卽

1、新羅作(佛敎企盛時代) 新羅는 元曉、義湘等의 名僧을 낳았을뿐 아니라 全朝를 通하여 佛敎를 國敎처럼 崇尙하여 佛敎全盛時代를 이룬 感이 있다。그러하여 이 時代의 佛像의 特徵은

가、가슴을 짝 폈고

나、머리를 번쩍 들어서 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는 氣品을 보이고 있는點。

다、허리가 잘록하며

라、全體 印象이 樂天的인 點。

以上 四觀點이 그特長으로 되어 있는데 比하면 高麗、李朝로 나려오면서 佛敎가 衰退된 感이 없지 않았는바 이 傾向이 佛像에도 歷然한 影響을 보이고 있다는것이다。卽、

2、高麗作(佛敎繼承時代) 前朝 新羅時代에 比하여 佛敎가 若干 衰退된傾向을 보이었으므로 自然、가슴이 屈하고 어깨가 안으로 굽은듯 싶은 印象이오 고개도 若干 숙으린듯 싶은것이 新羅作品이 氣高萬丈하는 進就性과 自信을 보이고 있는데 比하여 어딘지 모르게 不安과 焦燥를 느끼게하는 印象을 주고 있는點。

3、李朝作(佛敎排斥時代) 高麗末의 辛旽으로 因한 反動으로 李朝에서는 佛敎가 耶敎같은 虐待을 받아온것이 事實이다。이 政治的인 影響

이 藝術에도 波及되어 李朝年間의 佛像은 大體로 고개를 숙으렸고 어깨도 新羅時代와는 勿論이지만 高麗時代 作品보다도 훨신 內省的이오 衰頹的인 印象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考證으로 보아 本寺의 大佛像은 新羅作、卽 本寺 開基當時의 安置된 佛像인것이 確認되었으나、六、二五動亂時 本寺을 占領한 共匪들은 이 貴한 우리의 文化遺産을 끌어내어 燒却破壞하고 말았다。無智란 이렇게도 무서운것이다。

五、七長寺

七長寺는 本郡 金光面 三興里에 位置한 七賢山中에 있다。俗稱 돌과지 後麓峻嶺인 바사리고개 넘어에 굽어 보기만 해도 眩氣를 이르키게 하는 斷崖絕壁위 안옥한 곳에 가리잡고 있다。境內의 鬱林、長松위의 山鳥聲 季節따라 變化하는 風景이다。어던들 다를까마는 白岩 틈의 躑躅花는 님그리는 情火라는 傳說을 聯想시키며 蕭瑟한 松籟는 伏中에도 더위를 가셔준다。

七賢山名은 七長寺의 第二開基師로서 傳해지고 있는 慧昭國師가 오늘의 碑殿자리인 白蓮庵에서 修學을 하고 있던 어느날 七惡人이 나타나서 入山修道를 請願하여 悟道에 達하더니 各己化度로 七賢局司가 되었다는데서 由來한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그러나 이 七長寺의 開基은 慧昭國師 보다는 約七八〇餘年前인 檀紀二六〇六年 新羅의 自藏師律가 그後 衰退一路에 있던 同寺를 慧昭國師가 高麗 顯宗五年에 大重修했던것임이다。

建物로는 大雄殿、圓通殿、冥府殿、凝香殿、四天王等으로 特히 大雄殿의 雄壯하고도 優雅한 彫刻美와 彩色美는 括目할만하다。當寺 앞밭속에 鐵製煙筒같은것이 沖天하고 있으니 이는 七長寺의 局形이 「行舟形」인데서 帆柱를 象徵한것이었다고 傳해진다。

寺境에 동강이난 一石碑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當寺의 二代開基師라고 일컫는 慧昭國師의 碑이니 碑說에 依하면 壬辰倭亂의 過中 敵將 加藤淸正이 當寺에 入寇、가진 非人道的인 行悖를 敢行하다 忽然 白髯老僧을 꾼 一老僧이 加藤앞에 나타나서 그非를 叱責하였다 한다。眼下無人格인 加藤은 크게 怒하여 長劍으로 老僧의 목을 치니 老僧은 간데없고 토막이난 碑石만이 우뚝 서 있었다는것이다。이碑가 바로 慧昭國師의 碑요、老僧이 國師였다 하여 碑身에서 흘러나린 鮮血이 寺庭에 그득했다고 한다。

이제 參考로 慧昭國師의 碑銘一節을 記錄하면 다음과 같다。

……我國師之謂歟師釋諱鼎賢俗姓子(不明)後之言曰常復傷矣晋冀缺如賓之禮心竊效焉常懷燕翼之謀思得衆明之母 金氏美齊萊婦恭此鴻妻逼鍾偕老之徵不明必(不明)月入室因而覺焉尋以有娠爺則許願紫袈裟一千領孃則約成普賢菩薩五百幢生若得子必當爲僧常於飮膳之間(不明)葷腥(不明)五年(不明)產寶龍頷閔圓在苑泊縣負褓之年曾推與硯乃場鳥童參玄之歲方慕出家徑投光敎寺大師冲會項落周羅身(不明)求宗(不明)蠖之勤(不明)三自謂曰偏和節要性相具通者奚若乎(不明)七地瑜伽敎門今欲去彼就比矣(下略)

當寺에는 明寂、極樂、靑蓮、白蓮等屬庵이 있다。寺刹로서는 불만한것이 못되지만 이 庵들의 境內勝景은 庵의 초라함을 充分히 補充해 주고도 남는다。

六、雲水庵

雲水庵은 陽城面 西南 四杆地點에 있는 女壯士 舞鷺의 築城이라는 舞鷺城內 中央高地를 占했다。一帶의 진달래와 백국새는 名物의 하나이어서 봄가을로 探勝客의 발자취가 그칠줄을 모른다。이 雲水庵의 特色은 菩薩의 손으로 開基、創造을 본데 있다。卽 李朝 英祖朝의 張氏般若明(佛家名)이란 女僧이 獨力으로 이庵을 세웠다고 한다。年代는 距今 約二二〇餘年前으로 推算된다。

그後 李朝末葉의 英傑이던 興宣 大院君이 重修費一切를 施主했고、雲水菴이라는 隸書親筆을 나리었다。

本庵子는 元來現位置 보다 얼마 나려온자리에 着工을 했다고 한다。起工을 한지 몇칠되는 어느날밤 一老僧이 夢裡에 나타나서 位置가 現자리보다도 더 上位가 나으리라는 말을 해서 깜짝 놀라 깨니 꿈이었무교 한다。그래서 다시 場所를 物色하려니까 連抱之木으로 하늘이 보이지 않던 叢林이 伐木이 되며 절터가 마련이 되어 있어 現 位置에 開基했다는것은 이庵子에 傳해지고 있는 傳說의 한토막이다。

勿論 그眞否는 알수없거니와 傳說이니 믿고 이야기 삼아 傳해지고 있다。

그當時의 大雄殿를 爲始한 山神殿等 오늘은 그자최도 찾아 볼수 없음이 遺憾이다。

七、淸源寺

元谷面에서 北方으로 約四粁가면 聖恩里라는 部落이 있다。이 聖恩里 部落後山이 四面이 다 天崖의 絕壁을 이루어 中天에 兀立되어 그 峻嚴하기로나 線이 굵고 아름다운 點으로나 本郡에서 첫손을 꼽는 天德山이다。이 山中에 一古刹이 있으니 그 開基年代 조차도 모르는 淸源寺가 바로 그것이다。

이 淸源寺는 寺誌에도 三韓時代의 創建으로만 되어 있을뿐 年代가 雄認되어 있지 않다。그러나 厨房의 葛樑으로 나年代는 不明하지만 相當히 精巧한 五層、八層의 石塔으로나 그 由緖깊음도 자랑이려니와 境內 一帶가 그대로 勝景이오 奇勝의 極을 다 하고 있다。더욱이 이 寺境은 兀立한 山頂에 둥그마니 位置하여 한번 境內에 들면 婆娑를 떠난 淸淨無垢의 天竺國에 든感이 없지 않다。이 寺境을 地家들이 일러 「蟬隱深穴形」이라 일컸는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建物로는 大雄殿、山靈閣等이 있고 獻誠發願을 하면 所願成就한다는 五層 石塔과 八層石塔도 考古學者의 興味를 돋구고 있거니와 厨房의 대들보는 이 절의 名物일뿐만 아니라 國內的으로 稀貴한것이다。이 대들보는 數百年 묵은 칡(葛)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팔죽을 쑤려고 僧侶가 마을로 불씨를 얻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 大雄殿의 부처님 입에 팔죽이 묻었더라는 傳說도 興味있다 할것이다。

六、竹州 古城址

竹州는 現竹山의 古名이다。安城邑에서는 東北方 約十六粁地點이 되는 二竹面이다。이 古城의 築城當時 城周가 三八七四餘尺이였으나 現存한것은 石築뿐으로 當時 築城의 勞苦가 얼마나 컸든가를 可히 推測케한다。

城中에 一廟가 있으니 拉致國民의 數爻만도 二十六萬을 넘는다는 蒙古兵來寇로 竹州防禦別監에 任命되어 奇拔의 功勳을 남긴 宋文胄 將軍의 戰功頌閣이다。宋文胄將軍의 戰記는 史記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忠州山城을 잘 지키기였을뿐 아니라 蒙古의 一回侵寇時 敵將인 살르타이(撒里台)를 射殺한 金允侯와 함께 山城防禦別監으로서의 面目을 燦然케한 將軍이다。

特히 이 古城址가 있는 飛鳳山은 山紫水明으로 알려 있을뿐더러 山城이 엿던 東嶺은 石壘로서 數百間이 둘러여져 있어 그 壯嚴함이 이를데 없거니와 城頭에서 眼下 四面을 眺望하면 內臟이 씻어지는 느낌이다。굵고 가는 連山의 線과 끝이 하나에 닿은듯싶은 넓은平野에 百穀이 욱어져 自己도 모르게 허리끈을 졸라매게 된다。

여기에 將軍 戰功記一節을 傳해둔다。

高麗高宗 十三年宋文胄爲竹州防禦別監蒙古兵至竹州城諭降城中士卒出擊走之蒙古兵復以砲攻城四門城門輒推落城中亦以砲逆擊之蒙古兵不敢近蒙兵居無何又備人油灌藁縱火攻之城中士卒一時開門突擊之蒙兵死者不可勝數蒙兵多方攻之凡十五日竟不能拔乃燒攻戰之具而去文胄嘗在龜州熟知蒙兵攻城之術彼之計劃無不光料輒告於衆曰今日賊必設某機械我當備某機應之卽令備待賊果如其言城中皆謂之神以明功拜左右衛將軍云云…이一節만 보아도 當時의 攻防戰이 얼마나 熾烈했음을 알수 있다。

七、馬耳山 城址

馬耳山城址는 一竹面 東方 約三粁地點인 金山里에 있다。築城當時부터 土城인것이 남아있는 그城址로 보아 確實하다。

이 山城의 築城年代는 現在까지 判明되어 있지 않으나 그것이 土城인 點으로 보아 竹州古城 보다도 以前의것이 아닌가 推測이된다。

一說에는 옛날 烽燧臺라는 說도 있으니 龍仁의 九峰山에서 烽燧를 올리면 이를 이 馬耳山城에서 받아서 三南地方으로 傳達했다는 記錄이 남아 있는것으로 보아 烽燧臺說에 가깝다 할것이다。

古蹟으로서의 山城의 地位는 特記할만 한것이 못 된다 하지마는 海拔四百七十餘米나 되느니만큼 이 山城址에서의 眼下俯瞰은 實로 奇觀이다。樹海幽谷도 可觀이려니와 마조 건너다 보이는 老星山頂도 壯하다。山城址에 앉아 깊은 冥想에 잠겼으려면 老星山中의 瀑布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다。

八、太平 彌勒佛

竹山 東北 約二粁地點인 太平院(現梅山里)에 太平平野가 있다。여기서 龍仁郡 白岩으로 가는 路邊에 一部落이 있으니 이 部落앞에 一樓閣이 있고 樓閣앞에 立體彌勒石佛이 安置되어 있다。

이 石佛은 距今 二〇〇餘年前 李朝 英祖時代의 作品으로 崔太平이라는 一個人의 立石佛인만큼 그規模만은 크다 해도 美術的價値는 없다는것이 學者들의 定評으로 되어있다。高가 十三尺에 胸圍만도 七尺餘다。더욱이 어떤사람의 입으로 發說된것인지도 모르면서 이 石佛의 돌을 煎飮하면 落胎가 된다는 迷信이 傳來되어 不貞女들의 所行으로 落石이 많이 되어 있다。

이 石佛의 建立者는 英祖人으로 崔太平이라는 猝富였다고 한다。高利貸金으로 致富를 했으나 늦게야 깨달은바 있어 無學修德의 極樂道를 열어 보고저 發案을 했다고 傳해지고 있다。그것은 自覺에서가 아니라 어떤 過客이 人生을論하되 人生은 結局 「空手來空手去」世上事如浮雲、成墳土人散後 杜鵑啼月黃昏」이라는 詩의 眞意를 說明한 끝에 過去를 淸算했다고하니 그眞僞는 判斷키 어렵다

어쨌든 國家的인 事業이 아니었다는것만은 그作의 拙劣에서 立證이 된다고 한다。

九、克敵樓址

距今 五九五年前 高麗恭愍王 十年 紅賊亂에 由緖를 가진 克敵樓는 邑內 九苞洞 現 國民學校 東便에 位置해 있었든 모양이다。不幸히도 지금은 그 遺址조차 찾아볼수 없이 되고 말았으나 이 克敵樓는 恭愍王八年 十一月以來로 거의 三年동안 高麗의 北中部에 노략질을 恣行한 紅頭賊 一名 紅巾賊 또는 紅賊이라고 일컫던 匪賊들에게 一大鐵椎를 나린 安城郡의 자랑인 戰勝記念樓閣인것이다。

이제 參考로 世稱 紅頭賊亂의 槪要를 따기로하면 紅頭賊이란 恭愍王 卽位前年인 西紀 一三五一年 北部中國 河南省에서 韓山童、劉福通等이 蒙古族한테 나라(宋)를 빼앗기자 起兵하여 蒙古에 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侵攻해왔던 外難이다。

이 紅頭賊은 머리에 紅巾을 매고 있는데서 생긴 이름으로서 恭愍王八月 十一月에 三千餘名으로 鴨綠江을 건너게하고 十二月에는 毛居敬이란者로 하여금 다시 四萬을 渡江시키어 義州、鐵州를 단숨에 占領하고 가진 蠻行을 했다。이를 본 政府에서는 安祐、崔瑩、李成桂等 諸將으로하여 이를 막게하고 王과 王妃 魯國大長公主및 太后는 利川、忠州를 거치어 지금의 安東으로 避難을 했던것이다。이 紅賊亂은 李成桂가 親兵 二千으로 敵兵 十萬을 殲滅하므로서(史記에 依하면) 終熄을 보았거니와 安城에 侵入했던 紅賊은 恭愍王 十年 十月에 朔州、安州로 몰려든 敵將 關先生、朱元帥麾下의 部隊였든것으로 推測되고 있다。

어쨌든 前後 三十年間 蒙古의 來侵을 받아 物心兩面으로 極度의 疲勞를 느끼고 있던 高麗國을 또다시 紅賊亂을 입어 傾國의 遠因이 되었든것만은 事實이다。

이제 同樓記를 보면 다음과 같다。

克敵樓記 權近記吾友鄭郡守弘以省郎出守安城改續效法賴以安修其廨○東樓使其學之長鄭翰走京都致書於村村之第曰樓本居昌愼君仁道爲宰時所置也至正辛丑紅賊陷松都乘輿播越賊遣先鋒稱使者侵略諸郡由此而北三十餘州望風而降至有以公服出迎滔天之勢汎溢而南將擧國淪胥而莫之○惟此邑卒先奮義伴服宴犒醉而殲之賊由是不復南下國家得成興復之功褒其義烈陞爲知官明年癸卯愼君寔來以作斯樓則斯樓也所以施敵○功陞秩之榮也不可以不重然愼君能作而不能名又不能記其事以示于後今歷二紀之久老者逝壯者老矣又歷而久則斯邑之有功於國斯樓之有重於邑後之人將無○知之矣於是仍舊葺活易朽以堅名之曰克敵——云云(以下略)

一〇、紀功碑閣

이紀功碑閣은 邑廳 뒤에 있다。여기에 記名된 吳公은 巡撫使로서 黨爭의 餘波로 惹起된 金一鏡餘黨의 一員인 忠淸道의 李麟佐、慶尙道의 鄭希亮等의 兵亂을 鎭壓한 功勞를 記念하기 爲한것이다。李、鄭 兩軍은 宗室 密豊君坦을 推戴하여 王으로 삼겠다하여 營將 南延年을 襲殺하고 一路 安城에 이르렀을때 兵判 吳命恒은 四路都巡撫使의 職을 拜하고 安城川에서 敵을 맞아 이를 大敗하므로서 國亂을 平定했던것이다。

同碑文은 如左하다。

朝鮮國四路都巡檢使吳公安城對敵頌功碑上略……兵曹判書吳公命恒奮曰主辱臣死臣請自性抗之上喜卽拜公四路都巡撫使手賜常方劍以遣三月戊辰出馬二千壬申次素沙前隊旣發公忽主馬呼從事附耳語曰賊必夜襲安城吾已偵知之矣麾衆經趨之賊果夜至以爲安城軍也稱犯之旣已覺之退屯靑龍山癸酉公督中朴績所率精銳急襲之先斬宗元懸旗等以首以馳賊氣奪不敢戰棄旗鼓四潰斬獲甚多甲戌以大軍乘搗竹山賊又大敗之……云云

一一、老星山 瀑布

老星山은 一竹面 北方 四粁地點에 있는 아담스러운 山이다。이 後麓에 一瀑이 있으니 이름하여 老星瀑이다。水高 비록 二丈에 차지못하고 水深이라야 한길에 不過하지만 本郡에서는 唯一한 瀑布다。瀑布는 비록 적다 해도 瀑布周邊 一帶의 絶崖와 流岩怪石은 水量의 적음을 補充하고도 남음이 있다。鬱蒼한 나무숲이며 산새소리에 물소리가 俄然 雄壯한 交響樂을 이루어준다。幽谷의 그윽하고 아름다움、山影의 부드러운 線의美、이 一帶는 天然的인 遊園地를 이루어 本郡 屈指의 勝景地다。

一二、道基書院

이 書院은 安城邑 道基洞 뒷산에있다。宣朝때 安城郡守인 金長生先生을 그의 글과 德을 받들어 뒷사람들이 이곳에 書院을 세우고 先生을 追慕했던 곳이다。先生은 위대한 儒學大家로 朝鮮名賢이며 文廟配享 十八人중의 한사람이다。지금은 書院의 痕蹟은 간데 없고 落照에 산새소리가 무심히 지저귈뿐이다。古誌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金長生字希元號沙溪以遺逸官至參判贈領相謚文元從祀文廟受學于栗谷(李珥)又出入于牛溪(成渾)門德氣純厚學業諄粹貫通禮學所著有疑禮問解近思錄釋義經書義家禮備要等及遺稿文集壽八十四(安城記略參照)

一三、詠歸亭

論語에「風乎舞雩詠而歸」라는데서 이름지었다는 이 詠歸亭은 長院에서 내려다 보이는 산마루에 있다。

附近 岩石에는 尤菴 宋時烈先生의 筆蹟으로「雲臺」라는 두字가 색여져 있으나 지금에는 詠歸亭도 자취조차 찾을 길 없는 廢墟이다。

一四、德峯吳氏 宗山林

安城名勝의 一로서 德峯 吳氏 宗山林을 들지 않을수없다。이 百二十餘町步의 大美林인 風致林은 安城邑 西 二十里地點을 占有한 陽城元谷兩面에 걸리어 있다。이 山林은 奇峯奇岩이 重疊한 勝景地를 이루고 있는 古城山麓을 占有하여 背後의 山岳美로나 一大樹海를 이루고있는 美林으로나 鬱林속에 散在해 있는 名賢功臣의 墳墓로나 安城의 자랑이 아닐수없다。

이美林이 海州 吳氏의 宗中林으로 發足한것은 四百五十餘年前이다。
爾來 四百餘年間 이地帶에는 連抱之木이 幽邃한 神秘境을 이루어 勝景의 地로도 이름이 있었거니와 經濟的으로도 寄與한바 컸었으나 庚戌年의 倭의 侵入과 同時에 民族的인 仰慕의 對象을 모조리 抹殺시킨다는 政과 巨材의 搬出로 一朝에 赤山化했던것을 約五十年前 吳氏의 後孫인 當地의 吳準根氏가 必死의 精力과 財力을 기우려어 再造林한것이다 이 吳氏의 先見之明과 그의 情熱에 感動한 吳氏門中이 이에 協力、自然木의 育成은 勿論한 편으로는 苗圃를 만들고 砂防工事를 하는等 不過半世紀에 오늘과 같은 美林이 이루어진것이다。
이 宗山林을 倭政末期의 所謂 緊急伐採의 厄도 免했으니 後孫 吳潤根氏等 吳氏宗中이 日官을 買收 遲延作戰을 쓰는등안 八、一五解放을 맞았던 것이다 이러한 吳氏門中의 愛林思想은 解放後의 濫伐도 免케하여 비록 連抱之木은 아니라 하더라도 四、五十年生의 大松巨樹가 密立하여 境內에 들면 山鳥의 奇聲과 溪流의 속삭임에 塵世를 잊게한다 松籟인지 새소리인지도 분간키 어려운 神秘境에 앉아 있노라면 杜鵑聲이 그윽함을 더해주고 季節花와 丹楓이 마치 아리따운 女人들의 찬란한 衣裳을 聯想시켜 준다。
欝林속의 古蹟墓 또한 美林의 情緒를 돕거니와 이 宗中林속에는 吳氏의 十五六代에 걸친 墳墓가 散在해 있거니와 그中 名賢、功臣의 古墳만을 列擧한대도 壬辰功臣인 貞武公 吳定邦 宣祖朝의 名賢 天坡公 吳澐、孝宗朝의 賢相 肅憲公 吳翽、己巳諫臣 忠貞公 陽谷 吳斗寅、孝子 吳觀周等이 있다。特히 駙馬 海昌都尉 吳泰周의 立石은 壯美를 極하여 國內屈指의 墓上石儀로 일컬어져 나려오고 있거니와 墓碑銘中 特히 參考할만한것은 壬辰功臣嘉善大夫吳忠貞公墓碑銘撰이나 省略한다。

一五、南坡書院

이 書院은 鳳南洞(麻谷洞)에 있었다。 李朝 仁祖때 洪宇遠先生을 모셨든 書院이며 先生은 淸廉한 學者로 臣道를 다 하여 이곳에서 돌아가셨으니 麻谷洞 뒷산에 그遺骸를 모셨다。古誌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洪宇遠字君。號南坡仁祖朝文科歷翰林提學官止吏判謚文簡爲持平時論趙氏母子事曰先王之寵姬殉死先王之愛子流竄又引禮論尤庵沒于謫壽 八十三(安城記略參照)

一六、穡 古 堂

洪宇遠先生께서 直接 修學하셨던 곳으로 大德面 蘇峴里에 아직도 그 後孫이 지켜오고 있다。穡古堂이란 額書는 大院君의 親筆이다。

一七、德峰書院

當書院은 陽城面 德峰里에 있었으니 李朝 仁祖朝 刑曹判書 吳斗寅先生을 享祀한곳이다。이書院의 建築年代는 肅宗乙亥로 同庚寅年에 「德峰祠宇」라는 懸板額書가 下賜되었었다。
建立以來 數많은 人材를 培養해왔으며 大院君의 書院撤廢時에도 享祀가 仍許되어 現在에 至하고 있다
古誌에 보면
吳斗寅字元徵號陽谷仁祖朝科大科官至刑判謚忠貞己巳 摩旋時直疏受刑享坡州豊溪 陽城德峰北靑老德書院及光州忠烈祠 云云 ——

一八、艮齋 彰忠院

彰忠院은 元谷面 芝文里에 있다。 李祖英祖朝의 忠臣 崔奎瑞先生의 忠烈을 表彰하기爲하여 建築된것이다。 이院內의 「一絲扶鼎」의 四字는 英祖의 親筆로 先生의 忠義를 讚揚하여 상감이 下賜한것이다。古誌記에 曰
崔奎瑞字文 淑號艮齋正碩英之子出後縣監碩儒肅宗朝科歷副提學官至領議政謚忠正英宗嘗疏仲尼尹主 少論早自體退去於龍仁戊申矣婦人驕告變亂定後力辭勳名 御筆賜一絲扶鼎四字之奬之 云云
崔奎瑞行狀記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 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弟師致仕奉朝賀 贈諡忠貞公公諱奎瑞 字文淑 號艮齋又少陵 海州人

乙酉進士庚申別試文科 歷曰淸要而常以恪勤無怠儉約自守爲戒自肅廟朝休退不起 景廟朝大拜屬下手札敦勉終不出 肅英廟丁未特許致仕奉廟賀 戊申之亂夜半睡裏卒聞賊變冒夜入城使人上聞又賤平將勘首勳公抵死力辭上特書下 一絲扶鼎四字 令旌于家

이로서 艮齋 崔奎瑞先生의 履歷과 그行狀을 알수 있거니와 이「一絲扶鼎」의 四字 親筆은 艮齋先生의 後孫이 지금도 保存하고 있다。

一九、安城公園과 忠靈塔

安城市內 中央을 貫流하는 川邊에 市民慰安의 公園이 雅淡히 造營되여서 市民休息과 集會場所로 維持되기는 임의 倭政때로 遡及되는바、園內의 樹木亭子는 足히 道內에서도 稀貴한中에 特히 檀紀四二八八年에 當地有志이며 敎育家인 金台榮氏의 特志로서 멀리 甲午更張以後 六、二五 動亂時까지의 本郡出身 殉國者無慮八六三位에 對한 忠靈을 奉安하여 芳名을 길히 千秋에 드리고저 忠靈塔을 建立하였으니 이로써 忠靈에 對한 道理를 다했을 뿐外라 白色五層의 石塔은 公園의 異彩를 또한 裝飾하고 남음이 있다。

여기 該忠靈塔記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粵自甲午更張以後 繼續抗日運動 降至己未三一獨立運動及 大韓民國庚寅六·二五共匪動亂以來 本郡出身 爲國殉忠 殺身成仁者甚衆 而尙無英靈慰安之擧矣、時 殉國忠靈奉安會 安城郡支部長 金台榮 以特志獨自專擔工費 安城忠靈塔建立委員會委員長金溶錫(郡守)委員(警察署長)陳錡範(敎育監) 咸興圭(邑長)李相烈(邑議會議長)朴容觀(國民會郡支部長) 金昌基(金融組合長)朴鳳圭(記者團長)及安城水曜會(機關長會)會員諸人士 並力盡誠乃建忠靈塔于 安城園公之一隅 列錄殉國忠靈之名 奠安于塔內 自是精靈得其依 英名不泯矣 塔旣立 讚美其事 以誌于石

嗚呼英靈 功蓋一世
爲國殉忠 名垂千秋

二〇、安城名産 鍮器

安城의 名産은 세상이 다 알다싶이 鍮器다。「統營갓」과 함께「安城마춤」이라는 말까지 全國에 씨어지고 있다。이「安城마춤」이란 安城에서 나는 鍮器에 對한 質的 評價이기도 하거니와 商行爲에 있어서도 그만큼「信用本位」라는 意味에서도 씨어지고 있다。

二一、巨樹名木

陽城面桃谷里에 一大巨槐가 있다。上梢까지의 高는 六〇餘尺에 達하고 圍도 四〇餘尺이나 된다。이 巨槐는 高麗顯宗代의 植木으로 傳해지고 있고보니 樹齡이 九〇〇餘年이나 된다。

龍仁郡

第一節 古蹟

一、龍華殿

本郡駒城面廐北里에있는바 創建年代는 未詳으로 오즉 重修記에 依하면 約百年前에 重修하였으며 其間에 高七尺餘 周圍六尺餘의 大彌勒佛의 半座像이있는 거와 其前庭에 高七尺五寸의 五層塔이있는 것으로 보와 古代寺刹의 遺趾로 推察되며 境內外의 老樹茂盛한 點으로도 이殿閣의 由來歷史을 말하는 듯하다

二、處仁城

本郡南四面 衙谷里에있는 土城으로서 이 城의 由來는 高麗 高宗十八年에 蒙古가 高麗를 親征할새 撒禮塔이라는 將帥로 하여금 入寇한바 高麗는 不得已 江華島로 一時 還都하는 同時에 우리 僧將金允侯는 水州(水原)의 屬邑인 處仁部曲에 土城을 쌓아 敵將撒禮塔을 攻擊射殺하고 그군사는 混亂되여 敵將鐵哥에게 引率되여 撤歸하므로 이로써 高麗는 退勢을 挽回하고 蒙古의 勢力을 半島에서 모라내게 하였든 由緖깊은 곳이다。

瑞峰寺址는 水枝面新鳳里에 있으니 高麗 十九代 明宗十年 乙巳에 創造하였다。그러나 本建物은 廢墟가 되였으나 當時 玄悟國師가 이절에서 國王께 講學하였으며 그國師의 功을 記念하기 爲하여 세웠든 碑가 卽 이 塔碑로서 碑身長이 五尺三寸幅이 三尺二寸의 花崗岩製 六角長方型이다。이寺址 周圍가 光敎山이고 附近 南쪽아 兄弟峰 東쪽이 鐘路峰으로서 奇峰秀岩과 더부러 山紫水明한 景勝地이다。

四、鄭圃隱墓

本郡慕賢面陵院里에 있는 高麗忠臣 鄭周夢先生의 墓所로서 春風秋雨幾百載無言中 後人으로 하여금 先生의 高節를 追慕케한다。因하여 慕賢面이라는 地名까지 生겼다。

五、巨樹名木

樹種	所在	胸高周圍	樹高	樹齡
楸	器興面新葛里	八間	三百七十年	
櫸	慕賢面旺山里	三十五尺	二十三間	三百七十年

平澤郡

第一節 名山

一、芙蓉山

本郡 彭城面客舍里에 있는 山으로 其形容이 芙蓉과 같다하여 이 이름이 생겼다。東으로 平澤平野、西로 安城川下流를 지나 멀리 牙山灣을 바라 볼수있는 眺望絶佳한곳이다。山麓西便에 우물이 있는데 이곳에서 옛날 龍馬가나서 芙蓉山을 뛰여 넘어 갔다는 傳說이있다。

二、舞鳳山

北面東泉里에 있으며 높이 二百八米、山麓에는 綠樹가 密立하여 山容秀麗 맞이 鳳凰이 춤추는 것 같다 하여 이 이름이 있으며 春節의 躑躅、秋節의 丹楓아 다 좋고 山頂에 올르면 四方四里平野가 一眸에 거둬지고 멀이 黃海海水도 바라 볼 수 있는 곳이다。

山麓에 文廟와 萬奇寺가 있는等 一帶가 幽邃한境地다。

三、栢峯山

靑北面栢峰里에 있다 높이 七十米山容은 倒扇形으로 되였으며 山頂으로 올라가는 데까지는 自然的石段階가있다。

距今 百七十餘年前 正祖大王이 水原華山의 隆陵에 參拜하였을제 魏魏摩天의 雄姿를 볼때 賞嘆해마지 않았으며 第三代 太宗時代 兵亂으로 王子 六人이 이 山에 避難하였다는 傳說이있다。

四、巨樹名木

樹種	所在	胸高周圍	樹高	樹齡
赤松	浦升面芳林里	九尺	十間	三百二十年
銀杏	平澤邑碑前里	二十一尺	二十五間	三百三十年
〃	北面下北里	二十一尺	二十間	六百三十年
香椿	北面鳳南里	九尺	十二間	百三十年
櫸(야지다무)	西面松花里	十五尺	五間	五百二十年

이나무가 上梢부터 썩이나면 乾雷부터 모를 내고 下梢부터 썩이나면 물논 부터 모를 내야한다고 한다。

華城郡

第一節 古蹟寺刹

一、遲遲台

水原華山 一帶에 散在한 모든 名勝과 古蹟은 그 全部가 正祖大王과 깊은 因緣을 맺고 있다。아니 大小의 古蹟 치고 正祖와 關聯이 없는 古蹟은 없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 遲遲臺도 正祖가 華山陵 行次 때문에 생긴 古蹟이다。

이 遲遲臺의 由來를 實感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父君王인 莊獻世子에 對한 正祖大王의 至孝至誠을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이 正祖大王은 悲慘한 最後를 마친 父王을 追慕하기에 一生을 바친분이다。

遲遲臺의 由來도 正祖가 華山陵에 拜獻하고 그 廻路에 鳳輦이 遲遲臺 고개에 이르면 宣祖는 멀이 華山陵의 上空을 바라보며 다시금 涕泣을 禁할길이 없었다。 한다。 이 正祖의 孝心의 極盡함에는 여러가지 逸話가 있지만 그中 代表的인것을 추리면 正祖의 孝心은 華山陵域의 樹木에까지 깊은 愛情을 느끼었으니 正祖가 拜獻次 陵域에들어 一老松가지에 붙은 松虫을 發見하고 「네놈이 父王陵의 松林을 蠶食하는 놈이로다!」하고 松虫을 잡아서 이로깨무려 죽이셨다고 하니 이로서 正祖의 孝心이 어느程度인가 想像이 될것이다。 이 밖에도 正祖大王의 孝誠에 關한 逸話는 實로 많이 傳해지고 있다。

이러한 至孝의 正祖가 先王이 잠드신 隆陵을 뒤에 두고 서울로 떠나자니 陵域上空이 마즈막 보이는 이 고개에서 遲遲할 밖에는 없다。 遲遲臺名의 由來는 여기에서 온것 이려니와 獻陵途中 이 고개에서 陵域은 바라보이나 行軍은 遲遲해 보였을 것이다。

이 由緖 깊은 遲遲臺 고개에는 記念碑閣이 있고 宣祖頌 碑文이 있다。

六、二五 事變으로 破壞된것을 日旺面 有志와 華城郡에서 修理費를 據出하고 道에서로 補助하여 大重修를 하여 往昔의 面貌를 維持하고 있다。 碑身의 高는 五尺、幅이 二尺이다。

遲遲臺 重修記는 檀紀四二八〇年 이오 撰은 爲堂 鄭寅普氏로 撰文은 省略한다。

正祖大王의 遲遲臺의 詩가 있다。

晨昏不盡慕　此日又華城　靄靄寢園雨　徘徊齊殿淸
若爲三夜宿　猶有七分成　矯首避二路　梧雲望裡生

二、彰聖寺址 眞覺國師 大覺圓照塔碑

國寶 第二十二號로 指定된 眞覺大師圓照塔碑는 本郡 日旺面 上光敎光里光敎山麓에있다。 水原에서 車路九粁 徒步로 五、六分 九粁車路徒步 水原에서 五、六分의 相距地點이다。

이 光敎山은 主峰外에 連峰이 屹立하여 隣接山은 거의 光敎山峰의 落脈으로 이루어져 있다 高麗朝에는 이 光敎山에 八十九庵子를 세워 光敎라 이름 지었다하나。 現在는 그 遺址만이 山中 到處에 散在해 있을 뿐이다。

由緖깊은 彰聖寺도 그中의 一로서 現在는 遺址만이 남아 있다。 照塔碑는 이 彰聖寺 遺址內에 있다。 碑는 板石으로서 方趺위에 섰다。 지붕形 蓋石이 碑上에 덮이었고 碑身은 大理石으로 前面에 篆額과 碑銘, 後面에 門徒以下 檀越의 名單이 列記되어 있다。

碑身의 高는 四尺五寸五分、幅이 二尺六分、趺石은 花崗岩의 長方形이다。 蓋石도 花崗岩製로 碑文는 高麗末 禑王 十二年 丙寅으로 되어 있다。 創建動機는 高麗國王이 眞覺國師의 頌德記念을 爲해서라고 傳해 지거니와 다만 遺憾은 風雨 五百七十年에 그 碑文이 大部分 判讀키 不能하게 된 點이다。

이 光敎山의 主峰은 五百七十七米로 水原城에 注入되는 華川의 水源地로 山容과 水態로서 可謂 名勝之地에 屬한다。

光敎는 一名 光敎山으로도 文獻에 남아 있다。

三、義 聖 塔

義聖塔은 彰聖寺가 있던 光敎山中에 있으니 光敎山은 高麗時代 부터 八十九庵子가 있었다는 泰山이다。 主峰은 五百七十七米지만 그 連峰이 疊々하여 深山幽谷을 이루어 峻嶮하기 그지없다。 이 山勢를 利用하여 丙子胡亂때 胡軍과의 사이에 一大接戰이 벌어졌으니 우리의 大勝에는 地勢와 居勢를 잘 利用했기 때문이라 할것이다。

때는 李朝 第十七代 仁祖 十四年 丙子 (西紀 一六三六年)에 滿洲에서 일어나 後金의 來侵한 後金 卽淸의 太祖는 直接 大軍을 指揮하여 南漢山으로 籠城한 仁祖大王을 包圍하고 熾烈한 攻迫戰이 展開될 무렵이다。 全國에 義兵이 烽起했고 勤王兵 募集의 令을 받는 各道에서는 勤王兵을 引率하고 南漢山城에 救援의 壯途에 올랐었다。

이 光敎山에서 大軍을 맞아 싸운 金俊龍은 當時 全羅兵使의 職에 있었으니 南漢城에 危急이 傳하자 全羅道內의 勤王兵을 引率하고 北上、水原 光敎山에 이르자 胡軍이 大擧 進路를 막으매 金兵使는 胡軍을 光敎山中으로 誘引、一大白兵戰을 展開했든것이다。

이 戰鬪에서 金俊龍은 大勝하여 淸兵의 殆半을 무찔렀고 胡將三名의 목을 베어 士氣를 올렸다 한다。

이 戰勝地點인 岩上에

「金俊龍戰勝也提湖南兵觀王至此殺淸三大將」이라는 紀念彫刻이 있다。

이 彫刻이 있는 巨岩을 義聖臺라 일러온다。

그러나 金俊龍은 結局 南漢山城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敗했섰다。

四、交龜亭址

本郡 日旺面 松竹里에 一亭址가 있어 交龜亭址라 일컫는다。 지금은 그 遺址만이 남아 있으나 이 亭子는 水原府에 新任해 오는 留守가 舊留守를 맞아 職印函을 受交하던 建物 이었다 한다。지금으로 치면 新、舊、郡守가 職印을 授受하고 事務引繼를 하던 建物이다。

五、闕里祠

闕里祠는 本郡 鳥山面 闕里에 있다。距今 四五〇年前에 孔子의 第六四代孫인 文獻公 瑞麟이 闕里에서 書齋를 세우고 開講을 했다고 傳해지고 있으며 그 當時 前庭銀杏樹에다 북을 걸고 警時不倦敎授門下弟子 더더니 公이 沒後에 銀杏樹도 自然 枯死 했다가 李朝正祖十七年 壬子春에 忽然히 根幹에서 發芽하여 成長하고 있다고 傳해질 뿐이다。

闕里에 現存하고 있는 闕里祠는 一六〇餘年前 正祖大王의 命에 依하여 創設된것이다。正祖가 華山陵에서 멀리 眺望을 하니 華南方 梧美 附近에 數를 헤일수 없을 程度의 群鳥가 益이 울면서 떼를지여 雲集 하므로 怪異하게 여기어 梧美까지、行次를 하여보니 一大 老 銀杏木이 있어 銀杏木의 由來대로 祠를 짓고 孔子의 影幀을 奉安케하고 闕里祠라는 賜額을 걸게 했다。

現在도 이 闕里에는 孔氏가 많이 살고 있다。

여기의 銀杏木도 枯死한것이 正祖十二年、闕里祠 建立時에 蘇生 하였다고 傳해지나 正祖때에 植木이 아닌가 한다。

六、龍珠寺

우리 나라 三十一本山의 一인 龍珠寺는 京釜線 餠店驛에서 西北으로 約四粁地點인 華山의 大原始林 뒤에 있어 郡廳에서는 約 六粁相距다。

이 龍珠寺 자리에는 元來 新羅 第四十六代 文聖王(西紀 八四〇—八五七)十六年에 創建한 葛陽寺가 있었으니 距今 千百年前이다。그後 高麗의 第四代 光宗王三年에 葛陽寺는 累次의 兵亂을 겪어서 兵火로 烏有化 되어 있던것을 李朝 二十二代 正祖大王이 父王 莊獻世子陵을 華山으로 뫼시면서 葛陽寺址에 오늘 龍珠寺를 建立 하고 父君의 冥福을 빌게 한 것이다。

이 龍珠寺 再建의 工事는 正祖 十六年 九月에 起工、同 二十年에 겨우 完成이 되였으니 四個星霜의 時日을 要한 大建築이다。創寺와 同時에 八路都僧院을 設하여 全國의 佛刹을 統御케 했으며 寶鏡師로 하여금 本寺를 主宰케 했던 것이다。

龍珠寺 堂宇는 四年間의 大工事였든 만큼 括目케 한다。建坪 六〇 餘坪의 大建物인 大雄寶殿의 壯嚴한맛은 筆舌로 表現 하기가 因難할 程度로 規模도 宏大 하거니와 그 優美한 點으로 實로 括目의 價値가 있다。

이 밖에도 十方七燈閣、獨聖閣、護聖殿、冥府殿、那由陀寮、曼珠寶利、天保樓、普譜閣、別堂 三門 極樂大願殿等의 大小建物이 雄據하여 原始林 속에 俄然一大伽藍國을 形成한 感이 있다。

이 建物中 護聖殿은 六、二五 叛亂으로 燒失이 되였다。

龍珠寺에는 寺寶가 많다。그中에서도 石造七重의 舍利塔은 龍珠寺의 前身인 葛陽寺 建創時의 唯一한 建物로서 寺內 寶物中 最古에 屬한다。

이제 寺內에 保藏되어 있는 寺寶 珍品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佛像

西方阿彌陀佛　三尺座像　塗金　正祖十四年建
東方藥師如來　三尺座像　塗金　正祖十四年建
釋迦如來　三尺座像　塗金　正祖十四年建

佛畵

大雄殿寶扇後佛幀畫　高二〇尺　幅一五尺、掛圖　正祖十四年作
七星閣七星如來四方七星幀畵　高二八尺　幅一〇尺　掛圖　正祖十四年作

塔

石造七層舍利塔新羅文聖王十六年作
前庭石造七層塔　年代未詳

鍾

梵鍾　一三、〇〇〇斤、錫及金鑄製　新羅王十六年　作

佛經刻板

佛經板木　恩重經高二尺祈福揭文　幅一尺　木刻嘉慶七年　六月二十二日
蔡濟恭書。
恩重經石板及銅板高二尺幅一尺　銅板嘉慶七年　六月　二十二日　龍珠寺는 그 位置 부터가 本郡의 四個面(安龍 正南 烏山 峰潭)에 亘한 大森林속에 있어 寺內 어디를 가나 正祖大王의 그윽한 孝心이 풍기는 듯하여 溫古之情도 새롭다。寺內에 名藥水가 있다。

七、慕洛山과 擎日庵

京水街道를 달리자면 軍浦驛과 對峙된 街道 左側으로 一秀峰이 있으니 山頂은 全岩塊로 峰을 이루고 있다。往年에는 樹木이 鬱蒼하거니와 물도 秀麗하여 勝景이더니 지금은 昔日의 面貌를 찾아 볼길이 없이 되었다。本郡 日旺面 淸溪里에 該當하는 이 山麓에는 아직도 樹木이 密生하며 療養院의 白色建物이 멀리 보면 山中의 溫泉村 같은 印象이다。
이 山名이 慕洛이 된데는 이런 由來가 있다。李朝第七代 世祖大王이 十二歲에 登極한 端宗을 追出 慘殺하고 王位에 오르는것을 目睹한 臨瀛大君이 그 仲兄의 非를 嘆息하고 惝然 宮中을 떠나서 이 山麓 內蘇里로 移住를 했다는 것이다。正義派인 臨瀛大君으로서는 아모리 王位도 좋지만 血族間에 殺生까지 하는 仲兄 世祖에 對하여 反感이 있었을것이다。그리고 每日 이 山에 올라 洛陽을 思慕하며 消日을 했다는데서 「慕洛」의 山名이 생기었다。하며 臨瀛大君이 이른 아침 山에 올라 해를 맞던 자리에 있다 해서 擎日庵이라는 寺名이 생겼다고는 한 이다。그러나 지금은 痕跡 좇아 없어 졌다。
山頂에 오르면 멀리 水原과 安養 始興의 三平野가 展開되고 帶水처럼 疾走한 京水街路의 眺望도 奇觀이다。
山頂밑 巨岩에 一大岩窟이 있다。

八、靑龍寺

始興의 名山 冠岳秀峰과 마조 對峙 比해있는 泰峯이 淸溪山이니 始興 廣州 華城 三郡의 接境을 이루고 있다。恰似 全州扇을 펴서 거꾸로 든것같은 山形이다。이 淸溪山은 또 麗朝末의 名臣이 있던 李穡 趙胤等의 儒臣들이 李太祖의 叛麗行爲를 睡罵하고 憤然히 王都인 松都를 떠나 入山 했다는 記錄으로 有名한 山이다。이 山頂에 望京臺가 있어 이臺址가 趙胤이 나라를 亡친者 어찌 개가 아니랴 하여 이름을 趙犬으로 고치고 松京을 바라보았다던 자리다。一說에는 麗朝末의 鄭松山이 全羅道 幹事史로서 御命을 받고 나려 갔다가 李太祖 李成桂가 謀叛하여 王位에 올랐다는 消息을 듣고 廻路에 이 淸溪에 올라 松京을 바라 보았다는데서 望京의 名이 생기었다고 도傳해진다。說은 二說이나 그 趣旨가 같고 보니 같은 事實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 山中에 一寺가 있으니 靑龍寺라 한다。
靑龍寺의 寺史는 멀리 三韓時代로 傳해지고 있으나 이것을 考證할만한 文獻은 아직 發見되지 못하고 있다。高麗末의 李穡이며 趙胤 鄭松山等 名儒 名僧들이 入山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巨刹이 있었던것도 事實이오 鄭松山은 淸溪山頂에서 麗朝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다가 削髮

하고 僧이 되어 餘生을 이 靑龍寺에서 보냈다 하니 高麗末期 以前의 創寺인 것만은 믿을수 있을 것이다。

九、白 雲 寺

白雲寺는 日旺面 旺谷里에 位置한 白雲山中에 있다。 建物은 많이 破損되어 있어 옛날의 모습을 볼길이 없으나 寺史는 으레히에 麗朝中葉의 創建이라고 傳해진다。

또 一說에는 李朝中葉에 某 政丞이 入山修學하던 建物이 後에 庵子로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確證을 잡을 道理가 없으나 建物의 褪色과 모습이 麗朝時代의 創寺를 聯想케 한다。

現在에는 小庵으로 轉落 했으나 寺域의 風光은 秀麗하여 一日 淸遊에 遜色이 없다。

一〇、靑 蓮 庵

本郡의 巨山이오 秀峯水麗로 이름이 있는 光敎山의 落脈에 자리잡은 小庵子다。 庵子의 創建은 正祖代라 하며 寡婦 林氏가 餘生을 佛道에 살고저 創寺 했다고 한다 그後 李朝末의 閔妃가 純宗十五年 (西紀一八九三年)에 獨聖閣과 春香閣의 두 建物을 세워 靑蓮寺라 寺名을 고치었다 한다。

一一、鎭 霞 山

本郡 雨汀面 梨花里 德睦洞에 있다。

古來로 부터 將軍大地形이라고 風水說에 傳해오는 名山 寶金山 바로 옆에 있어 이름이 떨치지 못했으나 幽谷에 또한 淸流로 아름다운 山이다。

이 山頂에 石陣址가 남아 있으니 壬辰亂 當時 純全한 民兵으로서만 倭兵과 싸워 勝利를 했다는 由緖 깊은 山이다。

倭亂때 敵의 第二陣인 加藤淸正軍이 略奪行爲를 하기爲하여 來襲하자 男女 老少를 가리지 않고 近洞民全員이 이에 對抗하면서 이 山上로 避難을 했던 것이라 한다。 倭兵의 目的은 食糧과 젊은 婦女子에

있었다。

婦女子들이 入山 하는것을 보자 敵兵들은 山頂으로 몰려 왔다。 山에 돌을 山積하여 城을 쌓고 對戰中、 敵兵이 山頂 가까이 왔을때 蒼猝間에 霞가 全山을 덮어 敵들이 갈팡대는 틈을 타서 石戰으로 殆半을 殺生退却 시켰다고 傳한다。

鎭霞의 山名도 여기에서 由來 한것이다。 洞民들은 지금도 三年에 一次式 이 山頂에 올라 山祭를 지내어 國防意識을 鼓吹하는 美風이 있다。

一二、北 池

水原市에서 京水街道를 서울로 올라 오자면 五粁 相距 街路邊에 一大蓮塘이 있어 紅白의 소담스러운 蓮花로 水面이 덮이어 一大花園을 彷佛케 했었다。 이것이 北池다。

北池는 李朝의 正祖十四年에 築造한 貯水池니 正祖는 悲慘한 最後를 마친 父王 獻祖 (莊獻世子)를 楊州에서 華山으로 移葬하고 至誠을 다못한 苦悶을 잊고저 水原에 遷都를 計劃하고 築城을 하고 都邑으로서 모든 施設를 가추었었다 함은 到處에서 指摘한바 지만이 北池도 그때 民에게 生業의 길을 열어 주어야 百姓이 水原王都로 올리라는데서 灌漑事業으로 東西南北에 四大 貯水池를 파게 했으니 그西가 오늘의 西湖요 北의 貯水池가 오늘의 이 北池다。 東과 南의 兩池는 埋沒되고 찾을 길이 없다。

北池는 오늘날도 西湖와 함께 農業에 一大惠澤을 입히고 있으니 그面積은 實로 廣大하다。 堤防에 龜裂이 생기어 修築이 要望되고 있다。 지금은 蓮花도 볼수 없다。 北池는 一名 萬石渠 라고도 불리어 지고 있다。

一三、華 山 陵

華山林은 華城郡 安龍面에 있는 本郡과 本道는 勿論全國을 通하여 唯一한 人工造林의 模範林이다。 그 面積은 實로千 七百餘町步에 達하고 二八〇年間 一切의 伐木이 禁止되어 華山 一帶가 原始林을 이루며

있다。全山이 雜木이 없는 老松樹로 덮이어 一大美觀을 呈하고 있다。老松 사이에는 가는곳 마다 淸溪가 흐르고 滿山의 躑躅은 翠松과 좋은 對照를 이루어 그윽한 神秘境을 形成하고 있다。

이 人工林은 李朝 第二十二代 正祖大王이 父王 莊獻世子를 追慕하기 爲한 陵域의 美化計劃下에 造林된 것이다。

莊獻世子는 第二十一代 英祖大王의 王子요 正祖大王의 父君이다。世子는 天性이 剛毅하고 文武兩道에 通達할뿐만 아니라 英傑的 素質을 多分히 타고난 英才라고도 하고 또 一說에는 一種의 性格破産者라고도 傳해지고 있어 그 眞否는 判斷키 어렵다。

前者說로도 莊獻世子는 國家의 百年 大計를 爲해서는 北(淸)에 訶附할 것이 아니라 이를 武力으로 牽制해야만 한다는 熱烈한 北伐論者라는 것이다。이 北伐論이 父王 英祖大王의 怒氣를 사서 두뀌속에 넣어 慘死케 했다는 것이요。後者論에 依하면 宮中에서의 日常生活과 行動이 性格破産者 그대로 生母인 王后 까지도 이의 죽이기를 主張 했다는 것이다。그 一例를 들면 半裸體로 宮中을 徘徊 했다기도 하고 地下室에 槍 劍 같은 武器를 無數히 隱匿해 두는等 正常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世俗의 一두뀌王子」다。

英祖大王의 뒤를 이어 莊獻世子의 子인 正祖가 位에 오르자 父君이신 莊獻世子의 너무도 凄慘했던 最後를 哀悼追慕하여 拜峯山에서 靈屍를 宮中에 옮기어 國葬의 節禮을 밟아 오늘의 華山으로 移葬하고 隆陵이라 追尊케 되었던 것이다。

正祖大王은 歷代王中 가장 孝誠이 極盡한분 이었다。正祖의 孝心은 一種의 變態的일 程度로 다른 治績도 많았지만 父君 莊獻世子를 追慕하는것으로 一生을 마추듯 싶이 한 王이다。

이 華山의 造林도 父王의 陵域을 美化하기 爲해서만 計劃 되었던 것이요。解放 卽前 富平의 某 材木商이 倭軍閥과 結託하여 所謂 造船材供出을 爲한 緊急伐採를 하기前 까지는 百八十年間 絕對 禁斧區域으로 되어있었던 것이다。

이 造林 計劃만도 二十餘年뒤 長期間이 所要되어 正祖의 次代인 純祖代에 와서야 完成을 본 것이다。

이 域內에 隆陵、健陵의 二陵이 있으니 隆陵이 곧 楊州 拜峯山에서 移葬한 莊獻世子의 陵이오 健陵은 正祖大王 自身의 陵墓다。正祖大王 自身의 遺言에 依해서 父王 가까이 成陵케된 것이다。

隆陵의 形式은 陵墓를 石屛風으로 둘려 싸고 石人 石馬等으로서 外壁에 羅列 했다。앞에는 石床、石燈籠을 配置했고 下段에 나려가서 丁字閣、碑閣、紅箭門이 섰다。齊室、典廟祠、守僕房等의 建物도 壯麗를 極하고 있다。

健陵은 隆陵에서 멀지 않은 西쪽 언덕위에 位置하고 있고 陵의 形式은 父王의 陵과 大差가 없다。다만 陵墓에는 石屛風代身 石欄이 使用되어있는 點이 다를 뿐이다。

우리 나라의 陵域에는 어듸나 鬱林이 있어 勝景을 이루고 있지만 華山陵域의 美林은 그 代表的이다。하늘이 보이지 않은 鬱林에 들어서면 百花에 千鳥가 우짖고 松籟 그윽한 懷古의 情緖를 돋구어 준다。古蹟踏査를 兼한 一日淸遊의 適地다。華山으로 移葬한 것은 正祖 十三年 十月七日이오 碑文에는 世子를 莊祖로 追尊한 記錄까지 있으니 碑前面에 朝鮮國 思悼莊獻世子顯隆園 大韓 莊祖懿 皇帝隆陵 獻敬皇后로 追尊한 것이다。

一四、洗馬臺

華山의 一部인 餠店驛 南方 四粁地點에 一禿山이 있다。이山頂에도 山城址가 있으니 中軍을 두어 南方 防禦의 關內을 삼던 城이다。山上 城址에는 日人이 撤壞했던 建物을 當地 洗馬臺重建委員長 兪喜勳氏의 努力으로 再建하여 丹靑도 새롭게 屹然한 樓亭이 다시서게 되었다。이것이 洗馬臺다。

洗馬臺의 由來는 距今 三百六十二年前 壬辰亂때 權慄將軍이 白米로서 洗馬를 했다는 데서 起名된것이라 한다。李朝 宣祖 二十五年 壬辰에(西

紀一五九二年)倭의 豊臣秀吉은 部下 小西行長 加藤清正 九鬼嘉隆等에게 援兵十五萬을 주어 來侵케 하였으니 前後 七年間의 長期戰爭이었다。

朝廷에서 極力侵略을 防禦하였으나 그前前年인 二十三年 倭의 侵寇與否에 關한 倭政內查의 重任을 맡고 倭國에 派遣되었던 黃允吉 正使와 金誠一 副使가 前者는 西人이오 副使 金誠一은 東人이었든지라 西人 黃允吉의 正使「敵政은 可侵」이라는 說을 東人들이 反對 했고 東人 副使 金誠一은 豊臣秀吉의 鼠眼으로 敢히 來侵의 將이 못된다는 虛僞報告만을 믿고 一切의 防備가 없었든지라 一瀉千里로 敵은 來侵半朝에 이미 서울 까지를 占領하고 말았든 것이다。朝廷에서는 그제야 金誠一이 虛僞報告임을 알았으나 때는 이미 늦어 李恒福의 主張대로 明나라에 援兵을 請했든 것이다。

이 援兵이 大擧 南下 하고 있다는 報에 接한 全羅道 巡邊使 權慄將軍(後에 都元師가 되였음)은 勿失好機라 하여 서울로 進攻하고 있는 明軍과 함께 서울을 占領하고 있는 倭軍을 挾擊할 目的으로 兵二萬을 引率하고 北上中、이 禿山에 이르자 倭將 加藤清正、鍋島直茂 相良賴方 三將에 二萬八千兵이 權慄將軍이 入山한 禿山을 包圍 하였다。禿山은 小山이나 二萬 大兵의 飮料水가 缺乏하여 數日만 더 包圍를 當하면 全滅될 狀態에 빠져 있었다。

이 實情을 探知한 倭將 加藤清正은 使者를 시켜서 飮料水 一筒을 我陣에 보내며

「權將軍의 飮料水에 供하시라」는

嘲喩로서 應酬 했던 것이다。이로보아 倭敵이 禿山陣에 飮料水 絕乏을 探知 했다는 것을 안 權將軍은 翌早朝 山頂에 數十馬匹을 세워놓고 白米를 들어 부어 洗馬 하는듯이 보이자 加藤等은 禿山陣의 絕水란 謀略이라고 斷念하고 包圍作戰을 變更 北進 하였다는 것이다。

이 禿山陣에서 白米洗馬의 機知로 權慄將軍은 壬辰倭亂의 三大勝捷을 거둬냈든 것이다。禿山上에서의 四方眺望은 實로 가슴이 트이는 듯싶다可히 敵勢를 望見할수 있는 要塞이다。

一五、駐驆行宮

京水街道를 南下 하다가 安養에서 約六粁 京釜線 軍浦驛에서 徒步로 東方 四粁地點인 古川里 路邊에 一古屋이 있어 面事務所 廳舍로 使用되고 있다。李朝 正祖大王은 그 父君 이셨든 俗稱 두주王子 라는 莊獻世子를 楊州拜峰山에서 華山으로 移葬하고 每年 春秋로 拜陵行次를 했었다。

이 建物은 正祖大王이 華山行의 途中 小憩하던 建物로 駐驆行宮이라 불려지고 있다。

이 地點이 서울과 華山陵의 中間에 該當하므로 晝食小憩케 된것이다。

始興郡

第一節 史話

一、永懷園哀話

本郡 西面 老溫寺里에 永懷園이라는 陵이었다。溫新國民學校에서 東南約 千五百米 地點으로 永懷園 俗稱 兒王陵이라고도 한다。

이 兒王陵은 李祖 第十六代 仁祖大王의 昭顯世子 諿의 配偶 昭顯嬪의 墓所이니 昭顯嬪은 本郡出身인 麗朝의 功臣이오 그勇名을 中大陸에 떨치게 한 姜邯贊師의 十九代孫女가 된다。

仁祖라면 內外의 亂을 가장 많이 겪은 世代니 仁祖反正의 功臣인 李适이 論功行賞에 不滿을 품고 平安道寧邊에서 起兵 破竹之勢로 漢陽을 向하여 올라 와서 仁祖는 할수없이 公州로 蒙塵을 했고 都元師 張晩 副元師 鄭忠信等이 鞍峴에서 叛軍을 反擊하고서야 宮中에 돌아왔으니 이것이 이 李适亂을 爲始하여 中國의 明 淸사이에 끼어 朝廷에는 언제나 愁色이 떠돌았다。

卽 지금까지의 仁祖朝廷은 明과 接近하여 信義를 지켜야 할 境遇인데 갑작이 淸의 新勢力이 擡頭하여 明淸 어느쪽에 國交를 여느냐에 苦悶했던 것이다。이 또한 小國의 悲哀이였으나 明에 接近하면 淸이 嫉視하고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信義를 버리고 淸에 加勢할수 없었으니 이 苦悶은 明淸의 衝突로 더욱 難局에 이르렀다。

이明淸兩國間을 巧妙히 조종한것이 仁祖二年에 突發한 李适亂 平靜의 功勞者인 林慶業이다。

그러나 明淸의 軋轢은 드듸어 仁祖朝廷에 미쳤으니 이것이 丙子胡亂으로 仁祖와 昭顯世子를 비롯하여 第二第三의 三世子와 文武諸臣이 淸朝에 人質로서 拉去되었다。이를 救出하는데 林慶業將軍의 功이 컸거니와 一旦 世子들을 釋放하면서 淸帝는

「오래동안 故國을 떠나 있느라고 마음도 외로웠을 것이니 무엇이든지 所願을 한가지式 請하면 朕이 이에 應하리라。」

하였다 第一世子인 昭顯世子는 淸帝가 愛用하고 있던 龍硯을 請하여 이를 받아 들였고 第二第三世子는

「우리 三世子만 홀로히 故國에 돌아갈 수 없아오니 願컨대는 우리 世子들과 함께 貴國에 온 男女全部의 우리 國人도 同行하여 歸國치 않으면 父王께서 마음이 괴로우리이다。」

하고 拉致된 全員의 無事釋放을 要請하였다。

第二第三世子의 이말에 淸帝도 難色을 보이었다。淸臣들의 反對도 있었거니와 淸帝自身 全員釋放의 意思는 갖고 있지 않았던 터라 暫時 말이 없다 第二第三世子는 다시 나아가

「父王께서는 저의 世子만의 歸國을 기뻐하시기 보다 오히려 念어하실지니 願컨대 全員 同道케 하옵소서。」

하고 懇請을 하자 淸帝도 世子들의 말에 깊이感動되어 이를 承諾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世子를 은拉送되었던 全員이 함께 歸國을 하였다。仁祖는 이 顚末을 臣下들에게서 듣고 第二三世子를 깊이 稱頌하고 第一世子인 昭顯世子를 불러 앉게 하시고

「너는 아비에게 辱을 끼쳤을뿐 아니라 나라의 威信을 傷함이 이보다 더 클수 없는 大罪를 지었으니 마땅히 벼루에게 묵즙을 받히어 아비의 臣과 民에게 謝罪함이 可하리라。」

하며 淸帝에게서 받은 龍硯으로 世子의 顔面을 치니 世子는 그卽席에서 昏倒 絶命되였다。

이 悲運을 當한 世子嬪 姜氏는 누구를 怨咎할길도 없이 쓸쓸히 媤父主 仁祖를 孝誠으로서 받들어 宮內에서도 그 賢淑함에 稱頌이 자자했고 仁祖도 그를 몹시 아끼던中 어떤 奸臣이 있어 潛訴하기를

「世子嬪에 淫事가 있아오니 朝廷에 辱됨이 이보다 클수 없아외다。」

하는지라 仁祖 또한 이潛訴를 믿고 丙戌年에 姜氏에게 死藥을 나리었다

「嬪은 살아서 孝를 다 함도 子息의 道理옵고 죽엄을 받자옴도 孝의하나오니 기꺼이 藥을 받겠나이다。」

하고 死藥을 받았다。

이러하여 嬪은 죽엄과 함께 庶民으로 落籍되어 오늘의 本郡西面에 埋葬되니 이것이 永懷園의 由來이다。

奸臣의 潛訴로 무고히 怨死한 昭顯世子嬪陵은 四十餘年間 一庶民의 무덤으로서 나라에서는 돌봄이 없었으나 嬪의 억울함을 아는 사람들은 눈물로서 이 초라한 墓를 바라보았던 것이다。그러다가 四十年後 十九代 肅宗朝에 이르러 嬪의 無罪임이 들어나서 同戊戌年에 庶民에서 다시 世子嬪으로 復位되고 慇懷墓라 進尊된것을 庚午年에 다시 지금 이름인 永懷園으로 改稱된 것이다。

이 一帶에는 老松이 鬱林을 이루어 그 幽한 陵의 雰圍氣를 자아주였으나 日帝末期의 所謂 緊急伐採와 解放後 마음없는 사람들의 盜濫伐採로 지금은 겨우 몸도 숨겨주지 못하는 雜松만이 남아 동그란 墓頭가 더욱 초라하고 치워보인다。

盜伐만 없다면 앞으면 半世紀後에는 다지 百禽千鳥가 昭顯世子嬪의 怨魂을 吊喪해 주게 될것이다。

第二節 古蹟

一、望泉臺

本郡 果川面 美溪里에는 名嶽 冠岳과 마조 선 淸溪山이 있다。淸溪山의 古名은 靑龍山으로 이 山頂에서 靑龍이 昇天했다고 傳한데서 생긴 이름이다。山中에 古刹이 있으니 高麗末期의 重臣인 博學으로 이름이 높던 李穡이

「雲水斷崖臨野谿 端坐南窓讀周易」

이라고 읊은 바로 그 淸溪山寺이다。

이 山頂에 石臺가 하나 있으니 이 石臺가 바로 望泉臺다。望泉는 元來 萬景이라 하여 上頂石臺에 올르면 眼下에 萬景이 展開된다는데서 由來한 이름이였으나 麗末을 지나 李太祖의 李氏王朝가 半島에 君臨하자 얼마 않되는 어느날 갈갈이 찢어진 衣服에 그야말로 竹杖芒鞋로 초라한 선비 하나이 이 萬景臺에 올른後로는 萬景이 望泉으로 이름까지 바뀌였으니 이 行色이 초라한 선비야말로 麗朝의 最後를 몸소 꺾고 麗朝 松都를 脫出하여 亡命의 길을 떠났던 麗朝重臣의 한사람인 趙胤(浡) 바로 그사람이였다。

趙胤은 李穡 金震陽 尹忠輔 李集 元天錫 吉再等과 함께 麗朝를 빛내던 名儒요 重臣으로 杜門洞七十二人中의 一人이였으니 麗臣으로서 李朝의 功臣이된 趙浚의 實弟이기도 하다。

麗臣이던 李太祖가 麗朝에 忠臣 圃隱 鄭夢周를 善竹橋에서 血祭를 지내고 高麗王朝를 차고 앉자 지금까지 麗朝에 忠誠을 다하던 名臣들은 저 新羅時代부터 깊이 뿌리 박힌 「烈女는 二夫를 섬기지않고 忠臣은 二君을 不任한다。」를 부르짖고 일어났으니 먼저 淸溪寺에 들였던 李穡을 爲始하여 趙胤 吉再等이 바로 그사람들이다。

이러 되고보니 李太祖 李成桂는 宿望을 이루어 王位에는 올랐으나 臣下없는 王이였고 民이 따르지 않는 초라한 存在가 되고 말았다。李太祖 앞에는 鄭道傳 趙浚 裵克廉等의 叛臣 몇이 따를뿐이였다。文武의 名臣들은 東西 杜門洞으로 삿갓을 쓰고 살아지고 百姓들은 叛臣 李成桂를 辱하며 撒市를 하고 麗京 松都에는 사람의 그림자 조차 볼수가 없다。啞然失色한 李太祖는 圃隱을 죽인것을 後悔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었다。

圃隱의 謀殺은 鄭道傳의 發案이였으니 謀臣은 亦是 謀臣으로 끝막았다。李朝 草創以來 처음으로 內亂을 일으킨것도 實로 鄭道傳이다。

卽 鄭道傳은 太祖의 第二妃 神德王后 康氏의 所生인 宜安君 芳碩을 世子로 封하고저 一妃 神毅王后 韓氏의 所生인 諸王子을 謀殺하려다가 發覺이되어 靖安大君(後에 太宗)에게 伏誅되였으니 이것이 곧 李朝 第一次의 亂인 鄭道傳亂이다。

이는 餘談이고 鄭道傳은 窮餘之策으로 試科로서 人材를 求하기로 하고 널리 科擧通文을 냈으나 文武兩科에 應試한 것은 지골뜨기 밖에 없었다。그래서 다시 麗臣의 뒤를 쫓았으나 하나도 따르려 하지 않는다。

李穡이 招請을 받았다。李穡이 宮에 들자 李太祖는 親히 나아가 맞아들이였으나 王座에 오르는 것을 본 李穡은

「舊情을 잊지 않기 爲하여 찾음이요 兄에게 臣道를 다 하려 찾았음은 아니노라。」

한마디를 남기고 물러났고 名臣 吉再는 李朝에서 발치는 「博士」號도 물리치고 入宮도 않은채 養母次 入山한다는 紙片만 傳하고 또 살아졌다。金自粹 또한 五六次의 招請에 못이기어 祠堂에 들어 最後를 告하고 飮毒自殺로서 李太祖의 肝膽을 서늘케 했다。

마지막 불린 것이 바로 趙胤이였으니 趙胤은 自己의 이름이 李朝 功臣錄에 올른 것을 보고 失笑하며

「이는 兄(趙浚)이 아우를 아낌이 아니라 아우를 辱함이 크외다。」

하고 李太祖에 붙은 兄을 嘲弄하고서 李太祖가 준 「戶曹判書」의 벼슬을

返還하였다。그리고는 이름「胤」을「犬」으로 고치고 字를「從犬」이라했으니 나라와 임금을 잃고도 죽지 못하니「개」와 같다 함이였다。

「아우 趙從犬은 물러가오 兄은 逆臣의 榮華를 길이길이 누리지오。」

이렇게 兄과 李氏王朝를 버린 趙胤ㅣ 아니 趙胤은 楊、廣州의 깊은 山을 찾아 헤매이기 數朔 峯에서 峯으로 골짝에서 골짝으로 鷄犬의 소리를 避하여 다니다가 어느 높은 峯에 오르니 이것이 바로 淸溪山頂이였다。

山頂에서 굽어보니 때 마침 丹楓이 한참이다。그러나 아무리 좋은 景致라도 나라와 나라의 임금을 잃고 죽을자리를 찾아 다니는 趙胤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지는 못했으니 멀리 松京에 사모친 情은 痛哭이 되어 터져 나왔다。그는 오직 나라를 잃고 임금을 잃고도 죽지 못하는 自己가 원망스러울 뿐이였다。

「아 내 어찌 죽지 못하노。」

이렇게 서울 松都를 바라보며 울고 울다 쓸어져 자고 하기를 또 數朔이를 傳해 들은 사람들도 趙胤의 슬음에 同情하여 萬景臺를 望京臺라 불르게 되었다。

趙胤이 淸溪山頂에 들었다는 所聞을 傳해 들은 李太祖는 그의 忠節에 깊이 感動하고 이 忠節을 李氏王朝로 돌려보기로 親히 淸溪山으로 趙胤를 찾아 王朝로 돌아오기를 勸하기 數次 했으나 趙胤은 멀리 松京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뿐 一言半辭가 없다。

이에 趙胤의 마음을 굽힐수 없음을 깨달은 太祖는

「우리 王朝에는 逆臣이나 그 뜻 壯한지고。」

한마디를 남기고 쓸쓸히 돌아갔다。돌아가서는 그대로 趙胤을 못 잊어 山頂에 草幕을 우리하여 雨露를 避하게 하였으나 趙胤은 그 草幕이 보기 싫다 하여 또 다시 淸溪山頂을 떠나 楊州 깊은 山으로 발을 옮기었다。

이 草幕이었던 자리가 오늘의 望京臺다。

望京臺는 本郡 果川에서 約二時間에 올을수 있으니 萬景의 이름이 있었드니 만큼 眼下에 부감되는 展望도 絶勝이지만 國土의 半을 잃은 오늘날 우리의 슬음도 멀리 五百年前의 趙胤의 슬음만 못지 않은지라 이 山에 올으면 멀리 三八線以北에 잃어진 國土에 對한 愛情이 새롭다。萬一 이 望京臺를 趙胤도 알았겠지만 五百年後 우리가 그 望京臺에서「望北」의 슬음을 읍조릴줄은 趙胤도 몰랐으리라。

臺南에 있는 寺刹이 淸溪寺니 冠岳의 戀主、三幕과 寺史를 같이하는 千三百餘年前의 古刹이다。李穡과 趙胤이 나라 잃은 슬음을 잊고저 周易을 읽던 窓도 아직 남아 있을 것이다。

二、南泰嶺

鷺梁津에서 黑石洞을 지나 들고 나고 한 漢江岸을 眺望하며 銅雀洞 梨水橋를 右便으로 돌아가면 僧傍坪 石窟庵에 이른다。여기서 다시 約六粁 徒步로 前進하면 큰 고개하나이 나선다。이 고개가 南泰嶺이다。

南泰嶺은 옛날부터 여우가 많다하여「여우고개」라 일려오더니 正祖가 父王의 陵을 水原華山에 定하고 그 첫 遷葬에 이 여우고개에서 暫時 쉬이지게 되었을때 一村老에게 고개이름을 물으지니

「南泰嶺이라 하옵나이다。」

하고 卽席에서 이름을 고치어 아뢰였다。

正祖大王은 이 고개가 여우고개란 말은 듣기도했으려니와 일찌기 高麗朝의 功臣이요 名將으로 알려진 姜邯贊이 이 고개를 지나다가 너무도 여우의 作亂이 甚함으로 大聲號令을 하고

「다시 이 고개에 近接을 하는 날이면 너의 族屬은 滅種을 할줄 알라」

크게 꾸짖은 後로는 다시는 여우가 出沒을 않는다는 傳說을 듣기도 했든지라 孝心도 극진하지만 仁慈하기로 有名한 正祖도 그 괘씸함을 참지 못하지고

「너 어찌 거짓 이름을 대였노? 그罪 죽어도 마땅할지니라。」

크게 꾸짖으시였다。村老(邊某라고만 傳해지고 있다)는 엎드려 罪를 기

다리는데 正祖 거짓 이름을 댄 事由를 물으신다。

「죽을때가 되느라고 그랬사옵니다。 이 고개는 元來 여우고개오나 상감께 그런 쌍스러운 이름을 알려 올림이 황송하옵기로 생각 나는대로 아뢰옵사오。」

「그러면 어째서 何必 南泰嶺인고。」

「다름이 아니오라 이 고개가 서울서 南쪽으로 오면서 맨처음 큰 고개이옵기 그리 아뢰였나이다。」

이 答奏에 正祖도 노염을 푸시고 村老를 嘉尙하여 周知벼슬을 나리시며 今後로는 이 고개를 南泰嶺이라 부르도록 特命을 나리시였다。

의 邊氏는 果川面에 살던 사람이라 傳해지며 邊氏一族이 아직도 南泰嶺附近에 살고 있다고 한다。

三、落星垈

本郡 東面 奉天里에 塔洞이라는 조고만 部落이 있다。 이 部落 한 中央에 솟아져 가는 五間 草家의 마당한 구석에 舍利塔式의 石塔이 있으니 塔洞이란 洞名도 이 塔에서 由來한 것이 分明하다。 臺石도 뒤를리고 笠石도 떨어져 있어 一見 無名塔처럼 초최하나 塔前面에 보면 姜邯贊落星垈라 石刻이 되어 있다。

이 초라한 石塔이야말로 本郡의 出生인 麗朝의 저 有名한 功臣이요 契丹의 四十萬大軍을 한칼로 무찔러 國威를 中大陸에 떨치게한 名將 姜邯贊將軍의 出生地를 紀念하기 爲해서 이룩된 塔인 것이다。

「落星」이라는 字意로 보면 仁憲公 姜邯贊의 出生地가 아니라 死沒地라고도 解釋이 되나 史記에

「夜入始興郡 見大星隕于人家 遣吏往視之 適其家婦生男 使臣心異之 取婦以養」

이라 한것을 보면 姜公의 出生地인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여기에 傳하는 「見大星隕于人家」의 一說은 公의 威嚴과 出生의 歷史를 좀더 神秘化하고 偶像化하려는 우리네 祖上들의 常習으로 볼 수 있으니 檀君誕生의 神化와 其他 新羅 百濟 高句麗의 三國始祖를 爲始한 偉人과 名將에는 반드시 이러한 類의 神秘化를 꾀한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이 神秘化 事實만을 除去한다면 이 塔의 자리가 姜邯贊公에 誕生地인 것만은 事實일 것이니 姜公의 爲人이 초최하고 倭軀短身이라는 點은 반드시 그 威風만을 말함이 아니라 家貧하여 三間草家에서 出生했든 것도 象徵한바로 解釋할수도 있고 보니 「及婦以養」이라는 說도 믿기 어려운 바이요 高麗創建의 功臣 鎭珍의 子라 함도 子珍이 無子하여 公을 養子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지 않는바 아니다。

× × ×

어쨋던 姜邯贊公은 高麗第三代 定宗(檀紀 三二七九 西紀 九四六 在位 四年) 第三年(檀紀 三二八一 西紀 九四八) 現 本郡인 衿川에서 出生하여 六代 成宗朝에 甲科第一에 拔擢되어 文官으로서 出世의 첫걸음을 내어 드디였다。 우리나라가 眞正한 意味의 科擧制度를 始作한 것이 高麗四代 光宗九年이니 姜公이 十二歲때이다。

公은 元來 體軀가 倭醜할뿐더러 外貌도 몹지 草草한바 있었으나 어려서부터 好學 智略이 卓越하여 神童이라 일컫는 이가 많았으니 이 好學이 文官으로서의 功을 닦아준 것이 고 智略의 出衆함이 또한 武官으로서의 大成을 가져온 所以인 것이다。

當時의 高麗는 太祖가 建國한 後로 十八年에 新羅를 統合하고 翌年에 後百濟 甄萱을 滅하여 三韓을 統一해서 國礎 날로 굳어 가는 途中에 있었으나 中大陸의 猛者 契丹의 危脅으로 國民이 벼개를 높이 베일수 없었다。 그래서 三代 定宗三年에는 契丹防衛를 爲해서 精兵三十萬으로 光軍司를 創設하고 次代 光宗은 科擧制를 採用해서 人材登用의 길을 만들고 六代 成宗은 王位에 오르면서 百官의 稱號를 改正하여 官紀의 嶄新을 期했으며 同八年에는 東北 西北에 兵馬使를 두는等 契丹 來寇에 萬全의 準備를 가추기에 바뻤었다。

姜邯贊公이 文武를 兼하게 된것도 이러한 그時代의 要求에 影響을 받

았음이니 虎視 耽耽 高麗侵略을 꿈꾸던 契丹은 成宗十一年 드디어 大軍을 모아 鴨綠江 東岸에 來侵해 왔다。 그러나 目的을 達치 못하고 退却하여 八代 顯宗元年(檀紀 三三四三 西紀 一〇一〇) 四十萬大軍을이 끌고서 宿願을 풀고저 大擧 來侵하였다。

예나 이게나 戰爭에는 口實은 얼마든지 있으니 當時 在位中인 穆宗을 康兆가 弑하여 廢位시키고 顯宗이 位에 오르니 이것이 契丹의 來侵口實이었다。

顯宗은 康兆로하여금 이의 防備에 當케하고 三十萬으로서 通州(現平北 宣川)를 防禦線으로 善戰하였으나 敗亡을 보고 退却하였다。 康兆軍의 敗北으로 朝野는 物議가 불일듯 했으니 契丹에 屈하자는 派와 續戰하자는 派의 和戰兩論이 어지러히 떠돌고 있었다。

이렇듯 和戰兩論의 激昂으로 겨를이 없을때 契丹의 大軍은 波濤처럼 밀리어 新生 高麗國의 運命도 風前燈火의 危機에 直面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降服도 戰法의 하나라는 和戰論이 漸漸 騰勢를 하여 이를 決定하자 朝野에는 高麗國을 아끼는 哭聲이 冲天하였다。 이때에 決死코 和戰은 屈服이요 屈服은 敗亡이니 이는 곧 亡族이라고 끝까지 主戰을 固執한이가 있었으니 智略에 뛰어난 姜邯贊이 바로 그사람이었다。

「그대의 뜻은 壯한바 있으나 그러나 이물밀듯하는 契丹大軍을 어찌 막을 것인고?」

「敵을 맞아 싸우는 보람이 戰法이 아니오니 迂廻作戰으로 後軍을 收拾하고 陣地를 짜우며 官民軍의 士氣를 돋구어 大勢를 挽回함도 一策인가 하나이다。」

「그대에게 自信이 있는고?」

「小臣 邯贊은 목숨을 바치어 力戰하겠나이다。」

「그러면?」

「먼저 南으로 옮기어 주시오면 小臣이 뒷수습을 하오리이다。」

이러한 會話끝에 顯宗은 邯贊의 뜻을 받아 十二月에 (契丹來寇는 十一月) 松都를 버리고 南으로 羅州까지 蒙塵을 하였다。 顯宗은 길을 떠나기前에 西北面行營都統使이던 姜邯贊으로서 上元帥를 삼고 大將軍 姜民瞻으로 副元帥를 삼아 敵의 約半數인 二十萬五千三百으로서 契丹軍에 當케 하였다。

먼저 契丹軍은 朝野에 降服論이 떠도는 것을 보고 高麗朝에 北部六鎭의 無條件 割讓을 要求한바 있었다。 六鎭이라하면 高麗國 北部의 大部分이니 興化(義州) 通州(宣州) 龍州(龍川) 鐵州(鐵山) 郭州(郭山) 龜州(龜城等)의 六郡이다。

高麗가 降服을 斷念하고 宣戰을 하자 契丹軍은 十萬으로서 이 六鎭을 찝쓰는 作戰을 세웠다。 이에 姜邯贊軍은 安州로부터 義州에 屯陣케하고 騎兵 一萬二千을 山谷에 伏兵을 시키는 한편 牛皮를 合하여 큰 냇물을 막고 待機하였다。 이때 마침 契丹軍이 大兵을 이끌고 渡河作戰으로 나오는 것을 본 姜邯贊은 막았던 물을 一時에 터놓으며 契丹軍을 逆襲하여 一大損害를 주었던 것이다。 이 一回作戰이 크게 軍의 士氣를 북돋아 주었다。

여기에서 契丹軍은 姜邯贊軍을 避하여 松京으로 直寇하는 作戰으로 나왔으나 副元帥 姜民瞻과 趙元으로 하여금 이를 追擊케하여 姜民瞻은 慈城에서 趙元은 馬灘(大同江)에서 契丹軍 萬餘騎를 무찔렀다。 그러고 松都附近은 兵馬判官 金宗鉉에게 一萬을 주어 松京을 지키게 하고 東北面兵馬使를 시키어 三千三百兵으로 金宗鉉을 援助케하니 敵은 進路를 잃고 西로 回走作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作戰이야말로 姜元帥의 計劃이었으나 이묵을 지키고 있던 姜邯贊은 漣州(价川) 渭州(寧邊)에서 敵을 挾擊하여 一大殲滅戰을 展開하고 다시 龜城에 이르러 또 목을 지키니 亦是 契丹의 大部隊가 通過하는지라 勿失此機라하고 姜元帥는 挾擊、追擊 全面作戰等 戰法을 自由로 驅使하며 北으로 北으로 敵을 追擊 殲滅하니 山野는 그대로 敵屍로 덮였고 河川에는 敵血이 구비쳐 흘렀다。

이 契丹과의 大戰捷도 實로 우리나라 創始以來의 六大戰捷으로 일컫는 乙支文德의 薩水大捷 楊萬春의 安市城大捷 尹瓘의 女眞大捷 李舜臣의 閑山島大捷 權慄의 幸州大捷과 함께 姜公의 契丹大捷이 헤어지는 大戰勝의 記錄인 것이다。

이 作戰의 敗亡으로 結局 契丹은 再起할 餘力이 없이 쓸어지고 말았다는 한 事實만으로도 當時의 戰況을 짐작할수 있으니 契丹은 來侵軍四十萬에서 겨우 三千餘의 卒兵이 살아갔을 뿐이다。

이 大勝捷이야말로 우리 民族이 外寇와 싸워 大勝한 實로 靑史에 빛나는 記錄이니 大勝捷을 한 姜邯贊公이 三軍을 거느리고 松都에 돌아올새 顯宗은 親히 迎波驛 牛逢에다 綵棚을 베풀고 秦樂을 잡히어 놓고 기다리다가 姜公이 來到하자 머리우에 金花八枝를 꽂아 주고 左手로는 公의 손을 잡고 右手로 盞을 들어 公에게 勸하니 公은 술도 받지 못하고 눈물만 쏟았다 한다。

姜邯贊은 顯宗이 在位二十二年으로 薨하고 九代德宗이 卽位하여 檀紀三三六五年(西紀 一〇三二年)八月에 八十四歲의 高齡으로 卒하니 公의 偉業에 仁憲으로 諡하고 顯宗廟庭에 配享 十一代 文宗이 守大師兼中書令의 職을 追贈 이로서 姜太師라 부르게 된것이다。

姜公은 食邑一千戶를 받아 城南別野에 돌아가서 野鶴과 벗을 삼아 樂道郊居集 求善集의 兩書를 著述하였다한다。이는 아직 發見되지 않은채로 있어 큰 遺憾이다。

그런데 姜公이 落命한 이「城南」이 어느地方이냐 하는點인데 城은 都京의 城을 이름이니 現開城以南이 아닐까 하는 鄭寅普說이 옳을 것이다。

× × ×

本郡은 이렇듯 우리 民族靑史에 빛나는 功績을 남긴 名將을 낳았으나 敵治間에는 敢히 이를 追念할 길도없어 一民家의 장독대로 使用되는 慘景을 呈했었다。더욱이 最上塔 一層은 地下에 埋沒되고 最下層의 後側塔壁一枚가 뒹겨져있으니 이는 壬辰倭亂때 敵將 宣居怡가 塔을 移送할 생각을 했던것 같으며 一壁이 어긋난것은 그속의 寶物을 盜去하기 爲해서였는 것이다。

이 偉大한 功績을 남긴 名將의 記念塔은 解放後에도 村家에 放任된채로 있던 것을 解放後 第四代 郡守로 赴任한 金健烈氏가 姜公의 後孫과 始興郡 保勝會를 動員 塔을 修築하는 한편 民家을 買受撤去케하여 檀紀四二八二年 十一月 이를 完修하였다。

四、萬安橋

푸라타나스 街路樹가 櫛比하니 左右로 늘어선 完全鋪裝의 京水街道를 달리어 安養邑의 遠景이 그림처럼 보이는 地點에 오면 近代式의 긴 橋梁이 있고 約 五十米못되어에 安養의 名物 푸ㅣ르로 通하는 道路가 京水街道에서 갈려져 들어간다。이 三街里 바로 뒤에 龜臺위에 선 一石碑가 있으니 이것이 萬安橋의 紀念碑다。

萬安橋는 正祖의 水原 華山陵 輦路를 爲하며 놓은 다리니 正祖十九年(西紀 一七七一年)九月의 建立이다。

正祖라면 世人이 다아다싶이 孝誠이 極盡한 임금이시었다。아니 極盡程度를 지나서 孝心도 이쯤되면 困難할 程度였다。華山의 隆陵이란 곧 正祖의 父君되시는 莊獻世子의 陵이다。莊獻世子라면 世稱「두주王子」로 世子가 王位를 노린다 하여 父王英祖가 두주속에다 넣어 죽인 哀話를 가진 悲劇의 主人公이다。正祖는 이陵에 다니느라고 政治할 時間이 全혀 없었다고 할만큼 자잤였다。勿論 父君이 되시는 莊王이 先王 英祖의 怒炎을 사서 二十八歲라는 젊음으로 世上을 떠난 不遇의 生涯이기는 했지마는 京水間의 官民들은 正祖의 隆陵禮葬때문에 거의 生業에 從事할 겨를이 없을만 했었다。

正祖는 先王 英祖의 王世孫이 되는 분으로 第二十一代 世子인 父君 莊獻王이 父王이신 英祖의 손에 不幸한 最後를 마추었기 때문에 한 代를 건너 王世孫인 正祖가 位에 올랐든 것이다。正祖는 王位에 올르면서 始

作한 첫 事業이 楊州에 뭇친 父君 莊獻王을 그가 일찌기 몹시 좋아 하던 水原에 옮겨 모시는 일이었다。 그리고는 隆陵이라 追尊하고는 國政보다도 父王 생각을 하는 것으로 一代의 聖業을 삼듯싶이 한 분이다。

이 萬安橋도 正祖의 孝誠때문에 생긴 다리다。

元來 서울에서 水原가는 길을 鷺梁에서 銅雀으로 거기서 果川으로 빠지는 것이 正路였으나 路邊에 正祖와는 有隙之間인 金尙魯의 墓前을 지나지 않으면 안되는 不快에 이길길이 없어 路程을 始興 安養으로 바꾸게 된것이다。 그래서 安養에는 萬安橋 水原에는 大皇橋가 새로 架橋하게 되였고 西湖가 생긴것도 正祖의 孝誠德分이오 龍珠寺가 王宮寺가 된것도 모다 이 너무 지나친 感이 있는 正祖의 孝心때문이라 할수있을 것이다。

여기에 同碑文을 引用하여 두거니와 正憲大夫를 爲始 京畿觀察使 兵馬水軍節度使 水原 開城 江華의 各留守까지가 動員되였든 것만으로도 工事도 難工事려니와 이 다리를 얼마나 重要視했든가도 알수 있다。

萬安橋碑項幷序

南允黙治南二十里有安養川卽華城輦路也惟我聖上歲謁園寢由是川以濟今春又奉慈駕初深川以是顯于世几幸先地有川知有橋橋以木駕取撤去泳之斯水亡濟深者

病寫前道臣徐龍輔以是移之有所重也將以石代之未及龍賜自受命來莅以首秋啓其三閱月而功告成延可 十五丈袤可四丈高可三丈爲闡者五退上聞貴監董人及其二臣有差特賜名曰萬安臣謹按王者就橋之安如於漢帝之長安而未聞奉慈駕以行徒杜興梁作萬成周

而前木聞代之以石傳之萬年也是橋也幸處華城輦路聖駕之一年一度慈駕之一年一度御六龍和八鑾東面西往安而遣萬萬年如而權某餘逖及萬姓使遠近行李祝以康以杜無揭厲

險阻之情而榮榮年載聖恩領慈德豈不誠盛美平哉橋之妃也代石平川之傍有石出馬可竹子數工役減其平神偕有助其恋異矣臣拜手稽首記事系亡以

領田

萬安橋 上之十九年九月 日立

王拜于園一度正成天臨虹橋歲以萬計與福淵至其下有川 時奉慈駕萬安萬年

思監萬姓垣履齊歡於千萬年安加砥盤

正憲大夫同知中樞府事兼京畿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水原府留守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廣州府留守都巡察使奎章閣檢校直提學臣徐有防謹撰

嘉喜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衙都摠府副摠官臣李允亨謹書學臣俞漢芝謹書前前

五、檀君殿

本郡東面始興驛에서 東北間路로 一粁未滿의 地點에 鹿洞書院이 있다。 이 鹿洞書院은 일찌기 서울 鍾路 食道園의 經營主이던 故安淳煥氏가 先祖를 모시기 爲하여 私財를 거의 다 들이다 싶이 해서 이루어진 祠堂이다。 이 書院 左側에 若干 떠러져서 丹靑도 새로운 堂宇가 있으니 이것이 檀君殿이다。

이 檀君殿은 敵治中이던 檀紀 四二六三年 三月에 安氏가 檀君天眞을 奉安키 爲해서 이룩한 것이다 지금과도 달른 世代라 倭政의 監視도 甚했지만 建立後로는 每年 春秋로 祭奠을 받들어 왔었으나 中日戰爭이 날로 熾烈해 가고 勝算은 서지않고하여 우리 民族魂 抹殺에 虎視耽耽하던 日人들은 드디어 檀君殿에 彈壓을 加하기 始作했다。 그래서 눈물을 먹음고 檀紀四二六九年 九月에 天眞을 埋安한채 解放을 맞었던 것이다。

解放은 우리에게 許多한 建設을 要求했지만 이많은 至上命令中에서는 우려의 民族魂의 再建이었으니 本郡에서는 檀君殿 奉建會의 結成을 보아 檀紀四二八一年 二月十九日에 重修를 끝마치고 天眞을 다시 奉安春秋로 尊祭를 받들고 있다。

六、桑 木

梨泰院 맞은편 漢江건너에 蠶室이란 洞里가 있다。 이 蠶室里는 李朝創建初에 王宮의 蠶所로 쓰이던 곳이니 이 一帶에 桑苗를 栽培해서 農

못들에게 示範을 보였든 것이다。蠶室里란 洞名도 이에서 由來한 것이다。

이 洞里 漢江沙場에 老桑木 三株가 서 있으니 이것이 李朝初부터 살아있는 桑木이라 傳해져서 保護되고 있다。一說에는 三千七百年이나 된다는 말도 있고 李朝初라 五百年은 된다는 說도 있으나 그 樹齡은 밑을 바 못되나 相當히 오랜 나무인 것만은 事實이다。

이 桑木이 선곳은 本郡 新東面 蠶室里다。

七、穩穩舍

本郡 果川面事務所에 穩穩舍라는 懸板이 있으니 正祖의 親筆이다。

正祖라면 孝誠이 너무 지나쳐서 돌아가신 父君 莊獻王을 생각하느라고 알뜰한 百姓과 나라일을 생각할 겨를과 마음의 餘裕를 못 가졌다는 임금이시다。그렇기에 正祖에 關해서 傳해지는 逸話 史話란 거의가 모두 이 孝心의 구진한데 關한것 뿐이다。水原에 「遲遲臺고개」란 遲遲의 이름이 생긴것도 正祖가 父君 莊祖의 陵을 찾아 갈때 마다 遲遲臺고개에 가서 王輦前進이 遲遲하다고 嘆息한데서 생긴 이름이요 暴雨가 박수갈이 쏟는 날밤에 陵을 지켰다 해서 陵직이를 이튿날로 大臣에 登用했다는 것도 正祖의 孝心의 지니침을 諷刺한 이야기로 傳해진다。

이 穩穩舍란 御筆도 正祖의 孝心을 말하는 것이니 父王의 陵을 찾아가는 길에 果川에 小憩하는 동안에도 하도 마음이 穩穩해서 一筆揮之로 마음을 갈아 앉히였든 것이다。

八、天 井

本郡 東面인 始興驛에서 나리어 東南으로 約半時間 올라가면 虎壓山 한峰우에 一井이 있으니 이것이 俗稱「한우물」또는 龍沢라고도하는 天井이다。우물의 크기 約百坪 우물이라기에는 너무 크고 못이라기에는 작은 面積이다。濫伐時代에도 이 周圍에는 老松의 몇株와 버들 참나무 等의 雜林이 둘러싸고 水面이 보이지 않을 만큼 水草가 욱어져서 열듯 보면 草原같이 보여 그대로 지나치기가 쉽다。井圍의 築石이 自然이 아님을 說明해 준다。이 天井의 由來도 或은 祈雨 또 或은 軍事作戰上 飮料用等으로 傳해지나 井側山頂에 石해태가 서 있는 것으로 보아 消火用의 뜻이 많치 않는가도 싶다。

祈雨祭는 東國輿地勝覽에 있는 虎壓山有古城 城內有一池 天旱禱雨라한데서 由來한 것이요 軍의 飮料用說은 壬辰倭亂때 敵將 宣居怡가 陣取든 자리가 이 附近이니 많은 軍人의 飮料가 作戰上 至大한 負擔임으로 이 天井附近일것이 豫想된데서 由來한 說일것이다。

또한가지 軍用說을 敷衍해 주는 資料에 虎壓山에 有古城하여 石築周가 千六百八十一尺이라 했으니 城中에 守備軍이 駐屯했을 것도 豫想되며 有事時에는 多數의 軍人이 合軍도 했을 것이다。이로 보면 祈雨軍用說에도 一理없는바 아니나 그것은 祈雨 飮料用으로도 쓰였다 한일것이요 由來는 景福宮前의 石해태와 關聯지을수 있다。卽 李太祖는 漢陽에 定都하면서 風水說에 依한 防備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山中一岩이 虎形이라하여 虎岩山이라고 불러왔던 山名을 지금의 虎壓이라 改名하고 始興里에 있던 虎岩寺를 山上으로 移築하면서 寺名도 虎壓寺라고 命名한 것과 防火神인 해태를 井側에 세운것도 井水로서 防火를 象徵한 것이 아닌가도 한다。

이로 보면 이 우물은 李朝 創建當時 景福宮의 해태와 時代를 가치한다고 볼수 있으니 壬辰倭亂때 日軍이 發掘했다는 說은 誤傳일 것이다。그러나 壬辰亂에 倭軍이 衿川(現始興)을 通過해서 서울로 간것이 事實이니 地理上으로 보아도 虎岩山을 지나서 東面 奉天里 方向으로 갈수밖에 없었을 것이니 이 井水를 飮用한 것도 事實일 것이다。

어쨌든 이 天井은 源泉만이라도 修理를 할 必要가 있으니 歷史的인 큰 뜻은 않불이드라도 冠岳探勝客에게 깨끗한 표주박의 飮料水를 提供한다는 意味에서도 意義가 있을 것이다。

한사람의 一日勞役으로서 走馬看山式으로 지나치는 登山客에게 물한그릇을 선사함으로서 天井이 겪은 史實을 한번 되씹게 함도 可하지

않을까 한다。

九、冠岳山

京畿金剛 小金剛의 稱이 있는 冠岳山은 예로부터 일러오는 京畿 五岳中의 一岳이기도 하다。京畿五岳이란 松都의 松岳、加平의 花岳、積城의 紺岳、抱川의 雲岳、果川의 冠岳을 이름이니 비록 泰山은 아니로되 峻嶺泰嶽으로서의 巨岩이 重疊하여 壯과 嶮을 가추었고 비록 深山은 아니면서도 幽邃深谷에 千年老樹가 原始林을 이루어 俄然 神秘境을 이루고 있으니 小金剛의 이름 있음이 반드지 詩人墨客의 誇示가 아니다。

더욱이 그 岩嶽의 妙함과 봄은 봄으로서 여름은 綠蔭으로 가을은 丹楓으로 겨울의 雪景 또한 名嶽 冠老의 面目을 彷彿케 하는바 있으니 大金剛을 그대로 縮少한 感이 있다。

山이 아름다우니 千鳥百禽이 없을수 없고 詩人墨客의 발이 갖을理 없다。골이 깊으니 山谷水聲 얕을理 없고 山中到處에 勝景을 이루었으니 入山求道의 老僧 또한 발을 멈추지 않을理 없어 奇勝絕岩이 있는데 小庵이 섰고 幽谷名堂에 古刹이 陣잡고 있다。山中에 大小寺刹이 十有三餘 山등을 넘으면 鍾소리요 골작에 들면 老僧의 念佛소리 길 잃은 探勝客의 靑藜杖을 이끌어 준다。綠寢을 깐듯 폭신해 보이는 높고 낮은 綠陰속에서 山골물이 속삭이는가 하면 山 한峰을 무너트리는듯 물확에 떨어지는 瀑布소리에 머리끝이 쭈빗한다。岳中在 東이라하여 東瀑布라 일컬으니 東이 있고 西 없을수 없어 西瀑의 물확소리 東瀑에 지지 않게 또한 壯하다。

蘭若閑尋薄暮時 重岩遙見亞苔扉 經綠古壁盤空上 膝長新技入座垂
庭樹靜搖孤鶴夢 嶂雲低佛定僧依 十年螢雪終何事 山好僧無一首詩

이는 卞季良의 戀主寺 頌詩거니와 아무리 俗人이라도 한번 山에 들면 나고 싶지가 않다。特히 戀主庵庭의 老松孤鶴과 三幕寺境의 幽玄한 松林속에 들면 自己도 모르게 袈裟가 입고 싶어진다。

冠岳은 本郡 東南 一帶를 占有하고 있어 東 安養 果川의 三個面에 걸치어 聳立되었으니 勝景 또 자랑이려니와 郡內 營農의 唯一한 水源地이기도 한다。本冠岳은 從來 保勝會의 經營으로 維持해 왔었으나 最近 冠岳을 現代式 公園으로서 名實共의 小金剛을 만들 計劃이 道와 中央에서 推進되고 있다。道立 國立 그 어느쪽으로 決定을 볼지는 모르나 近日中 可否間 規定이 낙것으로 믿고 本郡에서는 이에 必要한 一切의 調査와 準備를 가추고 待機中에 있다。

끝으로 우리의 名勝 冠岳에 關한 옛노래가 傳해지기로 이를 引用하여 두기로 한다。

一〇、冠岳山遊覽歌 附三聖山

白頭山의 大韓脈이 東쪽으로 흘러내려 온갖 名山 다 되고서
鷄龍山의 逆龍으로 冠岳山이 되였으니 漢水南의 名山이라
한번 보기 願이로다 遊山行裝 차리고서 漢江橋를 얼른 전너
華藏寺를 찾어가니 泛泛長江流水위에 오고 가는 船隻이라
塔골洞里 다달아서 落星垈를 求景하니 契州軍을 大破하던
姜邯贊의 誕生地라 冠岳山의 精氣로서 文曲星下降일세
崎嶇한 山길로서 소바위를 쳐다보고 一步二步 나아가서
감투바위 다달으니 汗出添背 혼신젖고 呼吸度數 더하도다
매재고개 넘어서서 拜石臺를 當到하니 戀主臺의 羅漢法堂
하늘中天 아득하고 冠岳寺에 옛날절터 形跡이 完然하다
또한고개 넘어서서 戀主庵을 찾어가니 五層石塔 우뚝하며
彌勒道場 얼크린다 極樂殿은 法堂이요 金輪寶殿 새집이라
靑山大師在職에 一新重修하고보니 山岳은 生色이요
寺院은 多幸이라 左右 山勢 생긴 模樣 小金剛이 分明하다
臺에 올라가는 길로 中臺에서 한번쉬고 決斷고개 넘어서서
戀主臺에 들어가니 釋迦如來主世佛과 十六羅漢 여러분이
險한 人間 보지고서 枯花微笑하는구나 東方藥師님은
孝寧大君 造成이요 이름높은 戀主臺는 義湘祖師初創하니

半空中에 솟은것은 地居天이 分明하고 燕巢形의 저 圖局이 近畿五岳 第一이라 龍馬바위 天眞形을 한번 잡아 타보고서 最高峰에 올라서니 埋盥井이 여기 있고 祈雨하던 옛날 일이 다시 한번 生覺난다 老長바위의 수하여 禪定中에 든것같고 直直尖尖 저峰巒이 崎崎恠恠 불만하여 萬國城都 如蟻蛭은 글句로만 본았더니 지원하고 結潤하여 習習淸風 절로난다 漢陽城은 굽어보니 八萬家戶 櫛比하고 三角山을 바라보니 白雲臺가 우뚝하다 北漢山의 높은城都 肅宗大王 쌓은바요 南漢山城 아홉절을 仁祖大王 命設이라 僧將僧兵 세웠으나 하은 일이 무삼인고 松岳山을 바라보니 松都서울 鎭山이라 한참 當年 繁華하여 四百餘年 지기더니 壬申七月十六日에 國運一時 變革하니 鄭圃隱의 모진 忠血 善竹橋에 물드리고 滿月臺에 가시풀이 蕭條하기 짝이없다 雪月은 家朝色이요 寥連은 故國聲이라 杜門洞 七十二人 康得龍을 모를손가 日日히 痛哭한들 속절없는 虛事로다 水落山을 바라보니 興國寺가 어디멘가 正宗大王 無嗣하사 金枝玉葉 보시려고 爲祝 祈禱하던 일이 어제인가 生覺나며 道峰山을 바라보니 望月寺가 그곳이라 高麗때에 慧炬國師 心地見性 하시고서 中原國師 되셨으니 그런榮光 어듸있나 普照國師 牧牛子는 圓通寺에 계시면서 加平따를 멀리보니 萬山樹木 덤불속에 한심지에 玉燈盞이 사람없이 달려있어 三日三夜 켜있거늘 그곳에다 절을지니 神奇하다 望跡이여 加平懸燈이 아닌가 雲岳山을 바라보니 奉先寺에 光陵이라 敎宗判事 寺刹로서 守眞大師 有名하고 密密松林 섰는곳은 世祖大王 陵寢이라 天寶山을 바라보니 檜岩寺에 主山일네 指空和尙 開山하고 懶翁和尙 常住하여 三山二水 其中間에 大伽藍을 세웠드니 變遷만은 世上事가 큰절터는 쑥밭되고 三和尙에 浮屠碑石

夜月空山 서있구나 江華島를 멀리보니 四大島에 물째로다 摩尼山에 祭天壇은 檀君太子 쌓은바요 傳燈寺에 殿閣집은 貞和宮主 修重일네 無罪한손 들먹이 不斬함은 어인일고 高麗行宮 吊喪하고 丙寅洋擾 生覺하니 大海中의 一片섬이 戰爭되고 만셈이라 丙子胡亂 危急하여 胡騎萬發 侵虜하니 仙源相公 金尙容은 火藥불에 몸던지고 留都大將 金慶徵은 束手無策 降伏일세 仁川港口 濟物浦는 놀기좋은 月尾島요 一攫千金 어드려고 米豆軍이 모여든다 南陽灣에 淺淺한물 조기배가 번듯이고 南泰嶺이 어데멘가 遲遲臺가 不遠하다 花山事蹟 말하려면 애처럽기 짝이없네 出天之孝 正廟朝는 두지大王 墓쓰시고 水原百里 거둥하사 省墓하기 일삼으니 華寧宮은 行宮이요 水原府는 留守都라 八達門과 長安門은 南北大門 華麗하고 訪花隨柳 亭子집은 華虹門과 자랑한다 水原西湖 고은물은 杭州湖의 倍勝하고 南北十里 능수버들 御柳斜가 여기로다 淸溪山을 바라보니 淸溪寺가 至今있고 天眞岩에 東쪽바위 涵月스님 行蹟碑는 春風秋雨 몇百年에 子슬푸게 깨지도다 奉恩寺를 바라보니 修道山色 依舊하네 宣陵 靖陵 두陵寢은 庵庵松栢 욱어지고 禪宗判事 首禪刹에 普雨大師 기셨으니 行號施令 하올적에 一國禪子 奔走하였으며 三年마다 僧科보여 人材登用 하옵더니 濟州島 臨終後에 伐大駿이 웬말인가 거룩하온 板殿閣은 南湖律師 功蹟인데 人去黃泉 名在世之 碑石뿐만 남았도다 이것 저것 보고나니 多事하다 나의 恨心 不知中에 소사나서 長太息이 절로나네 우리도 只今부터 義祖祖師 본을 보아 이塔우에 跳跌하고 心地開通 하여볼가 靑藜杖을 다시집고 戀主庵에 나려와서 一夜留宿 하온후에 瀑布求景 하러가세 銀河水 맑은 물이 石壁우에 쏘다지니 水廉같은 其形相이 볼만하여 아름답다

佛成望月 求景하고 三幕寺로 넘어가니 元曉義湘 尹弼居士
三兄弟의 修道處라 一幕二幕 터만남고 三幕만을 이르도다
白蓮庵에 다달으니 燈谷屈이 여기로다 慧覺尊者 學祖大師
이곳에서 見性하사 世祖大王 王師로서 黑衣宰相 되였구나
遺言付托 남기시어 燈谷七松 심었드니 洪陵垓字 特除壯한줄
그누구가 알았으리 行하옵신 그의行跡 後에 사람 몰라 보고
保勝조차 等閑하니 그거아니 寒心한가 半月庵에 드러가니
藥師靈泉 양전하고 가든길을 도라쳐서 念佛庵을 찾아가니
空山無人 閑居한데 念佛소래 凄凉하며 京釜線에 汽笛聲은
客의日程 재촉하고 소리없는 가실비는 霜葉丹楓 물드린다

一一、冠岳山周圍로 散在한 村落名

冠岳三聖 十小寺刹 十餘處라 헤아리니 넌짓언짓 지나고서
紫霞洞에 當到하니 申緯先生 옛날터가 小石조차 淨潔하며
石山茅屋 촌사람이 別有天地 이곳일네 山下에서 도라보니
冠岳山의 丹楓빛이 보기좋게 욱어져서 停車坐愛 하련만은
秋懷萬腔 客의心事 金剛길이 忽忙하여 머므름을 不許하니
이도亦是 因緣일가 明春다시 言約하고 冠岳山을 離別하니
山아 부대잘있거라 만나볼날 또있으리

自安養—始興—至果川

安養—石水洞—三幕洞—방메—始興塔洞—보구니말—낮골—新林—紫霞洞—落星垈(탑골)—원당—동산말—舍堂—僧坊坪—너머남태령—寒溪—官門—校洞—洪村—冷中—佳日—東便—秀村—內飛山—外飛山—林谷—安養

冠岳山에 所在한 바위 고개 골자기 봉우리

「바위이름」 통소 채일 너르러 子명 두지 족도리 자라 솔개 북 노장 칼 큰두지 감첨지 맹꽁 병풍 볼기 감투 댕구 배 송편 가마 집 문 맷돌 뒤주 부침 노적 자수 쇠뿔 덤 범 범의굴 보습 각씨 애남 농 안정 말 고양이 애기 새수 곡갈 세현 광석 영가시 임팽이 소 세소 죽 더덤 너러석

「고개이름」 매지 환히 넘어남태령 까지 용마 氷庫 盤水 소리개 박미 말미 무데미 동막 세 뒤 잼말 능골 할탁 싸리갓 아레웃 헤메기 매봉

「골작이름」 배나무 가는 큰 느락 그득 원두막 자하동 미력 숭방 폭포 치 뱀 독수리 수락바위 서멀 실치마 삼메비자나무 삭갓 느락 노넌 소년 원두막 된봉 작박 널은양지 긴 발은 사태 구뒤 작은 좁은 범 시배 물말은 少年 활레기의 뒷박 솔개 좀아 화장터 절안산 한우제 괴 지응 칼 봉 어둔 망성 백토 구려라 덤 게 닭밧 後龍 三幕 소등 절 노박 소심 치 다리 넙적 사기장 염불암 귀 거북 오소나무 등치 임청 망녕 한방 치차 통목 쟁 혜방 노두 세방 통물 완쟁이 마금

「봉우리이름」 염주 소고락 애기 은은 국사 문필 감노 三聲峰 虎峰 여기 칼 文章 義湘 兄弟 쌀개 無敵 大將軍 文筆 각씨。

一二、西 瀑 布

淸溪山麓의 東瀑에 對比하여 불리어 지는 西瀑은 果川面 事務所에서 安養邑으로 通하는 洪村部落에서 約二十分 올라간 冠岳山腹에 있다。

이 瀑布는 上下二層으로 된 보기 드문 連瀑으로 上瀑은 層岩斷岸에서 垂直으로 물확을 向하여 떨어지고 下瀑은 斜面을 이룬 一大盤岩우를 구을으듯 흐르고 있다。上瀑의 높이 十五尺餘 下瀑은 實로 二千餘尺이나 되어 總四十尺에 가까운 大瀑布이다。瀑도 크거니와 水量도 많고 一帶가 그대로 바위자리를 깔듯 盤石을 이루어 물확은 自然的 沐場이 되어 있다。

瀑布의 周圍의 奇와 妙를 다한 奇岩怪石사이에 불덩이 처럼 된 杜鵑 철쭉의 짙은 色을 날리는 물안개에도 께질 줄을 모른다。둘레에는 老松이 있고 欝林이 있고 군데 군데 盤石은 마치 草席을 펴고 사람을 기다리는듯 하다。斷崖絶壁이 있고 물이 있을뿐더러 盤石이 있고 老松이 있으니 하로의 淸遊地로 이를데 없는데 凄慘할만큼 세찬 瀑布까지 이루었으니 더바랄것이 무엇이랴 더욱이 이 一帶의 물을 예로부터 藥水로 일

러오는지라 봄은 藥水를 憑籍하고 여름은 浴場을 평계하고 가을에는 또 丹楓에 口實을 삼아 探勝客의 발이 그칠사이가 없다。

이렇듯 모여드는 探勝客을 爲함인가 一無名僧이 上部 各室內에 조고만 집을 이룩하여 佛身을 모시니 酒食을 팔기 爲해서가 아니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一三、水從瀑布

本郡 果川面 事務所 所在地인 舊果川邑 官門里에서 約四粁地點에 秀峰 淸溪山은 麗末의 功臣이요 名儒인 李穡 趙胤等이 李太祖 李成桂에 君事하기를 싫어하여 入山修道를 했고 그 遺址로서 望京臺가 있거니와 名嶽 冠岳과 키 겨름이나 하듯 마조서서 男性的인 冠岳에 比하여 女性的인 線으로 보이어 좋은 對照를 이르고 있다。

이 淸溪 西麓에 一瀑이 있으니 落水數丈에 瀑圍가 또한 絶景이다。이름하여 水從瀑이라 하고 果川 東瀑이라고도 부름은 果川東에 있음에서요 南紫霞洞의 西瀑과 對稱하기 爲해서다。

山치고 한폭의 杜鵑없는 山이 어디 있으며 한가지의 丹楓없는 山이 없으라만 淸溪山 水從瀑一帶의 杜鵑은 눈이 아푸게 진하기로도 이름이 높거니와 애송이 꾀꼬리가 어미를 따라 떠듬떠듬 혀 안 돌아가는 소리로 노래를 배울 철이면 奇岩에 불이 붙는듯 그대로 벌겅고 丹楓줄이면 大小의 秀峰들이 그대로 烽火臺로 化해 버린다。

數丈斷崖에서 나려치는 물줄기의 遠景에도 눈이 현빛과 周邊의 짙은 綠蔭의 프르다 못해 검은 빛이 더욱 印象的이다。水勢에 못이기어 몸부림치는 물확에 弦氣가 나서 섰노라면 어느새 녹녹하니 물안개가 옷을 적신다。벅찬 물소리에 지서어드는 솔새 소리 아! 絶景이란 이런 곳을 말함이리라 문득 물확속에 뛰어들고싶은 衝動에 아찔하니 凡人이 이럴제야 麗朝에 발친 忠節을 어찌 할길 없이 골에서 골짝으로 골짝에서 물가로 다니며 넘그린 마음을 부등켜 안고 울던 超人들의 心情이야 어떠했으리!

淸溪山腹에 淸溪古刹이 있으니 千有餘年 義湘時代의 創建이요 寺境勝景 또한 이루데 없다。그러나 淸溪寺만은 本郡區域이 아니기로 이를 들드는데 그치거니와 이 水從瀑頌記의 拙劣을 補키 爲하여 沙村 李軸의 水從頌 一句를 添加한다。

一道寒流水從瀑　樵童不識長川掛
風吹風沫西淸空　錯認中天倒白虹

一四、紫霞洞天과 紫霞詩境

紫霞洞天이라 함은 果川舊邑에서 戀主峰을 向하여 올라가는 途中의 冠岳山中 第一 넓은 깊은 溪谷의 總稱이니 距離가 二十餘里에 걸친다。冠岳의 秀峰 戀主庵까지에 約二時間을 要하는 登山路가 그대로 一大幽邃 溪谷을 이루고 있으니 山이 큰지라 나무 또 鬱蒼하고 골이 깊어 골짝마다 물소리다。或은 奇岩怪石이 蒼空에 걸려 있는가 하면 萬物의 形을 흉내낸 바위들이 生物인양 斷崖에 걸려 있다。

老松이 있는데 老鶯이 있고 잔솔밭에는 솔새가 우짖는다 골짝이 그윽해지는가 하면 영낙없이 玉盤우에 玉구슬을 올리는 듯 싶은 물소리가 돌돌거린다。물은 或은 바위름을 지새기도 하고 飛沫을 풍기며 떨어지는가 하면 白岩盤石을 미끄러지는듯 유유히 흐른다。

泰山峻嶺에 溪谷까지 幽邃하니 즘생도 있으련만 눈에 뜨이는 것은 末年得子보다도 貴여운 다람쥐 뿐이다。或은 元曉 義湘 尹承의 三聖이 入山할때 猛獸들을 보점을 싸가지고 楊廣州로 이사를 갔다기도 하고 또 或은 姜邯贊의 재채기 소리에 놀라 猛獸가 避身을 했다기도 傳하거니와 冠岳에 들어 큰 즘생을 別로 본 일이 없다 한다。

이 紫霞洞 一帶를 世人은 들로 나누운다。卽 其一은 이 果川에서 戀主上峰에 으르는 溪谷 一帶를 總稱하여 紫霞洞天이라 일컷고 이 紫霞洞天 入口의 絶崖絶岩이 병풍처럼 둘러쳐서 俄然 一大仙境을 이루고 있는 幽谷을 가르쳐서 紫霞詩境이라 부른다。盤石 그대로가 물처럼 보이도록 흰 盤石은 군데군데 가진 貌樣의 浴漕를 이루어 있고 그위를 디하나 없

는 玉水가 구슬로 바위를 뚜드리며 흐르는 듯 물소리가 아니라 그대로 구슬소리를 내며 흐르는 것이다。

이 紫霞洞名은 李朝 正祖 純祖 憲宗三代에 걸치어 詩書畵의 이른바 紫霞三絶로 이름을 떨치게 한 申紫霞公의 雅號에서 由來한 것이다。

申紫霞公은 本郡 紫霞洞에서 그 幼年時代를 보낸 因緣으로 名은 緯요 號를 紫霞라한 李朝를 通한 風流詩人이면서도 天性이 豪宕不羈하여 豪狹無比한 어른이었다。그의 三絶이 얼마나 極致에 이르렀든가는 淸國蔣秋吟侍御의 紫霞詩評에

「紫霞詩는 蘇黃에 近하다。」

하였으니 이 蘇는 蘇東坡요 黃은 黃山谷을 이름이다。

이제 紫霞公의 性格의 一面을 엿보이는 逸話로서 公의 試考하던때 이야기가 傳해지니 卽公이 少時에 補試에 應코저 列席하여 試卷에 글을 쓰다보니 마침 中天에 달이 떠 오르는지라 公은 自己가 試補中임도 잊고서 그 試卷에다 神秘靈出한 筆法으로 墨竹一幅을 그리니 試補하던 사람들이 周圍를 包圍하고 그의 絶筆에 눌라 마지 않았다 한다。이 逸話로서 公이 얼마나 偉大한 藝術的이었든가도 알수 있거니와 一生涯를 賭하는 試補를 一枚의 墨竹과 바꿀만큼 淸廉했다는 것도 우리로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한다。

이 紫霞公의 藝術的才分과 그 雅雅한 品格과 豪狹絶妙한 詩境도 實로 이 紫霞洞의 自然에 影響된바 적지 않았으니 中老之境에 一切 官職을 버리고 이 紫霞洞에서 詩作과 書畵로 樂을 삼은 일도 있다。

이 紫霞詩境은 驚梁津과 安養이 거의 同距離로 約二時間에 이를수 있다。

一五、安 養 풀

安養驛에서 北으로 서울을 向하고 京水街路를 올라가면 安養에 陸橋가 나선다。다리를 지나면 正祖의 華山行幸을 爲하여 이루어진 萬安橋石碑가 있고 그 앞에 冠岳으로 오르는 新作路가 있으니 곧 安養名物이요 또한 勝景地로 이름난 石水洞 安養풀에의 길이다。

路邊에는 大葡萄園이 있어 味覺을 돋구어 주거니와 坦坦大路에 紅塵을 마시며 골짝에 접어 들면 별서 白岩사이를 흐르는 石水洞의 소리 귀가 근시렵다。풀은 三層으로 되어 있어 大人用 小兒用으로 配慮되였고 石築과 쎄멘으로 完全히 近代化한 水泳場이다。

水深은 깊은 곳이 한길 上流로 올라 가면서 傾斜가 되여 五六歲小兒와 어른들이 한 水泳場에서 즐길수 있다。白水 깊고 보니 自然 푸르러 善女들의 눈이 부신 흰 살빛이 푸른물이 들까 걱정이될 程度다。水泳場兩側에 脫衣場 休憩所의 施設도 갖추었고 斜面層階도 整然하며 周圍에는 各種賣店이 櫛比하니 山間避暑地로서의 萬全을 期했다 할수 있다。나려쪼이는 暴炎을 遊하여 藤시렁 그늘에서의 小憩도 좋거니와 燒石처럼 뚜거운 골짝의 白岩을 징검다리삼아 溪谷上流에 이르면 그야말로 구슬 굴리듯 山溪水가 들들렌다。언덕 老松에는 老鶯의 볼 메인 소리에 솔새떼는 지지 않고 쫑알댄다。가면 갈수록 골은 깊고 돌은 희고 물소리 랑랑하니 可히 써 紅塵을 떠는 하로의 淸遊地로 擇할만 하다。

交通局에서는 夏期間 서울과 水原等地의 乘客을 爲해서 풀入口까지 臨時列車를 運行하고 있고 驛前에서는 一日數回 뻐스의 便도 있다。

本郡 保勝會에서는 休憩 飮料水 其他一切의 衛生施設은 勿論 水泳場一帶의 美化를 꾀하여 國民保健地로서의 萬全을 期하고 있다。

一七、蟹 峯 (在君子面城谷里)

海岸에 屹立하여 眺望이 淸爽한데 蓮城十二景의 一景으로 傳하여 特히 그 落照의 詩的風景을 古今에 남기고 있는바 加里基島 雙立島를 前面海上에 놓아 이것을 蟹目에 比하여 이름 하되 蟹峰이라고 부른다。

一八、別 望 山 (在君子面草芝里)

海岸에 呼立한 것으로서 三國時代에 어떤 戀人이 그夫(漁夫인男便)의 出漁에 當하여 戀戀한 惜別의 情을 못 잊어 이山上에서 出航을 眺望하면서 그 廻航을 哀戀으로 每日같이 苦待하였으나 사랑하는 夫는 永永不

歸의 客이 되고 말었으니 이 홀로된 아내는 一生을 山上에서 望夫哀戀으로 맞이였다 하여 山名을 別望山(별망뿌리)이라 부른다。

第三節 寺刹

一、虎壓寺

虎壓寺는 本郡 東西 始興里 虎岩山下에 있다。始興驛에서 東南側으로 約三四十分의 時間으로 足하고 「天井」에서 十五分 相距이다。

이 虎岩山은 元名이 黔芝山으로 그 形이 虎形같다 하여 虎岩이란 山名도 생겼고 이 山形이 虎形이라고 해서 李太祖는 黔芝山의 虎山이 漢陽王宮에 虎患을 미칠까 怯을 내어 虎壓寺를 移寺하고 법석을 했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웃으운 이야기다。이는 史實에도 있으니 尹慈說에 「衿文東有山寺焉 勢北馳如行虎 有不巖岩 術家相之 立於岩之北隅 曰虎岬—云云」 한것을 보면 事實上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그러고 虎壓寺만으로도 不安하여 虎는 獅子를 두려워 한다는 說에서 獅子庵을 또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 虎壓寺의 創建年代인데 寺史로 傳하기는 元曉師의 創寺로 되어 있으나 實記로 보아 李朝初의 創建임이 事實이니 中途에 寺史를 新羅時代로 遡及시킨 것으로 볼수도 있다。그러나 또한便 생각하면 虎岩山麓에 衿州東泉에 若干 올라와서 예로부터 절터라고 일르는 丘陵이 있어 靑苔가 낀 無名 無記나마 一石塔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것이 元 虎壓寺가 아닌가도 한다。그때의 寺名도 元은 虎岩寺이던 것을 現在자리로 移寺하면서 虎岬으로 물였고 그것이 變해서 오늘 이름인 虎壓寺로 된것으로 推測함이 옳을것 같다。이는 黔芝山一峰에 天井과 石해태等과 關聯해서 생각할수도 있는 것이다。

虎壓寺는 비록 小庵이나 이러한 由緖가 있는 절이라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寺庭에서 虎壓寺의 石峰을 올려다 보면 「虎壓」보다도 巨岩이 굴러떨어지지나 않을가 하는 「岩壓」을 느끼게 한다。그만큼 아이들이 作亂하듯 아무렇게나 뽑아올리듯 奇하고 또 妙한 岩山이다。正面에서는 발을 붙일자리 조차 없으니 오를 길도 可望이 없고 峰上에서 또한 나려와 볼 道理없으니 사람의 발그림자를 못본채 巨岩과 奇石사이에도 가진 꽃나무와 香木이 어설프게 선채 늙고 나서 해서 恰似 아이들이 함부로 彩色칠을 한것 같아 보인다。

虎壓寺에는 觀世音菩薩을 모시었다。

二、戀主庵

戀主庵은 寺史로 雄大함으로나 三幕과 비기는 巨刹이다。冠岳의 上峰 戀主峰을 背後에 지고 幽邃疊疊의 深谷을 나려다 보는 位置로 占했을뿐더러 寺庭에서 眺望되는 秀峰마다가 奇岩이요 怪石으로 이루어져서 俄然 金剛山中에 든 感을 자아내게 한다。

寺史는 一千二百六十餘年前 新羅三十代 文武王 十七年 戊寅에 義師의 創建이다。創寺當時는 寺名은 冠岳寺요 位置도 現在의 자리는 아니였으니 距今 五百五十餘年前 李朝三代 太宗 十一年 辛卯에 李太祖의 第一第二王子인 讓寧大君과 孝寧大君의 손으로 現在자리에 移寺된 것이다。

孝寧大君이 特히 冠岳 移寺를 뜻한데는 남 모르는 슬픔이 있었으니 太祖는 第一 第二의 王子를 비켜놓고 第三子인 忠寧大君에게 傳位할 뜻을 가졌음을 눈치 채인지라 兩大君은 손에 손을 잡고 눈물을 먹음으며 王宮을 벗어나 발길 가는대로 放浪의 길을 떠났던 것이다。傷心한 兩王子는 或은 民家에 雨露를 避하고 或은 山頂에서 날을 밝히며 兄은 아우를 아우는 兄을 서로 慰勞해 가며 山에서 山으로 헤메이기 數朔 문득 발을 멈춘 곳이 冠岳山頂이었으나 보지 않고 생각지 않으려던 王宮이 바로 나려다 보이는지라 冠岳寺에 들어 入山修道를 피했었다。

그러나 잊자 할수록에 나타나는 王座에의 애련한 追憶과 憧憬의 情을 눌을길 없어 憧峰에로 절을 옮기려 하고 지금 자리로 移寺를 시켰으나 가지 말자면서도 발길은 언제나 山頂으로 옮겨지는지라 이 兩王子의 心

境을 아로삭여 世人이 冠岳山預을 戀主臺이라 일컷고 寺名도 모르는 사이에 戀主庵이 되고 만것이다。

이 舊寺址는 現在의 寺境넘어 공적에 있으니 자리로 보아 지금 자리보다는 더 아담한 절터다。王宮쪽으로 마음을 이끌어 가는 戀主峰을 보지 않기 爲해서만 移寺까지 한 두王子의 슬픔을 읍조리며 舊寺址를 거닐어보는 感懷도 걸거니와 舊寺庭에서의 眼下眺望은 金剛의 斷髮嶺을 넘는 느낌을 준다。

寺庭에서 둘려 보면 連峰이 꽃이요 丹楓이다。

「若赤若蒼若黑若白 勢若鬼神之聚 憶遊是山者 儒幾釋幾」

이는 古人의 冠岳峰 頌이거니와 이 詩人도 寺院에서 連峰을 쳐다보고 읊은 感懷이리라。

第二王子 讓寧大君은 王位를 斷念했것만 孝寧大君은 끝내 王位에 對한 情을 못잊어 悶悶 冠岳山을 옮기기까지 했으나 끝내 王座에 앉아보지 못한체 怨恨이 서린 冠岳山麓에 묻치고 말았다。

寺院에 五層石塔이 있으니 이도 孝寧大君의 遺品이다。 佛殿은 그後 數次의 重修를 거치었고 最近에는 高宗 二十五年 戊子八月에 明成皇后의 下賜金으로 重修했던 것이니 檀樂 龍華의 兩殿이 그것이다。

寺院에서 戀主峰은 빠안히 치어다 보이어 十分이면 오를수있다。寺境이 幽邃溪谷의 神秘境인데 比하여 峰上에 오르면 澗通한 風景이 眼下에 짝 펼쳐진다。峰後面에 비들기 장 같은 戀主臺가 있어 古人들의 建築術에 머리가 숙는다。臺를 끼고 돌아가면 北에는 漢陽 南에는 華城이 가물가물 내어다 보이고 東으로는 楊廣州의 重疊된 山들이 靑田 心洲의 長技인 東洋畵 그대로다。眼下에는 구데구데 크고 적은 山中湖가 散在하여 濃霧가 서리인 深谷의 모습이다。눈을 들어 西로 돌리면 黃海의 地平線을 向하여 가느다란 霧路가 波濤처럼 뻗치어 霧路를 타고 가면 西海岸에 가서 떨어질것만 같다。

寺史에는 麗朝末의 杜門洞 七十二人으로 徐甄 南乙珍 廉得龍等이 李太祖 謀叛에 反感을 품고 冠岳에 들었드니라 하나 徐甄만은 있으나 其他는 實記에 없으니 趙胤 李穡의 誤傳이 아닌가도 한다。

그야 어쨌든 이 主峰을 麗朝 李朝의 두 不平客들이 主를 그런 峰이니 戀主의 이름은 있어 마땅할 것이다。

三、佛成寺

佛成寺는 冠岳山中에서 三幕 念佛 戀主 虎壓寺와 寺史를 같이하는 五古刹中의 하나로 主峯 戀主에서 約一時間 東南으로 向한 地點에 있다。寺院에 樹木이 鬱蒼하여 멀려서만 보아도 벌서 古刹이 있음을 짐작케한다。背後의 妙하다 못하여 怪하기까지 한 奇岩斷崖며 老松가지에 嚆嚆이 부는 솔바람 그칠줄 모르는 이름도 모를 山鳥들의 우짖는 소리 寺境에 들면 無意識中에 옷깃이 바로 잡아지며 南無阿彌陀佛 觀世音菩薩의 祝願이 저절로 나오게 하고 邪惡謀陷等 一切의 俗世에서의 自己反省이 생기어 홀홀 벗고 袈裟에 몸과 마음을 갈주고 싶어 진다。

佛成 創建의 寺史도 멀리 元曉時代로 逆及하니 元曉 義湘等이 多峰 冠岳을 踏査하다가 난데 없는 羅漢玉佛이 나타나서 一岩穴에 幕을 設하고 修道하다가 冠岳山中의 最巨刹로 創寺에 着手했다고 傳해온다。當時에는 이 成佛이 冠岳山中의 本寺로 元曉師 自身이 佛法을 宣敎했다고도 한다。

그後 祖師가 移舍한後 天火로 大部分의 佛殿이 烏有로 돌아간 것을 大覺國師가 重築하였으나 그後에 다 前後 四次의 火災를 입어 그 雄壯을 자랑하던 佛殿들이 燒失되고 말았다。元來 佛成寺址가 風水學說로 보아 火氣가 많은 곳이라 하여 前後 十二次의 火厄을 免해야만 비로서 安全하리라는 豫言을 한 사람도 있다고 까지 傳해진다。

佛成에서 望月庵까지의 探勝路는 그대로 千古의 秘密이 서리어 있는 듯 싶은 장글 그대로의 鬱林도 그럴듯 하려니와 白岩사이를 흐르는 石洞水聲 또한 품길을 더듬는듯 하다。

四、上 佛 庵

上佛庵은 望月庵에서 조고만 등성을 넘은 등에 絶壁에 기대인 小庵으로 庵庭에서의 眺望이 좋다 火入口 兩側에 조만 조만한 火田이 있어 主僧의 勤儉을 짐작케 하거니와 이 庵子에는 일찌기 華城(水原)의 名妓였던 女性이 깨우친바 있어 一切의 家財와 패물을 팔아 이庵子에 든 後로는 火田耕作과 祝願으로 洞穴에서 一生을 맞추었다는 로만틱한 事實이 傳해진다。

寺屋이고 法臺이고 보잘것이 없으나 그 女性이 半平生을 起居한 洞穴에는 지금도 自炊한 재가 그대로 쌓여 있고 房이라기 보다도 洞穴에 문짝으로 으리를 한 초라한 房이다。이 女僧은 解放直前까지 이 洞穴속에서 가야금과 長鼓를 치던 玉같은 손에 호미 한자루로 火田을 일구고 一生 조밥이라는 粗食으로 延命을 해가며 觀世音菩薩을 오이었다는 그윽한 이야기가 웬만한 寺史보다도 興味를 자아준다。

지금은 일찌기 佛道에 造詣가 깊던 某氏가 十二三歲의 養孫女를 데리고 修道中이다。

五、望 月 庵

望月庵은 佛成寺에서 幽谷을 타고 玉流를 건느기 數三次 時餘에 達할수 있는 小庵子이다。望月이라고 하나 其實 四方이 꼭 막히어 지붕우에 달이 와야 달 求景을 할수 있는 程度라서 달求景하기가 어려워서 생긴 이름같다。

庵뒤에 一小石塔이 있으나 年代도 이름도 모르니 記錄된 資料도 없고 塔身에 乾苦草等을 널어놓아 塔의 그윽한 맛도 없어 진다。望月庵에는 바로 맞은편 佛形을 한 巨岩밑에 分庵을 세워 마주보고 談話도 할수 있다。

六、三 幕 寺

三幕寺는 安養邑에서 三聖山腹에 介在하니 時餘에 達할수 있는 路程이다。距今 千三百年前 新羅時代의 創基로 名僧元曉 義湘 尹弼의 三師가 冠岳에 들어 設幕 修道하였으므로 其地에 創寺하고 이름하여 三幕이라 하였다。三幕은 三藪이니 元曉等 三僧이 各 一藪式을 設하여 雪露를 避했음에서 由來한 것이다。나머지 一藪은 알길도 없다 한다。三聖山名도 이 三聖을 聖化한데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런데 이 元曉 義湘 尹弼의 三師가 三聖에 入山한 年代인데 元曉는 新羅 二十五代 眞平王 三十九年生이요 義湘은 同 四十六年生 그들이 손을 잡고 入唐한 것이 文武王 元年이니 西紀 六六〇年頃이다。元曉는 唐州에서 혼자 들어왔고 義湘은 十年後인 文武王 十年에 歸國했고 보니 兩師가 그 歸路에 三聖에 들린 것은 아니다。그러면 結局 兩師가 손을 잡고 冠岳 淸溪等을 찾은 것은 文武王末이나 神文王代로 推測할수 있어 二十餘의 文獻을 찾아 보아도 그것을 考證할만한 記錄을 發見할수가 없다。어쨌던 이를 事實로 본다면 三幕의 創基는 距今 千二百五十餘年前으로 생각함이 옳을 것이다。

또 中國 龍州에 三藪寺라는 名刹이 있어 이 名刹의 이름을 따서 三藪라 命名하고 元曉 義湘 尹弼의 三師의 이름을 끌어 온지도 모른다는 一說도 傳해지나 이 亦 考證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던 三幕寺가 千有餘年의 歷史를 가진것은 그 建物構造로 推測할수 있으니 뜻하지 않은때 寺境 그 어디에서 年代를 考證할만한 文獻이 나오지 말란法도 없다。

三幕寺 境周는 天然的으로 勝景을 이루고 있다。寺庭에서 보면 黃海의 地平線이 아물거리고 뒤로 돌면 老松가지 사이로 奇岩絶景이 울려다 보인다。後庭의 龜井에는 玉水가 흘러 넘치고 이름도 年代도 모르나 마 古色이 蒼然한 石層塔은 寺史의 悠久함을 말해 준다。石塔뒤 老松사이를 비스듬히 山잔등을 넘어간 細道한가닥이 있어 그길만 따라가면 그 무슨 偉大한 神秘나 맞날듯 싶다。이 길이 半月庵에의 通路이니 半月庵은 三幕의 一庵 적기는 하나아담하기 그지없다。

寺境入口에 一池塘있어 버려둔채 물은 渴하다고 後面에 堂寺한채 설직하다 하니 헐은지도 오라지 않다 하고 種痘의 恩人 池錫永翁의 舍兄인

白淵師가 三幕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한다。

建物의 雄壯함은 山中一이면 法堂本殿은 純槐柱만을 썼다 한다。大概의 巨刹이 壬辰倭亂을 겪었듯이 三幕도 倭兵의 放火로 烏有化하고 創建當時의 建物로는 法堂本殿이 남았을뿐인것을 그後 再建한 것이다。

三幕은 三十一本山中의 一인 奉恩寺의 末寺이였다。參考로 三十一山의 이름을 들어 둔다。

一、奉恩寺　京畿廣州郡廣州面
二、龍珠寺　京畿華城郡安龍面
三、奉先寺　京畿楊州郡榛接面
四、傳燈寺　京畿江華郡吉祥面
五、法住寺　忠北報恩郡俗離面
六、麻谷寺　忠南公州郡寺谷面
七、咸鳳寺　全北全州郡新陽面
八、寶石寺　全北錦山郡南二面
九、大興寺　全南海南郡三山面
一〇、白羊寺　全南長城郡北下面
一一、松廣寺　全南順天郡松光面
一二、華嚴寺　全南求禮郡馬山面
一三、仙巖寺　全南順天郡雙岩面
一四、海印寺　慶南陜川郡伽倻面
一五、通度寺　慶南梁山郡下北面
一六、梵魚寺　慶南東萊郡北　面
一七、桐華寺　慶南達城郡公山面
一八、銀海寺　慶北永川郡淸通面
一九、孤雲寺　慶北義城郡丹村面
二〇、金龍寺　慶北聞慶郡山北面
二一、祇林寺　慶北慶州郡陽北面
二二、貝葉寺　黃海信川郡用珍面
二三、成佛寺　黃海黃州郡州南面
二四、永明寺　平南平壤市慶上面
二五、法興寺　平南平原郡公德面
二六、普賢寺　平北寧邊郡北新峴面
二七、乾鳳寺　江原高城郡梧桐面
二八、楡岾寺　江原高城郡西　面
二九、月精寺　江原平昌郡珍富面
三〇、釋王寺　咸南安邊郡文山面
三一、歸州寺　咸南咸州郡東川面

七、念佛庵

念佛庵은 安養골에서 沐浴의 散策兼 찾을수도 있는 近距離이니 鷄犬聲이 가까운것이 欠일뿐 寺址로나 寺史로나 冠岳山中의 十餘寺에 比하건데 어느 모로나 遜色이 없는 古刹이다。

創寺는 三幕戀主 佛成等과 함께 元曉 義湘時代의 遺物로 비록 俗世와 가깝고 建物도 초라하나 寺境一帶의 勝景은 斷然 頭角을 들어낸다。位置로보아 當然 一介 巨刹이 섬직한 자리이나 다만 前庭에 餘裕가 없는 것이 缺點이다。寺後面의 石壁은 마치 數十幅의 둘병풍을 둘러친듯 雄하고 또 壯할뿐더러 서투른 畫工의 未完成品 그대로의 屈曲과 凸凹이 甚하여 一大奇觀을 呈하고 있다。바위우에서도 나무가 사는가 싶을만큼 突出한 岩上에 奇松이 섰다。그리다가 둔 그림 아님이 分明하니 그 奇松에 솔새 와서 우짖고 바람이 불때마다 松葉은 嘯嘯의 소리를 빚어낸다。하도 철죽이 많고 杜鵑이 흔할 冠岳인지라 遠近에 꽃이거니 하고 가보면 斷崖絶壁에 달아맨 비들기 장 그대로의 五色이 燦然한 山神堂과 法堂이 위태롭게 매어 달렸다。

寺境보러가 仙境이니 勝景地가 아닐수 없고 秀峰斷崖에 끝까지 깊고 보니 물이 또한 없을수 없다。四十五度의 傾斜에 雜石이 나려갈려어 多

少殺風景한 느낌을 주나 寺庭에 오르기만 하면 雜想邪念이 어데론지 살아진다。

寺刹이란 山에 있고 山에는 절이 있어 어느 절치고 食水없는 절이 있으랴만 念佛庵의 藥水야말로 質로나 量으로나 그 만들어진 品조차가 山中에서 斷然 異彩를 이룬다。예로부터 井에 精이 있고 精水에 誠이 있다 일르거니와 우물 단속을 못하는 僧尼의 禪道라면 緣木求魚에 별다름이 없으리라。그렇다고 品에는 格이 따르고 格에는 觀이 따르고 觀과 品이 合치어 全을 이룬다 하니 襤衣粗食 또한 佛人의 品과 格을 이룬다 할수있다。山中 各刹에서 散見하는 美國製 新式 팔둑時計며 美製 고무줄 두레박은 알미늄 표주박에 美國製 깨소린筒等은 갖 쓰고 自動車 運轉하는 格이니 반드시 文化水準으로만 볼것도 아니다。明紬바지 저고리에 金時計줄을 느린 그리고 一九四十 몇年型을 자랑하는 僧尼 있다면 反省함이 있어야 할것이다。山中十餘寺에 美製品 없는 寺刹이 없였으니 나무와 瓢의 쪽박에 물을 마시고저 철을 찾아 俗人의 虛榮을 채워줄 住持한둘쯤 있어도 좋지 않으랴。寺庭一隅에 菩提樹있어 염주 대롱대롱 달렸으니 이를 꼬여 목에 걸고 손목에 차고 時計줄을 삼고 싶은 생각 또한 간절하다。

이는 어쨌던 念佛庵 寺境의 勝景은 하로의 俗塵 邪念을 떨기에 足한 仙境이다。

八、望 海 庵

望海은 安養驛에서 빤히 쳐다보이는 庵子다。規模도 적고 寺境도 狹少하다。

安養邑의 全景은 勿論 黃海가 眺望된다 하여 望海의 이름이 생기였고 이外에는 始興 虎壑寺에서 紫霞庵 가는 途中에 있는 藥水庵은 庵名그대로의 藥水터로 이름이 있다。藥水庵에서 戀主庵을 向하여 오르자면 路程에 戀王 紫霞 二庵이 있어 모다 新羅時代의 創寺라고 하나 믿을 만한 史記도 史蹟도 찾아 볼수 없다。그러나 庵子 있는데 반드시 獨特한 勝景을 이루고 있으니 聖主의 望月 紫霞의 石山幽谷 또한 可賞할 勝景이다。

第四節 其 他

一、馬粥巨里 (俗名말죽거리)

始興郡 新東面 良才里에 位置하고 廣州郡과의 境界 地帶를 이르고 있다。此地는 李朝 仁祖王時에 丙子胡亂이 發勃하자 王께서는 僧兵을 이防禦하는 南漢山城에 播遷 現良才里는 其當時 敵將 龍骨太가 指揮하는 右翼軍의 兵站基地로서 胡軍의 騎馬兵들이 山城을 向하여 攻擊을 加한 後에는 交代로 第二線地區 兵站基地에 後退하며 말의 訓練과 疲勞를 回復시키고 飼料를 補給하던 곳으로 至今까지 말죽거리라는 傳說이있다。

二、왜고개 (倭峴)

始興郡 新東面 盤浦里 彦九飛 部落에 位置한다。

壬辰倭亂時에 서울을 攻略하려는 敵將 加藤清正軍의 先峰隊가 漢江건너 西氷庫를 對峙하여 渡江을 企圖하고 布陣하였을때 當時 南漢山城을 主體로 하는 各地寺刹의 僧兵들과 民間人으로서 蜂起한 義兵들이 合勢하여 南漢山城 清溪山 冠岳山等의 險山 峻嶺에 雄據하며 夜間을 利用하여 敵의 先鋒隊를 後尾에서 奇襲하고 많은 敵兵을 殺戮하니 그들은 無慮數千名式 한무덤에 屍體를 埋藏하였다 한다。그런故로 敵의 數次에 걸친 作戰計劃은 挫折當하였다。其後 敵은 다른곳으로 先鋒隊를 派遣하였으니 後世사람들은 멀리 돌아서 渡江하였다는 뜻으로 그地名을 遠歸飛라 부르게 되어 近來에는 彦九飛라 불어 부르고 또한 敵兵을 埋藏하였다는 무덤이 至今도 山에 散在하고 있어 왜무덤이라 부르며 奇襲을 當하여 交戰하던 고개가 있는데 이를 왜고개라 부르는것이 倭字의 더러움을 따서 더러울예를 붙여 예고개라는 傳說이 있다。

三、三千병마골 피흘고개

始興郡 秀岩面 鳥南里에 位置하고 安養에서 西쪽으로 相距約二十里인

곳으로 壬辰亂時 防禦軍 總指揮官인 申砬將軍의 傘下軍 兵馬를 近處골자기에 潛伏시카고 約一杆에 隔한 倭軍의 布陣地를 攻擊할때 謀策으로서 老婦人은 偵探으로하여 敵陣에 侵入케하고 그 暗號로서는 夜間을 利用하여 就寢與否를 살펴 다자면은 「다자귀야 ㄱ」하고 잠이 들지를 않았으면 「더자귀야 ㄱ」로서 다자귀야의 暗號連絡으로서 總攻擊하여 倭兵을 陷沒시켜 그 피흘음이 내를 일웠다 하여 이고개를 피흘니 고개라 하고 말아서 이골짜기를 三千兵馬골 이라고 한다。至今도 當時 戰死한 我軍의 兵馬의 무덤이 남아있다。

富川郡

第一節 古蹟

一、桂陽山과古城址

桂陽山은 本郡桂陽面富平里에있다。

高麗時代엔 安南山이라고 하였으며 標高도百九十五米、山頂에 오르면 展望雄大、漢江淸流는 山麓沃野인 富平平野를 西流하고 江華、永宗諸島와 冠岳、南漢、北漢의 諸峰이連互하여 멀이 서울 長安을 模糊하게 볼수있다。

이 山中腹에는 石築古城이있었으나 지금은 그자리만남고 다 荒廢하였다。郡誌文獻에曰「桂陽山古城石築周圍 一、九二七尺同皆荒廢」라고있다。

推測컨대 古朝鮮은 三國時代 高句麗의 南方을 防禦키爲한 築城이 안인가 생각된다。

高麗高宗時代에는 詩人이읊은 桂陽八景은 다음과같다。

一、景明廢照　　五、古城牧笛
二、桂陽孤鍾　　六、大橋漁火
三、遠積暮雨　　七、西川浣紗
四、蘭浦歸帆　　八、溫洞瀑布

二、巨樹名木

樹種	所在地	胸圍	樹高	樹齡	種類
柏	槇素砂島伐應節里	八尺	九間	一七〇年	亭子
欅	蔡萊面新川里	二十四尺	八間	五〇〇年	名木

이 欅木은 五百年前 宰相河崙이 여기碑閣을 짓고 그記念으로 심었다한다。

金浦郡

第一節 古蹟寺刹

一、章陵

本郡 金浦面 豊舞里에 章陵山이라는 아담한 山이 있다。이山은 元來北城山으로 불리어져 오다가 距今 三二八年前 丁卯年에 仁祖大王이 父王 元宗의 陵墓를 楊州에서 移葬한 後부터 오늘의 章陵山名이 생기었다。仁祖大王의 前代는 바로 光海君이니 仁祖가 卽位하기 까지는 그의 父君은 定遠君으로 封해져 있어서 開國二百二十九年에 楊州羣場에 安葬하고 興慶園이라 일컬었었다。그러자 仁祖가 光海君을 몰아내고 王位에 오르면서 定遠君은 元宗 夫人 具氏를 仁獻王后라 追尊하게 되었고 興慶園의 墓를 지금 이章陵山麓으로 移葬하면서 章陵이라고 稱陵케 된것이다。

이 章陵은 元宗을 移葬하기 前에도 毓慶園이라 하여 元宗妃인 具氏의 墳墓가 있던 곳으로 三千六百餘坪의 陵域과 附隨林野 百五十餘町步에 老松巨樹가 鬱蒼하여 勝景地였다。具氏도 仁祖大王이 卽位하기 前까지는 定遠君夫人의 墓所이던것이 元宗移葬과 同時에 稱陵이 되었다。

陵뒤의 章陵山은 비록 낮으막한 野山이오 往年의 鬱林도 八、一五와 六、二五로 옛날의 모습은 잃고 말았지만 그山의 아담함과 부드러운 線이 陵墓의 壯嚴과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文武의 石像을 左右에 配

하고 陵墓사이에 石燈은 아직도 빛이 히다。陵園山麓의 連抱之木은 간곳이 없으나 稚松과 落葉松이 陵의 威를 잃지않을 程度로 密生하고 있다。

陵의 規模와 規格은 (李朝陵墓와 大差가 없으나) 李朝 中期의 典型을 찾아 볼수가 있다。陵墻은 煉瓦垣이오 深이 四十五尺에 橫幅이 六十尺이다。陵高는 二十尺에 達하며 陵墓의 周圍는 六十尺이다。地上은 板石으로 繞築했고 左右 後面은 瓦片과 石灰로 築垣되어 三百三十年이나 되었것만 아직도 嶄新한 感이 있다。陵前에는 左右로 各 石馬、武官石、石馬、文官石의 順으로 配했고 墻內로 石柱、石羊、石虎가 各二雙式 配列되어 있다。

陵下殿에 祭祀堂이 있으니 第二十一代 英祖와 三十二代 正祖가 來次親祭를 모시던 建物이다。祭祀堂 右에 碑閣이 있으니 前面에는 朝鮮國元宗大王과 仁獻王后의 章陵으로 되어 있고 後面에는

元宗恭良敬德仁憲淸穆章孝大王 萬曆八年庚辰六月二十二日誕生 乙未十二月十九日昇遐 庚申二月 葬于楊州 檜場里 天啓七年 丁卯 八月二十七日 移葬于 金浦郡 後岡子坐之原 壽四十 初封定遠君 仁祖卽位追尊 大院君崇禎五年 壬申 又追崇爲王 皇朝賜謚恭良

妃 敬懿貞靖仁獻王后 具氏 萬曆六年 戊寅 四月十七日誕生 天啓六年丙寅 正月十四日昇遐 五月十八日葬與 大王陵同原 壽四十九 庚寅 初封郡夫人 仁祖卽位 進號府夫人 崇禎五年 壬申 追崇爲 王后 崇禎紀元後 百二十六年立——云云

二、文 廟

郡內에 三文廟가 있으니 其一은 金浦文廟로 金浦面 北邊里에 있고 其二는 通津文廟로 月串面 郡下里에 있다。其三이 陽川文廟로 陽東面 加陽里에 位置해 있다。

通津과 陽川은 別個郡이던 것이 金浦郡으로 廢合케 되어 三文廟가 생기게 된것이다。六、二五前 까지에도 每年 地方의 儒學들이 모이어 春秋로 享祀했었으나 昨今에는 闕祀하는 例가 많아졌고 齋室은 國民學校에서 敎室로 使用하는 곳도 있다。

建物은 大部分 老朽하여 本格的인 修理가 要望되고 있으나 豫算關係로 放任되어 있는 形便이다。

三、烽 燧

過去의 唯一한 通信機關이던 烽燧臺는 金浦面 冷井山、 黔丹面 白石山、大串面 守安山、月串面 南山、陽西面 開花山等 五個所가 남아 있다。現在는 皆擧가 臺址만이 남아 있어 廢墟化했으나 古蹟으로서 보다도 勝景地로서 더 有名하다。 烽燧臺는 大槪 最高峰에 設置되었든만큼 頂上에서의 眺望은 實로 可觀이다。特히 月串面 南山頂에서의 眼下俯瞰은 絶景으로 일컬어진다。

四、牛渚書院

文烈公 趙憲公의 遺德을 追慕하여 이룩된 牛渚書院은 本郡 金浦面 坎井里에 있다。趙憲은 宣祖朝八이니 本郡 出身으로 牛渚書院은 그의 舊邸址에 세워진 것이다。

公은 宣祖朝 二十五年 三月十三日에 來寇하기 시작한 倭亂에 義擧을 이르키어 大大的의 接戰을 하고 크게 功을 세운 사람이니 그의 行蹟을 찾아 보면 그는 本郡 出身으로 宣祖大王의 뜻을 거슬린바 있어 咸鏡道地方으로 追放이 된 사람이다。咸鏡道에 流配가 되어서도 自己의 所信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다시 壓天嶺을 넘어 볼지도 모르던 터일에도 不拘하고 처음 倭使가 交涉次 왔을때는

「倭使의 목을 베어 그들의 信義없음을 밝히게 하사이다——。」

하는 上疏文을 올리었으나 一貧士의 意見이라 하여 누구하나 支持하지 않았었다。그러나 그는 先見의 明이 있었으니 倭는 반듯이 來寇할 것을 알고 나라를 위하여 生을 받친 覺悟를 하고 待機中 果然 그해 三月十三日 倭가 上疏을 하자 南下하였다。 그는 沃川에서 서울이 敵手에 들어갔음을 듣고 自進 義擧에 參加하고 義兵을 募集하니 壯年들이 雲集하

여 數日만에 千餘名을 얻엇다。公은 그때 이름이 난 僧將 靈圭를 도와 敵를 무찌르니 敵의 記錄에도 官軍은 弱해도 民兵은 生命을 걸고 싸우므로 苦戰이었다고 남기고 있으니 이는 바로 靈圭와의 遭遇戰이다。

趙憲公은 元來 天性이 剛直하여 忠淸監司가 뜻이 맞이 않더니 監司가 도리어 追害로 나와 千餘名이던 義兵이 不日來로 七百으로 줄어들고 말았다。그러나 공은 이미 결심한바 있었으므로 이 七百으로 快死隊를 조직하고 八月二十五日에는 敵의 大部隊를 추격하여 錦山에 이르렀었다。

그때 全羅監司는 權慄將軍이었으니 權慄도 죽엄으로써 싸우는 趙公에게 크게 탄복 하고 二十七日 錦山의 敵을 夾攻하기로 했었다。그런데 이 굳은 約束을 權慄將軍이 어째서 지키지 않았던지(大槪 權慄將軍한데 不利한 推測이 行해졌었다) 趙公은 單軍으로서 敵을 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이를 본 部下가 單軍으로는 어려우니 應援軍이 오기를 기다리어 싸움이 어떠냐고 下했으나 公은 내이미 목숨을 나라에 받친以上 어찌 一刻을 주저하여 敵에게 利을 주랴 하고 突擊戰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 싸움에는 僧將 靈圭가 같이 참가하였든바 모두 一時 退했다가 다시 싸우기를 勸했지만 靈圭는 듣지 않았었다。

趙憲은 實로 勇敢하게 싸웠다。화살이 다하자 맨손으로 敵과 對峙하여 그야말로 白兵戰을 하다가 힘이 다 하여 쓸어지고 말았거니와 이때 七百義士가 꼭 같은 죽엄을 했었던 것이다。이 戰鬪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世界戰史上에도 또 한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은 그런 例는 없었다고 한다。

僧將 靈圭도 趙公과 함께 목숨을 다 했었다。

宣祖는 이 壯함을 듣고 깊이 뉘우치어 趙憲에게 吏曹判書을 贈하고 文烈公으로서 諡했으니 公은 李土亭의 門下였다。

本書院은 本郡出身의 名僧 李萬春의 創設이오 上疏하여 賜額을 받은 것은 崇禎辛亥年이다。碑文은 李廷龜撰純祖甲午에 重修했다。

參考로 碑銘 全文을 引用해둔다。

有明朝鮮國通德郎守奉常寺僉正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義禁府事藝文館提學 世子左賓客趙公碑

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李廷龜撰

嘉善大夫同知敦寧府事金玄成書

壬辰八月錦山之戰重峰趙公父子與七百義士同日死事聞 先王震悼贈公吏曹參判又命廩其母官其子完堵今 上之撫軍南行也召見公之子遣從官使祭復役誠祖又甲辰 先王賜祭加贈今官逮今 上卽位之明年聽建書院祠 賜額曰表忠碑春秋祭于祠始公之役麾下士收七百義骨 卽其地作一塚堅石其側名之曰一軍殉義碑 旣又諸生以金浦公故宅相與謀石樹于墟遂撮公平生言行及擧義事跡屬不佞曰 子其文凡往返三四請益則謹案公諱憲字汝式白川人上世有諱文胄

麗朝兵部尙書至諱天柱紅巾之亂以元帥戰死考應祉贈吏曹判書娶車順達女生公於嘉靖甲辰中丁卯文科補校書正字時降香佛寺公上疏言口讀聖經手封佛香所不忍也坐削官自是直聲籍甚歷戶禮工佐郎通津報恩縣監全羅都事在通津杖殺內奴豪橫者誣公以濫刑杖配富平在報恩上疏請革燕山朝貢案立魯山後旋表大臣禁制王子弟宅丙戌上疏伸救牛溪栗谷先生及朴思菴鄭松江諸公寢不下再疏益論朝臣朋比丁亥又上萬言疏仍論鄭汝立兇悖比之弃促觀察使格之不以聞時秀吉遣使來覘公徒步上京並前未達疏以進言秀吉弑君宜斥其使己丑持斧伏闕上疏極論宰臣誤國三司論竄吉州冬鄭逆謀發以公有先見命放公公在謫聞朝廷遣使日本上疏極言其不可辛卯賊使至公又疏陳秀吉必背約構亂請斬玄蘇義智首上奏天朝嚴兵以待不報仍叩首石礎血被面觀者如堵或譏其自苦公曰明年竄山谷必思吾言又以一疏辭朝拜進自草奏文及諭琉球對馬島等書痛哭出都門及壬辰聞難卽與門徒欲西赴行在道梗不果行見巡察使請討賊草檄傳告八道辭旨激烈義士坌集得千有六百餘人乃與僧將靈圭直搗淸州洒泣血戰賊大衂焚屍宵潛湖左諸屯賊望風皆遁遂飛文一路整軍北行師次溫陽錦山之賊將侵軼兩湖巡察使告急於公要與共事諸軍佐亦言賊無所不躪而獨餘湖西南一片土失此則無

國也宜先討錦賊以絕其後而勤王未晩也公乃還公州巡察使議不合事多沮撓麾下稍々散去只七百義士願從之公慨然移軍向錦山曾與湖南巡察使權慄約以十八日齊擧慄移書改期而公未知是日嘗食傳發或言賊鋒銳甚且衆宜按兵相勢毋輕當大敵公曰君父何在敢言利鈍賊知無助乘未備而逆之草野而陣分兵爲三迭出以疑之公下令曰死生進退毋愧義字士皆惟命力戰終日賊三北幾潰而我兵已矢盡無可爲會日且入兩軍不相見吏士皆無人色而公意氣自若督戰益急賊悉銳攻之帳下士挽公請跳公唉解馬鞍曰此吾殉節地男兒死耳不可苟活撮抱鼓之士爭直前無一人旋踵短兵接空拳搏亦無一人徒死雖衆寡不敵全軍盡歿而賊死過當勢大挫收餘兵運屍哭聲震野遂與茂朱屯賊皆遁潮西南賴全翌日公之弟範尋公屍則公死於旗下將士環公死相枕範負公事屍還殯沃川張目掀髯怒色如生葬于沃之安邑縣與夫人同塋公之子完基奏性俊偉兵敗故異其冠服冀代公死賊認爲將斫其屍公性至孝纔襁褓已知事親禮修書父母必盥濯整衣冠每夜必誦大學及離騷經出師表悲歌慷慨達朝不寐家貧躬自耕耘或牧牛田間亦未嘗釋卷日採薪熱親突暎火而讀之其嶺吉州公聞卽登程金吾卒止之曰來時同班教我云趙某賢者必不留汝必以夕抵家令夜治行所以遲暮而至公曰君命不可宿徒步夜發嘗遊大花寺一日對食揀與房中四僧曰明年有變我必赴難今日共此飯者可來同事僧怪之而陽應曰諾後三僧皆與公同死而其一病未赴說人如此云申恪宰延安公貽書曰明年必有倭難延是三國時城守克賊地君以武將守之宜速浚壕增陴爲死守計恪雅重公卽治守禦具如公指後李公廷馣果以此城却賊壬辰四月聞東南有聲如巨雷公驚外曰此天鼓也賊必到海矣及起兵嘗夜觀天象北向拜哭良久又仰天而曰吾以爲禍及行朝更察之二王子入北者其獲於賊乎門人識之賊渡海王子被虜皆其日也公始遊士亭門晩從牛溪栗谷講論周易便師事之不佞年輩後未覩公面嘗聞一時名流欲用公栗谷先生曰此人不知變通以爲唐虞之治可猝復一事不合牽裾折檻必至騷擾俟其練達可大用不佞之妄論公亦如此已獨土亭論當世人物必以公爲第一蓋栗谷早歿未及見公學進也獨其執太固守太潔奔義如狂見人之過若浼一言不是則雖公卿大臣廷叱之如奴狗立玉陛前與人主抉腎腸爭是非不得則不已未嘗以毫髮恕人宜其流竄困厄不容於世也然不如是烏能成就此哉況其高見達識可質神明愛君憂國出於至誠使公之志得展於當時則經濟事業亦可想見而終於伏節一士而止惜矣嗚呼雖使公言行計用顯寵一時視如今聞公名而髮立讀公文與遺事而瞻裂鬣々精神亘萬古不死者何如哉終不以彼易此銘曰烈烈趙公稟質特兮培深植固行也獨兮自信其中不求知兮必背群馳剏敢隨兮愈瞶愈堅困而亨兮屢疾其呼衆聽驚兮先知逆見若燭照兮就信其然譁而笑兮以性而行得之天兮不駭危機神益全兮衣車渙々視弊展兮首碎不悔遑恤毀兮逢時孔難得死所兮仗劍一呼從義旅兮疇遏公誠一團血兮集義爲兵用不缺兮奔敵如雷莫我嬰兮勇不徒死々猶生兮七百義骨還公屍兮氣結爲虹亘天維兮有炳如日峙如岳兮不涅千秋昧者式兮嗟公之烈何待碑兮石于墟者多士思兮

萬曆四十五年五月 日立

五、文殊山城

韓末 開國과 鎖國兩論의 듸럼마에 빠졌던 高宗代에 英米艦의 來襲으로 朝野가 들 끓었거니와 이 文殊山城이 이 對外戰에 크게 크로즈업 되었다。江華島를 마조건너다 보는 月串面 城東里에 位置한다。

이 山城의 築造는 李朝 第十九代 肅宗代니 江華島 關防을 爲해서였다 肅宗二十一年 留守 閔鍾周로 하여금 이에當케하니 甲串津에서 文殊上峰에 이른다。東門을 娶嫁樓、西門樓를 控海樓라 命名했더니 純祖 壬申에 留守洪義浩가 改修하면서 喜雨樓라 改稱했다。椒園李忠翊의 筆이었다。

이 喜雨樓는 丙寅洋亂의 兵火에 燒失되었지만 再建되어 다시 原名인 控海樓로 復歸했다。現在는 城및 城樓가 다 頹落된채로 있다。

文殊山은 標高 三七〇米의 險山으로 이 山城이가장알려지기는 丙寅年의 佛艦「ㅍ리ㅣ르」號의 侵寇以後다。

佛艦이 江華島를 함락시키자 九月十八日에 第二次 전투가 벌어졌다。(這間의 事情은 江華島篇 參照)이 山城은 江華島에서 서울로 通하는 첫

關門이었것만 哨官 韓聖根 執事 池弘寬이 不過 五十名의 兵力으로 守備하고 있었다。 서울로의 近接路를 찾고저 焦燥해하던 佛의 「로-제」는 百二十名으로 編成된 强力部隊를 十八日 零時를 期하여 甲串津을 건느게 하고 山城에 侵透시키었다。 前날의 勝利로 大膽해졌고 교만해진것이다。 그러나 我軍은 가마니 내어 버려 두었었다。 射程距離까지 接近시킨다음 突然 猛射擊을 開始하니 珥代武器로 장비했고 또 數로 보아서도 二倍半이나 되것만 一進一退의 격전을 거듭한 끝에 我軍은 할수없이 撤收를했었지만 佛軍의 損害는 死傷이 二十五名이었다。 이에 比하여 우리의 死傷者는 不過 五名이엇고 보니 얼마나 苦戰이엇든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史實도 있거니와 城에 오르면 江海의 眺望이 비길데가 없다。 山城內에 文殊寺가 있으니 크지는 않으나마 古刹이다。 이 寺庭에 서면 眼下에 江海舟帆을 俯瞰하고 멀리 江華島넘어로 黃海碧波를 즐길수 있다。

六、文殊寺

文殊山城內에 있는 文殊寺는 新羅 第六十一代 眞聖女王代의 開基인바 그後많이 頹落되어 오던것을 李朝 光海君六年 甲寅에 道旭化主가 重建했고 純祖九年에 이르러 다시 重建現在 大雄殿은 距今 十九年前 丙子에 鄭南星의 新造다。

寺寶될만한것은 없고 佛像에 木製塗金인 阿彌陀佛、石製塗金의 藥師如來、土製塗金의 那畔尊者等이 있고、浮屠는 石造楕圓形으로 高가 八尺五寸、碑가 四尺二寸、石塔이 있어 異彩를 띄우고 있다。 高는 五尺이다。 그러나 모두 建造年代가 밝혀져 있지 않아 遺憾이다。

七、奉陵寺

金浦面 豊舞里에 있는 章陵山麓에 있으니 郡廳에서 二粁未滿의 相距다。 이奉陵寺의 前身은 高山寺다。 高山寺는 千四百餘年前 新羅二十四、五代 眞興、眞智年間의 開基로 알려져 있다。 그後 頹落한채 放任되어 온것을 李朝十六代 仁祖五年 章陵封寢後에 現地로 移築했던 것이다。 佛宇로는 大雄殿、大房、應舍樓等이 있으나 規模도 적고 佛像도 볼만한것이 없다。 章陵守護가 該寺를 移築케 하니만큼 모든點이 平凡하다。

八、龍華寺

龍華寺는 金浦面 雲陽里에 있으니 李朝 三代의 太宗五年 信士 鄭道明의 創基다。 佛宇도 佛像도 別 볼만한것이 못되나 寺境은 勝景이다。

九、巨樹名木

樹種	所在	胸高圍	樹高	樹齡
銀杏木	霞城面石灘里	二四尺	六〇尺	五二〇年
欅	大串面大碧里	二〇尺	六〇尺	三六五年
楡	月串面城東里	一七尺	四二尺	三三〇年
四照花木	陽東面新亭里	九尺	三六尺	二六五年
香椿	黔丹面元堂里	一二尺	五五尺	三三〇年

江華郡

第一節 江華略史

江華의 名勝古蹟을 理解하기 爲해서는 麗朝의 別都였고 李朝에서도 太祖、定宗、太宗의 三代王을 爲始해서 遷都、蒙塵等의 許多한 事實이 있느니만큼 簡單한 歷史를 알아둠이 좋을것이다。

本郡은 江華는 南北二十八粁、東西十六粁의 本島와 喬桐、席毛의 二島、그밖의 大小群島로서 構成되어 있다。 漢江、臨津江、禮成江의 出口요、沿海의 潮汐千滿의 差가 三十尺에 達할뿐더러 喬桐島以西로는 暗礁淺洲가 尤甚하고 또 沿岸의 游泥地帶가 많아서 外侵防禦에 地利란 天然的인 要塞이다 結氷期에는 流氷이 甚하여 現代에 와서도 數十日式 交通이 杜絕된 事實이 許多했고 보니 水、陸、空의 交通施設이 不完全한 옛날에는 唯一한 要塞視된것도 無理가 아니다。

이러한 地利的關係로 江華는 國家有事 之秋에는 別都로서의 任務가 賦課졌으며 外寇來侵이 있을때마다 朝廷에서는 遷都、蒙塵地로서 江華을 먼저 생각하게 했던 것이다。그래서 江華는 事實上 高麗期의 國都하기 四十年이었고 그後에도 數次 遷都로서 指目되었든것이니 처음으로 江華에 遷都한것이 高麗、二十三代 高宗이었다。그해 中 大陸에서 得勢를한 新興勢力 蒙古軍이 松京에 侵犯하자 權臣 崔瑀의 勸으로 八月에 遷都했고 次代 元宗도 江都에 머물러 前後 三十九年間江都가 事實上 高麗의 서울이었었다。그後 二十五代 忠烈王은 在位 十七年 十二月에 契丹兵禍를 입어 다시 入江、二年後에야 겨우 松京으로 還都를 한지라 江華는 이 四十年間 事實上의 高麗國都였고 政治의 中心地였든 것이다。

高麗는 이 高宗代의 遷都를 契機로 開京을 廢하고 江華都를 恒久的인 國都로 삼고저 했던모양이다。高宗은 그해 八月(陰六月)에 開京에서 江都로 옮기면서 二領軍으로 하여금 國都의 防禦城인 內城의 築造工事를 이르키는한편 宮殿、毬場、寺社等 舊京 松都에 橫模케하고 宮殿背後의 山에 松嶽이라는 山名까지 짓게 했던것이다。內城이 完了되자 翌年 겨울에 外城을 쌓게했고 二十二年 九月에는 沿岸의 防守를 强化했고 二十四年 十二月에는 外城等을 또 增修했다。

그러나 蒙兵의 勢날로 强化되어 江都防禦도 위태롭게 되자 摩尼山南으로 離宮(興王龍宮)을 마련했고 五月에는 假宮과 穴口寺를 三郎城에 創設、가진努力을 다 했었으나 江都도 蒙兵의 蹂躪한바 되고 太子는 불모(人質)로서 四十六年 六月에 蒙地로 拉致되는等 悲劇이 演出되었던것이다。太子를 蒙地에 보낸채 高宗은 江都에서 天命을 다했고 뒤을 이은것이 二十四代 元宗이다 元宗도 江都를 이어 받을 생각이었으나 蒙古의 壓力으로 이를 實現치 못했으니 江都遷都爾來 四十年間 江華는 國都가 된 셈이다。

그러나 江都의 受難史는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第二十五代 忠烈王 十八年에는 元의 叛賊 哈丹의來寇로、忠烈王도 一時 江華로 避했던일이 있고 麗末의 恭愍王 十年에는 또 紅頭賊亂을 입어 江華 邊都가 論議된일이 있었다。

李朝에 들어와서도 太祖、定宗、太宗의 三代王이 一時的이나마 江華에 遷都한일이 있고 特히 太宗은 江華에 都護府使를 設하여 防備을 强化했으며 十四代 宣祖도 該島防禦에 主力 倭兵을 接迎치 못 하게하여 南北에 敵兵連絡 遮斷에 成功했던일도 있다。丙子胡亂때도 仁祖는 第一次의 亂에서 四十日間 을 江華都로 蒙塵 겨우 亂을 避했었고 南漢山城籠城 四十五日後에 三田渡에서 屈辱的인 媾和條約을 맺은 第二次의 來侵時에도 江華蒙塵이 不如意하여 南漢山城으로 方向을 옮겼던 것이다。

이러한 史實이 十七代 孝宗으로 하여금 城의 修築과 兵糧補充을 强化케했고 十九代 肅宗은 仁祖時代부터의 留守를 鎭撫使로서 兼케 했을 뿐 아니라。鎭堡의强化、增設、鎭間에 墩을 設置하여 各鎭을 分擔守備시키는 制度를 布하고 文珠山城의 築城等 모든 防備를 强化시켰다。

江華島의 受難은 現代에까지 미치었으니 高宗三年의 佛艦事件과 同八年의 美艦事件、同十二年의 日艦事件等、李朝最後의 悲劇을 演出시킨 導火線이 되었든 것은 江華島라 할수 있다。六、二五 共匪들의 南侵時도 江華島의 攻防戰은 凄慘을 다 했었고 現在는 國境아닌 三八線의 接境이어서 高麗山에 오르면 敵들의 蠢動하는것이 肉眼으로도 볼수 있는 位置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듯 別都로서 또는 要塞으로서의 重要한 任務를 가졌든 江華인만큼、別都當時의 王宮을 中心한 古蹟과 遺跡이 全島에 散在해있을뿐 아니라 到處에 勝景이있어 어디을 가나 古王都를 찾는氣分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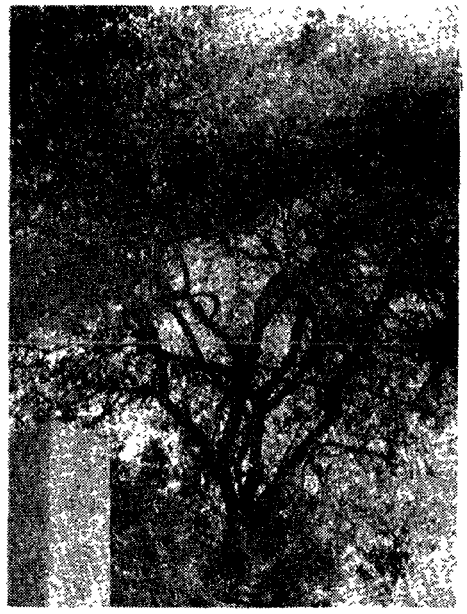
이만한 知識을 가지고 江華를 찾으면 더욱 興味가 있을 것이다。

第二節 古蹟 寺刹

京畿道天然記念物及巨樹名木一覽　其一



高陽　津寬寺　念珠나무



江華　甲串枸橘나무



金浦　櫸木



長湍　大江面　銀杏木



江華　菁門寺　栢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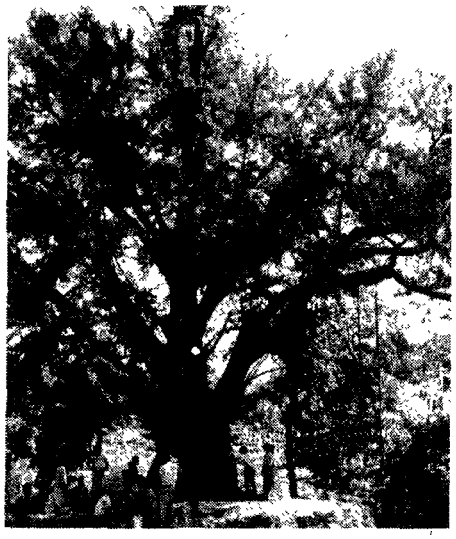


楊平　龍門寺　銀杏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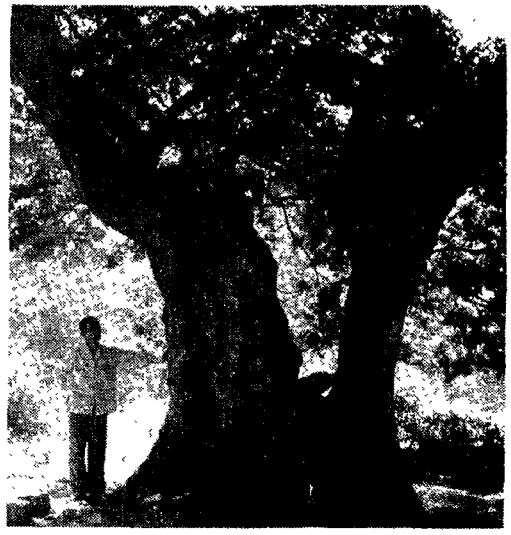


楊州　天竺寺　紫丹香木

京畿道天然記念物及巨樹名木一覽　其二



杏壇洞　銀杏木



楊州　寧國寺址　槐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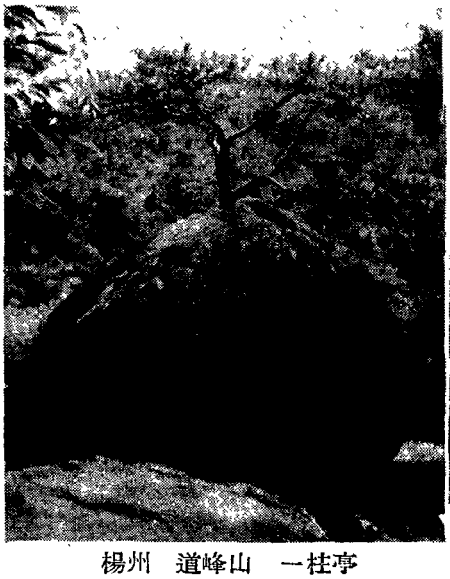
利川　映月庵　銀杏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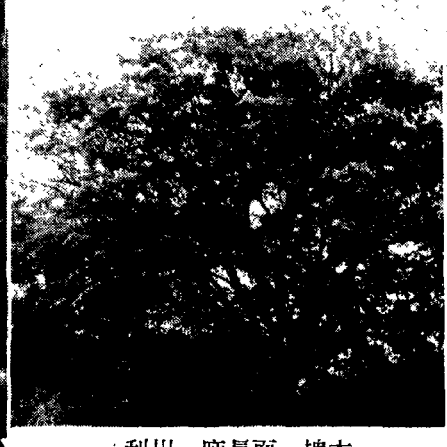
利川　廐長面　銀杏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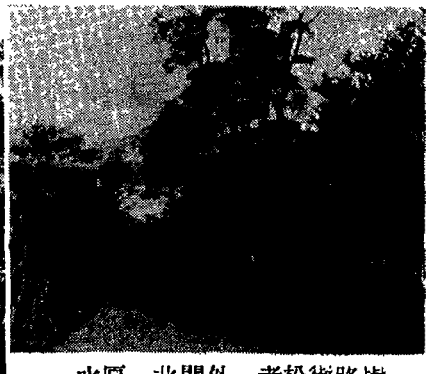
龍仁　器興面　槐木



楊州　道峰山　一柱亭



利川　廐長面　槐木



水原　北門外　老松街路樹

一、塹城壇

塹城壇은 塹星、參星、醜星等、異名으로도 불리어지는 標高 四六七米의 擧尼山頂에 있는 祭壇이다。이祭石壇은 우리의 檀君聖祖께서 代代孫孫이 겨레가 榮華를 누리도록 祭祀하기爲한 祭壇으로 마련하신것이라고 傳해오고 있다。花崗石을 쌓아올리어 上部는 모가지나 下部는 圓桶形이다。上이 四方 各七尺六寸에 下는 十五尺、東西에 層階가 있다。層階數는 二十一段、壇의 總高는 十七尺에 達한다。

이 壇이 築造年代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하고 있어 確實한、記述을 할수는 없으나 槪算해도 四千餘年前 遺物일것이다。日人들은 이 聖祖祭天說을 아모런 根據도없이 否認、默殺하고 있으나 이는 그들이 植民政策上 不得已했을것이。 그들이 主張하는 天文臺說 또는 醜星、觀象等說에도 一理없는바 아니다。 이는 훨신 後世에와서 그位置로나 構造가 天文臺에 適合하므로 이를 併用했으리라 생각된다。이 點은 右記에도 밝혀진바 있거니와 檀君時代의 祭天壇인것은 江華島、特히 이 摩尼山 一帶에 散在해 있는 遺蹟으로 보아 斷案할수 있는것이다。檀君이 三子로 하여금 築城케 했다는 三郎城도 其中의 一일것이다。다만 아직까지도 이어 築造年代가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것이 遺憾이라 할것이다。

壇域은 數千年을 두고 두고 修築되어 온 痕跡이 있거니와 正確한 修築記錄으로서는 李朝 十六代 仁祖十七年과 十九代 肅宗 二十六年이다。

塹城臺는 이렇듯 由緖깊은 歷史를 가지고 있어 考古學的인 價値도 燦然하거니와 이一帶에서의 眺望은 實로 可觀 可賞에 値한다。 奇岩斷崖에 돕니처럼 엇먹어 이루어진 山頂도 奇觀이지만 멀리 本土의 連山、平野의 展望이며 굼에 어린 黃海、聖域도 聖域이려니와 여기에 오르면 이땅의 아들딸로 태어난 幸福을 滿喫케한다。

高麗末 李穡의 詩一首를 紹介하면、

塹星壇　　高麗朝 李穡

山河險如此　壯哉吾有國　絕頂雲氣流
傾崖俯喬木　臨風發長嘯　餘響振崑豆
欲繼蘇門遊　石髓今正祿　日月雨穀輪
宇宙一門屋　此壇非天成　不知定誰築
香昇星爲低　章入氣初肅　祇以答神貺
何曾自求福

江華邑城　　同　人

海山深處一扁舟　行到華山興未休
自古金湯能害德　移都此地誰是謀

二、龍興宮

李朝 二十五代인 哲宗의 潛邸이던 龍興宮은 邑內 官廳里 內需司洞에 있다。棟數는 五호 垈地 三五〇坪에 木造瓦家다。建築의 規模로나 價値로 볼만한것은 못되나 潛邸라하여 保存되어 온것이다。元來는 民家이었든 모양으로 己酉年에 哲宗을 맞게된後부터 龍興宮이라 일컫게 되고 洞名도 宮號를 따르게 된것이다。

現在도 建物은 그대로 있으나 避難民이 들어있어 廢屋 처럼 零落해 버렸다。

三、城　壁

前述한바와 같이 江華島는 高麗朝 二十三代 高麗時代부터 高麗의 別都였든 關係로 離宮、築城等 國都時代의 遺物이 散在해 있다。

高麗 高宗이 松京을 버리고 江都로 遷都하지 않을수 없이 된 這間의 事情을 詳記할수는 없으나 이를 大略 槪要하면 中大陸의 覇者 成吉思汗의 西夏討伐의 끝을 맺지못하고 陣沒하자 그의 뒤를 이은 太宗은 金나라를 치는 한편 살르타이(撒里臺)로 하여금 高麗高宗 十八年 八月 大軍을 이끌고 來寇、十二月에는 松京을 包圍했던것이다。이 來侵으로 高麗는 黃金七十斤。白金 千三百斤、衣類、馬等을 받아가고도 다시

水獺皮 一千領、童男童女 一千名、各種工匠 등을 獻納하여 臣道를 다하기를 要求하여 高宗十九年 四月에 水獺皮 一千枚를 보내고 蒙古皇帝에게 高麗國王은 臣字를 받칠것을 承諾했었다。

그러나 蒙古의 要求는 날이 갈수록 無謀하여 五日에는 國務會議를 열고 和戰論을 討議、一大決戰을 決議했으나 開京 卽 松都를 지키느냐 江華遷都를 하느냐 兩派 相駁끝에 當時 政權을 잡고있던 崔瑀(後에 崔怡)의 主張이 이기어 高宗은 그해 七月六日 開京을 떠나서 江華로 難을 避했던것이다。이것이 高宗 十九年이었고 시달린 三十年間 蒙古軍에 對한 첫出發 이기도 했던것이다。

高宗은江華 遷都를 斷行하면서 內外城을 築造하기 始作했으니 江華內의 三郎城을 除外한 모든城은 高宗 遷都以後의 築造다。

(1) 內 城

內城은 高麗高宗 十九年 八月에 起工한 土城으로 玉林里 塾臺에서 鳳岳과 松岳을 넘고 西門外의 龍藏을 지나서 蓮花洞、南山里에 이르렀다。여기서 다시 仙岩里로부터 大門峴、倉山後山에서 甲串 東方龍津에서 城址가 그치었다。大門峴은 南門、玉林里의 城門峴은 北門、西門外의 僧去門 址가西門이오 東門은 甲串附近인 黑寺洞에 있었다는 記錄이 남아있으나 지금은 南門과 西門이 남아 있고 그中 南門은 四二八八年 六月에 一部가 崩壞되어 人命에 被害까지 입었다。

內城은 高麗朝時代의것과 李朝時代의 內城으로 區別된다。李朝內城은 江華面、新門、宮廳西里를 圍繞되어 있으니 李朝初의 築城은 仁祖때 丙子胡亂으로 많이 傷했던것을 孝宗三年에 修築을 했고 다시 十九代肅宗三年에 留守 許稑로다 여금 大規模의 修築을 시키면서 前面을 築石으로라고 後面을 土築으로 거의 改築하다싶이 했었다。이 內城改築에는 前記한 留守 許稑外에도 朴權、安鎭遠等 歷代留守가 獻身했던 것이다。當時의 規模로 보면 城圍가 一里二十町十五間、雉堞 一千八百三、正門이四에 暗門이四、水門二、城廓九에 城門將廳이 亦是 넷으로 되어

있다。現在는 仙源面 仙杏里에 그遺址만이 남아 있고 李朝時代의 內城은 江華面新門里와 官廳里周邊에 城廓의 一部가 남아있을뿐이오。四門中 남아 있는것이 南門과 西門이다。

(2) 外 城

江都의 外城은 前述한바와 같이 高麗高宗이 蒙禍를 避하여 江華로 遷都하면서 起工한것으로 城廓으로서는 李朝時代에 比하여 規模로나 築城技術로나 遜色이 있다。이 土城은 主로 外侵으로부터 江華를 防禦하기 爲한것이 主眼이였드니 만큼、本島의 海岸을 中心으로 쌓아졌다。外城의 大部分은 高麗時代의 遺物이나 李朝에서도 光海主十年에 撫察使 沈悖을 시키어 土築 或은 修築케 했고 二十一代 英祖二十一年에 甲子에 留守 金始煥으로 하여곰 燔甓으로 改築케 하는데 그치지 않고 補充城의 築造와 修改築으로 이를 維持해 왔던것이다。

築城 當時에는 高가 二十一尺 廣、五尺、樓門六에 暗門이 亦是六門이있고 水門은 十七이나 되었었다。

世稱「萬里長城」이라고 불리어지는 河岾面望月里海岸의 土城은 高麗時代의 城이다。

(3) 三 郎 城

三郎城은 吉祥面 溫水里에 있는 鼎足山中에 있어 鼎足山城이라고도 불리어진다。

城廓의 周圍는 一粁未滿에다 高 七尺으로부터 十二尺이나되는 石城으로 築城年代는 全혀 밝혀져 있지않다。確認된 記錄이 있는것은 아니나 摩尼山頂의 塹星壇에 關한 傳說로 보아 檀君과 어떤 關聯이 있지나 않는가 하는것이 一般學者들의 觀測인것 같다。

어쨌든 이 三郎城이 高麗時代 以前의 築城이였는것만은 確認되어 있다。卽 高麗高宗이 蒙兵을 避하여 江華로 遷都한後에도 蒙兵의 來侵이 甚하여 江華가 다시 危急을 告하게되자 高宗 三十七年 正月에는 漢江河口인 昇天府자리에 假宮을 마련하도록 命令을 했다있다。麗朝에서는

蒙古가 江都에서 松都로의 還都를 强硬히 要求하므로 表面으로는 江都를 버리고 陸地로 돌아오는듯이 보이면서도 一便 中城을 修築하고 假宮을 設計하여 島內에서 떠날생각을 아니하였든것이다。 이 假宮候補地를 「三郎城 및 神泥洞」으로 定했다는 史記가 남아 있는것으로 보아도 그때에 이미 三郎城은 實在했던것을 짐작할수 있는것이다。

이 三郎城의 築造年代에 關하여 野史가 傳하는데를 記錄한다면 檀君이 三王子에게 命하여 이를 築城케 했다는說과 第三王子 한사람한테 이를 쌓게했다는 說의 二種이 있다。 이것이 「三郎」이라는 三字에 附合시키기 爲한 傳說인지 事實 檀君時代의 遺物인지는 考古學的으로도 많은 興味를 끌고있다。

規模는 周圍가 二粁 餘에 城高가 七尺으로부터 十二尺까지이며 雉堞이 七百五에 四個의 城門이 있었고 城門위에는 樓閣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現在는 이樓閣도 城門도 破壞되어 없어지고 오직 出入門 하나가 남아있을뿐이다。 몇千年이나 된 城이것만 그堅固한點으로나 城門의 建築美는 刮目할만하며 高麗朝와 李朝時代의 江都城의 大部分이 土城인데도 不拘하고 古代에 屬하는 三郎城이 石이라는點도 驚異에 値한다。

現存한 三郎城門은 三郎城에 四大門中의 一로서 西門이다。 溫水里에서 傳燈寺에 들때 이西門을 通過하거니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되둑 希臘時代建築을 聯想시켜준다。

城廓의 修築은 두고 두고 行해졌겠지만 記錄에 남아있기는 近世에와서 高宗五年 大院君의 執政期에 大修築을 했다고 있다。

四、高麗王陵

江華는 高麗高宗과 元宗에 걸치어 四十年間 麗朝의 國都이었드니 만큼 麗朝 時代의 王陵墓가 많으리라고 豫想되나 現在 發見되고 있는것은 오직 四基밖에는 없다。 이 發見된 王陵은 李朝二十一代 英祖가 留守 趙復陽으로 하여금 搜索케한것인바 그後에는 別로 發見된것이 없다

發見된 陵墓는、

一、碩陵 二十一代 熙宗陵으로 良道面 吉祥里에 位置한다。

二、洪陵、 二十三代高宗陵으로 高宗은 江都遷都에서 松京에 還宮치 못한채 蒙兵亂中에 陣沒했었다。 位置는 府內面 菊花里다。

三、坤陵 二十三代 高宗妃、元德太后의 陵으로 碩陵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位置에 있다。

四、嘉陵、 二十四代 元宗妃 順德太后의 陵으로 良道面 陵內里에 있다。

그런데 이 發見된 四墓의 陵基가 規模가 너무 적을뿐더러 望夫石에 祭石程度의 施設밖에 없음이 奇異한 感을 준다。 더욱이 高宗은 在位四十年의 長壽를 했고 또 江華島에서 下世하만큼 規模가 좀더 커도 좋을상싶으나 一般 民間人의 富裕層墓와 大差가 없다。 嘉陵이 있는 一帶가 陵內里라는 洞里까지 있고 嘉陵周邊의 廣濶한 잔디밭이 守陵을 爲한 農耕地였다는 說도 있으나 附近 一帶에 散在한 瓦片、 器片等으로보아 寺刹址가 아닌가도 한다。

이렇듯 松京一帶의 陵墓보다 貧弱한 것은 亂中이었든 關係가 아닌가 한다。

五、傳燈寺

本道에서 楊平의 龍門、 驪州의 神勒、 華城의 龍珠와 함께 일컫어질뿐 아니라、 全國的으로 이름이 있는 傳燈寺는 由緖깊은 三郎城內에 있다。 名刹 傳燈은 三十一本山中의 一이것만 아직도 그 開基年代가 밝혀지지 못한만큼 悠久한 歷史를 가진 古刹이다。

傳燈寺의 開基年代에 關해서는 正確한 記錄이 없는代身 全佛宇가 쥐넝쿨에 덮여서 보이지도 않는것을 發見한것이 세차례라는 傳說이 있고 또 高句麗 第十七代 小獸林王 十一年 阿道和尙의 開山이라는 說도 傳해지고 있어 그眞否는 알길이 없다。 小獸林王 十一年이라고 한대도 距今 千五百五十五年前 이거니와 그때 阿道和尙이 처음 開山을 했다는것

인지 취넝쿨에 덮여있는 佛宇를 發見했다는 것인지도 確然치 않다。

이로보아 小獸林王代의 開基라한대도 千五百五十年前의 創建이라 볼 수 있을것이다。그러나 傳燈古刹의 建物의 白眉인 大雄殿은 多分히 高麗時代의 建築樣式을 가추고 있다는것이 學者들의 通說인것 같다。

어쨌든 當寺가 그만한年代를 가진古刹인만큼 修築回數도 많았던모양이다。古記에 남아있는 史實로도 高麗 元宗七年에 第三回째의 修築을 했다고 있는點으로 보아 小獸林王時代의 古刹임도 事實인 듯싶다。그 위에도 約百年을 經過하여 二十七代 忠肅王(一三一四——一三三八)때 修築을 했고 次代인 忠惠王代와 三十代 忠定王代에도 修築한記錄이 남아있다。

李朝에 들어서도 仁祖三年 乙丑과、 隆熙丙午에 大院君이、 그리고 倭政間에도 二回나 손을 보아 오늘에 이르고있다。

이 傳燈寺의 이름은 寺史에 依하면 高麗二十五代 忠烈王의 元妃 貞和宮主가 同寺에 玉燈을 施捨한데서 생겼다하여 高句麗 小獸林王代의 阿道和尙의 開山時에는 眞宗寺 였다는것이다。

傳燈寺는 名刹이오 古刹인點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寺境一帶의 勝景에는 누구나 한번 들었갔다가는 나오기를 싫어할 程度다。三峰이 屹立하여 鼎足의 이름이 있거니와 鼎足三峰이 흘러나린 幽玄한 골짝이 山麓에와서 산태미 안 같은 盆地를 이루었다。이盆地 上頭部에 百二十餘間의 大伽藍을 이루었다。寺史 幾千의 햇수를 헤아리니 寺境一帶의 樹木 또한 어릴道理가 없다。年輪조차도 알길없는 老松老槐에 우짖는 괴까마귀의 年輪 또한 어려지 않다。뻐꾹이 소리 깊은골에 울리는가하면 山비들기、深山의 情緖 한겹 더 돋구어준다。새인지 솔방울 인지도 분간키 어려운 솔새의 재제귀는 소리는 恰似 바위틈을 흘러나오는 산골물 소리다。寺庭에서 울려다 보는 鼎足의 으젓한 모습도 좋거니와 樹海속에 묻친 傳燈을 山頂에서 굽어보는 情趣도 비길데가 없다。은은이 퍼려오는 木鐸의 念佛소리에 저도 모르게 合掌이된다。봄의 傳燈도 좋지만 綠陰節의 傳燈도 좋고 丹楓피는 가을의 鼎足山頂에서 멀리 黃海蒼波의 眺望도 絶景이다。

그러나 傳燈의 特色은 달밤이리라。豊年을 謳歌한다는 소쩍새 소리는 님 그리워우는 哀切한 울음소리다。밤이 깊은는도 모르고 울어대는 소쩍새 소리에는 그대로 지쳐언 피덩이가 쉬여 나오는듯 싶다。

佛宇로는 高麗時代의美의 極致를 다한 大雄殿을 비롯하여 藥師殿、冥府殿、三聖閣、講說堂、寂默堂、香爐殿、對潮樓에 極樂庵等 十棟에 百二十餘間이다。

이제 同寺內의 塑像、帖畵、等 史實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塑像

名稱	數量	品質	位置
毘盧遮那佛	一	木製塗金	大雄殿
盧舍那佛	一	木製	〃
釋迦牟尼佛	一	〃	〃
藥師如來	一	石製塗粉	藥師殿
地藏菩薩	一	木製塗粉	冥府殿
道明尊者	一	〃	〃
無毒鬼王	一	〃	〃
冥府十王	一〇	〃	〃
鬼王	二	〃	〃
判官	二	〃	〃
錄事	二	〃	〃
將軍	二	〃	〃
童子	一〇	〃	〃

名稱	數量	品質	位置
後佛幀	一	紙入絹入歟	大雄殿
現王幀	一	〃	〃
神衆幀	一	〃	〃
後佛幀	一	〃	藥師殿
神衆幀	一	〃	〃
獨聖幀	一	〃	三聖閣
七星幀	一	〃	〃
山神幀	一	〃	〃
後佛幀	一	〃	冥府殿
十王各部幀	四	〃	〃
使者幀	一	〃	〃
觀音幀	一	〃	香爐殿
彌陀幀	一	〃	大房奉安
瑞雲影	一	〃	法堂

이렇듯 많은 寺物外에 特히 寺寶로서 들만한 것은 經板이다。이經板은 우리의 最大자랑인 海印寺 八萬大藏經의 前身이니 現在는 百五枚만이 保存되어 있다。

李穡의 偉燈頌一首를 붙인다。

偉燈寺　　高麗　李　穡

脫屣登山興自淸　　偉燈老釋尊吾行
窓間遠岫諸天列　　樓下長風吹浪生
星歷蒼茫伍太夫　　雲煙縹緲三郎城
貞和願幢更雜植　　壁記塵昏傷客情

六、史庫址

우리民族文化의 白眉的인 存在인 海印寺 八萬大藏經의 發祥地는 江華다。高麗 高宗以後 元宗에 이르기까지에 前後六次에 걸친 蒙古의 來寇는 實로 三十餘年間 우리겨레로 하여곰 災禍와 兵火속에 살게 하여 그物的、人的資源의 消耗는 이로 枚擧할수 없거니와 이 野蠻的인 侵寇로 하여 잃은 文化財란 實로 莫大한바 있었든것이다。이 烏有化와 많은 文化財中에서도 特記할만한것이 羅代以來의 最大 國寶的 遺物인 慶州 皇龍寺의 九層塔과 高麗 八代 顯宗(一〇一〇—一〇三一)때 刻藏하여 大邱 八公山 符仁寺에 간직 했던 大藏經板이다。

이 兩者의 文化的、藝術的 價値는 여기에 再論할必要조차도 없거니와、蠻兵蒙古軍은 高宗二十三年에 大藏經板을、同二十五年에 皇龍寺 九層塔을 불살르므로서 우리의 士氣를 꺾으려 했던것이다。이兩寶의 灰化는 實로 世界文化의 損이였든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蠻行을 敢行하는 蒙古兵과 白兵戰을 展開하면서도 우리의 祖上들은 이 兩寶의 再建을 眞摯하게 討議했었다。그리하여 드디어 決心을하고 大藏經板의 再刻造에 着手했으니 高宗二十四年 (西紀一二三七)。江都에다 藏經都監을 두어 十六年이란 歲月을 바치어 이를 完成했으니 同 三十八年이였다。이 곧 오늘날 海印寺 所藏인 八萬大藏經이다。이 刻板은 實로 八萬一千一百三所七枚에 達한다。(皇龍寺의 九層塔은 끝내 再製치못하고 말았으나 이는 技術不足이기 보다도 東京(慶州)에서는 武臣亂以後 많은 民亂이 接踵했기 때문에 東京 自體가 廢京 狀態이였는데 起因한다고 한다。

그것은 어쨌든 國土안에 蠻兵을 들여놓고 每日 激戰을 展開하면서 이만한 大事業을 十六年이란 短時日에 完成한 우리祖上의 偉大한 强毅性과 天才的인 創造力에 우리는 嚴肅하게 感謝를하고 또 배워야 할것이다。水陸의 交通機關이 不備한 그때 이 많은 刻板을 海陸二千里길을

海印寺까지 輸送한데도 머리가 숙어지지 않을수 없다。

傳燈寺 後側 山麓에 있던 史庫도 實로 이 大藏經刻造로 關係되었다 할수있으니 當時의 建物로는 璿源閣、藏史閣이 있어 璿源閣에는 李朝 璿譜를 藏史閣에는 李朝歷代의 史錄을 保存해온것이다。

上記 兩建物은、李朝 第八代 顯宗元年의 建造로 次代 肅宗代에 留守 黃欽之로하여금 改築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兩建物以前에도 여하에 史閣이 있던것이 壬辰倭亂때 倭의 必死的인 우리文化의 灰化政策으로、歷代實錄等의 珍貴史書를 秘藏한 四史庫中、忠州、春秋館、星州의 三史庫가 타고 오직 하나남았던 全州 史庫의 秘藏史書를 寧邊 妙香山 史庫로 옮겼다가 이를 다시 江都 摩尼山史庫로、그리고 또 지금의 傳燈寺 境內의 鼎足山 史庫로 옮긴것이 四百餘年前인 點으로도 알수가 있거니와 顯宗 보다도 二代위인 仁祖代 丙子胡亂의 兵火를 입어 史庫의 史記 四十七冊이 燒失되었다는 記錄이 江都誌에 남아있기도 하다。

이렇듯 史庫로서 끝끝내 남었든것은 이 傳燈寺內의 史庫뿐이었든것을 國權이 잃어진날、倭는 이 由緖깊은 우리의 民族魂이 어려져있는 史庫를 헐어버리어 지금은 그遺址위에 雜草가 욱어져 있다。佛艦事件으로 江都에 侵犯했던 佛兵이 掠奪해간 史記는 邑圭章閣 에서였다。

七、梁憲洙 戰勝碑

傳燈寺境內 碑閣內에 碑石이 있다。이것이 佛蘭西艦隊事件으로 江華에 上陸、全島를 蹂躪하던 佛兵을 殲滅하여 退却케 한 梁憲洙公의 戰勝記念碑다。

佛艦事件의 發端은 韓末에 政權을 잡았던 攝政 大院君의 鎖國政策과 佛의 天主敎徒大虐殺이 契機된것이니 一八六六年 舊正月九日 天主敎徒의 首領格인 洪鳳周집에서 密談中인 主敎 베르너와 敎徒一黨을 逮捕하는한편 全國의 敎徒도 斬首慘刑하여 이것이 佛極東艦隊에 傳해지자 朝鮮을 膺徵하고저 江華島에 來襲한것이다。佛艦의 第一次來襲은 그해 九月二十日이다。그러나 佛艦은 水路도 모르고 朝鮮國의 兵力에 對한 知識이 없었든터라 示威만하고서 退却을 하자 大院君은 意氣揚揚하여 佛軍을 넘보고 斥洋思想을 鼓吹하여 佛艦의 第二次來襲을 招來했으니 그해 十月十三日이다。中軍 梁憲洙의 鼎足山에서의 大勝捷은이 第二次 佛軍上陸으로 因한 江華作戰에서다。佛軍의 兵力은 軍艦七隻에 海兵、陸戰隊를 合한 二千五百名에 現代式 新武器를 갖고 있었으나 알볼수 없는 兵力이었다。

이에 對한 我의 防禦陣을 보면、다음과 같다。訓練大將 李景夏 指揮下에 있는 八千은 首都 서울을 맡고、

二、先鋒將 李容熙로 하여금 三千으로서 通津을 中心한 富平、濟物浦(仁川)을 防備케하고

三、江華守備兵力은 總勢六千으로 韓聖根은 文殊山城、梁憲洙는 鼎足山을 擔任、

四、總戎師 申觀浩의 召募侍 李元熙가 楊花津、 京畿中軍 白樂賢이 幸州山城、防禦侍柳琓이 坡州、都護侍 申肅이 長湍、招討使 韓應弼이 延安을 各各分擔하고 應接態勢를 가추었으나、陰 九月七、八日 兩日의 戰鬪에서 江華城이 문허져 南門으로 大擧入城을 하고 말았다。

這間戰鬪經過에 關해서는 直接關係가 없으므로 略하거니와 江華陷落으로 因한 우리의 被害는 莫大한바 있었으니 大砲와 其他의 砲가 都合 八千門、火繩銃一萬挺 火藥、綿布、陶磁器、鹽類、米穀、馬蹄、銀等 四十九、七千프랑、珍書 三千卷、古代史 六十卷 大理石에 篆刻된 金字象眼의 特別印章、玉璽九個等 實로 列擧할수 없을程度였다。

梁憲洙가 守備하는 鼎足山城에의 攻略戰이 벌어진것은 그해 陰十月 三日이다。佛軍의 總指揮官인 로ㅣ제提督은 十月一日 六十名의 偵察隊를 鼎足山城에 派遣、兵力과 防備施設을 密偵케 했든바 山城은 空城이나 진배없다는 報告를 받었던것이다。

그러나 鼎足山城은 空城이 아니었다。中軍 巡撫千摠인 梁憲洙는 空城인것처럼 보이기爲해서 江界의 名砲手 八百名을 全部 老松위에 숨겨두고 來襲을 기다리고 있은것이다。

이 戰鬪는 實로 痛快했으니 佛國軍은 鼎足山城에서의 慘退로 總退却을 하지 않을수 없었든것이다。이記錄은 從軍했던 佛의 리벨神父의 手記에서 찾아보면 더욱 興味가 있다。

리벨神父 從軍記

「——前略、로-제提督은 一六〇名의 兵으로서 迅速히 鼎足山城을 占領케하려 했다。나는 通譯의 任務를 맡고 있었다。우리가 早朝 六時(陰十月三日이니어두었다)에 出發하여 斥候에는 本隊로부터 얼마 떨어지지않은 距離를 前進하고 補給을 爲한 三四의 말이 뒤따름아을 뿐 砲兵을 거느리지 않은것은 失策이었다。(中略)山城을 쳐다보니 位置는 四峰間에 城壁이 둘러쌓인 標高 四百米의、天險之地 였다。때는 이미 十一時를 지난지라 모두 요기하기를 바랐으나 提督은 山城을 占領한後 釋尊의 宮殿(傳燈寺)에서 午饗을 즐기라고 하였다。우리가 山城에 接近했을때 韓國軍 一名이 나려오는것을 보았다。我兵이 이에 三發을 쏘았으나 照準이 틀리어 逃走하고 말았다。山城과의 距離는 四百米에 不過했다、山城은 죽은듯이 고요하다。進擊命令이 나리어 城門百米까지 接近했을때 突然 銃聲이 비오듯 쏟아져서 우리는 退却치 않을수 없었다。(中略)——我軍은 八十名이 남았을뿐이었다。(以下略)——」

이 리벨神父의 記錄에 나타나 있듯이 이 鼎足山城戰에서 佛軍은 死者六、負傷者 三十餘名을 내고는 士氣가 低落하여 外交交涉때마다 나폴레온三世의 名譽를 내어 세우던 로-제 提督도 苦杯를 마시고 退却치 않을수 없었든것이다。

이戰記를 碑文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梁公戰勝紀念碑文

「上之三年 丙寅九月 洋匪入寇江華 賊勢漸益猖獗 巡撫使李公景夏、在中調發 中軍李公容熙 千摠梁公憲洙 在陣于通津岑。梁公不顧身 率別軍官李基赫 李鉉奎、李秉淑、哨官 李濂、金基明 李大興 行軍執事 異海鎭、池鴻寬 山砲手五百 十月初一日夜 渡孫乭項 入據鼎足山城、初三日 賤逼城下 梁公勵氣督戰 銃砲齊發 賊無先墜 諸夷僵死 輿尸而走 公乃克復府城 撫綏兵民 一境安堵(下略)……?」

八、靑蓮寺

靑蓮寺는 江華邑에서 約七粁地點인 菊花里 高麗山麓에 位置한다。이 高麗山은 四三六米의 標高로 高麗 高宗이 江華로 遷都하면서부터 생긴 山名이다。松都의 高麗山名을 딴것이다。

寺史를 들어보면 高句麗 第二十代 長壽王 (四一三——四九〇)三年 丙寅에 天竺 異人의 開山으로도 되어있고 傳說로서 傳해지고 있는바에 依하면 高麗 忠烈王代에 天竺祖師가 高麗山頂에 올라 靑、白、紅、黃 赤의 五色蓮花를 뿌리어 그 꽃이 떨어진자리에 創寺를하고 寺名도 꽃빛에 따라서 지었다고도 한다。이 高麗山頂에는 큰 蓮塘도 있었다는것이나、오늘날 그 비슷한 자리는 보이나 蓮塘址라고는 볼수없다。

그러나 現在 남아있는 寺刹에 이 靑蓮寺와 白蓮寺가 남아있고 積石寺의 積도 赤의變音 이라는 一說도 있으나 모두가 믿기어려운 이야기다。

創建年代는 亦是 高麗二十五代 忠烈王 代로 보는것이 옳지않을까 한다。創建以後로는 이렇다할 文獻이 남아있지 않고 李朝 二十三代 純祖二十一年 辛巳에 比丘尼 包謙이 이를 重修했다는 記錄이있고 隆熙三年 乙酉에 亦是 比丘尼인 辛善慧、李根訓等이 오늘의 新山閣을 新築、檀紀四二六九年 丙子에 住持尼 黃淨賢이 本寺를 重修했다。

佛宇로는 山神閣、大房、寮舍의 三棟으로 四十七間이며 寺藏品으로는 鐵製梵鍾이 있으나 크기도 二尺未滿에 圍가 四尺에 不及할뿐만 아

니라 約三十年前의 製品이어서 보잘것이 없다。木製塗金인 阿彌陀佛、土製塗粉한 那畔尊者、獨聖幀、神衆幀、十王、現王、甘露、七星、山神等의 諸幀이 있다。

參考로 江都誌 靑蓮寺條를 拔萃하여 둔다。

「寺在國淨洞天하니 絕嶂回抱에 林泉이幽佳다。其上은 圓通庵이니 俗稱國淨上寺라 皆尼僧所居요 其寺在國淨洞故로 靑蓮、圓通寺名보다 國淨僧房俗稱이 益彰云云。」

이 江都誌에 나오는 圓通庵은 純祖七年 丁卯에 比丘尼 采化의 初搆後 哲宗때 比丘尼 竺洽이 再建했고 高宗 光武元年 丁酉에 比丘尼 高仁福이 一次 重修했고 四二六五年에 二次 重修했던것이다。

七星閣도 高仁福의 所建이다。同庵에는 七星閣外에 法堂、寮舍、等 二十三間의 建物이 있다。

九、白蓮庵

白蓮寺도 靑蓮寺와 함께 高麗山麓에 있다。創寺史는 靑蓮과 同一하게 같은 傳說이 傳해지고 있다。創建、重修 等의 記錄이 別無하나、그러나 當寺에서는 高句麗 長壽王四年 天竺祖師의 開山으로 밀고있으며 高宗 光武九年 乙巳에 忍庵和尙이 大重修를 加했다。

建物로는 七星閣、大房、寮舍、附舍等 三十六間으로 佛像으로는 阿彌陀佛外 十像이있고 梵鍾 一個가 있으나 佛像은 靑蓮寺와 비슷하고 梵鍾도 高貴한것은 못되나、東西南 三方에 連山 連峰으로 勝前眺望이 奇勝이다。眼下連峰과 깊은 골짝을 樹雲이 덮고 濃霧가 마지 沙場을 聯想시킨다。눈을 들어 北을 보면 茫々大海가 展開된다 權韓頌詩에 「不識招提路 天寒雪滿山、忽看煙起處 知在亂松間」이 있어 보지못한 이의 詩情을 돋구어 주고 있다。

一〇、積石庵

積石寺의 所在는 內可面古川里로 亦是 高麗山 南麓에 位置한다。寺史에는 高句麗 長壽王 四年 天竺祖師의 開山으로 알려져있고 數次는 重修를 거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제 重要한 重修記만 뽑아도、

一、中宗 三十九年 甲辰에 寺僧이 佛殿을 重修

二、宣祖 七年 甲戌에 寺僧이 佛殿을修理

三、同 二十六年 癸巳에 比丘 妙淨이 禪堂을 重修

四、仁祖 十二年 甲戌에 比丘 三昌이 佛殿重修

五、仁祖 十七年 甲辰에 比丘 靈允이 僧堂重修

六、同 二十二年 甲申에 比丘 妙淨이 樓閣을 重修

七、肅宗 三十一年에는 比丘 學均이、三十三年에는 寺僧이 樓閣을 各各 重修했다。

建物로는寮舍一棟뿐이다。寺境의 仙景은 江都誌에 까지 남아있다。寺境西에 本島最高峰인 落照峰이 있어 이에 올라 西海의 落照를 求景하는것이 古來로 有名하다。黃海의 地平線이 붉게 色을고 碧波위에 海棠花로서 다리를 논듯 싶다。斷崖絕壁에 老松이 鬱蒼하니 海潮音과 松籟의 合奏가 神秘한 音律을 자아낸다。

寺境內에 一淸泉이 있다。차고 맑은것은 山中靈泉이고 보면 常例겠지만 國家에 災難이 있기卽前에는 물이 말르거나 흐리거나 해서 먹을수가 없다고한다。乙巳條約은 勿論 六、二五卽前에도 濁해서 먹지 못했다고 傳해지고 있다。

一一、普門寺

本島의 二大靈島中의 一인 席毛島에 있는 千年古刹 이라는 한마듸로서 普門寺의 由緖깊음과 寺境의 勝景을 想像할수 있을것이다。席毛島의 主峰인 洛迦山 自體가 陸、海의 美의 精髓다。

寺史에 依하면 普門寺는 멀리 新羅二十七代、善德女王(六三二——六四七) 四年 乙未에 懷正大師의 創建으로 되어있다。그後 純祖王 十二年에 寺僧이 本寺를 重搆했고 高宗 四年에 京山僧이 羅漢閣을 初搆、同三十年에는 閔妃의 傳敎로 寮舍와 客室을 重建、檀紀四二五一年 戊午에 金大圓이 觀音殿을 重修했으며 四二六五年에는 主持 裴善周가 客

室七間을 初搆、同八八年에 裴住持가 羅漢法堂을 一新重建해서 오늘의 面目을 維持하고 있다。

佛宇로는 法堂、靈山殿、大房、寮舍、客室等 三十六間이며 本寺의 名物일 뿐아니라 本道에서도 類를 보지못하는 石窟이 있어 釋迦牟尼佛 彌勒菩薩、提華伽羅菩薩、羅漢聖衆、那睒尊者等이 石窟안에 奉安되어 있고 其他二十餘點이 保存中에있다。

江都誌에 依해보면、普門寺는 南踰十五町 可量부터 寺境을 이루고있다 했고洞壑幽邃에 滄海가 앞을가리고 奇岩異石과 茂林淸泉이 있으니 이 곧 普門洞 이라 했다。이 江都誌에도 當寺寺境의 風光美가 엿보이거니와 寺境背後로 無慮、四五百尺은 됨직한 무지개 같은 眺望絶景의 僧岩을 둥지고 寺境一帶를 千古의 原始林이 덮고 있다。寺庭에서 바라보이는 黃海碧波의 眺望을 여기에 加하면 글자그대로 絶景의 極致라 할것이다。

羅漢殿 들앞에 있는 名木 柏槇의 樹齡은 約三百三十年으로 推算되며 風采좋은 貴老人과 같은 美를 發揮하고 있다。다지 얻어볼수없는 珍木이라 할것이다。

(1) 神道窟

神道窟은 普門寺內의 石窟로 一名 羅漢殿으로 불리어진다。이는 이 石窟前殿內에 十八羅漢이 安置되고 있는데서 由來한것이다。한장의 花崗岩이 지붕이 되어 窟內에 數百名이 들수있을만한 廣窟로 되어있다。「穹窿淸淨하여 可入數百人에 靈泉이 있어 湧灣岩穴而下成溪澗……」云云은 江都誌記의 一節이거니와 이 石窟의 奇妙는 迷信까지 낳았다。十八羅漢에 치성을 올리면 所願成就한다는 것이다。羅漢像 앞에 釋迦佛과 十八羅漢像을 拜列했고「有梅檀一樹、盤屈可愛、樹下疊石爲塔、列怪不及小佛像」이라고 江都誌에도 記錄되어 있다。이 壇에의 祈願으로 血肉없는 婦女도 得子한다고 믿어지고 있다。

(2) 千 人 石

壯觀이라 했고 普門疊濤가 江都 十景之一이라 하고 있거니와 石室은 江都 三奇之一로 일컫어오고 있다。

이 盤石의 削岩岩壁에 石佛이 彫刻되어 있다。그 高五丈에 이른다 하면 이 石佛像이 壯함이 想像된것이다。그 밑으로 舟形의 岩石들이 있어 海上 艇舫에 比하여 龍船이라고도 불려지고 千人臺는 拜席臺라고도 불리어진다。拜席 또는 拜石의 名稱은 佛像彫刻以後의 일 神道窟北岸에 아슬아슬하게 나려다 보이는 千崖絶壁이 있다。바위라기 보다는 岩山이라는 느낌이든다。이 岩壁위에「可設百座」의 一岩席이 마련되어 있어 千人臺의 稱이 있다。千人이 앉을수 있다함은 지나친 表現이나 可히 百席을 마련할 만한 넓이다。

이 盤岩의 奇도 可賞이거니와 이 盤岩上에서의 眺望이 더욱 珍과 奇를 다 했다。江都誌에도「寺門前은 海色」이라 되어있다。

一二、淨 水 寺

新羅時代의 開基로 傳해지고 있는 古刹 淨水寺는 華道面 沙器里 摩尼山 東峰밑에 자리잡고 있어 寺院一帶가 天然的인 勝景을 이루고 있다。

寺史를 들치보면 新羅 第二十七代 善德女王八年 乙亥에 懷正禪師의 開山이라 하며 그後 廢頹一路를 밟아오다가 李朝에 들어 第四代 世宗大王八年에 涵虛師로 하여금 이의 本格的인 重創으로 面目도 一新 했고、末葉에 이르러 二十四代 憲宗十四年 戊申에 化主尼洪無萬興等이 重修를 했다。高宗代에만도 癸未年과 癸卯、乙巳 三回에 걸치어 이의 重增修를 했으니 山靈閣은 高宗 光武七年 癸卯에 化主尼 淨一의 新等으로 된것이다。

佛宇로는 大雄殿、山靈閣、旃殿等 四十九間이오、佛像、鐘等은 他寺와 별 다른것이 없다。

이제 江都誌 淨水寺條를 引用하면

「淨水寺 在摩尼山東峰下 北距沙器里 洞壑幽邃 水石淸佳 寺較建 未詳何

代 麗末 元國道釋 涵虛得通 (元朝翰林學士)來住鍊道 得通久不歸 其妻航海尋到淸興同歸 得通不應 其妻沈死化爲石 今寺前極浦中 有叢石萃立 世稱閣氏岩云云……」淨水寺名은 寺內 甘泉에서 由來한듯요다。

一三、瞻華樓(西門)

邑內 官廳、新門、菊花三里의 境界地點에 있어 通稱 西門이라고 한다。建造年代는 李朝 第十九代 肅宗 三十七年으로 建造者는 當時의 留守閔鎭遠이다 同樓의 額題도 閔氏의 筆이다。門樓의 高 二十七尺、幅이 三十二尺、長이 十六尺에 建坪十五坪으로 樓上에 오르면 市內一帶를 鳥瞰할수있다。오늘까지 建造當時의 面貌를 그대로 維持하고 있음은 正祖二十年에 留守金履翼의 大重修에도 있지만、六、二五에 面內 有志들이 蹶起하여 關係當局과 協助、이에 大修築을 했기 때문이다。

瞻華의 華는 곧 中國이니 事大思想의 좋은 標本이다。이 慕華的인 文字를 여기에 나타낸 裏面에는 우리 先祖들이 慕華思想에 아주 젖어 버린 痕跡이 있으니 肅宗 三十七年이라면 丙子胡亂으로 부터 五十年後요。더욱이 이西門바로 뒤가 胡軍과의 屈辱的인 和戰을 맺던자리니 史記에 江都西門에 成壇하여 誓約文을 交換했다는 記錄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다。

이제 이 西門과 關聯이있는 丙子胡亂史를 拔萃하여보면、仁祖 五年 丁卯(西紀 一六二七年) 正月에 第一次 侵寇를 한 後는——卽 胡軍의 大擧 侵略으로 黃海道一帶를 席捲했든때다。當時 仁祖大王은 漢陽死守의 强硬論者를 물리치고 江都로 옮기어 和戰兩者中 擇一을 하기爲하여 重臣會議를 열고 있었다。江華島에서 敵陣인 黃海道 平山까지는 百餘里의 相距밖에 되지 않았고 留都 大將인 金尙容은 胡軍이 서울에 侵入함을 알자 敵手에 軍糧은 넘겨줄수는 없다고 御庫의 糧米는勿論 其他 軍糧庫에 불을 질러서 灰化시켰고 鷺梁津에 備置했던 非常米 千餘石도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다。

이를 본 敵이 副將 劉海를 江都에 보내어 和戰은 提議하자 또豪言壯談이 始作되었다。大部分의 重臣들은 아모런 計策도없이 最後의 一人까지도 싸워죽자 했지만、崔鳴吉、金瑬、張維等이 和戰을 主張 甲論乙駁끝에 仁祖도 崔의 進言을 받아들이어 劉海를 接見한바 劉海의 和平條件이란것이 또 늘라웠다。敵은 그卽前에 提出한 降服條件인

一、土地를割讓할것、
二、將兵 一萬으로서 自己네의 南朝討伐에 參戰시킬것、
三、우리나라에서 쓰고있는 明의 天啓年號를 廢止할것、
四、王子를 質子로 胡陣에 보낼것、

等을 要求하여와서 朝廷에서는 다시 重臣會議를 열고 一項은 無條件 들기로 하고 四項의 王子立質件은 王子代身 王의 일가되는 元昌令 覺을 王弟로 꾸미어 階級을 君으로 올려서 李弘望을 使者로 삼아 平山 敵陣으로 보냈었다。白佇布와 虎、豹皮等 禮物까지도 가추었었다。

이리하여 我方에서는

一、後金軍은 平山서 一步도 南下하지 말것、
二、和約成立日로부터 一晝夜以內로 撤軍을 할것、
三、撤兵後에는 다시 鴨綠江을 건너오지말 것、
四、兩國은 兄弟의 誼를 맺을것、
五、但、朝鮮이 後金國과 親善함은 明에對한 背反이 아님을 認識할 것、

이러한 條件으로 敵副將 劉海는 十三名의 同族人을 帶同하고 我側의 宰臣들의 合席裡에 西門뒤에 壇을쌓아 敵側의 要求대로 白馬、黑馬 두 匹을 잡아서 그피를 마시면서 하늘에 祭祀를 지냈던 것이다。後金의 誓約文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두나라가 이미 和親을 맺었으니 以後부터는 同心協力할것인데 朝鮮이 萬一 後金을 원수라고 생각하여 다시 兵馬를 整理하고 城堡를 쌓아 不良한 마음을 가진다면 皇天께서 禍를 나려주실것이오며 만일 한편 後金나라의 두 王子가 不良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皇天께서 또한 禍를 나려 주옵소서。萬一 두나라 임금이 同心協力하여 公道를 갈이 힘써 간다면 龍天이 保祐하사 福을 萬萬年이나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後金國이 宣誓文이었고 我國의 宣誓文은

「……朝鮮나라에서는 인제 丁卯年甲辰月庚午日(三月初日)에 後金나라와 誓約하느니 우리 두나라가 이미 和好를 定하여온바、이후에 두나라가 各各誓約을 遵守할것이며 各各 國土를 지킬것인데 만일 우리나라가 後金나라를 원수로 생각하여 和好條件을 違反하고 군사를 이르키어 征伐을 行한다면 皇天께서 禍를 나려주옵시고 萬一 後金나라가 또한 不良한마음으로 和好를 背反하여 다시 侵犯하여 오는일이 있다면 亦是 禍를 나려 주옵소서。

두나라 君臣이 各己 善心을 지킴으로 인하여 같이 太平을 누리려 하오니 皇天、后土、嶽瀆等의 神將님들은 이盟誓를 살펴 주옵소서……」

이 和平條約이 맺어진자리가 지금의 西門바로 뒤다。和好條件中에 도 明에의 背反이 아님을 抑入했듯이 이 瞻華의 二字는 慕華思想의 端的表現이 아닐수 없다。

瞻華樓門의 位置가 이자리에 된것이 偶然인지는 모르겠지만 事後 五十몇年 밖에 되지 않았으니 만큼 當時의 留守 閔氏가 明을 두고 胡와 友好條件을 맺은 이자리를 意識的으로 골랐던지도 모른다 하지 않을수도 없다。

一四、曇 波 樓(南門)

南門인 曇波樓는 新門、南山里의 境界地點을 占有하고있어 그規模로나 規格으로나 西門과 거의 同一하다。建造年代와 建造者도 西門、建造者인 肅宗代의 閔鎭遠留守이고 額題만은 耳溪 洪良浩의 書다。

現況은 六、二五後까지에도 元形을 維持해 왔었으나 四二八八年 五月豪雨로 崩壞되어 隣家住民에 犧牲者까지 났든 不詳事가 생기였다。

方今 有志들과 當局에서 改築推進中에 있다。

南門은 前後二回의 丙子、丁丑 胡亂을 通하여 忠義의 龜鑑인 仙源金尙容公이 殉國한 由緖깊은 자리니、第一次 胡軍의 來寇時에 留都大將이던 金尙容은 丁丑胡亂때에는 都檢察使 金慶徵과 더불러 宗廟、社稷、神主를 뫼시고 瀋宮、元孫、鳳林、麟坪兩大君과 함께 江都에 가있었다。丙子、丁丑胡亂을 通하여 가장 主戰論者요 最後까지 祖國과 運命을 같이한 金尙容에게는 또 兄만 못지않은 實弟 金尙憲이 있었으니 兄이 江都의 陷落을 보고 南門위에 火藥을 쌓아놓고 불을질러 殉國할 그지음 金尙憲은 仁祖와함께 南漢山城에 들어 和戰의 崔鳴吉一派와 피비린내나는 鬪爭으로 主戰을 提唱하고 있었다。

그때 崔鳴吉은 상감과 卑怯한 重臣들을 和戰으로 이끌어、

「朝鮮國王 上書于 大淸皇帝 至於出城之命 實出於天覆之下 然 念重圍未解 帝怒方盛 在此亦死 是以瞻望龍旆分死自決 皇帝方以天地生物爲心 則小邦豈不當獲預於 全活之中哉」

라는 淸國皇帝에의 答書를 보고는 박박 찢어 버린것도 이 金尙容의 아우 金相憲이었든것이다。淸帝의 龍旆를 바라보고 죽기를 작정하오니 天之生物로서 마음을 삼아달라는 哀願의 글이니 金尙憲이 怒함도 無理가 아니다。「裂之者不可無 拾之者不可無」라는 崔鳴吉의 辯明이 나온것도 이때의 일이다。

當時 金尙容이 江都에 들었을때의 最高司令官은 前記한 金慶徵이었는데 金慶徵은 領議政 金瑬의 實子로서 아비의 權勢만 믿고 入都하는 卽時로 防禦에는 怠慢하고 오직 酒池肉林에 잠겨 酒宴과 獵色으로 날을 보내었다。이에 분개한 部下들이 그非를 進言하자 虛僞報告로서 民心을 動搖시킨다 하여 斬刑에 處하는等 豪氣를 부리다가 開城을 하고 逃亡을 했던것이다。

이를 본 當時 領中樞府事 金尙容公은 일이 이미 그릇났음을 깨닫고 南門위 火藥덤이에 올라 앉아서 悠悠히 담배를 붙이고 그불로 引火를

지키어 殉國했던것이다。여기의 南門은 舊南門일것이에 지금의 南門은 公의 死後 五十餘年만인 肅宗代 建築이다。

(此項 金公忠義碑條參照)

丁丑年 胡亂때 江都陷落과 때를 같이하여 殉國한 仙源 金尙容公의 忠義碑閣은 邑內 官廳里에 있다。이 碑閣은 公의 第七代孫인 當時의 留守金邁淳이 赴任하면서 先祖의 遺德을 追慕하여 그爲國盡忠함의 偉大性을 後世에 傳코저 建立한것이다。

公의 忠義行蹟은 南門條에서 槪述한바 있기로 여기에서는 公이 殉國하던 當時의 史實을 적으므로서 그치려한다。

丁丑年 正月二十二日

그때 江都는 完全히 敵手에 들고 公私의 廳舍는 放火、破壞로 因하여 자최를 감추었고 住民들의 大部分은 避難、被殺、또或은 自殺로서 離散하고 當時 江都의 總司令官인 金慶徵과 留守 張(紳)과 함께 어디로인지 자최를 감추어 버리 었었다。

時不利를 깨달은 領中樞府事 金尙容公은 城의 南門樓上에 올라 거기에 山積되어 있던 火藥庫에 悠悠히 걸터 앉으며 上衣를 벗어서 下人에게 주고

「내가 죽거든 이옷을 내 家族에게 傳하여 나의 最後의 遺標를 삼게 하라。」

하였다。이것을 본 住民속에서는 나도 같이 죽게 해 달라고 城에 오르려 하는 사람이 十餘名이었다。그러나 公은 그대들 百姓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올라오지 못하게 막은後에 欄위에 번듯이 누어서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는 그 불로 火藥에 引火를 지켜 殉國했었다。그렇게도 같이 죽게 해 달라고 哀願하던 十一名도 火藥의 爆發과 同時에 殉國했던 것이다。

이러한 公의 忠義 아직도 살아 있음인지 公의 碑石은 國家에 災難이 있을때만 依例껏 碑石에서 진담이 흐른다고 傳해지고 있다。

이 碑閣은 舊南門址。鍾閣越便 公이 殉節한 차리에 있던것을 現在位置로 移築한것이다。이 同碑文을 轉記하면 아래와 같다。

「碑文……嗚呼 此爲江華府 南門 故右議政 文忠公 仙源金先生 殉義之地也 先生諱尙容 安東人 庚寅登弟 歷事累朝 位宰相、以忠厚正直爲士類所宗、仁祖 丙子 北虜人寇 上 將幸江都 先生 時已去相 具老病 命從 廟社主先行 於是 張紳、爲本府留守 而檢察使金慶徵 副使 李敏求受 命任軍事矣 旣而 大駕 迫虜先鋒 倉卒入南漢城 賊 築長圍守之 紳 慶徵等 特有天塹險 不以爲意 慶徵、尤驕恣 人有以軍事 諫者瞻盛氣逆折 先生奮面爲曰 行在受圍日久 鄭世規 敗道路傳言已死 湖西 無主事者 副使 宜急性 收散卒糾義旅、督湖西南兵在後者以赴 君父之急機不可緩 又言南漢消息 斷絕 宜函募死士 起居官守 十往必有一達、臣子之義豈忍束手坐觀 慶徵等 相與議之曰 自有權此者 非避亂大臣 所得興 一無所聽施 或謂先生嘆曰 主上在圍中 安危不可知 宗社元孫 皆此在 萬一不幸 有死而已 安所偸生居數日 有報 賊大至 慶徵等 猶不信曰 唉佞夫 江水流澌 賊安能飛渡、詰朝 賊 果從甲串渡江 我兵望之 不戰自潰 慶徵等 一時奪舸遁去 賊 遂平行至城下 先生 顧與家人 訣 登城門樓 積稍黃豦其上 解衣 授傔人 麾左右使去 放火自燒死 孫壽金 時年十三在測 命僕披髮挽衣泣 不去曰 當從翁死 尙何歸 僕去不吉 皆同死別坐權順長 進士 金益謙 先自請 分隷城門 協官軍爲 死守計至是竟與先生俱死 實 丁丑 正月二十二日也 盖先生 旣沒而國家 旌其閭曰 忠臣之門 又立祠府城 南七里 賜額忠烈 權公 金公及 他死義者 李公尙吉以下十一人 皆得 腏食 崇報之典備矣

上之 二十四年 戊寅 我伯氏承 命爲本府留守 至則首謁祠下 旣登南門 喟然太息曰 夫魏 少 公子之能下士也 而大梁東門 人猶志之不倦 太史公 至書于策 況以先生忠節 赫爲百世人紀所賴 而此可以無識乎 於是伐石爲碑 高四尺 大書以篆之 竪于門之側 碑昌協 記其本末 昌協 竊惟

忠義之於感人也深矣 自丁丑至今 六十餘年 其遺老盡矣 而此南門者 人猶指而相語曰某公 死於此 往々談說其時事 如昨日 而士大夫往來道此府者 亦必先向南門何在 爲之感歎歔欷 而不能去 自是而言則無碑 宜亦可也 而要少表揚遺跡 使人人者 一倍瞻祝 而雖百世之遠 無或忘失、則碑又安可無也 顧前政 未有以此爲意者 豈其以保障爲急而不暇於此也然 知節義之壯人國家、有甚於城池甲兵則今日之爲、其孰曰非急務哉 伯氏 名昌集 實先生弟文正 淸陰先生 諱尙憲之曾孫、然後之人若復以是而 疑此擧之或私也 則又非知太公之道者也……云云」

이 碑文으로서 金公의 忠義가 얼마나 놀라웠는가를 알수가 있다。옛날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江都를 찾는 사람의 누구나가 먼저 묻는것이 이 碑石의 所在다。

一六、表忠壇

丁丑胡亂때 江都陷落을 目睹하고 仙源 金尙容과 때를 같이하여 殉國한 三忠臣을 받든 表忠壇은 江華面 甲串里 堂峴 南麓에 있다。丁丑亂의 槪要는 數處에서 抄한바 있기로 여기에서는 略하거니와 이 表忠壇이 세워질 當初에는 殉國한 三忠臣、卽 黃善身、具元一、姜興業의 殉節을 紀念키 爲하여 祭壇을 모았던것이다。그後 留守 李渝가 丁丑亂에 殉節한 愛國志士들을 追配하고 壇名도 表忠으로 갈아 붙이게 된것이다 留守 李渝의 撰인 碑文은 如左하다。

「……嗚呼 此甲串之津 鎭海樓之下 卽 三忠視死如歸之地 死之日 實丁丑 正月二十二日也 噫 三忠 本府人也 中軍 黃善身 慷慨博戰而死 右部 千摠 具元一 掘劍投江而死 左部千摠 姜興業與 中軍同戰而死 此所謂 三忠耳 俱 賜官旌閭 又配忠烈祠 事在本傳 又有把摠 安夢祥 李參出身 徐彦吉、哨官 李嗣後 旗牌官 李光元 敎官 高義謙 正兵 車命世 水軍 宋榮春、鐵串 僉使 金得男 收殘兵力戰 同日俱死之 噫 何其壯也 李參贈工曹參議 徐彦吉贈軍器判官 旌其閭四忠臣之門、履斯地面俯仰有不忍去者 遂爲壇於是 歲歲以死之日祭焉 凡十二人 又刻石而其地 想其烈烈者 磐礴而壯人國不特城甲之勢而已 噫 云云」

一七、廣城祭壇

佛恩面 廣城鎭에서 蛇頭浦으로 올라가는 最高의 언덕에 位置한다。

이 廣城祭壇은 辛未年의 美艦事件으로 美軍과 勇戰한끝에 壯烈散華한 中軍 魚在淵과 五名의 靈을 慰勞하기 爲하여 이루어진 祭壇이다。辛未의 美艦事件은 大院君의 天主敎徒 大虐殺을 契機하여 來侵했던 佛艦의 江華攻擊에 뒤이은 美艦의 通商修交拒絕로 發端된것이다。大院君은 佛艦을 擊退한後로 洋夷不可恐 이라는 自負로 一切의 西洋人을 過少評價하고서 美艦이 要求한 通商을 斷乎 拒絕하고 防備를 一層强化했었다。

이 大院君政府의 拒絕로 感情이 激해진 美艦의 美軍이 江華에 上陸한것은 辛未 四月二十三日 이다。美艦은 全軍 七百五十九名中 六百五十名을 上陸시키어 陸路로 前進케하고 남어지는 「모노카지」「팔로스」兩號에 分乘、夜陰을 利用하여 江華의 咽喉인 草芝鎭을 挾攻侵犯하고 十四日에 美軍은 다시 德津을 攻擊、廣城津을 犯해왔다 이때 우리側의 主將은 魚在淵이였으니 그는 아우 魚在淳과 其他 山砲手와 더부러 熾烈한 攻防戰을 展開했던것이다。美軍의 新武器에 我軍은 남은 火繩砲와 무딘 槍밖에 없었으니 이야말로 달걀로 城壁 치기다 진배없는 싸움이였다。그래도 魚軍은 最後의 一人까지도 잘 싸웠고 軍紀도 섰었다。이때의 白兵戰은 實로 凄慘한바 있었으니 當時의 戰況을 記錄한 「고리퓌스」의 글을 引用함이 더 正確을 期할수 있을 것이다。

「그들 韓國軍은 非常한 勇氣로서 應戰해가며 城壁에 올라서 美軍에게 土塵을 뿌리고 石戰을 걸어왔다。그들은 겨우 槍劍으로 美軍과 싸우는데 그나마도 없는 사람은 맨손에 흙과 돌을 쥐고 美軍에 對抗하여 最後까지 싸웠다。그리하여 射殺도 當했고 또 或은 通路를 잃고 溺死도 했다。負傷者의 大部分은 溺死를 한 셈이였다。또 남어지는 降服

을 拒否하고 投身自殺로서 美軍에 抗拒했다。……

이 一節만 보아도 當時의 戰鬪가 얼마나 凄慘했던가를 想像할수가 있다。우리의 死傷者는 三百을 넘었었다。美軍은 비록 勝利는 했다지만 現代武器를 가진 그들이 이 白兵戰에서 맥키中尉外에도 三名이 戰死하고 三十餘名이 重傷을 입어 占領地를 維持하지 못하고 退軍을 强要當 했었다。美艦의 江華攻略軍은 四十餘日이나 海上에서 우리政府의 屈服을 强要했으나 大院君은 一層 强硬한 斥洋政策을 쓰고 全國에 斥和碑를 세워서 國民을 鼓舞하여 美軍으로 하여금 撤軍케 했던것이다。

이 廣城津의 戰鬪에서 魚中軍의 敢鬪는 美軍으로 하여금 朝鮮은 一弱小國 이지마는 輕率히 다룰수 없음을 깨닫게 했던 것이다。

이 廣城祭壇은 美軍이 撤退한後에 魚在淵 中軍의 殉國之節을 追慕하여 築壇했던것으로 壬申에 留守金善鍋이 魚中軍와 함께 戰死한 林之彭外十餘名을 同配케하고 立碑한 것이다。

이들의 爲人을 碑文은 아래와 같이 傳하고 있다。

「……銘「魚公在淵」曰凜乎忠勇 日月光輝 兄弟賓促 視死如歸 銘「魚公在淵」曰 兄死於國 弟死於兄 一門忠友 百世風聲 銘「李公玄鶴」曰蓮幕之賓 危不獨生 申妓懷後復有 姓名 銘「柳公豊魯」曰韜袴從戎 節制不違 舊不顧身 視死如歸 銘「金公鉉璟」曰爲千夫長 效一死節 天賦之性 地靈之傑 銘「朴公致誠」曰乘障有守 苟活則那無活於賊 我及旣麾 銘「戰士武士」曰半百武士 一心殉國 危忠卓節 千秋不忽 云云」

一八、燕尾亭

江華面 月串里 江邊 언덕위에 있다。이 小亭은 麗代建物로 石柱瓦葺의 아담스러운 亭子다。亭에 올라 逍風、賞月의 雅趣、또한 亭의 由緒만 못지않다。

이 燕尾亭의 建造年代가 確認되어 있지 못한것이 遺憾이나 高麗第二十三代 高麗이 九齋의 生徒를 이亭子에 풍아놓고 勉學케 했다는 記錄으로 보아 그보다 훨신 以前의 建築인것만은 確實하다。江都의 隆盛은 松京에서 遷都된後부터 인지라 高麗때의 建物이 아닌가 하는說도 있으나 確認된것은 아니다。

이 小亭은 三十六年間에 國辱을 가져온 日帝國主義의 우리나라 國權 簒奪의 契機가 된 丙子修好條約이 締結된 슬픈歷史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丙子修好條約은 高宗十二年에 우리 領海를 侵犯하여 江華島에 接近한 日艦 雲揚號砲擊事件을 口實로 翌 十三年 再侵 二月二日에 이 小亭에서 調印되었든 것이다。

이 丙子修好條約을 江華島條約이라고도 불으는것도 그때문 이어니와 元來 그前年에 日本이 水路測定 云云하고 江華島近海에 雲揚號라는 軍艦을 淀泊시켜놓고서 短艇으로 鹽河를 溯河하자 우리側에서는 草芝鎭에 接近하기를 기다리어 砲門을 열어 猛烈한 攻擊을 加했었다。我側에서 砲門을 연것은 단순한 鎖國政策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野心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니 우리 高宗初에 오래동안 政權을 잡고 있던 德川幕府가 쓸어지고 明治維新으로 王政을 復古시킨 日本은 純祖十年의 所謂 易地通信(對馬島에서 兩側이 修交한것)을 放棄하고서 修好를 要求해 온것을 拒絕하자 西鄕隆盛 같은者는 征韓論을 提唱하는等 不美한 空氣를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先制하기 爲해서였다。

이 草芝鎭砲擊으로 日艦은 初志를 버리고 退却하다가 永宗鎭에서 報復을하고 撤去하더니 翌十三年 丙子에 日本은 黑田淸隆을 全權、副使에 井上馨을 보내어 雲揚號砲擊 事件을 詰難하면서 壓力으로서 修好條約을 맺기를 강행했다。萬一 大院君이 그때까지도 執政을 하고 있었드라면 如何한일이 있더라도 이를 拒否했을것이나 大院君은 閔妃를 中心한 閔氏一派에 政權을 빼앗기고 隱退했을때였고 또 지금까지에 鎖國主義的인 國策이 多少 開國政策에로 기울어 가기도 하던때 인지라 大院君의 數次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修好條約이 成立된 것이다。

이를 爲하여 高宗이 重臣御前會議를 열었을때 大部分이 斥和로 기울었지만 大院君의 兄인 領相 李最應과 判中樞府事 朴珪壽等의 主和論이

이기어 王과 閔妃가 이를 裁可한 것이다。

이 江華條約이 바로 第一次 韓日條約을 거치어 合併條約을 맺게한 日帝의 발판이 되어주었든것이니 이條約의 骨子를 要約하면 使節交換、釜山을 爲始한 三港의 開港、公館設置等이다。이러한 史實을 回想하며 후에 오르면 우리가 걸어온 이世紀가 파노라마 처럼 돌아간다。

六、二五에 中共逆徒들의 砲擊으로 一部破壞되었으나 修理保存 하고 있다。

一九、奉天臺

河峙面 河陰城山 中峰에 있다。高麗朝代의 奉祐 五世孫 奉天祐가 自己先祖의 發祥地라 하여 築壇했던것으로 李朝中葉에 와서는 燈火台로 使用되어 있다。

이 奉氏에 關한 遺跡으로 同面 長井里 논속에 奉哥峙라는 조고만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를 奉氏 發祥峙 라기도 한다。옛날에는 얼마나 컨는지 모르나 現在는 겨우 알아볼만한 자리가 논 사이에 끼어 있을뿐이다。모다 믿을만한 根據가 있는것은 아니다 河陰城山中의 奉天台는 高 三丈餘나 된다。

二〇、晩翠亭

仙源 煙里에 있으니 七年間의 壬辰倭亂을 通한 大捷의 一인 幸州山城戰에서 半日동안 倭軍을 潰滅시킨 名將인 權慄의 邸址다。幸州山城戰經緯을 幸州山城條에 述하였기로 여기에서는 避하거니와 約半日동안의 激戰에서 敵은 一萬餘名의 死者와 負傷者는 數도 모를 程度였다。權慄將軍은 都元師였지만 元來는 文人으로 文官이 되었다가 壬辰倭亂의 國難을 當하자 官軍을 이르키고 義勇軍을 募集하여 武官이 되었엇고 宣祖 三十二年 四月 身病을 얻어 江華 私邸에서 治療하다가 七月十二日에 세상을 떠났다。

이 晩翠亭은 바로 權慄의 私邸址요 그의 別莊은 鰲頭亭이라 하여 芿城里에 있었다。將軍의 죽음이 나라에 傳해지자 임금은 一切의 軍事를 停止시키어 吊意를表케하고 特使를 江華에 보내어 吊祭를 지내게 하는 한便 領議政으로 贈職、宣武助臣에 記載케 하였다。그리고 다시 永嘉府院君에 封한것으로 보아 政府에서 얼마나 將軍을 아끼었든가를 알수가있다。

將軍에게는 不幸히 後裔가 없었고 無男獨女가 있어 李恒福에게 出嫁했었다。그의 목숨을 빼았은病은 嶺南在陣中에 얻은 痰疾이었다 하여 二때 春秋가 六十三歲였다。

二一、舊邑址와 王訪里

高麗時代의 江華邑은 오늘의 海松面 中唐里로 지금은 一寒村으로 되어 버렸으나 아직도 그時代의 遺物이 가끔 地下에서 發掘되고 있다고 한다。

王訪里라는 地名은 全信이라는 사람이 살던곳으로 全信은 李朝 三代太宗의 學友였던 모양이다。太宗은 王位에 올로되 옛날의 學友의 情을 잊지않고 몸소 여기에 全信을 찾아 舊情을 풀었다 하여 王訪里의 洞名이 생겼다고 傳해진다。

太宗은 全信에게 이곳 王訪里를 中心으로 四方 十里의 地域을 割與하여 餘生을 보내게 했다는 美談도 듣는이의 마음을 즐겁게 해 준다。國賜亭의 稱이 있음도 이에 由來한 것이다。

二二、烽燧

江華는 高麗 高宗代 四十年間 國都였던 關係도 있었거니와 李朝에 들어와서도 國難을 避할수있는 唯一한 豫定地로 되어있었고 또事實陸地와의 通交이 海水를 건너가 하드니만큼 武器가 發達되지 못한 時代에는 唯一한 要塞이기도 한터라 自然 國防上 重要한位置를 占했었다。더욱이 丙子亂以後 現代에 이르기까지는 一切의 外國와의 衝突이 이江華을 中心으로 惹起되였든 關係도 있어 옛날에는 烽燧、現代에는 砲台의 重要性 이 倍加되어 온것이다。現在 砲台址는 大小合하여 五十에가 깝고 옛날의 唯一한 通信機關이던 烽燧는 八個所에 設置되어 있었다。

이제 그 位置와 連絡系統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一、大母山烽燧——江華面에 있어 東으로는 金浦의 藥山、西로는 鎭江山에 連絡이 된다。

二、鎭江山烽燧——良道面에 位置라고 있다。 連絡地는 東으로 大母山烽燧는 西로는 德山으로 되어있다。

三、德山烽燧——佛恩面에 所在하고 連絡烽燧은 東으로 鎭江山、西에 華蓋山이다。

四、河陰山烽燧——河陰面에 所在하고 東에는 南山、西로는 華蓋山에 連絡된다。

五、南山烽燧——江華面에 있어 連絡地는 舊通津 南山이오 西쪽으로는 奉天山에 達한다。

六。華蓋山烽燧——喬桐島 喬桐面에 있는 華蓋山峰에 있다。 連絡은 南으로 德山、西로 河陰山 烽燧로 되어 있다。

七、水晶山烽燧——喬桐面에 位置하고 있으며 東으로는 河陰山烽燧와 西로는 延白郡 看月山에 達한다。

八、鎭望山烽燧——喬桐島 所在로서 連絡地는 望島다。

二三、鎭堡·將臺·關門

江華島가 島自體의 防禦보다도 國防上 要塞임은 到處에서 指摘한바어니와 이 江華防備를 爲하여 全島圍로 十里에 一鎭을 設하고 鎭과 鎭사이에 다시 砲台를 地陰如何에 따라 第三個를 設置하는等 萬全을 期했던것이다。

이 鎭堡의 設置는 李朝 第十七代 孝宗으로부터 始作되었다。 孝宗朝에는 廣城鎭뿐이었던것이 肅宗代에 와서는 鎭堡가 十二에 達하고 墩臺의 總數는 五十三을 算케 되었든것이다。 鎭堡에는 鎭堡將을 두고 若干의 兵力이 주어졌으며 彈藥銃砲의 巡檢도 嚴히 했다고 한다。 十二鎭堡의 鎭名과 設置年代를 보면 月串鎭、濟物鎭、龍鎭澤、船頭堡、草芝鎭、長串鎭、寅火鎭、文殊鎭、昇天堡의 九鎭堡은 肅宗朝요 廣城鎭은 孝宗、井浦鎭과 德津鎭은 顯宗朝의 設置로 되어 있다。

江華防禦를 爲한 施設에는 이 鎭堡와 墩臺外에도 將臺를 設하여 將兵訓練에 供하고 있다。 將臺는 全島에 三個로 南山、北山、密嶂山(西門內)의 高臺에 望臺를 設置하여 西將臺는 五營軍에게 使用케하고 南將臺에는 司令塔이 있어 大演習時에는 이 塔에서 緣城布陣 一萬六千二百名의 將兵을 總指揮했었다。

以上의 江都防禦施設外에도 江都에는 四關門을 設했었다。 그 第一關門에 永宗島은 頂山島와 對峙的 位置에 있는 草芝鎭附近을 第二關門 文殊山城의 控海門과 對峙的 位置인 鎭海門을 第三關門、昇王浦一帶를 第四關門으로 制定하여 實로 물 샐름 없는 防備를 期했었다。

二四、牧 場

江華島는 濟州島 다음가는 우리나라 種馬養育 場所로 指目되어 왔다 卽 本島에는 三種馬牧場이 있었으니 鎭江山 南麗의 鎭江牧場이 其一이오。 摩尼山 南麗의 北一牧場이 其二、三山面의 煤音島牧場이 第三이오 吉祥山麓이 其四다。 李太祖의 內廐八駿이며 孝宗의 內廐大駿馬는 모다 鎭江牧場에 所産이다。 孝宗이 瀋陽同還에 쓰여졌다는 神馬도 이 鎭江牧場의 所生이라는 記錄이 남아있다。

이로서 본다면 築城으로 부터 鎭堡、關門設置、甚至於、種馬場까지를 設置하여 王都를 一王國으로 만든感이 不無하다。 그러나 오늘은 이들의 모든 施設도 그 遺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古蹟은 住民과 當局에서 銳意修築中에 있다。

二五、自古의 交通要津

地理的條件의 不可避로 나루는 發達이 되어 自古로 江華에의 渡津은 이름이 있거니와 國防上 位置로하여 國難이 있는때마다 이 나루의 이름들을 世人에게 傳해졌고 또 史記에도 오르게 되었다。 그中 有名한것이 四津이있으니

가、甲串津은 江華邑 東十里地點의 陸地와 가장 交流가 많은 要津이

다。여기에는 解放前에도 鐵橋 또는 地下燧道等이 構想되었고 解放後에는 더욱 이의 積極化를 期하여 基金까지 募集中이다가 六、二五動亂으로 또 挫折되어 버렸지만 그만큼 重要한 關門이다。

이러한 地理的條件으로 甲串津一帶는 國難이 있을때마다 그被害도 적지 않았다。高麗의 國都가 江都였든 當時 蒙古兵이 甲串津、對岸까지 와서 江都를 건너다 보고는 出島를 强要했었고 丙子胡亂 丁丑亂에 胡兵이 江都로 건너간것도 이附近이다。이 丁丑의 經驗을 살리어 對岸 文殊山에 築城、防禦에 備케하였으나 高宗即의 佛國艦隊는 먼저 이 山城을 攻略、되려 이山城을 本據로하여 甲串津를 陷落시켰든 것이다。

나、月串津——江華島의 東北隅에 位置한다、鹽河의 北端이 되는 세 음이다。對岸은 領井浦口로 여기에서 滿潮를 利用케된다。西海岸中에서도 江華附近의 干潮의 差는 가장 甚하여 三十米에 達하는 일이 많을 程度다。

다、昇天浦——란 堂山里를 이름이다。이 昇天浦는 高麗時代 江都와 松京 連絡路의 要津으로 一切의 交通은 勿論 物資까지도 이 浦口가 利用되던 곳이다。

라、鹽河——高麗時代로 부터의 要津으로 宋에서 온 一切의 船舶은 永宗島에 이 鹽河를 北上하여 禮成江下流의 碧瀾津附近까지 와서야 上陸하는것이 通例였다。여기서 開京으로 直行했던 것이다。

二六、鍾　閣

江華銅鍾閣은 邑內 官廳里 路邊에 있다。이銅鍾은 李朝 十九代 肅宗朝戊辰에 當時의 江華留守이던 尹趾完가 鑄造한것을 其後 亦是 留守였던 閔鎭遠이 銅鍾으로서는 너무 貧弱하다 하여 이를 改鑄했다고도 傳해지고 또 一說에는 尹趾完의 鑄鍾은 鼎足山麓의 傳燈寺로 옮기고 新鑄했다는 說도 있다。어쨌든 現在의 銅鍾이 尹氏의 鑄鍾이 아닌것만은 事實인 모양이다。

鍾閣의 建造年代는 距今 二百四、五十年前 肅宗의 次代인 二十代 景宗朝나 二十一代 英祖代의 建築으로 推算되어 오고 있다。高宗代에 修築한 記錄이 남아있고 人定、罷漏 二回에 걸치어 打鍾하여 入日과 五更에야 城門을 열고 닫고 한것은 서울의 四大門과 같았다。

現存한 鍾은 銅製로 重量이 六千五百二十斤이오 高가 六尺六寸、口徑 四尺六寸의 巨鍾이다。高宗三年 丙寅에 佛艦에서 上陸한 佛軍이 이를 本國으로 搬出하려다가 너무 무거워서 路邊에 遺棄한事實이 있다。

鍾閣은 建坪十五坪、十間으로 高二十尺에 長이 二十四尺、幅이 十六尺의 아담한 建物이다。六、二五에도 別로 被害가 없었음이 多幸이다。

二七、五層石塔

五層石塔은 河岾面 長井里 一九三番地에 있다。花崗岩의 方形 五層塔으로 高가 十六尺에 基壇이 있다。이 五層中 上部의 一層은 現在 그 所在를 모르고 있다。古老들의 말은 兵亂에 敵軍이 가져가려고 運搬中에 退却케되어 遺失되었다고 하나 그年代도 모르겠고 또 그敵軍을 蒙古兵이라는 사람 이였든 가하면 倭兵、胡兵等 區區하여 事實은 알수가 없다。倭政때부터 寶物로 指定되어 保存되고 있으나 그 建立年代도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이 附近에 石塔이 있을만한 遺史도 남아 있지 않아 알길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大槪는 高麗時代의 遺物이 아닌가 하는것이 一般的인 見解인것 같으나 이亦 確實치 않다。

二八、支　石(돌멘)

江華에는 島內 到處에 支石이 散在해 있다。特히 河岾面 富近、新三里一帶에는 大小의 支石이 있어 考古學者들의 興味를 자아내고 있거니와 이 支石이 무엇에 쓰여졌던것인지 그 目的이 무엇이였든지 關해서는 各人各說이 있다。

支石은 俗稱、「고인돌」로 불리어지고 있고 英語로는 「Dolmen」으로 씨어져서 太古石器時代의 石塚이라는것이 가장 有力한 學說인것 같다。原始社會에 있어서는 巨石은 崇拜하는 拜石信仰이 있어 洞穴、立石(선

돌 支石、(고인돌) 貝塚、累石壇(石祭壇)等의 石物이 西洋에도 남아 있다。이 支石은 一種의 石塚이라고 보아 한 墳墓라 하는 說과 死人의 隱靈防壓에서 나온 除厄法의 一種이지 墳墓는 아니라는 說로 또 나뉘고 있다。그런데 하나 興味를 끄는것은 西洋에는 이런 石物이 많이 散在해 있음에도 不拘하고 東洋에서 우리나라와 滿洲方面에 밖에 이 遺物이 없다는 事實이다。우리와 가장 接觸이 많았던 蒙古、中國、日本、等隣接國에서는 아직도 發見되고 있지 않다。

河岾面 富近里에 있는 돌멘은 郡內 最大의 것으로 고인돌 天井의 높이 約 四尺이나되며 덮은돌은 平坐를 한대도 五十名은 앉을수 있는 넓이다。

여러가지 說을 綜合하여 보아 墳墓인 것이 거의 定說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이 個人의 墳墓인지 또는 集團的 共同墳墓인지도 未詳이며 이러한 支石으로 共同死體 集結所로 썼던지도 모른다는 것이다。原始時代에는 一一히 成墓치 않고、風葬、水葬等이 行해진點으로 보아 이程度로 믿어 둘수 있지 않을까 한다。滿洲一帶에서는 近代까지도 風葬이 行해졌던 것이다。

二九、巨樹珍木

本島의 巨樹珍木의 白眉로는 江華面 甲串里 一〇一七番地에 所在한 枸橘일 것이다。

이珍木은 高가 十七尺、幅이 東西로 二十三尺、南北으로 十三尺이며 幹의 直徑은 約六寸可量이다。아직까지 確實한 樹齡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 古老들의 說에도 一部는 數百年說을 主張하는가 하면 또 一部는 千餘年說을 固執하고 있어 釋然치 않다。現在의 碑石은 倭枝間에 세워진 것이다。

現在의 結實은 年平均 五百個程度로 철없는 아이들의 伐枝와 投石으로 익은 枸橘을 따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밖의 巨樹는 다음과 같다。

樹種	所在	胸圍	樹高	樹齡
槲	府內面 宮廳里	十八尺	五十尺	四〇〇年
苦楝木	〃 菊花里	十一尺	四十五尺	五〇〇年
柏 槇	〃 月串里	十二尺	三十七尺	三〇〇年

三山面 煤音里 普門寺에 있는 柏槇도 三百餘의 樹齡을 갖고있다。이밖에도 菊花里에 三株와 月串里에 四株의 느티나무가 있어 發菓如何로 凶豊을 占하는 習慣이 傳해지고 있는것은 다른 地方과 비슷하다。

第三節 其他

一、特産

江華島는 陸地와의 交通이 不便한 關係로 예로부터 自給自足을 해야할 必要로 生業에 勤勉하는 美風이 있다。食糧으로도 島內需要에 足하고 副業도 發達되고 있다。特히 「江華人造」라면 鐵造界에도 特色이 있고 花紋席도 江華의 特産이다。

이의 大量製作으로 海外輸出의 길을 打開하고저 銳意 計劃中에 있다。그러기 爲해서는 必然的으로 械機化가 要請될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急先務는 架橋일것이다。

二、甘水泉의 由來

江華가 李朝時代의 種馬場이었다 함은 旣述한바 있거니와 十七代孝宗이 가장 사랑하던 名馬 驄馬도 鎭江牧場의 産이다。鎭江牧場은 오늘의 良道國民學校 뒤 鎭江山南麓에 있었으니 이頂山에 一泉이 있어 이샘에서 名馬 驄(俗稱伐代驄)이 낳다는 것이다。

이 名馬 驄에 關하여 史話로서 傳해지는바에 依하면 孝宗께서 江都에 行幸하시고 분부만 나리면 江華 鎭江에 있던 驄은 먼저 알고서 江을 건너가서 待機했다가 孝宗을 태우고서 江을 뛰어 넘었다는것이다。그러든中 한번은 孝宗을 江都에 모시고서 鎭江牧場으로 돌아오다가 陽川땅에 이르러 卒倒를 한채 三日間이나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名馬 驄도

壽命에는 어찌 할수없었든 모양이다。

그러나 이 地方住民들은 驄이 쓸어진지 三日이 지나도록 이 事實을 王께 아뢰기를 躊躇했다。萬一 이事實을 아뢰였다가는 生命이 없어질 危險이 있었든 것이다。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숨겨둘수가 없어서 一住民이 「驄不食而三日 臥而不起三日」이라고 아뢰였더니 孝宗이 크게 놀라서

「그러면 驄이 죽었다는 말이냐?」

하고 反問하자 「上旨疑如是 臣亦知其然」이라고 아뢰자 孝宗은 크게 슬퍼했다고 한다。俗語의 「陽川죽은 말지키듯하는사람」(如陽川倅之宋死馬)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由來한것이라고 하니 孝宗이 얼마나 驄을 아꼈든가가 짐작이 된다。

이 鎭江山頂의 一泉이 바로 이 名馬驄의 生泉이라 傳해지고 있어 이 우물은 「말난우물」(馬生泉)으로 불리어져 나려오다가 이것이 變音이 되어 지금은 「만난우물」(甘水泉)이라 불르고 있고 이 甘水泉에서 西쪽으로 흐르는 내를 「龍馬川」(용냇가)라고 불른다、이 龍馬川은 長池浦로 들어가는 물줄기다。

三、艾田洞의 由來

艾田洞은 吉祥面 船頭里에 있는 洞名이다。吉祥山은 江華의 名山 鼎足山城에서 南으로 뻗친 連山으로 山頂에는 吉祥藥水라고 일컫는 名藥泉이 있어 夏節에는 人跡이 그치지 않는다。幽林深谷에 溪流가 있고 山鳥에 山花있어 風光 또한 이를데없는 勝景地다。이 幽谷의 溪流가 이름있는 吉祥溪다。水量은 그다지 많은便이 못되나 夏節에는 溪聲이 滔々하고 水石 또한 아름다워 一日淸遊의 好適地다。

이 吉祥山麓에 牧場이 있었다 하며 여기서 名馬가 난것도 이附近 一帶의 特産인 藥艾의 德이라고한다。江華는 예로 부터 藥艾名産地로 有名하거니와 상감께 進上한 藥艾는 이 艾田洞 附近의 産이었다는 것이다。이 吉祥山 藥艾의 名聲은 史記에도 남아있다。江華에는 吉祥山 藥艾、摩尼山藥艾、海明山藥艾等 三名藥艾로 일컬어 오지만 이 艾田洞藥艾가 가장 藥效가 많다하여 艾田洞의 名稱이 생겼다고 한다。

이 三名藥艾 生産地의 一인 海明山은 三山面、三山中의 第二峰이다。三山面 은南北의 長이 約二十里의 島嶼로서 海明山、上柱山、上峰山으로 構成되어 있어 三山面의 面名이 생긴것도 이 三山峰에서 由來했거니와 古來로 名藥艾의 産地는 名山、深山이라고 일컬어 오는만큼 海明山에 들면 조그만 島嶼라는 意識조차도 잊어 버려고 말게된다。마치 大陸의 泰山속에 든 느낌이 든다。

四、孫乭項의 傳說

俗稱 「손돌목」이란 本郡 佛恩面 德城里에 있는 물목을 일컬어 말함이다。辛未洋擾時의 저 有名한 美艦陸上軍과 激戰을 하여 殉國한 魚在淵中軍의 戰死地로 廣城祭壇이 있는 廣城鎭의 水路上이다。

이 「孫乭項」의 由來를 史話에서 引用하면 高麗 第二十一代 熙宗이 蒙古兵亂을 避하여 紫燕島(現 龍遊島)로 길을 재촉할때 水路로 甲串을 빠져서 廣津을 經由케 되었었다。偶然히 熙宗은 앞을 내어다 보니 船首는 水路가 막킨 陸地의 옴타구리로 向하고 있는지라 王은 沙工을 疑心하기 始作했다。배사공이 自己를 窮地에 몰아넣으려고 하는줄만 誤認을 하고 크게 怒하여 沙工의 목을 베이게 했다。

그러나 이는 王의 誤解요、이地點은 波濤가 急하므로 沙工의 水路가 가장 安全한 水路였던것이다。

後에 王은 그事實을 알고 沙工을 잘장사하게 하여 이 목이 孫乭項이 되었다는것이다。沙工의 姓名이 孫乭이었던 모양이다。

이 傳說에 나오는 王은 高麗 熙宗이 아니라 李朝時代 第十六代仁祖大王이라는 說도 있어 併用되어 오고있다。

坡州郡

第一節 古蹟

一、鳳棲山 城址

鳳凰이 깃들만큼 영험한 名山이라 하여 鳳棲이 이름이 생겼다고도 하고 古來로 竹葉貌樣의 砥石과 硯石을 産物하는데서 竹葉이요 보니 竹林이 있겠고 竹林은 鳳凰이 좋아하는바니 鳳凰이 깃들리라 한데서 得名했다고도 傳해지고 있으니 어쨌든 鳳棲山이 예로부터 靈山의 稱이 있어 온것은 事實인가 싶다。이 鳳棲山은 本郡 州內面 西部洞에 있으니 汶山驛西쪽 四粁許에 位置한다。

山姿의 秀麗와 溪谷의 幽邃、그리고 春花·秋楓으로 詩人墨客의 입에 만 오르나리던 鳳棲山이 비로소 史上에 나타나기는 壬辰倭亂때니 壬辰亂 七年을 通한 三大捷中 梨峴、幸州의 二大捷의 光榮을 입은 都元帥 權慄將軍이 이 山頂에 築城을 한後 부터다。

敵將 小早川隆景이 碧蹄館 惠陰嶺에서 明軍을 奇襲 大勝하고 意氣揚揚하여 서울로 돌아 오다가 權慄將軍이 幸州山城을 지키고 있음을 알자 大軍을 모아 挑戰했다가 三萬의 死傷을 내어 慘敗했음은 幸州山城項에서 詳述한바와 같다。이 幸州山城에서의 敵의 慘敗는 敵將 小早川 一個人의 威信뿐이 아니라 全倭軍에게 致命傷이었으니 이 敗戰으로 小早川은 實權을 잃었고 다시 北上할 氣力을 잃어 南下 退却하고 말았던 것이다。

戰爭은 實力만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다。權將軍은 三倍나되는 强敵을 무찌르고 그날밤으로 坡州로 陣을 옮겼으니 그것은 翌日 반듯이 서울에 集結했던 敵의 大部隊가 復讐戰을 하러 올것임을 豫測했기 때문이었다。이 權將軍의 推測은 맞았으니 果然 翌日 早朝 敵은 五萬大兵을 이끌고 幸城山城을 쳐들어 왔으나 城中에는 개미 한마리도 없이 우리側은 撤收하고 없었던 것이다。이 虛行이 그들의 士氣를 또한번 꺾고서 權慄에게는 當키 어렵다고 嘆息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밤으로 權將軍이 옮긴곳이 바로 이 鳳棲山이오 지금 남아 있는 城址는 第二幸州戰을 하기爲하여 쌓아진 것이다。敵將들은 서울로 虛行回軍하였다가 小早川、小西等 敵將들은 鳩首會議만 거듭하다가 끝끝내 이 鳳棲山城을 칠 勇氣를 내어 보지 못한채 南으로 撤收하고 말았었다。

樹海、幽谷도 좋지만 頂上에서의 眼下眺望이 이를데가 없다。

二、立像石佛

舊碧蹄館에서 約六粁地點 路傍山麓에 二大坐像 石佛이 있으니 天然巨岩에다 佛像을 彫刻하여 그 壯함이 비길데 없다。一大巨岩위에 自然石 二柱가 佇立한것만도 奇觀이어든 여기에 佛像彫刻이란 그 難工事만에도 머리가 숙는다。

立像石佛의 高實로 五十七尺二寸이나 되니 그 壯嚴함은 想像키에 足하다。巨佛像으로 有名한 恩津彌勒의 像長이 十七米이고 보니 可히 짐작할수 있을 것이다。

이 立像의 彫刻年代는 밝혀져 있지 못하나 傳說에 依하면 高麗 第十三代 宣宗은 王后에 嗣가 없어 元信公主를 後宮으로 맞았으나 또한 보람이 없이 焦燥해 하던中 어느날 밤 元信公主한테 道僧 두사람이 忽然히 나타나서 坡州郡 張芝山南麓 岩間에 사노라 하며 糧道가 끊어져서 困難하노라 한다。감짝 놀라서 깨니 꿈이였다。公主는 急히 사람은 보내여 그 地點을 찾으니 果然 二大巨岩이 우람스럽게 서 있는지라 이에 佛像을 새기게하고 절을 이룩하여 守護케 하였더니 그해 漢山侯吻誕生을 보았다고 한다。

立像 左側으로 分明히 寺址가 남아 있고 傳說에 나오는 甘露井도 있다。이 井水를 떠다 立像께 念願하면 得子한다는말 이 있어 오늘날까지도 이 風習이 傳해지고 있다。이 立像옆에 조고만 童子佛이 서 있으니 이는 李大統領의 뜻을 받들어 檀紀 四二八七年 建立된 것이다。

大統領의 記念小塔도 이룩되어 있다。立像옆 巨岩은 實로 壯嚴美를 보이고 있었지만 紀念塔 建造發起人의 名單이 巨岩의 前面을 全部 차지하여 不快하기 짝이 없다。發起者들이 自進 지어 버린다면 두고두고 辱을 免하리라。

지금도 立像 前麓에 茅屋을 지어 守護케 하고 있다。

三、長 命 山

長命山은 交河面 吾道里에 있다。金村驛에서 約六粁地點이다。예로부터 九節草의 名産으로 이름이 있거니와 이 長命의 山名도 여기에서 由來한 것이 아닌가도 싶으나 傳說에는 壬辰倭亂때 「長命」이라는 義兵後이 이山을 陣地로 敵將 加藤淸正軍을 무찔렀다고 傳해지고 이 長命山名도 거기에서 由來했다고 한다。 있을법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文獻에는 아모리 찾아 보와도 長命의 이름이 보이지 않으니 考證할 方法이 없다。

每年 九月九日(陰)이면 郡內는 勿論 遠方에서까지 이山의 名藥草 쑥을 뜯느라고 男女老少가 雲集한다。

四、臨 津 鎭

臨津江은 本郡內 到處에 나타나 勝景을 이루어 주고 또 水利를 도아주고 있거니와 古來로 義州에서 서울로 通하는 要衝地인만큼 戰略上으로도 가장 重要한 位置인 臨津關門에 盤踞하고 있었다。

壬辰倭亂때만 해도 이 臨津江 作戰은 重大한 價値를 가졌었다。 그해 五月三日 서울은 이미 陷落했고 宣祖大王과 政府도 北上中에 있는지라 加藤淸正은 政府를 進擊하여 臨津江에 이르렀을때 政府에서는 都元帥 金命元에게 命하여 臨津江의 敵陣을 뚫고 서울을 回復하라는 令을 나렸었다。敵軍은 서울 지금의 朝鮮호텔자리에 陣營을 두고 小康狀態에 있었든만큼 이를 攻擊할 絶好의 機會라고 믿었든 것이다。

그러나 都元帥 金命元은 怯을 덕고 臨津北岸의 鎭만 지키기 八、九日 敵은 完全히 北進態勢를 가추고 말았다。그러하여 敵我가 江을 끼고 對峙하기 十日만에 敵은 虛僞로 退却가는것 처럼 보이기爲해서 幕舍에 불을 지르고 자최를 감추었다。이에 속은 金命元은 渡江進擊하다가 伏兵에 大敗했고 劉克良、洪鳳祥等 部下將도 이 敗戰에 犧牲이 되고 말았다。

이 敗戰으로 五月二十七日 開城은 敵手에 들어가고 말았거니와 丙子胡亂때도 都元帥 張晩이 開城으로 退却하여 臨津江鎭이 唯一한 서울의 防禦陣地였것만 都監大將 申景禛、判尹 具宏等으로 하여금 京砲手와 畿甸軍을 발아가지고도 砂城처럼 문허트리고 말았다。

前者엔 樓門이 江岸築城과 함께으젓이 서서 江水에 樓影을 잠그고 서 있었으나 倭政初에 破壞된것을 修築치 않아지금은 石虹霓門만 남아있다。

아직 우리귀에 砲擊소리가 사라지지 않은 六、二五와 北進作戰에서도 이 臨津鎭이 얼마나 重要했던것을 알수 있다。民族의 念願인 北進統一戰에는 臨津은 우리를 돕는 江이 되어지이다고 頌詩를 달아둔다。

臨津鎭　高麗　林椿

長湍風急浪如山　欲供孤舟上瀨難
十二時回猶復暮　人間何日少波瀾

五、伴 鷗 亭

坡州라면 臨津江을 聯想하고 臨津江이라면 곧 長湍의 赤壁이 머리에 떠오를만치 臨津江은 絶景地로 일러온다。

이 伴鷗亭은 臨津下流인 本郡臨津面沙鷺里에 있다。예로부터 白鷗가 翔集하고 平蕪廣野에 沙渚가 瀰漫하든 勝景地로 일컬어 伴鷗의 亭名도 생기였을 것이다。이 一帶는 赤壁絶境의 一環으로 어듸를 가나 勝景아닌곳이 別로없지만 이 伴鷗亭이 서있는 靑松丘陵의 아름다움과 亭下碧流에는 우리民族의 最大國亂이던 壬辰倭亂때의 血戰地였드니 만큼 史話史蹟이 老松에도 溪谷에도 散在해 있다。

이 伴鷗亭은 멀리 李朝初 黃喜가 退官後에 餘生을 보낼때 세운 亭子다。黃喜의號는 厖村、李朝五百年間의 英王이신 第四代 世宗大王代의 名相으로서 翼成公이라 追慕된 사람이다。公이 國政에 끼친바 偉大한 功績은 이로 들수 없거니와 個中 特出한것 만을 추린대도

一、種桑法의 制定勵行
二、經濟六典의 議定
三、兵馬點檢制度의 確立
四、高麗實錄의 改修
五、三十餘種의 禮法及 禮樂制定

等 五條項을 들수 있다。

公이 이 坡州 伴鷗亭에서 鶴遊한것은 別世하기 卽前일것이니 太宗十八年 五月부터 五年間은 太宗의 미움을 산바 있어 南原에 流配되듯 싶이 했고 復官한것은 世宗四年이니까 그사이는 그럴 機會가 없었을 것이다。太宗의 怒여움을 산 動機는 太宗은 世子 禔 讓寧大君)이 너무 無禮하고 將次 一國을 다스릴 재목이 못됨을 아르지고 第三子忠寧大君(世宗大王)을 世子로 封하고저 公에게 意見을 물었으나 그때의 公으로서는 難處해서 廢長幼立이 어떠올지요 애매한 對答을 한것이 禍가 되었든 것이다。

그러나 太宗이 太上皇으로 올라앉고 世宗大王이 卽位하자 世宗四年에 公의 爲人을 아시고 復命 以來 二十餘年 首相職에서 많은功을 쌓았다。위로 睿英하신 英主 世宗大王을 뫼시기도 했지만 그의 在職 二十年間은 太平時代를 이루어 그의 別世를 듣고 百姓들은 「天이 우리의 賢相을 빼앗도다」하고 슬퍼한 程度다。公은 文宗 二年 壬申初 八日、九十歲의 高齡으로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善政과 그의 名筆은 지금도 傳해지고 있다。

公이 이 伴鷗亭 附近에 閉居한것은 別世卽前 얼마 되지않는 期間이리라 推測되거니와 公의 閉居로 하여 住民들은 聖人을 뫼신것 처럼 자랑을 삼았다 한다。

政治家로서도 卓越했다 하지만 公은 또한 名筆에 學者인 翼成公은 下野後에는 江물에든 白鷗를 즐기면서 詩作과 讀書로서 餘生을 보냈든 것이다。長方四間의 그다지 크지는 못한 建築이다。臨津의 碧水가 구비쳐 흐르는 松林 丘陵에 그림처럼 솟아있고 예로부터 白鷗가 雲集하여 그 情趣仙境에 부럽지 않다。

亭에 오르면 眼下碧流에는 雄姿와 眼前에는 麗朝五百年의 盛衰가 깃들인 松京松嶽山의 아리따운 山姿가 바라다 보인다。

亭은 距今 二百餘年前 翼成公의 後孫들이 重修를 했고 最近에도 重修齋室를 세워 公의 影幀을 받들고 昭襄公孟獻의 不遷廟도 建立 했었으나 六、二五의 事變으로 灰燼하여 지금은 그 遺址만이 남아있다。

京義線 汶山驛에서 十里未滿의 路程이다。

六、花石亭址

花石亭은 本郡 坡平面 栗谷里에 있으니 汶山驛에서 北方四粁 地點에 位置한다。

이 花石亭은 元來 高麗末의 大儒 冶隱 吉再의 遺址니 吉再는 牧隱 李穡、圃隱 鄭夢周와 함께 「三隱」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이다。벼슬이 成均館 學正博士에 이르고 李成桂 李太祖가 李朝를 이룩하자 「不事二君」이라 하여 鄕里에 돌아가서 後輩養成에 餘生을 보냈다。六十七歲를 一期로 別世하자 鄕人들이 書院을 세우니 世宗大王이 그節을 아끼어 金鳥書院으로 賜額했고 忠烈公으로 諡했다。

公은 善山人인데 어떻게 該地와 因緣이 되였는지 記錄이 없어 알길없거니와 어쨌든 冶隱 吉再의 遺址였든 자리로 栗谷의 先祖인 康平公 李明晨의 建亭、楊原 李叔緘의 花石命名이다。그러다가 康平公의 子孫인 通判宜碩이 重修했고 曾孫인 栗谷先生이 拓址增修한 由緖깊은 亭子다。

栗谷先生은 國事의 餘暇와 退官後의 餘生을 이 亭子에서 弟子와 더부러 作詩 長吟하였고 學을論하고 理를 究하니 中國의 勅使가 매양 先生을 이 亭으로 찾아 吟詩淸遊했다고 한다。亭一帶에는 鬱松이、亭下로는 臨津의 長流가 悠悠히 흐르고 있어 낮에는 帆船、밤에는 漁火、女歌人인 雲楚가 「盡日黃鸝啼不住 聲聲怨是哭高麗」라 松京過次에 읊었다던 피끄러의 그 야말로 「哭高麗」소리 드물게 보는 仙境이다。

그러나 由緖도 깊거니와 名勝으로 알려진 花石亭에도 이제는 「址」字를 붙여야 한다。우리民族의 悲劇의날 六、二五가 壬辰倭亂에 灰燼했던 것을 다시 세운 이 名亭에 또 다시 붕洗禮를 준것이다。이 亭內에는 많은 詩額이 있었지만 그中에서도 有名한것은 「李栗谷 八歲詩賦」이다。

栗谷의 八歲詩에曰

林亭秋已晩　騷客意無窮
山吐孤輪月　江含萬里風
遠水連天碧　霜楓向日紅
塞鴻何處去　聲斷暮雲中

이 八歲詩額은 百歲態板이라고도 傳해지니 이는 栗谷이 八歲에 作詩했고 成牛溪孫穆이 九十二歲에 書한데서 由來한 것이다。

栗谷先生의 墓所는 先生邸宅 舊址인 本郡 泉峴面 東文里에 있다。

七、夢鷗亭址

夢鷗亭址는 坡平面 坡平國民學校 西方의 臨津江岸石壁위에 있어 端宗朝에 忠誠을 다한 罪로 流配되어 落命한 聃壽 成文斗의 所築이었다。聃壽先生이 死六臣과 함께 失命하니 夢鷗亭도 自然 廢亭이 되어 지금은 그 遺址만이 남아 있으나 中國의 蘇仙赤壁이라고 까지 일컫는 長湍의赤壁도 이 坡州赤壁에서 極致를 다한感이 있다。臨津의 悠悠長流에는 沙工들의 노래를 실은 帆船이 上下하고 江岸絕壁에 屹立한 亭址에는 長松이 욱어져 水面에 비치어 그 아름다움은 一幅의 名畵를 彷彿케한다。깍아진 絕壁에 奇花가 點綴하면 實로 奇觀이다。

八、巨樹名木

樹種	所在	胸高圍	樹高	樹齡
柏槇	炭縣面洛下里	九尺	三六尺	一三五年
櫸	泉峴面熊潭里	十一尺	一二〇尺	三一五年
同	同	十二尺	一三二尺	同
同	同 東文里	十二尺	一二〇尺	三六五年
同	同	十一尺	一三〇尺	三六五年
榛木	月籠面內浦里	十五尺	九〇尺	二一五年

이中에서도 熊潭里의 櫸木은 尹氏墻內의 亭木이니 尹氏란 高麗王期의 功臣 尹文諱이다。이 두 나무는 壬辰亂에 兵火로 죽었던것인데 다시 싹이 나서 오늘에 이르렀고 文東里것은 저 李栗谷先生의 邸內에 있던 나무다。이 樹下에 書院을 세웠던 일도 있다。

長湍郡

第一節 名寺勝地

一、華藏寺

本寺는 長湍郡 津西面 大院里 華山洞에 있는바 寶鳳山中 鬱蒼한 大密林中에 있는 大伽藍으로서 境內를 溪泉이 不斷하여 幽邃崇嚴 그風致는 筆舌로 難記할 程度이다。距今六百餘年前 高麗 第三十代 忠定王 元年 己丑創建이라 한다。當時印度의 高僧指空大師는 王朝의 崇敬을받자 名聲이 全國에 傳播되어 大師의 聲咳에 接하려는 者가 雲集하였다。이 大師가 이仙境에 一寺를 세워서 華藏寺라고 命名하고 隱遁生活을 보냈으며 其後二百六十年에 火災에 걸려 半燒된것을 當時 崇海大師가 修築하였다。

最近 檀紀四二六〇年 再次火災로서 大雄殿、冥府殿等 其他 由緖깊은 建物이 烏有에 도라갔었으나 其翌年부터 四個年에 걸쳐서 널리 淨財를 모아 檀紀四二六六年에 全貌가 復舊되었으나 其後累次의 動亂으로 大部分이 破壞되었다는바 一日速히 收復되어 古來로 景勝地로서 名聲이 높은 이勝地를 다시 밝을날을 苦待하는 바이다。

二、心腹寺

長湍郡 江上面 率浪里에 있는바 創建年代는 未詳하나 멀리 三國時代

의 古刹이라 한다。 附近一帶는 風光이 明媚한 桃源境으로서 高麗以後의 名門墓所가 많음과함께 볼만한 곳이다。

三、長湍石壁

長湍、坡州、漣川、積城郡界를 貫流하는 臨津江은 그 根源을 멀리 江原道 伊川에서 發하여 朔寧、麻田、積城을 지나서 高浪浦에와서 潮水를 보게된다。

이 高浪浦앞에서 부터 江岸石壁이 屛風을 두른듯 延延二十餘里에 亘하여 높이 數十尺 河水의 浸蝕作用으로 片磨岩이 露出하여 自然的으로 이루워진 이 一大勝景은 畿內는 勿論 國內에 그類를 볼수 없는 稀貴한 存在로서 春夏秋冬 四時節에 春聞의 진달래、철쭉、개나리 等 相雜競妍으로 壁面을 裝飾함은 맞이 丹靑한 屛風같고 秋天에 霜楓이 水面에 影寫되고 淸流에 빛인 月光은 비록 文人墨客이 않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詩情畫意를 誘出하여 韻趣 또한 仙境을 彷彿케한다。

古來史蹟에도 高麗太祖와 恭愍王이 이곳에와 賞遊한 記錄이 있고 李朝諸王도 屢次幸遊하였을뿐 外라 壬辰倭亂때 宣祖가 義州로 蒙塵할새 臨津江을 渡江할때 마침 그믐밤이라 江岸石壁에있는 花石亭에 불을놓와 그火光이 沖天하여 晝天같았던 德에 開城까지 無難히 行到하였다는 史實은 이江岸石壁과 아울러 有名한 逸話이다。

四、東坡赤壁

臨津江下流에 있는 江岸壁山으로 이것 亦是長湍石壁의 一部分이나 往時中國詩人蘇東坡가 놀던 赤壁과 恰似하다 하여 東坡赤壁이라하고 地名까지 그石壁附近一帶를 東坡里라 稱하게되었으며 特히 이런 傳說이 있음으로서 有名할뿐않이라 壁下淸流에 一葉扁舟 홀려띄고 叩弦而歌之하면 遠近山川이 一眸에 收覽될뿐 外라 春風秋雨 花月煙霞가다 一幅名畵로서 隣近에 볼수없는 絕景이다。 赤壁下江流에서는 숭어、숭어가 名産이다。

五、德津堂址

東坡赤壁草坪山上에 一小堂宇가 있었으니 이를 德津堂이라 이르는바 往時李朝 仁祖反正當時 時任長湍府使李曙將軍이 서울로 擧事次率兵出家할새 夫人께 約束하되 내가 萬若今般反正에 成功하면 赤旗를 달고 오고 失敗하면 白旗를 달고 올것이니 持身을 차려서 하라 附託하고 上京하였다。 其後夫人은 每日이 山上堂에 登臨하여 臨津나루를 바라보며 男便의 消息오기만 苦待하던 次에 하루는 臨津나루터에 한 旗발이 보이는데 意外에도 白旗였는지라 夫人은 고만 落心千萬한 끝에 이堂에서 卒兒投身自殺을 하게되었다。 追後에 알고보니 李曙將軍이 成功하여 赤旗을 分明 달았으나 砂工이 더워서 힌적삼을 둣대에거러 멀이서 보기에는 赤旗는 않이 뵈고 白旗만 보였음으로 誤認하고 이런 愛惜한 結果를 招來하였다 한다。

이로부터 春風秋雨幾百載에 堂은 허무러져 반터이나 江물만 依舊하게 變치 않고 홀르니 世事의 無情함을 새삼스러히 느끼는 同時에 夫人의 怨魂을 愛撫하는듯 江流에 홀르는 돗대는 오는손 가는行人과 더부러 過去를 回想케한다。

六、敬順王陵

新羅千年社稷의 末王인 敬順王은 第五十六代의 王位에 오른지 九年만에 新羅國運의 衰微과 더부러 當時 高麗王建이 新興勢力으로서 立國稱王하자 終乃社稷을 扶持치 못할것을 깨다른 敬順王은 王建에게 社稷을 無血讓位하고 스스로 臣禮를 取하자 王建은 이를 政丞의 禮로써 厚遇하고 新羅의 舊領을 그 食邑으로주고 王建의 長女를 娶妻하였다。 當時 麻衣太子의 復舊運動은 맞참내 失敗로 도라 갔으나 有名한 史話이다。 이리하여 新羅는 始祖朴赫居世가 開國한以來 九百九十二年만에 끝났다。

敬順王이 死한後에 高麗王은 諡을 敬順이라하고 王禮로서 葬事하였다는 一個碑石이 李朝第二十一代 英祖時에 發見됨으로서 其間風塵雨洗로 자취조차 알수없던 王陵의 位置를 알게되였으니 그곳이 卽 本郡 長南面 高浪浦里다。 其碑文에 曰「諡敬順以王禮葬于長湍古府南八里」라 새겨있음으로서 이 陵의 眞正함을 알게 되였다。

以上列擧한 外에도 高麗歷代의 王陵과 많은 古跡이 있었으나 지금은 大槪廢墟가 되여서 紹介할곳이 없음은 遺憾이다。長湍은 由來 山紫水明으로 風水學上 名堂자리가 많아서 政丞의 墓地가 많으며 예로부터 살기좋아서는 坡州、죽어서는 長湍이라고까지 人口에 膾炙되였으매 特히 臨津江의 長流와 高麗松都가 가까움으로서 地理的 宿命이 또한 그러하게되였다고 보겠다。

七、巨樹名木

樹種	所在	胸高周圍	樹高	樹齡
銀杏	大江面禹勤里	四十八尺	十間	一、三四〇年
櫸	長道面沙是里	二十五尺	八間	一七〇年

大江面銀杏木은 龍門寺銀杏木과 比較할때 胸高에서 十二尺이 높고 樹高十三間이 얕으나 樹齡은 훨신오랜것으로 推定되며 韓國第一이라는 龍門寺거와 거진 伯仲하는 巨樹로써 雙方다 天然紀念物이 되여있으나 不幸히도 三八以北에들어가서 보지못함이 遺憾이다。

開豊郡

第一節 古蹟

一、穆淸殿

穆淸殿에는 두개가 있으니 하나는 李太祖의 舊邸이던 穆淸殿과 高麗朝第十八代 毅宗의 建造로된 高麗 穆淸殿이다。前者는 現本郡 嶺南面 龍豊里인 坐大橋 위에 있고 後者 卽 麗朝의 宮殿이던 穆淸殿은 滿月臺에 東北에 있었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늘 그 正確한 宮址까지도 發見되고 있지 않다。

現存한 穆淸殿은 開城驛에서 約 四粁의 相距로 李太祖가 李成桂時代의 住宅 인것을 第三代 太宗이 改修를 하고 太祖의 靈像을 奉安하고서 現在의 穆淸殿으로 改名한 것인데 第十四代 宣祖 二十五年 倭亂의 兵火를 입어 荒廢化 되었든 것이다。 倭亂은 끝이나고 戰禍를 어느程度 恢復한 第十七代 孝宗은 太祖를 追念하여 이의 再建을 計策起工、十八代 顯宗代에 와서 이의 完成을 보았었고、碑는 十九代 肅宗이 세웠다。

碑閣안의 碑銘「穆淸殿不啓靈慶之碑」의 書는 肅宗王의 御筆이다。

그後 補修의 不充分으로 頹廢一路에 있던것을 高宗 光武六年 有志들의 願으로 大改築을 斷行、令 및 參奉을 두어 每年 享祀케 했었다。

李太祖가 李成桂時代에 明에서、歸國하는 世子 奭을 맞으러 난길에 狩獵途中 落馬을 하고 돌아왔다。 함을 이미 쓴바 있거니와 李成桂의 謀叛에 對한 態度를 불쌍 鄭夢周가 李成桂를 찾아 갔던집도 바로 이 穆淸殿이다。 이날 鄭圃隱은 穆淸殿에서 나와 回路途中인 善竹橋에서 鐵槌에 맞아 말에서 떨어진것을 칼로 찔러 殺害 하였다

二、元通寺

元通寺는 天摩山 北城址에서 굽어들어 간다。여기서 부터 元道寺 까지의 路邊絕景은 그야말로 一筆難記의 幽景이다。

元通寺는 圓通寺라고도 쓰여진다。高麗太祖二年 太祖는 松都를 中心으로 十大巨刹을 이룩했다 만은 到處에서 指摘한바 있거니와 元通寺 도 그 寺刹中의 一로 推測된다。西紀九一九年이니 距今 千三十八年 前이다。

지금 遺物로는 蓮花盤石 古礎가 若干 옛날의 隆盛時를 回想시켜 준다。寺址에 藥師堂이 있고 그안에 藥師石像이 있으나 珍貴한것이 못된다 한다。

그러나 藥師堂 옆에 古浮屠 一基가 있으니 建造年代와 作者도 알 수는 없으나마 彫刻과 紋이 特異할뿐더러 浮屠全體에서 품기는 古雅味가 보는이로 하여금 情을 느끼게 한다。 옮길때 塔身과 基臺가 바뀌어서 廢物이 되다싶이 된것이 遺憾이다。

堂뒤에 小庵이 있으나 別로이 볼만한것도 못되고 遺物따운것도 없다。

이 元通寺에 對한 傳說로서 南秋江 孝溫의 「松都錄」中에 傳해지고

있는데로를 옮기면 옛날에 어느 사냥꾼이 수리를 쏘아 마추었든바 설마진 수리가 달아나고 靈鷲山을 거치어 聖居山으로 血痕을 좇아 갔더니 意外에도 어린 새끼 다섯마리 앞에 가서 쓸어져 죽은지라 이를 본 사냥꾼은 불상한 생각도 들고 殺生이 열마나 큰罪임을 悔恨하여 활을 꺾어 버렸다고 한다。그는 수리를 埋葬하여주고 여기에 一刹를 이룩하여 元通寺라 했다는 것이다。「怨痛」의 音를 따서 予며진 이야기다。

元通寺域은 보기 드믄 景勝地이니 뒤로는 國師峰의 靈峰이 솟아있어 우람스럽고 여기에 또 聖居山이 더 했으니 可謂 勝景이다。視野에 드느니 翠松奇峰이요 怪石사이로 丹楓의 빛 더욱 눈이 부신다。한발만 잘못 내딛어도 천야만야의 絶壁길으로 날라 떨어질듯、그렇것만 頂上 脚下로 白雲이 作亂하듯 휘어 감는다。들며나며 오르며 나리며 가는 遮日巖까지에 行路가 사실 절겹다。

趙漢功 이란분의 元通寺 頌句가 있기로 附記했 둔다。

寶殿臨風鳳欲霞　最雖忘處是西軒
未晨已得東方白　不兩先占北嶺昏
路險更愁攀石登　泉甘猶喜汲松根
地靈仙有留人意　故起煙霞讚洞門

三、顯 陵

麗太祖의 陵墓인 顯陵은 中西面鵠濱里에 있다。太祖洞 이라고 일컫는 곳으로 開城驛에서 西方 四粁地點이다。陵域의 鬱林은 陵의 威嚴을 한層 더해주고 左右로 靑龍、白虎의 山을끼고 있어 陵域全體가 勝地를 이루고 있다。

陵制가 다른 高麗王陵에 比하여 比較的 李朝式陵制가 加味되어 있음은 本陵은 麗朝 五百年間 頻繁히 來寇한 北方의 戰亂을 避하여 梓宮을 移御한 關係라 볼것이다。이제 史記에 나타난것만으로도 八代 顯宗朝 元年 契丹의 侵寇로 顯宗이 南朝鮮으로 蒙塵할 때는 漢陽 北漢山에 있는 香林寺로 梓宮을 奉遷코 同寺와 顯陵間을 往來했으며 二十三代 高宗四年 三月 蒙古軍의 大擧來侵으로 다시 江華島 奉恩寺로 奉遷하였든것을 第二十五代 忠烈王 二年 九月에 와 顯陵으로 復葬했었다。麗朝가 이 頻繁한 北族의 來寇로 입은 被害는 이로 數字로서 說明할 수도 없거니와 三十一代 恭愍王代에 侵犯한 所謂 紅巾賊、또는 紅賊、頭頭賊으로 불리어지는 蠻族의 被害는 實로 慘憺한바 있었으니 이들의 掠奪에도 顯陵은 多幸히도 發掘을 冒免하여 오늘까지 維持되고 있음은 不幸中의 唯一한 多幸이라 할 수 있다。

陵制는 墳壇을 十二面의 護石으로서 둘러싸고 各面의 腰石에는 十二支神을 薄肉刻하고 있다。墳園에 다지 石欄을 架하여 陵墓를 護衛하고 있고 墳前에는 魂遊石、石燈으로서 配하고 左右에 望石과 石人、四隅에 石獅子로서 護墳케 하고 있다。

大槪의 高麗王陵에는 墳墓앞에 傾斜에 石段을 좋은것이 常例요 高麗王陵의 特色인바 이 陵前은 左右를 澌下시키고 全혀 石段을 쓰고 있지 않은것은 李朝風으로 볼 수 있다。

陵下의 丁字閣은 李朝後期의 建造라 하며 그옆 碑閣、碑面에는 「高麗太祖 顯陵、神惠王妃 柳氏祔」로 되어 있다。

四、玄陵·正陵

玄陵과 正陵은 高麗朝 最後의 王이나 진배없는 三十一代 恭愍王과 魯國大長公主와의 陵墓이니 中面 麗陵里에 있다。土城驛에서 約 三粁地點이다。玄陵이 恭愍王陵이오 正陵이 魯國公主의 陵墓로、玄陵이 西、正陵이 東에 자리잡고 있다。秀麗한 鳳飛山의 中下腹에 자리잡아 左右에 靑龍、白虎로서 脇山하고 앞에 朝起山을 案하여 壯嚴을 極하고 있다。

陵이 玄、正 兩陵은 그 壯嚴한맛으로도 그렇거니와 從來 高麗王陵의 制度에 一大革命을 이르킨 點으로도 硏究할 價値가 있으니 이 玄陵의 制度는 곧 李朝王陵의 基礎가 되어 주기도 한것이다。陵制도 그렇거니와 지금까지의 高麗에서는 王과 妃의 陵을 함께 좋은例가 없던것을 恭

愍王이 깨트린 것이니 魯國公主를 잃고서 三年間을 두고 日夜로 悲泣對食도 않고 一切의 肉膳을 不進했다고 하니 그럴만도 한 이야기다。

이렇도록이나 恭愍王을 悲嘆케 한 妃는 元의 宗室 魏王의 女 寶塔失里이니 北庭에서 迎娶하여 歸國한 것이다。 그後 恭愍王은 內政으로는 다 썩어갔지만、北의 威脅이 없는 小康狀態에 있는 麗朝를 이어받은 것이다。

魯國公主는 歸國後 十四年만에야 妊氣를 보게되어 王은 罪人에게 二罪를 赦했고 彌月 難産에 다시 一罪를 赦免、公主의 順産을 祈하여 有司로 하여금 山川佛宇에 祈禱를 시키고 王自身이 端坐焚香 했것만 公主는 二月 甲辰日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王이 너무도 悲慟하므로 崔瑩을 비롯한 重臣이 宮을 옮기게 하여도 듣지않고 百官은 玄冠、素服을 시키고 殯殿、國葬、造墓、設齋의 四都監을 두는等、寶로 度에 지나친 葬儀였다。 王自身、詩才가 있어 公主의 肖像畵를 그려붙이고 每日 울음으로 지나기 無慮三年、二十一年에는 公主의 陵결에 壽陵을 經營케 하였으니 이것이 곧 玄陵이오 恭愍王이 묻힌 陵이다。

元來 恭愍王은 仁慈 厚德하여 卽位時에는 勵精國治로 太平歲月을 노래케 하더니 公主를 잃은後로는 妖僧 辛旽에게 國政을 一任하고 勛賢을 죽이고 土木을 이로키고 豪遊를 일삼든것 까지도 좋았으나、頑童을 데리고 作戲가 일수요、美少年을 통사서 內宮에 接近시키는等、寶로 度에 벗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亂政이 李太祖 李成桂로 하여금 麗朝를 드러엎게 한 動機가 되었을 것이다。 이 恭愍王에 關한 史實은 李朝의 我田引水的인 僞作도 想像할 수 있겠거니와 美少年 洪倫、崔義生이 益妃와 相姦하여 妊娠 五個月이라는 말을 듣고 秘密을 保持키 爲해서 洪崔를 暗殺하려는 計劃이 漏說되어 도리어 兩人한테 弑殺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玄、正陵은 恭愍王 在世時부터의 經營으로 前例에 없던 比翼塚이오、朝鮮有史以來의 完備壯嚴한 王陵이다。

「初公主薨、相視山陵、司天臺臣 變其屬景 司胥原隰所不到 入光嵓洞卜之吉 將葬也 上 面諭司天臣千必興曰 少東之 母用其中 他日葬禮於其西便 無或少偏焉、未幾 上益感老之弗克偕 生之必有終 命攸司依陵室 刻日興工 群臣莫敢出一言矣」

이는 廣通普濟禪寺 碑文中의 一節이거니와 이로서 우리는 這間의 情況을 짐작할 수가 있다。

陵制는 長方形의 三段으로 되어 있고 中央에 步道가 있어 第一壇 左右에 雄偉한 武人石이 雙으로 侍立、二壇에 文人石과 石燈、第三壇의 封墳이니 前面兩隅에 望柱石、墳壠앞에 鼓形石脚이 彫刻된 石床이 兩臺、墳壠의 前後左右로 石虎四基와 中央前後에 石羊二基가 安置되어 있으며 封墳은 長大한 石壇위에 놓여 있다。十二角 屛石에는 十二支像 雲文石과 欄干石이 交錯되어 甲石地臺石의 蓮辨石도 明麗하다。

陵前의 丁字閣址는 곧 王이 在世時에 公主를 그리우며 徘徊했다는 자리다。

高麗王陵으로서 王과 王妃의 陵을 한자리에 經營한 것은 이 玄、正陵이 그 始初라 함은 旣述한바와 같거니와、이 兩陵의 守護寺로서 廣通普濟禪寺를 이룩하였든 것은 前記한 碑文에 보이는바다。 該寺는 지금 자최도 없으나 아직도 碑만은 남아 있으니 碑身은 大理石으로 幅이 六尺九寸、高 四尺六寸、厚 一尺二寸、周邊에 纖妙한 草花를 刻하고 兩側面에는 龍을 陽刻했다。 恭愍王이 이 碑身을 멀리 中國에서 求했다는 것도 有名한 이야기지만、撰文은 麗末의 碩儒로 이름난 李穡이다。

五、玄化寺址의 碑와 石塔

玄化寺는、嶺南面 玄化洞 靈鷲山麓에 있었으니 麗朝 八代의 顯宗이 外姦한 生母 獻貞后의 陵옆에 后의 愛人이던 安宗(太祖의 子로 泗川에 流配、거기서 죽다)을 移葬한後 이를 奉護코저 이룩된 寺刹임은 이미 이야기한바 있다。 卽、顯宗은 不義의 父君이오 母后지마는 낳으신 恩에 목메어 諸佛의 誓願에 副키 爲한 精舍를 經營하다가 마침 皇陵東에

山勢가 秀眉하고 杉松蒼翠 巖岩鬱鬱의 勝地를 發見하고 開國候 崔士威로 하여금 이 妙境에 伽藍營造의 命을 나리니 顯宗九年 六月 戊申日이다。

이 寺址에 七層石塔이 있으니 그 彫飾의 工이 高麗 沙塔中 가장 代表的인 遺物이다。이 石塔은 顯宗十一年 皇妣의 聖鄕인 黃州 南面에서 眞身舍利를 感得하고 皇考山陵 附近의 普明寺에서는 靈牙의 出現을 보아 이 靈牙一雙과 舍利 五十粒을 奉安키 爲하여 이룩된 것이다。

規模는 高二十四尺으로 規模의 大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手法의 雄、彫琢의 精은 顯宗一代에 그치지 않고 우리 塔史에 劃期的인 逸品이라고 한다。이 塔이 價値있는 所以는 다른點에도 있다 하지만 그 塔式이 新羅朝의 樣式에서 完全히 解脫한 點으로 高麗朝의 美術의 特長을 自由롭게 發揮했고 各層塔身의 四面에는 釋伽三尊、兩羅漢을 浮刻하였고、各層의 屋蓋가 날을듯한 感을 주어 그 奇拔輕快가 豊麗한 彫刻과 좋은 對照를 보여주고 있다。

石塔外에도 玄化寺碑가 있으니 碑身의 高 七尺八寸五分、幅이 四尺三寸、厚 一尺의 大理石으로、雲龍碑基의 龜趺과 함께 彫刻精巧는 極致를 다 했으며 碑身上部에는 靈鷲山大慈恩 玄化寺碑銘과 篆額을 配案、碑 全面에 결친 鳳凰陰刻이라든가 昇降龍의 肉高彫等 實로 非凡의 手法이다。礎石으로 보아 碑閣이 있었든것도 짐작이 된다。

어쨋든 高麗는 毅宗以後로 漸次 下降線을 그어 나려오기는 했지만 最後의 滅亡契機로 만든것은 恭愍王이라 할수 있고 恭愍王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것은 魯國公主요 또 直接 民怨을 많이 사게한 것은 이 公主의 葬儀와 正陵의 經營이라고까지 불수 있느니만큼 從來의 高麗陵制는 勿論 新羅時代의 陵墓와도 特異한 新紀元을 보여 주고 있다。

王이 이처럼 腐心한 陵이니만큼 陵域은 勝地勝景의 極致를 이루어 名勝의 一로 꼽아진다。

六、靈通寺址

靈通寺址는 嶺南面 玄化里 靈通洞에 있으니 寺史보다도 이 寺址에 남아있는 石塔과 大覺國師碑로서 有名하다。

大覺國師란 高麗中葉의 名僧으로 第十一代 文宗의 四子로 超悟하기 비길데 없더니 削髮을 하고 靈通寺에 들어 오직 修道에 힘썼다。第十三代 宣宗二年 四月에 入宋、一年餘동안 到處의 名山勝景을 찾고 名刹을 찾아 聖僧의 陶薰을 받다가 三年 五月에 歸國하였다。麗朝 名刹로도 有名하려니와 八萬大藏經의 刊行의 發祥地로서 世界文化에 寄與한 바 있는 저 有名한 興王寺도 이 大覺國師의 經營이지만 많은 佛書의 著作을 남긴 名僧이다。이 碑는 第十七代 仁宗三年의 建立으로 碑身高는 十七尺、幅 四尺三寸에 厚가 六寸의 大理石이다。上部篆額左右에 優雅한 鳳凰 및 寶相을 薄肉彫했고 그위에 屋蓋를 씌워 軒에는 垂木形을 浮刻했다。

碑는 花崗龜趺에 제워져 「高麗國 五冠山 大華岩、靈通寺 贈諡大覺國師碑銘並」이라 刻字되어 있다。

이밖에 寺址에는 西三層石塔(高 九尺)、東三層石塔(高 十二尺)、五層石塔(高 十六尺)의 三塔이 있으나 考古學的으로는 큰 價値가 없는 모양이다。

七、觀音寺

松都 開城의 鎭山이던 天險의 名山 天摩山에 山城이 있거니와 이城中에는 數없을 程度의 庵房寺蹟이 남아 있거니와 個中에서도 大興과 觀音는 古刹이다。天摩의 奇勝 朴淵瀑布와 相距하기 不過 幾百步로 朴淵探客이 찾지 않는 일이 없거니와 이 古寺는 高麗 四代 光宗朝의 創建된지 一千餘年이다。

開基當時에는 觀音窟로 通稱되었든 모양으로、史記에는 窟로 나오고 있다。이 岩窟은 該寺 創刱時에 發見된 것인데 그때 이미 窟內의 二石에 觀音像이 있었다고 하여 光宗은 이를 靈地로 삼고 建刹開基케 했던 것이다。麗朝는 勿論 李朝에 와서도 王室과의 接觸이 密接하여 宮

中으로 부터의 使者가 그치지 않았다 한다。寺記에는、李太祖가 建國前에 重建한 일이있다 하지만 確認된 것은 아니라 한다。李朝가 되자 그렇게 阿附한 것은 아닌가도 싶다。

本寺 大雄殿의 建造年代도 未確認되어 있지 못하나 李朝中葉의 建物이라는 說도 있다。어쨋든 大雄殿은 壯하면서도 精巧한 建築이건만 赤治下에서 그대로 남아 있기나 한지?

觀音寺　李朝　李詹

禪房十肘士牀溫　當日淸平石柱存
岩賓不因雷雨壓　定應賴有白衣尊

八、高麗 社稷壇

高麗社稷壇은 中西面 前里 玉粧橋에 있으니 高麗朝 時代에 社稷之神을 祭祀하던 자리다。開城市에 二粁未滿의 相距地다。

面積은 約百坪이요、正方形의 周圍를 高 一尺五寸의 돌담으로 에워쌓고 中央에 鷄卵形의 高 二尺可量인 石物을 設置해 놓았다。旱魃時에는 祈雨祭도 여기서 지냈다。

九、大 井

通稱「한우물」이라는 大井은 西面 開城里 大井洞에 있다。이 大井은 古蹟으로서도 文獻에 많이 보이거니와 高麗王國의 建國史에도 나오는 大井이다。圍는 南北八間에 東西 四間、水深도 三尺에서 七尺이나 되는 塘池다。돌담으로 안을 쌓고 地上에는 土壁담을 쌓아 保存해온다。西쪽이 가장 깊고 여기에 淸洌水가 湧出하는 것도 이쪽 水中이다。

이 大井에 高麗太祖의 祖父 懿祖와 그의 妃 龍女와의 傳說이 傳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溫鞋陵에서 이미 이야기한바 있기로 여기에서는 略하거니와 이 못속에서 數많은 雜魚가 있건만 이 고기를 먹으면 實을 잃는다는 傳說이 있어서 누구하나 손을 대지 않았었다。井北에는 龍女廟가 있다。

第二節 名 勝

一、天摩山과 聖居山

天摩山은 嶺北面 古德里、山城洞에 있는 峻嚴한 山이다。麗太祖 建國史話에도 나오거니와 이 山의 天險함은 聖居에 比할바 아니어 麗朝에서 避難城을 築造하고 大興山城이라 불렀다 함은 城廓條에서 記錄한바와 같다。萬鏡臺、淸涼峰、聖居山의 斷崖削壁위에 쌓아진 이 山城은 基地自體가 不可侵의 要塞이다。

山城 中央으로 天摩、聖居 諸峰의 幽谷에서 흐른물이 溪流을 이루어 南에서 北을 貫流하고 溪流에 따라 奇岩과 怪石이 또한 奇와妙와 壯을 極하여 風光의美 形言하기가 어려운 程度다。이 天摩山은 예로부터 開城金剛의 稱이 있거니와 奇岩의 萬相은 果然 萬物相을 연상시키고도 남음이 있고 그 溪谷의 幽邃함과 溪流의 淸洌함 또한 小金剛의 感이 있다。

山中에 大瀑이 있고 小湖가 있으니 瀑은 저 有名한 朴淵이오 小湖는 龜潭、龍潭의 兩潭이다。그런가 하면 史上에 이름이 떨치는 觀音、開聖、雲興、大興의 四古刹이 있다。特히 朴淵에서 大興山城의 大小六門中 現在한 唯一의 城門인 北門까지의 斷崖山路의 風景도 좋거니와 여기서부터는 그야말로 突兀萬仞의 險山이 덮치는듯 絶景을 이루고 上台코 보면 물은 더욱 맑을밖에 없다。史上에도 이름이 많거니와 이 稿에서도 到處에 나오는 觀音寺에서 大興寺址까지는 정말로 泉石이 妙하고 壯하여 이 山容水態는 絶景으로밖에 表現할길이 없다。

大興寺 上流에 制勝堂址가 있으니 大興山城駐屯軍의 軍衛址다。

古賢의 頌詩一首式을 附記한다。

天摩山　李朝　洪漢仁

朝上白雲峰頂觀　暮投峰下孤菴宿
夜深僧定客無眠　杜宇一聲山月落

聖居山 高麗 李穡

高僧當日雙風塵 龍女相隨事最神
下俯岡頭同寄迹 一甁水底獨藏身
梵宮寂寞煙霞古 人世悠悠歲月新
最是岩前開虎嘯 至今鳳曆照千春

二、進鳳山

松都의 客山으로 알려져 있는 進鳳山은 進鳳面 炭洞里에 있으니 開城市에서 二粁半의 相距地에 位置한다。 標高 一千二十三尺의 峻峰으로 봄이면 杜鵑、躑躅으로 全山이 꽃송이가 된다。 더욱이 「進鳳山 躑躅」이라면 全國에 알려져 있다。 山中에 道詵、玉泉의 兩寺가 있고 朝鮮大將軍 張鵬翼의 墓가 있다。

元來 進鳳山을 南星機、天摩山을 北星機라 하여 古來로 부터 開城사람은 봄에 杜鵑、躑躅을 찾아 南星機인 進鳳에 오르고 가을에는 丹楓을 求景하러 北星機 天摩에 오르는 風習이 傳해나려오고 있으니 松都에서 옛날부터 오늘의 하이킹이 盛行되었든 모양이다。

卞季良의 頌詩 一篇을 붙여둔다。

進鳳山 李朝 卞季良

遠山層峰一經斜 白雲垂地掩僧家
山中古寺多相似 處處春風躑躅在

三、朴淵瀑布

俗稱 「松都 三絶」이라 하면 一絶에 徐花潭의 道學、二絶에 黃眞伊의 美貌와 詩才、三絶은 朴淵瀑布라 한다。 花潭先生은 李朝 十代 成宗 二十年에 誕生、十四代 明宗元年에 五十八歲를 一期로 돌아갈때까지 一切의 富와 貴를 버리고 오직 學究에 專心、儒敎思想을 發展시킨 學者임은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다。 李退溪는 「當年如得見 勝讀十年書」라하여 花潭을 追慕했고 黃眞伊는 「松都三絶先生爲首」라 하여 또한 花潭을 欽仰했다는 것은 有名한 이야기다。

黃眞伊는 失節하여 妓女가된 女流詩人으로 노래、漢詩、거문고 모두가 神境에 이른 名妓임도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다。 眞伊가 道學의 名望이 一國의 冠한 花潭先生、그 勝景이 東國에 웃뜸가는 朴淵瀑布와 自己를 合해서 「松都三絶」이라고 했다는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自尊心이 强했든가를 알 수가 있다。

이렇듯 名勝으로 알려진 朴淵瀑布는 天摩와 聖居의 兩名山의 물이 合水되어 兩峰峙立한 深谿을 迂回、大興山城의 北門에 이르러 이루어진 碧潭이다。 深高 百二十四尺이니 그 壯觀을 想像키에 足하다。 千古禁斧의 鬱林을 헤치고 들어가면 瀑音이 轟轟、飛沫은 白虹을 그린다。 瀑上의 奇潭 朴淵은 마치 그릇처럼 한개의 奇岩으로 이루어졌고 이그릇같은 潭에서 떨어지는 물이 長瀑을 이루고 있다。

朴淵에 關한 文獻으로는 東國 李相國全集 第十四에

「龍娘感笛婿先生 百載同歡便適情
猶勝臨邛新寡婦 失身都爲聽琴聲」

이러한 絶句가 傳해지고 있거니와 다시 註하여 曰、

昔有朴進士者 吹笛於淵上 龍女感之 殺其夫 引之爲婿故 朴淵으로 되어 있으니 文意대로 朴進士의 피리 소리에 心醉한 龍女는 自己男便을 죽이고까지 朴進士와 同居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朴淵이라는 글자에 따른 傳說일 것이다。 이 傳說은 다시 事實化하여 朴進士가 新羅人이라고까지 한 詩도 傳해지고 있다。

「新羅進士化爲魚 龍女求歡事有無
玉笛至今聲彷彿 空山遙夜月輪孤」

이러한 傳說은 다시 傳說을 나어서 玉笛妙音에 醉한 龍女가 朴進士를 끌고 潭中으로 들어 갔으므로 朴進士를 찾아다니던 그의 生母도 悲

觀한끝에 물에 뛰어 들었다고 傳해지며 「姑姆潭」이라는 別名은 이 說話때문에 생긴 것이라 한다。 高麗十一代 文宗이 이 朴淵에 幸하여 瀑上淵中의 島岩에 올랐더니 天地가 震動하고 雷雨가 쏟아지며 물이 뒤집히어 龍의 怒炎을 샀다는 記錄도 傳해지고 있다。

瀑邊에 泛槎亭이 있으니 그 아름다움은 그림과 같다。 여기서 天摩山腹을 우러러 보면 千古翠松속에 一城門이 보인다。 이 곧 大興山城中의 唯一한 北門이다。

申濡의 朴淵頌이 있어 이를 附記하여 둔다。

朴淵　李朝　申濡

飛流千丈掛靑空　開鑿當年拔力窮
若使謫仙吟到此　廬峰未必壇棄中

四、巨樹名木

樹種	所在	胸高周	樹高	樹令
赤松	靑郊面廣嵓里	十一尺	二十四尺	五〇〇年
櫸	嶺南面玄化里	二十八尺	七十二尺	五五〇年
楢	嶺北面月古山里	十八尺	四十八尺	六〇〇年

特히 靑郊面에 있는 赤松은 狩獵次 여기에 幸했던 高麗朝 恭愍王이 이나무 그늘에 쉬었다가 地上 九尺位置에 珠玉을 挿入 記念했다는 傳說이 있다。

漣川郡

第一節 名勝舊蹟

一、崇義殿

本殿은 漣川郡、嵋山面 峨嵋里에있는 麗朝歷代王의 位牌를 奉安하는 곳이다。

이 地帶는 臨津江岸 斷崖絕壁上 景勝地로서 老樹는 鬱蒼하여 殿閣을 싸고 脚下一帶는 萬頃蒼波 四邊幽邃한 別天地이다。

이곳은 멀리 三國時代부터 仰嚴寺라는 절이 있던곳으로 高麗太祖는 幼時부터 이곳 風光을 賞愛하고、커서 麗朝를 세워서부터는 더욱 同寺를 崇敬하였으며 그뒤 李朝가된 뒤에 寺僧의 橫暴으로 이절은 廢하였다 한다。

傳說에 依하면 李太祖가 登極하자 麗朝王孫을 殺害하고 麗王의 位牌는 此를 배에 떠워 江中에 던졌더니 배는 물은 遡及하여 이岸下에 다어 不動하므로 王氏子孫이 남몰래 位牌를 거두워 이곳에 廟를 짓고 此를 奉安하였다고 傳한다。

李朝五代王 文宗朝에 前朝를 禮遇하여 崇義殿이라 賜額하고 高麗太祖顯宗 文宗 元宗의 四位를 奉祀하고 麗朝忠臣 鄭夢周外 十五名을 配享케하여 奉祀土地를 賜佩해서 春秋로 遣使致祭케 하였으며 이여 第十四代 宣祖때 麗朝 王氏後裔로 參奉을 除授하여 兩來綿綿 殿宇의 守護와 享祀를 보게 하였다。

然이나 이런 由來깊은 古蹟도 六、二五動亂으로 廢墟가 되였음은 遺憾이라 않이 할수 없다。

二、風穴

風穴은 郡內面 東幕里에 있는바 깊이 十餘間 炎天에도 氷雪이 녹지않을 程度로서 嚴多을 聯想케하여 保溫施設이 不備한 往時에는 蠶種十餘枚를 貯藏하였다 하며 周圍가 鬱蒼한 樹林에 싸여서 幽邃한 境地를 이루웠을뿐外라 隣近에 東幕藥水가 있어서 四時 淸遊士客이 不絕한 곳이다。

三、才人瀑

이 瀑布는 郡內面古文里에 있는바 周圍의 風光이 明眉할뿐 外라 盛

夏避暑에 適合하고 晩秋丹楓節이 더욱좋다。 飛流直下六十尺、 떠러저 深潭이되고 흘러가 臨津江支流에 들어가 漢灘이된다。

江流彈琴、 兩岸絶壁에는 杜鵑花가 點點紅으로 水面에 빛긴 樣은 活畵 그대로이다。

昔時 이골원님이 하로는 才人을 불러 이 瀑布에서 遊樂할새 其時 출을 瀑布위로 걸어놓고 才操를 피우다가 不時에 그줄을끈어 才人을 瀑布에 떠러트려 慘殺케하니 그原因인즉 才人의妻가 美貌임을 탐내여 殺夫하고 情을 强要하였으나 其妻不聽하고 원님의코를 물어뜨든 故로 이 瀑布 이름을 才人瀑이라 하게되고 이近方을 古文里(코문이)라 부르게 되였다 한다。

四、薛仁貴碑

積城 紺岳山 最高絶頂에 大盤石上에 玄武岩으로된 高六尺、 幅三尺 餘의 碑가 있다。 碑文은 劍磨되여 痕跡만 남았으나 이를 薛仁貴碑라 한다。

薛仁貴는 唐나라 名將으로 距今千三百二十餘年前 高句麗、 百濟、 新羅、 三國이 相爭할새 新羅는 唐에다 援兵을 請하자 唐高宗은 蘇定方을 百濟에 派遣하여 高句麗를 滅亡시켰으며 薛仁貴는 當時蘇定方과 더부러 半島鎭撫의 大任을 띠고 渡來한 名將이였다。

碑前方에 岩窟이 있으니 傳說에 依하면 薛仁貴가 居하던 곳으로서 薛仁貴窟 이라는 이름까지 있다。 또한 이곳을 根據地로해서 半島에 雄名을 떨쳤으며 附近雪馬里는 薛將軍이 騎乘 하였다 하여 薛馬峙의 地名이 生겼다。

이地點의 展望은 자못 雄大하고 縹渺하여 一望千里 實로天下의絶景이다。

五、鳳岩寺

紺岳山麓에 老松이 亭亭하고 淸流明鏡같은 곳이 있으니 여기가 卽

白雲洞인데 이곳에서 約五里許에 峻嶺奇峰이 左右에 巍然하고 綠樹林間에 奇岩怪石으로 이룬 溪谷은 水石相衝 人語鳥聲을 壓倒하여 仙境을 彷彿케하는바 紺岳山 中腹에 一寺가있으니 이절이 鳳岩寺다。 約百三十年 前建物이나 淸淨한 玉流와 鬱蒼한 樹林에 包圍된 이곳 景槪 또한 佳麗 하다。

六、羽化亭址

本郡 朔寧面 大寺里 所在、 李朝 第十四代 宣祖朝當時 右議政 眉叟 許穆 이일즉이 嵋山面東梨里 隱居堂에 居住 하가 大寺里近方을 흘르는 시내가 臨津江에 合流하는곳、 山容水態가 秀麗함을 讚賞하여 風雅한 八角亭을 세워 羽化亭이라 하고 行遊의 地로 하였다。 四季中 丹楓節이 特히 絶勝하다。 지금은 遺址만 남았다。

七、巨樹名木

樹種	所在	胸高周圍	樹高	樹齡
銀杏	嶺芹面隱垈里	十六尺	九間	二百七十年
楡木	百鶴面頭峴里	八尺	十間	一百七十年
桑	中面馬巨里	六尺	五間	一百二十年
赤松	郡內面玉山里	八尺	九間	一百四十年
朝鮮松	嶺芹面新畓里	七尺	八間	一百二十年
柳	郡內面邑內里	十尺	九間	三百二十年
白樺	中面橫山里	七尺	六間	一百年
楢	汪澄面江內里	十二尺	四間	四百七十年

第二章　題詠詩歌篇

第一節　漢詩

幾甸山河
疊峰環畿甸
長江帶國城
美哉形勢自天成
眞箇是王城

遊漢江

纔登傑構縱奇觀
又棹樓船泛碧湍
錦纜徐牽綠翠壁
玉壺頻送隔雕欄

漢　江

漢江煙淡碧於藍
畫舫清遊趣正湛
美景良辰留海外
佳山秀水逼江南

楊花津

楊花古渡最清幽
特出奇峰枕碧流
酒醉都地身外事
雨聲難洗客邊愁

登木覓山

尺五城南山政高
攀緣十二青雲橋
長安萬家百花塢
樓堂隱映紅似雨

成均館

曉白成均謁聖堂
杏壇弘敞碧山陽
八條教典懷箕子
萬世儒宗仰素王

三角山　高麗　吳洵

聳空三朶碧芙蓉
縹緲煙霞成萬重
却憶當年倚樓處
日沈蕭寺數聲鍾

北漢山城

臨筵定計出深思
更喜吾民與守之
昔日溫都斯地建
今辰行殿此山治

文殊寺

一室何寥廓
萬綠俱寂寥
路穿石罅通
泉透雲根落

津寬寺

青青松栢擁池臺
地僻天深洞府閒
溪似玉圍流屈曲
山如雲勇勢崔嵬
青春來賞能幾何
白日政長催羯鼓

明使倪謙

濟濟衣冠忻在坐
青青衿佩善成行
文風奇特覃東海
聖化于今遍八荒

三角山　北漢山登攀詩　李太祖

引手攀蘿上碧峰
一庵高士白雲中
若將眼界爲吾土
楚越江南豈不容

北漢山城

美哉可比秦隘險
高矣殊同蜀道危
屹々崇墉新葉壯
海東第一果誰爲

李朝肅宗

僧坦然

皓月掛簷楹
凉風動林壑
誰從天上人
清坐學眞樂

鄭以吾

汰僧元魏猶供笑
惑佛肅梁不滿哀
無是無非心自正
熱爲緣覺熟如來

廣州靖陵

暇日便與出
荒臺滿目愁
喬山何處葬
漢水至今流

狎鷗亭

韓公雅趣愛清閒
每向江亭喜往還
只伴漁翁垂雪鬢
肯憐歌妓整雲鬟

景福宮

玉葉橫金闕
朱甍照碧天
丁東傳促漏
戊北釀非烟

仁政殿

環佩丁璫響玉墀
群臣鸞鶴早朝時

南漢山城

南登南漢城
北望三田渡
石闕誰家碑
人問白日暮
誰逐鴨江邊
三日到郊折
不見我城陰
但見胡馬飛

守　贇

煙渚孤帆夕
楓林數雁秋
清樽江上寺
又與故人遊

項　忠

鷗訓皆下澄澄水
螺列江邊點點山
社稷殊勳庸詎說
不妨隨意俯蒼灣

鄭以吾

佳氣晴相擁
高標望更連
南山將獻壽
穆穆萬斯年

定　宗

子房在右長卿在
一代奇才盛如斯

姜　樸

媮堉非今日
昇平五十春
對敵抗無人
能縛斥和臣。
大野荒壇在
當時虜帳高
狼藉銅盤血
東人無寸刀。

落日西將臺
沈歌意不極
荒雲入古城
飢鵰登寒木
胡人連手歌
胡馬日勝躍
哀哉圍城中
所恃惟南鶻

西將臺

回駕直登西將臺
君臣說往日昏來

顯節祠

嗟哉三學士
凜凜節如何
知是皇朝在
力排醜虜和

望月峰

長風飽帆漢水急
枯腸得酒亦易醉
移樽飛上夢山顚
古人愛月皆儒仙
赤壁何時舞玄鶴
一樽滾滾江無窮
五夜深深月不落
山中歸來酒初熟

虜索斥和臣
若斥終幾人
爭言吾不斥
北去只三臣。
逗遛彼誰子
國家非負爾
當時三百州
獨有雙嶺死。

肅　宗

忿然慷慨不能抑
惟有善承善繼哉

肅　宗

拜辭忠愈欵
臨死節尤膺
舊宇圖新煥
追思感實多

徐居正

雙耳鳴時興自足
偸眼東峰待新月
新月激灩生雲端
須臾懸在天中央
擧杯問月月不應
氷輪無角金波瀾
九州四海皆清光
顧鬼笑我多情狂

騎鯨寥廓猶千年　今人古人將無同
伯仲豪氣天下先　四佳醉老頭半白

松岩寺　李穡

松樹蒼蒼石勢頑
葉間風雨半天寒
老僧出定忘聲色
頭上光陰吉似丸

長安門　正祖

霜露桑鄉歲幾翻　萬戶橫臨湖右路
寸心無處答隆恩　三軍氣湧鎭南門
經營屹屹雉墉壯　人和此地豫何力
拱獲重重象設尊　聖德猶傳昔幸溫

東將臺　正祖

畫樓粉壁意氣誇　遲遲臺　正祖
此中常見五雲遮　晨昏不盡慕
高樓直聳爭秋色　此日又華城
萬象俱明泛月華　霢霂寢園雨
景物偏從今夜好　徘徊齋殿情
山川元有四時佳　若爲三夜宿
庭松石妨遲遲長　猶有七不成
長繫淸輪相國家　矯首遲遲路
梧雲望裡生

南門樓(開城)肅宗　善竹橋　尹塾

緩步登臨百尺樓　東橋水爲我公淸
我心非是喜觀遊　血碧千年死若生
今辰闕闕咨詢地　聖祖當時開創業
更願覃恩普八洲　且將成就一人名

彩霞洞　鄭柔燮

石梯老履響新秋　紅塵不到雲遮嶺
一院迢々枕碧流　短髮飄疎風滿樓
月影古松生壑底　此日林塘無限好
鳥聲高槿出墻頭　莫將名利作閑愁

敬德宮　英祖

何幸今辰膽寶閣　紫霞洞　河偉量
昔年此地龍飛宮　松花金紛落
奚但小子愴心切　春澗玉聲寒
至德深仁永不窮　盤石客來坐
仙人舊有壇

滿月臺　安琛

五百年前迹已塵　苔蒻輩路樵成逕
後殿笙歌今寂寞　雨洒球庭草自春
悠々往事憑誰向　東池舟楫久沈淪
崧山蒼翠幾回新　臺下唯餘月一輪

松嶽　李奎報

慾謁靈祠主岳君　時躋絕頂望軒軒
城中前屋如蜂綴　路上千人似蟻奔
藹藹鄉雲圍帝闕　葱葱王氣擁天門
鵠山形勝龍盤屈　自此皇都固帶根

朴淵　申濡

飛流千丈掛天空　若使謫仙吟到此
開鑿當年拔力窮　爐峰未必擅寰中

同　金壽恒

仙風吹袂入山來　一洗西州萬丈埃
勢接天坤懸瀑落　功欺鬼斧劈崖開
層潭水黑龍應臥　古壁巢空鶴未廻
坐到夜闌明月出　玉簫聲徹最高臺

天磨山

朝上白雲峰頂觀
夜深僧定客無眠

聖居山

高僧當日離風塵
千仞岡頭同寄迹
梵宮寂寞煙霞古
疑是岩前聞虎嘯

進鳳山

遠上層峰一徑斜
山中古寺多相似

臨津江

兩岸石壁水中流
明月照舷方皎皎
若爲嘉靖玄菟使
借問同來髯李相

同

秋風嫋々水洋洋
惆悵美人隔千里

長湍渡

長湍風急浪如山
十二時回朝復暮
秋水澄々碧於天
篙師莫唱長湍曲

江華邑城

海山深處一扁舟
自古金湯能害德

洪漢仁

暮投峰下孤庵宿
杜宇一聲山月落

李　穡

龍女相隨事最神
一瓶水底獨藏身
人世悠悠歲月新
至今鳳曆照千春

卞季良

白雲垂地掩僧家
處處春風躑躅花

明使　唐皐

祇合臨津一放舟
微風吹髮亦颼々
不作東坡赤壁遊
有詩笑我未仙石

金富軾

回首長空思渺茫
江邊蘭芷爲誰香

林　椿

欲借孤舟上瀨難
人間何日少波瀾
君王暇日御樓船
此是朝鮮第二年

李　穡

行到華山興未休
移都此地是誰謀

塹星壇

山河險如此
壯哉吾有國
絕頂雲氣流
傾崖俯喬木
臨風發長嘯
餘響振嵓豆

傳燈寺

巘屐登山興自清
窓間遠峀諸天列
星歷蒼茫伍太夫
雲煙緲緲三郎城

白蓮寺

不識招提路
天寒雪滿山

神勒寺

隔岸有僧舍
金碧輝村端
諸天知下界
世尊安中間
俗客少來往

同

遠岫長江外
疎松翠石傍
松堤開福地
普濟敝眞堂

清心樓

李　穡

欲繼蘇門遊
石髓今正綠
日月雨轂輪
宇宙一門屋
此壇非天成
不知定誰築

李　穡

貞和願幢更誰植
傳燈老釋尊吾行
樓下長風吹浪生
壁記塵昏傷客情

權　驛

忽看煙起處
知在亂松間。

崔淑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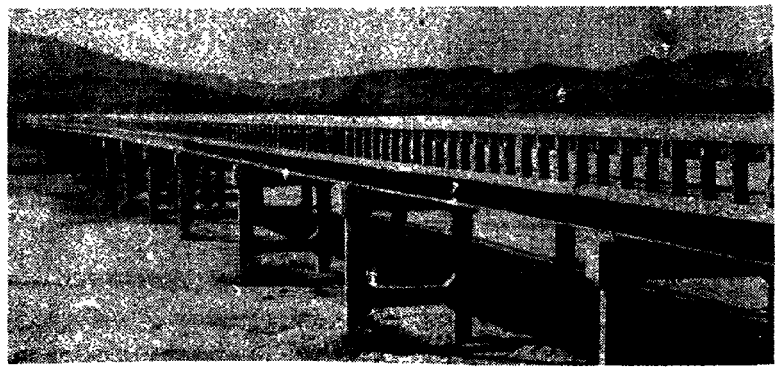
高僧長自閑
晨昏祝香火
聖壽齊南山
門前甓浮屠
歲遠苺苔斑

李　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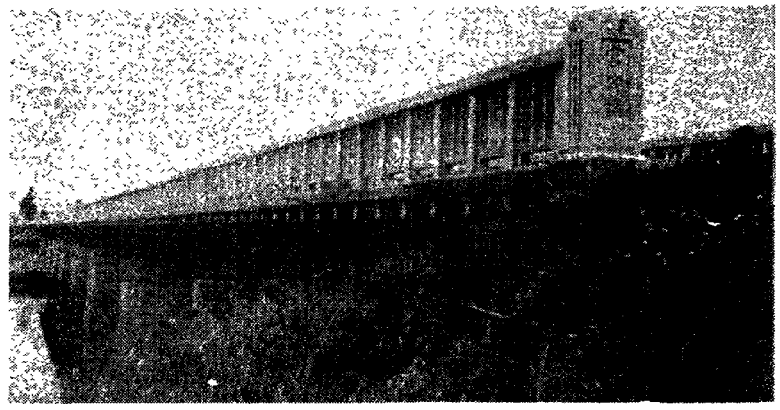
縣命頻腰笏
山僧獨面檣
何當尋野艇
長嘯倚蒼落

鄭夢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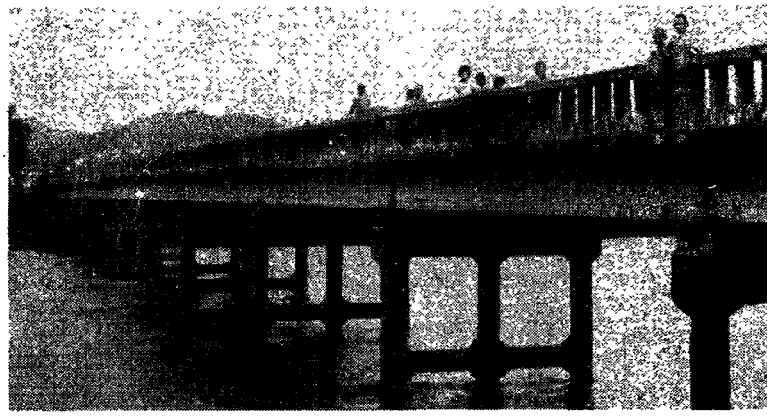
京畿道의代表的橋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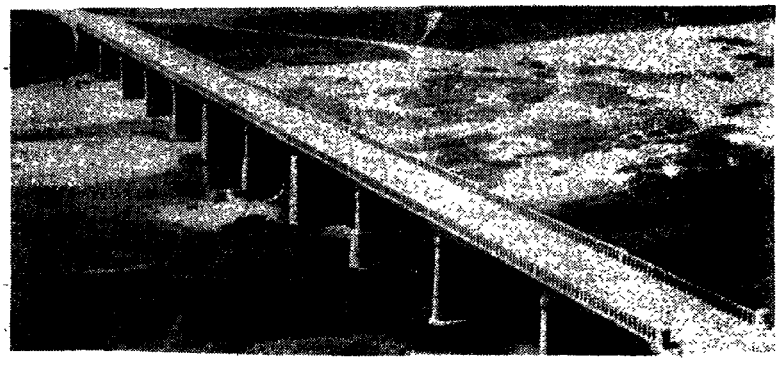
利川　禧河橋



平澤　宮安橋



安城　安城橋



廣州　京安橋

煙雨空濛滿一江　　樓中宿客夜開窓
明朝上馬衝泥去　　回首蒼波白鳥雙

馬岩　　李奎報

雙馬雄奇出水涯　　縣名從此得黃驪
詩人好古好微詰　　來往漁翁豈自至

水從瀑頌　　沙村李軸

一道寒流出水從　　樵童不識長川掛
風吹風沫西淸空　　錯認中天倒白虹

第二節 時調

第一項 江華紀行 六堂 崔南善 作

金浦

富平벌 가로질러 金浦邑內 들어가니
兵火에 묻친자리 우박이도 따렸다해
獨殺年 章陵의숲도 풀없는듯 하여라

文殊山城

나무잎 다떨어져 벌거벗은 文殊山城
있다감 놉은구슬 달린듯한 감나무에
默々히 돌렸든고개 도로돌아 가거라

甲串

蒙古말 滿洲旗때 佛蘭西며 「양키」의배
中共의 槍끝까지 번갈리로 홀랑치니
언제는 甲고지물이 맑을겨를 있으리

丁丑年

무서워 못건너온 蒙古무리 어리석다
一葦와 같은물을 長城으로 믿었다가
丁丑年 그變을당한 朝鮮끌은 어떠뇨

江華

臨津江 漢江가에 성한고을 없다거늘
두江을 겹쳐잡군 江華홀로 까딱없음
를을젠 거짓같더니 보니분명 하여라

仙源殉義地(舊南門터)

丙子年 부끄럼이 江華에서 더甚하랴
仙源이 겨우있어 義氣나마 보이도다
몇사람 글읽은표를 했드라고 하느뇨

哲宗本宮

지계를 내던지고 주저앉던 門前인가
맨발로 뛰어내려 곰배되던 섬돌인가
運命의 심한작난터 와서碑를 만저라

留守營자리

지난번 왔을적엔 轅門重門 다있어서
留守營 옛모습을 더러찾아 보았더니
三十年 지난오늘엔 그도저도 없어라

邑內

집집이 베틀소리 갠하늘에 비끼붓네
소문난 江華색시 부지런히 저러할새
헐벗은 많은사람의 살을가려 주거니

陽五里(花紋席)

子술을 꿰는드키 五色왕골 엮은구나
눈마다 저렇듯이 손이닳고 공드는줄
호사로 마구까는이 알려주고 싶어라

祖 江

昇天浦 어디메뇨 白馬山이 저기로다
한숨의 「共同管理」 저사이에 行하는가
祖江도 궁겁건만은 눈외우고 가노라

練 武 堂

西門안 市場서리 練武堂의 자리라네
다헐던 關門열고 外國맞여 드린곳이
여긴줄 아는이조차 드무신양 하여라

江華南門

晏波樓 한쪽懸板 「江華南門」 크게썼다
監輿로 이虹霓를 드나든이 헤여보니
三百年 近世歷史가 앞에펼쳐 오더라

富近達支石

塹城壇 밀지않고 三朗城을 의심는이
유착한 「고인돌」이 高地마다 헤저있다
아득한 江華의옛날 소리침을 들어라

摩 利 山

멀리서 바라서나 가까이서 우르러나
언제나 우람하고 엄천하신 摩利山을
섞어친 비바람속에 더든든히 뵈와라

傳 燈 寺

子진비 진흙길에 對潮樓를 찾어드니
鼎足山 푸른솔빛 네런듯해 좋을시고
傳할燈 끊어진이제 중없음을 말하리

鼎足山城

丙寅年 十月三日 佛軍물이 어떻든가
악쓰고 들어왔다 끄리빠저 도망하던
虹霓門 그낭남어서 비예젖어 있도다

鹽 河

鹽河를 흘리저어 「손돌이」로 나려가니
廣城에 德津草芝 번차례로 목을빼여
제각금 近世史소임 자랑는양 하여라

廣 城 鎭

一百里 江華外城 헐려거의 없는이제
廣城鎭 한토막이 그림같이 남아있어
신나무 紛墻을안고 한봄꽃을 웃어라

손 돌 목

손돌목 빠저나와 오던길을 돌아보니
어쩌다 그런傳說 생김직도 하다만은
무덤이 저게라함은 않웃읍다 하리오

祭 天 壇

聖檀君 祭天壇을 摩利山에 쌓으신뜻
「여덟미」 바다에서 환히알아 뵈오리라
높으사 陸海를겸쳐 거룩하도 소이다

芍藥島(물치)

芍藥島 은우하고 조고마타 뉘하느냐
한동안 朝鮮와서 「노크」하는 世界손님
언제고 여기를먼저 찾어들어 오니라

濟物浦(仁川港)

各國의 大小艦船 삼대처럼 들러서서
半島의 呼吸口가 鐵箭안에 편안한데
水陸用 「랭크」의떼가 고래놀듯 하더라

(甲午 九月)

第二項 古蹟巡禮 高百祿作

摩尼山上祈願

塹星壇 임의자최 至尊至貴 하옵신곳
훤눈褓 고히펴고 구름잡아 幕을쳐서
三色果 술부어놓고 祖國統一 빕나니

(註)—江華郡華道面 所在

涵虛洞天

摩尼山 涵虛洞天 찾고보니 丹楓일세
손씻고 물마시고 老木걸터 앉었으니
길가에 五色꽃들이 아양떨고 있노라

(註)—江華郡華道面摩尼山所在

普門寺의 밤

해저문 阿此섬에 初生달도 기우노나
山새야 잠드렸니 풍경소리 들기좋다
普門寺 깊어가는밤 나홀로만 새노라

(註)—江華郡三山面席毛島 所在

英陵

우거진 그윽한숲 淸風속에 고요하고
골안도 오붓코나 世宗임금 陵앞에서
大王님 거룩한자최 옷깃엽여 지도다

(註)—驪州郡世宗大王陵

神勒寺

① 眞平王 이룩하신 驪州覺寺 찾아드니
江언덕 五層塔은 옛歷史를 말해주고
仁潭님 맑굴레씌워 神勒寺라 하더라

② 鳳尾山 山기슭에 자리잡은 古閣佛殿
懶翁님 銀杏나무 새소리만 짖어귀니
濟衆生 多情佛心을 우러러만 보노라

③ 南漢江 구비쳐서 東臺바위 감도는데
九龍樓 높은다락 밤바람도 지원코나
고요히 깊어가는밤 버제들만 지새오

(註)—驪州郡 所在

迎月樓

① 둥근달 솟아올제 달맞이도 좋으렸만
馬岩에 漁燈달고 고기낚기 더좋구나
迎月樓 부는피리는 애절하게 들리오

② 笠岩山 아츰놀에 旭日昇天 壯할시고
西山에 지는落照 五色구름 황홀코나
高樓上 四面八方을 무릅치고 보노라

三聖山

① 보라빛 아지랑이 山에덮여 아물대고
寂寞한 山골안에 山寺鍾만 은은코나
塵世를 떠나왔으니 邪心인들 있을야

② 山높고 물도맑아 洞谷안이 幽深한데
소나무 靑靑하고 杜鵑花도 만발이라
간간이 새소리들려 더욱아름 다워라

③ 三聖山 부른이름 세聖人의 뜻이라네
草幕에 風雨막고 精誠드려 修道한터
그자리 이룩한절을 一二三幕 하였오

(註)—三聖山은 始興郡冠岳山과 對立되어있는 山名

念佛庵

① 寺童아 무러보자 너의절이 어떠하뇨
岩壁에 달린法堂 떠러질가 두려웁고
山神閣 五色어리어 그림같다 하더라

② 초라한 庵子뒤에 秀峰斷崖 絶勝일세
石壁의 푸른솔과 바윗잠에 붉은꽃은

이엇지 仙境아니랴 貫珠찍고 보노라
(註)—姓興郡三聖山 所在

二 幕 寺

一幕寺 來歷듣고 二幕寺를 묻고가니
山谷間 빈터전에 기와쟝만 남앗고나
世情이 자조變하여 옛모습이 잇으랴
(註)—始興郡三聖山 所在

佛 成 寺

冠岳山 다섯古刹 자리잡을 佛成寺야
寺境이 안윽하고 四面두루 奇勝인데
山鳥들 興에겨워서 頌春曲만 부르네
(註)—始興郡冠岳山 所在

聖 住 庵

① 眞粉紅 덩굴장미 송이송이 얼킨속에
藥師殿 門제치고 부처님께 合掌祈願
내所望 成就되기를 마음속에 비노라

② 冠岳山 봉우리가 높고얄음 可觀이라
고요한 聖住庵에 시원한맛 떠도는데
溪谷에 흐르는물도 노래읊어 주노나
(註)—始興郡三聖山 所在

落 星 垈

塔골안 한복판에 落星垈址 저石塔은
姜太師 나신記念 길이傳해 알려고저
큰한별 떠러진자리 옛집터라 하더라
(註)—始興郡東面塔洞里 所在

善 竹 橋

① 대를보 썩어지니 외쪽기둥 힘있으랴
文忠公 一片丹心 붉은피를 남겨놓고
李太祖 푸른서슬에 王世끊어 졌도다

② 先生이 가옵신뒤 거친風雲 몰려오고
選地橋 홀러신피 푸른대가 넋이되어
말없이 솟아나와서 善竹橋라 하더라
(註)—開城市 所在

朴 淵 瀑 布

天摩山 높은峰々 萬景臺도 좋을시고
菊秋月 丹楓머리 泛月亭앞 朴淵瀑布
黃眞伊 詩읊든곳을 가고만이 싶어라
(註)—開豐郡嶺北面天摩山城 所在

禿 山 城

① 古城은 허므러지 자최만이 남앗는데
北門밖 紅桃花는 가지가지 滿開로다
그모양 아릿다워라 客이홀로 보노라

② 山城안 寶積寺는 제丹靑이 곱다하고
老少는 봄을찾아 함께즐겨 하노매라
桃源境 찾지마시요 잠시놀고 가리다
(註)—華城郡烏山面洗馬臺山城

洗 臺 馬

흰쌀로 말씻기어 倭敵들을 모라낸자
歲月은 흘러흘러 三百年이 지났어라
높으신 權慄將軍님 功을엇지 잊으리
(註)—華城郡烏山面 禿山城內 所在

隆 陵(華山陵)

서리온 가을날에 夕陽잔디 金빛이요
華山의 莊獻世子 숨은哀史 더듬으니

正祖님 至極한孝誠 눈물겨워 지노라

(註)ㅣ華城郡安龍面 所在

西 湖

① 祝萬堤 수양버들 千糸萬糸 흘날일제
넘치는 瀑布물은 보기에도 壯할시고
雲霧도 西湖風景에 情드리고 가도다

② 꽃잎이 수놋물에 붕어떼가 반겨놀고
麗妓山 고운맵씨 杭眉亭에 愛嬌로다
湖水가 月宮美人은 누구찾아 오시노

(註)ㅣ水原市 所在

訪花隨柳亭

龍池못 잠든물에 푸른별이 반짝이고
春宵의 밝은달은 구름속에 넘나드니
城터에 訪花隨柳亭 옛꿈만이 새롭다

(註)ㅣ水原市 所在

華 虹 門

光敎川 흘르는물 華虹門도 반가워라
그림든 그옛날의 노래소리 들리는듯
잔디밭 이슬밟으며 밤지새어 불가나

(註)ㅣ水原市 所在

長 安 門

風霜도 百七十에 壯嚴하든 長安門아
무삼일 폭격받아 虹霓門만 남았는고
흘어진 古城찾아서 感懷깊게 보노라

(註)ㅣ水原市 所在

鍊 武 臺

덧없이 가는歲月 人間사리 無常코야
靑山에 묻힌白骨 넋인들 있으랴만
李朝의 文武精神을 臺위에서 묻노라

(註)ㅣ水原市 所在

南 漢 山 城

山疊疊 谷深深에 綠水맑게 흘르는곳
山城안 찾아드니 百濟古城 옛모습은
悠久한 歷史지니고 새로이룩 되었오

(註)ㅣ廣州郡 所在

東 門(左翼門)

日長山 나리는물 쉬지않고 흐르나니
해와달 맞이하는 左翼門이 예로고나
樓上에 올라서보니 古色만이 푸르오

(註)ㅣ南漢山城 所在

長 慶 寺

① 長慶寺 찾는길에 望月寺址 언듯보고
재넘어 靑山속을 허위단신 찾아들제

② 숲속에 뻑국새소리 옛님그려 우나니
閑寂한 幽谷인데 홀로있는 長慶寺야
佛桃花 희게피고 芍藥꽃도 붉었어라
南鎭樓 덩비인다락 往事虛無 하고나

(註)ㅣ南漢山城 所在

地 水 堂

한못은 간데없고 池塘둘만 남았는데
亭子에 올라서서 땀을씻고 앉아보니
南鶴鳴 地水堂記에 옛追想이 새롭다

(註)ㅣ南漢山城 所在

顯節祠

三學士 愛國忠烈 松竹같이 푸른마음
淸太宗 네威力이 號令한들 무엇할고
殉節한 세분忠靈께 冥福빌고 가노라
(註)—南漢山城 所在

演武館

鍊兵의 武術鍊磨 예와이제 다르랴만
勇과猛 心身鍛鍊 그자최를 像想할제
누그루 멱갈나무야 너는알가 묻노라
(註)—南漢山城 所在

崇烈殿

日長山 西北허리 푸른숲이 그윽한데
溫祚王 英靈모신 招魂閣을 參拜하니
儒佛敎 百濟文化는 聖王때라 하더라
(註)—南漢山城 所在

西將臺

城따라 높은峰에 守禦將臺 올라보니
淸溪堂 靈을모신 李晦남功 잊을손가
丙子年 無忘樓에서 藍衣玉帶 그리오
(註)—南漢山城 所在

道峰山

① 道峰山 峰頭에는 瑞氣구름 어렸오니
西域國 釋迦敎理 世尊님을 모셨고나
太祖님 부르신이름 萬丈이라 하시다
② 甘露泉 흘러내려 玉泉瀑이 좋을지고
白龍이 품을대고 淳潭으로 찾아든다
奇勝景 道峰洞天을 고루고루 보리다
(註)—楊州郡廬海面道峰里 所在

芿藥島

하늘엔 雲峰疊疊 淳海水는 萬里이냥
水平線 넘어위로 갈매기만 나라든다
西海에 發動船떠고 芿藥島를 찾노라
(註)—仁川市 앞바다에 所在

光陵風景

千古의 密林같은 老木들이 욱어진곳
珍貴한 野禽들은 여기저기 우짖는데
큰나새 啄木소리는 斷俗經을 읊나니
(註)—楊州郡榛接面 所在

龍門寺

山谷을 바라보니 한폭그림 펼쳐논듯
千年前 龍門寺앞 너만아는 公孫樹야
新羅의 麻衣太子가 여기왔다 가신고
(註)—楊州郡龍門面 所在

鳳凰寺

새소리 바람소리 예와다름 없건마는
텅비인 亭子위에 落葉만이 나의끼니
無心코 지나른客이 발멈추고 섯노라
(註)—楊平郡龍門面 所在

淸平川

白雪이 덮인峰은 하늘높이 솟았는데
흐르는 漢江물은 惶恐灘에 소리치데
山높고 물도맑아서 淸平이라 부르오
(註)—加平郡淸平里 所在

幸州치마

치마폭 자갈돌이 좋은武器 될단말이

兵士를 意氣높아 잘도싸워 이겼다네
女子를 幸州치마가 由來있다 하소서
(註)-高陽郡知道面幸州山城에서

碧蹄館

漢陽城 서울길에 오며가며 쉬든곳이
人馬는 끊어지고 빈집터만 남았고나
一閣門 懸板있으니 자최알고 가노라
(註)-高陽郡碧蹄面高陽里 所在

第三項 古蹟頌詩 李東鎔作

洗馬臺

옛사람 간곳없고 城터만이 依舊한데
先人의 遺業遺訓 길이도한 歷然하다
외로운 新樓丹靑이 往事追憶 하더라

芍藥島

갈매기 떼를지어 碧海蒼波 넘나들제
潮水물 들며나며 孤島더욱 有情해라
이곳에 芍藥꽃붉어 범나비를 부른다

防花 隨柳亭

池塘에 잠긴물은 가신님의 눈물이고
楊柳에 감는春風 옛사람의 넋이런듯
丈夫의 爲國忠情을 너만홀로 알리라

南漢山城

南漢도 古都山城 두루古蹟 지난자취
돌하나 풀한포기 屈辱리의 맺인恨을
온겨레 가신님뜻을 빛내볼가 하노라

華山陵

怨痛히 도라가신 넋이라도 깁사올듯
正祖님 出天大孝 山川인들 無心할가
하물며 一個凡夫야 이길어이 잊으리

神勒寺

背後의 鳳尾山과 脚下淸流 漢江水는
四時에 景좋으니 神勒寺를 爲함인가
岩下의 金鯉魚맛은 道僧부러 하리라

塹星壇

江都라 도라드니 蒙古亂의 자취로다
塹星壇 높은곳은 檀君님의 開國터전
一眸의 浩々蕩々은 民族瑞望 이리라

英陵

世宗님 높은뜻은 온百姓을 사랑하심
온世上 빛최이는 한글頒布 끼친恩德
넘게신 英陵山川은 日月같이 빛나리

第三節詩

洗馬臺 月灘朴鍾和作

一、豪氣롭고快하다 華城洗馬臺
울푸른民族精氣 높이솟은곳
壯하다權慄將軍 全羅道에서
千里敵陣헤치고 이곳에陣쳐
十五萬큰敵兵과 對決하면서
幸洲大捷큰作戰 이룩해낸곳
거룩타눈에삼삼 모습이이네

二、푸른하늘百里엔 서울이있고
西으로구름밖엔 西海바닷세
靑山은거듭거듭 屛風같은데
東北편과西南엔 飛行場이라
東南의闕里祠는 道德의터요
咫尺의隆陵健陵 孝心어린곳
울푸른民族正氣 華城洗馬臺

四二八九年十月二十一日作

第三章 國寶、天然記念物篇

指定種別및番號	名稱	所在地	備考
國寶 第六號	中初寺幢竿支柱	始興郡	
〃 第七號	中初寺三層石塔		
天然記念物第七七號	鸞室里의桑		枯死
國寶 第八號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高陽郡	
〃 第三四三號	北漢山舊基里磨崖釋迦如來坐像		
古蹟 第八號	幸州山城		
天然記念物第一〇號	延禧의垂枝赤松		枯死
〃 第六〇號	松浦의白松		
國寶 第九號	開城瞻星臺	開城市	
〃 第一〇號	開城南大門		
〃 第一一號	開城演福寺鐘		
〃 第一五四號	開城善竹橋		燒失
〃 第三三三號	靑滋獅子鈕蓋香爐		
〃 第三三四號	靑滋飛龍形水注		
古蹟 第一五號	開城滿月臺		
天然記念物第一三號	開城「ㅋ다세」棲息地		
國寶 第一二號	觀音寺大雄殿	開豊郡	
〃 第一五五號	玄化寺碑		
〃 第一五六號	玄化寺址七層石塔		
〃 第一五七號	靈通寺址西三層石塔		
〃 第一五八號	靈通寺址東三層石塔		

指定種別및番號	名稱	所在地	備考
〃 第一五九號	靈通寺大覺國師碑	開豊郡	
〃 第一六〇號	靈通寺址五層石塔		
天然記念物第八五號	開城의白松	開城市	
國寶 第一三號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之龜趺及螭首	驪州郡	
〃 第一四號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		
〃 第一五號	高達寺址浮屠		
〃 第一六號	高達寺址石佛座		
〃 第一六一號	驪州倉里三層塔		
〃 第一六二號	驪州下里三層塔		
〃 第三〇〇號	神勒寺祖師堂		
〃 第三〇四號	神勒寺多層石塔		
〃 第三〇五號	神勒寺多層磚塔		
〃 第三五七號	神勒寺普濟尊者石鍾		
〃 第三五八號	神勒寺普濟尊者石鍾碑		
〃 第三五九號	神勒寺大藏閣記碑		
〃 第三六〇號	神勒寺普濟尊者石鍾及石燈		
〃 第一七號	瑞峯寺址玄悟國師塔碑	龍仁郡	
〃 第一八號	江華河岾面五層石塔	江華郡	
〃 第一九號	江華銅鍾		
〃 第二七〇號	淨水寺法堂		
〃 第二九八號	傳燈寺大雄殿		
〃 第二九九號	傳燈寺藥師殿		
天然記念物第七八號	江華甲串里의「탱자나무」	江華郡	
〃 第七九號	江華沙器里의「탱자나무」		
國寶 第二〇號	廣州春宮里五層石塔	廣州郡	
〃 第二一號	〃 三層石塔		
〃 第一六四號	三田渡淸太宗功德碑		
古蹟 第二七號	廣州風納里土城		
〃 第八九號	南漢山城		
〃 第一四號	水原城廓	水原市	
國寶 第二二號	彰聖寺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	華城郡	
天然記念物第三二號	花山의抱合樹「소나무」와「갈출참나무」		
國寶 第一六三號	坡州龍尾里石佛立像	坡州郡	
天然記念物第三一號	大江面의「은행나무」	長湍郡	
〃 第三〇號	(龍門寺의「은행나무」 光陵「크나재」棲息地 (抱川郡蘇屹面包含)	楊平郡 楊州郡	
〃 第一一號			

跋文

人類가 孤立을 버리고 團結하여 相互 依存的인 共同生活을 하여나가는 永遠의 姿態를 巧妙하게도 捕捉하여 「사람은 社會的 動物이다」라고한 希臘의 哲人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94—322B.C.)의 말은 近世史學의 大成者이며 史學史上에 金字塔을 이룩한 란케(Leopold, Von. Ranke. 1795—1886A.D.)로 하여금 「人間은 歷史的 動物이다」라고 喝破케 함으로서 人間이 生成하는 嚴然한 歷史性에 近代的인 새로운 價値를 附與하였든 것이다。

實로 相互依存과 歷史的인 聯關性을 떠나서 人間을 云爲할수는 없는 것이며 漢江 白沙場의 한주먹의 모래알에 祖宗의 얼이 깃들어 있고 白岳의 中腹 허무러진 城壁의 돌 하나에도 父祖의 넋이 어리어 있음을 생각 할때에

끊으면 바로 피가 흐를듯한 連綿한 國史의 傳統에 無垢한 感激을 느끼고 實存하는 自身을 再認識 하여 無限한 歡喜를 不禁하는 바이어늘

하물며 先進들의 粒粒辛苦 努力과 獻身의 結晶인 貴重한 文化財를 集大成한 尨大한 文獻을 對함에 있어서랴。

여기에 完結된 三卷의 京畿道誌 또한 久遠의 過去와 永劫의 未來를 連鎖하는 時空이 交錯된 焦點에 位置한 運命 共同體的인 協業의 所産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一業三代」 또는 「三代秘傳」 이라는 말이 있다。

想起하면 酸風凄雨 六·二五動亂의 戰塵 가시지 않은 一九五二年 七月 道廳 臨時 所在地인 水原에서 構想論議된 道誌 編纂事業이 翌年九月 政府 還都와 同時에 本道廳舍에서 當時의 金健烈 文政課長의 主管으로 斗溪 李丙燾博士의 全的인 指導와 協贊을 얻어서 具體的인 推進을 보게된 爾來 歲閱五次 加一年 마침내 完

成의 快哉를 올리게된 이마당——。

這間 金弘植 文敎社會局長만 唯獨 自初至終 그 任에 留하였을뿐 知事로서(金英基·李益興·崔獻吉) 三代 文政課長으로(金健烈·朴有植·金溶錫·金大根) 四代 文化擔任으로(吳亨鐸·李昌奉·鄭完秀) 三代 編輯擔任으로(高百祿·韓孟淳·李東鎔) 三代——。 이와같이 各其 三代에 亘하여 相繼互承하고 能히 亘帙의 上梓를 完遂하였으니 丈夫의 功業으로 洽足하다 하겠다。

더구나 일즉 道誌 編纂委員會의 副委員長을 經任하였고 事業全般에 亘하여 諮問에 應한 何夢 李相協 先生은 本事業의 完了를 目捷에 둔 一月十四日 三更에 長逝하여 後進의 哀痛이 또한 尤甚한 바이다。 道誌가 占하는 文獻學的 時代史的 意義에 關하여는 霞城 六堂 兩大 先輩께서 上·中 兩卷 序文에 各各 詳說하여 後輩로써 言及할 餘地도 없거니와 再喋함이 오히려 蛇足의 譏謗을 不免 할것이다。

오즉 빛나는 業績에 衷心으로 祝福을 붓이고 特히 가장 오랜 時日을 編輯擔任으로 在하면서 實質的으로 介在한 가진 險路를 果敢하게 克服하고 有終의 美를 거두게한 李東鎔主事의 勞苦에 對하여 執筆委員의 한사람으로 深深한 謝意를 表하는 同時에 道誌編纂을 爲하여 應分의 心血을 기우린 關係 諸彦및機關의 幸福과 아울러 道誌의 生命이 亦是 無疆할것을 祈願하며 猥濫히 短文을 草하여 跋에 代하는 바이다。

京畿道의 將來에 榮光 있으라！

丁酉年三月二十五日 早曉

於 崇仁洞寓舍

許 銘

編輯後記

天下萬物이 반드시 生이 있으면 死가 있고 世上萬事가 始가 있으면 終이있는 法이라 東西古今永劫에 있어서 이 法則에서 어긋나는 일은 人類歷史가 創造된 以後로 아즉도 그 例外變則을 보지못한바 人生의 一生이나 事業의 境遇 그 成敗消長에 있어서 비록 長短은 있을지언정 또한 그 歸結이 一般이니 於是乎 本京畿道誌 編纂事業에 있어서도 엇지 그 規範을 逸脫할수가 있을가부냐 其間事業을 始發한지 於焉五個星霜에 지나온 經路을 省顧할때 가진險路와 難關을 克服하고 許多한 波瀾曲折을 겪이어 實로 荊路를밟어서 及其也 終着의 彼岸에 到達한 此際 感懷 또한 없을수없는 바이다。

於事에 着手는 곳 成功이라 內容의 完否는 固捨하고라도 잘됐던 못됐던間에 임의 結實을 보게 된 오늘날 「교슴도치 제 새끼 함함 하다는格」으로 自畫自讚이않이라 僥倖이나 其脫出한 全貌을보고 이여 負荷된 重任을 끝맞이게되니 몸이 輕快하여 스스로 自慰自祝하는 마음 또한 없지않은 바이다。

이것을 一言而蔽之하면 「시원섭섭」으로 充分히 表顯되였다 할것이다。

當初計劃은 좀더 內容의 昭詳充實과 取材의 豊富完備를 自期하였으나 許與된 諸般條件이 如意치 못하였음은 勿論 不足한 經費로 以上더 延期할수도 없어서 不得已 潰懷이나 이것으로 終結을 짓고보니 時間만 遷延했고 이事業을 開刱하여 不省에게 그 編輯의 任을 當咐하신 關係上司와 委員諸位께 對하여 未安罪悚으로 사즉도 未洽不備가 甚多함을 自認하게 되고보니 비록 成卷은 되였으나 오히려 隔靴搔痒之感을 不禁하는 바이다。

日後 다시 適當한機會에 本道文化事業에 至大한 關心을 갖이고 斯種事業의 完璧을 期하려는 指導級의人士나 學究的으로 배우려는 研讀之徒에게 多少나마 參考가 된다면 이것을 根據하여 修正增補로서 더욱 一大完成을 期해줄것을 바라며 이것으로 本道의 有形無形의 現況과 旣知未知의 事實을 一毫만치라도 紹介 되였다하면 더욱히 多幸으로 先輩有志諸彦은 勿論、陰으로 陽으로 本誌發刊에 指導鞭韃을 앗끼지 않아주신 關係委員및 協助機關 特히 利害를 超越하여 道誌發刊에 始終一貫 積極協助 해주신 鮮光印刷株式會社長 金是達氏의 誠意에 對하여 滿腔의謝意을 表하는 비이다。

道誌編纂 事業完了에 際하여 本道에 榮光있기를 빌며 叙上으로 一言編輯後記에 代하는 바이다。

丁酉三一節　　於白岳山下　　京畿道廳一偶

編輯子記